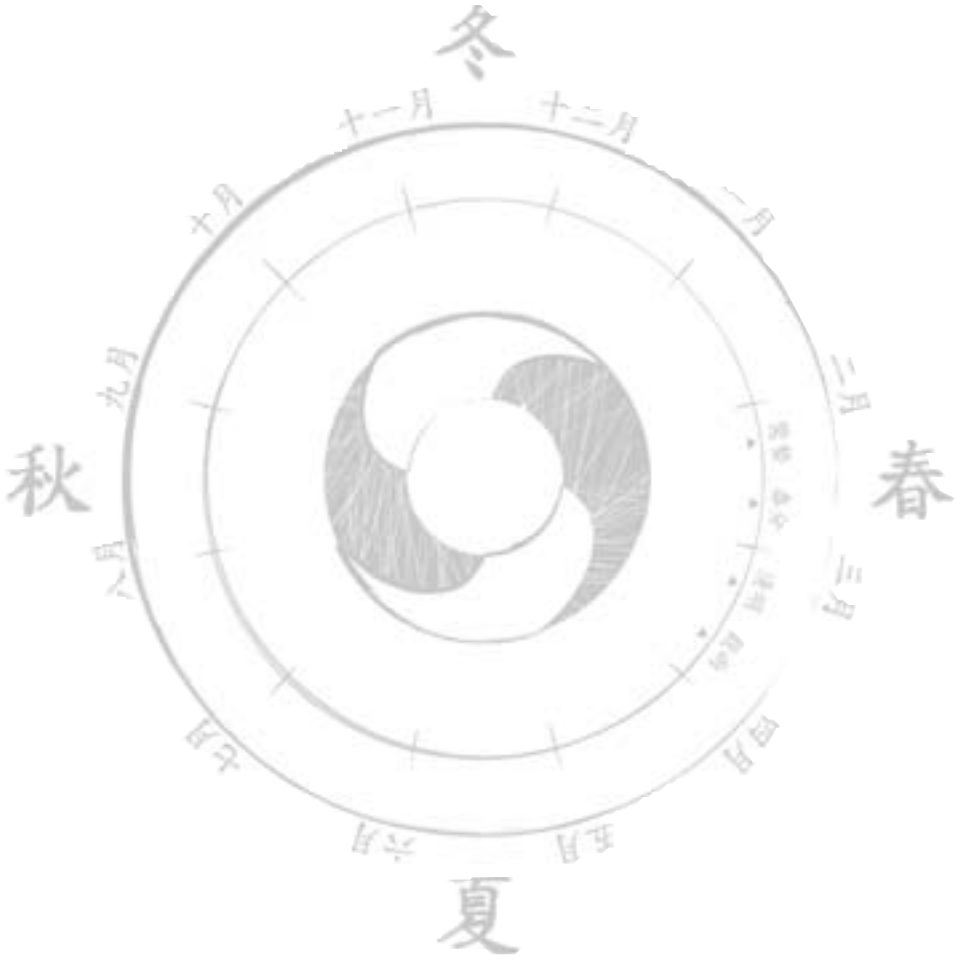
한국세시풍속사전

봄 편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일러두기

❀ 사전의 전체 구성

1. 『한국세시풍속사전』은 정월편, 계절 세시편(봄 · 여름 · 가을 · 겨울), 부록 및 색인편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월편은 일년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분권하였고, 계절 세시편의 경우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었다. 봄편은 음력으로 2월, 3월에 해당하고 여름편은 4월, 5월, 6월에 해당한다. 가을편은 7월, 8월, 9월에 해당하고 겨울편은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한다. 윤달은 겨울편에 배속시켰다. 부록 및 색인편은 마지막권으로 분류하였다.

❀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 선정 범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세시풍속은 물론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만들어진 세시풍속을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라 함은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독립 항목으로 등재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표제어는 5층위로 나누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제어의 층위는 표제어의 크기와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 1층위 표제어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다.
      나. 2층위 표제어는 1월, 2월, 3월……12월, 윤달 등이다.
      다. 3층위 표제어는 정일(定日), 절기(節氣), 월내, 생업, 현대세시 등에 해당하는 표제어이다. 현대세시 가운데 축제는 2000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축제만을 선별하였다.
      라. 4층위의 표제어는 정일, 절기 등 3층위 표제어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시행위를 말하며 이칭, 의례, 속신, 복식, 절식, 놀이, 구비전승 등을 말한다.
      마. 5층위 표제어는 4층위 표제어의 하위항으로 주로 지역적인 양상과 관련된 표제어이다.
   3) 각 층위 속에서의 순서는 가나다순에 따랐다.

❀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릴 때 썼다. 주로 방언이나 비표준어로 나타나는 유의어를 뜻풀이할 때 표기하였다. 시의 제목이나 노래 제목에도 사용하였다. 단, 가운뎃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큰따옴표 "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낫표 『 』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표 「 」 :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괄호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와 어려운 한자어를 본문에서 풀어쓰고 본디 음을 한자로 병기할 때, 그리고 ( ) 밖에 또다시 괄호를 넣어줘야 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6) 소괄호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줄임표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8) 가운뎃점 ·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그리고 특정의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표기하였다.

(9) 온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문장을 마칠 때 표기하였다.

(10) 물결표 ~: '내지'라는 뜻을 나타낼 때와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표기하였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쓰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실음에 따른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원음대로 표기하고 가급적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를 피했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할 수 있다.

5) 도량형 · 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우리말로 썼다.

2. 용어 및 인명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단, 표기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는 관련 학술기관의 용례집에 따르고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3.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를 밝혔다.

❁ 참고사항

1. 『한국세시풍속사전』 봄편은 정월편과는 사진의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 정월편의 경우는 원고매수가 많아 분량의 늘어남을 감안하여 사진의 크기를 작게 했던 반면에 봄편의 경우는 다소 크게 구성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2. 양력세시의 표제어에 보면 음력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으나 양력을 기준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봄편 3월에 은산별신제와 같은 표제어가 들어가게 되었다.

❁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권말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차 례

일러두기 ····· 02

봄(春) ····· 10

봄(春) ····· 12
기후(氣候) ····· 12
동물(動物) ····· 14
생업(生業) ····· 16
세시풍속(歲時風俗) ····· 17
식물(植物) ····· 20

Ⅰ. 이월(二月) ····· 24

2월(二月) ····· 26
이칭 감춘(酣春) ····· 28
대장월(大壯月) ····· 28
묘월(卯月) ····· 29
뱃놈의 액달(-厄-) ····· 29
여월(如月) ····· 29
여월(麗月) ····· 30
여한(餘寒) ····· 30
영동할미달 ····· 30
영월(令月) ····· 31
제석달[帝釋月] ····· 31
제석할미달(帝釋-) ····· 31
중양(仲陽) ····· 32
중춘(仲春) ····· 32
춘은(春殷) ····· 33
춘한(春寒) ····· 33
협종(夾鐘) ····· 33
화조(華朝) ····· 33

Ⅱ. 정일(正日) ····· 34

이월 초하루 ····· 36
이칭 구럭달기 ····· 36
권농일(勸農日) ····· 37
나이떡날 ····· 37
노래기날 ····· 38
노비일(奴婢日) ····· 39
농군의 날(農軍-) ····· 39
머슴날 ····· 39
삭일(朔日) ····· 41
선머슴날 ····· 41
여종날[婢日] ····· 41
일꾼날 ····· 42
중화절(中和節) ····· 42
콩볶아먹는날 ····· 42
하리아드레날 ····· 43
의례 볏가릿대내리기 ····· 43
중화척(中和尺) ····· 43
하루다지고사(-告祀) ····· 44
속신 나이떡먹기 ····· 45
노래기부적(-符籍) ····· 45
누에떡걸기 ····· 46
단술먹기 ····· 46
목화풍년놀이(木花豊年-) ····· 46
바람몰이 ····· 47
방문자점[來客卜] ····· 48
볶음점 ····· 48
삼점[麻占] ····· 49
섬밥먹기 ····· 49
장닭꼬리점 ····· 49
콩점[豆占] ····· 50
노비송편[奴婢松餠] ····· 51
놀이 콩따먹기놀이 ····· 51
구비전승 이월 초하룻날 장닭
꼬리만 날려도 곡식이 준다 ····· 51

영등날 ····· 51
이칭 바람님 오는날과 가는날 ····· 54
바람이 불면 안 되는 날 ····· 55
영동할머니날 ····· 55
이월밥 해먹는 날 ····· 55
이월할매 먹는날 ····· 56
의례 영등굿 ····· 56
영등맞이 ····· 58
영등제 ····· 58
제주칠머리당굿 ····· 61

풍신제(風神祭)…… 65
속신 영등날바람점 …… 65
영등물뜨기 …… 65
놀이 떼몰이놀이 …… 66
말뛰기놀이 …… 66
약마희(躍馬戱)…… 66
영감놀이(令監-) …… 68
구비전승 영등달 초하루 사흘 맑으면 종달리 여자
죽젓개 들고서 춤춘다 …… 70
영등할머니 청치마 입어서 들어오면
날 좋고, 우장 써서 들어오면 비 내리고,
누비옷 입고 들어오면 춥고,
사나우면 바람 분다…… 70

좀생이날 …… 71
이칭 좀상날 …… 72
좀생이 보는 날…… 72
속신 좀생이점 …… 73
놀이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江陵沙川荷坪踏橋-) …… 75

무방수날 …… 78
이칭 물방새날 …… 79

밴대채날 …… 79

Ⅲ. 절기(節氣) …… 80

경칩(驚蟄)…… 82
이칭 계칩(啓蟄)…… 83
의례 둑제[纛祭] …… 83
속신 개구리알먹기 …… 85
개구리울음점 …… 86
고로쇠물마시기 …… 86
보리싹점 …… 88
구비전승 경칩 지난 게로군…… 88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겨울잠을 깬다 …… 88

춘분(春分)…… 88
의례 개빙제(改氷祭)…… 89

Ⅳ. 월내(月內) …… 90

의례 강화외포리곶창굿(江華外浦里-) …… 92
경행(經行)…… 96
마조제(馬祖祭)…… 96
문묘석전(文廟釋奠)…… 97
복회(福會)…… 97
사직대제(社稷大祭)…… 98
상정제(上丁祭)…… 103
석전대제(釋奠大祭)…… 103
선농제(先農祭)…… 106
악해독제(嶽海瀆祭)…… 109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110
연등회(燃燈會)…… 112
진좌제(鎭坐祭)…… 112
춘계문묘석전(春季文廟釋奠)…… 113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117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120
속신 뇌성점(雷聲占)…… 122
동곳점 …… 122
떡뜸질 …… 123
삼묘일보기(三卯日-) …… 123
절식 냉잇국 …… 124
물쑥나물 …… 125
씀바귀나물 …… 125
구비전승 거름내는소리 …… 126
논가는소리 …… 127
논고르는소리 …… 128
논둑가래질소리 …… 129
논삶는소리 …… 130
따비질소리 …… 131
밭가는소리 …… 132
밭매는소리 …… 133
밭일구는소리 …… 134
소모는소리 …… 134
써레질소리 …… 135
집터다지는소리 …… 135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 136
꽃샘추위는 꾸어다 해도 한다 …… 136

차 례

이월 눈이 지게를 덮는다 …… 136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 137
이월에 보리 환상(還上) 갔다가
얼어 죽는다 …… 137
2월 천둥이 조기 몰아 올린다 …… 137

V. 생업(生業) …… 138

농업 가래질하기 …… 140
가지파종 …… 140
감자심기 …… 141
고구마심기[甘藷-] …… 143
고추파종[苦椒播種] …… 145
논갈이 …… 146
담배심기 …… 147
대마파종(大麻播種) …… 149
박심기 …… 150
밭갈이 …… 150
보리밭김매기 …… 151
봄보리파종 …… 152
부추파종 …… 152
선배머슴대접하기 …… 153
써레질 …… 153
참외파종 …… 155
춘경(春耕) …… 155
파파종 …… 156
어업 대구잡이 …… 156
듬북조문 …… 158
숭어잡이 …… 159
지충캐기 …… 162
주꾸미잡이 …… 162
춘태잡이(春太-) …… 163

VI. 양력세시 …… 164

현대세시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 166
졸업식(卒業式) …… 168
축제 아우내봉화제(-烽火祭) …… 171
죽서문화제(竹西文化祭) …… 171
태기문화제(泰岐文化祭) …… 173

I. 삼월(三月) …… 174

3월(三月) …… 176
이칭 가월(嘉月) …… 179
계춘(季春) …… 179
고선(姑洗) …… 179
도월(桃月) …… 179
동월(桐月) …… 180
만춘(晩春) …… 180
모춘(暮春) …… 180
방신(芳辰) …… 180
병월(**病**月) …… 181
소화(韶華) …… 181
염양(艶陽) …… 181
잠월(蠶月) …… 181
재양(載陽) …… 182
전춘(殿春) …… 182
진월(辰月) …… 182
춘화(春和) …… 182
춘훤(春暄) …… 183
쾌월(**夬**月) …… 183
혜풍(惠風) …… 183
화월(花月) …… 183

II. 정일(正日) …… 184

삼짇날 …… 186
이칭 계음일(**禊**飮日) …… 189
답청절(踏靑節) …… 189
삼삼일(三三日) …… 189
삼샛날 …… 190
삼진일(三辰日) …… 190
상사일(上巳日) …… 190
상제(上除) …… 190
여자의 날(女子-) …… 191
원사일(元巳日) …… 191
제비오는날 …… 191
중삼일(重三日) …… 191
의례 봉화산도당굿(峰火山都堂-) …… 192
산맥이 …… 196

산메기 …… 196
삼짇고사(-告祀) …… 200
삼짇불공(-佛供) …… 201
시제(時祭)…… 201
향사례(鄕射禮)…… 202
속신 갓난아기머리깎기 …… 204
까치집점 …… 204
나비점 …… 204
날씨점[氣候占] …… 205
동물점(動物占)…… 206
머리카락 물에 띄우기 …… 206
머리카락 잘라묻기 …… 207
제비맞이 …… 207
제비보고말하기 …… 207
제비집점 …… 208
절식 진달래화채 …… 209
수면(水麵)…… 209
화면(花麵)…… 209
화전(花煎)…… 210
놀이 답청(踏靑)…… 210
화류(花柳)…… 211
화전놀이(花煎-) …… 211
구비전승 화전놀이노래 …… 214

한식(寒食)…… 215
이칭 고초일(苦草日)…… 217
공마일(空魔日)…… 217
금연일(禁煙日)…… 217
냉절(冷節)…… 217
의례 개사초(改沙草)…… 218
무자후제사(無子后祭祀)…… 219
문소전제(文昭殿祭)…… 222
사초(莎草)…… 223
한식성묘(寒食省墓)…… 223
한식절사(寒食節祀)…… 223
한식차례(寒食茶禮)…… 226
속신 날씨점[氣候占] …… 228
놀이 돈돌날이 …… 229
구비전승 돈돌날이 …… 231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 233

III. 절기(節氣) …… 234

청명(淸明)…… 236
의례 개화(改火)…… 236
반화(頒火)…… 237
속신 날씨점[氣候占] …… 237
구비전승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238

곡우(穀雨)…… 238
속신 곡우물마시기 …… 240
구비전승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 …… 240
곡우에는 못자리를 해야 한다 …… 241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 …… 241

IV. 월내(月內) …… 242

의례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 244
광양당제(廣壤堂祭)…… 248
구리갈매동도당굿(九里葛梅洞都堂-) 249
국사신당제(國師神堂祭)…… 253
꽃맞이굿 …… 254
만구대택굿(萬口大擇-) …… 257
만수대택굿(萬壽大擇-) …… 262
방생재(放生齋)…… 262
벗고사(-告祀) …… 263
선잠제(先蠶祭)…… 264
숭선전제례(崇善殿祭禮)…… 268
영해별신굿놀이(寧海別神-) …… 270
조기심리 …… 272
차귀당제(遮歸堂祭)…… 272
철물이굿 …… 273
칠사(七祀)…… 276
속신 까마귀새끼점 …… 277
담치점[紅蛤占] …… 278
당산나무잎점 …… 278
마디점 …… 279
소쩍새울음점 …… 280
절식 개피떡 …… 280
도미국수 …… 281
마제병(馬蹄餠)…… 281

차 례

복어국[河豚羹] …… 281
산병(饊餠) …… 282
서여증식(薯蕷蒸食)…… 283
석수어탕(石首魚湯)…… 283
수란(水卵)…… 284
쑥국[艾湯] …… 285
쑥굴리 …… 285
쑥단자[香艾團子] …… 286
쑥떡[艾餠] …… 287
쑥버무리 …… 288
애탕(艾湯)…… 289
조기탕(-湯) …… 289
탕평채(蕩平菜)…… 289
환병(環餠)…… 290
황저합탕(黃苧蛤湯)…… 290
놀이 개꽃상여놀이 …… 290
궁술회(弓術會)…… 291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 …… 292
닭싸움[鬪鷄] …… 294
마산오광대(馬山五廣大)…… 295
삘기뽑기 …… 296
삼색유산놀이(三色遊山-) …… 296
전춘(餞春)…… 297
지게상여놀이 …… 297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 297
투계(鬪鷄)…… 298
풀각시놀이[閣氏戱] …… 298
풀싸움 …… 300
호드기불기 …… 301
활쏘기대회[射會] …… 302
구비전승 나물캐는노래 …… 304
염전밭가는소리 …… 305
진달래꽃노래 …… 306
고사리를 아홉 형제이다…… 307
동지섣달 긴긴밤에 임 없이는 살아도,
삼사월 긴긴해에 점심 없이는 못 산다
…… 307
보리 안패는 삼월 없고,
나락 안패는 유월 없다 …… 308
봄 이는 띠밭에도 간다 …… 308
봄 문절이는 개도 안 먹는다 …… 308
봄 잠은 가시덤불에 걸어져도 잔다 … 309
봄 해에는 아기 데리고
차조 한 말 번다 …… 309
봄꽃도 한때 …… 309
봄 꿩이 제 바람에 놀란다 …… 309
봄 꿩이 제 울음에 죽는다 …… 309
봄내 여름내 사등이뼈가 휘다 …… 310
봄 눈 녹듯 하다 …… 310
봄떡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 310
봄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 311
봄물에 방개 기어나오듯…… 311
봄바람에 말좆도 터진다…… 312
봄바람에 여우가 눈물 흘린다 …… 312
봄바람은 처녀바람,
가을바람은 총각바람 …… 312
봄 방 추우면 맏사위 달아난다 …… 313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313
봄 불은 여우불이라…… 314
봄비가 잦으면 마을집
지어미 손이 큰다…… 314
봄비는 벼농사 밑천이다…… 314
봄 사돈은 꿈에 보기 무섭다 …… 315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본다…… 315
봄에 씨 뿌려야 가을에 거둔다 …… 315
봄에 의붓아비 재 지낼까 …… 316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 316
봄에는 굼벵이도 석 자씩 뛴다 …… 316
봄에는 생말가죽이 마른다…… 316
봄 조개 가을 낙지 …… 317
삼사월 아기 어머니 돌이라도
이빨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 317
삼사월에 난 아기
저녁에 인사한다 …… 317
삼사월에는 말가죽도 뻣뻣하다…… 317
삼사월에는 숭어 눈 어둡다 …… 318
삼사월 웅마 …… 318
삼월 보름 무수기부터 살림 가른다 … 318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도둑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 318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선비 부인도
바구니 차고 내닫는다 ····· 318
삼월달에 명주실 선돈 쓴다 ····· 319
삼춘(三春) 고한(苦旱) 가문 날에
감우(甘雨)오니 즐거운 일 ····· 319
진달래꽃 피면 청어 배 돛 단다 ····· 319

V. 생업(生業) ····· 320

농업 기장파종[黍播種] ····· 322
나물채취 ····· 322
누에치기 ····· 323
늦벼파종[晩稻播種] ····· 324
모판준비 ····· 325
목화파종(木花播種)····· 326
무배추파종 ····· 327
밭벼파종[山稻播種] ····· 327
밭작물파종 ····· 328
볍씨담그기 ····· 329
볍씨치기 ····· 330
보냄 ····· 331
봄바령[糞田] ····· 331
올벼심기[早稻-] ····· 332
참깨파종 ····· 333
토란심기[土蓮-] ····· 334
피파종[稷播種] ····· 335
호박심기 ····· 335
어업 갈치잡이 ····· 336
게잡이 ····· 337
까나리잡이 ····· 340
미역해경(-解警) ····· 340
바다풀채취 ····· 341
바룻질 ····· 342
밴댕이잡이 ····· 342
빅게잡이 ····· 343
소금생산 ····· 344
조기잡이 ····· 345
잡사 게장담그기 ····· 347
꼴뚜기젓담그기 ····· 348
꽁치젓담그기 ····· 348
두견주빚기(杜鵑酒-) ····· 349
두부장담그기(豆腐醬-) ····· 350
마농지담그기 ····· 350
밴댕이젓담그기 ····· 351
봄케매기 ····· 353
송순주담그기(松筍酒-) ····· 354
장담그기[沈醬] ····· 356
진달래꽃술담그기 ····· 358
청명주담그기(淸明酒-) ····· 358

VI. 양력세시 ····· 360

국경일 3·1절(三一節) ····· 362
기념일 납세자의 날(納稅者-) ····· 363
상공의 날(商工-) ····· 363
현대세시 입학식(入學式)····· 364
화이트데이(White Day) ····· 365
축제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江陵沙川荷坪踏橋-) ····· 365
영산 3·1민속문화제
(靈山三一民俗文化祭)····· 366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369
행주대첩제(幸州大捷祭)····· 371

색인 ····· 372





春 봄

봄철은 밭농사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이월이 되면 농민들은
봄채소를 심을 밭갈이를 하고
밭 주변에 울타리를 새로 쳐서
가축들이 채소밭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대비한다.
이월 초하루를 흔히 머슴날이라 한다.
이제 농사 일을 알려주고
머슴을 위로하는 날이다.
주인은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머슴들은 풍물을 치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정월 열나흗날 세운 벚가릿대도
이 날 털어낸다.
또 이 날 나이떡이라 하여
송편을 빚기도 한다.
설날의 떡국이 나이를 가늠하듯이
이 날의 떡을 감별해 나이떡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월 초하루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春



春
봄

봄 풍경
경기도 용인시 이창호

기후(氣候)

봄은 사계절 가운데 첫 번째 계절로 겨울과 여름 사이를 말한다. 봄은 초목이 싹트는 따뜻한 계절이지만, 날씨 변화가 심해 따뜻하다가 다시 추워지기도 하며 기상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기상학적으로는 양력 3, 4, 5월을 봄으로 분류하지만, 천문학적으로는 춘분(春分, 3월 21일경)에서 하지(夏至, 6월 21일경)까지를 일컫는다. 절기(節氣)상으로는 입춘(立春, 2월 4일경)에서 입하(立夏, 5월 6일경) 이전까지를, 음력으로는 정월부터 3월까지를 봄이라 한다. 태양의 운동에 기준을 둔 천문학적 계절 구분이 친숙하여 자주 사용되지만, 지역적인 기후 요소의 변동을 고려하기 힘들므로 기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기상 요소의 변화, 기압 배치, 기단, 전선의 특징을 고려한 기후 또는 자연 계절 구분에서 봄은 '초봄[早春]', '봄', '늦봄'으로 구분된다. 초봄의 기준은 늦가을, 봄은 가을, 늦봄은 초가을과 같은 기온 조건을 통해 분류된다.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봄에는 일평균 기온이 5~10도, 일최저 기온이 0도 이상이다. 서울은 대체로 3월 19일경에서 4월 11일경까지, 대구는 3월 15일에서 4월 8일까지, 최남단인 제주도는 2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다.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일기(日氣)가 주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봄은 일평균 기온이 10~15도, 일최저 기온이 5도 이상인 기간으로, 대체로 서울에서는 4월 12일부터 5월 6일까지, 대구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는 3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다. 늦봄은 일평균 기온이 15~20도이고, 일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는 때이며, 서울은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구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에 해당된다. 제주는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다. 늦봄에는 일기의 주기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맑은 날이 지속되고, 한여름같이 무덥기도 하다.

생물계절(生物季節) 상의 분류로 보면, 봄은 동물이 활동을 시작하고, 식물이 발아(發芽)하고 개화(開花)하는 시기이다. 봄의 화신(花信)이라 불리는

개나리와 진달래의 개화는 남쪽에서 시작하여 봄의 진행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한다. 진달래의 개화가 가장 빠른 곳은 울산으로 3월 25일경이며, 같은 시기에 개나리는 남해안에서 개화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에서는 4월 5일경, 평양 일대에서는 4월 10일 이후,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4월 20일 이후로 늦어진다. 난류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높은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개화 시기가 빠르다.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의 개화일은 제주가 3월 30일경, 남해안 지방이 4월 5일경, 서울과 중부 지방이 4월 15일경, 신의주와 함흥 이북의 북부 지방이 4월 30일경, 청진 이북은 5월 10일 이후이다.

봄을 알리는 제비를 처음 볼 수 있는 시기는 남해안에서는 4월 중순이다. 북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늦어져서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서는 4월 하순이고 함경북도 일대는 5월 상순이다. 동면(冬眠)하던 개구리는 남부 지방과 중부 지방에서는 4월 5일경에, 북부 지방에서는 4월 20일 경에 땅으로 올라온다.

봄의 가장 대표적인 기후 특징은 태양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북서계절풍의 세력이 현저하게 약해진다는 것이다. 봄철이 되면 겨울 동안 맹위를 떨치던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서 계절풍도 약화된다. 약화된 고기압에서는 그 일부가 분리되어 성격이 변질된 이동성 고기압이 생성된다. 우리나라 봄철의 날씨를 지배하는 이동성 고기압은 온난건조하고 중국에서 동진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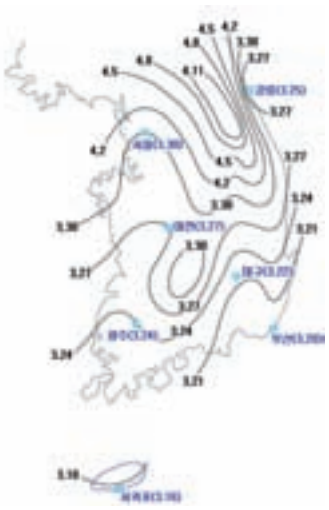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는 날씨가 맑고 일조량(日照量)도 증가하여 기온이 올라가 따뜻한 날씨가 된다. 그러나 그 뒤에는 비를 동반하는 저기압이 이동하여, 변덕이 심한 날씨를 나타낸다. 변화가 심한 봄 날씨는 3~4일 주기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빈번한 통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봄에는 일년 중 일기 변화가 가장 자주 일어나며,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일기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

한편, 이른 봄에는 때때로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되살아나서 한파의 형태인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꽃샘추위는 벚꽃의 개화기까지도 나타나며, 겨울 한파가 다시 되돌아온 것과 같은 봄추위를 느끼게 한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데 이것은 빈번한 저기압의 통과와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나온 이동성 고기압의 통과가 주원인이다. 또한 대기 상하층의 온도차에 따르는 난류(亂流) 때문인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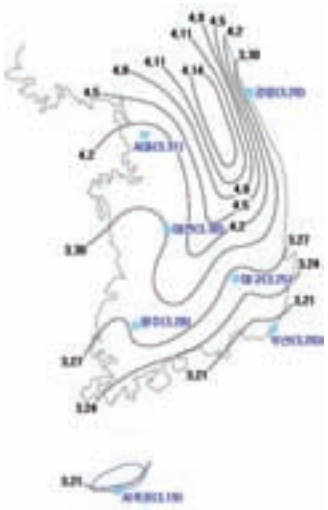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통과할 때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 기온을 높혀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다. 봄철 강수량은 겨울철 다음으로 적어 연강수량의 15~25퍼센트에 불과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5~20퍼센트 내외이다. 따라서 봄철에는 가뭄이 발생하기 쉽다. 봄철 가뭄은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띠 모양으로 오래 정체할 때 발생하며, 이때 이상 건조 현상(異常乾燥現象)도 일어난다. 보통 3~4월의 평균 습도가 60~70퍼센트 정도이지만, 고기압 내에서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져 3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 건조와 강한 봄바람은 산불을 포함한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봄철 가뭄이 초여름까지 계속되고 장마가 늦어지는 해에는 남부 지방에 극심한 한발이 일어난다.

봄철에는 낮 기온은 높으나, 밤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큰 것이 특색이다. 그 결과 야간의 복사냉각(輻射冷却)에 의하여 안개가 발생하기 쉽고 때로는 늦서리도 내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또 봄철에는 황사(黃砂) 현상이 일어난다. 황사 현상은 고비사막이나 몽고, 중국의 화북 지방 같은 건조 지역의 황진(黃塵)이나 황사가 고층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를 지나 멀리 북미 대륙까지 운반되는



개나리 개화지도(2005년 기준) 기상청



진달래 개화지도(2005년 기준) 기상청

과정에서 발생한다. 황사 현상은 겨울철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4~5월에 4~5회 정도 일어나며 시정(視程)을 나쁘게 한다. 황사는 중국으로부터 오염 물질을 날라오는데, 이때 비가 내리면 자동차나 건물에 누런 황토가 덮인다. 황사가 봄에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표면에 눈이 녹은 후 건조한 황토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이다. 봄철 맑은 날에 햇볕이 강하게 쬘 때 지면 부근에서 불꽃과 같이 아른거리며 위쪽으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현상인 아지랑이도 봄을 대표하는 현상이다.

늦봄인 5월은 비교적 기온이 높아서, 신록(新綠)이 나타나는 때로 초여름이라고도 한다. 이 시기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맑은 날씨가 오래 지속되고, 높새바람이 자주 분다.

참고문헌 | 韓國의 氣候(金光植 外, 一志社, 1973), 氣候學槪論(金蓮玉, 正益社, 1977), 한국의 기후와 문화 -한국 기후의 문화 역사적 연구-(金蓮玉,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기후(이현영, 法文社, 2000), 기후학의 기초(이승호 외, 두솔, 2002).
필자 | 최영은(崔英銀)

동물(動物)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80여 종의 포유동물 중에서 봄과 관련된 동물은 멧토끼를 비롯한 4~5종이다. 봄이 시작되는 음력 정월은 아직 눈이 많은 계절이다. 마을 청년들은 인근 야산에서 일명 산토끼라고도 부르는 멧토끼(*Lepus sinensis*) 사냥을 하였다. 멧토끼는 눈이 많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덤불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잡히며, 고기는 식용으로, 가죽은 남바위나 토시용으로 쓰였다.

정월에 눈이 많이 온 날이면 멧돼지(*Sus scrofa*) 사냥 또한 빼놓을 수 없었다. 폭설이 멎은 날 아침, 청년 10여 명이 한 조가 되어 창으로 무장하고 먹이를 구하러 산기슭을 내려와 폭설에 갇힌 멧돼지를 사냥하였다. 이 사냥에 남도에서는 진돗개, 북도에서는 풍산개가 합류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똥개가 따라갔다. 멧돼지는 성질이 매우 거칠고 힘이 세며 저돌적이라 10여 명의 장정들이 힘을 합쳐야만 눈 속에 갇힌 것이라도 잡을 수 있다. 멧돼지 사냥은 무료해지기 쉬운 긴 겨울에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다지는 산간지방의 축제와도 같은 행사였다. 멧돼지 사냥에 성공하면 저녁에 마을잔치가 열렸다. 삶은 멧돼지의 귀는 썰어 귀가 밝게 오래 살라는 뜻으로 노인들에게 대접했다. 어린이들은 멧돼지의 오줌보에 바람을 불어넣어 축구공처럼 차고 놀았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었으나 194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흔했던 여우(*Vulpes vulpes*)는 가을에 겨울 털갈이를 한다. 정월 여우의 털가죽은 그 질이 좋아 농촌과 산촌 지역 청년들이 야산에서 여우잡이를 하였다. 직업적인 사냥이 아니라 덫을 놓아 어쩌다 잡은 여우는 가죽을 벗겨 여우목도리를 만들어 부녀자의 나들이 용품으로 썼다.

인가 근처에서 집쥐나 들쥐를 잡아먹어 이로운 동물로 여기는 족제비(*Mustelar sibirica*) 역시 여우만은 못하나 털가죽의 질이 좋아 사냥감이 되었다. 야행성인 족제비는 날렵한 몸매로 좁은 굴을 들락거리면서 작은 설치류인 집쥐나 들쥐를 잡아먹는다. 족제비의 이러한 행동을 이용하여 통나무에 구멍을 뚫고 구멍 끝에 기름을 발라 구운 닭머리를 넣어 족제비가 다니는 길목에 놓으면 닭머리를 먹으려고 들어간 족제비가 통나무 외길을 되돌아나오지 못해 잡힌다. 족제비 털가죽 역시 부녀자의 겨울 목도리로 쓰였으며, 꼬리털로는 붓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조류는 340여 종으로 이 가운데 57종은 텃새이고 나머지 283종은 철새이다. 이 중에서 세시(歲時)와 관계가 깊은 종은 참새(*Passer montanus*), 제비(*Hirundo rustica*), 꿩(*Phasianus colchicus*) 그리고 꿩매(*Falco peregrinus*)이다. 그 중 참새와 꿩과 꿩매는 텃새이며 제비는 여름 철새이다. 정월에 눈이 내리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마당의 눈을 쓸어내고 대나무나 싸리로 만든 소쿠리를 막대에 괴어놓고 그 밑에 낟알을 뿌려 참새를 유인했다. 숨어서 기다리다 참새가 먹이를 보고 날아들면, 막대에 연결한 끈을 잡아채 소쿠리 속에 갇힌 참새를 생포했다. 이 참새 사냥은 재미있는 놀이일 뿐만 아니라 집안 노인과 어린이 사이의 정을 이어주는 정월 농촌의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청소년들은 정월 밤에 2~3명이 모여 사다리를 들고 한밤중에 동네 초가집을 돌며 지붕의 처마 속에 추위를 피해

찾아든 참새를 손으로 더듬어 움켜잡았다. 우리나라의 농촌 주택이 대부분 초가집이었던 1960년대 이전의 농촌에서는 한겨울과 정이월 밤에 참새잡이를 하였다. 소의 등에 올라탄 참새가, "네 고기 한관(약 3.75킬로그램)과 내 고기 한점과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참새구이는 그 맛이 일품이어서 별미로 먹었다. 이때 여자에게는 '방정맞게 되고, 그릇을 깨뜨린다.'라고 하여 참새 고기를 주지 않는 풍습도 있었다.

산촌에서는 정이월에 매사냥 풍습이 있었다. 여름에 생포한 꿩매 새끼를 길들여 멧토끼, 꿩이나 멧비둘기(*Streptopelia orientalis*)를 사냥했다. 매사냥은 아마도 고려 때 몽고에서 전래된 듯하다. 꿩은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 만두속(꿩만두), 막국수의 육수(꿩육수)에 사용하였고, 그 깃털은 수문장이나 무녀의 모자 장식으로 또는 농악패의 깃대 장식으로 쓰였다.

삼월에 '강남'이라고 불렸던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 제비가 돌아와 봄의 시작을 알리면 이를 기점으로 농민은 논밭에 두엄을 내고 한 해 농사를 준비했다. 또한 보리밭에 종다리(*Alauda arvensis*)가 둥지를 틀고 지저귀기 시작하면, 초봄 가뭄에 들뜬 보리밭을 밟아주는 풍습이 있었다. 산란기 때 아름답게 우는 종다리는 일명 노고지리라고 하여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해놈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라는 시조에서와 같이 우리 민족의 서정 속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서류와 파충류는 포유류, 조류, 어류와 같은 다른 척추동물에 비해 그 종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양서류는 11종, 파충류는 29종이다. 이들 중 정월과 2~3월 세시풍속과 연관이 있는 종은 개구리(*Rana nigromaculata*)와 산개구리(*Rana dybowskii*)이다. 이월 해동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산개구리잡이를 하였다. 산개구리는 보통 개구리와 달리 산 속의 계곡이나 개천의 돌 밑에서 월동하며, 이월이면 암컷은 알을 배서 배가 통통하다. 물 속의 돌을 들추거나 싸리가지로 물에 잠긴 바위 밑을 쑤셔서 아직 동면에서 덜 깬 산개구리를 싸리소쿠리에 잡아넣었다. 잡은 산개구리는 내장과 함께 통째로 구워먹었다. 맛도 일품이고 고단백이어서 산개구리잡이는 연례 행사처럼 이어졌다. 이월 중순이면 땅 속에서 개구리가 동면을 끝내고 나온다.







1 **나비** 무경
2 **참개구리** 심디스마
3 **뱀** 무경

우리나라는 삼면(三面)이 바다이고 하천과 강이 많아, 어류는 900여 종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들 중에 세시와 관련이 있는 종은 담수어인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라지(*M. mizolepis*), 뱀장어(*Anguilla japonica*) 그리고 해산어인 명태(*Theragra chalco-gramma*)이다. 곳곳의 논바닥에 산재한 작은 웅덩이(둠벙)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청년들은 얼음을 들어내고 웅덩이 물을 퍼내 미꾸리나 미꾸라지잡이를 하였다. 웅덩이 바닥 개흙에서 월동하던 이들을 잡아 들기름에 튀기거나 추어탕을 끓여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하는 기분으로 나누어 먹었다.

강원도 이북의 산간 지방에서는 정월에 얼어붙은 계곡에서 얼음 밑으로 물고기가 들여다보이면 떡메로 얼음을 쳐서 그 진동으로 고기를 기절시킨 다음, 구멍을 뚫어 작살로 잡아내는 정월 천렵을 했다. 지금은 자원이 고갈되어 어획량이 많지 않으나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동해안에서는 겨울과 정월에 명태가 많이 잡혔다. 명태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식품으로 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액운을 피하고 행운을 기원하는 상징물로도 애용되었다. 집을 신축할 때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식에서 명태를 말린 북어를 한지에 묶어 대들보에 매달았다. 또 음식점이나 상점을 개업할 때도 문틀 위에 북어를 매달았다. 이 풍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의 하구에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어족 자원, 특히 뱀장어가 매우 풍부했다. 뱀장어는 미꾸리나 미꾸라지처럼 겨울에 강바닥의 개흙 속에서 월동한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정월에 긴 대나무에 삼지창을 달아 얼음을 깨고 강바닥을 쑤셔서 월동하는 뱀장어를 잡아올렸다. 당시에는 뱀장어가 흔해 아무 곳이나 찔러도 뱀장어를 잡을 수 있었다. 이 뱀장어는 '겨울뱀장어' 또는 '정월뱀장어'라고 하여 잡는 재미와 함께 주민들 입맛을 돋워 주었다.

참고문헌 |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한국동물명집(한국동물분류학회 편, 아카데미서적, 1997), A Field Guide to the Birds of Korea(Woo-Shin Lee · Tae-Hoe Koo · Jin-Young Park, Toyokan Publishing, Co., Ltd., 2000), Animal: the Definitive Visual Guide to the World's Wild Life(David Burnie · Done E. Wilson, Dorling Kindersley, 2001).

필자 | 박은호(朴殷浩)

생업(生業)

입춘(立春) 즈음에 농민들은 한 해의 농사 준비를 시작한다. 농기구를 손질하고, 겨우내 묵은 똥오줌을 밖으로 내는 등 한 해 농사 채비를 하였다. 과수농사 준비도 이때에 이루어진다. 과수의 나뭇가지들을 벌리고 그 사이에 돌을 끼워넣는 풍속이 있는데, 이를 '과일나무 시집보내기[嫁樹]'라고 한다.

본격적인 봄농사는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음력 이월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십이간지로 시간을 표시하는 관습이 있다. 지방 농민들은 간지를 따져 이월 첫 소날(丑日)이 되는 날에 그 해의 첫 논갈이를 시작하였다. 그 해 처음으로 소에 쟁기를 메워 논갈이를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기리기 위해 첫 소날을 택하는 것이다. 전남 함평 일대의 농촌에서는 이 날 소의 뿔 사이에 나무칼을 묶고 종이꽃을 달아준 다음에 논으로 몰고가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일년 내내 소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때 시작된 논갈이는 초여름 모내기 때까지 서너 차례 계속된다. 3월 곡우(穀雨) 때가 되면 볍씨를 담그고 못자리를 준비한다.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을 대비해서 논의 물도랑을 치우고 물꼬를 새로 만들기도 한다.

봄철은 밭농사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이월이 되면 농민들은 봄채소를 심을 밭갈이를 하고, 밭 주변에 울타리를 새로 쳐서 가축들이 채소밭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대비한다.

어촌에서도 농사 준비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느라 분주하다. 정초에는 집집마다 한 해 어로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뱃고사를 지내고, 마을 전체가 마을제사의 한 가지 절차로 용왕제를 지내기도 한다. 고기잡이를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민들은 배에 각종 깃발을 꽂고 제상을 차려 첫 출어(出漁)에서의 행운과 안전을 빈다. 무당이 배에 올라 풍어를 비는 축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풍습을 '뱃고사'라 하고 이것은 지금도 많은 어촌에서 행해진다.

일년 동안의 어로 작업은 지역에 따라, 어종에 따라 다양하다. 서해안의 조기잡이는 음력 정월 흑산도, 가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조기 어장은 그 후 칠산바다라 부르는 전남 영광, 전북 위도 일대의 바다





1 모판고르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밭갈이
충남 금산시 최수연

쪽으로 이동한다. 3~4월에 조기가 알을 낳기 위해 얕은 바다로 몰리는 습성이 있는데 이 지역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조기의 성시(盛時)를 이룬다. 또한 영광은 조기를 말려 굴비를 만드는 지역으로 유명하고 위도는 조기잡이 어선들이 정박하여 이룬 파시(波市)로 유명하다. 어촌의 봄은 어로작업과 함께 밭갈이, 봄채소의 파종 등으로 분주하고 특히 논이 많지 않은 어촌에서는 밭농사를 시작하는 부녀자의 손길이 더욱 바쁘다.

참고문헌 | 한국의 해양문화1 -서남해역 下-(해양수산부, 2002).
필자 | 조경만(趙慶萬)

세시풍속(歲時風俗)

태음태양력을 일상력으로 사용하던 전통 사회에서 사계절은 정월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계절인 봄은 정월부터 삼월까지를 일컫는다. 그 중 정월은 봄의 첫 달일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첫 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경의례가 중요한 부분이었던 세시풍속은 봄, 그 중에서도 정월에 집중되어 있다. 정월은 농한기로서 각종 세시풍속을 행할 수 있다. 게다가 정월은 한 해의 시작으로 신성한 기간이다. 그래서 2월부터 행해지는 세시는 정월의 각종 세시 내용이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시풍속은 기원, 액막이, 금기, 제의, 점복, 놀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월의 세시풍속은 이 내용들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달의 세시는 이들이 분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월의 대표적인 세시명절은 설날과 대보름으로 이때에 각종 세시풍속이 행해진다. 초하루는 한 해가 시작되는 날로서 설날이라 한다. 설날을 한자어로는 신일(愼日),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한 해의 첫날임을 뜻하는 말이다.

설날 아침 일찍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세찬(歲饌)과 세주(歲酒)를 마련하여 사당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세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떡국이다. 떡국은 떡만이 아니라 만두를 빚어넣어 만들기도 하는데,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먹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명절 음식이다. 세주는 설날에 마시는 찬술로 산뜻한 봄을 맞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차례는 4대조까지만 지낸다. 사당에는 4대까지만 신주(神主)를 모시고, 그 윗대 조상은 10월 시제(時祭) 때 산소에서 제사를 지낸다. 차례가 끝나면 웃어른에게 새해 인사로 세배를 드린다. 차례가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의례인 반면 세배는 생존해 있는 어른을 섬기는 의례이다. 집안의 어른들에게 세배가 끝나면 세찬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세배할 때 주고받는 말이 덕담이다. 덕담은 원래 웃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말이다. 요즘 나이에 상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인사말이다.

화전놀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복조리 풍속도 정월의 중요한 세시풍속이다. 예전에는 복조리를 대나무로 직접 만들었지만, 조리장사에게 사는 것이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었다. 이 밖에도 일년 동안 복되기를 빌며 대문에 세화(歲畵)라 하여 장군상(將軍像)을 그려 붙이거나 '호(虎)'와 '용(龍)' 같은 글씨를 써서 붙인다. 삼재(三災)가 든 사람은 매 세 마리를 그려서 액을 막는다. 또 원일소발(元日燒髮)이라고 하여 일년간 머리를 빗을 때마다 모아두었던 머리카락을 태워 액막이도 한다.

설날 새벽에 거리로 나가서 처음 듣는 짐승 소리로 그 해의 운수를 점치는 청참(聽讖) 풍속도 있다. 그 밖에 노인을 우대하는 상치세전(尙齒歲典), 승려가 시주(施主)를 청하는 법고(法鼓) 풍속과 설날, 정월 열나흗날, 섣달 그믐날 밤에 신발을 감추어두는 야광귀(夜光鬼) 풍속이 있다. 정초 십이지일(十二支日)에는 각종 금기가 따른다.

정월 대보름은 도교식으로 표현하여 상원(上元)이라고도 한다. 설날의 풍속이 제석(除夕: 섣달그믐)의 수세(守歲)에서 이어지듯이 상원풍속도 열나흗날부터 시작된다. 이 날 저녁에 오곡밥을 지어먹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보름날 아침에 짓기도 하는데 오곡밥을 찰밥이라고도 한다. 찰밥의 유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사금갑(射琴匣)조에 기록되어 있다. 상원을 오기일(烏忌日)이라고 하는데, 이 날 까마귀에게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 위로하고 은혜를 보답하였다고 한다. 오곡밥에는 진채식(陣菜食)이라 하여 묵은나물을 반찬으로 먹는다. 진채식은 여름철 더위를 막는다고 여겼다. 김이나 배춧잎을 삶아서 밥을 싸먹는 복과[福裹, 복쌈]도 대보름의 명절식이다. 후대에 나온 음식이지만 넉넉한 가정에서는 대보름에 약밥을 만들기도 했다. 대보름에는 여러 집의 오곡밥을 먹어야 좋다는 백가반(百家飯) 풍속도 있다.

대보름날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생밤, 은행, 잣, 땅콩 같은 견과류로 부럼을 깬다. 부럼을 깨면 이가 튼튼해지고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또 보름날 아침에는 귀밝이술[이명주: 耳明酒]이라 하여 차가운 청주 한 잔을 마신다. 이 술은 귀가 밝아지고 일년 내내 좋은 소식을 듣게 해준다고 한다.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사람을 보면 재빨리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이때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라고 외친다. 이렇게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눈치 채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데 이를 '학(謔)'이라고 한다.

열나흗날 농가에서는 화적(禾積: 볏가릿대)을 세

운다. 화적은 짚으로 깃대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벼, 기장, 피, 조의 이삭을 집어넣고 목화를 장대 꼭대기에 매단 것이다. 그 해의 풍년을 비는 풍속이다. 또 이 날이나 보름날 아침에 가수(嫁樹) 풍속이 있다. 나무시집보내기 또는 나무장가보내기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과일 나무의 벌어진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둔다. 성행위를 상징하는 주술행위로써 과실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정초에 삼재면법(三災免法)이 있듯이 보름 전날에는 직성(直星)을 예방하는 풍속이 있다. 사람에게는 나이에 따라 운수를 맡아보는 아홉 직성이 있는데, 그 중 액운을 주는 것으로 제웅직성이 있다. 제웅직성은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남자는 열 살, 여자는 열한 살 때 처음으로 든다고 한다. 제웅직성이 들면, 제웅이라는 짚인형을 만들어 허리나 머리 부분의 속을 헤치고 돈이나 쌀, 액년이 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한지를 함께 넣어 밖에 버린다. 제웅을 보는 사람이 그 액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웅을 본 사람은 침을 세 번 뱉고 발을 세 번 구른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웅 속에 든 돈을 갖기 위하여 놀이로 즐겼다. 제웅의 몸 속에 있는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길에다 내버리며 노는데, 이를 제웅치기라 한다. 제웅은 처용(處容)을 말하며, 처용설화와 관계가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대보름날 첫 시간인 자정에 마을에서는 동제(洞祭)를 지낸다. 동제는 지역에 따라 산제, 서낭제, 별신제 등으로 불리는데, 자연 마을 중심으로 동민(洞民) 전체가 추렴을 하여 공동의 금기(禁忌)를 지키며 마을의 평안과 행운을 비는 제사이다. 이 날 저녁에는 달맞이를 한다. 달이 뜰 무렵 뒷동산이나 집안에서 달이 잘 보이는 장독대에 올라가서 달이 솟을 때 제각기 소망을 빈다. 그리고 달의 빛깔이나 윤곽과 달무리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이는 농점(農占)의 하나인데 그 밖에 콩으로 점치는 달불이, 보리뿌리를 보고 풍흉을 점치는 보리뿌리점도 있다. 또한 아이들이 나무 조롱을 허리에 차거나 부잣집의 흙을 훔쳐다 자기네 부뚜막에 바르는 복토(福土)훔치기 같은 풍속이 대보름을 전후하여 행해진다.

정월에는 놀이도 다양하다.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불태우는 쥐불놀이와 격하게 벌이는 횃불싸움이 있고, 그 밖에 줄다리기, 석전(石戰), 고싸움, 동채싸움, 농기세배, 원놀음 같은 것들도 있다. 이때 승부를 겨루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지신밟기, 소놀이, 거북놀이를 하여 가내의 평안을 빌고, 달집태우기로 그 해의 재앙을 예방한다. 또 탈춤, 답교(踏橋: 다리밟기), 연날리기, 널뛰기, 윷놀이, 팽이치기, 종경도놀이(승경도놀이) 등으로 제액초복(除厄招福)하며 명절의 흥을 돋우었다.

이 밖에 24절기 가운데 절일에 가까운 것이 입춘(立春)이다. 입춘은 때로는 음력 섣달에 드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정월에 든다. 입춘일에 보리뿌리를 뽑아 그 해 보리의 풍흉을 점쳐보고 다양한 내용으로 입춘축을 써서 대문을 비롯하여 기둥이나 방의 천장에 붙이는 풍속이 있다.

정월은 봄이지만 날씨는 아직 차가우며 봄을 느끼게 되는 시기는 2월부터이다. 이월 초하루를 흔히 머슴날이라 한다. 이제 농사일을 앞두고 머슴을 위로하는 날이다. 주인은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머슴들은 풍물을 치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열나흗날 세운 볏가릿대도 이 날 털어낸다. 또 이 날 나이떡이라 하여 송편을 빚기도 한다. 설날의 떡국이 나이를 가늠하듯이 이 날의 떡을 각별히 나이떡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월 초하루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농경이 주생업이었던 전통사회에서 2월이면 초경(初耕)이 시작되는 시기로 초하루는 명절만큼 중요한 날이었다. 그 밖에 이 날을 노래기날이라 하여 부적을 써서 벽에 붙여 노래기를 예방하고 새와 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콩을 볶아 먹는다.

2월 초순께는 바람신인 영등할머니를 맞아 집집마다 부엌이나 장독대에 음식을 차려놓고 비손을 한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크게 영등맞이굿을 하여 집안의 평안(平安)과 풍어(豊漁)를 빈다.

3월에는 명절에 버금가는 날로 삼짇날이 있다. 강남 갔던 제비도 삼짇날이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무렵이면 날씨가 온화하여 꽃이 피기 시작하며 누에를 친다. 삼짇날에는 처음 본 나비의 색깔로 점을 친다. 여자들은 삼짇날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물 흐르듯이 소담하고 아름답다고 한다.

삼짇날 무렵이면 산야에 꽃과 풀이 돋아나므로 아이들은 풀피리놀이와 풀각시놀이를 한다. 활터에

서는 활쏘기대회가 열리고, 어른들은 산과 들에 가서 꽃놀이를 한다. 여자들은 삼짇날에 야외로 나가 진달래꽃을 찹쌀 반죽에 붙여 화전(花煎)을 지져 먹으며 봄놀이를 한다.

이상과 같이 봄철의 세시풍속은 정월에 집중되어 있지만, 각 달마다 크고작은 명절이 있어 계절의 마디로서 긴장과 이완의 리듬을 반복케 한다. 농사 주기로 치면 봄철은 파종기이다. 정월은 농한기로서 풍작을 빌고 예축하는 온갖 행사가 벌어진다. 특히 대보름을 전후하여 더 많은 행사가 있는 것은 보름의 만월과 풍요와의 관계 때문이다. 이처럼 정월에 풍요를 빌고 예축하는 세시풍속을 치르고 나면, 2월에는 초경(初耕)을 비롯해서 파종 준비를 하고 3월에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曆法의 原理分析(이은성, 正音社, 1985), 세시풍속의 순환체계(김명자, 韓國文化의 原本思考, 민속원, 1997).
필자 | 김명자(金明子)

식물(植物)

세시풍속이 해마다 반복되듯이 식물도 봄이 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반복한다. 봄꽃으로는 꽃이 무리지어 피는 동백꽃, 생강나무꽃, 산수유꽃, 매화, 개나리, 진달래, 살구꽃, 자두나무꽃, 복사꽃, 앵두나무꽃, 목련 등이 있다. 봄의 풀꽃으로는 보춘화, 복수초, 얼레지, 너도바람꽃, 꿩의바람꽃, 홀애비바람꽃, 나도바람꽃, 앉은부채, 노루귀, 할미꽃, 제비꽃, 봄맞이꽃, 냉이, 꽃다지와 처녀치마 등이 있다. 꽃이 피는지조차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리나무, 개암나무, 사시나무, 버드나무와 참나무 종류들도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 수많은 꽃가루를 퍼뜨린다. 이러한 봄에 피는 꽃들을 절기(節氣)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다.

입춘(立春)부터 우수(雨水) 즈음에 볼 수 있는 꽃으로는 동백꽃, 보춘화 그리고 복수초(福壽草)가 있다. 동백나무(冬栢: *Camellia japonica* L.)는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도, 충청남도 그리고 백령도와 대청도를 비롯한 남서해안에 분포하는 상록성 소교목이다. 잎은 윤기가 있고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꽃은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있는 양성화이며, 꽃잎은 5~7개이고 적색이며 수술이 많다. 둥근 열매 안에 있는 흑갈색 종자로 짜낸 기름을 동백기름(동백유)이라 하여, 옛 여인들의 머리에 윤을 내는 화장품과 공업용으로 이용하였는데 주성분은 올레산이다. 목재는 가구재, 조각재, 세공재, 잎은 꽃꽂이의 부재로 사용된다. 동백나무 중 수령(樹齡)이 약 300년 된 충렬사(忠烈祠) 동백나무의 꽃은 유난히 붉고 탐스러워서 옛 처녀들이 풍신제(風神祭)의 정화수로 쓰기 위해 물동이에 동백꽃을 띄워가곤 했다고 한다. 거제도 외간리에 동서로 한 그루씩 있는 약 200년 된 동백나무는 부부나무라 하며 가정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守護木)으로 섬기며, 매년 섣달 그믐날 이 나무에서 당산제(堂山祭)를 지낸다. 한편, 예부터 남쪽 바닷가 사람들은 신랑신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굳은 언약을 맺기 위한 징표로 동백나무 가지를 혼례상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보춘화(報春花: *Cymbidium goeringii* Reichb.fil)는 봄을 알리는 난꽃으로 춘난(春蘭)이라고도 하는데, 청초한 이미지와 세속을 초월한 정결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었다. 주로 남부의 산지 숲에 자라는 상록성 다년초이며, 꽃은 2~4월에 꽃줄기에 한두 송이가 피며, 연한 황록색이고 향기도 있다. 꽃잎 중 가운데쪽 아래의 입술꽃잎은 흰색이고 뒤로 젖혀지며 적자주색의 반점이 있다. 민간에서는 피부병, 지혈, 이뇨 같은 데에 약재로 쓰인다.

복수초(福壽草: *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는 한자로 복 '복(福)', 목숨 '수(壽)', 풀 '초(草)' 자로서, 복 많이 받고 오래 사는 것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풀이다. 지방에 따라 땅 위에 꽃만 올라온 꽃이라 하여 땅꽃, 이른 봄 얼음 사이에서 피어나 얼음새꽃 또는 눈색이꽃, 또는 눈 속에 피는 연꽃 같다 하여 설연(雪蓮)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복수초를 정월 초하루 새해 인사를 갈 때 선물로 가져가며 원단화 또는 원일초라 부른다. 꽃은 꽃줄기 끝에 한 개 달리며, 꽃받침은 밝은 녹색, 뒷면은 자주색을 띠고, 꽃잎은 황색이며 꽃받침은 꽃잎보다 길거나 거의 같고 수술과 암술이 많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진통제, 창종, 강심제(强心劑), 이뇨제(利尿劑)로 사용하지만 유독성 식물이다. 제주도에는 세복수초, 한반도 남서부에는 개복수초가 있다.

경칩(驚蟄)과 춘분(春分) 즈음에는 매화나무, 생

강나무, 산수유, 진달래, 앉은부채 따위를 볼 수 있다. 매화나무(*Prunus mume* Sieb. et Zucc.)는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2,000년 전쯤에 들어왔다. 맑고 깨끗한 향기를 그윽하게 풍기는 매화는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서, 청렴하고 세속을 초월한 절개가 있는 지조 높은 선비의 기풍을 상징한다. 그래서 병풍이나 도자기의 그림과 시의 소재가 되었다.

매화는 양기(陽氣)를 상징하는 봄을 대표하는 꽃으로서 귀하게 여겨왔다. 매화의 꽃받침조각은 5개로서 둥근형이며 붉고, 꽃잎은 5장이며 끝이 둥글고 수술이 많다. 열매는 핵과이며 노란색으로 익고 짧은 털로 덮여 있다. 흰색 꽃이 피는 흰매화, 꽃잎이 많고 흰 꽃인 만첩흰매화, 붉은 꽃잎이 많은 만첩홍매화로 구분하기도 한다. 열매인 매실의 구연산과 무기질 성분은 인체의 혈액을 약알카리성으로 만들고 정혈, 강장, 보간, 피로회복,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어 매실주, 매실정과, 매실음료 같은 건강 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특히 카데킨산 성분은 장내의 항균, 살균 작용으로 설사와 변비에 효과가 있다. 뿌리는 매근(梅根), 가지는 매지(梅枝), 잎은 매엽(梅葉), 씨는 매인(梅仁)이라 하여 약용한다. 특히 오매(烏梅)는 5~6월에 덜 익은 열매를 따서 약 40도로 과육을 건조시킨 후 햇빛에 검게 말린 것으로 수렴(收斂), 지사(止瀉), 진해, 구충의 효능이 있다.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Bl.)는 전국 산지의 계곡이나 숲속의 냇가에서 아직 얼음이 채 녹지 않았을 때 매화보다도 일찍 황색 꽃을 피운다. 이에 황매목(黃梅木) 또는 단향매(檀香梅)라고도 한다. 또한 지방에 따라 산동백 또는 개동백이라고도 하지만, 잎과 가지에서 생강냄새가 나므로 생강나무라고 한다. 잎은 어긋나고 윗부분이 3~5개로 얕게 갈라지고 꽃은 암수딴그루이며, 수꽃은 화피 6개 안에 수술 9개, 암꽃은 화피 6개 안에 암술 1개와 헛수술 9개가 있다. 열매는 장과이고 둥글며 9월에 검은 색으로 익는다. 한방에서는 생강나무 껍질을 삼첩풍이라 하며, 타박상의 어혈과 산후에 몸이 붓고 팔다리가 아픈 증세에 사용한다. 가을에 잔가지를 잘라 말린 황매목(黃梅木)은 건위, 복통, 해열, 거담에 이용하고, 줄기를 삶은 물은 피부병에 이용하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생강나무 꽃을 따서 말렸다가 주머니에 넣어 방에 걸어두면 추위 속에 꽃을 피우는 강인함이 사기(邪氣)를 쫓는다고 믿었다.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는 참꽃 또는 두견화(杜鵑花)라고도 한다. 진달래는 단맛이 있어 먹을 수 있는 꽃이라 하여 참꽃이라고 하는 데 비해 철쭉은 먹지 못한다 하여 개꽃이라고 하며, 꽃색이 연분홍이며 진달래가 피고 난 다음에 연달아서 핀다 하여 연달래라고도 한다. 진달래의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꽃잎은 5장이며, 붉은 빛이 강한 자주색 또는 연한 붉은 색이고 겉에 털이 있다. 수술은 10개이고 열매는 삭과이다. 흰색 꽃이 피는 흰진달래, 고산에 자라며 작은 가지와 잎에 털이 있는 털진달래도 있다. 한방에서는 진달래꽃을

1 봄 풍경
경북 청도군 방상운

2 봄 풍경
경남 하동군 무경







봄 풍경
충남 청양군 십디스마

영산홍(映山紅)이라 하며, 해수, 기관지염, 감기로 인한 두통, 요통에 약재로 쓴다. 진달래는 두견새에 얽힌 전설, 김소월의 시에서 보듯이 우리의 민족적 정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물이다. 진달래꽃은 삼짇날의 절식인 화전과 화채를 만들거나 절기주인 진달래술(두견주)을 담그는 데 사용하며,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면천면(沔川面)의 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86-나호)가 유명하다.

앉은부채(*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는 서양에서 스컹크 캐비지(*skunk cabbage*)라고 한다. 이는 꽃이 필 때 지난해 준비했던 양분을 한꺼번에 소모하면서 식물체 주위의 눈을 녹일 정도로 호흡열을 많이 발산하는데, 이때 나는 고약한 냄새가 곤충을 유인하여 꽃가루받이를 하게 하는 특징 때문이다. 잎은 꽃이 핀 후에 올라오며 대황이나 배춧잎만큼 커진다. 꽃은 이른 봄인 2월말경 갈색을 띤 자주색 불염포가 잎보다 먼저 올라오고 그 안에 있는 곤봉 모양의 살이삭화서(육수화서)에 핀다. 꽃은 양성화이고 화피조각은 연한 자주색으로 4개이며, 수술은 4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둥글며 여름에 붉은 색으로 익는다. 어린잎은 나물로 이용하나 뿌리에는 독성이 있다. 한방에서는 줄기와 잎을 구토제, 진정제, 이뇨제로 사용한다.

춘분과 곡우 사이의 절기인 청명에는 산다래나무, 자작나무 또는 거제수나무나 박달나무에 상처를 내고, 곡우물을 받는다. 곡우 즈음에는 노루귀, 산수유나무, 버드나무, 할미꽃, 제비꽃, 벚나무 등을 볼 수 있다. 노루귀(*Hepatica asiatica* Nakai)의 속명인 *Hepatica*는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 간과 같은 데서 유래하고, 노루귀는 잎이 올라올 때 잎이 말려서 올라오는 모양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봄을 알리기 위해 눈을 헤치고 꽃을 피우는 풀이라는 뜻에서 파설초(破雪草) 또는 설할초(雪割草)라고도 한다. 꽃은 3월경 잎보다 먼저 피며, 꽃받침은 6~8개이고 흰색, 연분홍색, 진분홍색, 남색 등 다양하며, 꽃잎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전체에 분포하는 노루귀 외에 남부와 서부 해안 및 섬에 분포하는 새끼노루귀와 울릉도 특산의 큰노루귀가 있다. 봄에 어린잎을 나물로 식용하거나 관상용으로 심는다. 노루귀 뿌리를 '장이세신'이라 하며 민간에서는 8~9월에 포기째 채취하여 두통과 장 질환에 사용한다.

산수유나무(*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는 생강나무처럼 이른 봄에 꽃이 잎보다 먼저 피어 봄을 알려주는 식물이다. 꽃은 노란색이며 양성화로서 꽃잎은 4개가 붙어 좁은 깔때기 모양이고, 수술 4개, 암술 1개이며 씨방에 털이 있다. 열매는 긴 타원형의 핵과(核果)로서 가을에 붉게 익는다. 종자는 긴 타원형이며 능선이 있다. 산수유 열매는 10월 중순 상강(霜降) 이후에 수확하여 과육과 씨앗을 분리하여 술과 차 또는 한약의 재료로 사용한다. 산수유의 과육(果肉)에는 여러 가지 배당체와 유기산, 비타민A와 당(糖)이 들어 있고, 종자에는 팔미틴산, 올레인산, 리놀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에 따르면 강음(强陰), 신정(腎精)과 신기(腎氣)를 보강, 수렴하는 효능이 있으며 두통, 이명(耳鳴), 해수병, 해열, 월경과다, 식은땀, 야뇨증 등에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산수유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북 의성에서 특산품으로 재배하고 있다.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는 갯버들, 능수버들, 수양버들, 용버들과 함께 봄에 나무에 물이 오르는 색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봄이 오는 정도를 나타내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전국의 들과 냇가에서 자라며 버들, 또는 뚝버들이라고도 한다. 버드나무는 암수딴그루이며 꽃이 필 때 수나무는 꽃밥 때문에 황록색, 암나무는 암술 때문에 연녹색으로

보인다. 꽃가루는 눈과 피부의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종자에는 털이 있어서 솜털처럼 날아다니므로 암나무나 수나무 모두 봄철에 문제를 일으킨다. 버드나무는 가로수와 풍치용으로 이용하며,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어 나무껍질을 수렴제, 해열제 및 이뇨제로 사용한다.

목련(*Magnolia kobus* A.P. DC.)은 시, 그림과 가곡의 소재가 되어왔으며, 나무에 피는 연꽃 같다 하여 목련이라고 한다. 또한 옥 같은 꽃에 난초 같은 향기가 있다고 옥란, 난초 같은 나무라고 목란, 꽃봉오리가 모두 북쪽을 향했다고 북향화, 꽃봉오리가 붓끝을 닮았다고 목필이라고도 한다. 꽃눈이 털에 많이 덮여 있고 화피는 6~9장이다. 흔히 재배되고 있는 백목련과 자목련은 중국 원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야생 목련보다 꽃덮이가 넓다. 목련의 꽃봉오리를 신이(辛夷)라 하는데 콧병, 특히 축농증에 특효가 있다.

할미꽃(*Pulasatilla koreana* Nakai)은 할머니 등처럼 굽은 꽃줄기에 꽃이 고개를 숙여 피고, 열매의 길고 흰 털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노고초(老姑草)라고도 한다. 한편 희고 긴 암술대가 있는 열매들이 둥근 공 모양을 이루는 것이 백발노인의 머리와 같다 하여 백두옹(白頭翁)이라고도 한다. 산과 들판의 양지쪽에서 자라며 꽃잎은 없고 꽃받침이 붉은 자주색이며 수술과 암술이 많다. 꽃받침 색이 노란 노랑할미꽃, 분홍색인 동강할미꽃도 있다. 뿌리는 해열, 수렴, 소염, 살균제로 약용하거나 이질 등의 지사제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학질과 신경통에 이용한다.

제비꽃(*Viola mandshurica* W. Becker)은 오랑캐들이 식량이 떨어져 쳐들어올 때에 피던 꽃이라 오랑캐꽃, 꽃 두 개를 겹치면 씨름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여 씨름꽃, 키가 작다고 하여 앉은뱅이꽃 또는 자화지정(紫花地丁)이라 하고, 또 꽃반지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어 반지꽃이라고도 한다. 제비꽃의 어린 순은 나물 또는 국으로 이용하며 고혈압과 봄철의 나른함에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는 지정이라 하며 태독, 부인병, 중풍, 통경, 불면증, 변비, 만성간염, 생손앓이에 효능이 있다. 제비꽃 즙(汁)은 부기(浮氣) 제거와 타박상 치료에도 좋고, 간장 및 피로해진 눈에도 효과가 있다.

벚나무(*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 Wils.)는 올벚나무, 개벚나무, 산벚나무, 왕벚나무와 함께 봄동산을 아름답게 하는 꽃이다. 그 중 일본의 국화로 알려진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ura)는 그 기원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제주도 남제주군 신예리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156), 제주시 봉개동의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159), 전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173)의 분자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이 기원지임이 밝혀졌다. 벚나무는 종에 따라 꽃이 잎보다 먼저 피거나 꽃과 잎이 동시에 피며 꽃잎은 분홍 또는 흰색이다. 벚나무의 목재는 재질이 단단하여 국궁(國弓)과 고려팔만대장경(高麗八萬大藏經) 경판의 재목으로 이용되었다. 또 잎사귀로 풀피리를 만들었으며 껍질로 악기 만드는 데 쓰였음이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나타나 있다. 열매는 '버찌'라고 하여 식용하거나 기침약으로도 이용된다.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는 들이나 밭에 자라는 풀로 달래, 씀바귀와 더불어 봄의 미각을 대표하는 식물로서 나생이 또는 나숭게라고도 한다. 꽃은 흰색이며 십자(十字) 모양이고 꽃받침과 꽃잎이 4개씩이며 열매는 역삼각형이다. 냉이의 어린 잎과 뿌리는 나물과 국거리로 쓰며, 옛날에는 나물죽을 끓여 구황식품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방에서는 식물 전체를 제채(齊菜)라 하여, 꽃이 필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생채로 이용한다. 이뇨, 지혈, 해독의 효능이 있다.

얼레지(*Erythronium japonicum* Decne.)는 잎이 얼룩얼룩한 자주색 무늬가 있으며 무릇처럼 땅속에 비늘줄기가 있어 가재무릇이라고도 한다. 꽃잎 6장이 날렵하게 뒤로 말리고 진한 자색이며 군락으로 피어 매우 화려하다. 잎은 나물과 국으로 식용하고 비늘줄기는 전분을 만들거나 약용한다.

그 외에 꽃다지, 봄맞이꽃, 벼룩나물, 별꽃, 점나도나물, 꽃마리, 산자고 같은 여러 종류의 작은 꽃들이 봄의 산야를 수놓는다.

참고문헌 | 東醫寶鑑, 樂學軌範, 鄕藥集成方, 원색식물도감(이영노, 교학사, 1996), 모든 들풀은 꽃을 피운다(이남숙, 중앙 M&B, 1998), 原色韓國本草圖鑑(안덕균, 교학사, 1998).
필자 | 이남숙(李南淑)





二月 이월

이월은 겨울의 농한기(農閑期)를 끝내고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그 준비에 바쁜 달이기도 하다.
한편 이월이 봄이 시작하는 달이라고는 하나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내리는 수도 있어서
갑자기 겨울이 되돌아온 것 같은
날씨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봄이 찾아와 새 움이 트고 싹이 나며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니
풍신(風神)이 샘이 나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매서운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의 바람을 꽃샘[花妬娟]
또는 꽃샘바람이라고 한다.

春

2월(二月)

이칭 음력 2월은 중춘(仲春) 또는 중양(仲陽)이라고도 한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같은 서해안 일부 지방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달이라 하여 뱃사람의 액달, 액달이라고 뱃사람들이 자탄조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옹진군 연평도와 황해도 해주 등 풍어제(豊漁祭)를 지내는 마을에서는 음력 2월, 6월, 섣달을 썩은 달이라 하여 가급적 풍어제를 지내지 않는다. 한편 호남 지방 등 남부 지방에서는 영등할머니가 내려온다 하여 2월을 영등달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2월은 겨울의 농한기(農閑期)를 끝내고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그 준비에 바쁜 달이기도 하다. 한편 2월이 봄이 시작하는 달이라고는 하나,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내리는 수도 있어서 갑자기 겨울이 되돌아온 것 같은 날씨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봄이 찾아와 새 움이 트고 싹이 나며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니 풍신(風神)이 샘이 나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매서운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의 바람을 꽃샘[花妬娟] 또는 꽃샘바람이라고 한다. 꽃샘바람이 불 때에는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으며 먼 길을 떠나는 배도 타지 않는다. 2월에는 땅속에 웅크리고 있던 벌레도 꿈틀거린다는 경칩(驚蟄)과 봄의 중앙이 된다는 춘분(春分)이 있다.

2월 1일을 중화절(中和節)이라 부른다. 이 날 궁궐에서는 임금이 중화척(中和尺)이라는 자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신하들은 농사 짓는 일에 관한 책을 임금에게 올렸다. 중화척은 바느질자보다 조금 짧은 자인데, 검은 반점이 있는 대나무[班竹]나 이깔나무[赤木]를 깎아서 만든 것이다. 임금이 이 중화척을 나누어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 데에 규칙의 어긋남이 없이 하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려 임금을 도우라는 뜻이다.

농촌에서는 2월 1일을 머슴날이라고 하여 이 날 주인은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고 즐겁게 놀게 하였다. 지난해 가을 추수를 끝내고 오랫동안 쉬던 머슴들이 이제 다시 농사준비를 위해 갑자기 바빠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새로이 농사일을 시키자는 의미이다. 머슴들은 이 날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후 춤과 노래로 하루를 즐긴다.

또 이 날은 정월보름날에 세웠던 낟가릿대(또는 볏가릿대)를 헐어 거기에 꽂아두었던 곡식의 낟알


1


2


3


4

1 볏가릿대
2 볏가릿대내리기
3 오곡주머니
4 고시레
충남 서산시 온석동 국립민속박물관

로 송편을 만들어 머슴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게 하였다. 그 해에 20세가 된 머슴은 어른들께 술을 한턱 낸다. 20세 전에는 아이로 여겨 어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이 날 어른들에게 한턱을 낸 후에야 어른들 속에 끼어 한 몫을 하게 되고 품앗이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전남 일부 지방에서는 마을에 있는 들돌을 들어 보임으로써 어른들 속에 끼는 풍속도 있다.

2월 1일에 각 가정에서는 콩을 볶는다. 콩을 볶을 때는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 하고 주언(呪言)을 한다. 그러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볶은 콩을 식구들이 나누어 먹으며, 이 날 콩을 볶으면 노래기도 없어진다고 한다. 또 이 날은 대청소를 하여 집안을 깨끗이 하고 종이에다 '향랑각시 속거천리(香娘閣氏速去千里)'라고 써서 부적을 만들어 기둥이나 서까래, 벽 같은 곳에 붙인다. 이는 2월이면 나오기 시작하는 노래기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2월 1일에는 하늘에서 영등할머니가 지상에 내려왔다가 20일에 올라간다고 한다. 영등할머니가 지상에 내려올 때는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딸을 데리고 올 때는 옷이 바람에 나부껴서 예쁘게 보이려고 바람을 불게 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비를 오게 해서 며느리의 옷을 모두 젖게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올 때는 날씨가 궂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농가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남부 지방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는데, 2월은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다의 물결이 심해서 어부들은 출어를 삼가며 일을 쉬기도 한다.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풍재(風災)를 면하기 위하여 영등할머니에게 고사를 지내는데 곧 풍신제(風神祭)이다. 이를 '바람올린다'라고도 한다. 제주도의 영등제나 전북 고창의 영신당제도 영등할머니가 내려와 있는 기간에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장대 열두 개를 세워놓거나 휘어서 양끝을 땅에 꽂은 후 신을 불러들여 제사를 지내며, 곳에 따라서는 나무를 말머리 모양으로 만들고 색색의 비단으로 장식해 약마희(躍馬戱)를 하기도 한다. 이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이다.

2월이 되면 농가에서는 풍농(豊農)을 위해 농사의 시작인 초경(初耕)을 엄숙하게 행한다. 제주도에서는 초경 때에 소를 동쪽을 보게 세워놓고 멍에를 씌운다. 밭이 남북으로 길게 있으면 쟁기질도 보통 남북으로 하는데, 이때는 쟁기질을 먼저 동서로 몇 골을 간 다음 남북으로 간다. 그래야만 밭곡식이 잘 자라서 풍년이 든다고 한다.

경칩(驚蟄) 2월에는 24절기의 하나인 경칩이 있다. 경칩이란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그 밖의 동물들, 특히 파충류들이 봄이 온 것을 깨닫고 놀란 듯이 땅위로 튀어나온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말이다. 사실 경칩 무렵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초목도 싹이 돋아나고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짐승들도 땅속에서 나온다. 이 날 농촌에서는 논이나 도랑 같은 물이 괴어 있는 데를 찾아가서 개구리알을 건져다 먹는다. 개구리알이 사람 몸에 보(補)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롱뇽알을 건져 먹기도 한다. 또 경칩에는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서 집안의 벽을 바르거나 허물어진 담을 고친다. 경칩에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빈대나 벼룩 같은 해충이 많은 집에서는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집의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하는데, 그러면 해충이 없어진다고 한다. 경칩에는 단풍나무를 베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위장병 같은 질병에 효과가 있다 하여 이 물을 약으로 마신다.

춘분(春分) 2월에 24절기의 하나인 춘분은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며 봄의 중앙이 되는 날이다. 춘분 전후 7일간을 봄의 피안이라 하여 불교에서는 극락왕생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춘분 기간에는 제비도 남쪽에서 날아오고, 우레소리가 들려오며 그 해 처음 번개가 친다고 하였다. 춘분은 추분과 함께 태양이 지구의 적도 위에 있는 날인데, 춘분을 중춘 또는 중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점복(占卜) 2월은 농사가 시작되는 달인 만큼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알아보는 점속(占俗)이 많고, 지켜야 할 금기도 많다.

2월 1일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구름이 끼면 큰 폭풍우가 있다. 2월 6일 저녁에 좀생이별을 보고 한 해 일을 점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좀생이본다'라고 한다. 좀생이별이 달보다 약간 앞서 가거나 달과 나란히 있으면 풍년이 들고 좋은 징조이나, 만약 뒤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1 영등제
경북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국립민속박물관

2 영등 환영제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민속박물관





좀생이별은 작은 별들이 여러 개 모인 성군(星群)으로서 겨울 남쪽 하늘 황소자리에 있는 폴레아데스의 우리말 이름이다. 묘성이란 '다스리는 별'이라는 뜻으로 옛날부터 농경의 별로 숭상하였다.

춘분날에는 구름과 바람 등 일기(日氣)를 보아 농사일과 사람의 질병을 점치기도 하였다. 2월 20일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날씨가 흐리면 평년작이며, 날씨가 맑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2월에 월식(月蝕)이 있으면 곡식이 적게 되고 인재(人災)가 있다. 2월에 묘일(卯日)이 세 번 들면 목화(木花)와 콩, 보리가 풍년 든다.

금기(禁忌) 2월에는 여자에 관한 금기가 많다. 특히 초하루에는 남의 집에 가는 것을 꺼린다. 이 날 여자가 남의 집에 일찍 들어가면 그 해 닭 등 가축이 안 된다. 그래서 친척이라도 여자가 들어오면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을 낸다. 또 여자가 식전(食前)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일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 여자가 일찍 집에 들어오면 삼[麻]의 키가 크지 않는다고 하여 삼을 심는 집에서는 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기도 한다. 여자들은 이 날 머리도 빗지 않고 칼질도 않으며 빨래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자에 대한 금기는 근래에도 찾아볼 수 있다. 택시의 첫손님에 여자를 태우지 않으려는 것이나, 시장 가게에서 여자손님보다는 남자손님이 먼저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 따위가 그 보기이다.

현대세시풍속 양력 2월의 현대세시로는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가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대학교에서는 졸업식을 한다. 지방축제로는 아우내봉화제, 죽서문화제, 태기문화제 등이 있다.



大壯卦『周易諺解』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 韓國風俗誌(全海淳, 同人文化社, 1956), 東國歲時記 外(李錫浩 譯, 乙酉文化社, 1969), 韓國風俗誌(梁在淵外, 乙酉文化社, 1971), 韓國歲時風俗(任東權, 瑞文堂, 1973),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장주근, 대한기독교서회, 1974), 명절과 풍속(이석호, 민족문화추진회, 1983), 경기민속지 III-세시풍속·놀이·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필자 | 하효길(河孝吉)

감춘(酣春)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감(**酣**)은 한창 성하다는 뜻으로, 봄의 기운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2월을 뜻한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이하(李賀)의 시 '이월(二月)'에 "부들은 칼을 엇세운 듯 바람은 따사롭고 수고로이 나는 꾀꼬리와 제비는 봄을 원망하네(蒲如交劍風如熏 勞勞鶯燕怨**酣**春)."라는 구절이 있다. 중국 송(宋)나라 구양수(歐陽修)의 시 '매성유회음(梅聖俞會飮)'에 "다시 그대의 시 구절을 읊조리니 구운 고기 맛보다 낫고 살구꽃 곱고 아름다우니 봄은 무르익네(更吟君句勝啖炙 杏花妍媚春**酣酣**)."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歐陽文忠公集, 李賀歌詩篇.
필자 | 이창희(李昌熙)

대장월(大壯月)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주역(周易)』 64괘(卦) 중 12괘를 뽑아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대장괘(大壯卦, ䷡)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내용 『주역(周易)』 64괘(卦) 중 대장괘는 상괘(上卦)

가 진괘(震卦, ☳)이고, 하괘(下卦)가 건괘(建卦, ☰)로 이루어진 괘이다.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는 복괘(復卦)를 음력 11월에 배속시켰으므로, 대장괘는 음력 2월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이창희(李昌熙)

묘월(卯月)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묘(卯)는 십이지(十二支) 중 네 번째에 해당하나, 음력의 역월(曆月)은 중국 하(夏)나라 때 십이지의 세 번째인 인(寅)을 정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묘월(卯月)은 2월에 해당한다.

내용 『진서(晉書)』「악지(樂志)」편에 "2월은 묘이며, 묘는 무성하다. 양기가 생겨나서 번성한다(二月卯 卯茂也 陽氣生而孳茂)."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율서(律書)」에 "2월은 십이지(十二支)로는 묘(卯)에 해당한다. 묘는 무성하다[茂]는 뜻으로 만물이 무성하게 됨을 말한다(二月也 其於十二子爲卯 卯之爲言茂也 言萬物茂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史記, 晉書.
필자 | 김정석(金正錫)

뱃놈의 액달(-厄-)

정의 인천광역시 옹진 지역에서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특히 기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어업과 관련된 풍속어(風俗語)의 하나이다.

내용 옹진 지역에서는 '2월은 바람달이고, 뱃놈의 액달'이라는 말이 있다. 2월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是月禁乘船'이라 하여 바람이 많아 승선을 금한다고 하였다. 바람이 많으니 고기잡이가 쉽지 않고, 뱃사람에게는 액(厄)달이 될 수밖에 없다.

옹진군 덕적도와 백령도에는 2월에 유독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2월을 '뱃사람의 액달'이라고도 한다. 또 2월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밴댕이 추위한다.'라고 한다. 백령도에서는 2월 13일을 유독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여 '밴대채날'이라고 한다. 음력 2월이면 홍어잡이를 할 때인데 이 날은 웬만해서는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2월 13일은 기후의 변화가 심한 날인데 '밴대채'라는 사람이 이 날 옷을 12번 갈아입었다가 얼어죽었다고 한다. 또는 밴대채가 이 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었기 때문에 뱃사람은 배를 띄우면 안 된다고 한다. 밴대채란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촐랑대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변덕이 심한 사람을 비유해서 '밴대채 같은 놈'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지역민들은 밴댕이라는 물고기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밴댕이라는 고기는 성질이 급해 잡아 올리자마자 색이 변하여, 잡아 올렸을 때와 죽었을 때에 빛깔이 크게 다르다. 이것이 밴대채의 변덕과 닮은 데가 있다는 의미이다.

의의 충북 이남 지역이나 제주도에서는 2월을 영등달, 영등할매달이라고 하며, 제주도에서는 이를 위하는 영등굿이 전승되고 있다. 강화도 지역에서는 10월 20일을 '손돌이 날', '손돌이 죽은 날', '고놈 죽은 날'이라고 하여 뱃일을 하지 않는다. 백령도의 2월 13일 밴대채날처럼 모두 바람이 심하게 부는 2월을 가리키는 말이며, 특정한 날, 특별한 인물에 얽힌 전설과 함께 어업을 금하는 금기가 따르는 풍속이다. 바닷가나 섬이라는 환경 조건 때문에 날씨는 뱃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리적인 차이에서 오는 시기와 전설상의 차이는 있으나 어업과 관련된 유사한 전설과 금기를 살필 수 있는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輿地勝覽, 甕津郡誌(甕津郡, 1989), 경기민속지 I -개관 편-(경기도박물관, 1998).
필자 | 김지욱(金志昱)

여월(如月)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여(如)는 겨울잠을 자던 만물이 이 시기가 되면 서로 뒤따라 깨어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 『이아(爾雅)』「석천(釋天) 월명(月名)」편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

(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病**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소(疏)에 “여(如)는 따른다는 뜻이니, 만물이 서로 뒤따라 나오는 것이다(如者 隨從之義 萬物相隨而出).”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爾雅, 周易.
필자 | 이창희(李昌熙)

여월(麗月)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여(麗)는 곱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한창 무르익은 봄날 밤에 뜬 아름다운 달을 뜻한다.
내용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소통(蕭統)이 지은 「2월계(二月啓)」에 “꽃이 밝고 달이 곱다(花明麗月).”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2월을 가리켜 여월이라 불렀다.

참고문헌 | 文選.
필자 | 이창희(李昌熙)

여한(餘寒)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겨울이 지났는데도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는 봄날의 추위를 의미한다. 꽃샘추위, 한춘(寒春), 춘한(春寒)이라고도 한다.
내용 음력 2월이 되면 낮이 길어지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기운이 완연해지지만 아직 바람은 매섭게 불어 “2월 바람에 김칫독 깨진다.”,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제장씨은거(題張氏隱居)’ 첫째 시에 “봄 산을 짝도 없이 홀로 찾아가는데 나무 찍는 소리만 들리니 산은 더욱 조용하네. 계곡 길에 추위가 남아 얼음과 눈을 밟으며 지나 석문산에 해가 비스듬할 때에야 숲에 도달하였네(春山無伴獨相求 伐木丁丁山更幽 澗道餘寒歷**冰**雪 石門斜日到林丘).”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纂註分類杜工部集.
필자 | 이창희(李昌熙)



영동할미달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내방신(來訪神)이자 풍신(風神)인 영동할미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달[月]이라 하여 2월을 영동달, 영동할미달, 영동할맘달, 영동할만네달, 영동할마시달, 영등달, 영등할마니달, 영등달, 영등할망달, 영등할미달, 영등할머니달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동마고할마니달, 풍신할만네달, 이월할만네달, 영두제석할매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풍신(風神)에 대한 옛 문헌의 기록을 보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제주목(濟州牧)」 풍속조(風俗條)에는 연등(燃燈), 영조 때 신광수(申光洙)의 문집인 『석북집(石北集)』에는 영등(迎燈), 영조 때 『학성지(鶴城誌)』에는 영등(盈騰) 또는 영등제석(盈騰帝釋), 정조 때 이학규(李學逵)의 문집 『낙하생전집(洛下生全集)』「포화옥집(匏花屋集)」에는 영동(靈童), 이옥(李鈺)의 『봉성문여(鳳城文餘)』에는 영등(影等), 헌종 때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영등(靈登), 고종 때 윤연기(尹延錡)의

『동환록(東寰錄)』에는 영등(嶺燈), 1920년대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는 영동(靈童), 영동(嶺童), 영동(永同), 일본인의 기록에는 영등(迎登), 영동(嶺東), 영등(嶺登) 등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洛下生全集,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東寰錄, 鳳城文餘, 石北集, 鶴城誌, 朝鮮巫俗考(李能和, 啓明19, 啓明俱樂部, 1927), 風神考(宋錫夏,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朝鮮의 鬼神(村山智順 저, 노성환 역, 民音社, 1990), 朝鮮民俗誌(秋葉隆 著 · 沈雨晟 譯, 東文選, 1993), 固城地域의 영동할미제와 禁忌俗信(金承璨, 韓國文化硏究7,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1995), 부산지방의 영동할미제(황경숙,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황경숙(黃京淑)

영월(令月)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상서롭고 좋은 달이라는 뜻으로, 길월(吉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장형(張衡)의 「귀전부(歸田賦)」에 "2월은 영월(令月)이며, 이때는 조화롭고 기운이 맑다(仲春令月 時和氣淸)."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소통(蕭統)이 지은 「2월계(二月啓)」에 "절기가 아름다운 때이고, 시기는 좋은 달이다(節應嘉辰 時登令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사물이명록(事物異名錄)』 「세시 2월(歲時二月)」편에는 "2월을 중양(仲陽)이라 하고 영월(令月)이라고 한다(二月曰仲陽 曰令月)." 하였다.

참고문헌 | 文選, 事物異名錄.
필자 | 이창희(李昌熙)

제석달[帝釋月]

정의 2월을 가리키는 영등달을 달리 부르는 말. 경상남도 고성군의 일부 지방에서는 제석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원래 제석(帝釋)은 범어(梵語)인 환인제타라(桓因提陀羅)에서 온 말로 수미산(須彌山) 도리천(忉利天)의 선견성(善見城)에 있어 사천왕(四天王)과 32천을 통솔해서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아수라(阿修羅)의 군대를 징벌한다는 신인데, 우리의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에서는 제석신을 삼신[産神], 조령(祖靈), 곡령(穀靈)의 복합신으로 섬기며, 가정에서 성주신[成造神], 조왕신(竈王神), 터주신, 철융신, 우마신(牛馬神), 측간신(厠間神)과 함께 모시고 있다.

농촌에서는 간혹 삼신[産神]을 제석(帝釋)이라 하고, 백지로 자루를 만들어 그 안에 쌀 3되 3홉을 넣어 안방 아랫목 구석에 높이 달아놓은 것을 제석자루 또는 삼신자루라 부르기도 하고, 서너 되 들이 오지단지에 쌀을 담아 백지로 봉한 뒤 안방구석 시렁 위에 얹어놓은 것을 시준단지, 세존단지, 조상단지, 지석단지, 제석오가리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조령숭배(祖靈崇拜)와 곡령숭배(穀靈崇拜)가 복합된 한 형태이다. 영등할미를 제석이라 부르는 것은 제석의 기능이 영등할미의 기능과 같이 자손번창, 오곡풍등(五穀豊登)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朝鮮巫俗考(李能和, 啓明19, 啓明俱樂部, 1927), 風神考(宋錫夏,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朝鮮의 鬼神(村山智順 저, 노성환 역, 民音社, 1990), 朝鮮民俗誌(秋葉隆 著 · 沈雨晟 譯, 東文選, 1993), 固城地域의 영동할미제와 禁忌俗信(金承璨, 韓國文化硏究 7, 釜山大學敎 民族文化硏究所, 1995), 부산지방의 영동할미제(황경숙,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황경숙(黃京淑)

제석할미달(帝釋-)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2월의 영등달을 제석할미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영등할미의 기능과 민간 신앙으로의 제석할미의 기능이 다 같이 안가태평과 풍농(豊農)과 재화흥(財貨興)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동할미달을 경남 거제도에서는 풍신제석(風神帝釋)달이라 부르기도 하고, 경남 고성에서는 풍석(風釋)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외에 2월을 영등제석(盈騰帝釋)달, 제석할미달, 제석할매달, 제석할맘네달, 지석할미달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등할미를 모시는 제의터를 장독대에 배설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서는 장독할매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참고문헌 | 朝鮮巫俗考(李能和, 啓明19, 啓明俱樂部, 1927), 風神考(宋錫夏,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朝鮮의 鬼神(村山

〈제석천황 할망제〉
1 수저꽂기
2 비손
3 소지올리기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
국립민속박물관





智順, 노성환 역, 民音社, 1990), 朝鮮民俗誌(秋葉隆 著 · 沈雨晟 譯, 東文選, 1993), 固城地域의 영동할미제와 禁忌俗信(金承璨, 韓國文化硏究 7, 釜山大學敎 民族文化硏究所, 1995), 부산지방의 영동할미제(황경숙, 부산의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황경숙(黃京淑)

중양(仲陽)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중(仲)은 그 계절의 두 번째 달을 뜻하고 양(陽)은 따뜻한 봄을 뜻하므로, 봄을 의미하는 세 달(1월, 2월, 3월) 중 두 번째 달인 음력 2월을 나타낸다. 중춘(仲春)이라고도 한다.

내용 『사물이명록(事物異名錄)』「세시 2월(歲時二月)」편에 "2월을 중양(仲陽)이라고 한다(二月曰 仲陽)."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事物異名錄.
필자 | 이창희(李昌熙)

중춘(仲春)

정의 봄이 한창인 때를 의미하는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중(仲)은 가운데를 의미하여 각 계절의 중간 달을 가리키므로, 봄의 시기인 음력 1, 2, 3월 중 중간 달인 2월을 말한다. 여월(如月), 영월(令月), 여월(麗月), 대장월(大壯月), 중양(仲陽), 감춘(酣春), 화조(華朝), 협종(夾鐘)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서경(書經)』「요전(堯典)」에 "해의 길이가 알맞고 조[鳥, 鶉火星]가 남중하는 때로 중춘을 정하라. 그리하면 백성들은 들로 나가 흩어져 농사를 짓고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번식할 것이다(……日中鳥星 以殷仲春 厥民析 鳥獸孳尾, ……)."라고 하였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중춘의 달에는 해는 규수(奎宿)에 있으며, 저녁에는 호성(弧星)이 남중하고 새벽에는 건성(建星)이 남중한다. ……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하며, 꾀꼬리가 울고 매가 변하여 비둘기가 된다(仲春之月 日在奎 昏弧中 旦建星中. …… 始雨水 桃始華 倉庚鳴 鷹化爲鳩 ……)."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여씨춘추(呂氏春秋)』「십이기(十二紀)」와 「중춘기(仲春紀)」, 『회남자(淮南子)』「시칙훈(時則訓)」에도 『예기』「월령」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書經, 禮記, 呂氏春秋, 淮南子.
필자 | 신하령(申河令)

춘은(春殷)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봄의 기운이 성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 은(殷)은 성대(盛大)하다는 의미로, 『주역(周易)』「예괘(豫卦)」의 상사(象辭)에 "성대하게 상제(上帝)께 바친다(殷薦之上帝)."라고 하였고, 그 전(傳)에 "은(殷)은 성(盛)이다."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예기(禮記)』에 "은전(殷奠)이라는 말이 있으니 성대함을 이른다."라고 한 구절도 있다.

참고문헌 | 禮記, 周易.
필자 | 이창희(李昌熙)

춘한(春寒)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겨울이 지났는데도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는 봄날의 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꽃샘추위, 여한(餘寒)이라고도 한다.

내용 음력 2월이 되면 낮이 길어지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기운이 완연해지지만 아직 바람은 매섭게 불어 "2월 바람에 김칫독 깨진다.",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죽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시 '송공소부사병귀유강동겸증이백(送孔巢父謝病歸遊江東兼呈李白)'에 "깊은 산 큰 못으로 용과 이무기는 멀리 떠나고 봄추위에 구름 낀 들녘 풍경 저물어가네(梁山大澤龍蛇遠 春寒野陰風景暮)."라고 한 구절이 있고, '풍우간주전락화희신구(風雨看舟前落花戲爲新句)' 시에 "강가 인가의 복숭아 나뭇가지는 추운 봄 가랑비에 성긴 울타리 밖으로 솟았네(江上人家桃樹枝 春寒細雨出疎籬)."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纂註分類杜工部集.
필자 | 이창희(李昌熙)

협종(夾鐘)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양 음악의 12율(律) 중에서 4번째인 협종(夾鐘)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내용 12율은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의 순으로 되어 있다. 12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黃鐘)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협종은 2월에 해당한다. 중국 한(漢)나라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오행(五行)」편에 "2월을 협종(夾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협(夾)은 겉껍질에서 싹이 나옴이니, 만물이 겉껍질에서 싹이 나와 종류대로 나뉘는 것을 말한다(二月律爲之夾鐘何 夾者孚甲也 言萬物孚甲種類分也)."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필자 | 홍성훈(洪性薰)

화조(華朝)

정의 음력 2월을 달리 부르는 말. 화(華)는 화(花)의 고어(古語)로, 화조(花朝)라고도 한다. 이 시기가 되면 온갖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데에서 붙인 이름이다. 2월 12일을 백화(百花)가 피어나는 날이라고 하여 화조(花朝)라고 하며, 2월 15일과 2월 2일을 화조(花朝)라고도 한다.

내용 『시경(詩經)』「국풍(國風)」 정풍(鄭風) '유녀동거(有女同車)' 시에 "그 꽃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떨어진다(其華朝生暮落)."라는 구절이 있다. 『제요록(提要錄)』에 "2월 15일을 화조라고 하는데 고려에서는 이 날을 상원절이라고 한다. 지금 오(吳)나라 풍속에는 2월 12일을 화조라고 한다(二月十五日爲花朝 高麗以是日爲上元節 今吳俗以二月十二日爲花朝)."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백거이(白居易)의 '비파행(琵琶行)' 시에 "봄강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가을밤이면 이따금 술을 가지고 홀로 마시네(春江花朝秋月夜 往往取酒還獨傾)."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詩經, 提要錄.
필자 | 이창희(李昌熙)


중요무형문화재
영등송
주최·주관 :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正日

정일

영등굿은 음력 이월 초하루에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굿이다.
음력 이월 초하루에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제주도에 찾아온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음력 이월을
영등달이라 하며
영등달에 바람의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영등굿을 한다.
이월 초하루에는 영등신을 맞이하는
영등환영제를 하며
열흘이 지나 보름이 될 때까지
순망(旬望) 사이에 각 마을에서는
영등신을 보내는 영등송별제를 한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바람의 신을 맞이하여 벌이는
새봄맞이 풍어굿이다.

이월 초하루

정의 음력으로 2월 첫째 날을 가리키는 말. 이월 초하루를 가리켜 머슴날, 노비일, 아드렛날, 하리아드렛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옛날에는 중화절이라 하여 임금이 중화척(中和尺)이라는 자를 신하에게 내려주었으며 농사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도 이 날을 명절로 쳐서 다양한 풍속들이 행해졌다. 이월은 경칩과 춘분의 두 절기가 있다. 봄기운이 시작되어 농사 준비를 하는 때이며, 논밭을 처음 가는 초경을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머슴을 위로하는 것이 이월의 주요한 풍습이었다. 그리하여 주인은 머슴에게 새 옷과 음식을 내주어 하루를 즐겁게 지내게 하며, 머슴들은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다니며 걸립을 한다. 걸립이 끝나면 머슴들이 씨름판을 벌여 힘겨루기도 한다. 또 정월 보름에 세웠던 볏가릿대에서 벼이삭을 내려 흰떡을 만들고 콩으로 소를 넣어 송편을 만들어 머슴들에게 나이만큼 먹이기도 하는데 이를 나이떡이라 한다.

이월 초하루에는 콩을 볶아서 식구들이 나누어 먹기도 한다. 이 날 콩을 볶아 먹으면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콩을 볶을 때는 주걱으로 저으면서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하고 주문을 왼다. 이 날 콩을 볶으면서 그 해의 농사를 점치기도 하는데, 콩과 약간의 보리를 섞어 한 되 정도를 솥에 볶아 한 되가 되면 풍년이 들고, 한 되가 못 되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영등할머니를 맞이하는데, 영등할머니는 풍신(風神)으로 이월 초하루에 내려왔다가 이월 보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보통 삭일(朔日)이라고 하면 매달 초하루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이월 초하루를 삭일이라고 부르며 중요하게 여겼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필자 | 지춘상(池春相)

구럭달기

정의 함경도에서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이르는 말. 구럭은 구러기 또는 구레기로 노래기의 사투리이다. 즉 구럭달기는 남한의 노래기날과 동일한 의미와 풍속을 지니며 구럭달개라고도 한다.


1


3


2

1 볏가릿대내리기
2 오곡꺼내기
3 고시레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황현만

내용 예전에는 대부분의 집이 초가였으므로 노래기가 많았다. 구럭달기는 노래기를 퇴치하는 날로, 노래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집 안팎을 대청소하며, 가축우리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리고 "향랑각씨속거천리지외(香娘閣氏速去千里之外)", "행진강남수천리(行盡江南數千里)" 같은 문구의 부적을 써서 집안에 붙이기도 했다. 이는 노래기로 대표되는 벌레들이 멀리 가라는 의미이다. 또 천장에는 '충(蟲)'자를 써서 붙이고 방의 네 기둥에는 종이에 '조(鳥)'자를 써서 붙이기도 했다. 이는 새가 벌레, 곧 노래기를 잡아먹으라는 뜻이다.

이 날 부녀자들은 마을에서 방이 큰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북 장구 또는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붓고 쪽박을 물 위에 엎어놓고 숟가락으로 때리며 물장구를 치면서 춤도 추고 즐겁게 논다.

참고문헌 | 咸鏡北道誌(咸鏡北道誌編纂委員會, 1970), 連浦面誌(連浦面誌編纂委員會, 1978),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咸鏡南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81),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출판부, 1999).
필자 | 김수미(金秀美)

권농일(勸農日)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농본 국가로서 농민의 노고를 위로하고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

내용 광복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권농일(勸農日)을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이월 초하루 머슴날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경기도 김포 지역의 경우 2월 1일 중화절 행사로 나이떡을 먹음과 함께 이 날을 권농일로 기념한 기록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음력 2월 1일을 '권농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모든 곡식의 종자를 선택하는 날'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개 농가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루 머슴날을 권농일이라 하지 않는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춘경기(春耕期)에 임금이 손수 소에 맨 쟁기를 잡고 사직단에 제사를 드렸으며, 왕비는 궁 안에 준비된 초가에서 누에에게 뽕잎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모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권농일



권농기념일
1954년 6월 15일 국가기록원

은 1959년까지는 6월 15일에 기념식을 가졌다. 그 이후 모내기 시기가 차츰 빨라짐에 따라 1960년부터 1972년까지는 6월 10일로 닷새 앞당겼다. 그 뒤 모내기 일손을 더 쉽게 지원하기 위해 1973년부터는 기념식을 폐지하고 6월 첫째 주 토요일로 기념일을 바꾸었다. 11년 후인 1984년부터는 또다시 5월 넷째 주 화요일로 날짜를 앞당겼으나,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흔적만 전해질 뿐이다. 이러한 농가 일손 돕기는 대개 공무원이나 군인, 학생, 도시의 유휴 인력을 동원하여 일손이 가장 부족한 농촌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타심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액의 지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납부된 지원 대금은 공공기관에 기탁되어 지역단위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동용 영농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金浦郡誌(金浦郡誌編纂委員會, 金浦郡, 1993).
필자 | 이관호(李官浩)

나이떡날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일년 내내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기라는 뜻에서 송편을 빚어 노비(머슴)나 어린이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게 한 날이다.

내용 『경도잡지(京都雜志)』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같은 옛 문헌에 따르면, "정월 대보름날 세워 두었던 볏가릿대[禾竿]를 내려서 그 속에 넣었던 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노비들로 하여금 나이 수대로 먹게 하였다. 그러면 노비들이 일년 내내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를 나이떡, 머슴떡, 노비떡이라고 하는데, 이를 머슴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만들어 먹였다.

지역사례 강원도 영서 지방에서는 이 날 가족의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흰쌀을 떠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도 2월 초하룻날을 머슴날 또는 나이떡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 쌀을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떠서 송편을 만들어 온 식구가 각각 제 나이만큼 먹는다. 이를 세병(歲餠) 또는 수복병(壽福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해 무병과 소원성취를 빌기 위해서이다. 이때 머슴에게도 나이 수대로 떡을 먹인다. 이는 농사를 지어줄 머슴을 잘 대접하기 위함이다. 충북 영동지역 역시 이 날을 '노다리', 즉 노는 날이 마지막 간다 하여 떡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金浦郡誌(金浦郡誌編纂委員會, 金浦郡, 1993),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이관호(李官浩)

노래기날

정의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를 퇴치하는 날. 이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대청소하는 날이라고도 한다. 이는 노래기를 퇴치하기 위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노래기 국립민속박물관

유래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등장하는 노래기 퇴치 기록과 『경도잡지(京都雜志)』,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노래기부적' 기사를 볼 때 그 연원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주거 환경이 바뀜에 따라 노래기라는 벌레가 사라지면서 풍속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내용 2월 초하루, 노래기날에 행하는 노래기를 퇴치하는 방법은 첫째 집안 대청소이고, 둘째는 솔가지를 꺾어 지붕 위에 던지는 일, 셋째는 콩을 볶으면서 주문을 외는 방식이 있다. 2월 초하루에 노래기를 퇴치하기 위한 처방을 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이 날을 노래기날로 지칭하는 지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월 초하루를 노래기날로 지칭하는 지역은 전북과 경기도 안성 등지이다. 전주에서는 이 날을 사내기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노래기를 사내기라고도 부르기 때문이다. 노래기날 아침에 솔가지를 지붕에 던지는데 이를 사내기뱅이라고 한다. 한편 전주, 군산, 진안, 익산 등지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콩, 명주실, 나락, 보리, 수수를 넣고 함께 볶는데, 이것을 '좀 볶는다', '벌거지 볶는다'라고 한다. 군산에서는 콩을 구워서 지붕에 던지기도 한다. 전북 정읍에서는 솔가지를 지붕에 던지는 것을 '사내기 밥 준다'라고 한다. 전북 익산에서는 콩을 볶으면서 "노래기 볶자, 콩 볶자."라고 외치고 지붕 양쪽에 콩을 던진다. 안성에서는 대청소를 하여 노래기알을 쓸어내고 노래기 부적을 붙인다.

의의 노래기날을 정한 것은 아마도 집안의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를 비롯한 벌레들을 물리치고 집 안팎을 깨끗이 하려는 선조들의 위생 관념과 지혜가 돋보이는 풍속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慵齋叢話,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安城郡誌(安城郡誌編纂委員會, 安城郡,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시덕(金時德)

노비일(奴婢日)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내용 노비일(奴婢日)은 '머슴날'의 다른 명칭으로 이와 관련된 풍속은 머슴날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노비란 명칭은 조선시대 신분 사회에서 파생된 것으로 머슴과는 차이가 있다. 머슴은 고용주의 집에서 새경[私耕]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업 임금 노동자로 고려시대에는 용작(傭作)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고공(雇工)'이라 하였으며 노비와는 근본적인 신분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계급 사회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머슴이란 명칭이 농촌 사회에 일반화되어 많은 노비들이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고, 호칭도 머슴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노비일 대신 머슴날이란 명칭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각종 세시 관련 문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2월조에 보면 "이월 초하루에 화간(禾竿)에서 벼이삭을 내려 송편을 만들어 종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인다. 그래서 속칭 이 날을 노비일이라고 한다. 농사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이를 노비에게 먹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세시풍속초(歲時風俗抄)』에도 "낟가릿대[禾竿]를 거두며 거기 꽂았던 곡속(穀屬)으로 송병(松餠)을 만들어 먹는 것이 2월 1일의 풍습이오. 송병(松餠)은 노비(奴婢)들에게도 골고루 주어 저마다 그 연령대로 먹게 하니 이 날을 노비일(奴婢日)이라 하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노비일이란 명칭은 조선시대 계급 사회에서 파생된 것으로 전통 사회에서는 머슴날을 노비일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歲時風俗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이관호(李官浩)

농군의 날(農軍-)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머슴을 포함하여 농사를 짓는 일꾼들을 농군(農軍)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 날을 농군의 날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농군의 날은 머슴날의 다른 이름으로 이와 관련한 풍속은 머슴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농군(農軍)이란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농사꾼, 농부, 일꾼 등과 서로 통하는 말이다. 따라서 농군의 날은 이월 초하루 머슴날을 대신하여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新造語)이다. 즉 충남 서산 지역의 경우 음력 이월 초하루를 농군의 날, 머슴의 날이라고 한다. 이 날 정월 대보름에 세웠던 볏가리를 내린다. 부잣집에서는 농부들을 초청하여 술과 떡을 비롯한 갖은 음식으로 푸짐하게 대접한다. 그러면 농부들은 풍장(풍물)을 치면서 하루를 즐겁게 논다. 이때 볏가리에 매어두었던 동아줄을 섬에 나누어 넣은 다음 부잣집 광에 들여놓는데, 이를 '볏섬들인다'라고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瑞山民俗誌 上(김태곤 외, 瑞山文化院,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 · 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이관호(李官浩)

머슴날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겨우내 쉬었던 머슴들을 농가에서 다시 불러들여 일년 농사를 부탁하고 위로하는 뜻에서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여 하루를 즐기도록 한 머슴들의 명절이다. 지역에 따라서 머슴날, 노비일, 일꾼날, 하리아드랫날, 나이떡날, 농군의 날, 권농일, 선머슴날, 여종날[婢日]이라고도 부른다. 일꾼들이 겨울 동안 큰 농사일 없이 편안하게 쉬었던 몸을 풀고 다시 농사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날로서 농부들과 관련된 다양한 풍속이 전해온다.



볏가릿대 속의 곡식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내용 음력 2월은 농사력으로 볼 때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로,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공전 주기에 따라 일년을 15마디로 나눈 24절기 중 음력 2월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처음 나온다는 경칩(驚蟄)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春分)이 드는 달이기도 하다. 이 시기 농가에서는 겨우내 헛간에 보관해 두었던 농기구를 꺼내어 손질을 하며 일년 동안 사용할 쟁기줄을 준비한다. 특히 2월은 농한기에 있어서 농부들의 마지막 명절인 '머슴날'이 끼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음력 이월의 초하루에 주인이 술과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머슴들에게 한턱 내며 머슴들은 풍물을 울리면서 노래와 춤을 추며 하루를 즐긴다. 또한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머슴들에게 돈을 주어 장터에 가서 맘껏 쓰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때 서는 장(場)을 머슴장이라고 한다. 한편, 이 날 머슴들은 정월 대보름에 세웠던 볏가릿대를 내려 일년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볏가릿대에 달아놓았던 오곡의 양이 처음보다 늘었거나 싹이 났으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생각하였다.

『경도잡지(京都雜志)』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같은 문헌에, "정월 대보름날 세워두었던 볏가릿대[禾竿]를 내려서 그 속에 넣었던 곡식으로 송편 같은 떡을 만들어 머슴들로 하여금 나이 수대로 먹게 하였다. 그러면 머슴들이 일년 내내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를 나이떡, 머슴떡, 노비떡이라고 하는데, 이를 머슴들뿐만 아니라 집안의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었다.

서울의 세시풍속을 월별로 기록하고 있는 『세시풍요(歲時風謠)』에서도 2월 초하룻날 나이떡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볏가릿대를 내려서 만든 떡을 여종들로 하여금 나이에 따라 먹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년을 비는 초하루 봄볕이 따뜻하니, 볏가릿대 끝에 매단 주머니 풀어 내리네. 늙은 여종 부지런히 물 뿌리고 청소하니, 떡을 가장 많이 주어 배불리 먹게 하네(穰田吉日暖初陽 解下竿頭白粲囊 老婢莫辭勤灑掃 **取**多分餠飽飢腸)."

머슴날은 성인식(成人式)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대개 스무 살 정도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성인이 되어 마을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을 어른이나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한턱 내야 한다. 이를 진세식(進世式) 또는 진서턱이라고 하는데, 이때 힘을 시험하기 위해 약 100근(60킬로그램) 정도 되는 둥근 들돌을 들어올려야 한다.

지역사례 경남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루 풍신제(風神祭) 때 올린 제물을 머슴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속이 있다. 추린 짚단의 두 끝을 묶은 꾸러미나 오쟁이 속에 밥, 떡, 고기를 넣어 장독이나 도장(광), 또는 집안에 있는 감나무에 걸어두면 머슴들이 꺼내 먹는데, 이를 머슴차지라고 한다.

강원 영서 지방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루를 머슴날 또는 일꾼날이라고 한다. 추수가 끝난 뒤 내보냈던 머슴들을 이때가 되면 다시 받아들이는데,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주인들은 머슴들에게 일년 농사를 잘 지어달라는 의미에서 하루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이 날 가족의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흰쌀을 떠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마당에는 짚가리와 수수깡에 옥수수와 수수이삭을 꽂아 만든 보리 낟가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풍물을 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 또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머슴날 먹는 음식을 말똥떵이라 하고 이 음식을 먹고 돌아갈 때에는 "말똥떵이 잘 먹었다."라고 한다.

경기 김포에서는 2월 초하루를 머슴날 또는 나이떡날이라고 한다. 이 날 쌀을 숟갈로 나이 수대로 떠서 송편을 만들어 온 식구가 각자 자기 나이만큼 먹는다. 세병(歲餠) 또는 수복병(壽福餠)이라고 하는 이 떡에는 그 해 무병과 소원성취를 비는 정성이 담겨 있다. 이때 머슴에게도 나이 수대로 떡을 먹이는데, 이는 농사를 지어줄 머슴을 대접하기 위함이다.

경기 안성에서도 2월 1일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주인들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머슴들을 배불리 먹이며 머슴들은 풍물을 치며 하루를 흥겹게 지낸다. 한편 20살이 되는 머슴들은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신고식으로 선배 머슴들에게 한 턱을 낸다. 그럼으로써 이때부터 성인 품삯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각 농가에서는 온 식구의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를 세병(歲餠) 또는 수복병(壽福餠)이라 하고, 이 날을 나이떡날이라고 한다.

충남 서산에서는 2월 1일을 농군의 날 또는 머슴의 날이라고 한다. 정월 대보름에 세운 볏가릿대를

이 날 내린다. 이때 볏가릿대에 매달아놓았던 오곡으로 그 해 풍흉을 점치는데, 오곡이 불었으면 풍년이 들고, 불지 않았으면 흉년, 그대로 있으면 평년작이라고 생각한다. 볏가릿대에 매었던 삼방줄[동아줄]은 섬에 나누어 넣은 다음 부잣집 광에 들여놓는데, 이를 '볏섬들인다'라고 한다. 또한 이 날 부잣집에서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한바탕 풍장을 치면서 놀게 한다.

의의 2월의 머슴날은 농부들의 넉넉한 마음이 듬뿍 담긴 우리의 농경의례로서, 한 해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소망에서 생긴 농민들의 명절이다. 또한 평소에 잘 대접받지 못했던 머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나눔의 명절이다. 따라서 고된 농사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머슴들에게 베푼 주인의 작은 배려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記(秋齋集), 歲時雜詠, 歲時風俗抄, 歲時風謠,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瑞山民俗誌 上(김태곤 외, 瑞山文化院, 1987),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安城郡誌(安城郡祉編纂委員會, 安城郡, 1990),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人의 敎育歲時風俗(孫仁銖, 文音社, 1991), 金浦郡誌(金浦郡誌編纂委員會, 金浦郡, 1993),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저, 임기중 역, 집문당, 1993),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이관호(李官浩)

삭일(朔日)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내용 2월 1일은 삭일(朔日)이라 하였다. 삭(朔)은 매월 음력 초하루를 말하지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옛날에는 2월 초하루를 가리켜 특별히 삭일이라 하였다. 삭일에는 중화척(中和尺)을 재집(宰執)과 시종신(侍從臣)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필자 | 지춘상(池春相)

선머슴날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농사일이 아직 서투른 머슴을 선머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머슴날이라는 말이 나왔다.

내용 선머슴이란 차분하지 못하고 거칠게 덜렁거리는 사내아이를 두고 이르는 말로 풋머슴이라고도 한다. 우리 속담에 얌전하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여자아이를 빗대어 부를 때에도 "선머슴 같다"라고 한다. '선'이란 '일에 능숙하지 못하고 설익다'는 의미이며, '머슴'이란 '농가에 고용되어 농사를 지어주는 일꾼'이란 의미로,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선머슴'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선머슴이란 아직 농사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일꾼을 가리키는 말로, 대개 사내아이들을 '선머슴아'라고 부른다.

이처럼 선머슴은 농사일을 아직 능숙하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예부터 전국적으로 각 농가에서 많이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머슴날을 선머슴날이라고도 불렀는데, 행해지는 풍속은 머슴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참고문헌 | 새우리말 큰사전(申瑬澈 外, 三省出版社, 197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우리 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이관호(李官浩)

여종날[婢日]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여종이란 조선시대 천민 계급이었던 여자 노비를 일컫는 말로, 남자 노비들의 명절인 노비일에 대비하여 여종날이란 말이 파생되었다.

내용 음력 이월 초하루를 노비일이라고 하여 노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주기를 바라며,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루를 쉬게 하였다. 그런데 남자 노비들이 주로 농사나 바깥 살림에 힘썼다면, 여자 노비들은 밭일과 집안일에 힘썼다. 따라서 여자 노비들에게도 이 날 송편을 빚어 나누어주고 하루를 쉬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세시풍요(歲時風

謠)』는 "풍년을 비는 초하루 봄볕이 따뜻하니, 볏가릿대 끝에 매단 주머니 풀어 내리네. 늙은 여종 부지런히 물 뿌리고 청소하니, 떡을 가장 많이 주어 배불리 먹게 하네(禳田吉日暖初陽 解下竿頭白粲囊 老婢莫辭勤灑掃 **皆**多分餠飽飢腸)."라고 하였다.

또한 이 날 남자 노비들에게 볏가릿대를 내려서 만든 떡을 나이 수만큼 먹게 했듯이 여자 노비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노비일이나 머슴날의 다른 이름인 여종날은 극히 드물게 쓰여 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저, 임기중 역, 집문당, 1993),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이관호(李官浩)

일꾼날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농사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노비나 머슴을 통칭하여 일꾼이라 한데서 일꾼날 또는 머슴날이라 하였다.

내용 농가에서 고용살이하는 사람을 머슴 또는 일꾼이라 한 데서 나온 명칭으로 이와 관련한 풍속은 머슴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경기도 수원에서 음력 2월 1일을 일꾼의 날이라 해서 식구 수대로 나이떡을 빚어 먹는다고 하였고, 충남 아산에서도 이 날을 머슴날 또는 일꾼날이라 하여 나이떡을 빚어 먹었는데, 주로 인절미를 빚어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2월 한 달 내내 일꾼들에게 음식을 잘 대접해 주었다고 한다. 강원도 횡성 역시 2월 1일을 일꾼의 날이라고 하여 머슴을 둔 집에서는 떡과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이관호(李官浩)

중화절(中和節)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궁중에서 농사철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일(節日)이다.

내용 중화(中和)란 중용(中庸)과 같은 말인데 『중용(中庸)』에 따르면 만물은 중화에서 자란다고 한다. 여기에서 연유하여 중국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날을 중화절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날 천자가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농서(農書)를 올리게 하고, 또 술과 음식을 베풀고 중화척(中和尺)을 나누어줌으로써 농업이 국가의 근본임을 나타내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이월조에, 선조(先祖, 정조(正祖)) 병진(丙辰) 중춘(仲春) 삭일(朔日)에 공경(公卿)과 근신(近臣)에게 자를 내려주는데, 이는 중화절의 고사를 본받아 실행한 것이라고 하였고 정조가 지은 시에 "중화절에 자를 내릴 제, 구중궁궐~."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이월조에는 이필(李泌)의 정월 상소에서 옮긴 "그믐날을 명절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청컨대 이월 초하루를 중화절로 삼고 모든 관리들에게 농서를 올리게 하여 농사가 힘써 해야 할 근본임을 나타내십시오."라는 대목이 있다. 중화절은 농사가 중요한 생업이었던 만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中庸, 泰村先生文集.
필자 | 지춘상(池春相)

콩볶아먹는날

정의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이 날 콩을 볶아먹는 풍속에서 유래하여 전라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이월 초하루를 '콩볶아먹는날'이라고 부르며 '좀볶는날'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월 초하루에 콩을 볶아먹는 것은 전국적인 풍습이다. 콩을 볶는 목적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벌레나 쥐, 두더지의 해를 막고, 새삼 같은 잡초의 번식을 막고 재액이나 질병을 이방[豫防]하여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곡식이 잘 여물라는 의미에서 콩을 볶기도 하는데, 콩이 톡톡 튀는 소리가 곡식 여무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주로 초하룻날 식전에 콩을 볶으면서 "좀 볶자", "해삼 볶으자, 콩 볶으자.",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 같은 주언(呪言)을 한다. 콩 외에 오

곡을 함께 볶기도 하며, 볶은 콩을 방 안에 뿌리기도 하고 밭의 네 귀퉁이에 묻기도 한다. 전남 완도와 구례 지역에서는 잡초를 예방하기 위해 밭에서 콩을 볶아먹는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검은 콩을 볶으면서 "일본놈 볶는다"라고 하며 일본 사람이 이 땅에서 물러가기를 바랐다.

이월 초하루뿐만 아니라 정초 십이지일과 정월 대보름을 비롯하여 겨울 내내 콩을 볶아먹었는데, 이는 병충해와 벌레의 예방뿐만 아니라 겨우내 부족한 단백질을 콩으로 보충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었다.

참고문헌 |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靑陽郡誌(靑陽郡, 1995),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수미(金秀美)

하리아드레날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주로 전라남도에서 이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남에서는 이 날을 하리아드레날 또는 하리드렛날, 하구달날, 하래드릿날, 하구다릿날, 하드랫날이라 한다. 옛날에는 이 날도 절일(節日)로 쳐서 차례를 지냈다고 하나 지금은 단지 길일(吉日)로 여겨 몇 가지 민속 현상만이 전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같은 지방에서는 하래드는날이라 부르기도 하고 해남과 진도에서는 하루달 또는 하구달이라 하며, 무안군 해제면에서는 하루아릿날 또는 하랫날, 하드리날이라 하는가 하면 화순과 강진 등지에서는 하드래, 허드래라고도 하며, 장성에서는 하래드리, 하려드렛날이라 한다. 또 나주 노안에서는 하레드레라 하고 무안 일부에서는 하드리 또는 하려드레, 담양 남면에서는 하루드랫날, 담양 대덕에서는 하루데라 하여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全羅南道誌19(全羅南道, 1995),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지춘상(池春相)

볏가릿대내리기

⇨ 볏가릿대세우기: 정월편

중화척(中和尺)

정의 중화절(中和節)인 음력 이월 초하루에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자[尺].
내용 음력으로 이월 초하루를 중화절이라고 불렀으며, 삭일(朔日)이라고도 하였다. 삭(朔)은 매월 음력 초하루를 말하지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이월 초하루를 가리켜 특별히 삭일이라고 하였다. 삭일에는 중화척을 재집(宰執)과 시종신(侍從臣)에게 나누어주었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주상(正祖)께서 병진(丙辰)에 중화척을 재상과 시종에게 내려주었다. 이 자는 반죽(班竹)과 붉게 물들인 나무[紅染木]로 만드는데 중화척을 내리는 제도는 중화절의 고사(古事)를 본받아 실행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796년(정조 20)에 처음으로 중국의 풍습을 본떠 임금이 중화척을 나누어줌으로써 중화절이 비롯되었다. 중화척은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 작은 자인데 얼룩점이 있는 대나무나 붉게 물들인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 이 자를 나누어주는 이유는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려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필자 | 지춘상(池春相)


중화척 국립중앙박물관

하루다지고사(– 告祀)

정의 강화도에서 이월 초하루인 하루다지날에 지내는 고사.

내용 강화도에는 이월 초하루를 하루다지날이라고 하며 신년을 맞아서 정월을 보내고 이월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 날 콩을 볶아먹고 오곡으로 잡곡밥을 해서 먹는 풍습이 있다. 어떤 집은 하루다지고사라고 하여 집이나 산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배에서 고사를 지낸다. 배를 부리는 사람들은 고사 날짜를 모두 음력으로 맞추는데, 이는 물때를 음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강화군 화도면 큰사기리 함허동천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루에 출항 예배라고 하여 모든 교인들이 차를 타고 부두에 나가 고사(告祀) 예배를 드린다. 출항 예배를 드릴 때는 시루떡, 고기, 과일 같은 음식을 장만해서 선착장으로 나가 상을 차리고 예배를 올린다. 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사고가 없기를 비는 목사의 추도가 끝나고 장만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선착장이 있는 곳은 분오리로 출항이 시작될 무렵인 이월 초하루로 날을 잡아 일년에 한 번 출항 예배를 보는 것이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고사를 지낸다. 함허동천 앞에는 10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가 있다.

의의 하루다지라는 말은 강화도 지역에서 이월 초하루를 이르는 말로 정월을 보내고 이월을 시작하는 하루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하루다지고사는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안택 고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지내고 산에 가서 지내기도 하며,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배 안에서 지내기도 한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는 영등고사나 영등제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영등할머니처럼 곡신, 풍신 같은 한정된 개념이 없고 이월 초하루라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짙다.

참고문헌 |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경기민속지III -세시풍속·놀이·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지욱(金志昱)









1 출어 예배 - 기도
2 출어 예배 - 설교
3 출어 예배 - 찬송
4 음식 나누어 먹기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분오리
국립민속박물관

나이떡먹기

정의 이월 초하루에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송편을 빚어 그 나이만큼 먹는 풍속. 나이떡을 나이송편, 노비송편, 머슴송편, 솔떡, 세병(歲餠), 수복병(壽福餠), 송병, 송엽병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나이떡먹기는 전국에 고루 전해오는 풍습이다. 『경도잡지(京都雜志)』,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정월 대보름에 세웠던 볏가릿대를 내려서 그 속에 넣었던 곡식으로 송편 같은 떡을 만들어 머슴들로 하여금 나이 수대로 먹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농사의 시작에 앞서 머슴의 사기(士氣)를 돋우기 위한 풍속에서 비롯되었다.

나이떡은 그 해 풍년을 비는 뜻으로 정월 보름날에 세워 두었던 화간곡(禾竿穀)을 떨어내어 쌀가루를 만든 후 익반죽하여 크게는 손바닥만 하게 작게는 달걀만 하게 둥근 옥 모양의 송편을 빚어 시루 안에 솔잎을 켜켜이 깔고 찐다. 찐 떡은 물로 살짝 닦은 다음 참기름을 발라 먹는다. 떡 안에는 팥, 콩, 밤, 깨, 대추, 고구마, 삶은 미나리 따위를 넣는다. 이렇게 만든 떡을 머슴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누어 주는데, 이는 그 해의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액을 막고 배불리 먹어 힘을 내라는 위로의 뜻과 가내무병, 소원성취, 만사형통의 의미가 담겨 있다.

나이떡은 남에게 주지 않고 먹는데, 그렇게 먹어야 일년 내내 굶지 않는다고 한다. 머슴 외에 집안 식구들도 먹는데, 충청도에서는 식구 수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떡을 만들어 나이 수대로 먹으며, 솔떡이라 부르기도 한다. 강원도에서도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떡을 만들어 먹는데, 떡을 빚지 못할 경우에는 설날의 가래떡을 남겨두었다가 먹거나 경단처럼 빚어 먹기도 한다. 경상도에서는 식구들의 나이 수만큼 찐 쑥떡을 먹으며, 나이떡을 해먹으면 그 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論山의 民俗(論山文化院, 1992),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음식문화(이효지, 신광출판사, 1998), 경기민속지III -세시풍속·놀이·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필자 | 서해숙(徐海淑)

노래기부적(– 符籍)

정의 이월 초하루에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를 퇴치하기 위해 글자를 써서 붙이는 부적.

유래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노래기를 퇴치하는 내용이 나오고, 『경도잡지(京都雜志)』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노래기부적에 관한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연원이 오래되었다.

내용 이월 초하루에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래기가 꾀기 쉬운 곳의 서까래나 기둥, 벽에 노래기를 퇴치하는 내용의 글을 종이에 써서 거꾸로 붙이는데, 흔히 '향랑각시 속거천리(香娘閣氏速去千里; 노래기여 속히 천리 밖으로 사라지라)'라고 쓴다. '속거천리(速去千里)'라는 것은 나쁜 것이 빨리 없어지라는 의미로 사용한 글귀이다. 노래기는 음습한 곳에 서식하며 자기 방어를 위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해충으로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음습한 대상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붉은색으로 쓰지만 검은색으로 쓰기도 한다.

노래기는 마륙(馬陸)이라고도 하는데, 보기에 징그럽고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미워하여 물리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기로운 향을 가진 여자라는 의미에서 향랑(香娘)이라 부르며, 얌전한 여자를 상징하는 각시(閣氏)로 의인화하여 그 나쁜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 하였다.

지역사례 노래기부적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나 노래기를 의미하는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남 밀양에서는 '향락각시 천리거만리거(千里去萬里去)'라고 쓰거나 '노래각시 향랑각시 천리만리 멀리가라'고 풀어서 쓰기도 한다. 강릉에서는 '악충사거(惡蟲死去)' 또는 '원거만리(遠去萬里)',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노나각시(노랑각시) 속거천리'라고 쓴다. 경북 영천에서는 '복성각시(福成閣氏) 속거천리', 청도에서는 '고동각시 속거천리', 경남 김해에서는 '노래각시, 향랑각시, 천리만리 없어져라'라고 쓴다. 경남 사천은 '행랑각시 속거천리', '강남각시 속거천리', 부산에서는 '노래각시 향랑각시 천리만리 멀리가라'라고 풀어쓰기도 한다. 충남 보령, 부여, 청양과 충북 보은에서는 '노내각시 속거천리', 공주에서는 '노랑각시 속거천리'라고 쓴다. 그리고 함경

남도에서는 '행진강남수천리(行盡江南數千里)'라고 써서 기둥머리나 천장에 붙인다. 이처럼 노래기를 가리키는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모두 노래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는 내용이다.

의의 노래기부적은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선조들의 위생 관념을 엿볼 수 있는 풍속이다. 징그럽고 싫은 벌레를 얌전하고 친근감 있는 여성인 '노내각시, 향랑각시'라는 반어법으로 표현한 데서는 해학도 느껴진다. 한편 지나치게 비위(脾胃)가 좋은 사람에게 "노내기 회(膾) 먹을놈"이라고 핀잔하기도 한다. 요즘은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노래기의 서식 환경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습속 역시 사라졌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慵齋叢話,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統營郡史(統營郡史編纂委員會, 1986),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시덕(金時德)

누에떡걸기

정의 누에농사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떡에 솔가리를 꽂아 누에 형상을 만든 후 벽에 걸어두는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의 누에 농가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 아침 떡을 해서 솔가리(말라서 땅에 떨어진 솔잎) 같은 것으로 장식하여 누에 형상을 만든 후 그것을 집 안의 벽에 걸어놓는 풍속이 있었다. 이것을 누에떡걸기라 하는데, 누에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는 잠사업(蠶絲業)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풍속이다.

의의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한전(韓傳)에 삼한의 주민들은 뽕나무를 재배하여 누에치기를 할 줄 알았고 면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누에를 이용한 옷감 생산의 역사가 아주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누에떡걸기는 진도 외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풍속으로서, 누에 형상의 떡을 집안에 걸어둠으로써 누에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유감주술적인 기잠 풍속(祈蠶風俗)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三國志,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옥희(李玉姬)

단술먹기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에 한 해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며 단술을 만들어 먹는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한 해 동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함과 동시에 농사가 대풍(大豊)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단술을 만들어 먹는다.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는 이월 초하룻날에 엿기름으로 단술을 담가 먹거나, 이월 초하룻날에 보리를 물에 담가서 엿기름을 길러 영등할미가 올라가는 날인 스무날에 단술을 해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한다. 부산 기장의 일부 지역과 금정구 산성마을에서는 이월 초하룻날 그 해 집안이 평온하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떡이나 단술을 만들고, 영등할미를 대접하는 제(祭)를 지낸 후 먹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기장군 문화유적과 기층문화(김승찬 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황경숙(黃京淑)

목화풍년놀이(木花豊年 -)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에 목화농사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살맹이나무 가지에 목화송이를 많이 꽂아놓고, 여인상(女人像)의 인형을 몇 개 만들어 달아두는 풍속.

내용 평안남도 성천, 순천, 강동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 뒤뜰에 면화(棉花)가 만발한 모양의 나뭇가지를 세워놓았다. 살맹이나무(멧대추나무) 가지에 면화송이를 풍성하게 매달고, 여인상 인형을 몇 개 매달아 마치 여인들이 풍성한 목화밭에서 목화를 수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지역사례 우리나라의 정초와 음력 2월의 세시풍속에는 목화의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들이 있다. 전라



목화송이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심디스마

도와 경남 지역에는 유모일(有毛日)이 세수(歲首)에 들면 목화 풍년이 든다고 여기는 풍속이 있고, 전남 무안에는 음력 2월 한 달 동안에 묘일(卯日)이 세 번 들면 목화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하여 삼묘일보기라는 풍속이 있다.

의의 목화는 고려말 문익점(文益漸)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의복과 침구의 긴요한 재료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목화의 풍년을 점치는 세시풍속 또한 역사가 길 것으로 짐작된다. 목화풍년놀이는 유모일보기나 삼묘일보기 풍속처럼 소극적으로 풍년을 점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목화밭에서 수확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목화 풍년을 기원하는 기잠 풍속(祈蠶風俗)이다.

참고문헌 | 江東郡誌(江東郡誌編修委員會, 1984), 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成川郡誌(成川郡誌編纂委員會, 1989), 順天郡誌(順天郡誌編纂委員會, 1993),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옥희(李玉姬)

바람몰이

정의 음력 이월에 그 해의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주부가 떡을 만들어 뒤뜰의 도끼질하는 곳에 차려놓고 비손을 하는 풍속. 이를 '바람몰이'라고 한다. 바람몰이라는 말은 이월에 영등신인 바람할미(영등할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달에 천연두를 실어내는 '말을 몰아낸다'는 뜻으로 만든 말이다.

내용 천연두는 손님, 손님마마, 별상애기, 별상님, 호귀마마(胡鬼**媽媽**), 두신(痘神) 등으로 불리는데, 강남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하였다. 이 병에 걸리면 정결한 소반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매일 밥을 짓고 떡을 쪄서 차려놓고 비손한다. 병이 나으면 짚과 대가지로 말을 만들어놓고 음식물과 돈을 넣은 오쟁이를 그 말에 실어 두신(痘神)을 전송했는데 이를 배송(拜送)이라 하였다. 이처럼 두신을 무서워하여, 그 해에 가정이나 마을에 두신이 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떡을 만들어 비손하거나 또는 천연두 배송의 주술 의례 행위를 선행적으로 모방하는 속신 행위를 하였다.

지역사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마을에서는 이월초하룻날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바람몰이를 하는데, 주부가 떡을 만들어 뒤뜰의 도끼질하는 곳에 차려놓고 비손을 한다. 경남 밀양에서는 '말몰아내기'라 하여 이월 첫 정일(丁日)에 춘계문묘석전(春季文廟釋奠)의 제례를 치르고 다음날 성황당에 유사(有司), 제관, 심부름꾼이 가서 제(祭)를 지낸다. 처음 축을 읽고 고사(告祀)를 지내고 말을 몰아서 들어낸다. 이때 '말'이란 강남대왕국에서 온 손님 곧



마마배송 송석하

천연두의 신으로 상징되는 잎이 붙은 대나무가지인데, 음식을 오쟁이에 담아서 이 대나무가지에 매달아 성황당 밖으로 꺼내어 버린다. 이렇게 하면 이 고을에 그 해 천연두가 퍼지지 않고 편안하다고 한다.

의의 질병의 감염을 귀신의 소행으로 여기던 당시에 천연두를 손님신으로 격상시켜 그 신을 잘 모시고 보내드리는 선행 모방 의례를 행함으로써 천연두의 감염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재해 있다.

참고문헌 | 朝鮮巫俗考(李能和, 啓明19, 啓明俱樂部, 1927),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김승찬(金承璨)

방문자점

정의 이월 초하룻날 집에 오는 손님[來客]의 키, 성별, 직업에 따라 길흉화복을 점치는 인사(人事) 및 인상(人相) 점복.

내용 및 지역사례 전라북도 완주에서는 삼점[麻占]이라고 하여, 이월 초하룻날 손님이 찾아올 때 키 큰 사람이 먼저 들어오면 그 해 삼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술을 대접하고 반대로 키 작은 사람이 먼저 들어오면 삼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술을 대접하지 않는다. 또는 일부러 키 큰 사람을 불러 집안으로 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한 풍속이 함경북도 무산에서는 정월 보름에 있다. 정월 보름날 아침 맨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키가 작은 경우에는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문전에서 서성거리는 것조차도 꺼려 엄히 나무라고 쫓아버리며, 심한 경우에는 머리에 키를 씌우고 다듬잇방망이로 때려서 내쫓기도 하는 반면, 키 큰 사람이 오면 대환영하고 안으로 맞아들이는데 이 풍속은 부녀자들이 엄격히 실행한다.

이 밖에 내객의 성별(性別)에 따른 방문자점이 있다. 충남 공주에서는 이월 초하루 아침에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오면, 그 해에 그 집의 닭이 잘 된다고 여기며, 만약 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닭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또 충남 연기에서는 초하룻날 여자가 먼저 남의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의 가축이 안 되고, 남자가 먼저 들어오면 가축이 잘 된다고 믿는다.

한편, 장날에 아침 일찍 기분 좋게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날은 장사가 잘 되고, 만약 첫 손님과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날 일진이 사납다고 하여 조금 싸더라도 기분 좋게 파는 풍습이 전국에 고루 있다. 이 또한 방문자점의 하나이다.

의의 방문자점은 손님의 외모, 성별, 직업 따위가 농작물의 작황이나 집안의 길흉화복과 관련된다고 믿는 습속에 따른 점복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세시풍속기(강무학, 도서출판 청화,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朝鮮의 占卜과 豫言(村山智順 著·金禧慶 譯, 東文選, 1990),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찬욱(李燦旭)

볶음점

정의 이월 초하룻날에 곡식을 볶아 그 해 풍흉을 점치는 풍속.

내용 이월 초하루이면 대체로 콩을 볶아먹는데, 콩 볶는 것 외에도 지난해 농사를 지어 말려놓은 모든 곡식을 솥에 볶으면서 그 곡식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볶여 튀는가를 살핀다. 이때 먼저 튀며 잘 볶이는 씨앗의 곡식이 그 해에 잘 된다고 믿는다.


대마 농촌진흥청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서해숙(徐海淑)

삼점[麻占]

⇨ 방문자점: 봄편

섬밥먹기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에 영등할머니를 위해 차려놓은 섬밥을 일꾼들에게 나누어주고 풍농을 기원하는 풍속.

내용 이월 초하루에 제물을 장만하여 영등할머니에게 치성을 드린 후 섬떡을 비롯한 남은 음식을 오쟁이에 담아 그 해 농사를 잘 지어 달라는 의미에서 일꾼에게 나누어준다.

섬밥먹기 풍속은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섬밥먹기가 행해지는 경북 경산, 영천, 경주, 포항, 청도 등지에서는 영등할머니에게 올리는 제물 중 떡을 가장 정성스럽게 장만한다. 가정에 따라서 갖가지 떡을 장만하지만, 그 중에서도 섬떡이라 불리는 떡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 섬떡은 보통 절편보다 3배 정도 큼직하게 빚은 떡으로 멥쌀과 찹쌀을 1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절편 모양의 쑥떡이다. 이 떡을 각별히 섬떡이라 부르는 까닭은 섬떡 안에 작게 빚은 새알을 여러 개 소로 넣어서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섬'이란 나락을 넣어두는 짚으로 짠 농자재를 말한다. 떡 안에 소로 넣은 새알을 곡식으로 여기고, 겉에 싼 떡을 섬으로 여겨 곡식이 가득하라는 의미에서 섬떡이라 하였다. 섬떡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달라는 의미에서 집안의 농사를 담당하는 일꾼에게 주며, 이들이 오쟁이에 담긴 섬떡을 비롯한 음식을 먹는 것을 섬밥먹기라 일컫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서 섬떡 자체를 섬밥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경북 포항 지역을 비롯한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섬떡을 두지떡(뒤주떡)이라 부르는데, 두지떡 역시 섬처럼 곡식을 저장해두는 기구여서 두지가 곡식으로 가득 차라는 의미이다. 이월 초하룻날에 영등할매에게 제를 올리고 섬밥을 나누어 먹는 것은 영등할매가 풍농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경북 영천에서는 쑥으로 만든 큰 송편 안에 일곱 개의 새알을 넣어 만들어 이를 섬떡이라 부른다. 섬떡을 크게 세 개 만들어 끄르미(오쟁이) 세 개에 나누어 담은 후 각각 뒤주, 조왕, 성주에 올려서 일년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 이 섬떡들은 나중에 내려서 일꾼에게 준다. 청도에서도 이와 같이 섬떡을 만들어 그 해 농사를 잘 지어 달라는 의미에서 일꾼들에게 나누어준다. 지역에 따라서는 섬밥을 두 곳으로 나누어 하나는 우물에 올려놓고, 하나는 담장 위에 올려놓아 일꾼들이 먹게 한다. 포항에서는 섬떡을 두지떡이라고 하는데 송편을 크게 빚어놓은 모양에다가 만두귀를 접은 모양으로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도톰하게 빚는다. 만두를 빚어놓은 모양처럼 위가 약간 뾰족하게 올라오도록 접어서 빚는다고 하여 삐중떡이라고도 한다. 두지떡의 이름처럼 곡식이 풍족하게 많이 수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지떡을 만들어 먹는다. 두지떡 안에는 작은 쑥고막떡을 여러 개 비벼 넣어서 채운 후 접는다. 쑥고막떡을 안에 넣는 것을 '섬을 채운다'라고 하며, 두지(뒤주) 안에 곡식을 넣어 저장하듯이 떡 안에 쑥고막떡을 넣기 때문에 두지떡을 섬떡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황경순(黃慶順)

장닭꼬리점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에 닭의 꼬리털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그 해 풍세(風勢)를 점치는 기후점. 장닭꼬리 날리는 것 보기, 봄바람 보기, 초하루 날씨 보기, 초하루 날씨 보고 풍흉 점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용 본디 이월 초하루는 영등날이라 하여 바람신[風神]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날이다. 지상으로 내려온 바람신은 스무날에 다시 천상으로 올라간다. 대체로 영등할매로 통칭되는 이 신앙은 중부 이남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 날 바람이 잠잠하거나 비가 오면 농사에 좋고, 바람이 불면 나쁘다고 한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영등할매를 달래기 위해 장독간에 간단한 음식을 차리고 영



장닭
충남 논산시 무경

등제를 지낸다. 이러한 영등 신앙의 그 종교적 기능이 약화되어 관용 표현으로 형상화된 것이 '장닭의 장꽁지(꼬리털 중 가장 긴 것)만 날려도 그 해 봄바람이 세다.'라는 말이다. 이 날 장닭꼬리가 날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 그 해 봄바람이 많이 불 것이라고 한다. 바람은 농사를 짓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이 불지 않아야 그 해 농사 짓기가 편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날 바람이 불지 않고 고요해야 시절이 좋다고 여긴다. 이러한 풍속은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주로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서는 2월 닭날[酉日] 바람의 세기를 그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콩점[豆占]

정의 콩을 볶아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농점(農占)의 하나.

내용 콩점[豆占]은 콩을 볶아서 풍흉을 점치는 방법과 콩을 불려서 점치는 방법이 있다. 콩을 볶아 풍흉을 점치는 방법은 이월 초하루 콩볶기와 함께 행하는데, 콩을 한 되 정도 볶은 뒤 그것을 다시 되에 넣어 보아 볶기 전보다 많아졌으면 풍작, 적어졌으면 흉작이라고 점친다. 또는 콩과 보리를 한 되씩 섞어 볶은 다음 되에 다시 담아 한 되가 더 되는 것은 풍작이고 덜 되는 것은 흉작으로 점치기도 한다.

다른 콩점으로는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것으로, 콩을 불려서 점치는 방법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콩 12개에다 12달 표시를 하여 수수깡 속에다 넣고 묶어 우물 속에 집어넣는다. 이것을 월자(月滋)라 한다. 그 콩알들이 불고 안 불고에 따라 그 달의 수해, 한해, 평년작을 징험한다. 또 동네 안의 호수(戶數)대로 콩을 골라 각 콩에다 호주(戶主)의 표시를 하고 짚으로 묶어 우물에 집어넣는다. 이것을 호자(戶滋)라 한다. 그 다음날 아침 꺼내어 징험해 보아 불은 콩 주인의 집은 그 해에 풍년이 들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의의 콩을 볶아 콩의 양이 늘기를 바라는 것은 풍농의 기원이며, 콩을 불려서 풍흉을 점치는 것은 강수량(降水量)이 농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콩을 불릴 때에 콩을 열두 개로 하는 것은 일년 열두 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朝鮮의 占卜과 豫言(村山智順 著·金禧慶 譯, 東文選, 1990), 서산의 민속문화(서산시지 편찬위원회, 서산시, 1998).
필자 | 이찬욱(李燦旭)



콩볶기
경남 창녕군 남면 이건욱

노비송편[奴婢松餠]

⇨나이떡먹기: 봄편

콩따먹기놀이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에 볶은 콩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해진 분량의 콩을 따먹는 놀이.

내용 음력 이월 초하루는 전국적으로 콩을 볶아먹는 날이었다. 콩을 볶아먹는 것은 여러 가지 주술적 의미를 지니며, 한편 겨울을 나면서 몸이 약해져 있을 사람들이 일종의 영양식으로 먹는 의미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볶아낸 콩으로 놀이를 즐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콩따먹기놀이다. 콩따먹기놀이는 아이들이 호주머니에 콩을 넣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만나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해진 분량의 콩을 따먹는 내기를 하는 것이었다. 일정한 규칙을 두고 하는 놀이라기보다는 이월 초하루에 장난삼아 하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光州의 傳統飮食(金炯柱·趙熙貞, 광주민속박물관, 1997).

필자 | 나경수(羅景洙)

이월 초하룻날 장닭 꼬리만 날려도 곡식이 준다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에 바람이 불면 그 해에 흉년이 든다는 말.

내용 여기서 초하룻날은 앞으로 다가올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선인들은 초하룻날의 날씨를 다가올 날씨의 징조로 삼았다. 그리고 장닭의 꼬리가 날린다는 것은 바람이 인다는 뜻이다. 선인들은 닭을 예보(豫報), 징조(徵兆)의 상징으로 여겨 장닭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려주는 예지자(豫知者)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장닭의 울음소리는 때를 알려주는 시보(時報)의 역할을 하였다.

이 속담과는 달리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우는 닭의 울음소리가 10번을 넘으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라는 속신이 있다. 속신에 "이월 초하룻날 바람이 불면 봄바람이 세다."거나 "이월 초하룻날에 바람이 불면 그 해에 폭풍이 많고 흉년이 든다."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월 초하룻날 체질을 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 곡식의 피해가 많다."라는 속신도 있다.

참고문헌 |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9).

필자 | 강재철(姜在哲)

영등날

정의 농경과 어로 같은 생업에 큰 영향을 주는 바람을 관장하는 신(神)인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오는 이월 초하룻날을 가리킴. 이날을 지역에 따라서는 영동할머니날, 이월할매 먹는 날, 이월밥 해먹는 날, 바람님 오는 날, 풍신날이라고 달리 부른다.

영등할머니는 지역에 따라 영동할멈, 영동할머니, 영등할마니, 영등할망이, 영등할망으로 달리 부르며 여신(女神)으로 여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남신(男神)으로도 여겨 영등하르방으로 부르며, 신의 직능도 바람신이라기보다는 어패류의 씨를 뿌려주고 가는 신(神)으로 여긴다. 영등할머니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월 초하루에 내려와서 이월 보름이나 스무날에 올라간다고 여긴다. 전북 남원에서는 초하룻날 내려왔다가 초나흗날, 초아흐렛날, 열나흗날, 열아흐렛날 세 차례에 걸쳐 올라간다고 믿으며, 진안에서는 보름과 스무날 사이에 올라간다고 믿어 초하룻날, 초사흗날에 시작해서 15일에서 20일까지 모신다.

유래 일부 지역이기는 하나 영등날의 유래를 살필 수 있는 지역도 있다. 경북 청도에서는 경산 하양의 정영등이라는 사람이 남의 고용살이를 하다가 죽은 후 주인이 제사를 지내 주었더니 그 해 풍년이 들게 해주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전체로 전파되어 정영등을 모시는 날이라고 하여 영등날이 되었다고 하며, 경산에서는 영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죽은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내용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일으키는 풍신(風神)으로, 특히 할머니로 여겨지고 있다. 또 천계(天界)에 살고 있다가 이월 초하루에 딸 또는 며느리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15일 또는 20일에 다시 올라간

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영등할머니는 이월 초하룻날에 내려왔다가 3일, 15일 또는 20일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다르게 믿고 있다. 제주도의 남신(男神)인 영등하르방은 정월 말일에 제주도 동쪽에 있는 소섬으로 들어와서 이월 초하루에는 한림읍 한수리(翰水里) 영등당[燃燈堂]에 와서 제(祭)를 받고, 그 후 3일간 섬을 일주하며 섬 주변의 해산물을 증식시켜 준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맞는 묘일(卯日)이나 축일(丑日)에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영등할머니가 인간세상에 내려올 때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이고, 비가 오면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여긴다. 흔히 딸을 데리고 올 때는 치마가 팔랑팔랑거려 예쁘도록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치마가 얼룩지도록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흔히 친정어머니와 딸은 뜻이 잘 통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불화와 갈등이 있는데 비유해서 날씨의 변화를 짐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사는 비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 날 영등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와야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이같이 영등할머니는 바람과 농작물의 풍흉(豊凶)과 관계되는 농신(農神)의 성격을 띤다.

영등할머니가 인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금속(禁俗)이 있다. 영등할머니를 맞이하기 위하여 황토를 파서 문 앞에 뿌려 신성 구역을 표시하고, 오색 헝겊으로 치장한 사립문에 매달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또 창도 바르지 않고 고운 옷을 입는 것도 삼간다. 논밭갈이도 하지 않으며 땅을 다루거나 쌀을 집 밖으로 내지 않는다. 그리고 영등할머니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거센 바람이 일어 난파선이 많이 생기므로 어부들은 이 기간 동안 출어를 삼가며 일을 쉰다.

지역사례 이 날 영등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물을 떠서 장독 위에다 올려놓는데,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날까지 날마다 물을 새로 떠놓는다.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이월 초하루에는 음식을 장만하여 치성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장독대에 갖다 놓은 후 먹는다.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북 지역에서 풍신에게 액운(厄運)을 면하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풍신제를 지낸다. 그리고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날 가정의 불길한 일을 소지를 올림으로써 없앴다. 영덕 지역에서는 해변 사람들이 고기잡이 때 풍랑이 없도록 용왕에게 기도하고 제사하는 풍속이 있다. 선산과 성주에서는 아침 일찍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헝겊조각을 달아 제단을 만들고 잡곡밥과 나물을 차려놓고, 주부가 두 손을 비비며 집안의 태평을 빌고, 가족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월성에서는 연장과 연모를 조왕 앞에 놓고 빌고 볏가리를 만들어 장대에 연장과 연모를 달고 풍년을 기원한다. 지정(기장), 수수, 찰밥을 짚에 싸서 마구간에 놓아두고 성주단지 옆에 짚꾸러미를 싸서 놓는다. 또 1일에는 영등내리기, 20일에는 영등올리기를 한다. 영등할머니는 해마다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딸을 데리고 올 때는 아무 일이 없으나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바람을 일으킨다고 한다. 울진 지역에서는 영등 할머니가

〈영등제〉
1 이월밥
2 영등신에게 빌기
3 오쟁이에 음식싸기
4 광에 오쟁이 갖다 놓기
경북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국립민속박물관


1


2

딸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특히 해안지역에서는 설날보다 더 귀중한 행사이고, 영등 할머니에게 빌면 농사가 잘 되고 집안의 가축도 잘 된다고 한다.

충남 금산에서는 이월 열흘 안에 이월할머니를 위한다. 이월할머니를 잘 위하지 않으면 동티가 나므로 정성껏 위한다. 가을걷이 후 이월할머니 위할 나락은 따로 두었다가, 이때 나락을 찧어서 밥을 짓는다. 이월 초하루에 해먹는 밥인 이월밥은 저녁에 한다. 반찬은 나물과 생선, 김 등을 넉넉하게 마련하는데, 제사 음식과 달리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여느 때 먹는 것처럼 조리한다. 제물이 마련되면 부엌의 살강 아래에 짚을 가지런히 깔고 마련한 제물을 진설한다. 밥은 큰 양푼에 담아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꽂아놓는데, 이때 "할먼네, 이바지를 많이 해드리니 이것을 잘 운감하시고, 자손들 건강하고, 재수있게 해주소."라고 일용수(고사 소리)를 하며 치성을 드린다. 치성을 마친 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월 초순 집안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이월밥을 하지 못한다. 만약 스무날까지 부정이 들어 이월할머니를 위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적당한 날을 잡아서 위한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풍신(風神)이 내려온다 하여 정월 그믐날 저녁에 초가지붕의 용마루에 세모꼴로 끝이 뾰족한 청기를 만들어서 꽂기도 한다. 풍신제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월 초하룻날 아침에 남자들이 마당에 서서 지내며, 올라가는 보름날에도 제를 지낸다.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이월 초하루를 풍신날 또는 풍신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고 한다. 풍신날 아침에는 오곡밥, 명탯국, 냉수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어물로는 북어를 주로 올리며 비린내 나는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 이월할머니는 스무날이 지나면 올라가는데, 이때쯤 되면 바람이 심하게 분다. 이 바람을 두고 이월할머니가 올라가는 것으로 여긴다. 이 날 다시 밥을 해서 할머니를 잘 올라가라고 위하기도 한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풍신날 아침에 우물물이나 개울물을 장독간 위에 한 그릇 올려놓고, "풍신 할머니, 가족들 건강하고 올해 곡식 잘 영글게 해주십시오." 하며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전북에서는 이월 초하룻날에 비가 오면 '비영등 드린다'라고 하며,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드린다'라고 하여 밥을 하고 보리뿌리를 캐서 정지(부엌)에 놓고, 색색의 헝겊 조각을 대나무에 걸어놓고 제를 지낸다. 전북 장수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영등할머니를 맞아 보름에 보내며, 무주에서는 1일, 2일, 3일에 영등할머니를 맞아 일주일 있다가 보내는 사람도 있으나, 보통은 20일에 모두 올라간다고 믿는다. 이 지역에서도 영등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비가 온다고 여긴다. 그러나 진안에서는 고운 할머니가 내려오면 비도 곱게 오고 바람도 곱게 불지만, 시끄러운 할머니가 내려오면 바람이나 비가 세게 불고 요란스럽다고 한다.

의의 농경이나 어로 같은 전통 생업에서 바람과 비는 생산량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이는 나아가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2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3


4

는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차가운 북서풍이 약해지고 양자강 기단의 남서풍이 불어오는 환절기로, 이른바 꽃샘추위가 있고 기압골의 이동이 빈번해서 날씨의 변덕이 심한 때이다. 이때쯤이면 1월과 마찬가지로 농한기(農閑期)가 계속되지만 땅이 해동(解冬)하는 시기로, 식물의 소생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농사에 대한 준비가 활기를 띠면서 농한기가 끝나는 시점이 된다. 영등날은 농한기의 마지막 명절로서 농경신인 영등할머니를 잘 대접하여 농사의 풍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던 것이다. 또한 이때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관찰하여 한 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는데, 날씨와 딸, 며느리와 관련한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0),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김동섭(金東燮)

바람님 오는날과 가는날

정의 영등신이 내려오는 날과 올라가는 날을 달리 부르는 말. 영등신을 바람님, 이월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풍신(風神)이라 부르기도 한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이월 초하루를 풍신날로 여겨 '풍신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 한다.

내용 풍신날 아침에는 오곡밥, 명탯국, 냉수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어물(魚物)로는 북어를 주로 올리며 비린내 나는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 이월할머니는 스무날이 지나면 올라가는데, 이때쯤이 되면 바람이 심하게 분다. 이 바람을 두고 이월할머니가 올라가는 것으로 여긴다. 이 날 다시 밥을 해서 할머니를 잘 올라가라고 위하기도 한다. 특히 이 날은 풍신날로 강원도 횡성에서는 아침에 우물물이나 개울물을 장독간 위에 한 그릇을 올려놓고, "풍신할머니 가족들 건강하고, 올해 곡식 잘 영글게 해주십시오." 하며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경북 일원에서 풍신에 기원해서 액운을 면하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풍신제(風神祭)를 지낸다. 그리고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날이므로 소지를 올려 집안에 불길한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 날 풍신이 온다고 하여 물을 떠서 장독 위에다 올려놓는데, 풍신이 올라가는 날까지 날마다 물을 새로 떠다 놓는다. 풍신이 내려왔다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는데, 음식을 장독대에 가져다놓기도 한다. 또 풍신이 올라가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1 영등제
2 소금바가지
3 음식젖끄르미
4 소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
국립민속박물관

않는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풍신이 내려온다고 정월 그믐날 저녁에 초가지붕의 용마루에 세모꼴로 끝이 뾰족한 청기를 만들어서 꽂기도 한다. 풍신제는 이월 초하룻날 아침에 남자들이 마당에 서서 지내며, 올라가는 보름날에도 제를 지낸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江原道 篇-(文化財管理局, 1977),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동섭(金東燮)

바람이 불면 안 되는 날

정의 이월 초하루 영등날을 달리 부르는 말. 경북 영덕에서는 이 날을 '바람이 불면 안 되는 날'로 여긴다.
내용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바닷가 주민들이 고기잡이 때 풍랑이 없도록 용왕에게 기도하고 제사하는 풍속이 있다. 경북 선산, 성주에서는 아침 일찍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 놓고 헝겊조각을 달아 제단(祭壇)을 만들어 잡곡밥과 나물을 차려놓고 주부(主婦)가 두 손을 비비며 집안의 태평을 빈다. 이 제의(祭儀)를 지낼 때 가족 수대로 소지를 올리기도 한다. 경북 월성에서는 연장과 연모를 조왕(竈王) 앞에 놓고 빌고, 볏가리를 하여 풍년을 기원하며, 기장, 수수, 찰밥을 짚에 싸서 창고와 외양간에 놓아두기도 한다. 성주단지 옆에 짚 꾸러미를 싸서 두기도 하고 또 1일은 영등내리기, 20일은 영등올리기를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동섭(金東燮)

영동할머니날

정의 이월 초하루 영동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을 달리 부르는 말. 영동날이라고도 한다.
내용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보름에 끝나며, 전북 무주에서는 1일, 2일, 3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있다가 보내는 사람도 있으나, 보통은 20일에 모두 올라간다고 믿는다. 그런데 영동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비가 온다. 진안에서는 고운 할머니가 내려오면 비도 곱게 오고 바람도 곱게 불지만, 시끄러운 할머니가 내려오면 바람이나 비가 세게 불고 요란스럽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2월 초하룻날에 비가 오면 '비영둥드린다'라고 하며,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드린다'라고 하여 밥을 하고 보리 뿌리를 캐다가 볼구댕이해서 정지(부엌)에다 놓고, 색색의 헝겊조각을 대나무에 꽂아놓고 지낸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동섭(金東燮)

이월밥 해먹는 날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경상북도 달성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먹는 밥을 이월밥이라 하므로 이월 초하루를 가리켜 이렇게 부른다.
내용 이월밥을 먹고 나면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지게 다리 붙잡고 울고, 여자들은 울타리 문을 잡고 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날에는 머슴들을 잘 대접해 주는데, 생선을 구워주어도 온마리를 구워주고 김도 자르지 않고 통째로 준다. 충남 금산에서는 2월 열흘 안에 이월할머니를 하는데, 이월할머니를 위하지 못하면 동티가 나므로 정성껏 한다. 가을걷이 후 이월할머니 위할 나락을 따로 두었다가 2월이 되면 그 쌀로 밥을 짓는다. 이월밥은 저녁에 하는데, 반찬은 나물과 생선, 김 따위를 넉넉하게 마련한다. 제사 음식과 달리 고춧가루를 넣고 여느 때 먹는 것처럼 조리한다. 제물(祭物)이 마련되면 부엌 살강 아래에 짚을 가지런히 깔고 마련한 제물을 진설한다. 밥을 큰 양푼에 담아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꽂아놓고, "할머니, 이바지를 많이 해드리니 이것을 잘 운감하시고, 자손들 건강하고, 재수있게 해주소." 하고 일용수(고사 소리)를 한다. 치성을 마친 후 음식은 이웃들과 함께 먹는다. 2월 초순에 집안이 부정하면 이월밥을 하지 못한다. 만일 스무날까지 부정이 들어 이월할머니를 위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적당한 날을 잡아서 위한다.

영등제
충북 옥천군 청송읍 합금리 황현만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忠淸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5),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동섭(金東燮)

이월할매 먹는 날

정의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경상북도에서는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 하여 영등할머니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먹는 날이라 한다. 영등할머니 제삿날이라고도 한다.

내용 영등할머니가 해마다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딸을 데리고 올 때는 아무 일이 없으나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바람을 일으킨다고 한다. 경북 울진지역에서는 영등할머니 제삿날이라고 하여 떡, 고기, 채소, 밥 같은 음식을 장만하고 영등할머니를 맞이하는 제사를 안방에서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떡, 고기를 따로 담은 '오고리'를 짚으로 만들어 시렁 위에 올려놓았다가, 사나흘 지나 식구들만 나누어 먹는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이 날을 설날보다 더 귀중한 날로 여기며, 영등할머니에게 빌면 농사(農事)가 잘 되고 집안의 가축(家畜)도 잘 된다고 믿는다.



이월밥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동섭(金東燮)

영등굿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에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굿. 음력 이월 초하루에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제주도에 찾아온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음력 이월을 영등달이라 하며, 영등달에 바람의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영등굿을 한다. 이월 초하루에는 영등신을 맞이하는 영등환영제를 하며, 열흘이 지나 보름이 될 때까지 순망(旬望) 사이에 각 마을에서는 영등신을 보내는 영등송별제를 한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바람의 신을 맞이하여 벌이는 새봄맞이 풍어굿이다.

유래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의 『해상일사(海上逸史)』 연등절조(燃燈節條)와 담수계(淡水契)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영등굿의 유래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영등굿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당나라 상인의 배가 제주에서 난파되었는데 죽은 시신이 네 토막으로 흩어져 두개골은 어등개에 떠오르고, 손과 발은 고내, 애월, 명월의 포구에 떠올랐다. 그래서 해마다 정월 그믐에 온갖 바람이 서해로부터 불어오면, 이는 영등신이 오시는 것이라 하여 어촌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 들에서 굿을 하였다. 굿은 밤에 시작하여 낮까지 이어진다. 떼배에 말머리 같은 것을 만들어 삼색 비단으로 장식하고, 2월 10일부터 보름까지 떼 말놀이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한다. 또 돛과 키를 갖춘 배 모형을 만들어 포구에 띄우는데 이를 '배방선[送神]'이라 한다. 배방선할 때 바람이 북동쪽에서 불면 영등신이 떠난다고 생각한다. 이월 초부터 보름까지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며, 또 이 고장에서는 영등신이 해마다 정월 그믐에 우도로 들어와 다음날부터 16일까지 해조류를 따먹고 우도

로부터 떠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등신이 지나가는 바닷가의 조개나 소라 따위는 모두 껍질이 빈 채로 남게 되는데, 이는 영등신이 까서 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읍지(邑誌)』의 「탐라지(耽羅誌)」,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 남만리(南萬里)의 『탐라지(耽羅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같은 문헌에 영등굿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등굿은 이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월 보름에 끝난다.

② 이달에는 배타기(어로 작업)를 금한다.

③ 영등굿을 하는 지역은 귀덕, 김녕, 애월 등이다.

④ 초하루에 영등신을 위한 맞이굿[迎神]을 하고, 보름(또는 보름 전)에 영등신을 보내는 놀이굿[娛神]을 한다.

⑤ 애월에서는 떼배의 모양을 말머리같이 만들어 색비단으로 꾸며서 영등송별제의 놀이굿으로 약마희(躍馬**戱**)를 한다.

관련 설화 영등신은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이렇게 모두 일곱 신위(神位)이다. 음력 이월 영등달이 되면 이 신들은 강남천자국[中國]에서 제주도로 산구경 물 구경을 오는데, 맨 먼저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다. 그리하여 한라산에 올라가 오백장군에게 현신 문안을 드리고, 어승생 단골머리와 소렴당을 거치고 산방굴을 지나 ᄃᆞ리디끗[橋來里]까지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다니며, 세경 너른 땅[耕作地]에는 열두 시만국[新萬穀] 씨를 뿌려주고, 갯가 연변(沿邊)에는 우무, 전각, 편포, 소라, 전복, 미역 따위가 많이 자라도록 해초 씨를 뿌려준다.

이 신이 돌아가는 시기는 영등송별요에, "각리 각리 마을 마을마다 지부쪄두고(씨를 뿌려두고) 산 구경 물 구경 해 가지고, 소섬[牛島] 질진깍으로 송별요해서 평안바당으로, 강남천자국으로 지 놓아 갑니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 영등 이월 보름날 우도로 나가 제주도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제주도의 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굿, 조천읍 북촌리 영등굿, 조천읍 함덕리 영등굿, 구좌읍 김녕리 ᄌᆞᆷ수굿, 구좌읍 하도리 영등굿, 구좌읍 세화리 영등굿, 성산읍 오조리 영등굿, 성산읍 수산리 영등굿, 성산읍 신양리 영등굿, 성산읍 온평리 영등굿, 구좌읍 우도면 영등굿, 안덕면 사계리 ᄌᆞᆷ수굿 등이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우당도서관 북쪽 200미터 지점에 있는 칠머리당에서는 음력 2월 14일에 영등신과 당신(도원수감찰지방관), 요왕[龍王]신, 세 신위를 모시고 영등신을 보내는 영등송별제를 한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당굿을 겸하고 있으며, 선박을 가진 선주들과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영감놀이가 굿 중 놀이로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등굿의 기본형인 ① 초감제 → ② 요왕맞이 → ③ 씨드림, 씨점 → ④ 배방선에서 ①과 ②사이에 본향듦, ③과 ④사이에 영감놀이가 삽입되어 제주 지역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영등굿을 보여주고 있다. 초감제를 하여 영등신과 요왕신을 모셔다 잠시 대기시켜 놓고, 마을 사람들은 열명(列名)한다. 다시 당신을 모시기 위한 당굿으로 본향듦 제차로 들어가는데, 초감제로부터 하늘에서 하강한 신들을 오리 밖까지 마중 나가 안내하여 모시고 데려오는 과정인 오리정 신청궤를 하여 본향다리에서 본향당신을 놀리고, 맞아들인 뒤 삼헌관에게 절을 시키고 도산을 받고 석살림굿을 한다. 그 후에 요왕맞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오리정 신청궤를 두 번 하는 셈이다. 요왕길을 치워 닦으면, 바다 밭에 씨를 뿌리는 모의적인 농경의례로서 씨드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부를 위한 풍어굿으로 영감놀이를 하고 배방선을 한다.

구좌읍 동김녕리 ᄌᆞᆷ수굿은 음력 3월 8일에 한다. 이 굿은 다른 마을의 영등굿과 같다. "이월 삭일 어귀덕김녕등지 입목간십이 영신제지(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라는 기록으로 보면, 김녕에서는 2월에 영등굿을 하던 것이 뒤에 마을의 사정으로 3월에 하는 ᄌᆞᆷ수굿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바닷가 마을에서 영등달에 하는 ᄌᆞᆷ수굿도 또한 영등굿인 것이다.

안덕면 사계리에서는 2년에 한 번, 영등달 초에 날짜를 택일하여 ᄌᆞᆷ수굿을 한다. 이틀에 걸쳐 크게 하는 굿으로 둘째 날 요왕맞이를 하여 길을 닦은 뒤에 바다에 나가 씨를 뿌리고, 미리 바다 속에 전복과

소라를 넣어두었다가 해녀가 직접 들어가 그것들을 딴다. 이를 망시리에 담고 나와 어촌계에 가서 인정을 받고 판다. 이를 보면 요왕길을 닦는 것,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경작할 바다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해산물을 바다밭에서 수확하는 모의적인 농경의례임을 알 수 있다.

관련 속신 영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속신이 있다. 신의 명칭에 대한 속신으로는 ①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여신설(女神說) 또는 남신설(男神說) ②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좌수, 영등별감, 영등호장, 영등우장: 7인 식솔동반설(食率同伴說) ③ 영등할망이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모녀동반설(母女同伴說) 또는 고부동반설(姑婦同伴說)이 있다.

영등신은 꽃샘추위를 몰고 온다. 영등신이 제주에 머무는 15일 동안은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런 날씨와 혹독한 추위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영등신의 옷차림으로 일기를 점치는 속신(俗信)이 있다. 이 시기에 비가 내리면 "영등신이 우장(雨裝)을 쓰고 와부난(왔으니) 비가 내리는 거주(것이지)."라고 하며, 날씨가 따뜻하면 "아이고, 헛영등이 왔구나."라고 한다. 헛영등이 온다는 말은 진짜 영등은 바람의 신이기 때문에 독한 바람을 몰고 오는데, 헛영등은 허술한 차림으로 오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여 바람에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영등하르방이 올 때는 할망과 함께 대감, 좌수, 별감, 호장 같은 부하 식솔들을 거느리고 남쪽 나라의 산 구경, 물 구경, 꽃구경을 하기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하고 온다. 그러나 영등할망은 이따금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할망이 딸을 동반하고 올 때는 어머니와 딸은 사이가 좋아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 하며, 며느리를 동반하고 올 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갈등이 많아서 날씨도 변덕스럽고 궂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한다. 영등달에 빨래를 하면 구더기가 괸다는 속신도 흐리고 습한 날씨 때문에 빨래가 잘 안 마른다는 것을 뜻한다.

의의 영등신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전환기에 찾아오는 외래신으로, 서북 계절풍과 함께 마지막 꽃샘추위를 몰고 오는 풍신이며 농경신이다. 영등신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세경너븐드르(육지의 밭)와 요왕(바다의 밭)에 씨를 뿌리고 간다. 영등신은 또 바람의 신[風神]이기 때문에 어부들의 어로 활동을 관장하는 선박 수호신인 '뱃선왕[船王神]'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업의 신이기도 하다. 아울러 영등신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땅에 씨를 뿌려주고 바다 밭을 관장하는 요왕신[龍王神]처럼 바다 밭에 해초 씨를 뿌려주는 해전경작신(海田耕作神)이기도 하다. 겨울의 풍신을 보내고 봄의 풍신을 맞이하는 영등굿은 대지와 바다에 강남의 봄소식을 전하는 바람의 축제이며, 해전경작 의례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新增東國與地勝覽, 增補耽羅誌, 耽羅誌, 海上逸史, 濟州島의 영등굿(玄容駿, 韓國民俗學研究1, 韓國民俗學研究會, 1969), 제주도 영등굿(장주근 · 이보형, 悅話堂, 1983),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秦聖麒, 민속원, 1991).
필자 | 문무병(文武秉)

영등맞이

☞ 영등제: 봄편

영등제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룻날 영등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 이월 초하루를 가리켜 영등할머니를 맞아들이는 날이라고 하여 영등날이라고도 하며, 이월 전체를 영등달이라고도 한다. 영등신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신이므로 영등제를 풍신제(風神祭)라고도 하며, 영등할머니를 맞아들이는 의례를 영등맞이라고 하기도 한다. 영등할머니는 지역에 따라 이월 초하룻날 내려왔다가 이월 초사흗날 올라가는 경우와 이월 보름에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이월 스무날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해안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방에서는 영등제를 마을제사[洞祭]로 모시거나 축제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이월조에 "영남 지방에서는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하는 풍속이 있는데 이를 영등이라 한다. 신이 무당에게 내려서 동네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다투어 이를 맞아다가 즐긴다. 이달 1일부터 사람을 꺼려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기를 15일에서 또는 20일까지 간다."라는 기록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제주 풍속조(濟州風俗條)에 보면, "2월 1일에 귀덕(歸德, 지금의 한림), 금녕(金寧, 지금의 구좌읍) 등지에서 목간(木

竿) 12개를 세우고 신을 맞아 제사했다. 애월리(涯月里) 사람들은 떼배에 말머리 모양을 만들고 채색된 비단으로 꾸민 약마희(躍馬戱)를 함으로써 신을 즐겁게 한다. 이 행사는 15일에야 끝나는데, 이것을 연등(燃燈)이라 했다. 또 이달에는 승선(乘船)을 금한다."라고 하였다.

내용 이 날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날로 농사밥을 해먹고, 거름을 논밭에 냄으로써 농사가 잘 되기를 빈다. 영등맞이 제수용 나락을 말릴 때 그것을 새가 쪼아먹기라도 하면 새가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영등할머니가 영험하다고 한다. 영등날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 햇볕이 쬐면 불영등,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물영등이 내린다고 하며, 바람영등이 내리면 그 해 바람이 많고, 불영등이 내리면 그 해 가뭄이 들고, 물영등이 내리면 그 해 비가 흔하여 풍년이 든다고 한다. 영등신앙이 분포하는 중부 이남의 육지에서는 영등할머니를 농사의 신[農神]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등할머니는 바람을 관장하는 풍신이기 때문에 바람이 생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어촌에서 크게 모셔진다.

영등이 처음 내려오는 초하루와 올라간다는 스무날은 부엌의 살강에 대나무 가지를 꽂고 음식을 장만하여 치성을 드리는데, 그 해 바람이 순조로워야 바다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극진히 지낸다. 영등제는 지방에 따라 의식 절차가 약간씩 다르지만, 영남 지방의 것이 대표적이다. 하루 전날인 그믐날, 문전에 황토를 깔고 대문이나 삽짝에 푸른 잎이 달린 댓가지 몇 개를 꽂은 금줄을 걸어 걸인이나 병자 같은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새벽 첫닭이 울면 우물에서 정화수를 떠서 장독대나 뒷간에 둔다. 아침이 되면 섬밥을 해서 볏가릿대에 갖다 놓고, 주부가 그 해 농사의 풍요와 가정의 안녕을 기도한다. 또 푸른 댓가지 3개를 교차하여 위에서 한 자쯤 되는 곳을 묶어 색실, 색헝겊조각, 백지를 달고 그 위에 정화수를 둔다. 정화수는 10일, 15일, 20일에 3번을 간다. 특히 영등맞이는 영등할미가 상천(上天)하는 날 절정에 달한다. 이 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조금 흐려도 길하다고 한다.

지역사례 충북에서는 이월 초하루를 영등할미가 얼어 죽은 날이라고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영등할미가 세상에 내려올 때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일기가 온화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일기가 불순하거나 대풍파가 일어난다고 한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영등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부는데, 그것은 딸의 분홍치마가 바람에 나부껴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것이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오는데, 그것은 며느리의 치마가 비에 젖어 얼룩지게 하기 위하여 그런다고 한다.

경북에서는 이월 초하루를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고 한다. 청도에서는 첫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첫닭 운 직후의 물을 떠서 음식을 하면 일년 동안 무병하다고 하고, 의성이나 안동에서는 찰밥, 송편, 청어 같은 음식을 짚단에 싸서 청결한 곳에 두면 영등할머니가 먹고 가므로 액운을 면한다고 한다. 군위, 월성, 영천에서는 농사밥이라 하여 볏짚에 머슴밥을 싸두었다가 머슴들이 풀어서 먹고 그 짚을 모내기할 때 사용하면 농사가 잘 된다 하여 집집마다 달아둔다. 월성에서는 약밥을 먹고 청어 한 마리를 전부 먹으면 논둑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고, 상주에서는 집집마다 붉은 흙을 파서 대문 앞 양쪽으로 놓고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연기를 낸다. 선산, 성주에서는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헝겊조각을 달아 제단을 만들어 집안의 태평을 빈다. 영천에서는 액을 소멸시킨다는 뜻으로 백지를 걸어두었다가 10일경에 소지한다.

전북에서는 이월 초하룻날 비가 오면 '비영등드린다'라고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드린다' 라고 하여 밥을 짓고 보리뿌리를 캐서 정지(부엌)의 찬장에 놓고 색색의 헝겊조각을 대나무에 꽂아놓고 제를 지낸다. 영등할머니의 호칭은 지방에 따라 영등할망이, 영동할멈, 영등할마니 따위로 달리 부른다. 남원에서는 초하룻날 영등할머니가 내려왔다가 초나흗날, 초아흐렛날, 열나흗날에 올라가고, 열아흐렛날 마지막으로 올라간다고 믿으며, 진안에서는 보름과 스무날 사이에 올라간다고 믿어 초하룻날, 초사흗날에 제를 시작하여 15일에서 20일까지 모신다.

제주도의 연등제(燃燈祭)는 영등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지방의 당굿을 말한다. 연등신이란 영등할망이라 불리는 여신으로서 2월 1일에 입도(入島)하여 15일에 나가는 내방신(來訪神)이다. 따라서 이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연등제를 지낸다. 12개의 막대기를 세우고 연등신(燃燈神)을 맞아 제사를







〈영등제〉
1 제물 진설 2 오색헝겊 3 영등신에게 절하기 4 오색헝겊 떼기 5 오색헝겊 태우기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 국립민속박물관

지낸다.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막대기 위에 비단으로 마령(馬鈴)을 꾸며놓고, 약마희(躍馬戱)를 한다. 연등제 동안 어부나 해녀들은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이때 빨래를 하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한다.

제주 영등굿의 절차를 보면, ①큰대세움 ②초감제: 모든 신을 모셔서 기원하는 기본 형식 ③요왕맞이: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龍王]과 영등신을 맞아들여 기원하는 제차 ④씨드림, 씨점: '씨를 뿌림'이라는 말로 영등신이 해녀 채취물의 씨를 뿌려주는 모의 행위 ⑤지아뢺: 참가자들이 가져온 제물을 조금씩 백지에 싸서 바다에 던지는 행위 ⑥산받음, 액막이: 참가자들 각자의 일년간의 길흉을 점쳐주고, 마을 전체와 개인별로 액막이를 함 ⑦배방선: 영등신을 본국으로 보내는 제차, 널빤지로 작은 배를 만들고 거리기에 여러 가지 제물을 조금씩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기, 이렇게 일곱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진도 영등제는 매년 5월 중에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마을과 의신면 모도마을 사이에 바닷물이 갈라지는 현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향토 축제를 말한다. 뽕할머니에 대한 제사를 비롯해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같은 무형문화재 시연을 하고 각종 민속 행사들이 펼쳐진다. 영등축제는 1976년에 시작되어 2004년 현재 27회째가 되었다. 처음에는 영등살놀이라고 불렀고 7회 때부터 영등제라고 불렀으며, 1991년에 영등축제로 이름을 바꾸었다.

의의 영등날과 영등신에 대한 세시로서의 의미는 바람과 기상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정착된 생태 민속의 전형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韓國民俗攷(宋錫夏, 日新社, 1960), 濟州島의 영등굿(玄容駿, 韓國民俗學研究1, 韓國民俗學研究會, 1969), 韓國의 風俗 上(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江原道 篇-(文化財管理局, 1977), 躍馬戱考(玄容駿,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형설출판사, 1980),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韓國民俗大觀5 -民俗藝術·生業技術-(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전라남도·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태학사, 2002).

필자 | 나승만(羅承晩)

제주칠머리당굿

정의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매년 음력 이월 초하루와 열나흗날에 하는 본향당굿. 제주에는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守護神)을 모신 본향당(本鄕堂)이 있는데, 건입동 본향당을 칠머리당이라 한다. 건입동의 본향당을 칠머리당이라 부르는 것은 본향당이 있는 곳의 지명(地名)이 칠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칠머리당에서 하는 당굿이기 때문에 칠머리당굿이라 한다. 이 당굿은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고, 1986년 11월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단체로 인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제주시 건입동은 제주시의 중심 시가를 이루고 있는 시내 5개 동의 하나다. 그러나 예전에는 제주읍성(濟州邑城) 동쪽 성(城) 밖에 자리잡은 작은 어촌이었다. 현재 제주 시가의 중심은 조선시대에는 제주목(濟州牧)의 성 안에 있었고, 성의 동문을 가로질러 산지천(山地川)이 흘렀으며 산지천의 하구에 있는 포구를 건들개라 불렀다. 이 포구를 한자로 표기하면 건입포(健入浦)이며, 건입포 근처에 마을을 이루고 고기잡이[漁撈作業]와 물질[海女作業]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룬 마을이 오늘날의 건입동이다. 칠머리당은 원래 건입동의 동쪽, 제주항과 사라봉 사이의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산지항(山地港) 공사로 산이 깎이는 바람에 칠머리는 해안도로가 되고, 당은 사라봉 뒤쪽의 새 자리로 옮겼다. 이 당은 산지와 탑동 일대에서 배 부리는 사람, 어부, 잠녀들을 관장하고 수호하는 해신당이며 건입동의 본향당이다.

칠머리당 본향당에는 부부신(夫婦神)을 모시고 있다. 이 당의 본향당신(本鄕堂神)은 남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여신인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이다. 남편인 도원수감찰지방관은 토주관(土主官)으로 마을 전체의 토지와 주민의 생산 활동, 호적(戶籍)과 장적(葬籍)의 관리 같은 생활 전반을 수호하고, 부인인 요왕해신부인은 어부와 해녀의 생업을 보살피고, 외지에 나가 사는 건입동 출신 신앙민들을 수호해 준다.

다른 마을에서는 그 마을의 본향당신에게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신과세제 같은 당굿을 하는 것


1


2


3


4


5


6

〈영등환영제〉
1 초감제 - 열명
2 초감제 - 열명
3 오리정신청궤
4 오리정신청궤
5 초감제
6 풍어제
7 술안주 대접
8 헌식
9 소제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민속박물


7


8


9


1


2


3



4

〈영등송별제〉
1 제물 진설
2 초감제
3 초감제
4 본향듦
5 요왕맞이
6 요왕맞이
7 떼배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민속박물관


5


6


7

이 일반적이다. 건입동의 칠머리당에서는 예부터 한 해에 두 번 굿을 하는데, 영등신이 들어오는 날인 2월 1일에 하는 영등환영제와 영등신이 제주를 떠나는 2월 14일에 하는 영등송별제가 그것이다. 영등신이란 어부나 해녀의 안전을 지켜주고 생업에 풍요를 주는 신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건입동에서는 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굿을 벌이는데, 그것이 영등신을 주신(主神)으로 하는 영등굿이다. 물론 칠머리당굿 전체가 영등신에게만 바치는 굿은 아니다. 그 일부 제차로 본향당신을 청해 위하는 부분이 있지만, 굿의 대부분이 영등신에게 어부와 해녀의 해상 안전과 어업의 풍요를 비는 굿으로 짜여 있다.

이렇게 본향당신을 중시하지 않고 영등신을 중시하여 영등굿을 하게 된 것은 건입동이 어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부나 잠녀의 안전을 지켜주고 생업에 풍요를 주는 영등굿으로 치러지게 되었고, 이 지역이 오늘날 항구 도시로 변모하였지만 역시 어업의 중심지로서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영등굿이 제대로 전승되고 있다. 환영제 때에는 큰 배를 부리는 집안의 사람이나 신앙심 깊은 주민만이 칠머리당에 모여서 대개 오전 중에 끝나는 간소한 굿을 하고, 송별제 때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해녀 그리고 많은 주민이 모여 하루종일 큰 굿판을 벌인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일반적인 영등굿과 해녀굿의 기본이 되는 요왕맞이, 어부들의 풍어굿인 영감놀이, 마을의 본향당굿의 복합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당굿을 겸하고 있으며, 주민 중에 선주와 어부가 많기 때문에 영감놀이가 굿 중 놀이굿으로 삽입되어 있다. 영등굿의 기본형인 ① 초감제 → ② 요왕맞이 → ③ 씨드림, 씨점 → ④ 배방선에서 ①과 ②사이에 본향듦 ③과 ④사이에 영감놀이가 삽입되어 제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영등굿을 보여주고 있다.

굿은 초감제를 하여 영등신과 요왕신을 모셔다 잠시 대기시켜 놓고, 마을 사람들은 열명(列名)을 한다. 다시 당신을 모시기 위한 당굿으로 본향듦 제차로 들어가는데, 초감제로부터 오리정 신청궤(하늘에서 하강한 신들을 오리 밖까지 마중나가 안내하여 모시고 데려오는 과정)하여 본향듦에서 본향신을 놀리고 맞아들인 뒤 삼헌관에게 절을 시키고 도산을 받고, 석살림굿을 한다. 그리고 나서 요왕맞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오리정 신청궤를 두 번 하는 셈이다. 요왕길을 치워 닦으면, 바다밭에 씨를 뿌리는 모의적인 농경의례로 씨드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부를 위한 풍어굿으로 영감놀이를 하고 배방선을 한다. 이를 보면 칠머리당 영등굿은 다른 영등굿과 달리 영등신, 해신, 일반신을 먼저 오리정 신청궤하고, 오리정 정대우(신들의 자리를 배정하여 앉히는 과정)하여 제장에 대기시켜 놓고, 본향당신을 청하는 본향듦과 선박과 선주, 어부들의 수호신 영감을 청하여 노는 영감놀이가 삽입되어 굿의 규모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칠머리당굿의 제차(祭次)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큰 제차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초감제 ① 초감제: 삼석울림 → 청신삼배향촉권상 → 군문열림 → 베포도업 → 날과국 섬김 → 열명 → 연유닦음 → 군문열림 → 산받아 분부사룀 → 새ᄃᆞ림 ② 신청궤: 신청궤 → 정대우

2) 본향듦 ① 본향듦: 본향듦(팔찌거리 묶음, 우봉지주 잔던짐, 본향 들어옴) → 삼헌관 절시킴 → 자손들 소지올림 → 오리정 정대우 → 도산받아 분부사룀 → 석살림 ② 공연: 추물공연 → 금벼리잔 → 나까시리 놀림 → 지장본풀이

3) 요왕맞이 ① 초감제: 베포도업 → 날과국 섬김 → 제청신도업 → 군문열림 → 산받아 분부사룀 → 새ᄃᆞ림 → 오리정 신청궤 → 오리정 정대우 → 자손들 절시킴 ② 방광침 ③ 추물공연 ④ 요왕질침 ⑤ 요왕문열림

4) 씨드림: 씨드림 → 씨점

5) 마을 도액막음: 마을 도액막음 → 각산받음

6) 영감놀이: 영감청함(영감신 오리정 신청궤) → 서우젯소리 → 배방선과 지드림

7) 도진

의의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굿은 영등굿을 당굿으로 하며, 제주의 대표적인 영등굿이다. 또한 계절제(季節祭)로서 바람의 섬 제주도에 남아 있는 영등굿의 뿌리가 되는 굿이다. 칠머리당굿은 여느 마을처럼 당굿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계절제 중 독특한 형식을 지닌 당굿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 제주도 영등굿(장주근 · 이보형, 悅話堂, 1983), 濟州道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濟州道文化公報擔當官室, 1986), 濟州칠머리당굿(玄容駿,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문무병 · 칠머리당굿 보존회, 황금알, 2005).
필자 | 문무병(文武秉)

풍신제(風神祭)

☞ 영등제: 봄편

영등날바람점

정의 풍신(風神)이요, 내방신(來訪神)인 영등할미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날과 등천하는 날에 바람 부는 것을 보아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바람점[風占].

내용 주로 영등할미가 내려오는 음력 이월 초하루와 영등할미가 지상에 머무는 열이튿날, 그리고 영등할미가 하늘로 올라가는 스무날에 행한다. 영등할미가 내려오는 음력 이월 초하루에 비가 오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면 그 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촌에서는 특히 이를 따진다.

영등날 비가 오면 영등할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으로 여기며 이를 '물영등내린다' 하고, 바람이 불면 영등할미가 딸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으로 여겨 이를 '바람영등내린다' 하며, 날씨가 맑고 햇볕이 강하면 이를 '불영등내린다' 한다. 속설에 영등할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비를 내리는 것은 영등할미가 며느리의 옷을 비에 젖게 하여 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고, 딸을 데리고 올 때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딸의 다홍치마가 바람에 나부끼게 하여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영등할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그 해 비가 자주 와 풍년이 들고, 딸을 데리고 오면 그 해 바람이 많고 가뭄이 와 흉년이 든다고 한다.

한편 이월 스무날은 영등할미가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 하기도 하고, 영등할미를 따라왔던 수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 하기도 한다. 이 날 역시 날씨를 보아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이 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조금 흐려도 길하다." 하였으며,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이월령(二月令)에서는 "스무날 음청(陰晴)으로 대강은 짐작하나니." 하였다.

지역사례 부산의 해운대에서는 이월 초하룻날에 바람이 많이 불면 그 해 풍해(風害)가 있고, 비가 오면 그 해 수해(水害)가 있다고 하며, 기장군 고촌에서는 이 날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금정구 두구동에서는 열이튿날 오전에 바람이 불면 오려(올벼)가 잘 되고 오후에 바람이 불면 늦벼가 잘 된다고 점친다. 전남 무안과 진도에서는 열이튿날에 바람이 불고 스무날에 비가 오면 그 해 시절이 좋다고 한다. 전남 신안과 제주에서는 영등할미가 올라가는 날인 스무날에 날씨가 좋고 장닭 꼬리가 팔랑거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 시절이 좋다고 믿는다. 경남 하동에서는 스무날에 구름이 남쪽에 끼면 남쪽, 서쪽에 끼면 서쪽에 풍년이 들 것이라 점치고, 양산에서는 스무날에 비가 오면 그 해 내내 물이 흔하다고 점친다. 제주도에서는 스무날에 날씨가 잔잔하면 시절이 좋아 풍년 든다는 말이 있다.

의의 음력 이월은 춘경제(春耕祭)가 있고 본격적으로 농사에 임하는 달이라, 농가에서는 이월 기후 변화가 그 해의 풍흉에 직결된다고 믿어 이월 바람점이 성행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南國의 民俗 -濟州道歲時風俗-(秦聖麒, 敎學社, 1975),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 민속학 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 황경숙(黃京淑)

영등물뜨기

정의 영등날 새벽 2~3시경 영등할머니(영등신)에게 올릴 우물물(영등물)을 남보다 먼저 길어오는 풍속. 영등할머니에게 올릴 물은 깨끗한 정화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우물물을 떠가기 전에 먼저 떠야 길한 것으로 여기며 이렇게 떠온 정화수를 영등물이라 일컫는다.

내용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 풍속은 음력 이월 초하루, 영등날에 닭이 울기 전 시간인



영등물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
국립민속박물관

새벽 2~3시경 영등할머니에게 올릴 우물물을 떠오는 것을 이른다. 이 날 새벽이면 주부들은 마을 공동우물에서 떠온 물을 장독대에 떠놓고, 영등신에게 비손을 하거나 가정에 따라서는 물을 올려놓기만 한다. 닭 울기 전은 성(聖)의 세계이며, 닭이 운 후는 속(俗)의 세계이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우물물을 떠오려는 것이다. 새벽에 우물물을 제일 먼저 길어가는 집은 그 해 재수가 좋고, 농사를 제일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소원 성취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떠온 물은 장독에 놓되 북쪽을 향하여 놓고 비손을 하며, 가정에 따라서는 이 물로 이튿날 아침에 영등할머니에게 올릴 음식을 장만한다.

지역사례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1리에서는 영등날로부터 10일 동안 장독대 위에 올린 물을 날마다 갈아둔다고 하며, 경산 용성면 곡란리에서는 이 물로 영등밥을 짓거나 정화수로 이용하여 오곡밥을 지어먹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황경순(黃慶順)

떼몰이놀이

⇨ 약마희(躍馬戱): 봄편

말뛰기놀이

⇨ 약마희(躍馬戱): 봄편

약마희(躍馬戱)

정의 제주도의 영등굿에서 배방선 때에 각 가호의 떼[槎, 뗏목]가 먼저 신을 보내려고 경조(競漕)하던 송신(送神)행사. 지금은 영등굿에서 영등신을 송신할 때에 작은 짚배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조금씩 실어 발동선인 어선에 싣고 바다에 나아가 짚배를 동쪽으로 띄워 보낸다. 그러나 예전에는 각 가호마다 어선인 떼를 내어놓아 개인별로 송신하는 짚배를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광복 전까지 행해졌다는 노심방들의 증언이 있었다.

어원 약마희(躍馬戱)라는 말은 한자(漢字)의 뜻풀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두식(吏讀式) 표기의 훈차(訓借)로 읽어야 한다. '약(躍)'은 '뛰', 제주 방언으로 '튀'의 유사음의 표기로 보고, '마(馬)'는 '말', 제주 방언으로 'ᄆᆞᆯ'의 유사음 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떼[槎]'는 제주 방언으로 '터우, 테우, 테위, 테배' 따위로 발음되고, ᄆᆞᆯ은 ᄆᆞᆯ다의 어간으로 구(驅, 몰다)의 뜻이 된다. 이를테면 '소를 몰다'라는 말을 쉐를 ᄆᆞᆯ다[swerɯl mɐlda]라는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약마(躍馬)의 '마(馬)'는 '말[馬]'을 뜻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구(驅)'의 뜻 곧 제주 방언으로 ᄆᆞᆯ다의 어간을 기술하려 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약(躍)은 '떼', 제주 방언으로 테우의 원음으로 볼 수 있고, 마(馬)는 제주 방언으로 ᄆᆞᆯ다[驅, 표준어 몰다]의 어간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약마희는 제주 방언으로 '테우ᄆᆞᆯ이 놀이', 표준어로 떼몰이 놀이로 해석할 수 있다. 곧 떼를 몰아 경조하는 놀이라는 말이다.

유래 약마희 풍속은 동남아 여러 곳의 경조 민속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에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조 민속이 보인다. 희락사모지사(戱樂思慕之事)가 그것이다. 가락국의 수로왕이 아유타국의 허황후와 혼인할 때 허황후는 붉은 빛의 돛과 붉은 빛의 깃발을 휘날리며 가락국으로 왔는데, 왕은 유천간(留天干)에게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다시 신귀간(神鬼干)에게 명하여 승점(乘岾)에 나아가 있게 했다. 허황후가 탄 배를 발견한 유천간은 먼저 망산도에서 횃불을 올려 신호하고 승점에 있던 신귀간은 대궐로 달려가 아뢰었다. 이 옛 사실을 재현한 것이 희락사모지사이다. 매년

7월 29일이면 사인이졸(士人吏卒)들이 승점에 올라가 장막을 쳐놓고 마시고 환호하면서, 이쪽저쪽으로 눈길을 던지는 가운데 건장한 청장년들이 좌우 두 편으로 갈라서 망산도로부터 세차게 말을 몰아 달리고, 서로 물에 배를 밀어 띄워서 북쪽을 향하여 고포(古浦) 쪽으로 다투어 달려나간다. 이것은 옛적에 유천간(留天干)과 신귀간(神鬼干)이 왕후가 도래함을 바라보고 임금에게 알리던 일을 재현시킨 자취이다. 이 희락사모지사에서 좌우 두 편의 청장년들이 망산도에서 고포까지 경조 행사를 한 것은 계절예축제(季節豫祝祭)의 연점(年占)의 성격은 없지만, 경조 민속이 제주도 북쪽으로 한반도의 남해안까지 있었음을 말해준다.

내용 약마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2월 초하루에 귀덕과 김녕 등지에서는 장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떼 모양을 말머리처럼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약마희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한다. 이 달에는 배 타기를 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고 사람들은 이를 말뛰기놀음 또는 말뛰기놀이라 해석해 왔다.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 광복 이전에 영등굿이 끝난 후 송신(送神)을 할 때, 각 집에서 어선인 떼를 선창에 내놓아 굿을 했던 제물을 작은 짚배에 싣고 그 짚배를 떼 위에 모셔 심방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노를 저어 몰아 경조를 했던 마을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 짚배를 동쪽으로 떠내려 보낼 바다에 도착하면 수심방[首巫]의 신호에 따라 떼들이 일제히 정지하고 짚배를 띄웠는데, 이때 1등한 사람은 "장원했다" 하고 풍어를 얻는다고 해서 마을에 돌아와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고 한다.

영등굿은 2월의 계절예축제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초감제: 모든 신을 청하여 참가자의 행운을 비는 제차 ② 용왕맞이: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아 신을 청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차 ③ 씨드림(씨점): 해녀 채취물인 미역, 전복, 소라의 씨(좁씨)를 바다에 뿌려 풍요를 빌고, 풍요 여부를 점치는 제차 ④ 도산받음(자손들 산받음): 마을 전체의 안녕과 각 집안의 안녕을 점쳐 신의(神意)를 전



떼







〈약마희〉
1 제물싣기
2 떼
3 배방선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국립민속박물관

달하는 제차 ⑤ 배방선: 미리 마련해둔 짚배에 제물을 조금씩 싣고 영등신을 송신하는 제차. 이 송신제차에다가 지금은 어선 한 척에 짚배 하나를 모셔 바다에 나아가 띄워 보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집집이 각각 따로 짚배를 띄워 영등신을 앞다투어 먼저 치송하던 것이 바로 약마희의 잔존 형태이다.

인접국가사례 경조(競漕)가 계절예축제에서 행해지는 지역은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남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분포해 있다. 일본 큐슈(九州)에서는 후나고로라 하고, 남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는 파룡선(爬龍船)이라 한다. 큐슈에서는 경조하는 배에 장식이 없으나, 남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는 배를 용 모양으로 꾸며 장식하는 특징이 있다. 모두 계절예축제 때에 행해지며 풍요의 기원과 연점(年占)의 성격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제주의 약마희에서 '떼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꾸며서 했다.'라고 한 것은 본래 용의 머리 모양으로 꾸며서 한 것이 용마사상(龍馬思想)과 결합되어 나중에 말머리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기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爬龍船について(馬淵東一, 大藤時彦·小川徹 편, 沖繩文化論叢2, 平凡社, 1971), 沖繩の民族學的研究(日本民族學會, 1973),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玄容駿, 집문당, 2002).

필자 | 현용준(玄容駿)

영감놀이(令監-)

정의 제주도에서 하는 도깨비에 대한 굿. 1971년 제주도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에서는 도깨비를 도채비라고 하는데, 무속에서는 도채비라 부르지 않고, 영감 또는 참봉이라는 경칭으로 부른다. 그 중 영감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감에 대한 굿은 놀이굿 형태를 취하여 심방(무당)들이 연극적인 대화와 행위로 전개하기 때문에 영감놀이는 의례임과 동시에 연희이다.

유래 제주도의 도깨비인 영감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영감본풀이라는 신화가 있다. 현재 7편의 본풀이가 수집되어 있는데, 이들 중 공통적인 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남산 먹자고을에서 허정승의 아들 7형제가 태어났는데, 큰아들은 백두산 일대를 차지하고, 둘째아들은 태백산 일대를 차지하고, 셋째아들은 계룡산 일대를 차지하고, 넷째아들은 무등산 일대를 차지하고, 다섯째아들은 지리산 일대를 차지하고, 여섯째아들은 유달산 일대를 차지하고, 일곱째아들은 제주 한라산 일대를 차지하여 영감신이 되었다. 제주의 영감신은 정의(旌義)에 가면 영감선앙신으로 놀고, 대정(大靜)에 가면 도령선앙신으로 놀고, 위미숲엔 가면 각시선앙신으로 놀고, 선흘숲엔 가면 황세왓 돌허리아기씨선앙신으로 논다.

썰물 때는 강변에서 놀고, 밀물에는 수중에서 놀고, 산으로 가면 아흔아홉 골머리, 영실, 백록담, 물장오리, 태역장오리를 좋아해서 놀고, 삼천 어부의 어장을 좋아해서 놀고, 해녀와 홀어머니를 좋아하여 같이 살자 하며 따라붙는다. 낮엔 연불[煙火], 밤엔 등불을 들어 노는데, 갓양태만 붙은 헌 갓에, 옷깃만 붙은 도포에, 총만 붙은 미투리 차림에, 한 뼘 못 되는 곰방대를 피워 물고 다니는 우스운 모습이다. 안개 낀 날과 비 오는 날을 좋아하며, 순식간에 천리만리를 뛰어다닌다. 먹는 것은 수수떡, 수수밥을 좋아하고, 흰 돼지와 검은 돼지 같은 네 발 짐승의 머리와 갈비와 열두 뼈를 좋아하고, 시원한 간이나 더운 피도 좋아하고, 고기와 술을 동이로 받아먹는 신이다. 이 신화는 신의 내력담에 치중하지 않고 신의 성격과 습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 영감신은 도깨비불이 인격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신화를 통하여 이 신의 신격성(神格性)과 인격성을 알 수 있는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신(富神)의 성격이다. 위의 신화에는 설명이 없으나 일반 설화에는 이 신을 잘 모시면 안 되는 일이 없이 돈을 크게 벌게 해주고, 실수로 모시는 것을 게을리하면 집 네 귀에 불을 붙여 일시에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둘째, 선신(船神)과 풍어신(豊漁神)의 성격이다. 영감신을 성앙일월, 영감선앙[令監船王] 또는 뱃선앙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선신(船神)의 성격을 뜻한다. 대정읍 가파도에서는 어선을 새로 지었을 때 선신을 모셔 앉히기 위하여 소미[小巫]나 마을 사람을 영감으로 분장시켜 청해 모셔 앉히는 모의적 행사를 한다. 이를 '선왕노리개'라 하는데, 영감이 선신임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

고 고기잡이를 할 때 영감이 고기떼를 몰아다주어 잘 잡히게 한다는 풍어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대장[冶匠]신의 성격이다. 대장간 마을로 유명한 안덕면 덕수리에선 집집마다 뒷하르방이라 하여 수호신을 모셔왔는데, 이 신은 바로 도깨비신이다. 넷째, 당신(堂神)의 성격이다. 한경면 낙천리, 신평리, 영락리, 고산리, 두모리, 금릉리 같은 마을에서 영감을 당신으로 위해왔음을 조술생본 영감본풀이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병역신(病疫神)의 성격이다. 영감은 해녀, 홀어머니 같은 미인을 좋아하여 같이 살자고 따라붙어 병을 준다.

이러한 신적 성격을 가진 영감의 인격적 모습은 부정적이다. 그 성격을 보면 첫째, 괴인성(怪人性)이다. 이미 본풀이에서 본 바와 같이 헌옷 차림새, 한 뼘도 못 되는 곰방대에 담배를 피워 물고, 초롱불을 들고 산중, 수중, 음산한 곳을 천리만리 돌아다니는 위인이다. 군자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호색성(好色性)이다. 해녀나 과부 같은 여인들에게 따라붙어 같이 살자고 하며 병을 준다. 다른 본풀이에서는 영감을 가리켜 오소리잡놈 또는 오입쟁이라고 직접 표현한 것이 보인다. 셋째, 호식성(好食性)이다. 수수떡, 수수밥을 좋아하고, 소주와 돼지고기를 수전증이 심해 손을 달달 떨면서도 실컷 먹고 놀아야 하는 성품이다. 이러한 신이니 그에 대한 굿도 다른 신에 대한 굿과 다른 것이 당연하다. 영감이 여러 가지 신격을 가지고 있으니 그 굿도 다를 것이지만, 현재는 영감의 범접으로 앓게 된 병을 고치는 영감놀이밖에 조사된 것이 없다.

내용 영감놀이를 하려면 미리 짚으로 작은 배를 만들어 제상 옆에 놓고, 소미[小巫] 두 사람이 영감가면 차림을 한다. 가면은 보통 창호지에 눈과 콧구멍을 뚫고 수염을 달아 만들지만 격식을 차려서 하려고 할 때에는 두꺼운 종이에 색칠하여 만드는 수도 있다. 영감으로 분장한 소미 두 사람은 사과에 대를 꿰어 곰방대 삼아 물고, 손에 횃불을 들어 멀리 나가 대기한다.

영감놀이의 구성은 초감제, 영감청함, 막푸다시, 도진(배방선)으로 짜여 있다. 초감제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병을 앓아 영감의 범접이라는 점괘를 얻어 굿을 한다는 사연을 고하고, 여러 신을 청하여 대접하고 병을 고쳐 주도록 비는 제차이다. 다음은 영감청함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초감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청하는 가운데 영감신 차례가 오면 수심방이 바깥을 향해 큰 소리로 "영감! 영감!" 하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영감으로 분장하고 대기해 있던 소미 둘이 서로 횃불로 연락하며 술에 취한 모습으로 제청에 들어온다. 수심방과 영감은 서로 대화를 교환한다. "영감이오?", "그렇소.", "영감이 어째서 여기를 찾아왔소?", "우리는 서울 먹자고을의 허정승의 아들인데 7형제요. 맨 막내동생이 한라산 일대를 차지하여왔는데 동생을 찾아보려고 왔소." 대화는 계속된다.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어떤 날씨를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냐?", "해녀나 과





1 영감
2 영감놀이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심디스마

부도 좋아하지 않느냐?", 영감들은 "더더구나 좋아한다."라고 한다. 수심방과 영감의 이러한 대화는 찾아온 자들이 영감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수법이다.

영감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수심방은 "동생을 만나보고 싶으냐?" 하고는 환자를 제청에 데려와 앉힌다. 그러면 찾아온 영감들은 "하하, 내 동생이 절실하구나. 너 이 놈아, 널 찾으려고 아닌 고생을 다하며 찾아왔는데, 어찌 그리 무심하냐?" 하면서 제상에 차려 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한판 놀고 같이 가자고 한다. 그래서 수전증이 심한 손으로 소주와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서우젯소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한참을 논다. 이때 가족들이나 환자도 같이 섞여서 춤을 추며 즐긴다. 그리고는 떠날 물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수심방은 제주 명산물을 배에 가득 실으라고 한다. 수심방이 "미역은 얼마나 실었느냐?", "버섯은 얼마나 실었느냐?" 하는 식으로 물으면 다른 소미는 제물을 조금씩 짚배에 떠 넣으면서 "일만 층이오.", "일만 층이오." 하고 대답한다. 이렇게 제주 명산물을 배에 가득 싣는 시늉을 하고는 "이별이여! 작별이여! 배 놓아 가자." 하면서 영감들은 짚배를 들고 동생과 함께 바다로 향한다. 영감들이 동생을 바다로 데려가는 사이 수심방은 막푸다시를 한다. 막푸다시란 마지막으로 범접한 잡귀를 쫓아내는 제차이다. 돗자리로 환자의 몸을 두르고 잡귀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며 쫓아내고, 큰 성냥을 환자의 머리 위에 놓아 불을 붙여 한꺼번에 불이 타올라 잡귀들을 도망가게 한 후 환자는 방에 들어가 누워버린다. 그러면 영감들은 바다에 짚배를 띄워 떠가도록 하여 영감 일행이 배를 타고 가버리는 것을 모의적으로 실현하면 영감놀이는 끝이 난다.

의의 영감놀이는 호색적인 도깨비가 여인에게 따라붙어 준 병을 고치는 유감주술적인 굿이다. 그러면서 양반을 풍자하는 연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주 최고의 목민관(牧民官)인 목사(牧使)는 정3품 벼슬이다. 종2품과 정3품 벼슬의 호칭이 영감이다. 그러니 제주목민관이 술과 고기나 얻어먹고, 여자나 좋아하여 따라붙었다가 제주 명산물이나 한 배 가득 싣고서야 떠나가는 옛 양반의 모습을 굿 속에서 은연중에 풍자하고 있다.

참고문헌 | 南國의 巫歌 -濟州島巫歌 全集-(秦聖麒, 濟州 民俗叢書4, 濟州民俗文化硏究所, 1960),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濟州島巫俗硏究(현용준, 集文堂, 1986), 巫俗神話와 文獻神話(玄容駿, 집문당, 1992).
필자 | 현용준(玄容駿)

영등달 초하루 사흘 맑으면 종달리 여자 죽젓개 들고서 춤춘다
(영등둘 초ᄒᆞ를 사을불민 종달릿년 남죽 들렁 춤춘다)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날씨가 맑아야 그 해 기후가 순조로워서 어업과 소금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되므로, 종달리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부각시키는 속담.

내용 음력 정월과 함께 2월인 영등달의 기상 상태는 어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영등달은 바람과 비의 여신인 영등할망이 들어와서 보름 동안 머물다가 나가는 시기여서, 이때 날씨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해 해산물 수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종달리(북제주도 주좌읍 맨 동쪽 끝에 있는 마을)는 어업과 함께 소금을 만드는 어촌이어서 쾌청한 날씨가 많아야 수익을 올려 가정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 그래서 이곳의 아낙네들은 이월 초에 날씨가 맑으면 죽젓개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출 정도로 기뻐서 좋아했다고 전한다.

유사속담 유사한 속담으로 "정월 초하룻날 맑으면 어부 마누라 죽젓개 들고 춤춘다.", "초정월 비 오면 어부가 운다."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영등할머니 청치마 입어서 들어오면 날 좋고, 우장 써서 들어오면 비 내리고, 누비옷 입고 들어오면 춥고, 사나우면 바람 분다
(영등할망 청치메 입엉 들어오민 날 좋곡, 우장 썽 들어오민 날 우치곡, 무지게 입엉 들어오민 날 춥곡, 몹쓸민 ᄇᆞ름 분다)

정의 음력 이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의 기상 상태

를 영등신의 옷차림새와 성깔에 연계하여 그 해의 기후를 예측할 때 일컫는 속담.

내용 제주도에는 매해 음력 이월 초하루에 비바람의 여신인 영등할망이 북제주군 소섬[牛島]을 거쳐 들어와서 보름 동안 제주도 해안에 머물면서 소라, 전복, 미역의 씨를 뿌려 증식시키고 보름날에 떠난다는 민간신앙이 있다. 이때 어촌을 중심으로 어잠업(漁潛業)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제)을 하는데, 그 기간에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영등할머니가 청치마[靑裳]를 입고 오고, 비가 내리면 우장을 쓰고 오며, 날이 차면 누비옷을 입고 오며, 바람이 불면 사나운 영등할머니가 들어온 것으로 여긴다는 속설이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좀생이날

정의 음력 이월 초엿새를 가리킴. 이 날 저녁 서쪽 하늘에 모여 있는 작은 별들을 쳐다보고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는데, 이 별들을 좀생이라 부르기 때문에 좀생이날이라 한다.

내용 좀생이는 좀성 또는 조무생이라고도 부른다. 좀생이의 좀은 작다는 뜻이고 생이는 별 성(星)자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것이다. 따라서 작은 별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다. 조무래기와 같이 조무생이라는 것도 작은 별임을 말해준다. 이 좀생이는 28별자리 중 묘성(昴星)으로 작은 별들이 모여 성군을 이룬다. 서양에서는 폴레아데스라고 부르는 작고 오밀조밀하게 많이 모인 별무리인데, 오리온자리의 서쪽 황소자리에 있다. 육안으로는 7개 정도 보이고, 망원경으로는 100개 이상을 볼 수 있고, 천체 사진기로는 2,000개 정도를 촬영할 수 있다.

좀생이날의 중심 행사는 좀생이보기와 다리밟기이다. 좀생이보기는 농점의 하나로 달의 옆을 따라가는 좀생이의 모양과 달의 거리를 보아 그 해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다. 좀생이점은 삼태성과 신태성을 포함하여 삼각 지점으로 보고 점을 치는데 좀생이는 7개, 삼태성과 신태성은 각각 3개이다. 속담에 "송진이(좀생이) 보고 머슴 다린다.", "조무싱이 보고 그 해 일할 짚신을 삼는다."라고 하듯이 농사와 관련하여 별을 보는 날이다.

대개 2월 6일 저녁에 별을 보고 점을 치는데, 달과 나란히 가거나 한 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앞서 가면 길하고, 만일 앞이나 뒤로 멀리 떨어져 가면 그 해는 흉년이 들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징험(徵驗)해 보니 제법 맞는다고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기록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이 날 초저녁에 삼성이 달 앞에서 고삐를 끌고 가는 것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하고, 최식(崔寔)의 '농가언(農家諺)'에 "2월의 황혼, 삼성의 저녁"이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묘성과 삼성은 같은 서방 7수(宿)로 입수도(入宿度; 동양의 천문학은 하늘을 28개 수로 나누고 각 수를 대표하는 별을 수거성이라 하며, 그것으로부터 하늘의 적도를 따라 측정한 각 거리)가 1도 정도 차이가 나고 별의 숫자도 7개 정도로 같이 보이므로 혼동해서 점을 치기도 한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쵸뉵일 좀상이ᄂᆞᆫ 풍흉을 안다ᄒᆞ되, 슴으날 음청으로 대강은 짐즉ᄂᆞ니."라고 좀생이보기와 20일의 음청으로 농사의 풍흉을 짐작하는 풍속을 노래하였다.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묘성이 달 옆에 붙어 있어서 귀고리를 한 것과 같으면 대풍이 들고 풍년은 반드시 옛날 경술(庚戌)년을 칭한다고 하였다. 2월 6일의 한시에는 "눈썹 같은 달이 예쁘고 비로소 광채를 토하니, 묘성이 달을 따라다니는 것이 귀고리와 같



좀생이보기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하평리
국립민속박물관

구나. 늙은 농부가 머리를 들고 흔쾌히 서로 말하며, 경술년 풍년이 또한 팔방에도 든다고 하네." 하고 노래했다.

지역사례 좀생이는 지역에 따라 송진이, 송싱이, 조무싱이, 소무생이, 송생이라고도 부른다. 좀생이와 달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강원도에서는 대체로 달을 여름에 이앙할 때 부인들이 이고 가는 밥 광주리로 보고, 좀생이는 광주리를 따라가는 어린아이들에 비유하여 점을 친다. 그러므로 초생달(밥함지)에 좀생이가 가까이 가면 좋고, 너무 멀면 기진맥진하여 흉년이 들며, 아주 가까워도 배가 고파서 따라가니 좋지 않다고 한다. 경상남도 해안 지역에서는 좀생이가 달을 마치 고삐를 쥐고 끌고 가듯 하면 대풍이 들고, 달과 평행으로 가면 평년작이고, 달보다 뒤떨어져 가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또 좀생이의 빛깔이 너무 붉으면 가뭄이 심하고, 물을 머금은 듯이 약간 투명하면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잘 된다고 한다. 충북에서는 좀생이별이 달보다 앞서 가면 풍년, 달과 평행하면 평년, 달보다 뒤떨어져 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좀생이별이 달의 뒤로 돌아가면 풍년이 들고, 앞으로 나오면 흉년이 든다고 하고, 전남에서는 좀생이가 달 앞에 갈 때, 옆으로 달과 나란히 갈 때, 달 옆에 가까이 갈 때, 까불거리고 갈 때에 따라 농사의 길흉을 점친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하평마을에서는 이 날 다리밟기를 하여 한 해의 액운을 막는데, 이를 사천하평답교놀이라 한다. 이때 좀상주를 담가 마시며 다리를 밟고 점을 치는데, 좀생이와 달의 거리가 소의 고삐 정도로 나란히 가면 풍년이 든다고 믿으며, 바닷가 마을에서는 가까이 가면 해사(海事), 즉 바다 농사가 좋다고 한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의 삼성(參星)보기도 날짜는 다르나, 미리 홍수와 가뭄을 점쳐보는 행사다. 청나라 때 고록(顧祿)의 『청가록(淸嘉錄)』에 따르면 음력 2월 8일 하늘의 삼성을 보는데, 달이 숨거나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수한점(水旱占)을 치며, 이 날 비가 오면 대보름날 역시 비가 온다고 한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淸嘉錄, 風俗歌詞集(李石來 譯, 新丘文化社, 197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강릉시 사천면 『하평 마을 민속지』(장정룡·김경남 외, 강릉문화원, 2001).
필자 | 장정룡(張正龍)

좀상날

정의 좀생이날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좀생이날은 좀성날로 어휘상 좀은 적은 정도나 분량의 뜻을 가진 '조금'에서 나와 좀스럽다와 같이 작다는 뜻을 포함한다. 따라서 좀생이는 좀과 성(星)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좀상날은 보통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강원도에서는 좀상날 또는 좀새이날, 좀성이날이라 하는데 별이 총총하다고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는 송진이, 경남에서는 조무싱이라고도 하는데 "송진이 보고 머슴 다린다." 하고 "조무싱이 보고 그 해 일할 짚신을 삼는다."라고도 한다. 전남에서는 "송생이 본다."라고 하여 송생이, 송싱이, 소무생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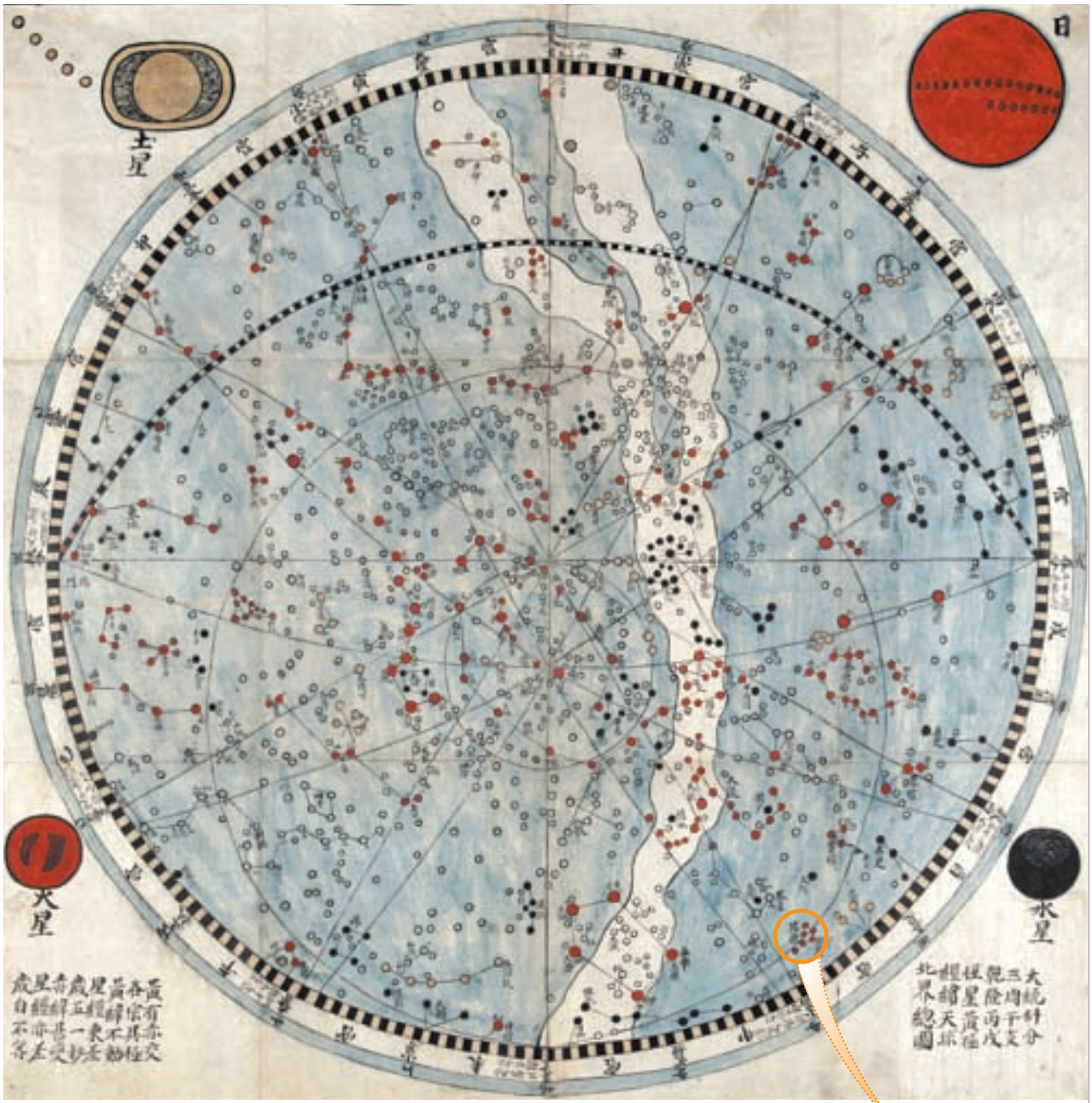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한진건, 연변인민출판사, 1990),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이만공 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필자 | 장정룡(張正龍)

좀생이 보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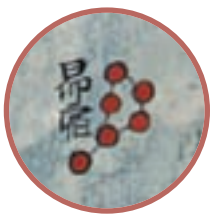
정의 음력 2월 6일인 좀생이날을 달리 부르는 말. 이 날 저녁에 하늘의 별을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친다.

내용 최영년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험춘성(驗春星)이라 하여 좀생이를 춘성(春星) 또는 낭위성(郎位星)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초당에서 일찍 춘성을 보니, 푸른 하늘에 밤 구름이 어슴프레하네. 느리게 달 뒤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징조이니, 금년에는 큰 풍년이 들 것으로 짐작하노라."라고 하였다. 또 "옛 풍속에 2월 7일 밤에 낭위성을 보았을 때, 달 뒤로 한 길쯤 떨어져 따라오면 풍년이 들고, 달 앞에 한 길쯤 앞서서 가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이것을 '좀생이본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淸嘉錄, 海東竹枝, 風俗歌詞集(李石來, 新丘文化社, 197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필자 | 장정룡(張正龍)



황도북계총성도
국립민속박물관



좀생이점

정의 음력 이월 초엿새에 좀생이별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 좀생이별은 28성수(星宿)의 하나인 묘성(昴星)으로 서양에서는 폴레아데스라고 부른다. 북두칠성(삼태성) 옆에 작은 별들이 성군(星群)을 이루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조무생이, 조무시별, 잠생이, 종심이, 송생이, 산토싱이, 비우달, 좀상이, 좀싱, 좀생이, 간성 등으로 다양하게 일컫는다.

유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2월 6일에 농가에서 묘성과 달과의 원근(遠近)을 보아 그 해 일을 점친다고 하였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2월 초저녁에 삼성(參星)이 달 앞에서 고삐를 끌

듯 멀면 풍년 조짐이라 하였다. 『해동죽지(海東竹枝)』 속악유희(俗樂遊戱)에는 2월 7일에 낭위성(郎位星)을 보고 점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좀생이본다'라고 하였다.

내용 정월 대보름에는 '달만 잘 뜨면 되고', 이월 초엿새날은 '좀생이만 잘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좀생이별을 통해 풍흉을 점치는 일은 자연현상을 통해 농사를 가늠하는 풍속이다.

좀생이점은 좀생이와 달과의 거리나 좀생이의 빛깔을 보고 풍흉을 점친다. 대체로 좀생이가 달에 근접하여 운행하거나 조금 앞서 있으면 길조여서 풍년이 들고, 그와 반대로 달과 좀생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흉조여서 흉작이 든다고 점친다. 지역에 따라서는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충남 보령에서는 좀생이가 달에 너무 바짝 따라 붙으면 흉년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전북 김제에서는 좀생이와 달과의 거리 차이가 많이 나면 그 해 홍수가 난다고 여긴다. 이때 달과 좀생이 사이의 거리 측정은 '베 한 필 거리'라든가 '열 발 거리' 하는 식으로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한다.

지역사례 충남에서는 좀생이를 '비우달', '비달'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 별이 달보다 앞서가면 흉년이 든다. 반면 달이 앞서 가고 별이 뒤따라가면 그 해 농사는 풍년이다. 이때 달과 별은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된다. 대개 달은 밥 바가지 또는 밥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인이나 어른 또는 소를 끌고 가는 사람에 비유되며, 별은 아이에 비유된다. 이를테면 별이 달과 가까이 있으면 아이가 흉년으로 인해 배가 고파서 달에 바싹 붙어서 가는 것이라 하여 그 해 흉년이 들 것이라 하고, 달과 떨어져 있으면 풍년이 들어 천천히 가도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해 풍년이 든다고 여긴다. 말하자면 작은 별들의 무리인 좀생이가 달을 좇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한편 구름이 끼어서 좀생이별을 보지 못하면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그 해 농사가 평년작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북 칠곡에서는 흉년작이라고 여긴다. 그런 식으로 좀생이를 통해 농사의 길흉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때 농사의 풍흉이란 경남 기장을 비롯한 어촌에서는 고기잡이의 풍흉을, 경북 영천에서는 고추와 목화의 풍흉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저마다 처한 생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M45 플리아데스 성단
http://astrophoto.co.kr 이건호

좀생이별의 빛깔을 보고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좀생이별이 붉은 빛을 띠면 가뭄이 심하고, 투명하면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잘 된다. 또 좀생이별이 뜨는 위치 또는 가는 방향을 보고 풍흉을 예견하기도 하는데 좀생이별이 북으로 치우쳐야 좋고 남으로 치우치면 흉작이라 여긴다. 전북 임실에서는 좀생이별이 집 부엌문 앞에서 마주 보여야 풍년이 든다고 점친다.

전북 군산에서는 좀생이별을 보고 그 해 집안에 머슴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달을 두고 좀생이가 멀리 따라가면 물이 적어 흉년이 들 것 같아 머슴을 두지 않고, 가깝게 따라가면 그 해 풍년이 들 것이므로 머슴을 두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의의 천체의 운행이 인간의 운명은 물론 농사의 풍흉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 이 풍속은 현재에도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海東竹枝, 瑞山民俗誌上(김태곤 외, 瑞山文化院, 1987), 龜尾·善山의 歲時風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경기민속지 III-세시풍속·놀이·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황경순(黃慶順)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江陵沙川荷坪踏橋-)

정의 음력 2월 초엿새 좀생이날,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진리마을과 하평마을에서 사천천을 사이에 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놀이. 2003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다리굿, 돌싸움, 횃불싸움, 다리밟기 같은 놀이들을 통하여 승부를 갈라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민속놀이이다.

내용 강릉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 민속놀이로 좀생이날 하평 답교놀이가 유명하다. 음력 2월 초엿새를 강릉에서는 좀상날이라 한다. 좀생이날 하평 마을에서는 다리굿, 쇠절금, 돌싸움(석전), 횃불싸움, 다리밟기(답교)를 하며 마을 축제를 펼치게 된다. 다리굿은 마을 농악대의 상쇠가 농악을 치면서 "모십시다. 모십시다. 서낭님을 모십시다. 이월이라 좀상날에 국사서낭 모셔놓고."라고 시작하는데, 처음 부정을 물리치는 사설을 하며 시작하는 것이 다리굿이다. 쇠절금은 쇠겨룸을 말하는 것으로 두 마을의 상쇠들이 쇠를 치면서 하는 대결이다. 쇠절금은 강릉 지역 농악에서 사용되는 열두 가락을 모두 사용한다. 이때에 상쇠들은 자신의 기량을 한껏 과시한다. 쇠절금은 이어지는 돌싸움, 횃불싸움, 답교놀이 같은 놀이들의 시작이기도 하다.

석전(石戰)은 민속놀이의 하나로 돌싸움, 편싸움, 투석전(投石戰), 투석희(投石戱), 변전(邊戰), 편전(便戰)이라고도 한다. 이는 모의적 승부로 간접적인 공감주술적 요소를 다분히 내표한 점술적 행위의 하나이다. 석전은 정월 대보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5월 단오 또는 8월 한가위에 하는 곳도 있다. 청소년층이 중심이 되어 마을 단위로 편을 짜서 서로 돌을 던져 승패를 겨루는 놀이로서 상무적(尙武的)인 것이기도 하고 한편 매우 위험한 놀이이다. 마을 대 마을, 또는 한 지방을 동서나 남북으로 나누어 하천을 사이에 두거나 백보 거리를 두고 일정한 표시물을 경계로 하여 서로 돌을 던져 싸운다. 이 석전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1920년대까지는 세시민속놀이로서 각 지방에서 행해졌다.

횃불싸움도 강릉지역에서 하평뿐만 아니라 금산마을, 회산마을, 초당마을, 송정마을, 시동마을에서 유명했으며, 석전과 함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관청에서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다. 답교놀이는 다리[橋]를 밟는 전통적인 민속놀이이다. 이 날 다리를 밟으면 일년간 다리[脚] 병(病)이 없고, 열두 다리를 밟으면 열두 달의 액을 면한다는 속신이 있었다. 다리[橋]는 다리[脚]와 소리가 같아서 다리[橋]를 밟으면 일년 동안 다리[脚]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송정마을과 초당마을, 사천 하평마을과 진리의 좀생이날 답교놀이는 유명하다. 하평에서는 대보름과 좀생이날 두 번이나 다리밟기를 하였다. 다리를 밟을 때 농악대의 상쇠가 "앗따! 이 다리 잘 놓았다. 술렁술렁 건너가자." 하고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합창으로 함께 따라 소리를 한다. 이어서 다리의 중간쯤에서 달을 향하여 상쇠가 "술령수 ○○년 이월 좀상날 이 다리 밟고 금년 농사 대풍으로 이루어주시오." 하고 술령수를 치면


1


2


3


4


5


6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1 금문만들기
2 금문
3 달집만들기
4 달집
5 서낭제
6 다리로 이동
7 답교놀이
8 다리고사
9 고사덕담
10 달집태우기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국립민속박물관







마을의 남녀노소가 다리밟기를 한다.

의의 하평마을은 강릉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명주군 사천면 진리였고, 강릉 시내에서 북쪽으로 8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해안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허균의 외가인 애일당(愛日堂) 김참판이 살았던 곳이다. 이 마을에서는 일년 내내 우환이 생기지 않게 하고 풍년을 기원하고자, 음력 2월 초엿새 좀생이날이 되면 서낭제, 석전, 횃불놀이, 답교놀이를 하였다. 좀생이날 저녁이면 마을 주민들이 다리에 모여 횃불을 들고 그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빌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리밟기를 하였다. 사천 하평마을에서 전승되는 횃불놀이, 다리밟기는 강릉 지방과 다를 바가 없지만, 좀생이날에 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러한 놀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종교적인 측면과 놀이적 측면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다. 그리고 다리밟기가 끝나면 사용했던 횃불, 솔문 같은 것들을 태워 황덕불을 해놓고 뒤풀이를 하며 즐겁게 밤을 새워 축제를 펼친다.

참고문헌 |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강릉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강릉시 사천면 『하평 마을 민속지』(장정룡·김경남 외, 강릉문화원, 2001).

필자 | 김경남(金京南)

무방수날

정의 음력 2월 9일을 가리키며, 어떤 일을 해도 해(害)가 없는 날. 지역에 따라서 '손 없는 날', '물방수날' 같이 달리 일컬어진다. 민간에서는 음력 이월 초하루에서 초여드레까지는 이틀씩 동서남북으로 손[害;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초아흐레에야 비로소 손이 하늘에 올라가므로 무방수날에는 무슨 일을 하여도 탈이 없어 꺼리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왔다. 또한 무방수날은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지기(地氣)가 오르는 시기로 만물이 소생하는 날로 여기기도 한다.

내용 무방수날에는 "성주단지를 뒤집어놓아도 집안에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는다.", "시신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해가 없는 날로 여겼다. 또한 만물이 소생하는 날이어서 이들과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나무를 심거나 신이 하늘로 올라간 날, 귀신이 와도 꼼짝 못하는 날로 여겨 평소 꺼리던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날 변소를 옮기거나 새로 짓고 집을 고치며, 평소 손이 있는 곳을 가려 함부로 치지 못했던 못을 치고 가재도구를 정비한다. 이사나 사초(莎草) 또는 이장(移葬) 같은 평소 조심하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또 무방수날에 담근 장은 맛이 좋다고 하여 이 날 장을 즐겨 담갔다.



이삿짐센터 즐거운 비명

17일 '손없는 날' 예약 한달전 완료

요금도 평소보다 5~10만원 더 받아

일요일인 오는 17일이 민속신앙에서 말하는 소위 '손 없는 날'로 알려지면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민속신앙에서 말하는 '손'이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귀신을 말하며, 이 귀신은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날을 '손 없는 날'이라 부른다.

즉 귀신이 없는 성한 날이다.

옛부터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집안이 번창할 수 있다고 믿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손 없는 날' 이사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음력 3월 9일인 17일은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끝났으며 뒤늦게 이사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사요금도 5t트럭 기준, 포장이사의 경우 45만~50만원으로 5만~10만원, 일반이사의 경우 25만원으로 평소보다 5만원 정도 비싸다.

이삿짐센터 관계자는 "봄철에 이사를 하려던 사람들이 손없는 날로 알려진 17일날 한꺼번에 몰려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만료됐다"며 "이삿짐센터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손 없는 날
충청투데이 2005년 4월 13일

이 날은 나무를 심는 날로도 알려져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좋은 날을 받아 다루었다. 이른바 나무에는 목신(木神)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방수날에는 나무를 심어도 피해가 없다고 여겨 산에서 나무를 뽑아다가 집안에 옮겨 심었다. 무방수날에는 "부지깽이를 심어도 잎이 난다." 거나 "부지깽이를 심어도 나무가 자란다."라는 언술처럼 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이 잘 자란다. 무방수날은 길(吉)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에도 좋아 무방수날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龜尾·善山의 歲時風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황경순(黃慶順)

물방새날

정의 손 없는 날을 가리키는 말. 대체로 2월 9일은 손이 없는 무방수날이라고도 하고 물방새날이라고도 한다.

내용 경북 군위에서는 네 방향의 방위에 날짜마다 손이 있는데, 그 날 손이 든 방향에 못을 박거나 하면 눈에 핏줄이 서는 등의 탈이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손이 든 방위를 피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초하루는 동쪽에 손이 들므로 그 방향을 피한다. 그리고 어느 방위에도 손이 없는 날에는 변소를 옮겨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2월 9일은 어떠한 방향에도 손이 없기 때문에 이사나 장 담그기 같은 일을 하는데, 특히 이 날 담은 장맛이 최고라고 한다. 경북 달성에서는 '부지깨이를 거꾸로 꽂아도 산다.'고 할 만큼 무슨 일을 하여도 탈이 없다고 여긴다. 또 식물을 심어도 잘 자란다고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동섭(金東燮)

밴대채날

정의 해주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방에서 음력 2월 13일을 가리키는 날. 밴대추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은 유독 바람이 많이 분다. 이때가 되면 이 고장에는 기상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날씨가 추워져 짠지독(김치독)이 터질 정도이다. 이처럼 2월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밴댕이추위한다."라고 한다.

내용 지역에 따라 이 날의 유래를 다르게 설명한다. 백령도에서는 밴대채라는 사람이 이 날 옷을 12번 갈아입었다가 얼어 죽었다고 한다. 또 밴대채가 이 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었기 때문에 배를 띄우면 안 된다고 한다. 밴대채는 밴댕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밴댕이는 바로 잡아올렸을 때와 죽었을 때 빛깔이 크게 다른 점이 밴대채의 변덕과 닮은 데가 있다는 풀이이다.

해주에서는 이 날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옛날 이 고장에 변덕이 죽 끓듯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매사에 변덕을 마음대로 못 부리면 잠을 못 이루었다. 음력 2월 중순에는 보통 날씨가 추워져 누구나 짠지독도 한 번씩 챙겨보고 옷을 껴입고 지냈다. 그런데 이 변덕쟁이 여인은 2월이면 봄바람이 불어오는 달이라 하여 얇은 여름옷을 하루에 열두 번씩이나 갈아입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얼어 죽었는데 바로 그 날이 음력 2월 13일이다. 이 날을 변덕스러운 추위에 변덕스러운 여인이 망령된 변덕을 부리다가 죽었다 하여 변덕추이라고 불러오다가 오랜 세월 전해지는 동안에 밴대추 또는 밴대채로 변음되어 전해진다고 한다.

한편, 이 날을 이 지방에서는 '고년 죽은 날'이라고도 하는데, 변덕쟁이 여인이 너무나도 밉살스럽고 얄밉다는 표현이다. 그 이후 이 고장 어느 곳에서는 이 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준비를 하는데, 그 날 따라 날씨가 너무 춥고 매서웠던 탓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나온 말이 "오늘이 고년이 죽은 날이 되어 이렇게 몹시 춥다."라고 하여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무안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참고문헌 | 甕津郡誌(甕津郡, 1989),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이세희(李世熹)





節氣 절기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 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의 물이 괸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알을 건져다 먹는다.
경칩은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절기이다.



경칩 풍경
이억영

경칩(驚蟄)

정의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節氣). 계칩(啓蟄)이라고도 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45도에 이르는 때로 동지 이후 74일째 되는 날이다. 양력으로는 3월 5일 무렵이 된다.

내용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이즈음이 되면 겨울철의 대륙성 고기압이 약화되고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한난(寒暖)이 반복된다. 그리하여 기온은 날마다 상승하며 마침내 봄으로 향하게 된다. 『한서(漢書)』에는 열 계(啓)자와 겨울잠을 자는 벌레 칩(蟄)자를 써서 계칩(啓蟄)이라고 기록되었는데, 후에 한(漢) 무제(武帝)의 이름인 계(啓)를 피휘(避諱)하여 놀랄 경(驚)자를 써서 경칩(驚蟄)이라 하였다. 옛사람들은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동의보감(東醫寶鑑)』 논일원십이회삼십운(論一元十二會三十運)에는 "동면하던 동물은 음력 정월[寅月]에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절기로는 경칩에 해당하며, 음력 9월[戌月]에는 동면을 시작하는데 절기로는 입동(立冬)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기(禮記)』「월령(月令)」에는 "이월에는 식물의 싹을 보호하고 어린 동물을 기르며 고아들을 보살펴 기른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경칩이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이 농사의 본을 보이는 적전(籍田)을 경칩이 지난 해일(亥日)에 선농제(先農祭)와 함께 행하도록 정하였으며, 경칩 이후에는 갓 나온 벌레 또는 갓 자라는 풀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을 놓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내리기도 했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우수에는 삼밭을 갈고 경칩에는 농기구를 정비하며 춘분에는 올벼를 심는다고 하였듯이,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이다.

속신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 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의 물이 괸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롱뇽) 알을 건져다 먹는다.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특히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재를 탄 물그릇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한다. 경칩에는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그 해 농사를 예측하기도 한다.

또한 고로쇠나무(단풍나무, 어름넝쿨)를 베어 그 수액(水液)을 마시는데, 위장병이나 속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전남 구례의 송광사나 선암사 일대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유명하다. 보통의 나무들은 절기상 2월의 중기인 춘분(春分)이 되어야 물이 오르지만 남부 지방의 나무는 다소 일찍 물이 오르므로, 첫 수액을 통해 한 해의 새 기운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고로쇠 수액은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 일기(日氣)가 불순하면 좋은 수액이 나오지 않고, 날이 맑아야만 수액이 약효가 있다. 경칩이 지나서는 수액이 잘 나오지 않으며, 나오더라도 그 수액은 약효가 적다. 이처럼 경칩은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절기이다.

참고문헌 | 東醫寶鑑, 成宗實錄, 世宗實錄, 禮記, 太宗實錄, 漢書, 曆法의 原理分析(이은성, 正音社, 1985),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효경(金孝慶)

계칩(啓蟄)

정의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로, 음력 2월의 절기인 경칩(驚蟄)을 달리 부르는 말. 계칩(啓蟄)은 열리다[啓]와 땅속에 숨어 있는 벌레[蟄]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던 벌레가 땅을 열고 나온다는 의미이다.

내용 『한서(漢書)』에는 계칩(啓蟄)이라 하였는데,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이름이 계(啓)이므로 피휘(避諱)하여 이후에는 계(啓)자 대신 경(驚)자를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나와서 알을 낳는다고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2월에야 비로소 천둥이 소리를 내고 번개가 치는데,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하소정해(夏小正解)』에 "정월에 벌레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正月啓蟄)."라고 하였으며, 공자(孔子)의 언행(言行)과 가르침을 기록한 『공자가어(孔子家語)』「제자행(弟子行)」에 "공자는 발로 그림자를 밟지 않았고, 땅속에서 나온 벌레를 죽이지 않았고, 자라나는 초목을 꺾지 않았으며……(其足不履影 啓蟄不殺 方長不折……)."라고 하였는데, 그 집해(集解)에 "계칩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처음 나온 것이다(啓蟄 蟄蟲初出也)."라고 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孔子家語, 五洲衍文長箋散稿, 夏小正解, 漢書, 한국의 세시풍속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정기(李貞基)

둑제[纛祭]

정의 조선시대 군대를 출동시킬 때 군령권(軍令權)을 상징하는 둑[纛]에 지내는 국가 제사. 경칩(驚蟄, 음력 2월)과 상강일(霜降日, 음력 9월)에 병조판서가 주관하여 제사를 지낸다. 둑제는 국가의 군사권을 상징하는 제사로서 고려시대부터 그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여 조선 성종대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소사(小祀)로 규정되었다. 이 제사는 유일하게 무관들이 주관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유래 둑제는 국가의 군사권을 상징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당(唐)·송(宋) 시대 문(文)의 상징인 문선왕묘(文宣王廟)와 무(武)의 상징인 무성왕묘(武成王廟)를 모두 중사(中祀)에 포함시켜 사전(祀典)에서 문무(文武)를 동등하게 표현하였다. 그런데 명대에는 무성왕묘 대신에 기독(旗纛)을 중사에 포함시켰다. 무성왕묘는 강태공 같은 무신들을 제사하고 기독은 군권을 상징하는 깃발을 제사하여, 그 대상이 서로 다르지만 둘 다 무(武)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대체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둑제의 기록은 고려 충렬왕 7년(1281) 몽골의 2차 일본 원정에 고려군이 동원될 때 출정(出征)하기 전 궁문에서 국왕이 둑제를 시행한



華城陵幸圖屛(還御行列)
국립중앙박물관

것에서 처음 보인다. 그리고 동왕 13년(1287)과 16년(1290)에도 시행된 것으로 나온다. 이때의 둑제는 출정 전에 임시로 시행된 듯한데, 공민왕 18년(1369)에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상설화되었으며 우왕 3년(1377)에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2년(1393)에 홍색(紅色)과 흑색(黑色) 2기의 둑[纛]이 완성되자 영안군(永安君)으로 하여금 둑신[纛神]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기록에서 둑제가 처음 보인다. 이후 태종대까지 몇 차례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세종 3년(1421) 봄과 가을의 둑제를 소사(小祀)의 예로 3일간 재계(齋戒)하고, 변두(籩豆)는 8개를 쓰도록 함으로써 점차 제도적인 정비가 모색되었다. 이어 세종 12년(1430)에는 명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따라 제단, 제사 시기, 폐백, 복색, 헌례(獻禮), 기독(旗纛)의 노출 여부 같은 둑제의 제반 사항이 모색되었고, 이를 기초로 세종 22년(1440) 둑제의 의주가 제정되었다. 이때의 의주는 약간의 수정을 통해 『국조오례의』 둑제로 확정되었다.

『국조오례의』의 편찬 이후에도 둑제의 시행 사례는 몇 차례 보인다. 명종 10년(1555) 출사(出師)할 때 반드시 둑제를 지내도록 한 것이나, 광해군 10년(1618) 강홍립(姜弘立)을 앞세워 명에 파병할 때 둑



『국조오례』서례 도설편
국립중앙도서관

제를 지낸 것은 둑제가 군대의 출정과 연결되어 시행된 사례이다. 그렇지만 둑제는 상시적으로 시행된 것 같다. 성종대와 중종대에 각종 재변(災變)이 발생하면 둑제의 음복(飮福)시 음악을 금하도록 조처한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이는 당시에 둑제의 시행이 일반적이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둑제는 『국조오례의』에 소사로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군사와 관련된 제사 중 가장 중시되어 다른 소사와 달리 제관이나 제수에서 우대받았다. 일반적으로 소사의 제관은 3품이지만 둑제는 정2품인 병조판서가 주관했고, 신위(神位)가 많은 여제(厲祭)를 제외한 다른 소사의 희생이 돼지 한 마리에 불과한 데 비해 둑제에는 양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제사의 과정에 악무(樂舞)가 시행되어 다른 소사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제사의 과정은 크게 제사 전의 준비 절차, 행례 절차, 예필(禮畢) 및 납신(納神)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준비 절차는 제사의 날짜를 규정한 시일(時日), 3일간의 재계(齋戒), 제수의 진설(陳設), 제사 전날의 희생 및 제수의 검사 같은 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행례(行禮)는 먼저 세 차례 향(香)을 신위에게 올린 후 폐백을 드리는 전폐(奠幣)를 시행하고, 초헌관이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초헌례, 아헌관과 종헌관이 각각 술잔을 올리는 아헌과 종헌, 이렇게 삼헌(三獻)이 이어진다. 헌례가 끝나면 초헌관이 음복(飮福)과 수조(受胙)를 시행하고, 제사에 썼던 제기를 거두는 철변두(徹籩豆)를 거쳐 초헌관이 제사에 썼던 폐백을 묻는 과정을 지켜보는 망예(望瘞)를 시행한다. 이후 헌관이 제례가 끝났음을 보고하는 예필(禮畢)을 하고 신위판을 봉안하고 예찬(禮饌)을 거두면서 제사가 종결된다.

의의 조선시대 통치자들은 "국가의 중사(重事)는 제사와 군사에 있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였다. 이 중 군사(軍事)는 국가를 실제로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인데, 그 상징성이 제사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둑제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건국 이후 문치(文治)가 강조되었고, 그 경향은 유교 의례에도 반영되어 무(武)적인 요소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약화되었다. 『국조오례의』에 군사와 관련되어 등재된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마제(禡祭) 같은 제사가 『국조오례의』 편찬 이후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무(武)의 상징성은 국가가 유지되는 한 버릴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것은 둑제의 꾸준한 시행을 통하여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朝鮮王朝實錄, 春官通考, 韓國中世禮思想研究(李範稷, 一潮閣, 1991), 朝鮮初期 國家祭禮 研究(韓亨周, 一潮閣, 2002), 朝鮮時代 軍事關聯 국가제사의 정비와 그 운영(한형주, 東峰申千湜敎授停年記念史學論叢, 2005).

필자 | 한형주(韓亨周)

개구리알먹기

정의 경칩(驚蟄) 무렵이면 동면(冬眠)했던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류가 겨울잠에서 깨어서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여 건져 먹는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대동강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입을 떼는 날이다.'라는 속담처럼 경칩 무렵이 되면 봄기운이 완연해진다. 봄의 전령(傳令)처럼 봄의 개시(開始)를 알리는 존재로 개구리와 도롱뇽 같은 양서류가 있다. 경칩 무렵 산속의 맑은 물이나 연못, 호수, 하천, 웅덩이, 실개천 같이 습기 있는 곳에 개구리나 도롱뇽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첫 알을 낳는다. 개구리의 산란 시기는 보통 음력 2~5월경이고, 북부 지방에서는 평지에 산란하지만, 남부 지방에서는 산골짜기의 맑은 계류에 산란한다. 반면에 도롱뇽의 산란 시기는 음력 3월 상순에서 4월 하순에 걸쳐 있는데, 한 마리의 암컷이 1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모두 물 속에서 젤리와 같은 물질로 덮여 있을 뿐 다른 보호막을 갖고 있지 않아 부드러워 먹기가 쉽다.

이러한 알을 먹는 것을 두고 일반적으로 '개구리알먹는다'라고 표현하나, 그 양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충청도에서는 개구리알을 먹으며, 경기도에서는 도룡이(도롱뇽)알과 개구리알을 먹는다. 경남 지역에서는 개구리알, 도롱뇽알을 먹고, 경북 지역에서는 개구리알 또는 비단개구리알을 먹는다. 강원도와 전북 지역에서는 도롱뇽알을 먹고, 전남 지역에서는 도롱뇽알과 개구리알, 빨간 개구리(한개구리)를 먹는다. 전남 지역에서는 도롱뇽알을 미룽이알, 미륭알, 미용[微龍, 미륭이] 또는 농알이라 부르며, 개구리알은 용알[龍卵]이라 부른다. 경칩과 관련하여 용을 관념하는 것은 중국의 음력 2월 초이튿날의 춘용절(春龍節)의 사례를 통해 살필 수 있다.





1 개구리알
2 개구리알먹기
충남 부여군 황교익

옛날 섬서성에 가뭄이 들자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이에 옥황상제가 동해용왕의 손자에게 비를 내리게 명하였다. 용왕의 손자가 용하(龍河)에 들어가 놀며 비 내리기를 잊었기에, 사람들은 온갖 시련 끝에 용하 부근에서 강용목(降龍木)을 구하여 용왕의 손자를 항복시켰다. 용왕의 손자가 물 속에서 머리를 들자 삽시간에 우레가 치고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가뭄을 제거하기 위해 용왕에게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춘용절이다. 겨우내 잠자고 있던 용이 이 날이 되면 우르릉하는 우렛소리에 놀라 깨는데, 용이 머리를 들면 비가 온다고도 한다. 이처럼 경칩에 용을 의식하는 것은 농경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를 바라는 농경민의 바람의 표현이다. 음력 정월 보름 새벽에 용알을 떠오면 그 해에 농사 장원한다는 속신처럼 용을 비롯하여 용알이나 미룡알은 농경민에게 비를 내려주는 강한 주력(呪力)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알을 절기상 경칩에 먹으면 보신(保身)이 된다고 하여 즐겨 먹는데, 만병통치약처럼 여긴다. 특히 신경통이나 속병(위장병), 요통(腰痛)에

효험이 좋으며, 가슴이 시원해지고 뱃속의 벌레를 없애기도 한다고 믿는다.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총명해진다고 하여 아침에 남 몰래 먹기도 한다. 여름에는 더위를 타지 않게 하는데, 특히 다리에 땀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홍진이나 기침에도 좋다고 한다.

개구리알, 도롱뇽알, 빨간 개구리알 등을 먹을 때에는 비릿한 냄새가 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주와 함께 마시거나, 콩고물에 묻혀 먹거나, 간장이나 마늘과 함께 먹는다. 역한 느낌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즐겨 먹는데, 남자가 먹으면 양기(陽氣)를 돋을 수 있다고도 한다. 봄의 힘찬 기운을 양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의의 개구리는 경칩이 지나야 겨우내 닫고 있던 입을 비로소 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므로 깨끗하여 약이 된다고 믿는다. 봄기운을 가득 담고 첫 입을 연 개구리 같은 양서류의 알은 생명을 포태(胞胎)한 것으로 만물의 생기(生氣)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먹는 것은 생명의 정기를 섭취하는 것으로, 새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는 경칩의 의미와 어우러져 민간의 주술 요법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중국의 생활민속(김인옥 편역, 집문당, 1996),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한국의 양서류(양서영, 아카데미서적, 2001).

필자 | 김효경(金孝慶)

개구리울음점

정의 경칩(驚蟄) 무렵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되는 상황에 따라 한 해 동안 몸의 고단함과 식복(食福) 그리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상사일(上巳日)에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수해(水害)와 한재(旱災)를 점치는데, 개구리[田鷄]가 울기는 하나 벙어리가 되면 논에서는 좋은 벼를 거둘 수 있고, 개구리가 울부짖어 음향이 나면 논 안에서 노[槳]를 끌어당기기 좋다."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경칩을 즈음하여 개구리 울음소리를 서서 들으면 그 해는 일이 많아서 바쁘고, 누워서 들으면 편안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또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맨 먼저 들었을 때 앞에서 들으면 일년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뒤에서 들으면 일년 내내 배가 고프다고 점친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드러누워서 들으면 일년 내내 몸이 아프고, 앉아서 들으면 건강하고 좋다고 한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에서는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울음소리에 맞추어 "한 섬, 두 섬, 세 섬 ……." 하고 외우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에 벼 수확이 좋다고 믿었다.

강원도 태백에서는 "우수, 경칩에 개구리 입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다. '개구리 입 떨어졌다.'라는 것은 개구리가 울 때가 되었다는 얘기이며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어른들은 감자를 갈아야 할 시기를 알았다.

의의 경칩 무렵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초목의 싹이 돋아나며 동면하던 짐승들도 땅 속에서 나온다.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날 무렵이면 농촌에서는 담배모를 심고 과일밭을 가꾸며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때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완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이다. 보리, 밀, 시금치, 우엉 같은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개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농촌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농부들도 겨울 동안의 휴식에서 깨어나 부지런히 일을 하여야 할 때이므로 이때 동면에서 깨어나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특히 한 해 일의 많고적음을 예견하고자 한 것이다. 한 해 일의 많고적음은 그 결과물인 풍흉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芝峯類說,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경기민속지 III -세시풍속·놀이·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임진강(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경기도박물관, 2001).

필자 | 김지욱(金志昱)

고로쇠물마시기

정의 경칩(驚蟄) 무렵에 고로쇠나무에서 나오는 수

액(樹液)을 마시는 풍속. 단풍나무물마시기, 고리수먹기라고도 한다. 경상도에서는 고로쇠물을 약물이라고 하여 약물 마신다고 한다. 한자로 골리수(骨利樹)로 표현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며 골리수(骨利樹)나무, 고리실나무, 고리수나무라고도 부른다. 지리산 아래 구례 등지에 분포한다. 이 나무의 밑동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수액이 나오는데, 이 물을 마시면 몸에 병이 생기지 않으며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고 뼈가 아픈 데 약이 되며 속병에 아주 좋아 무병장수한다고 한다. 이 물은 대개 경칩을 전후해서 약 10일 동안 나온다. 보통 3일 동안 한 말 정도 마셔야 일정한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하며, 해발 1,0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한다. 고로쇠 수액은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여 일기(日氣)가 불순하면 좋은 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때 나온 물은 약효가 없다. 전남 구례와 전북 순창, 완주, 임실에서도 경칩을 전후하여 고로쇠 수액을 마시러 간다. 특히 경칩 무렵에 나오는 고로쇠 수액은 '여자물'이라 하여 남자들에게 더 좋고, 자작나무 수액인 거자수는 '남자물'이라 하여 여자들에게 더 애용되고 있다. 고로쇠 수액은 아무리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고 오히려 약이 된다고 해서, 경칩 무렵에는 외지 사람들까지 이 약수를 구하러 온다. 근래에는 주문을 해 사서 마시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1~5 고로쇠물 채취
6~7 고로쇠물
8 고로쇠물 마시기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국립민속박물관

보리싹점

정의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싹의 성장 상태를 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농점(農占).
내용 대개 경칩(驚蟄)에 보리의 싹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보아 점을 치는데, 보리의 싹이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고 생기 있게 잘 자라고 있으면 그 해에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의의 경칩은 우수(雨水)와 춘분(春分) 사이의 절기로 바로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칩에 보리싹점을 치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 해의 풍흉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선조들의 바람이 담긴 풍속이다.

참고문헌 |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이찬욱(李瀠旭)


보리싹
충남 연기군 남면 전의리
국립민속박물관

경칩 지난 게로군

정의 경칩(驚蟄)이 되면 벌레가 입을 떼고 울기 시작하듯이, 입을 다물고 있던 자가 말문을 열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
내용 경칩은 24절기의 하나로 우수와 춘분 사이에 들어 있으며, 태양의 황경이 345도에 이른 때이다. 음력으로는 2월중, 양력으로는 3월 6일 무렵이 된다. 경칩은 글자 그대로 땅 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때이다. 게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경칩이 되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빗대어 마치 동면하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형(金基珩)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겨울잠을 깬다

정의 해동이 시작되어 산천초목이 깨어나 봄맞이 준비를 함을 이르는 말.
내용 경칩(驚蟄)은 24절기의 하나로 우수와 춘분 사이에 들어 있다. 겨우내 동면하던 동물이 깨어나고 마른 나무에서는 잎이 돋아나는 시기이며 생명이 약동하는 때이므로, 사람들은 담배모를 심고 과일밭을 가꾸는 것을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속담에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 대체로 속담은 비유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라는 말은 봄의 상황을 직접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형(金基珩)

춘분(春分)

정의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 춘분(春分)은 경칩(驚蟄)과 청명(淸明)의 중간에 드는 절기로 양력 3월 21

일 전후, 음력 2월 무렵에 든다. 이 날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 곧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교차하는 점인 춘분점(春分點)에 이르렀을 때, 태양의 중심이 적도(赤道) 위를 똑바로 비추어, 양(陽)이 정동(正東)에 음(陰)이 정서(正西)에 있으므로 춘분이라 한다. 이 날은 음양이 서로 반인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 이 절기를 전후하여 농가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춘경(春耕)을 하며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 먹는다.

내용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이 날 조정에서 빙실(氷室)의 얼음을 내기 전에 소사(小祀)로 북방의 신인 현명씨(玄冥氏)에게 사한제(司寒祭)를 올렸다. 『고려사(高麗史)』 권63 지17 길례(吉禮) 소사(小祀) 사한조(司寒條)에 "고려 의종 때 상정(詳定)한 의식으로 사한단(司寒壇)은 맹동과 입춘에 얼음을 저장하거나 춘분에 얼음을 꺼낼 때에 제사한다. 신위는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왕골로 자리를 마련하며 축판에는 '고려 국왕이 삼가 아무 벼슬아치[某臣] 아무개[姓名]를 보내어 공경히 제사합니다.'라고 일컫고, 희생으로는 돼지 한 마리를 쓴다. 제사하는 날에 상림령(上林令)이 복숭아나무로 된 활과 가시나무로 만든 화살을 빙실(氷室) 문 안 오른쪽에 마련해 놓고 제사가 끝나도 그대로 둔다. 사관(祀官)이 재배를 하고 삼헌(三獻)을 하며 축은 불에 태우고 음복을 한다."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63권 예고(禮考)10 사한조(司寒條)에 "사한단은 동교(東郊)의 빙실 북쪽에 있는데, 제도는 영성단(靈星壇)과 같고 현명씨(玄冥氏)를 제사한다. 『오례의(五禮儀)』에는 계동에 얼음을 저장하고 춘분에 얼음을 꺼낼 때에 제사를 지낸다. 찬실(饌實: 음식과 기물), 준뢰(尊罍: 술 그릇), 생뢰(牲牢: 희생물), 헌관(獻官), 향의(享儀)는 명산대천의 의례와 같으나 다만 폐백이 없고, 축문에는 조선국왕감소고우 현명지신(朝鮮國王敢昭告于 玄冥之神)이라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84 지38 형법 공식 관리급가조(官吏給暇條)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관리에게 이 날 하루 휴가를 주었다. 또 이 날 경주 지방에서는 박(朴), 석(昔), 김(金) 삼성(三姓)의 초대 왕에 대한 능향(陵享)이 있다.



춘분 풍경 이억영

속신 이 날 날씨를 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豊凶)과 수한(水旱)을 점치기도 하였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15 증보사시찬요(增補四時纂要)에 의하면,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 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가 뜰 때 정동(正東)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고 한다. 이 날 운기(雲氣)를 보아, 청(靑)이면 충해(蟲害), 적(赤)이면 가뭄, 흑(黑)이면 수해, 황(黃)이면 풍년이 된다고 점친다. 또 이 날 동풍이 불면 보리값이 내리고 보리 풍년이 들며,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貴)하며, 남풍이 불면 오월 전에는 물이 많고 오월 뒤에는 가물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高麗史, 增補文獻備考, 增補山林經濟,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필자 | 김승찬(金承璨)

개빙제(開氷祭)

⇨ 사한제(司寒祭): 겨울편



춘분
조선일보 1967년 3월 21일





月內 월내

음력 이월 중이나 한식날의 날씨를 보아
그 해 농사나 어업의 풍흉을 점치는데
날씨가 쾌청하고 약한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고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날씨가 나쁘면
나라의 흉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정월부터 삼월까지의 시기에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치는 일은 매우 드문데
이러한 때 하늘에서
크고 무서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전조로 여기는 것이다.

강화외포리곶창굿(江華外浦里-)

정의 강화도 해안의 외포리에서 마을의 평안과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만 2년 간격으로 벌이는 마을굿. 강화외포리곶창굿은 현재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어원 외포리곶창굿의 곶창은 갑(岬)의 뜻을 지니는 곶(串)과 집을 뜻하는 당(堂)의 복합어로 곧 곶당이 되고, 곶당굿은 '당'의 강한 비음(鼻音) 때문에 곶창굿으로 자음 발음이 변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마을굿(마을 제의)은 지역에 따라 대동제, 도당굿, 부군당굿, 별신굿 따위로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마을의 큰굿, 큰제사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외포리곶창굿처럼 그 지방만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내용 제당은 외포리 마을 언덕 위에 있으며, 당 안에는 중앙의 득제장군(得帝將軍, 득태장군)과 장군부인 그리고 산신, 상산대감, 군웅할아버지, 삼불제석, 창부, 별상님의 모두 여덟 신령을 모시고 있다.

외포리곶창굿은 당주무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사흘 동안 벌이는 큰 굿으로 주민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고 정성도 대단하다. 외포리곶창굿의 당주무당은 전형적인 강신무였던 전 당주무당 조화순의 대를 이어 현재는 정정애가 맡고 있다. 외포리는 농사가 주업인 대정(大井)마을과 어업이 주업인 정포(井浦)마을로 나뉘어 있지만, 주민들은 두 마을의 생업적인 특성 차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마을의 평안과 풍농과 풍어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굿을 지낸다.

그러나 외포리는 어선이 많고, 지리적으로도 위로는 옹진과 연평도, 아래로는 인천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지역의 입지를 지니고 있어서 어촌의 모습이 더 강하다. 따라서 외포리곶창굿도 서해안굿(특히 황해도굿)의 형태를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선주 중심의 풍어기원제 성격이 더 강하게 보인다. 이를테면, 외포리곶창굿에서도 서해안풍어제와 마찬가지로 선주들의 뱃기오름(봉죽 앞세우고), 선주굿, 기내림(길지 대신 무녀가 직접 뱃기에 신을 내림) 같은 제차가 있다. 또 봉기(봉죽)를 제당 마당에 세워놓는 것이나 무복에서 마래기와 꽃갓이 나오는 것, 작두타기를 하는 것이 서해안굿과 닮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춤사위와 굿거리 사설은 서울굿에 가깝고, 또 바닷가에서 수살맞이를 먼저 하고 마을의 우물들을 돌아 용왕굿을 마친 후에 당에 올라 본굿을 시작하는 굿의 진행 과정이 서해안굿과는 정반대이다.

외포리곶창굿은 보통 음력 2월 초순에 하는데, 이미 음력 정월 중순 전에 마을 대표와 당주무당이 협의하여 날을 정하고 당직이(현지에서는 당주로 부르며 마을에서 선정하여 대를 이음)를 도와 실무를 담당할 상소임, 중소임, 하소임을 뽑는다. 당직이와 소임들은 일주일 전부터 몸을 정갈하게 하고, 굿하기 3일 전부터는 제당 옆에 마련한 천막에서 자면서 제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찬(메와 옥수)을 올리며 촛불을 밝힌다.

외포리곶창굿은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하는 수살맞이굿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바다의 잡귀나 잡신을 막고 용왕님을 맞이하는 굿이다. 이는 곧 바다의 사고를 막기 위한 굿으로서 바닷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잡귀들을 풀어먹이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살맞이굿 때에는 바닷가에 솟대를 세워놓는데, 솟대는 큰 나뭇가지에 여러 마리 오리 모습의 새가 앉은 형태이다. 솟대를 세우는 것으로 보아 용왕님을 맞이하는 의미가 큰 것 같고, 그 외에도 바다를 통해 오는 다른 존신(尊神)들을 맞이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수살맞이굿을 마치고는 마을을 돌아 현재의 우물이나 옛날 우물터들을 찾아 우물굿을 한다. 이를 우물용왕 또는 용왕굿이라고도 하며, 마을 재앙을 없애고 물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예전에 우물은 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식수원이었다.

우물굿을 마치고 당에 오르는데, 중간의 길목에서 작은 고사상을 차려놓고 동네 부정과 당굿을 위해 잡인, 잡색들의 부정을 쳐낸다. 이를 거리부정이라고 하는데, 서서 하기 때문에 선부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당굿에 들어가는데, 이처럼 외포리곶창굿은 수살맞이굿, 마을우물굿, 거리부정(선부정), 부정거리(당안굿)를 거쳐 조상거리, 제석거리, 성주거리(성주모심), 장군거리(작두거리), 별상거리, 성주왕신거리, 대감거리, 창부거리, 선주굿, 기내림, 군웅굿, 막뒤놀음, 뒷전으로 이어진다.

강화외포리곶창굿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김상수




1


2


3


4

〈강화외포리곶창굿〉
1 당산오르기
2 당 앞 부정물림
3 성주받이를 든 제관
4 초부정초가망거리
5 돌돌이
6 거리부정
7 득제장군 등의 당 탱화
8 산신터주가리와 제물
9 제석거리 중 공수내림
10 소지올리기
11 봉기세우기
12 봉기
13 풍장패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김상수


8


9


10


11


5


6


7


12


13

외포리곶창굿은 종교적 의례로서 신앙성을 지니지만,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축제성과 시장 활성의 기능성을 함께 지니기도 한다. 특히 외포리 해변에는 어시장을 열고 있어 더 그러하다.

의의 오늘날에도 마을제의는 마을 질서를 유지시키는 도덕법으로서 주민 집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곧 마을 제의가 마을 주민들의 화목을 돕고 단합을 이루며 마을에 대한 애정을 유지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업 중심의 대정마을과 어업 중심의 정포마을을 단합시키고, 주민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외포리곶창굿이 일조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봉기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무당의 신나는 덕담을 듣고 함께 어울려 춤과 노래(배치기노래)로 흥겨워한다. 이 같은 풍경은 외포리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며 또 춤과 노래로 그간의 어려움을 잊고, 제의를 통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느끼게 한다.

참고문헌 | 외포리곶창굿(하효길, 경기민속지 II-신앙편-, 경기도 박물관, 1998).
필자 | 하효길(河孝吉)

경행(經行)

정의 질병과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승려들이 불경을 외우면서 거리를 다니던 불교 행사. 2월과 8월, 일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거행하였으며, 재난이 있을 때는 부정기적으로 행하기도 했다. 가구경행(街衢經行)이라고도 한다.

내용 경행은 원래 법회가 있을 때 경전을 외우면서 부처님의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 사찰 내의 의식이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승려와 백성이 참여하는 대중의식으로 확대되었다. 고려 정종 12년(1046) 3월에 들어 이 행사가 처음으로 행해졌으며, 그 뒤로는 연중행사가 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왕이 시중 최제안(崔齊顔)으로 하여금 구정(毬庭)에 가서 분향을 하고, 가구경행(街衢經行)을 배송(拜送)하게 하였다. 대체로 서울 거리를 세 길로 나누어, 각각 채색한 들것에 『반야경(般若經)』을 담아 메고 앞서 나가면 승려들은 법복(法服)을 차려입고 따라가면서 불경을 외우며, 감압관(監押官)도 관복을 입고 그 뒤를 따라 시가지를 순회한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행복을 축원하는 행사로서 경행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이것이 상례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경행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거행되었다. 태조 2년 3월에 승록사(僧錄司)에서는 고려의 사례를 들어 경행의 거행을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억불 정책에 따라 세종 4년 2월에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의 경행에 대해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도성(都城)에서 행하는 경행을 폐지하였다. 전조(前朝) 때로부터 매년 봄과 가을의 중월(仲月)에 각 종파(宗派)의 중들을 모아서,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외우게 하고, 나발을 울리고 번(幡)과 개(蓋)를 늘어세우고, 향불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질병과 재액을 물리치는데, 2품 이상의 관원이 향불을 피우고, 감찰(監察)이 이를 살피고 모두 걸어서 따라다니게 한다. 이를 경행(經行)이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경행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에 걸쳐 거행된 대중적인 불교 행사였다.

의의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던 『반야경』은 진국(鎭國)의 경전, 인천(人天)의 대보(大寶)로 받들어졌다. 왜냐하면 『반야경』에는 잡귀를 쫓고 국토를 수호하려면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재(天災), 전쟁, 질병, 기아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경전을 승려들에게 강독(講讀)하게 하거나 세상에 널리 유포시켜 공양함으로써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경행이라는 행사가 거행되었다. 곧 경행은 호국(護國) 행사이자 안민(安民), 기복(祈福)을 위한 행사였다.

참고문헌 | 高麗史, 大般若經, 般若經, 世宗實錄.
필자 | 김철웅(金澈雄)

마조제(馬祖祭)

정의 말의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말의 조상인 천사성(天駟星)에 지내는 국가의례.

유래 『주례(周禮)』의 「동악증의(東嶽證義)」에 따르면, 마조(馬祖)는 천사방성(天駟房星)이요, 선목(先





1 마조단 국사편찬위원회

2 마조단터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내
국립민속박물관

牧)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방목(放牧)을 가르친 사람이요, 마사(馬社)는 마구간의 토신이요, 마보(馬步)는 말을 해치는 재앙의 신이라고 하였다. 마조제는 중국 고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마조제(馬祖祭)에 대한 첫 기록은 고려시대에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정종 12년(1046) 2월에 마조(馬祖)에 제사를 지냈다. 고려시대의 마조제는 마조단(馬祖壇)에서 소사(小祀)로 거행하였는데, 2월 중에 좋은 날을 받아 제사를 지냈으며, 희생으로는 돼지 한 마리를 썼다.

마조제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거행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五禮)」에 따르면, 소사로 중춘(仲春, 2월) 중기(中氣) 후의 강일(剛日)에 마조제를 지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국가 의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마조제 역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왕실 보급용 말을 기르던 전곶목장(箭串牧場)의 말들이 병이 들자 이곳에서 마조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임시로 행해지던 것이 정조 21년 1월에 들어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의 건의로 종전대로 부활되었다. 곧 윤시동이 "마조단이 동교(東郊)에 있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중춘 중기 후 강일에 제사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전(祀典)에 실린 것 중에 폐할 수 없는 것인데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예에 따라 거행하소서." 하고 건의하자 정조가 이에 따랐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마조제의 헌관(獻官), 전사관(典祀官), 제집사(諸執事)를 정하였다. 그 뒤 1908년 7월에 폐지되었다.

의의 말은 군사용, 교통과 통신용, 또는 외교상의 교역품으로 활용되었으므로 말의 양육과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말을 중시하고 보호하려는 의례의 하나로 마조제를 행하였다. 말에 대한 의례로 마조제 외에도 선목제(先牧祭), 마사제(馬社祭), 마보제(馬步祭)가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世宗實錄, 周禮, 韓國中世禮思想硏究(李範稷, 一潮閣, 1991),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韓國中世 國家祭祀의 體制와 雜祀(金澈雄, 韓國硏究院, 2003).

필자 | 김철웅(金澈雄)

문묘석전(文廟釋奠)

⇨ 석전대제(釋奠大祭): 봄편

복회(福會)

정의 신라시대에 매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수도 경주의 남녀가 흥륜사(興輪寺)의 전각과 탑을 돌면서 복을 비는 불교 행사.

내용 불교에서는 한때 2월 8일을 석가불이 태어난 날 또는 출가한 날[逾城日]로 여기며, 2월 15일을 열반한 날이라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2월 8일과 15일의 행사로 불상을 모시고 거리를 도는 행상(行像) 같은 행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복회는 석가불의 일대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간 동안에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의 하나인 흥륜사를 찾아가 복을 기원하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신라에서 복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감통(感通)」 제7 김현감호조(金現感虎條) 설화는 복회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원성왕대(785~799)에 있었던 일로 전한다. 따라서 복회는 통일신라 때에 이미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복회의 유풍이 이후 탑돌이 행사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상대의 세시풍속과 그 전승 맥락(이경엽, 南道民俗硏究5, 南道民俗學會, 1999), 春祭 -二月八日節的佛敎儀式-(王微, 法國漢學5, 中華書局, 2000).
필자 | 서영대(徐永大)

사직대제(社稷大祭)

정의 전근대 사회에서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고 국가의 안녕과 농사의 풍성함을 기원하며 드리던 제사. 2000년 중요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사(社)와 직(稷)을 정위(正位)로 하고, 여기에 후토(后土)와 후직(后稷)을 배향신으로 삼아 같이 모신다.

사직(社稷)은 사와 직의 합성어이다. 직은 고대 이래로 재배되던 오곡(五穀) 중에서 그 대표자로 인식되어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는 고대 중국인의 수목신앙(樹木信仰)의 한 형태 또는 토지신이나 마을 공동체의 집단모임소 같은 여러 형태로 인식되다가 한대(漢代) 이후 '사(社)는 토신(土神), 직(稷)은 곡신(穀神)'이라는 정현(鄭玄)의 설에 따라 토지신으로 이해되었다.

개관 사직제는 토지와 곡식의 신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농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농업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추구하는 농민들의 열망과 이들의 안정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바탕이 된다는 통치자들의 의식이 결합되어 예제로 표출된 것이 사직제였다. 사직제는 이러한 속성으로 단순히 국가의 제사라는 의미로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 자체를 의미하는 보편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게 되었다.

사직제는 정기적인 제사와 부정기적인 제사로 구분된다. 정기적인 제사는 중춘(仲春: 음력 2월), 중추(仲秋: 음력 8월), 납일[臘日: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에 시행하는데, 이때는 제사의 규모가 가장 큰 대제(大祭)로 시행한다. 부정기적인 제사로는 기우(祈雨)나 기청(祈晴) 또는 치병(治病)을 위한 기고제(祈告祭)가 있고, 책봉(册封), 관혼(冠婚), 출병(出兵) 같은 국가의 큰 일이 있을 때 시행하는 고유제(告由祭)가 있다.

한편 사직은 제사의 시행 주체와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였다. 『예기(禮記)』 권22 「제법(祭法)」에는 "왕이 군성(群姓)을 위해 세운 사(社)를 태사(太社), 왕이 스스로를 위해 세운 사를 왕사(王社)라 하며, 제후가 백성(百姓)을 위해 세운 사를 국사(國社), 제후가 스스로를 위해 세운 사를 후사(侯社)라 하며, 대부 이하가 무리를 지어 세운 사를 치사(置社)라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태사, 국사, 치사는 주관자의 지위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왕사, 후사는 제사의 목적이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 것이다. 이것은 직(稷)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고대 이래 한국에서는 태사직(국사직)의 명칭은 보이지만, 천자(제후)의 사적인 왕사직(후사직)은 보이지 않아 사직제의 공적인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래 사직의 용례는 『주례(周禮)』, 『예기(禮記)』, 『맹자(孟子)』 같은 선진(先秦)시대의 경전에서 찾아진다. 이것은 사직제의 기원이 중국의 주대(周代)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사직제가 유교 이념에 입각한 국가 제사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한대(漢代)부터이며, 당대(唐代)를 거치면서 보다 체계화되었고, 이후 사직은 중국 역대 정사(正史)의 예지(禮志) 길례(吉禮)에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사직은 환구(圜丘), 방택(方澤), 종묘(宗廟) 같은 다른 국가 제사들에 비해 그 비중이 떨어졌다. 역대 오례(五禮)의 근간이 되었던 당의 『개원례(開元禮)』에 사직은 큰 제사인 대사(大祀)가 아닌 중사(中祀)에 편입되었고, 이는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가 송대(宋代)에 이르러 사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대사로 승격되었고, 이후 명(明)과 청(淸)을 거치면서 그대로 이어졌다. 이같이 사직은 당대 이전에는 중사, 송대 이후에는 대사로 그 비중이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환구나 종묘에 비견될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직과 성격상 유사하지만 천하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삼은 방택(方澤)이 국가 제사에서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이후 사직제가 대사로 간주되었고, 특히 조선에서는 천지의 제사인 환구제와 방택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컸다.

내용 고대 국가에서 사직의 용례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1세기 초인 유리왕대에 처음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의 사직

은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였고, 건축물로서의 사직은 동천왕 21년(247) 수도인 환도성이 전란으로 피폐하게 되자, 평양성을 쌓고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는 기록에서 비로소 보인다. 그 후 고국양왕 8년(391)에 왕명으로 국사(國社)를 세우고, 종묘를 수리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와 「제사지(祭祀志)」에 나온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권30 「위서(魏書) 고구려전(高句麗傳)」에는 3세기 전반에 왕실인 계루부(桂婁部)와 전왕족인 소노부(消奴部)에 사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고국양왕 8년에 세웠다는 국사는 소수림왕 이후 왕권 강화와 제도 정비에 따라 계루부 왕실의 사직을 국가적인 사직으로 격상시켜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3세기 이후 고구려에서 사직제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사의 내용과 형식이 중국의 유교적인 제사인지, 토착의 농업신에 대한 제사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3세기의 기록은 후자의 가능성이 크고, 고국양왕대 국사의 설립은 전자의 형식을 보다 강화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에서는 37대 선덕왕대에 사직단이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사직제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 당의 문물이 상당수 도입된 상태였다. 더구나 신라의 종묘가 천자의 7묘가 아닌 제후의 5묘를 기반으로 했고, 천지(天地)의 제사는 천자의 예라 하여 배제하며, 제후의 격에 맞추어 사직과 경내(境內)의 산천만을 제사했다는 사신(史臣)의 평은 이때의 사직제가 중국의 것, 그 중에서도 제후의 체제에 기반했음을 말해준다. 백제의 사직에 대해서는 남은 기록이 없다. 그렇지만 중국 문화의 도입이 활발했던 백제에서 사직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고려시대의 사직제는 성종 10년(991) 개경의 서쪽에 사직단이 영조(營造)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사직단의 건립은 중국의 당제(唐制)에 근거하였다. 이후 사직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몇 차례의 전란을 거치면서 사직단이 무너져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겪었다. 예컨대 현종 5년(1014)에 강감찬이 사직단을 수축하고 그 의주(儀註)를 찬정(撰定)한 것이나 문종 6년(1052)에 거란의 침입으로 무너진 사직을 대신하여 개경 안 서쪽에 새로 사직단을 세운 것이 그 실례이다.

고려시대 사직제는 의종 때 최윤의(崔允儀)가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50권을 편찬한 것에 기반을 둔다. 현재 이 의주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학자들이 『상정고금례』를 기초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 편찬한 『고려사』 「예지」 길례조를 통해 사직제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사직은 동쪽에 사(社)가, 서쪽에 직(稷)이 있었고, 후토(后土)와 후직(后稷)을 배향하였다. 그리고 제사의 시기는 중춘과 중추의 상무일(上戊日)과 납일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과 조선이 동일하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사와 직의 명칭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삼았다. 이것은 사직제가 천자의 예로 시행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천지의 제사인 환구제와 방택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주목된다. 다만 국왕의 개인적인 기복을 위한 왕사(王社)와 왕직(王稷)의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중국과 구별되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사직제를 큰 제사인 대사(大祀)로 규정했지만, 의식은 섭행을 전제로 한 사직의(社稷儀) 단 한 개만 있었다. 제의(祭儀)는 『개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태위(太尉)를 초헌관, 태상경(太常卿)을 아헌관, 광록경(光祿卿)을 종헌관으로 각각 규정했으며 국왕은 빠져 있다. 이것은 문종을 비롯한 역대 국왕이 사직제에 참석했던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려사』 찬자(撰者)는 현종 5년(1014) 사직의주(社稷儀注)를 찬정했지만,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에는 지기(地祇)의 최고신이 방택이었고, 최고의 제사인 환구제가 천지인(天地人)의 합제(合祭)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직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음은 분명하다.

조선시대의 사직제는 태조 4년(1395) 한양에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고, 그 해 제사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건국 초부터 사직제는 종묘제와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대사로 규정되었고, 관념상 지기(地祇)인 사직은 인귀(人鬼)인 종묘보다 상위인 국가 최고의 제사였다.

건국 초 사직제는 고려의 것이 그대로 시행되다


1


2


3


7


8


9

〈사직대제〉

1 재관입장	10 초헌헌작
2 왕입장	11 독축
3 관세례	12 아헌분작
4 점촉	13 종헌례
5 개독	14 음복례
6 모혈반	15 철변두
7 분향례	16 망료례
8 전폐례	17 폐독
9 초헌갈작	18 재배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 국립민속박물관


4


5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가 태종대에 명나라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주현사직의(州縣社稷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의가 모색되었다. 그러다가 세종대 집현전(集賢殿)을 중심으로 고제(古制)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홍무예제』의 비판적 검토와 역대 중국의 사직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는데, 특히 송대(宋代)의 제의(祭儀)가 적극 검토, 수용되었다. 아울러 명과의 사대 관계를 고려해 고려의 태사(太社), 태직(太稷)제가 아닌 제후의 격에 맞춘 국사(國社), 국직(國稷)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직제는 일부의 수정을 거쳐 성종대 『국조오례의』 길례로 정리되었다.

중국과 고려에서 환구, 방택, 종묘에 비해 사직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과 달리, 조선시대의 사직은 종묘와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이것은 천지의 제사인 환구제와 방택제가 천자의 예라는 이유로 폐지된 후 자연신으로 유일하게 대사로 편입된 존재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농본(農本)을 표방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창하였는데, 그 상징성이 사직제를 통해 구현되었다. 환구와 종묘를 양축으로 삼는 고려시대의 제사 체계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는 크게 종묘(영녕전 포함)를 중심으로 한 제사의 범주와 사직을 비롯해 선농(先農), 선잠(先蠶), 풍운뇌우(風雲雷雨), 악해독(嶽海瀆) 같은 농사와 관련된 신들의 범주가 양립하였는데, 사직은 후자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사직제가 고려 때보다 중시되었지만, 동급의 종묘제와 비교할 때 국왕의 관심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건국 후 성종 대까지 대략 1세기 동안 국왕의 종묘제 참석이 41회로 나타나지만 사직친제 참석은 단 3회만 나타난다. 그나마 2회는 신왕의 즉위와 관련된 것이고, 농사와 관련된 사직제는 성종 16년(1485)의 1회에 불과하였다. 이후에도 사직친제는 그 사례가 별로 없고, 대부분 신하들의 섭제(攝祭)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가의 공적인 차원에서는 종묘와 사직이 병렬되지만 실제로 국왕이 농본의 상징인 사직제보다 왕통의 상징인 종묘제를 더 중시했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 인해 관료들은 국왕과 달리 국가의 상징을 종묘보다는 사직에서 찾았고, 자신들을 가리킬 때 '종묘의 신하[宗廟之臣]'라기보다는 '사직의 신하[社稷之臣]'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직제에는 기존의 대제와 기고 외에 기곡(祈穀)이 새로 추가되었다. 원래 기곡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1월에 환구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제천(祭天)을 시행했던 고려시대와 조선의 세조대에는 기곡제가 당연했지만, 세조 사후 환구제가 폐지되자 이 역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곡제가 농본(農本)을 상징하는 가장 큰 제사라는 인식과 그를 통해 통치자의 정통성을 천명(天命)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결합되어 변형된 형태가 모색되었다. 최초의 기곡제는 중종 34년(1538) 흉년 뒤에는 기곡한다는 명분으로 선농(先農)에서 시행되었고, 광해군 8년(1616)에는 국왕이 선농에서 친경(親耕)을 하며 기곡제를 거행했다. 그러나 숙종 21년(1694)에는 『예기』의 "맹춘(孟春)에 상제(上帝)께 기곡한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정월에 사직에서 기곡제를 행하도록 정했고, 다음해 숙종은 직접 사직에서 기곡제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그 다음해에는 기곡제를 상시적인 행사로 법제화하였다. 이후 사직에서의 기곡제는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규정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기재되었는데, 그 등급은 대사(大祀)로 하였다.

의의 사직제는 토지신과 곡식신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제사이다. 전근대의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은 절대적이었고, 농민 생활의 안정은 왕조 통치의 기본 바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직제는 고대부터 시행되었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내세웠던 고려시대 이후로는 그 의례의 정비를 통해 중요한 국가 제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왕도 정치를 구현하면서 민생(民生)의 안정을 사직제의 상징성에서 찾음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었다. 조선시대 종묘와 사직의 제사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제사였지만 종묘가 왕통(王統)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시되었다면, 사직은 농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했던 치자들의 의식이 의례화된 것이다. 흔히 국가를 지칭할 때 종묘보다는 사직을 언급했던 것은 백성이 국가의 근간이고 농업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농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당대인들의 관념을 드러낸 것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 社稷署儀軌,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韓國中世禮思想研究(李範稷, 一潮閣, 1991), 朝鮮初期 國家 祭禮儀의 정비와 『洪武禮制』(金海榮, 淸溪史學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淸溪史學會, 1992), 朝鮮初期 祀典에 관한 研究(金海榮,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4), 朝鮮 太宗·世宗代 社稷祭의 이해와 운영(韓亨周, 韓國史學報6, 고려사학회, 1999), 朝鮮初期 國家祭禮 研究(韓亨周, 一潮閣, 2002).
필자 | 한형주(韓亨周)

상정제(上丁祭)

⇨ 석전대제(釋奠大祭): 봄편

석전대제(釋奠大祭)

정의 문묘, 곧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 모든 유교적 제사 의식의 전범(典範)이며, 가장 규모가 큰 제사이다. 이 때문에 석전을 가장 큰 제사라는 의미로 석전대제(釋奠大祭)라고 부르기도 한다.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다. 석전과 유사한 제례 의식으로는 석채(釋菜)가 있다. 이는 나물 종류만을 차려 올리는 단조로운 차림으로서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조촐한 의식이다. 이에 비해 석전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 그리고 합악(合樂)과 헌수(獻酬)가 있는 성대한 제사 의식이다.

어원 석전의 석(釋)은 놓다[舍] 또는 두다[置]라는 뜻을 지닌 글자로서 베풀다 또는 차려놓다라는 뜻이다. 전(奠)은 상형문자로서 추(酋)는 술병에 술을 담아놓고 덮개를 덮어놓은 형상으로 빚은 지 오래된 술을 의미하며, 대(大)는 물건을 얹어두는 받침대의 모습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는 정성스레 빚어 잘 익은 술을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석전은 정제(丁祭) 또는 상정제(上丁祭)라는 별칭으로도 불렀는데, 이는 석전을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두 차례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을 택하여 봉행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 우리나라에서 석전이 시작된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최초로 태학이 설립된 것으로 미루어, 이때 석전도 함께 봉행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경우 국립학교 설립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오경박사(五經博士) 같은 명칭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오고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박사 아직기(阿直岐), 왕인(王仁)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석전 의식을 봉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라에서는 진덕여왕 2년(648)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건너가 국학(國學)을 찾아 석전 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신문왕 2년(648)에 그 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히 성덕왕 16년(717)에는 태감(太監)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공자와 10대 제자 및 72 제자의 영정을 가져와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석전 의식이 국학에서 봉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 역시 국립학교인 국자감에서 석전을 봉행하였으며, 현종 11년(1019) 8월에는 최치원을 선성묘에 종향(從享)하고, 현종 13년에 다시 설총을 종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현을 문묘에 배향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성리학이 정착된 조선조에는 석전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오례(五禮) 중 길례(吉禮)에 속하는 국가적 대사로서 봉행되어 왔다. 오늘날 석전이 봉행되고 있는 한국의 문묘인 성균관은 고려 충렬왕 30년(1303) 6월에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있던 국자감을 개칭한 것이며, 조선조 건국 이후 태조 7년(1398)에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성균관의 정전인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4성(聖), 10철(哲)과 송조 6현(賢) 등 21위(位)를 봉안했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는 우리나라의 명현(名賢) 18위와 중국의 유학자 94위 등 112위를 봉안하여 매년 춘추에 두 차례 석전을 봉행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37년부터는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변경하여 실시하다가 해방 후인 1949년에 전국 유림대회의 결의로 5성위와 송조 2현만 봉안하고 그 외 중국 유현 108위를 매안(埋安)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18현을 대성전으로 올려 종향하고 춘추 석전 대신 공자 탄일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 석전을 봉행하는 변화를 가졌다. 그 3년 뒤인 1953년에 공문 10철과 송조 6현을 복위하고 석전도 봄과 가을 두 차례, 곧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로 환원하여 현재까지 봉행하고 있다. 성균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232개 향교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년 같은 날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석전대제〉
1 제관 입장
2 제관 재배
3 축판 · 향 · 폐
4 관세례
5 개독
6 분향례
7 전폐례
8 초헌례
9 독축
10 다례
11 종헌례
12 음복례
13 철변두
14 폐독
15 망료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국립민속박물관


10


11


12


1


2


3


4


5


6


7


8


9




13


14


15

내용 석전대제에는 다섯 명의 헌관(獻官: 위패 앞에 잔을 올리는 제관)과 집례(執禮: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 대축(大祝: 제사의 축문을 읽는 제관)을 포함한 27명의 집사가 참여하며, 이와 더불어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을 연주하는 41명의 악사, 팔일무(八佾舞)를 추는 64명, 모두 137명의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다.

석전의 봉행은 초헌관(初獻官)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로 시작되며 다음은 초헌관이 첫 잔을 올리고 대축이 축문을 읽는 초헌례(初獻禮), 아헌관(亞獻官)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終獻官)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終獻禮), 분헌관(分獻官)이 종향위에 분향을 하고 잔을 올리는 분헌례(分獻禮)와 같은 헌작례(獻酌禮)가 차례로 진행된다. 이어 초헌관이 음복위(飮福位)에서 음복 잔을 마시는 음복례(飮福禮)가 끝나면 제기와 희생을 치우고 난 뒤, 초헌관이 폐백과 축문을 불사르고 땅에 묻는 망료례(望燎禮)를 끝으로 석전의 모든 의식 절차가 완료된다. 석전의 모든 절차는 종합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홀기(笏記)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국조오례의의 규격을 그 원형으로 한다.

의의 우리나라의 석전대제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남아있지 않는 옛 악기와 제기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전 음악인 문묘제례악과 팔일무, 제관이 입는 전통적인 의상과 고전적 의식 절차가 모두 화려하고 장중하여 예술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참고자료 | 高麗史, 三國史記, 太學志 上·下(栗谷文化院, 1970), 說文解字注(許愼撰, 段玉裁 注編, 黎明文化事業股有份限公司, 1973), 成均館大學校史(成均館大學校史編纂委員會, 成均館大出版部, 1978), 儒林敎養全書(成均館, 1993), 태학지 상·하(태학지 번역사업회 역, 成均館, 1994), 석전대제(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 최형식(崔亨植)

선농제(先農祭)

정의 농업신인 신농(神農)과 후직(后稷)에게 연풍(年豊)을 기원하며 드리던 국가제의. 제사 후에 국왕이 동교(東郊)의 적전(籍田)에서 오추례(五推禮)를 시행하여 농사의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경적례(耕籍禮) 또는 적전례(籍田禮)라고도 부른다.

선농제는 유교 국가의 제왕들이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천적인 권농책(勸農策)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일찍부터 시행되었다. 선농제의 시행 시기는 삼국시대에는 기록이 없고, 고려시대에는 맹춘(孟春: 음력 1월)의 길해(吉亥: 길한 해일)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맹춘에는 추워서 파종할 시기가 아니라며 경칩(驚蟄) 뒤의 길해로 그 시기를 바꾸었다.

선농(先農)의 명칭에서 보듯이 중농(仲農)과 후농(後農)의 관념도 있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2 「잡지(雜誌)」 제사조(祭祀條)에는 신라에서 입춘(立春) 후 해일(亥日)에 선농을, 입하(立夏) 후 해일에 중농을, 입추(立秋) 후 해일에 후농을 각각 제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문종 2년(1048) 5월에 중농을, 정종 12년(1046) 4월에 후농을 제사한 사례가 보인다. 이로 볼 때 중농과 후농은 신농과 후직에게 제사할 때 그 시기의 선후에 따라 붙인 명칭인 것 같다. 이 관념은 조선 초까지 있었지만 고전(古典)에 중농과 후농이 없다는 판단으로 그 제사가 폐지되고(『태종실록(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4월 정사), 결국 선농만이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 선농제의 기원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에 적전(藉田)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주대(周代) 이전으로 소급된다. 그렇지만 선농제가 유교적 국가 제사로 제도화된 것은 한대(漢代)의 일이며, 당대(唐代)에는 사전(祀典)에 중사(中祀)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선농제는 앞서 『삼국사기』에서 언급한 신라의 선농과 중농, 후농의 제사에서 그 기록이 처음 나온다. 아마도 재래의 농업신 제사에 중국에서 도입된 유교적 제사가 결합된 형태인 것 같은데, 이 외에는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고려시대의 선농제는 성종 2년(983) 정월 을해일에 신농과 후직을 제사했다는 기록에서 처음 사례가 나온다. 이후 선농제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는데, 『고려사』 권62 「예지」4 적전조(籍田條)에 따르면 제단의 규모는 사방 3장(丈), 높이 5척으로 사면에 계단이 있으며, 양유(兩壝)의 체제로 매 유마다 25보










〈선농제〉 1 거가출궁(車駕出宮) 2 진설 3 제관재배 4 전폐례 5 독축 6 헌작례 7 음복례 8 망료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남윤중

씩에 이르렀다. 제사의 등급은 중사(中祀)였다. 선농제는 고려시대 유교적인 중농 이념과 권농책의 상징성으로 인해 이후 현종, 인종 같은 왕들이 직접 제사를 주관할 정도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몽골 간섭기 이후 그 제도가 무너지고 적전(籍田)은 왕의 사냥터로 이용되기에 이르렀는데, 공민왕 때에 사전(祀典) 개편으로 전기의 제도로 복구를 모색했지만, 결국 완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왕조가 교체되었다.

조선시대의 선농제는 태종 13년(1413) 사전(祀典)을 분정(分定)할 때 중사(中祀)에 편입되었고, 동왕 16년(1416) 제단이 축조되면서 새 제도가 마련되었다. 선농제단은 세종 12년(1430)에 최종 수정되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등재되었는데, 그 규모는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 양유(兩壝)로 고려 때보다 규모가 축소되었다. 한편 종묘제와 사직제 같은 중앙 제사의 비용을 대는 일종의 제전(祭田)인 적전의 제도 역시 마련되었다. 적전은 동적전과 서적전으로 구성되는데, 그 규모는 4백결로(『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4월 계축), 이 중 서적전의 소출만 연 5천석 이상이었다(『세종실록(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8월 무자).

조선시대의 선농친제(先農親祭)는 성종대에 처음 행해졌다. 성종은 6년(1475) 윤 정월 을해일에 백관을 거느리고 동교(東郊)의 제단에서 선농제를 지낸 뒤 적전에서 오추례(五推禮)를 행하였고, 동왕 19년(1488) 윤정월과 24년(1493) 3월에도 각각 친히 제사했다. 이후 중종, 명종, 인조, 숙종 같은 역대의 왕들이 친행했다는 기록이 종종 나온다. 그리고 비록 국왕의 친제가 없어도 대신들의 섭행으로 선농제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내용 선농제는 시행 주체에 따라 국왕의 친제(親祭)와 대신의 섭제(攝祭)로 구분된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친제는 제사의 선행절차(先行節次), 거가출궁(車駕出宮), 행례절차(行禮節次), 경적례(耕籍禮), 거가환궁(車駕還宮)의 5단계로 진행된다.

선행절차에는 제관들의 재계(齋戒)와 제수의 진설(陳設), 희생(犧牲)의 검사가 포함된다. 거가출궁은 국왕이 제단에 가는 과정으로, 국왕이 선농단에 도착하면 의식이 시작된다. 행례절차는 전폐(奠幣)와 작헌(酌獻), 송신(送神)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전폐는 국왕이 먼저 정위(正位)인 신농에게 3번 향(香)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며 절을 한 후 배위(配位)인 후직에게 같은 의식을 시행한다. 전폐 후에 모혈(毛血)을 올린다. 작헌에서는 예찬(禮饌)을 올린 후 왕이 정위와 배위에게 각각 술잔을 올리고 엎드린 후 축문을 읽고 절을 하는 초헌례가 시행된다. 초헌을 마치면 아헌례와 종헌례가 시행된다. 헌례가 끝나면 음복(飮福)과 수조(受胙)를 하고 제기를 거둔다. 이후 제수를 구덩이에 파묻고 헌관 이하가 퇴장한다.

이상의 제례가 끝나면 왕이 적전에서 경적의 의식을 행한다. 먼저 왕이 경적위(耕籍位)에 이르러 다섯 번 밭가는 예[五推禮]를 행하고 관경대(觀耕臺)에 올라간다. 이어 종친과 재신(宰臣)이 칠추례(七推禮)를, 판서와 대간이 구추례(九推禮)를 각각 행하고, 이후에 서인(庶人)이 백묘(百畝)를 경작하였다. 이어 기민(耆民)이 국왕에게 4배(拜)하고, 왕의 교서(敎書)가 반포된다. 이상의 의식을 마치면 국왕 이하는 퇴장하고 서인이 파종(播種)한다.

의의 선농제는 농업신인 신농과 후직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제사이다. 전근대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은 절대적이었고, 농민 생활의 안정은 왕조 통치의 기본 바탕이었다. 이 때문에 고대부터 농업 관련 제사들이 주목되었는데, 유교적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강조했던 고려시대 이후로는 대사(大祀)인 사직제와 중사인 선농제를 중심으로 그 의례를 시행함으로써 민생(民生)의 안정과 권농정책(勸農政策)의 상징성을 추구하였다. 이 중에서도 선농제는 관념적인 제사 의식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농사에 참여해 모범을 보이는 실천성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 제사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春官通考, 韓國中世禮思想硏究(李範稷, 一潮閣, 1991), 朝鮮初期 祀典에 관한 硏究(金海榮,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博士學位論文, 1994), 儒敎 祈禳儀禮에 관한 硏究 -朝鮮時代 國家祀典을 中心으로-(李煜,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朝鮮初期 中祀祭禮의 정비와 그 운영(韓亨周, 震檀學報89, 震檀學會, 2000),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高麗前期 重農理念과 農耕儀禮(韓政洙,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조선시대 親耕禮의 변천과 그 의미(이욱, 宗敎硏究34, 韓國宗敎學會, 2004).

필자 | 한형주(韓亨周)

악해독제(嶽海瀆祭)

정의 조선시대 국가에서 주요 산천과 바다에 행하였던 제사. 악(嶽)은 높고 위엄이 있는 산을, 해(海)는 바다를, 독(瀆)은 큰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두 지상의 주요 자연물과 그 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유래 여러 산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은 중국 고대 봉건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봉건제 아래에서 제후는 자신이 분봉(分封)받은 지역의 산천만을 제사지낼 수 있었던 반면, 천자는 천하의 주요 산천을 두루 제사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었다. 이때 천자가 제사지내는 산천을 오방의 관념에 맞추어 오악(五嶽), 사진(四鎭), 사해(四海), 사독(四瀆)으로 범주화하였는데, 동쪽의 대산(岱山), 남쪽의 형산(衡山), 중앙의 고산(嵩山), 서쪽의 화산(華山), 북쪽의 항산(恒山)이 오악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오악, 사진, 사해, 사독의 구분은 봉건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가 전국의 산천에 제사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었다. 당송대(唐宋代)에는 악진해독(嶽鎭海瀆)을 방위별로 나누어 새로운 계절이 시작할 때 해당 방위의 산천에 제사지냈으며, 명대(明代)에는 경도(京都)에 악진해독의 단을 별도로 만들어 춘추에 전체 산천을 합사(合祀)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 산천에 대한 신앙은 일찍부터 발달한 민족 고유의 신앙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중앙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오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세 단계의 구분은 국가 제사 전체를 등급화하는 범주인데, 신라에서는 이를 산천에 적용한 것으로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둘째, 고려시대 산천에 작위와 작호를 수여하는 봉작제도 방식이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시대 사전에는 악진해독의 범주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산천에 대한 제사가 대중소의 정사(正祀)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산천은 그 공덕(功德)에 따라 작호(爵號)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격이 부각되었다. 셋째,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국의 주요 산천 37곳을 사전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다시 악해독 13곳과 명산대천 24곳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중사, 후자를 소사로 차등을 두었다. 그러므로 악해독제(嶽海瀆祭)라는 이름의 제사는 엄밀히 말하면 조선시대에 국가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었다.

조선시대 이러한 악해독의 제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먼저, 중국과 비교하면 진(鎭)의 범주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악해독의 대상이 한양을 중심으로 한 오방의 균형적인 배치가 아니라 개성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적인 선정이었다. 중국의 경우 오악, 오진, 사해, 사독과 같이 오방 또는 사방에 각각 하나씩 배열하였지만, 조선시대 악해독은 방위마다 하나씩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세조대 양성지(梁誠之)에 의해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되었지만 조선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불균형적인 선정은 아래표와 같이 대한제국이 성립하면서 새롭게 마련된 오악, 오진, 사해, 사독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五嶽 · 五鎭 · 四海 · 四瀆의 구성〉

	오악(五嶽)		오진(五鎭)	
	國朝*	大韓**	國朝	大韓
中	三角山	同	—	白岳山
東	—	金剛山	—	五臺山
南	智異山	同	—	俗離山
西	松嶽	妙香山	—	九月山
北	鼻白	白頭山	—	長白山

	사해(四海)		사독(四瀆)	
	國朝*	大韓**	國朝	大韓
中	—	—	漢江	—
東	東海(襄陽)	同	—	洛東江
南	南海(羅州)	同	熊津 · 伽倻津	漢江
西	西海(豊川)	同	德津 · 平壤江 · 鴨綠江	浿江
北	—	北海(鏡城)	—	龍興江

*國朝: 『國朝五禮儀』, **大韓: 『大韓禮典』

내용 조선시대 국가 사전(祀典)에서 악해독은 위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테면 다수의 산천 중에서 중요한 것을 악해독이란 범주로 묶어서 중사(中祀)로 삼았는데, 이것은 소사(小祀)인 명산대천(名山大川)보다 상급의 제사에 해당하였다. 그러므로 악해독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의 산천제라기보다 여러 산천들을 국가가 서열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조선시대 악해독 제사로는 정월의 원상제(元狀祭)와 2월, 8월의 절제(節祭)가 있었다. 이때에는 중앙에서 향축(香祝)을 일괄적으로 내려주어 지방관으로 하여금 각각의 악해독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기제 외에도 가뭄에 한양의 북교에서 사방의 악해독과 명산대천 신위를 모두 진설하고 지내는 망제(望祭)도 있었다. 조선시대 산천은 비구름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망제뿐만 아니라 산천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

악해독제는 국가에서 전국의 산천을 통합하여 일원적인 제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중앙 권력의 성격과 지배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당 산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과 신앙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조선시대 악해독에 속한 산천은 대부분 고려시대부터 영험이 있다고 이름난 곳이었으며, 국가는 이러한 신앙을 국가 사전에 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속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양식의 산천제는 제약을 받거나 소멸하였다. 화상(畵像)이나 소상(塑像)은 신위(神位)로 바뀌고, 의식도 유교적 제사 양식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국가 사전에 수용된 후에도 민간의 산천제는 독자적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며, 국가 사전에서도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한양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시대 한양의 주요 산천 중에서 진산인 삼각산은 악(嶽)에 해당되고, 한강은 독(瀆)에 속하였다. 그리고 목멱산은 명산대천의 범주에 속하였다. 한양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 이들 삼각산, 목멱산, 한강을 중심으로 기우제를 지냈다. 특히 한강의 경우 한강진에 있는 제단 외에 용산강과 저자도 그리고 양진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런 기우제에는 유교식 제사뿐만 아니라 침호두(沈虎頭), 화룡제(畵龍祭)의 형태도 포함되어 있었다. 침호두란 호랑이 머리를 강에 빠뜨려 물 속에 있는 용을 충동질하는 것이고, 화룡제는 용의 그림을 그려두고 용을 자극하는 것으로 모두 용신을 움직여 비를 얻으려는 의례들이었다. 그러므로 악해독을 비롯한 산천은 비록 유교적인 제사형식으로 국가 사전에 포함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민간의 신앙을 담고 있었다. 악해독제는 민간의 산악신앙과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의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春官通考,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최광식, 한길사, 1994), 韓國 共同體 信仰의 歷史的 硏究(朴昊遠,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博士學位論文, 1997), 朝鮮前期의 山川祭(이욱, 宗敎學硏究17,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8).

필자 | 이욱(李煜)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정의 국가차원에서 역대왕조의 시조에게 드리는 제사의례.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 거행하며, 중사(中祀)에 편성되어 있다.

내용 역대왕조의 시조에 대한 제사를 조선왕조가 행하게 되는 이유를 세종대왕실록 연대기에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44 세종 11년 5월 7일 임자조에 세종이 "예조에 전지(傳旨)하여 단군과 기자의 묘제(廟制)를 다시 의논하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조에게 묘를 세워 치제하는 일을 고제에 상고하여 상세하게 정하라."라고 하였다고 나온다. 이보다 앞서 세종의 연대기는 "시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그 공을 보답한다는 것으로 조선왕조의 전장 문물(典章文物)이 삼국의 제도를 증감한 것이고, 삼국이 정립(鼎立) 대치하면서 서로 막상막하의 역사를 유지한 것으로, 어느 한 왕조의 시조만을 제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1월 5일 갑오조에서는 "우리 동방은 삼국 시조가 있기 전에는 12한과 9한이 있어서 나라의 경계가 분분했으니,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이를 다소 합하여 놓은 것은 그 공로가 진실로 적지 않으니 마땅히 의사(義祠)를 세워서 그 공을 갚아야 한다."라는 세종의 의지가 표명되기도 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 권1 태종 1년 1월 14일 갑술조에는 이미 태종대에 이르러 고려왕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기자조선과 동등한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여 고려의 시조에 대한 치제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곧 "전조(前朝)의 왕(王)씨가 삼한을 통일하고 인덕을 쌓아 5백년을 내려왔으니,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자와 왕태조(王太祖)가 모두 동방 백성들에게 공이 있으니, 토전(土田)을 붙여주어 때로 제향을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가락국시조제
경남 김해시 서상동 숭선전
국립민속박물관

이러한 논의와 과정을 거치면서 단군조선의 시조신으로부터 기자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시조신이 조선의 사전(祀典)에 기재되어 국가로부터 제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역사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역사인식의 자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밝히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 세종 때 「오례(五禮)」에는 단군과 고려 시조의 제향의(祭享儀)만 있으나, 세종의 연대기에는 단군의 사단(祠壇)을 비롯하여 기자묘가 세워지고, 그 제향을 논의한 기록이 있다. 단군이 조선의 시조임을 확인하고 건묘치사하자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락 시조 수로왕의 능침까지도 주목하는데, 그것은 역사의 정통 인식체계 속에서 단군조선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의 전개를 정리하는 것이다.

삼국의 정립이 통일된 국가를 이룩하지는 못하였으나 과도적 공적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삼국의 시조를 제향할 수 있다는 세종의 역사인식은 역대 왕조의 시조 제향의 의미를 더욱 높이고 있었다. 삼국의 역사단계를 인식하고 그들의 역할을 정리하여 그 시조신을 제향하여 그 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7일 임자조에서 보면, 세종은 이와 같은 논리를 얻기 위하여 예조에 고제를 연구토록 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세종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조에 대하여는 이미 사당을 세웠다고 하였다.

백제 시조의 묘우를 직산현에 세워 노비 2인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는 삼국의 시조제향의를 입묘(立廟)와 함께 사전에 등재하여 치제하도록 한 것이다. 고려 시조묘는 마전현에 세우고 시조배향공신까지도 배려하고 있었다.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6월 29일 무인조에 따르면, 세종 10년대에 예론(禮論)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고려 시조를 사전에 등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능묘의 표식을 고쳐 고려 시조 현릉이라 세우고, 아울러 태조의 초상과 태조 이하 8명의 왕의 신주를 제전(祭田), 제기(祭器), 노비(奴

婢)를 갖추어 제향함을 확인하고 있었다. 고려왕조를 계승하여 새 왕조의 정통성을 의례를 통하여 인식하려는 세종의 역사의식이자 유학의 논리라고 이해된다.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平壤府) 내용에 따르면, "기자묘(箕子廟)가 부성(府城) 북쪽 토산(兎山) 위에 있는데, 정자각(亭子閣), 석인(石人), 석양(石羊)이 모두 남쪽을 향하였으며, 사당(祠堂)은 성안 의리방(義理坊)에 있다. 봄과 가을에 향축(香祝)을 전하여 제사를 지낸다. 세종 12년 경술에 유사(有司)에 전지(傳旨)하기를, 예전에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이기고, 은나라 태사(太師)를 우리나라에 봉한 것과 그가 신하 노릇하지 아니할 뜻을 이루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물 예악(文物禮樂)이 중국과 같은 것은 오직 기자의 가르침에 힘입은 까닭이니, 비석을 사당에 세우라 하였다. 단군(檀君) 사당은 기자의 사당 남쪽에 있고, 세종 11년 기유에 비로소 사당을 세우고 고구려 시조 동명왕(東明王)을 합사(合祠)하였는데, 단군이 서쪽에, 동명이 동쪽에 있게 하여 모두 남향하게 하였다. 봄과 가을마다 향축(香祝)을 내리어 제사를 지낸다. 동명왕묘(東明王墓)가 부(府) 동남쪽[巽方] 30리쯤 되는 중화(中和) 지경 용산(龍山)에 있다. 모두 화반석(畫班石)으로 광(壙)을 영조(營造)하였다. 세상에서 이르기를 진주묘(眞珠墓)라 한다. 이승휴(李承休)가 동명왕의 사적(事跡)을 기록하기를, 하늘에 올라서 다시 운병(雲軿)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장사지내는 데 옥편(玉鞭)을 더하여 무덤을 이루었다 한 것은 곧 이것이다. 또 인리방(仁理坊)에 사당이 있는데, 고려에서 때로 어압(御押)을 내리어 제사를 지내고, 초하루와 보름에도 또한 그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하였다. 읍인(邑人)들이 지금도 일이 있으면 문득 비는데, 고로(古老)들이 전하기를 동명성제(東明聖帝)의 사당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향사의식의 내용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 향역대시조의(享歷代始祖儀) 항목을 설정하여 시일(時日), 재계(齋戒), 진설(陳設), 성생기(省牲器), 행례(行禮)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준비단계로 5일간의 재계(齋戒)와 2일간의 제수 진설(陳設), 전날의 희생 검사와 향축(香祝) 전달이 있으며, 헌관이 제단에 도착하면 제의가 시행된다. 행례의식은 전폐(奠幣)와 작헌(酌獻), 송신(送神)으로 이루어진다. 전폐는 초헌관이 향을 세 번 올리고 폐백을 드린 후 절을 하는 과정이다. 작헌에서는 초헌관이 술잔을 올리고 엎드린 후 독축하고 절을 하는 초헌례가 시행되고, 이어 아헌례와 종헌례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례가 끝나면 음복(飮福)과 수조(受胙)를 하고 제기를 거둔다. 이어 초헌관이 망예(望瘞)를 하고 헌관들이 퇴장함으로써 제의는 끝난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世宗實錄, 太宗實錄.
필자 | 이범직(李範稷)

연등회(燃燈會)

☞ 연등회(燃燈會): 정월편

진좌제(鎭坐祭)

정의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高浪浦: 지금의 장남면 고랑포리)에서 마을 수호신인 지진신(地鎭神)을 모셨던 제의. 고창굿(高昌-)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제의 시기는 대체로 음력 2월 초이며, 길일(吉日)을 택하여 4일 동안 지냈다. 제의는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치러졌다. 제의는 중고랑포(中高浪浦)의 석벽(石壁) 위에 지진신을 모시는 부군당(府君堂)이 있어 이곳에서 행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마을 축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제의로 마을의 평안과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전형적인 마을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례이다.

제의는 2명의 세습 큰무당의 주관 아래 이루어졌으며, 아래고랑포의 할머니부군을 모셔서 할아버지부군과 함께 좌정시키는 '도당 모셔오기'를 하여 굿을 진행하였다. 굿이 끝난 후에는 농악대와 무동이 가가호호를 돌며 지신밟기를 하였다. 진좌제를 지낼 때면 인근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크게 성황을 이루었기에 마을에 있는 큰 상점들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어 홍색, 황색, 녹색의 큰 색기(色旗)를 매달아서 자신의 상점들을 선전하였는데, 이때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들의 모습이 아주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진좌제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전승이 중단되어 현재는 치러지지 않고 있다. 소요 경비는 해마다 다소간 차



長湍府「海東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이는 있었지만, 대략 소 20~30마리 정도를 살 만한 금액이었다고 한다. 경비의 조달은 고랑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일정 금액을 각출하는 방식이었으며, 각출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진좌제의 주된 목적은 역병(疫病)을 비롯해 마을에 뜻밖의 재앙이 생기는 것을 막아내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농사의 풍요를 바라는 성격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連川郡誌(連川郡誌編纂委員會, 1987), 鄕土史料集(연천문화원, 1995),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연천군·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連川郡誌 下(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필자 | 권태효(權泰孝)

춘계문묘석전(春季文廟釋奠)

정의 성균관과 향교의 대성전[文廟]에서 2월의 첫 정일[上丁日]에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의식. 봄에 지내는 제사라 하여 춘계석전 또는 문묘에서 지낸다 하여 춘계문묘석전이라 한다. 일년에 두 번,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에 지내는 제사라고 하여, 상정제(上丁祭) 또는 정제(丁祭)라 하며, 봄철의 정일에 지내는 제사라고 춘정(春丁)이라고도 한다.

유래 석전(釋奠)은 '처음에 단지 채소를 놓고 폐백을 올린다.'라고 하여 산천(山川), 묘사(廟社) 같은 모든 제사를 석채(釋菜), 석전이라고 하였다. 후대에 와서 옛날에 선비가 스승을 알현할 때 채소를 폐백으로 바치고,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에 학교를 세우거나 입학을 하면 반드시 채소로써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석전은 성현에 대한 제사만 지칭하게 되었다. 나아가 채소 이외에 소나 양 같은 희생(犧牲)을 제물로 올리고 음악을 갖추어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를 석전이라 하였다. 공자가 선성(先聖)으로 추대되면서 공자의 탄일(8월 27일)과 기일(2월 18일)에 맞추어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석전을 봉행하게 되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문선왕(文宣王: 공자)에 대한 제사의 예를 석전이라 규정하여 국가제사 가운데 중사(中祀)로 분류하였고, 주현(州縣)마다 향교에 문묘를 설치하여 석전을 봉행하게 하였다.

역사 석채나 석전의 역사는 주대(周代)의 선성, 선사의 예에서 비롯되었다. 한대(漢代) 이후로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채용하면서 주공(周公)을 선성으로, 공자를 선사로 받들어 공자의 사당에 태뢰[大牢]를 올리거나, 공자의 옛집에 궐리사(闕里祠)를 세워 공자와 72 제자를 치제(致祭)하였다. 당대(唐代)에 와서 비로소 공자를 선성으로 받들어 문선왕으로 추증(追贈)하였고, 그의 제자 안자(顔子)를 선사로 배향하였다. 또 송대(宋代)에는 사당에 동서 양무(兩廡)를 세워 문묘를 확립하였고, 원대(元代)에는 안자 이외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명대(明代)에는 문묘를 대성전(大成殿)이라 하고, 공자와 그의 제자 외에 송과 명의 유학자까지 종사(從祀)하여 오늘날의 문묘제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 진덕여왕(眞德女王) 때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건너가 그곳의 국학(國學)을 찾아 석전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에 국학 설립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성덕왕(成德王) 13년에는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공자와 10철(十哲)과 72 제자의 화상(畵像)을 가져와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것에서 일찍이 석전의식이 국학에서 봉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고려시대에는 성종(成宗) 7년에 임노성(任老成)이 송나라에서 '문선왕묘도(文宣王廟圖)'를 들여왔고, 숙종(肅宗) 6년에는 국자감(國子監)에서 문선왕묘의 좌우 행랑에 새로 61자(子)와 21현(賢)을 그려









〈춘계분묘시전〉
1 대성전
2 시도기 작설
3 분정기 작설
4 진설
5 관세례
6 개독
7 분향례
8 전폐례
9 초헌관 감작
10 초헌례
11 독축
12 아헌례
13 종헌례
14 음복례
15 망료례
16 폐독
17 봉송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국립민속박물관








4


5


6


8


9


10


11


15


16


17

서 석전에 종사하길 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치원(崔致遠), 설총(薛聰), 안향(安珦) 같은 우리나라 인물을 문묘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또 충렬왕(忠烈王) 29년에는 김문정(金文鼎)이 원나라에서 선성 10철상과 문묘 제기를 가져왔고, 34년에는 공자(孔子)의 작호(爵號)를 더 추가하여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 하였다. 충선왕(忠宣王) 때에는 "문선왕은 백대의 스승이다."라고 하여 춘추 석전과 삭망(朔望) 제향에 선비들이 모여 정결하게 제사지낼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서울에 성균관, 지방에 향교를 세워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안자, 증자, 자사, 맹자의 4성(四聖)과 10철을 모시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는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주희(朱熹)의 송조 6현(宋朝六賢) 그리고 설총, 최치원, 안향을 비롯한 유학자 108명을 모시고 석전을 거행하였다. 『국조오례의』에는 주자의 석전의(釋奠儀)에 의해 석전의식을 정리하고, 아울러 제기, 제복 등의 도설을 제시하였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도통과 도학이 확립되면서 광해군대에는 사림의 주장에 따라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같은 동방오현(東方五賢)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유학자도 도학 기준에 따라 종사 여부를 결정하여 숙종 8년에는 순황(荀況) 등을 폐출하고, 주자의 제자인 황간(黃**榦**) 등을 새로이 종사하였다. 우리나라 유학자 가운데 김인후(金麟厚), 이이(李珥),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 조헌(趙憲),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박세채(朴世采)도 문묘에 종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주자학)을 국시(國是)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과 달리 숙종(肅宗) 40년에 송시열의 상소를 계기로 송조 6현을 대성전에 모셨고, 명대에 종사된 육구연(陸九淵) 같은 양명학자들은 배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성균관과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문묘의 석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하였고, 1937년부터는 태양력의 도입에 따라 석전도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봉행되었다. 1949년에는 전국유림대회의 결의에 따라 대성전에 공자와 4성, 송조 2현, 동방 18현만 모시고, 10철을 비롯한 중국 유현 108위의 위패는 매안(埋安)하였으며, 석전도 탄일인 음력 8월 27일에만 봉행하였다. 1953년에는 다시 10철과 송조 6현을 복위(復位)하고, 제일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로 환원하여 대성전에서 공자와 4성, 10철과 송조 6현, 동방 18현을 모시고 석전을 봉행하였다. 한편 강릉 향교에서는 대성전에 공자를 포함해서 4성과 10철, 송조 6현을, 동무와 서무에는 동방 18현과 중국 유학자 94위를 모시고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현재도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해마다 봄(음력 2월)과 가을(음력 8월)의 상정일에 동시에 석전을 거행하고 있다. 그 석전 의식은 대개 『국조오례의』의 석전의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동무와 서무에 모셨던 동방 18현을 현재는 대성전으로 옮겨 모시고 있기 때문에 동무와 서무에서의 분헌례(分獻禮)가 생략되고, 대신 대성전에서 모든 행례가 이루어진다.

내용 석전 의식은 집례의 창홀(唱笏)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대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집례와 묘사(廟司)가 섬돌 아래에서 4배(拜)를 올린 뒤에 손을 씻고 정해진 자리에 선다. 집례가 홀기(笏記)를 부르기 시작하면, 전악(典樂)이 악사(樂士)들을 인솔하여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고, 모든 제관들도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 4배를 한다. 묘사(廟司)와 봉향(奉香), 봉로(奉爐)가 대성전으로 올라 문을 열고 개독(開**櫝**)을 한다. 알자(謁者)와 찬인(贊引)이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분헌관(分獻官)을 인도하여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행사하기를 청하면 당하악(堂下樂)과 문무(文舞)를 시작하고, 헌관과 참례자 모두가 4배를 한다.

먼저 영신(迎神)의 의미로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는데, 당상악(堂上樂)과 문무를 시작한다. 초헌관이 공자 신위 앞에 나아가 삼상향(三上香)하고 백저포(白苧布)의 폐백을 올리는데, 안자, 증자, 자사, 맹자의 신위 앞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는데, 당상악과 문무를 시작한다. 초헌관이 공자 신위전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고 물러나 꿇어앉으면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고, 안자, 증자, 자사, 맹자의

신위 앞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이어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와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를 행하는데, 이때에는 당하악과 무무(武舞)를 시작하며, 축문은 읽지 않는다.

종헌례가 끝나면 분헌관이 종향(從享)되어 있는 10철과 송조 6현, 동방 18현에게 술잔을 드리는 분헌례(分獻禮)를 행한다. 분헌례 이후에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가 서향하여 석전에 쓴 술과 조육을 먹는 음복례(飮福禮)를 행한다. 음복례가 끝나면 참례자 모두 4배를 한다. 대축이 변두를 조금 움직이는 철변두(徹籩豆)를 행하는데 이때 당상악을 연주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당하악을 연주하고, 헌관 이하 참례자 모두 4배를 한다.

마지막으로 초헌관이 제사가 끝나서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것을 지켜보는 망료례(望燎禮)를 행한다. 이어 알자가 초헌관에게 예가 끝났음[禮畢]을 아뢰고, 알자와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물러나면 집사자가 내려와 4배를 한다.

의의 석전 의식은 성균관과 향교에서 공자와 선현들의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표(師表)를 보여주고 숭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文廟享祀錄, 三國史記, 俎豆錄, 文廟享祀制의 成立과 變遷(朴贊洙,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1984), 朝鮮後期文化運動史(鄭玉子, 一潮閣, 1988), 朝鮮前期 儀禮硏究 -性理學 正統論을 中心으로-(池斗煥,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순권(崔順權)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정의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가 순절(殉節)한 영령에 대한 제향. 동래 충렬사(忠烈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838번지에 있는 사우(祠宇)로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부산진 첨사 정발(鄭撥), 다대진 첨사 윤흥신(尹興信)을 비롯한 관·군·민의 영령의혼(英靈義魂)을 봉안하고 있다. 제향은 봄과 가을 두 차례 행하는데 춘향(春享)은 음력 이월 중정일(中丁日)에, 추향(秋享)은 음력 팔월 중정일(中丁日)에 각각 행하며, 현재 충렬사제향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 충렬사는 선조 38년(1605)에 당시 동래부사였던 윤훤(尹暄)이 임진왜란 때 순절한 전(前) 동래부사 송상현을 봉향하기 위하여 동래읍성의 남문 안에 송공사(宋公祠)를 세운 것이 시초이다. 이후 광해군 14년(1622)에 선위사(宣慰使) 이민구(李敏求)가 사액(賜額)을 청하고 아울러 임진년 4월 14일에 부산진성을 수비하다가 순절한 정발 장군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청하여 인조 2년(1624)에 충렬사라는 사액이 내려졌으며, 이때에 정발 장군을 함께 배향(配享)하였다. 그로부터 28년 뒤인 효종 3년(1652)에 동래부사 윤문거(尹文擧)가 충렬사를 현재 위치인 내산(萊山) 아래의 안락리(安樂里)로 옮기고 선열들의 충절과 덕행을 후세의 사표(師表)로 삼기 위해 이를 서원의 규모로 확장하였다. 원래 충렬사에는 송상현 동래부사 증좌찬성 충렬공(宋象賢 東萊府使 贈左贊成 忠烈公)과 정발 부산첨사 증좌찬성 충장공(鄭撥 釜山僉使 贈左贊成 忠壯公)의 신위를 비롯하여 동서단(東西壇)에 각 5위, 별채인 동무(東廡)에 12위, 서무(西廡)에 12위, 의열각(義烈閣)에 4위 등 모두 40위였으나, 1976년 3월 충렬사 정화 사업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 순절한 의인의 신위를 모두 봉안토록 하여 75위(位)로 크게 늘렸으며, 1995년 부산문화재위원회에서 충렬사 정화 때에 동래와 양산 출신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항전하여 전공을 세웠거나 순절한 분 16위를 합사하기로 의결하여 지금은 모두 91위를 봉안하고 있다.

내용 충렬사제향은 춘추 정시제로서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의 2회이다. 제관은 안락서원 도유사(都有司)와 장의(掌議)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고을 유지들이 회의하여 결정한다. 제관과 제향의 소임으로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분헌관, 집례, 대축, 진설, 알자(謁者), 관세(盥洗), 봉향, 봉로, 사준(司尊), 봉작, 준작(尊爵), 학생, 장찬(掌饌), 찬인(贊引), 찬창(贊唱)이 있다. 이 중 헌관, 집례, 대축, 학생은 백색 유의[儒衣, 道袍]를 입고 갓을 쓰며, 그 밖의 제관은 흑색 도포를 입고 유건(儒巾)을 쓴다. 제례는 유교식 제례로 홀기(笏記)에 따라 진행한다.

제차는 152회에 이를 만큼 복잡한데, 현행 제향의 절차는 본전의 경우 개제 선언(집례가 제향의 시작


1


2


3


7

〈충렬사제향〉
1 분정례
2 진설
3 충렬사 내부
4 제관 입장
5 분향례
6 전폐례
7 초헌례
8 독축
9 아헌례
10 종헌례
11 음복례
12 집사자 사배
13 망료례
14 봉송
15 음복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국립민속박물관


12


13


4


5


6


8


9


10


11


14


15

을 알리면 현관이 본전의 문을 열고 점촉함) → 제관 재배 → 참례자 배례 → 분향(수위전에는 헌관이, 배위전과 종위전에는 분헌관이 분향함) → 헌작(수위전에는 헌관이, 배위전과 종위전에는 분헌관이 헌작함) → 독축 → 대통령 헌화와 분향 → 추모사 → 참례자 분향 → 제관 재배 → 참례자 배례 → 폐제 선언 → 분축 순이며, 의열각의 경우 개제 선언(집례가 제향의 시작을 알리면 분헌관이 의열각의 문을 열고 점촉함) → 제관 재배 → 참례자 배례 → 분향(본전의 배위전과 종위전에 분향할 때 분향함) → 헌작(본전의 배위전과 종위전에 헌작할 때 헌작함) → 독축(본전에서 독축을 할 때 분헌관이 향상 앞에 부복함) → 참례자 분향 → 제관 재배 → 참례자 배례 → 폐제 선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제향에 앞서 제의 전날 희생(犧牲)을 잡는 감생례(監牲禮)를 행하는데, 희생은 소, 돼지, 양을 잡아 썼으나 근래에는 주로 돼지를 쓴다. 제수로 녹포(鹿脯)는 사슴고기 대신 우포(牛脯)에 어포(魚脯)를 함께 담으며, 우두(右豆)의 녹해(鹿醢)는 생우육과 돝고기(돼지고기)에 조개를 곁들인다. 율황(栗黃)은 밤, 호두, 은행, 잣 같은 껍질이 세 겹으로 된 과일을 쓰며, 우두(右豆)의 청저(菁菹)는 잎이 달린 무와 약 10센티미터 길이의 미나리와 파를 생으로 놓는다. 한편 시생(豕牲)은 수위(首位)에만 진설한다.

의의 충렬사제향은 임진왜란 때 순절한 영령과 의백을 모시는 것으로 위로는 부사, 군수, 첨사를 비롯하여 아래로는 충복(忠僕)과 애첩(愛妾)까지도 그 공을 기리어 제사 지낸다는 점이 특징이며, 의열각에 여성이 제관으로 참여하여 제향을 모시는 점도 특이하다. 또한 사당에 서원[安樂書院]이 병설되어 있어 선열의 충정과 학덕을 기리고 후진을 교화해 왔으며, 유림의 전통 제례법에 따라 400여 년을 계승하여 왔음을 보아 제향이 번거롭다 하더라도 후세까지도 그대로 전승하는 것이 전통 보존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부산의 문화재(부산직할시, 1993), 鄕土의 民俗文化(康龍權,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硏究院, 1996), 지방문화재조사보고서 -충렬사제향-(박진주선생자료집 1, 민족미학연구소, 1999).

필자 | 황경숙(黃京淑)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정의 바람, 구름, 우레, 비의 자연현상을 신격화하여 중춘(仲春: 음력 2월)과 중추(仲秋: 음력 8월)에 지내는 제사. 풍운뇌우(風雲雷雨)의 풍사(風師)는 비렴(飛廉), 운사(雲師)는 풍융[豊隆: 또는 운중군(雲中君)], 뇌사(雷師)는 헌원(軒轅), 우사(雨師)는 평예(**萍翳**)를 각각 지칭한다. 풍운뇌우는 농사에 영향이 큰 기후를 관장하는 신들로 고대 이래 신앙의 대상이 되었는데, 유교의례가 수용되면서 국가의 사전(祀典)에 수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소사(小祀)에 포함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중사(中祀)로 승격되었다.

역사 풍운뇌우는 원래 자연신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네 신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에서는 주대(周代) 이래 바람[風伯]과 비[雨師]가 제사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당대(唐代)에 사전(祀典)이 정비되면서 소사로 규정되었다. 그러다가 당 말기에 우레[雷師]가 추가되었고, 송대(宋代)에는 그 신격(神格)이 중사로 높아졌다. 그런데 명대에는 여기에 구름[雲師]을 추가하면서 별도의 제단에서 제사되던 네 신을 합치고 여기에 산천성황(山川城隍)까지 첨가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고려시대 풍운뇌우제는 당대(唐代)의 사실(史實)을 본받아 시행되었다. 제사의 대상은 풍사(風師), 우사(雨師), 뇌신(雷神)으로 그 신격은 소사로 규정되었다. 이 중 풍사의 제단은 높이 3척, 넓이 23보, 양유(兩壝)로, 입춘 후 축일(丑日)에 국성(國城)의 동북쪽에서 돼지 한 마리를 희생으로 삼아 치제하였다. 우사와 뇌신은 제단과 희생이 우사와 동일하고, 입하(立夏) 후 신일(申日)에 국성의 서남쪽에서 함께 제사되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제도는 조선에 들어와 변화하였다. 태종 13년(1413) 사전의 등급을 조정하면서 명(明)의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모방하여 풍사, 우사, 뇌신의 세 신에 운사를 추가하면서 그 신위를 풍운뇌우지신(風雲雷雨之神)으로 통칭하였고, 아울러 중사로 제품(祭品)을 승격시켰다.

풍운뇌우의 제단은 세종 12년(1430)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 양유(兩壝)의 형태로 규모를 조정

하였다. 그런데 이때 네 신을 고려나 당송대처럼 각단(各壇)에 모신 것이 아니라 『홍무예제』에 의거해 동단(同壇)에 배치하였고, 여기에 산천(山川)과 성황(城隍)의 신위를 합사하였다. 이에 당시의 유신(儒臣)들은 풍운뇌우의 네 신을 동단에 모신 것과 천신(天神)과 지기(地祇)를 합사한 것은 『홍무예제』를 모방해 생긴 잘못이고, 특히 후자는 예제상 문제가 많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시왕지제(時王之制)는 쉽게 고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결국 수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은 이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풍운뇌우제는 농사와 밀접한 제사였기 때문에 농본(農本)을 강조했던 조선의 유신들에 의해 중사로 승격되었다. 그렇지만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의식에는 같은 중사인 선농(先農), 문선왕묘(文宣王廟) 같은 제사와는 달리 국왕의 친제의(親祭儀)가 없고, 이곳에서 국왕의 친제가 거행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중종 32년(1537) 4월에 심한 가뭄을 이유로 풍운뇌우단에서 국왕이 처음으로 기우제를 시행함으로써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후 중종 36년(1541)과 명종 8년(1553)을 비롯하여 국왕이 풍운뇌우제를 거행한 사례가 몇 차례 더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사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조 때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친향풍운뇌우산천기우의(親享風雲雷雨山川祈雨儀)'라는 국왕친제의가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내용 풍운뇌우제는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여러 제사 중 천신(天神)으로는 가장 격(格)이 높고 유일하게 중사에 속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에서는 초헌관이 정2품이었는데, 세조대 이후 환구제(圜丘祭)가 폐지된 후 최고의 천신(天神)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국조오례의』에서는 초헌관의 직질(職秩)이 정1품으로 높아졌다. 제사는 정례(正禮)가 2월과 8월에 시행되었고, 이밖에 각종 기우제가 수시로 행해졌다. 희생은 정례에는 양 세 마리와 돼지 세 마리를, 망기(望祈)에는 돼지 한 마리를 각각 사용하였다.

풍운뇌우제의 시행과정은 크게 ①제사 전의 준비절차 ②행례절차 ③예필(禮畢)과 납신(納神)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준비절차는 제삿날을 규정한 시일(時日), 5일간의 재계(齋戒), 제사 전부터 설치되는 진설(陳設), 제사 전날 국왕의 향축(香祝) 전달 그리고 초헌관의 희생과 제기에 대한 검사로 구성된다. 행례절차는 크게 전폐(奠幣), 작헌(酌獻), 송신(送神)으로 구성된다. 전폐에서는 풍운뇌우신위(風雲雷雨神位)에게 세 번 향을 올리고 폐백을 올린 후 부복했다가 몸을 일으켜 펴고[俯伏興平身] 산천성황신위(山川城隍神位)에 같은 의식을 행한다. 작헌에서는 먼저 초헌관이 풍운뇌우신위에게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부복했다가 몸을 일으켜 편[俯伏興平身] 후 산천성황신위에게 같은 의식을 행한다. 초헌이 끝나면 아헌례와 종헌례가 초헌례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작헌이 끝나면 음복수조(飮福受胙), 제기의 수거, 폐백을 태우는 과정을 감시하는 망료의 순서로 송신을 행한다. 이후 초헌관이 제사가 끝났음을 아뢰고 신위판을 수거하면 모든 제례의 과정이 끝난다.

의의 전근대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은 절대적이었고, 농민생활의 안정은 왕조통치의 기본 바탕이었다. 이 때문에 고대부터 농업 관련 제사들이 주목되었고, 유교적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창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비중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농사는 가뭄과 홍수, 특히 가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성패의 관건이 있었고, 가뭄 때에 빌 수 있는 대상은 첫째가 하늘이었다.

따라서 유교적 제사에서는 통천(通天)에 대한 환구제와 기후와 관련된 풍운뇌우제를 모두 중히 여겼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시행되던 환구제가 천자의 예라는 이유로 조선 건국 이후 치폐(置廢) 과정을 반복하자, 유신들은 유일한 하늘제사인 풍운뇌우제를 더욱 주목하였고, 이는 사전에 반영되어 고려시대의 소사에서 조선시대 중사로 승격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16세기 이후에는 국왕이 직접 풍운뇌우단에 나가 기우제를 거행하는 단계로 나감으로써 이 제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春官通考, 韓國中世禮思想研究(李範稷, 一潮閣, 1991), 朝鮮初期 祀典에 관한 研究(金海榮,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4), 중국신화연구(선정규, 고려원, 1996), 朝鮮初期 中祀祭禮의 정비와 그 운영(韓亨周, 震檀學報89, 震檀學會, 2000), 朝鮮初期 國家祭禮研究(韓亨周, 一潮閣, 2002).

필자 | 한형주(韓亨周)

뇌성점(雷聲占)

정의 음력 이월 중이나 한식날의 천둥소리로 그 해의 풍흉이나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기후점(氣候占).

내용 음력 이월 중이나 한식날의 날씨를 보아 그 해 농사나 어업의 풍흉을 점치는데, 날씨가 쾌청하고 약한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고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날씨가 나쁘면 나라의 흉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정월부터 3월까지의 시기에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치는 일은 매우 드문데, 이러한 때 하늘에서 크고 무서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전조로 여기는 것이다.

지역사례 전북 장수, 무주, 진안, 익산에서는 '천둥소리듣기'라고 하여 "2월에 뇌성벽력을 하면 머리 큰 사람(대가리 쟁이)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머리 큰 사람은 임금, 대통령, 장군, 지체가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음력 2월에 천둥이 치면 나라가 시끄럽다.", "정월부터 3월까지 뇌성벽력을 하면 머리 큰 사람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부산에도 "이월에 뇌성이 있으면 나라 안이 편하지 않다고 점친다."라고 하였다. 한편 "2월에 천둥이 치면 조기[石首魚]가 많이 잡힌다."라고도 한다.

한편 한식날에도 천둥이 치고 비가 오면 그 해 수해를 입어 흉년이 들거나 국가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경남 양산에서는 한식날의 날씨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날씨가 쾌청하고 옅은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고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 한식날 천둥이 치면 그 해 아이들이 경기(驚氣)를 심하게 하게 된다는 속신이 있다. 경기도 안양, 성남에서는 이 날 서리가 오면 땅이 석 자 세 치가 된다는 말이 있다.

또 삼월의 첫 뇌성을 듣고 그 해의 벼농사에 대해 점을 치는데 뇌성이 오전에 나면 그 해에는 오려(올벼)가 잘 되고, 오후에 나면 늦벼가 잘 된다고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한식날 뇌성이 치면 그 해 바다에 잔고기가 적게 잡힌다고 한다.

의의 일년 중 정월부터 3월까지는 날씨가 쾌청하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천둥이 치고 비가 오면 농사일에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친다는 것은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특히 연례적으로 음력 2월은 날씨가 쾌청하고 천둥이 없는 기간이다. 또한 한식은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는 날이다. 이렇게 조상, 하늘과 관련된 특별한 의례가 있는 시기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은 일종의 예시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黃海·平安南北 篇-(文化財管理局, 1980),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平澤關防遺蹟(I) -精密地表調査報告書-(李仁淑 외, 平澤市·京畿道博物館, 1999), 경기민속지III -세시풍속·놀이·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임진강(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경기도박물관, 2001),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김지욱 외, 전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지욱(金志昱)

동곳점

정의 음력 2월에 추녀 끝에 열리는 고드름을 동곳이라 하는데,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는 속신.

내용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에서는 "음력 2월이 크게 추워 물이 얼고 고드름이 잘 달리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속언(俗諺)이 있다. 특히 이때의 고드름을 '동곳'이라고 부른다.

동곳이란 본래 상투를 튼 뒤에 풀어지지 않도록 상투에 꽂는 가늘고 긴 물건을 말한다. 금, 은, 구리, 옥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또 건축 부재를 하나로 엮을 때에 못 대신 사용하는 '머리는 크고 아랫부분은 길고 뾰족한 물건'을 일컫기도 한다. 가늘고 미끈하며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고드름을 동곳이라 부르는 것은 고드름의 모양이 동곳과 비슷하기 때문이며, 음력 2월의 고드름을 동곳이라고 달리 부르는 까닭은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눈비가 많고 추우면 처마 밑에 고드름, 곧 동곳이 많이 달리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그 해에는 땅 속에 물이 풍부하게 확보되어 농사철에 물 걱정을 덜게 된다는 것이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처마 밑의 크



고드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심디스마

고 길쭉한 고드름을 아이들이 장난삼아 끊으면 벼의 모가지를 끊는 것이라 하여 어른들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다. 동곳과 풍년 여부를 단순히 상관 짓는 관념을 넘어서, 심지어 동곳을 벼라고 상징적으로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동곳이 크게 열리면 벼의 성장도 좋을 것이고 그 이삭도 충실할 것으로 믿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효경(金孝慶)

떡뜸질

정의 2월 중 신체의 특정 부위에 뜨거운 떡을 붙였다 떼어내어 질병을 치료하는 민간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주로 두통이나 팔다리 결림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경남 사천에서는 뼈가 아리거나 두통이 심할 때 떡뜸질을 한다. 먼저 시루떡을 찐 뒤 뜨거운 상태로 앓는 부위에 붙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루떡이 식게 되면 다시 데워서 몇 차례 계속해서 뜸질을 한다. 이렇게 하면 두통이나 팔다리가 결리는 증상이 없어진다고 한다. 시루떡 외에 찰떡이나 수수떡도 쓰이며 치료가 끝난 후 이것을 먹기도 한다. 특히 경남 양산시 물금면 증산리 상리마을에서는 떼어낸 떡을 다 먹어야 아픈 머리가 낫는다고 한다.

의의 이 풍속은 한방에서 하는 뜸 치료 원리와 민간의 주술적 심리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뜸은 약쑥을 비벼서 살 위의 특정한 혈(穴)에 놓고 불로 열기를 가하는 치료방법이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 풍년을 이루고자 하는 민간의 소망이 더해진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統營郡史(統營郡史編纂委員會, 1986), 梁山 勿禁宅地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地表·試掘調査報告(沈奉謹 외, 韓國土地公社·東亞大學校博物館, 1996),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삼묘일보기(三卯日-)

정의 음력 2월에 묘일(卯日)이 세 번 들면 목화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전라남도 지방의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면화(棉花)를 하는 농가(農家)에서는 2월에 묘일이 몇 번 드는가를 본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의 면화 농가에서는 음력 2월 한 달 동안에 묘일이 세 번 들면, 그 해 목화 농사가 잘 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묘일이 세 번 드는 해에는 목화 농사에 더 힘썼다고 한다. 진도에서는 십이지의 짐승 중 털이 있는 짐승의 날이 먼저 들면 면화가 잘 되고, 털이 없는 짐승의 날이 먼저 들면 면화가 피지 않는다고 여겼다. 경남에서는 토끼는 털이 많아 토끼날이 정초의 앞에 들면 그 해 목화 농사가 잘 된다고 여기는 풍속이 있다.

의의 목화는 고려 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로 의복과 침구의 긴요한 재료가 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면(棉)으로 세금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토끼는 털이 있는 동물 중에서도 목화의 색깔처럼 흰 털을 가진 동물이다. 여기에서 토끼와 목화 농사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토끼와 관련된 풍속은 보통 정초에 행해지기도 하고 음력 2월에 행해지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옥희(李玉姬)

냉잇국

정의 이른 봄 냉이의 연한 뿌리를 캐서 끓여먹는 국. 냉이는 겨자과에 딸린 두해살이풀로 깃꼴로 깊이 째진 잎이 뿌리에서 무더기로 나며 봄과 여름에 흰 꽃이 피는데 어린 잎이나 순을 먹는다. 길가에나 밭에 저절로 자라며 한자어로는 제채(薺菜)라 한다.

내용 봄이 되면 사람의 몸은 활동기로 접어들어 많은 비타민을 요구하는데, 냉이는 채소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고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여 피를 보하는 우수한 알카리 식품이다. 특히 비타민A가 많아 냉잇국이나 냉이 나물 한 접시를 먹으면 어른에게 하루 필요한 비타민A의 3분의 1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비타민B_1, B_2, C도 많이 들어 있다. 냉이는 흔히 약용으로도 쓰이는데, 약용으로 쓸 때는 봄에 꽃이 필 때에 다 자란 풀을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사용한다. 이렇게 만든 냉이의 약효는 눈을 맑게 해주고 간장과 소화기능을 도우며, 이뇨, 자궁 수축, 혈압강하 그리고 각종 출혈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결석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긴 겨울이 지나고 아지랑이 솔솔 피어오르는 봄


냉잇국 궁중음식연구원

별이 나기 시작하면 입맛이 까칠하여 산뜻한 게 없을까 찾게 된다. 이런 봄날 입맛을 돋우는 데는 봄나물이 제격인데, 그 중에서도 냉잇국은 향이 독특하면서도 잘근잘근 씹히는 맛이 있다. 그런데 된장국을 끓이더라도 시금치국엔 조갯살이, 아욱국엔 마른 새우가 어울리듯이 냉잇국엔 쇠고기를 넣어야 훨씬 더 깊은 맛이 난다. 이렇게 야채와 부재료를 궁합 맞춰 요리하면 봄날 나른하고 노곤해진 몸에 기력을 불어넣는 데 좋다.

나물이나 국을 끓일 때는 잡티를 깨끗이 골라내고 물에 씻을 때 살살 주물러서 풋내를 빼야 한다. 삶아서 물에 담가두면 쓴맛이 빠지고 부드러워진다. 된장도 조선된장을 써야 제 맛이 난다.

냉잇국을 끓일 때는 먼저 냉이의 잎과 뿌리를 다듬어 여러 번 깨끗이 씻어야 한다. 잘 손질한 냉이를 쌀뜨물에 살짝 데친 다음, 물기를 꼭 짠 후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다. 쇠고기는 얄팍하게 저며 썰어 다진 마늘과 생강, 후춧가루로 밑간을 한 다음 냄비에 참기름을 조금 두르고 볶는다. 고기가 익으면 냉이 데쳤던 쌀뜨물을 부어 고기 맛이 우러나도록 푹 끓여낸다. 이렇게 쌀뜨물로 끓이면 된장국물 맛을 고루 어우러지게 해 구수한 맛이 더 깊어진다. 국물에 고기 맛이 우러나면 된장으로 양념한 냉이를 넣고 끓인다. 여기에 송송 썬 풋고추와 붉은 고추를 넣어 한소끔 더 끓여내면 구수하면서도 향긋하고 맛있는 냉잇국이 된다. 냉잇국을 끓일 때 날콩가루를 묻혀서 끓여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모시조개를 넣고 냉잇국을 끓여도 좋다. 먼저 냉이의 겉잎을 떼어내고 뿌리는 그대로 두면서 다듬은 다음, 흙이 어느 정도 털어졌으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체에 담아서 물기를 뺀다. 모시조개는 솔로 문질러서 깨끗이 씻은 다음 소금을 약간 탄 찬물에 넣고 어두운 곳에 두어 해감을 토하게 한다. 30분 정도 두었다가 검은 티가 나오면 다시 물을 갈아주는데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깨끗이 해감이 토해진다. 해감이 잘 되어야 조개 국물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 국물 맛이 시원하다. 된장과 고추장을 한데 섞는다. 토장국을 끓일 때 가장 이상적인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은 5:1 정도이다. 냄비에 물 한 컵을 붓고 모시조개를 넣고 끓인다. 모시조개가 입을 벌리면 조개는 건지고 국물을 깨끗한 베보자기에 걸러 맑은

국물만 받는다. 모시조개 대신 우렁이나 조갯살도 좋다. 조개국물에 준비한 쌀뜨물을 넣고, 된장과 고추장 섞은 것을 체에 내려 토장국을 끓인다. 손질한 냉이는 물에 한 번 데친 다음 토장국에 넣고 끓이다가 모시조개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모자란 간은 된장이나 국간장으로 맞춘다. 식성에 따라 다진 마늘이나 파를 약간 넣어서 끓여도 좋다.

특성 냉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식물로서 연한 뿌리는 이른 봄부터 캐서 겉절이나 국 또는 전을 해서 먹고 4~5월이 되어 30~40센티미터로 자라 줄기 끝에 흰꽃을 피우면 꽃을 따서 화전에 장식으로 사용한다. 또 다 자란 냉이 줄기를 말려서 연두색 가루를 내었다가 국수 반죽을 할 때나 양념즙을 만들 때 넣기도 한다. 특히 눈이 나쁘거나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냉이가루로 차를 끓여 먹으면 좋다고 한다. 지방간 환자는 냉이를 뿌리째 뽑아 말려 달여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

한편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는 절기에 따른 농가의 일과 풍속을 노래한 월령체의 가사로서 특히 절기마다 먹는 소박한 나물요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갖가지 나물이 소개된 부분을 보면 그에 따른 재미있는 풍속을 이해할 수 있다. 2월령조에 보면 "산채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요 소로장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잇국은 비위를 깨치나니 본초를 상고하여 약재를 캐오리라. 낱낱이 기록하여 때 마쳐 캐어 두소. 촌가에 기구 없이 값진 약 쓰올소냐."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 냉이는 겨우내 움츠려 있던 우리의 몸을 깨치게 하는 나물국으로 이용된 2월의 절식이다.

기타 민간요법에서는 눈과 위가 아플 때 먹고, 변비로 인해 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술 한 잔에 냉이즙 한 큰술을 타서 먹기도 한다. 또 산후 출혈이 심할 때 신선한 냉이 50그램을 3리터의 물에 달여 반으로 줄어들면 2회로 나누어 마시면 지혈 효과가 높다고 한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4), 韓國의 맛(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7), 봄가을 음식(뿌리깊은 나무, 대원사, 1989), 한국음식대관6 -궁중의 식생활·사찰의 식생활-(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한국의 상차림(강인희 외 공저, 효일문화사, 1999), 한국의 나물(한국의 맛 연구회, 북폴리오, 2004).
필자 | 박인경(朴仁璟)

물쑥나물

정의 이른 봄 물쑥의 연한 뿌리와 줄기를 요리해서 먹는 봄나물.

내용 물쑥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이월령에 "산채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며 소루쟁이 물쑥이라."라고 하였듯이 이른 봄에 나오는 봄나물의 하나이다. 물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 들의 습지에서 나는 것으로 흙냄새 같은 독특한 향기가 있다.

물쑥나물 만드는 법은 물쑥의 뿌리와 줄기를 다듬어서 잔털을 제거하고 데친 다음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짜고 5센티미터 길이로 자른다. 고추장과 간장을 섞은 후 식초, 설탕, 참기름, 깨소금,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어 양념 고추장을 만들어 손질해 둔 물쑥을 잘 주물러서 간이 골고루 배게 한다. 이때 숙주와 미나리도 살짝 데쳐서 물쑥과 같은 길이로 잘라서 섞어 무쳐도 좋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韓國料理 百科事典(黃慧性, 三中堂, 1976), 한국의 나물(한국의 맛 연구회, 북폴리오, 2004).
필자 | 서혜경(徐惠卿)

씀바귀나물

정의 이른 봄에 나오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어린잎이나 뿌리를 요리해서 먹는 쓴맛이 나는 봄나


씀바귀나물 궁중음식연구원

물. 사나귀채(舍那貴菜), 도채(茶菜)라고도 하고 씀배나물이라고도 한다. 전라도에서는 싸랑부리, 쓴나물, 쓴냉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씀바귀는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이월령에 "산채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며 소루쟁이 물쑥이라."라고 하였듯이 이른 봄에 나오는 봄나물의 하나이다. 씀바귀는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는 식물이다.

씀바귀나물은 '외갓집 문지방이 높아야 잘 먹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귀하게 여긴 나물이다. 뿌리나 어린잎을 먹을 수 있는데, 서울과 인천에서는 주로 뿌리를 무쳐서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씀바귀나물을 만들 때는 먼저 씀바귀 뿌리의 단단한 부분을 다듬고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데쳐 찬물에 헹구어 쓴맛을 적당히 뺀 후 물기를 뺀다. 이것을 고추장에 식초와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만든 초고추장으로 주물러서 간이 배도록 무친다. 전라도에서는 씀바귀의 잎줄기를 주로 먹는데 깨끗이 씻어 데친 후 물에 담가서 쓴맛을 우려낸 후 된장, 고추장,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설탕을 넣고 주물러 무친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韓國料理 百科事典(黃慧性, 三中堂, 1976), 한국의 나물(한국의 맛 연구회, 북폴리오, 2004).
필자 | 서혜경(徐惠卿)

거름내는소리

정의 논이나 밭에 거름을 내면서 부르는 소리. 요즈음은 운반 도구가 발달하여 거름 내는 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거의 일꾼들이 등짐으로 져 날랐기 때문에 거름 내는 일은 힘든 노동이었다. 지게에다 무거운 퇴비를 짊어지고 논밭으로 져 나르는 힘든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곧 거름내는소리다. 두엄노래 또는 등짐노래라고도 한다. 등짐노래라고 하면 볏섬이나 나무, 풀짐 따위를 져 나르면서 부르는 노래를 포함하겠으나, 여기서는 거름을 져 나르면서 부르던 노래를 이른다.

내용 거름내는소리는 전국적으로 널리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 일부에서 불려진 노래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채록되어 있는 것은 전북 옥구와 부안의 등짐소리, 전남 장성의 두엄내기노래, 함평의 두엄노래, 등짐노래가 있다. 다음은 장성 두엄내는소리이다.

바늘같은 허리에다 황소같은 짐을지고
아아하 아아하 어허허 허어허(후렴)
연잎댓잎 숙어지고 잉어넣어 꼬리치고(후렴)
살진 가마치 연자에 놀고
예쁜 새악시 내 품에 논다(후렴)
앞산 뒷산 불질러라 두렁엎어 콩을 찍세(후렴)

"바늘같은 허리에다 황소같은 짐을 지고"에서 다소 과장이 보인다. 이는 힘에 겨운 노동임을 표현하려는 수사라고 하겠다. 노동의 고됨을 토로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운명을 한탄하거나 슬퍼하는 마음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함평 두엄노래의 가사에는 "우리 농부들 질겁게 내세. 나라 봉양 부모 봉양"과 같은 건강한 노동의식이 드러나 있다. "연잎댓잎 숙어지고 잉어넣어 꼬리치고, 살찐 가마치 연자에 놀고 예쁜 새악시 내품에 논다."와 같은 선정적(煽情的) 가사에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농부들의 건강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형식 거름을 져 나르는 일은 단조로운 일이며 많은 시일이 요구되는 작업이 아니다. 그 때문인지 가창방식도 독창 또는 소수의 인원이 메기고 받는 식으로 노래하는 단순한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노래의 가사도 서사적인 것은 없고 즉흥적이고 서정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소절 한 소절이 짧은 대



거름내기
전남 고흥군 심디스마

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메기고 받는 소리나 후렴으로 "아아하 아하하, 어허허 허어허", "아아아 뒤요 뒤요", "나나나이 어허히, 어이누야 어이누야"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면서도 일하는 동작에 호흡을 맞추는 흥겨운 성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의의 옛날에는 흔히 불렀을 노래인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노래이다. 농사짓는 방법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 부르던 농군들의 노래이다.

참고문헌 | 韓國口碑文學大系(精神文化硏究院, 1980~199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咸鏡南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81), 함평의 민요(이소라, 함평군, 2002).

필자 | 이현수(李鉉洙)

논가는소리

정의 봄에 모를 심기 전에 논에 물을 채우고 쟁기로 논을 갈면서 부르는 소리.

논을 쟁기로 갈 때 소 한 마리(호리)로 하는 지역도 있고, 소 두 마리(겨리, 제리)로 하는 지역도 있다. 두 마리 소를 부리는 것은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호리나 겨리로 논밭을 갈면서 부르는 노래를 '소모는소리'라고 통칭한다. 소모는소리에는 '논가는소리', '밭가는소리', '논삶는소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래서 논밭가는소리와 논삶는소리가 흔히 서로 전용(轉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원도의 강릉, 고성, 양양, 인제, 횡성에서는 논가는소리와 밭가는소리를 '이랴소리'라고도 한다.

내용 논가는소리는 전국적으로 널리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소의 힘을 빌어서 논밭을 갈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타난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기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부른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 논농사를 주로 해온 충청도나 전라도 지방에서 논가는소리가 채록, 보고되지 않은 것은 특이한 일이다.

논을 가는 작업을 하면서 늘 논가는소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논고랑 끝에서 소를 돌릴 때 부른다고 한다. 노래의 가사는 마치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듯이 작업의 방향이나 속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거나 제지하고 나무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후치질하고
기산풍속도 김준근

다음은 각각 영주의 소모는 소리와 구미의 소모는 소리이다.

이랴 이랴 이랴 이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아니 된다.
사람이 말할 때로 그대로 가지,
니 맘대로 갈거트면 내가 무엇으로 따라 댕기노
어데 어데, 돌아 돌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머리에 가가지고는 돌아야 가지 우예노,
어서 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영주의 소모는소리)

이랴 이랴 어서 가자 어서 가고 바삐 가자,
너의 등짐 다져다가 너의 힘을 모아서러
태산같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밭을 갈아,
무논 썰고 밭 써려서 콩도 심고 조도 심고
모를 내여 쌀을 내며 오곡을 다 갖차서,
이내 인생 건강하게 너희 몸을 대신하고
보존하고 생명이어 너와 나와 같이 사니,
어이 너를 잊겠느냐 이랴 쯔쯔쯔쯔
어서 가자 쉬지 말고 가, 자 워 물로 워디 이랴.

(구미의 소모는 소리)

위의 가사에서 보듯이 사람과 소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고락을 함께 나누고 있다. 농부의 소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도 표현되어 있다.

형식 논을 가는 일은 일정한 리듬에 따르는 규칙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불규칙적이고 단속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직선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고랑 끝에서는 방향을 돌려, 오던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작업에 동반되는 노래이므로 일정한 곡조가 없고, 노래의 형식에 따라 지켜지는 규칙적인 리듬이나 강약도 없이 자유스럽게 불려진다. 한 소절 한 소절이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이어지기도 하고, 서정적 가락으로 이어지다가 산문적 대화로 전환되기도 한다.

특이한 사례로 경북 영주의 소모는소리는 메나리조의 선율로 부르며, 경북 울진의 소모는소리는 산악지대에서 나무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어사용'이 불리고 있다.

의의 날이 갈수록 트랙터 같은 기계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과 기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다. 기계는 생명이 없는 한낱 무정물일 뿐이지만 소는 인간의 감정이 소통할 수 있는 생명체요 유정물인 것이다.

비탈진 산골 밭이나 질퍽거리는 무논을 하루 종일 가는 작업은 힘겹고 고달픈 일이다. 이런 고된 일을 함께 하는 사람과 소는 경계를 초월하여 서로 정서적 공감으로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이다. 이 노래에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는 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짙게 표현되어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강원의 민요 I, II(강원도, 2001, 2002).

필자 | 이현수(李鉉洙)

논고르는소리

정의 논에 모를 심기 좋게 논바닥의 땅을 고르면서 부르는 소리. 모를 심기 전에 소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논바닥이나 논 구석을 삽이나 고무래, 쇠스랑 따위로 파서 고르거나, 소가 갈아놓은 땅을 괭이로 높고 깊은 데가 없도록 고르기도 하고, 소에다 써레를 채우고 논을 고르기도 하는데, 이런 때 부르는 노래를 논고르는소리라고 한다. 이 노래를 전북 지방에서는 논꾸미는소리 또는 논파는소리라고 하고, 제주 지방에서는 밀레치는소리라고도 한다. 또 써레를 사용하여 논을 고르는 경기도 양평에서는 써레질소리라고도 한다.

내용 논고르는소리는 널리 불려진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가 현재 전승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 강원도 횡성, 전북 익산, 김제 같은 일부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노래의 내용은 논 고르는 작업을 인력으로 하는 경우와 소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경우 몇 사람이 리듬을 맞추어 메기고 받는 소리를 반복하면서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사설도 지극히 단순하다. 메기는 소리만 달라질 뿐 받는 소리는 익산에서는 "어이 기화야", 김제에서는 "어허양아 허하룡"으로 반복하고 있다. 메기는 소리도 작업의 동작에 박자를 맞추려는 의도에서 단순한 작업 방법을 지시하는 말로만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김제 논고르기소리에서 메기는 소리의 일부분이다.

맞춰서 허소 맞춰서 허소, 소리 대답을 맞춰서 허세
일락 서산으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으 달 솟아나네
잘도 허네 잘도나 히여, 소리 대답을 잘도나 히여
여봐라 춘향아 내말을 들어라,
비개 높거든 내팔을 비소.

또 소를 부려서 논을 고르는 경우, 한 마리만으로 논을 고를 때는 "이러 이러 어디 어디" 하는 식의 단순한 방향 지시나 제지하는 소리만 한다. 다음은 두 마리 소로 논을 고를 때 하는 소리의 가사로 양평의 논고르는소리이다.

이러 이러 어디 아냐 저 안소 슬슬 돌얼가면서
어디 마라마마 안소야 밀지 말고 이어 어후 오오
어디여 이러 허이 마라야 민다에 어디히 어후오오
앞두덩을 넘지 말면서
어디히 이러히 이러 디 어후우우우
돌아만 시거라 이러 안소 마라야 밀지 말어라
이러 어이이러
안소야 단니면서 어후 우우후후 어디여에
어느 저 소야.

두 마리 소에 써레를 달아 논을 고를 때 왼쪽 소를 안소라 하고 오른쪽 소를 마라소라 한다. 안소와 마

라소가 함께 호흡을 맞추어 땅을 평탄하게 잘 고르는 작업은 능숙하게 소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이 노래에는 안소와 마라소를 잘 어거(御車)하려는 의미가 있는 말을 넣어서, 두 마리 소를 서로 균형 맞추어 작업하려는 뜻이 잘 드러나 있다.

형식 논 고르는 작업을 인력으로 할 때 부르는 소리는 메기는 소리나 받는 소리가 모두 4음보에 맞춰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운율로 대구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를 부려서 논을 고를 때 부르는 소리에서는 어떤 리듬이나 음보를 찾을 수 없다. 거의 말하는 듯한 자유 리듬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의의 현재 전승되는 논고르는소리는 몇 수에 불과할 만큼 희귀하다. 사람의 힘으로만 일해야 하는 경우든 또는 소의 힘을 부려 일하는 경우든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능률적으로 논농사를 해냈는가를 보여주는 노래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한국민요대전 경기도 편(문화방송, 1996).

필자 | 이현수(李鉉洙)

논둑가래질소리

정의 가래로 흙을 떠 옮기면서 부르는 노래. 논둑가래질소리는 한창 농사철에 물이 불어 논둑이 터졌을 때 논둑을 새로 쌓으며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 가래는 주로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농기구이다. 많은 흙을 파서 옮길 때 주로 이용하는데, 종류로는 세 사람이 한 조가 되는 외가래와 여섯 사람이 한 조가 되는 육목가래가 있다. 한편 개펄 어촌에서는 낙지를 파는 삽을 가래 또는 가래삽이라고 말한다. 가래질과 관련된 노동요는 어업노동요로 불리는 '가래질노래', 묘를 다질 때 불리는 '가래소리'가 있다.

내용 가래질소리는 대개 느린가래소리와 자진가래소리로 나뉜다. 느린가래소리는 "에-일성 가래야 추로지신심에 성김을 받아 에-일성 가래야 신농씨의 가르침을 받아 에-일성 가래야 우리 대본에 방둑가래로다 서대산하 너른들에 에-일성 가래야 오곡풍년이 들리로다 에-일성 가래야 이가래 한삽에 만년뚝이로다." 같은 가사로 되어 있다.

충남 홍성에서는 논둑이 터졌을 때 농부들이 일심단결하여 터진 논둑을 새로 쌓으며 노래를 부른다. 한 곡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어낭천 가래허 어낭천 가래호
천지 조화로 무너진 둑을 어낭천 가래호
몸부름친다고 소용 있나 어낭천 가래호
한탄을 마소 긴심을 마소 어낭천 가래호
오늘 해전이 완공을 할거니 어낭천 가래호
어서빨리 술가져 오시오 어낭천 가래호
술동이 위에다 천자리포 덮었네 어낭천 가래호
이 뚝도 막고 저 뚝도 막세 어낭천 가래호
말잘하는 소진 장이 어낭천 가래호
육국 천하를 달랬건만 어낭천 가래호
소내기 구름을 왜 못 달랬나 어낭천 가래호
여보소 농군들 근력을 딜여서 어낭천 가래호
웬수 같은 소낙빌세 어낭천 가래호
잘도 헌다 잘도 허여 어낭천 가래호
우리 농군들 잘도 헌다 어낭천 가래호
어서 막고 집이 가세 어낭천 가래호.

충남 서천에서는 둑이 무너지면 울력(인력동원)을 해서 사람을 모아 둑을 보수하는데 이때 부르는 소리다. 한 곡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어낭천 가래놓세 어낭천 가래놓세
잘도 헌다 잘도 헌다 어낭천 가래놓세
힘있게 잘도 헌다 어낭천 가래놓세
요렇게 허다 보면 어낭천 가래놓세
오늘 해 전에 다 쌓겄구나 어낭천 가래놓세
놀세 놀아 가래질하며 농부가 부르면서
어낭천 가래놓세
잘들 허네 잘들 허네 가래질을 잘도 허네
어낭천 가래놓세
풍년일세 풍년일세 비가 많이 와 풍년일세
어낭천 가래놓세
비가 많어야 풍년이로다 농부네들 비 맞이야
풍년이로다 어낭천 가래놓세
다 쌓았구나 다 막었구나 냇둑 하나를 다 막었구나
어낭천 가래놓세.

의의 노동요 중에서 집단노동, 특히 호흡을 맞춰 둑을 쌓아올릴 때 하는 가래질소리는 노동과 소리와의 결합력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속한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편(문화방송, 1991),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3),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 2(최상일, 돌베개, 2002).
필자 | 나승만(羅承晩)

논삶는소리

정의 모내기를 하기 전에 써레로 무논을 고르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벼농사는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까닭에 자연스럽게 두레나 마을 단위의 집단노동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논에 거름을 해 넣는 갈꺾기, 써레로 무논을 고르는 논삶기, 모판에서 모를 쪄내는 모찌기, 모를 심는 모심기, 풀을 메는 논매기 등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내용 못자리가 선택되면 쟁기로 갈고 정월 스무날께부터 써레로 썬다. 써레질은 장써레라고 하여 맞덮고 두 번 갈아엎으며, 다시 십자 모양이 되도록 써는데 이를 곱써레라고 한다. 이렇게 두 번을 갈아야 땅이 고루 익는다고 한다. 써레질 뒤에는 고무래로 흙을 걷어올려 가며 개탕을 치고 판을 만들며 다시 죽가래로 판판하게 고르는데 이를 번디친다고 한다. 이때에 애거름인 모풀과 재를 깔고 발로 밟아준다.

논삶기는 논바닥의 덩어리진 흙을 깨뜨리며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을 말한다. 써레를 끄는 소와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은 논 2천평 정도라고 한다. 써레의 무게는 대개 8~10킬로그램으로 박달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따위로 만든다. 논에서 쓰는 써레를 무논써레라고 하고 밭에서 쓰는 써레를 마른써레라 한다. 전남 고흥에서는 옹이진 참나무 자염고 6~7개를 밑으로 하여 바닥을 만들기도 하고 옹이가 없으면 따로 발을 만들어 끼워 이것을 소가 끌게 하면서 장정이나 어린아이가 타거나 큰 돌을 얹기도 한다. 이것을 공이써레라고 한다. 써레질이 끝나면 논농사의 중요한 고비 하나를 넘긴 셈이므로 써레시침이라 하여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농악을 치면서 하루를 즐기는 풍습이 있다.

제주도는 논이 적다 보니 논농사 민요가 적은 편이다. 서귀포에서는 논 다루는 노래로 구석을 좇는 홍애기소리, 써레질소리, 밀레질소리, 모심는소리가 있다. 여기서 써레질 소리는 설메질소리라고 한다. 한 곡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어,
노픈 동산더레만(높은 곳으로만)
잡앙 이꺼 글라(자이 이끌어서 걸으라),
어 어이러 이 어 어라,
너미(너무) 간다 너미 간다
어어 앞더레 종긋하게 당기민,
노픈 동산더레 밀어 갈 거 아니냐 이러 허,
이러 이러 어 이러 이러 이러 이러,
발탕 발탕 당기여그네 앞발에 동물을 당기어 가면은,
어 우터레(너의 위로) 펄을 잘랑잘랑하게
이꺼야 바른 질을 걸을 거 아니냐,
홰 투리대기멍 말총말총 거머대기멍
발랑발랑 걸라 요녀난 쉐야,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이러.

강원도에서는 이른 아침 써레꾼이 먼저 소를 몰고 나가 논을 삶으면서 노래를 한다. 강원도 논삶는 소리는 다양한 편인데 그 중 한 곡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 이러, 아디야 이이 이 큰 암소야
어정거리지 말구야 이이,
제곬(고랑)으로만 찾어 들어라
이러 이러 에이,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 팔지 말고 가자,
이러 이러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 이러 이이이 어둬,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 얼릉 잽싸게 가자,
이러 이러 이 어둬.

전북에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 논을 고를 때 소가 없거나 논배미가 너무 작아서 소가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사람이 쇠스랑으로 논을 골랐다. 전북 김제에는 이렇게 쇠스랑으로 논을 고르면서 하던 소리를 '논꾸미는소리'라고 한다. 가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어허향 아허헤롱, 맞춰서 허소 맞춰서 허소
소리 대답을 맞춰서 허세, 일락서산의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으 달 솟아나네, 잘도 허네 잘도나 히여,
소리 대답을 잘도나 허네,
여봐라 춘향아 내 말을 들어라,
비개 높거든 내 팔을 비소, 어허양 아허헤롱.

의의 노래의 내용에 농자천하지대본을 중심으로 하

는 평범한 삶의 인식적 태도에서 우러나온 감정의 표현이 많아서 정서적 측면에서 삶의 긍정적 태도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재관리국, 1969), 韓國農器具攷(金光彦, 韓國農村經濟研究員, 1986), 한국의 축제(문화예술총서8,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87),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편(문화방송, 1991),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3),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 2(최상일, 돌베개, 2002).
필자 | 나승만(羅承晩)

따비질소리

정의 따비를 이용하여 땅을 개간할 때 부르는 노래. 제주도는 화산재로 이루어진 땅으로 일찍부터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발달했다. 해발 400~500 미터의 고지대에 올라가 척박한 땅, 특히 '목장밧'이라고 일컫는 산전(山田)을 일구는 데는 따비라는 도구가 필요했다.

내용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 손으로만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쟁기로 밭갈이를 할 수 없을 때, 굳은 땅 특히 마을 위쪽에 있는 곶밭, 선장, 새왓(띠밭)이라고 하는 곳을 개간하기 위해서 쟁기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따비였다. 따비로 일구어 만든 땅은 바로 그 해에는 팥이나 피와 같은 잡곡을 뿌리거나 면화를 심는다. 한 해를 묵힌 이듬해부터는 메밀을 심는다.

따비는 주로 남성들이 작업할 때 사용한다. 2인이 1조가 되어 힘을 모아 작업하는 쌍따비가 있고, 특히 자갈이 많거나 암석이 박혀 있는 땅에 사용하는 외따비가 있다. 이 따비야말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농기구이다. 따비를 들어올린 후 내리찍고, 좌우로 힘차게 흔들어 땅을 일구면서 부르는 따비질소리는 밭일구는소리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노동의 힘을 한 곳에 집약시키는 구호의 역할이 주가 되고 있으며, 더불어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세한탄이 있다. 아직도 제주도 중산간 지역 마을에는 간간이 전승되고 있다.

형식 따비질소리는 보통 가창 능력이 뛰어난 소리꾼이 혼자 하는 독창 형식과 선소리꾼의 소리에 여럿이 후렴을 받는 선후창 형식이 대부분이며 선율과 가락이 발달해 있다. 노동상황, 곧 연행상황이 사설이나



따비 국립민속박물관

가락 처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음보 구조는 2음보가 주를 이루고 후렴은 '더럼아 야', '어힛', '아 놀레로다' 같은 간단한 형태로 선소리를 보조해주고 있다. 다음은 서귀포시 예래동 따비질소리이다.

'자 작업을 해봅시다'
산벰ᄀᆞ튼 (산의 범과 같은) 요따비야
돌려나들렁(달려들어) 갈겨든다(땅을 일군다)
자던아기(잠을 자던 아기가) 일어나듯
오골오골 일어난다
ᄒᆞᆫ소리로 요일ᄒᆞ자(이 일을 하자)
ᄒᆞᆫ소리로 정신ᄎᆞ령
지쳤구나 자쳤구나
놀레나불렁(노래나 불러서) 날을 샌다
닭은울면 날을새고
우리ᄀᆞ뜬 인생들은
요일을 ᄒᆞ여야니(이일을 해야하니) 힘이 든다
청춘세월 가지를 마랑
젊어 청춘 늙어 백발
늙어지니 허수로고(허사로고)
요놀레불렁 시간ᄑᆞᆫ다(시간을 보낸다).

의의 따비질소리에는 따비로 일하는 현장이 잘 묘사되고 있다. 창자는 노래가 일을 재촉하는 기능과 더불어 힘든 노동으로 지친 육신과 정신을 맑게 하는 정화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여 사설을 구성하고 있다. 노동의 힘듦과 인생의 허무감을 주된 제재로 하면서 역동적으로 치러야만 하는 노동, 노래로서 힘에 부치는 노동을 이겨내는 지혜가 돋보인다.

참고문헌 | 濟州島 勞動謠 研究(趙泳培, 예솔, 1992),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편(문화방송, 1992).
필자 | 좌혜경(左惠景)

밭가는소리

정의 쟁기로 밭을 갈 때 소를 부리며 부르는 소리. 밭가는소리는 '소모는소리'라고도 하고 '이랴소리'라고도 한다. 전자는 밭 가는 일이 소를 부리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며, 후자는 '이랴'라는 말이 소를 부릴 때 수시로 내는 소리이기에 붙인 이름이다.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일은 논을 가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밭가는소리는 실상 논가는 소리와 같은 노래이다. 일의 내용에 따라 구분을 해 놓은 것일 뿐이다.

내용 밭가는소리의 중심 분포지는 강원도이다. 경기, 충청, 경북에도 이 노래가 전승되는 곳이 있지만, 그러한 곳은 거의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에서도 밭가는소리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 분포는 매우 성긴 편이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이 노래가 어느 곳이나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밭가는소리는 강원도에서 가장 성하게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쟁기질은 소를 한 마리 쓰는 곳도 있고, 두 마리 쓰는 곳도 있다. 소를 두 마리 쓰는 곳은 땅이 그만큼 거친 곳으로 강원도의 경우 그러한 땅은 대체로 영서지역에 많다. 그런데 밭가는소리도 사용하는 소의 수에 따라 '호리소소리'와 '겨리소소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는 소를 한 마리 쓸 경우이며, 후자는 소를 두 마리 쓸 경우이다. 그러나 두 노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소를 두 마리 쓰면, 왼쪽에 서는 소(안소)와 오른쪽에 서는 소(마라소)가 있게 되고, 농부는 두 마리 소에게 각각 명령을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므로 겨리소소리에는 안소와 마라소를 지칭하는 사설이 들어가며 호리소소리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다. 호리소소리와 겨리소소리는 사설에 이 정도의 차이만 보일 뿐이기에 이것들은 실상 같은 노래의 다른 모습을 말하고자 하여 구분지은 것이라고 하겠다.



경직도 국립민속박물관

밭가는소리는 농부가 소에게 건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설 내용도 작업과 관련하여 농부가 소에게 내리는 명령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농부 자신의 정서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이러어 이소
안소야 밑으로 내레스지 말어라
마라소 저 방뎅이 뒤루 물러시게
안야안야 안야 안야안야안야
안소 밀고 돌어시게
이러어 마라마 저 안소 밀구 돌어스게
오늘도 심심하니 옛노래나 불러볼까
이러 마러마 어서 저 안소 땡기게.

(이랴소리, MBC 한국민요대전·강원도 철원)

방뎅이는 나무를 베고 남은 밑동, 곧 그루터기를 가리킨다. 농부는 소에게 작업을 지시한다. 나무 그루터기를 피하고 또 안소와 마라소가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작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어 마음이 느긋해진 농부는 '옛 노래나 하나 불러볼까' 하면서 자신의 기분을 내비치고 있다. 밭갈기는 농부가 소를 부리며 혼자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밭가는소리 또한 듣는 사람 없이 농부 혼자서 부른다. 집과 가까운 텃밭을 갈 때는 간간이 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산간의 비탈밭을 갈 때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밭갈기의 작업공간에서 소는 농부가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소가 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말벗이 되는 것이다. 밭가는소리의 사설내용이 작업지시와 농부의 정서적 표현으로 구성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곧 작업동료와 말벗으로서의 정서가 밭가는소리의 배경을 이룬다.

밭가는소리는 사설과 곡이 엄격하게 틀이 잡혀 있지 않다. 사설은 행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또각 행도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구성된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이 나가는 대로 소리를 구성해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곡 또한 정해져 있는 틀이 없다. 말이 나가는 대로 리듬과 선율을 붙여주며 노래하면 그뿐이다. 그래서 밭가는소리는 길고 높게 내지르다가도, 갑자기 짧은 호흡으로 다그치듯 소리를 뱉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밭가는소리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고, 또 상황에 따른 즉흥성이 강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밭가는소리가 듣는 사람 없이 혼자 부르는 노래이기에 가능하다.

의의 밭가는소리는 농부가 소를 대상으로 혼자 부르는 성인 남성의 노래이다. 그런데 우리 민요 중에 성인 남성이 동물을 대상으로 부르는 노래는 밭가는소리가 유일하다. 이러한 면에서 밭가는소리는 그 연행상황과 배경이 매우 독특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 농부와 소의 정서적 소통을 주목해야 한다. 농부에게 소는 그만큼 각별한 존재였다.

참고문헌 | 강원도지역 '소모는소리'의 현장론적 연구(김진순,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필자 | 강등학(姜騰鶴)

밭매는소리

정의 콩, 팥, 조, 목화 따위를 심어놓은 밭에서 김을 매면서 부르는 소리. 강원도에서는 사디소리, 전라도에서는 홍글소리, 제주도에서는 검질매는소리라고도 한다.

예부터 논에서 김을 매는 일은 주로 남성들의 몫이었고, 밭에서 김을 매는 것은 대개 여성들의 몫이었다. 밭을 매는 일은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촌의 밭농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한 번에 큰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종일토록 넓은 밭을 매는 일은 인내력을 요하는 고된 작업이다. 밭매는소리는 지겹고 고통스러운 밭일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출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밭매는소리는 여성 노동요 가운데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노래이다. 현재 전승되는 노래의 수량도 많거니와 질적으로도 우수한 것들이 많다. 다음은 칠곡 밭매는소리의 일부이다.

> 불같이라 더운 날에 미같이라 지슨밭을,
>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골을 거듭매도
> 다른점슴 다나온데 이내점슴 안나오네,
> 집이라꼬 찾아가니 시어머님 하신말씀
> 어지왔던 새미늘아 아래왔던 헌미늘아,
> 밭이라꼬 몇골맸노 불같이라 더운날에
> 미같이라 지슨밭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 삼시골을 거듭맸소 어라이년 물러쳐라
> 그럴싸 일이라꼬 때를찾고 낮을찾나.

위의 노래는 시집살이를 노래한 서사민요의 하나로서 시집살이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출가하여 중이 된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시집살이의 설움과 고통을 밭을 매면서 달래고 있다. 밭 매는 일 자체가 즐겁고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의 가사 또한 밝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

밭매는소리의 가사 내용을 분류해 보면, 노동의 공복감을 노래하는 것, 임을 그리워하는 것, 노역을 하게 된 신세를 한탄하는 것, 시집살이를 슬퍼하는 것, 고난 받은 여주인공을 소재로 한 것들이 있다. 특히 시집살이를 슬퍼하는 노래와 고난 받은 여주인공을 소재로 한 노래와 같은 내용의 가사는 시집살이요나 삼삼는노래가 전용된 것이다.

형식 밭매는소리는 부르는 지역에 따라 가창 방식이나 곡조, 가사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점이 많다. 이는 그 지역의 자연 배경이나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밭 매는 작업은 한두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성들만 하는 곳도 있고, 남녀가 함께 하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이 그 작업의 상황에 따라 가창 방식도 독창이나 선후창 또는 교환창 따위로 달라진다.

밭매는소리를 부르는 곡조는 대개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아라리나 메나리조로 부르는 지역이 많고, 오독떼기나 진양가로 부르는 곳도 있다.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 산간지

역에서는 메나리조로 부른다. 또 전라남도에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부르는 지역도 있고, 일정한 곡조 없이 자유리듬으로 읊조리며 흥얼거리는 곳도 많다.

의의 주로 여성들이 많이 부른 밭매는소리에는 남성 우위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부조리한 삶의 질곡을 노래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에서 희생당해야 했던 여성의 한을 표출한 노래가 많다. 밭매는소리와 같은 노래를 통하여 특히 여성들은 부당한 현실에 항거하고 풍자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는 길을 모색했다. 가슴에 서리고 맺힌 한을 노래로 토로하고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었으니, 밭매는소리는 대표적인 여성 구원의 음악이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謠集(任東權, 集文堂, 1992), 韓國의 農謠 5(李素羅, 民俗苑, 1992),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강등학, 집문당, 1996), 濟州道民謠硏究 上,下(김영돈, 民俗苑, 2002).
필자 | 이현수(李鉉洙)

밭일구는소리

정의 괭이로 화전밭을 일구며 하는 소리.

내용 화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에다 불을 놓아 나무를 태워야 한다. 나무가 다 타고 재가 되면, 이어서 땅 속에 박힌 나무뿌리와 돌 따위를 파내서 흙만 남도록 한다. 이때 괭이를 이용해서 나무뿌리와 돌을 파내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밭일구는소리는 화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괭이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일은 산간지대라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밭일구는소리는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밭일구는소리가 보고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강원도의 영월군, 정선군, 동해시,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보고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화전 일구는 일이 법으로 금지되어 다른 농요와 달리 그 전승이 일찍 단절된 탓으로 보인다.

밭일구는소리의 사설 1행은 2마디로 구성되며, 후렴 또한 2마디로 구성된다. 후렴은 "에이여라 광이야","에헤 광이여" 하는 식으로 구음과 "광이"라는 말로 구성된다. 후렴에 "광이"라는 말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 노래를 '괭이소리'라고도 한다. 사설의 내용은 일반적인 농요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화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 부른 노래이기에 그 정서는 다소 다른 맛이 있다.

신농씨의 본을받아 에이여라 광이야
이팥밭을 파가지고 에이여라 광이야
누캉먹고 누캉사나 에이여라 광이야
광이농사 잘도된다 에이여라 광이야
금년에도 풍년지고 에이여라 광이야
내년에도 풍년되고 에이여라 광이야
이농사가 잘만되면 에이여라 광이야
부모봉양 잘할거고 에이여라 광이야
자손들도 배불리고 에이여라 광이야.

(괭이소리, 강릉어문학 7, 강원도 영월)

산간지대는 논과 밭이 적어 화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화전을 일구는 일은 매우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양식을 확보해야 했다. 위의 노래에는 그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화전에는 보통 조, 수수, 콩, 팥 따위를 심었는데, 그같은 농사가 잘 되어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들을 배부르게 하고자 하는 심정이 간곡하게 전달된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들을 건사하겠다는 의지는 논농사요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산간지대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그 절실함이 더하다.

의의 밭일구는소리는 선후창으로 부르며 주로 남성들이 부른다. 그런데 농사 지으며 부르는 민요로서 남성들이 선후창으로 부르는 것은 거의가 논농사요이다. 밭농사요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여럿이 공동으로 부르는 사례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역시 제주도를 제외하면 밭농사요를 남성들이 부르는 사례는 쉽게 접하기 어렵다. 그래서 밭일구는소리는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의 밭농사요로는 가장 방법과 연행 담당층의 측면에서 매우 드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제10차 학술조사 보고서 -강원도 영월군 일대-(江陵語文學7, 江陵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1992),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강원의 민요 I,II(강원도, 2001, 2002).
필자 | 강등학(姜騰鶴)

소모는소리

⇨ 밭가는소리: 봄편

써레질소리

⇨ 논가는소리: 봄편

집터다지는소리

정의 집을 지을 때 주춧돌 놓을 자리를 다지기 위한 기능요. 무거운 지경돌을 여러 가닥의 동아줄로 묶은 다음, 저녁 무렵에 마을의 장정들이 집 지을 곳에 모여 횃불을 밝혀두고 동아줄 가닥을 나누어 잡고는 노래에 맞추어 일제히 들어올렸다가 '쾅!' 내려뜨리면서 일을 한다. 동아줄을 10~16가닥 정도 맨다면 인원은 10~32명이 동원된다. 마을에 따라서는 지경돌 대신에 나무 뭉치 위쪽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둘 또는 넷이서 땅을 다지는 도구인 망깨로 작업하기도 한다.

집터다지는소리는 멕받형식(멕이고 받는 가창방법)으로 한다. 지경꾼들은 대체로 메김소리 때에 잠시 피로를 풀고 힘을 저축하였다가 받음소리를 하면서는 일제히 지경돌을 당겨 올렸다가 내려친다. 집터 다지는 작업에서 노동요는 불가분성, 신호성, 질서성, 능률성의 관계를 가진다. 지경돌을 일제히 들어올리기 위한 신호로서 노래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불가분적이고 신호적이며, 이러한 노래는 지경꾼들로 하여금 각자의 동작을 가지런히 질서있게 하도록 도움으로써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로를 덜어준다.

종류 집터다지는소리는 그 받음구의 종별에 따라 지경류, 지점류, 지정류, 상사류, 차류, 망깨류, 달고류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차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메김소리(메)와 받음소리(받)가 각각 3분박4박 한 마디씩이다.

지경류는 그 받음구 예가 "에이여라 지경이요"이다. 경기도(서울 포함)가 본고장인 소리로, 경기도의 민요권을 중부, 서북부, 남부, 동부로 나누었을 때 그 문화 중심은 고양, 서울, 과천 같은 중부경기도라 할 수 있다. 지점류는 그 받음구 예가 "에헤 지점이호"이며 충청북도가 출처이다. 지정류의 그 받음구 예는 "에헤이루 지정이야."이다. 강원도의 고성군 현내면과 양양군 강현면, 황해도의 평산군, 연백군, 금천군, 옹진군 서면 같은 곳들에서 녹음되었다. 상사류는 받음구 예가 "얼럴럴 상사도야."이며



지경다지기
강원도 동해시 국립민속박물관

전라도가 본고장이다. 차류와 망깨류는 경상도가 본고장이다. 앞엣것의 받음구 예는 "어이여로 차하"이고, 뒤엣것의 그것은 "어이여로 망깨야."이다. 망깨류는 못터다지는 소리로 더 애용되었다. 달고류는 그 받음구 예로 "어 남차 달구야."(원산시), "에헤 달구야."(강릉시 사천면), "에호리 달회야."(제원군 송학면) 따위가 있다. 본래는 묘터를 다지는 소리이나 집터를 다지는 일도 땅을 다지는 일이므로 곳곳에서 이따금씩 전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동이나 제주도에서도 달고류로 집터를 다지는 예들이 나온다. 기타에 속하는 것으로는 "오이도꼬 쫀다." 같은 외래형이 있다.

집터다지는소리의 본고장 소리들은 그 영향권에 따라 한 지역 안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 상주를 보면 모동면, 모서면, 공성면 같은 서남부는 경상도 계통인 차류이고, 외남면과 낙동면, 중동면 같은 동남부는 차류와 지점류가 공존하며, 그 밖의 지역은 충북이 본고장인 지점류 계통이다. 이리하여 상주 지역 전체로 보면 지점류가 차류에 비해 약간 더 우세한 경향이다.

특색 전통 방식으로 집터를 다질 때 소리는 빠뜨릴 수 없는 역할을 하며 멕받형식으로 가창된다. (메)와 (받)이 각각 3분의 4박 한 마디씩 또는 4분의 6박

한 마디씩(차류) 해서 한 마디씩임이 일반이다. 그 1박의 일반 속도는 MM 50으로 노동요에서는 보통 속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메김소리 때는 몸의 긴장을 풀고 힘을 비축하였다가 받음소리 전반부에서 지경돌을 들어올리며 받음소리 후반부에서 내려찧곤 하지만, 열을 올려 작업에 몰두할 때는 메김소리 때도 지경돌을 들어올렸다가 내려찧는다. 받음구의 종류에 따라 지경류, 지점류, 상사류, 차류, 지정류, 망깨류, 달고류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메김구로는 "이집지은 삼년만에 아들을 낳면 효잘 낳고 딸을 낳면 열녀로다." 같은 기복적인 내용, "불끈 들었다 쾅쾅 놓소.", "삼백근 몽치가 벌날 듯하네." 같은 작업 관련 내용을 비롯해 다양하다.

참고문헌 | 坡州民謠論(이소라, 파주문화원, 1997), 의성의 민요(의성문화원, 2000), 함평의 민요(이소라, 함평군, 2002).
필자 | 이소라(李素羅)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정의 삼사월의 이른 봄에도 꽤 추운 날씨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용 삼사월 꽃이 피고 잎이 날 때 추위가 오기도 하는데, 이때 추운 것은 날씨가 꽃과 잎이 피는 것을 샘하므로 춥다 하여 꽃샘 또는 잎샘이라 한다. 설늙은이는 젊지도 아니하고, 아주 늙지도 아니한 조금 늙은 사람을 말한다. 이를 반늙은이 또는 중늙은이라고도 한다. 삼사월에 꽃과 잎이 피는 것은 시샘하는 추위가 중늙은이 얼어 죽을 정도로 매우 추움을 뜻한다.

유사속담 "꽃샘, 잎샘에 반늙은이 얼어 죽는다.", "삼월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보리누름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말도 있다. 보리누름이란 보리가 누렇게 익는 철을 가리킨다. 이 무렵이면 날씨가 마냥 따뜻해야 할 터인데, 바람이 불고 춥기까지 한 날도 있는 것이다. "봄바람에 죽은 노인"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추위를 타는 사람을 놀리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참고문헌 | 속담사전(이기문, 민중서관, 1974), 우리말 속담 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최운식(崔雲植)

꽃샘추위는 꾸어다 해도 한다

정의 봄에 꽃들이 필 무렵에 반드시 한두 차례의 추위가 있다는 말.

내용 꽃샘추위가 반드시 있듯이 소한 추위도 반드시 있다는 말이다. 소한은 24절후의 하나로 동지와 대한 사이, 곧 양력 1월 6일 무렵으로 이때가 겨울 중 가장 추운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이 소한 집에 가 얼어죽는다."처럼 대한 때보다 소한 때가 더 춥다는 속담도 있다.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한다. 겨울 날씨가 추우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여름에 질병이 없는 법이다. 겨울이 따뜻하면 여름에 벌레가 많아 흉년이 들고 질병이 창궐하게 된다. 파종을 해도 벌레가 씨앗을 갉아먹고 혹 싹이 트더라도 각종 병충해로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한편 나무를 위해서도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한다. 그래야 뿌리가 깊게 내려 태풍에 대비하게 됨은 물론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게 된다. 달리 말하면 꽃샘추위는 하늘이 나무를 비롯한 온갖 식물에게 내리는 마지막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속담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가 있다.

참고문헌 | 조선속담집(엄병섭 · 박용순 · 김종선 · 류영걸, 사회과학출판사, 1992),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7).
필자 | 강재철(姜在哲)

이월 눈이 지게를 덮는다

정의 음력 이월에 오는 늦은 눈이 지게를 덮을 정도로 많이 온다는 말.

내용 제주도 속담에 "이월 눈 가린 지게 잠긴다(이월 눈 가린지게 ᄌᆞ문다)."가 있다. 음력 2월에 눈이 의외로 많이 쌓이는 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음력 2월은 봄에 해당되지만 눈이 내리면 마당에 세워둔 지게의 지겟가지가 잠길 정도로 많이 쌓인다. 초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날씨가 자정이 지나면서 함박눈이 마구 쏟아져 아침에 보면 다리가 빠질 정도로 많이 쌓일 때가 있다. 이 말 속에는 눈이 겨울철인 동지섣달에만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봄철로 접어든 이른 봄인 2월에도 예상외로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유사속담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는 "입춘날 내린 눈 작대기 잠긴다(입춘날 ᄂᆞ린 눈 가린작데리 ᄌᆞ문다)."가 있다. 봄의 문턱에 접어들어 눈이 내리지 않을 것 같지만 마당에 세워놓은 두 가지로 가려 있는 작대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오는 경우가 있다. 마치 등불이 꺼지려고 할 때 잠깐 환하게 밝아지듯이 마지막 눈이 폭설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날씨에도 일종의 회광반조(回光返照)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참고문헌 | 南國의 俗談: 濟州島俗談集(秦聖麒, 濟州民俗硏究所, 1959),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7),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강재철(姜在哲)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정의 이월에 부는 바람이 검은 암소의 뿔을 오그라뜨릴 정도로 몹시 세고 차다는 뜻. 꽃샘추위의 위력을 부각시킬 때 쓰는 말이다.

내용 제주도 속담에 "정이월 바람살에 검은 암소 뿔 오그라진다(정이월 ᄇᆞ름쌀에 검은 암쉐 뿔 오그라진다)."가 있다. 정월과 이월의 바람살은 동지섣달 못지않게 차갑다. 그 차가운 기운이 대단해서 검은 암소의 단단한 뿔이 굽을 정도로 매섭다는 것이다. 실제로 뿔이 오그라지지는 않겠지만, 봄철의 문턱에 접어들어도 세찬 바람이 위세를 부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음력으로 정월이나 이월쯤 되면 사람들은 으레 날씨가 풀린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은 이따금씩 추운 날이 있는 법이다. 그리하여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 "정이월 늦바람에 바위 끝 눈물난다." 같은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다. 특히 제주도는 삼다도(三多島)로 알려져 있듯이 바람이 많아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7),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강재철(姜在哲)

이월에 보리 환상(還上) 갔다가 얼어 죽는다

정의 이월의 늦추위가 몹시 춥다는 뜻. 유난히 추위를 못 참는 사람을 놀리는 말로 쓰기도 한다.

내용 환상(還上)은 조선 시대에 백성들에게 봄에 꿔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거두던 곡식을 말하는데, 환곡(還穀) 또는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이월은 추위가 풀리고 봄기운이 도는 때인데, 환상으로 주는 보리를 받으러 갔다가 얼어 죽는다는 말로 늦추위가 심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월의 늦추위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이월의 추위는 아무리 추워도 한겨울의 추위보다는 덜한데 그것을 못 참고 유난히 추위를 타는 사람을 놀리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필자 | 최운식(崔雲植)

2월 천둥이 조기 몰아 올린다

정의 음력 2월에 천둥이 치면 조기가 많이 나타난다는 뜻. 조기는 석수어, 추수어, 석어 또는 종어라고도 부른다. 조기의 종은 참조기, 부세, 보구치(백조기), 수조기(반애), 황강다리(황새기) 따위로 나뉜다.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에는 석수어가 중국어의 종어(鯼魚)인데, 종어의 음이 급하게 발음되어 조기로 변했다 하고, 『송남잡지(松南雜識)』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고금석림(古今釋林)』에서는 조기(助氣)는 사람의 기를 돕는다고 하였다.

내용 조기는 제수용으로 꼭 필요한 생선이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다. 조기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물고기로 주요 어장은 칠산 바다와 연평도이다. 제주도에서 월동한 조기 떼는 2월경에 북상하여 3월경에 흑산도 연해에, 4월에 칠산 부근에 이르러 산란을 시작한다. 4월 20일경 곡우 때 조기 떼는 어김없이 칠산 앞바다에 나타난다. 이때 잡은 조기를 '곡우사리'라 부른다. 춘분이 되면 우렛소리가 들리고 번개도 친다. 2월에 천둥이 치면 조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경험으로, 옛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남쪽으로부터 조기 떼가 몰려온다고 생각했다.

참고문헌 | 古今釋林, 松南雜識, 玆山魚譜.
필자 | 김낙효(金洛孝)





生業

생업

논갈이는 이월부터 시작된다.
이월의 첫 소날[丑日]에
첫 논갈이를 시작하는 날이라 하여
특별한 상징적 행위들을 벌인다.
이 날 소의 뿔 사이에 나무활을 묶고
불인 종이 꽃[紙花]을 달아 준 다음에
이 소를 몰고 논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일년 내내 질병이
소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속신이 있다.
써레질은 잡초의 씨를 땅 속 깊이 묻고
그 뿌리를 끊어 버림으로써
곡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름철 어려운 김매기를 덜 수 있게 한다.

가래질하기

정의 가래로 논이나 밭을 고르거나 흙을 떠서 옮기고 나르는 일.

내용 곡우(穀雨) 무렵이 되면 거름내기, 논밭갈이 그리고 가래질로 한 해 농사가 시작된다. 갈이 연장의 하나인 가래는 둑 손질, 도랑치기, 땅고르기 같은 데에 사용되며, 가래질은 고된 노동의 하나로 "가래질 끝내면 농사 준비 다했다."고 할 정도이다.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는 '**ᄀᆞ**래[**鍬**]', 『천일록(千一錄)』에는 '가내(可乃)' 그리고 『해동농서(海東農書)』에는 '험(**枟**)'으로 표기되어 있다. 방언으로는 앞에 날이 달려 있다고 해서 날가래, 날 부분이 넓적하다고 해서 넙가래, 가래보다 크다고 해서 큰가래 따위로 부른다.

가래는 크게 소나무로 된 가래장부, 무쇠로 만든 가래날, 짚으로 꼰 가래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정월 열나흗날에 쟁기봇줄과 함께 가래줄을 다시 들이는 풍속이 전한다. 가래질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잡고 가래날을 조절하는 장부꾼 한 사람과 가래줄을 잡고 당기는 줄꾼 두 사람으로 구성된 '세손목 한카래'로 한다. 그러나 일에 따라서는 줄꾼이 네 사람인 '다섯목 한카래', 줄꾼이 여섯 사람인 '일곱목 한카래' 같이 다양하게 조합된다. 한 사람의 장부꾼이 네 사람 이상의 힘을 조절하려면 큰 힘이 필요해서 "가래 장치꾼은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속담이 전한다. 가래날의 방향에 따라서 지면과 바로 대면 평가래질, 지면에 세워 대면 칼가래질 그리고 한쪽으로 비스듬히 대면 후릿가래질이라고 한다. 평가래질은 양쪽 힘이 균일해야 하며, 칼가래질은 세워진 쪽 줄만 당기고, 후릿가래질은 흙을 던지려는 반대쪽 줄을 좀더 많이 당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래날이 흔들리는데 이런 현상을 "가래가 춤춘다."라고 한다. 가래로 뜬 흙을 가래밥이라고 하며, 힘을 돋우기 위해서 "어낭청 가래여……." 같은 노동요를 부른다. 세 명이 하루 600평 정도 작업을 하며, 무게는 2.5킬로그램으로 4~5년 동안 사용한다.

참고문헌 | 千一錄, 海東農書, 訓民正音解例, 한국의 재래농기구(농업기계화연구소, 1990).

필자 | 이영재(李英宰)



가래질
충북 괴산면 심디스마

가지파종

개관 가지를 파종하는 일. 가지는 가뭄에 약한 편이나 비에 적응성이 강하고, 다소 습한 상태에서 잘 자라 청명(淸明) 즈음에 파종을 하여 8월에 수확을 한다. 토양 조건은 유기질이 풍부하고 토심이 깊은 충적토가 적당하다.

작물특성 가지는 열대지방에서는 관목 형태로 직립성 여러해살이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해살이풀로 재배하고 있다. 줄기는 나무와 같이 직립하여 높이 자랄 수 있고, 잎의 형태는 계란 모양으로 크기가 다양하다. 가지의 뿌리는 원뿌리와 곁뿌리로 되어 있는데, 원뿌리는 강하게 뻗어 내려가서 1미터 이상의 깊이까지 달하고, 곁뿌리는 상대적으로 가늘고 적으며 옆으로 성장한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여러 번 이식하지 않아도 된다.

재배방법 가지는 농가 텃밭에서 주로 재배하는데, 종자는 씨 가운데 물에 가라앉는 결실한 것만을 골라 말린 후 습윤한 곳에 파종을 한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보이는데, 허균이 지은 『한정록(閑情錄)』에는 "청명 때 볍씨와 같이 물에 담가두었다가, 이랑에 파종하여 2~3치 정도 자라면 옮겨 심는다. 드물게 심고 거름을 자주 준다." 하였으며,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에서는 "가지는 그 성질이 수분을 즐기므로 항상 습윤한 곳에 재배하는 것이 좋다. 만일 가지 묘목을 옮겨 심은 초기에 날씨가 가물면 물을 주고 직사광선을 쬐지 않도록

가려줄 것이며, 꽃이 필 때 무성한 잎은 제거해주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가지에 유황을 뿌려 작물의 결실을 돕기도 하는데, 『한정록』, 『사시찬요초』, 『색경(穡經)』에는 유황가루를 뿌리가 쪼개질 때 그루마다 소량씩 주면, 가지의 결실이 배로 되고 맛이 달다고 설명하였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가지 재배 시기에 대하여 적고 있다. 보통 음력 2월 하순에 심어 음력 5월 중순에는 열매를 맺는데, 속설에는 가지가 서리를 두려워하므로 음력 3월 무렵 서리 내릴 기미가 없어진 다음에 심어야 좋다고 하였다.

가지를 재배할 때는 전지를 하는데, 가지를 그대로 놓아두면 곁가지에서 나온 무성한 잎들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 꽃이 떨어지거나 과실의 색깔이 나쁘게 된다. 그러므로 보통 원가지와 강한 곁가지 두 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

수확 적기는 품종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개화 후 20~25일이 지난 후에 수확한다. 수확하는 시간은 오전중이 좋으며, 오후에는 과실의 온도가 높아 변질되기 쉽다. 수확한 과실은 저온에서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산림경제』에서는 "6월에 가지를 거두어 재[淋退灰]를 뿌려서 말렸다가 항아리 속에 저장한 후 겨울철에 가져다 먹으면 새 것과 같다." 하였다. 재를 뿌리는 것은 습기의 증발을 막아주는 것이고,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의 가지는 혈관을 강하게 하고 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잇몸 질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최근 들어 건강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지는 배고픈 시절에 먹거리로 이용되었으며, 가을에 달리는 가지는 맛이 달아 "가을 가지는 남도 안 준다." 하는 말도 있다. 가지는 우리 일상 생활 속담에서 시치미나 계절을 나타날 때 등장하기도 하는데, "가지 따 먹고 외수(外數)한다."는 남의 눈을 피하여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시치미를 뗄 때 쓰는 말이고, "까치가 발 벗으니 가지 따먹는 시절인 줄 아나"는 추운 날씨에 발 벗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고문헌 | 四時纂要抄, 山林經濟, 穡經, 閑情錄,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정연학(鄭然鶴)





1 가지
2 가지따기
농촌진흥청

감자심기

정의 씨감자를 논이나 밭에 심는 일. 감자심기 또는 감자놓기라고도 한다.

작물특성 가지과에 속하는 감자는 땅 속의 덩이줄기[塊徑]를 형성하는 괴경군에 속하는 작물로 비교적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산간 고랭지에서 그리고 서남해안 지방에서 주로 재배한다.

감자는 뿌리채소류 가운데 경제 가치가 가장 높은 작물이다. 온난지에서 한랭지까지 광범위하게 재배할 수 있는 적응성이 뛰어나며 식용으로 쪄먹거나 쌀에 섞어서 밥을 짓기도 하고 반찬용으로도 쓰며,

국수, 떡, 과자, 엿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감자의 전분은 공업용으로 널리 활용되기도 한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유럽으로 전래되었고, 17세기에 일본에 전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전해진 작물이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1824년(순조 24)에 명천(明川) 사람 김씨가 들여왔다는 설과 삼을 캐러온 청나라 사람들이 만주 간도 지방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있다.

재배방법 감자는 수확할 때 늦서리 염려가 없도록 가능한 한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음력 2월에 파종하였으나, 지금은 모내기 전에 수확하는 논감자는 양력 2월 하순, 남쪽 지방의 봄감자는 3월 하순, 고랭지 여름감자는 4월 하순, 남쪽 지방의 가을감자는 7월 하순이 파종적기이다.

씨감자를 싹이 날 눈이 붙어 있는 쪽으로 2~4조각으로 잘라서 심는다. 예전에는 자른 감자를 재에 버무렸는데, 그렇게 하면 데뎅이병과 검은점박이병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재 대신 농약으로 살균한다.

60~75센티미터의 이랑을 만들고 20~30센티미터 간격으로 파종하는데, 품종과 토양의 비옥도 그리고 기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산간 지방에서는 조밀하게 심고 평야지에서는 듬성듬성 심는다. 심을 때는 호미로 심을 곳을 파거나 극젱이로 골을 타고 씨감자를 넣은 다음 흙을 덮는다. 파종하고 싹이 올라오기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며, 싹이 올라와 잎이 벌어지면 두세 줄기만 남기고 솎아준다. 북주기는 꽃필 무렵에 한다. 가을감자는 남쪽 지방에서는 일찍 수확한 논에 심기도 하지만 대개는 밀, 보리를


1


2


3


4

1 씨감자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감자심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3 감자캐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이창호
4 감자담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수확한 밭이나 봄채소를 갈았던 밭에 심는다.

씨감자는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한 감자를 쓰면 생육이 불량하고 병에 약해 소출이 감소하는 '씨감자 퇴화 현상'이 있지만, 서늘한 산간 지방이나 바닷바람이 부는 해안 지방에서 재배한 이러한 현상이 적어 씨감자로서 좋다. 그리고 가을감자도 봄감자와 달리 기후가 서늘할 때 재배하기 때문에 봄에 씨감자로 쓰면 좋다.

수확방법 감자 수확은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방에 따라 이른 곳은 6월 하순부터 늦은 곳은 8월 상순까지도 하고, 가을감자는 서리가 올 때까지 두었다가 한다. 호미나 괭이로 캐거나 농사가 많은 농가에서는 쟁기를 쓰기도 한다.

예전에는 산간 지방에서 감자를 흔히 주식으로 썼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장해야 했다. 보통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펴 널어 한두 달 말린 다음 가마니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지하에 움을 만들어 갈무리하여 겨우내 꺼내 먹었다. 지금은 지하저장고나 저온저장고(低溫貯藏庫)에 갈무리한다.

참고문헌 | 재배식물의 기원(다나카 마사타케 지음, 신영범 옮김, 전파과학사, 1992), 주요작물 영농순기표(농촌진흥청, 1995), 改訂 栽培學汎論(趙載英·李殷雄, 鄕文社, 2000).

필자 | 박호석(朴虎錫)

고구마심기[甘藷-]

정의 씨고구마를 밭이나 묘상(苗床)에 심는 일. 씨고구마에서 자란 고구마 순을 잘라 밭에 심는 것을 고구마 모종 또는 고구마 심기라고 한다.

작물특성 메꽃과 다년생 초본에 속하는 고구마는 덩이뿌리[塊根]를 형성하는 괴근군에 속하는 식물로서,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여 순이나 줄기의 마디를 잘라 심어도 잘 자란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추정되는 고구마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유럽에 전파되었고 17세기에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중국에서는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몇 품종의 고구마가 수록되어 있어, 16세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고구마가 재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구마는 1763년(영조 39) 10월에 통신사 조엄(趙曮)이 일본으로 가는 길에 대마도에서 보내온 것이 처음이다. 그래서 고구마를 '감저(甘藷)'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하여 '남감(南甘)' 또는 '남저(南藷)'라고도 했다.

예전에 재배된 재래종에는 '번저'와 '산저'가 있었다. 번저는 뿌리가 희고, 약간 자색을 띠고, 맛이 달고, 모래땅에 심는 것이 좋으며, 산저는 뿌리색이 누렇고, 크기는 하지만 맛이 번저만 못하고, 들에 심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2 감저종식법(甘藷種植法)에서 감[柿]은 7가지, 순무는 6가지 이로움이 있는데 고구마는 13가지 모두의 이로움이 있다고 했다. 이를 요약하면 좁은 땅에서 소출이 많고, 맛이 달고, 참마의 효험이 있고, 적은 종자로 수확이 많고, 생육이 강하며, 식량으로 이용하면서 재해가 적고, 그릇에 담으면 수북하고, 술로 빚을 수 있고,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고, 날로도 먹고 익혀도 먹으며, 가뭄피해가 적고, 풀을 맬 필요가 없고, 해충의 피해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구마는 당질(糖質)을 약 25퍼센트 함유하고 있어서 식량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찌거나 굽거나 밥에 섞어서 먹기도 하고 반찬으로도 쓴다. 그 밖에 썰어 말리거나 엿, 과자,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포도당, 양조, 풀, 의약품, 화학약품, 화장품의 원료로도 쓴다. 잎과 줄기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쓰이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작물이다.

재배방법 예전에는 고구마를 직접 밭에 심었다. 2~3월에 두 자 깊이로 땅을 갈고, 2~3치 길이로 자른 씨고구마를 땅에 묻고 반치 두께로 흙을 덮어준다. 심는 거리는 수 자 정도로 하여 덩굴이 뻗어나가 무성하게 자라면 줄기를 잘라서 다른 곳에 심는다. 비가 오고 날이 개면 뻗어나간 줄기를 흙으로 덮어주는데, 거기서 뿌리가 나고 이를 잘라 다른 곳에 옮겨심기도 한다. 그리고 씨고구마가 썩거나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른 부분에 재를 묻혀 심었다.

지금처럼 온상(溫床)에서 싹을 틔우고 그 싹을 잘라 밭으로 모종하는 삽식재배(揷植栽培) 방식은 훨씬 나중에 등장한 재배법이다. 양력 3월 중순경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왕겨나 짚 같은 양열재료(釀熱材料)를 넣으면 이들이 썩으면서 온상의 온도가 섭씨 50~60도에 이른다. 이때 12~15센티미터 두께로 흙을 깐다. 그리고 온상의 온도가 섭씨 30~35도로

1 고구마심기
2 고구마캐기
3 고구마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정연학





안정되면 거기에 씨고구마를 심는다. 이때 씨고구마는 자르지 않는다.

습하고 따뜻한 온상에서 4~6주 지나면 고구마에서 싹이 돋는데, 이 싹을 잘라 밭에 모종한다. 고구마 모종은 지역에 따라 기후 조건에 맞추어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 사이에 하는데, 일찍 심을수록 좋다. 심는 방법은 호미나 모종삽으로 고구마 싹을 꽂을 구덩이를 파고 물을 준 다음, 순 쪽이 5~6센티미터 정도 밖으로 나오게 하고 나머지 줄기는 땅에 묻는 방법으로 삽식을 한다.

수확방법 고구마 수확은 서리 피해가 없다면 늦을수록 좋다. 지역에 따라 양력 10월 상순 이후에 호미나 괭이로 캔다. 농사가 많은 농가에서는 소가 끄는 쟁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쟁기의 날에 상하는 것이 많다.

수확한 고구마는 껍질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껍질에 난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건조시킨다. 건조된 고구마는 땅굴이나 움에 저장하거나, 사람이 사는 방 한 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짚이나 수수깡으로 통가리를 만들어 그 안에 저장하고 겨우내 식량으로 이용한다.

종자보관법 고구마는 작은 상처나 온도의 변화에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씨고구마 저장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보산림경제』 권2 장종법(藏種法)에는 씨고구마는 반드시 상강(霜降) 전에 캐서 온전한 것만 골라서 잘 씻은 다음 움[窖], 망태[苞苴], 항아리[缸] 또는 동이[盆]에 저장한다고 했다.

움 저장을 할 때는 양지바른 곳에 무를 저장하는 구덩이처럼 깊이 파서 움을 만들고, 여기에 말린 볏짚과 메밀을 타작하고 남은 검불을 넣고, 참황토[眞黃土]를 어레미로 쳐서 그 위에 깐 다음 거기에 고구마를 묻는다. 고구마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고,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두껍게 지붕을 덮어준다. 망태 저장은 마른 볏짚으로 만든 망태에 고구마와 함께 풀여물(잘게 썬 풀)을 섞어 담아 따뜻한 방의 벽에 매달아 두는 방법이다. 비록 고구마가 마르더라도 파종에는 무방하다. 항아리나 동이에 하는 저장은 깨끗이 씻어 말린 고구마를 항아리 속에 넣고 아가리를 단단히 막거나 고구마에 흙을 섞어 동이에 담아서 따뜻한 방 한구석에 놓아두는 방법인데, 동이의 경우에는 흙이 너무 마르면 새 흙으로 갈아주어 고구마가 말라죽지 않도록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흙을 섞은 독이나 왕겨를 섞은 상자에 고구마를 담아 따뜻한 방 한구석에 갈무리했다가 이듬해 파종하는 농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지하저장고나 저온저장고(低溫貯藏庫)에 갈무리한다.

참고문헌 | 本草綱目, 增補山林經濟, 農政新編(安宗洙, 1885), 改訂 栽培學汎論(趙載英 · 李殷雄, 鄕文社, 2000).
필자 | 박호석(朴虎錫)

고추파종[苦椒播種]

정의 고추는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으로 동양에는 17세기에 전래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이며, 여기에서는 남만초(南蠻草) 또는 왜겨자[倭芥子]라고 하였다. 이후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번초(番椒)라고 하였다.

품종을 구분하는 방식은 그 첫째가 산지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흔히 영양고추, 청양고추 따위로 부르는 방식인데, 이름에 따라 그 나름대로 품종 특색을 지닌다. 곧 청양고추는 매운맛으로 유명하며, 영양고추는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배합되어 있고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밖에 종묘회사에서 판매하는 '금탑', '조광' 같은 제품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내용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서 토양이 비옥하고 흙의 보수력이 좋으면서 배수가 잘 되는 땅이 적합하다. 또 바람이 잘 통해야 열매가 잘 달리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까다로운 재배환경 때문에 이어짓기(연작)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자주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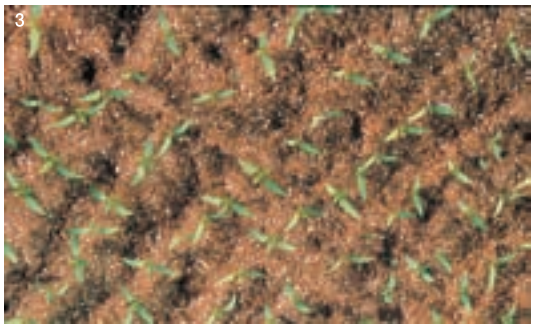
따라서 농가에서는 이어짓기를 되도록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 연작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

『임원경제지』에는 건조한 땅에 음력 2월 파종하여 4~5월에 비가 내린 후 옮겨 심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고추를 노지에서 키우는 농가는 거의 없다. 주로 비닐온상을 이용한다. 특히 많이 수확하고 시장에 빨리 내기 위해서 파종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인데, 대략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시작한다. 발아 적정 온도는 30~35도, 발육 적정 온도는 25도 이상으로 육묘는 온상에서 이루어진다. 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옮겨 심을 때에는 노지 직파보다 2~3할의 소출증대를 이룬다.

파종은 먼저 소독한 씨앗을 헝겊에 싸서 발아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운다. 싹을 틔운 상태에서 온상 안에 묘판을 설치하고 모종을 흩어 붓는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자라게 되는데, 이때 모종판에 다시 한 포기씩 이식한다. 모종을 본답으로 내는 시기는 냉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기온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데, 대략 양력 4월 중순 이후부터 5월 초순 사이에 이루어진다.

온상에서 모종이 자라는 동안 본답준비를 하는데 작물의 특성상 밑거름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밭갈






1 모종판 만들기
2 모종판에 물주기
3 고추싹
4 고추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이와 골타기를 한 후 망을 지어야 한다. 한 줄로 심을 때는 2~3자 내외로 좁게 망을 짓고, 두 줄로 심을 때는 3~5자 내외로 망을 넓게 만든다. 망의 두둑은 제초와 보온 그리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닐 덮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대로 옮겨 심은 다음 다시 비닐을 덮씌우기도 한다. 고추는 습기가 많은 것을 싫어하지만 가뭄에도 약하므로 배수와 관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다수확을 위해서는 첫 열매가 열릴 무렵 열매가 달리는 줄기 아래쪽의 곁가지와 첫 열매를 모두 제거해준다.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을 거의 열흘 간격으로 꾸준히 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수확과 보관 첫 수확은 대개 8월 초순, 본답에 옮겨 심은 후 90~100일이 지난 때에 한다. 첫물(첫 번째) 수확은 정식 수확이라기보다는 아직 익지 않은 열매들의 성장촉진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고, 본격적인 수확은 두물(두 번째) 수확부터 이루어진다. 대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수확에서 고추를 가장 많이 따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한물'이라고 한다. 대개 양력 9월말이나 10월까지 5~6번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한물 이후부터는 질이나 양이 점차 떨어진다. 수확한 열매는 대개 자동건조기를 이용해 말린다. 질 좋은 고가의 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햇빛에 말리기도 한다.

변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그루에서 풋고추 한 사발을 수확하기 어려웠으나, 요즘은 한 그루에서 한 근을 넘게 거둬들이는 경우가 흔하다. 그만큼 단위생산량이 늘어난 셈인데 이는 품종개량이나 농업기계화 그리고 비닐멀칭농법에서 기인한 결과라 하겠다. 비닐멀칭방법은 제초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유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조방식도 자연건조방식에서 기계식 건조방식으로 변화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문헌 | 山林經濟, 林園經濟志, 芝峰類說, 농업대사전(도서출판 농원, 1999),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金榮鎭·李殷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영양 사람들의 삶과 문화(안동대학교 국학부 민속학전공, 2002).

필자 | 김재호(金在浩)

논갈이

정의 음력 이월 첫 소날[丑日]부터 쟁기를 이용하여 논을 가는 농경 활동. 논을 갈아 흙이 공기에 노출되면 미생물의 분해가 빨라지고 지력이 커지기 때문에 행하는 농업활동이다.

내용 논갈이는 2월부터 시작된다. 이월의 첫 소날[丑日]에 첫 논갈이를 시작하는 날이라 하여 특정한 상징적 행위들을 벌인다. 이 날 소의 뿔 사이에 나무칼을 묶고 붉은 종이꽃[紙花]을 달아준 다음에 이 소를 몰고 논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일년 내내 질병이 소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속신이 있다.

논갈이는 논에 물을 잡고 하는 무논갈이와 논물 없이 하는 마른논갈이로 나뉜다. 무논갈이는 물 사정이 좋은 곳에서 하는 것으로, 겨울부터 논물을 받아놓았다가 갈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마른논갈이는 물사정이 나쁜 지역에서 논물을 잡지 않고 갈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갈이의 횟수는 물과 토질, 그리고 갈이용 소의 상태와 농민의 근면도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개 3~4회에 걸쳐 행해졌다. 쟁기를 이용해 마른논에서 세 번 갈이를 하는 경우에 초벌갈이는 두둑을 짓듯이 성글게 간다. 이것을 '초바닥갈이' 또는 '초분종'이라고도 한다. 두벌갈이는 초벌 때 만들어 놓았던 두둑을 쪼개듯이 간다. 초벌갈이와 두벌갈이의 성격은 보통 생땅 뒤엎기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겨우내 묵혀두거나 보리를 심었던 논에 처음으로 쟁기질을 하기 때문이다. 세벌갈이는 무논은 물론 마른논갈이에서도 논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한다.

논갈이 작업은 흔히 쟁기질을 의미할 만큼 논갈이 작업에서 쟁기는 가장 중요한 갈이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농경작업에서 쟁기를 이용한 우경(牛耕)은 농업생산력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온 아주 중대한 농업기술의 혁신이었다. 기록으로 보면, 신라 지증왕 3년(502)에 우경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가 논밭갈이의 작업에 쓰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통제에 잘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소를 농경작업에 이용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단위시간당 가장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논과 밭의 갈이작업이다. 갈이란 일정한 깊이로 땅을 파서 뒤집어엎음으로써 표층의 흙과 심층의 흙을 서로 반전시키는 것



논갈이
전남 해남군 방상운

이다. 소가 아무리 힘이 세고 길이 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농기구 없이 소의 힘만으로 갈이를 할 수는 없고 쟁기를 사용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중부 이북의 산간지역에서는 하나의 쟁기에 두 마리의 소를 결합하여 갈이를 하는 겨리농경[一犁二牛耕]이 일반적이며,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하나의 쟁기에 한 마리의 소를 결합하여 하는 호리농경[一犁一牛耕]이 일반적이다. 산비탈에 있거나 땅이 좁거나 배수가 나빠 쟁기질을 하기 힘든 곳에서는 쇠스랑이나 가래괭이를 써서 갈이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의의 수도작의 논갈이는 지역별로 쟁기질 종류가 다양하고 그 횟수에 차이가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토양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여 특화된 도구와 기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 청산도의 농업환경과 문화적 적응에 관한 일고찰(조경만, 島嶼文化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1), 韓國의 歲時風俗II-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농업과 농기구(주인택, 전라남도의 향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2).

필자 | 선영란(宣英蘭)

담배심기

정의 담배[煙草]의 모를 키울 묘상(苗床)에 담배씨를 심는 일. 묘상에서 자란 담배모를 밭에다 심는 일을 담배 모종이라 한다.

작물특성 담배는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열대성 식물이지만, 온대지방에서는 일년생으로 재배한다. 키는 1.5~2미터 가량 되고 줄기에 30~35장의 잎이 달리는데, 이의 절반가량을 잎담배[葉煙草]로 수확한다.

1492년 콜럼버스의 서인도제도 발견과 함께 유럽에 전파된 담배는 17세기에 필리핀, 중국, 일본을 거쳐 1618년(광해군 10)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를 예전에는 남초(南草) 또는 왜초(倭草)라고 한 것도 일본에서 전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담배의 품종은 크게 재래종과 도입종인 황색종으로 구분하며, 담배의 전래역사가 수백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재래종만도 9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배방법 예전에는 비옥한 토양에 묘상(苗床)을 만들어 겨울 동안에 흙을 곱게 부수고 인분(人糞)과 마분(馬糞)을 많이 넣고 써레질을 해둔다. 눈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곱게 부순 흙에 사람이나 말의 오줌을 쳐 거른 오줌재로 거름하고, 씨앗 두 홉에 오줌재 두 되와 연사 두 되를 섞어 춘분(春分) 때 파종했다.

밤이면 거적을 덮어주고 낮에는 거적을 걷어 햇빛을 받게 하고, 춥고 흐린 날이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거적을 덮어준다. 온양수(溫養水: 탄진, 모진개 다섯 되, 썩은 똥물 두 지게, 물 다섯 지게를 섞어 만든 물)를 뿌리고 싹이 4~5치 정도로 자라면 모종한다. 한 보에 두 이랑을 짓고, 도랑을 파서 두둑을 만든 다음 두 자 간격으로 심는데, 가랑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모종했다.

근년까지 농촌에서 볼 수 있었던 재배법은 예전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양력 3월 상순에 묘상을 만들어 파종하는데, 한 평에 일 킬로그램의 씨를 뿌려서 기른 모로 300평의 밭에 모종한다. 파종할 때는 씨앗이 아주 작기 때문에 퇴비에 섞어서 뿌리거나 구멍이 거친 물뿌리개에 씨를 넣고 흔들면서 물과 함께 뿌린다.

파종 후 고운 흙으로 얇게 덮고 한 달쯤 지나 잎이 4~5매 나왔을 때 뽑아서 가식(假植: 임시로 옮겨심기)한 다음, 양력 6월 상순경에 잎이 9~10장이 되면 제 밭에 모종한다. 가식을 했다가 모종하는 것은 잎이 자라면 좁은 묘상에서 생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 밭으로 모종하기 전까지는 비닐하우스 온실(溫室)에서 재배한다.

모종하는 시기는 품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재래종이 도입종보다 20~30일 가량 늦고 남부지방은 중부 지방보다 10일 가량 늦다. 모종 후 두 달이 지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때 꽃으로 가는 영양분이 잎으로 전달되도록 순지르기를 한다.

1 모종판 만들기
2 담뱃잎 따기
3 담뱃잎 엮기
4 담뱃잎 널기
5 건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최근에는 가식을 거의 하지 않고 비닐 포트[盆]에 직접 씨를 뿌려 잎이 9~10장으로 자라면 밭에다 모종한다. 재배시기도 앞당겨져 파종은 양력 2월 중순, 모종은 4월 중순에 한다.

수확방법 예전에는 먼저 밑동 쪽의 잎을 5~6장 따고 4~5일 후에 다시 5~6장을 따는 방법으로 수확했다. 그리고 잎을 따기 3~4일 전쯤 푸른 솔방울을 달인 물을 물뿌리개나 빗자루로 담배 잎에 뿌려 적셔주면 잎이 두터워지고 향이 좋아진다고 했다.

수확한 잎은 크기별로 가리고 이를 짚으로 엮어 햇볕이나 그늘에 말리는데, 저녁에는 걷어주었다가 아침에 다시 널기를 10일 정도 반복한다. 건조된 잎담배는 짚으로 만든 통가리에 저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년이 지나도 향기가 변하지 않는다. 순지르기를 한 뒤 5~10일이 지나면 밑동 쪽의 잎부터 처지기 시작하면서 잎이 연초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한번에 3~4장씩 4~5회에 걸쳐 수확한다.

수확한 잎담배를 말릴 때에 2~3층 높이 건조실에서 나무나 석탄을 때어 그 열로 3~4일간 말리는 방법이 근래까지 쓰였다. 이는 도입종인 황색종이 재배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이후에 시작된 방법이며, 그 후 비닐하우스 안에서 줄을 매고 햇볕에 말리는 방식이 보급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이 화력건조기(火力乾燥機)를 사용한다.

잎담배 품질의 중요한 기준은 색깔과 향기이며 이는 건조 과정에서 온도와 풍량(風量)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잎담배 건조에는 아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최적의 건조 조건에 맞추어 온도와 풍량을 자동 조절하는 화력건조기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 農政新編(安宗洙, 1885), 담배科學總說(韓國煙草學會, 1987), 栽培學汎論(趙載英 · 李殷雄, 鄕文社, 2000).
필자 | 박호석(朴虎錫)

대마파종(大麻播種)

정의 음력 2월 섬유 원료인 대마(大麻)인 삼씨를 심는 일.

유래 대마(大麻)는 삼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마(麻) 또는 삼이라고도 한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열대와 온대에서 섬유 식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중요한 섬유작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기록이 있다. 적어도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들어왔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작물특성 섬유용으로 재배되는 삼은 근래 들어 재배면적이 급감하는 추세로, 호남과 영남 같은 기후가 온난한 남부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뿌리는 지하 30~40센티미터까지 곧게 뻗어 들어가지만, 곁뿌리가 발달하지 않아 잘 뽑힌다. 줄기는 곧게 서고 횡단면이 둔한 사각형이며, 잔털이 있고 속이 비어 있으며 녹색이다. 줄기 표면에는 세로로 골이 파인다. 줄기의 횡단면은 표피세포 안쪽에 여러 층의 엽록소를 가진 하피가 있고, 그 안쪽에 유조직(柔組織)이 있으며 또 그 안쪽에 우리가 이용하는 섬유가 있다. 꽃은 암수딴그루이고 7~8월에 연녹색으로 핀다.

한국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주로 아시아계의 일본종이며, 지방에 따라서는 재래종을 재배하기도 한다. 재래종으로는 평창종, 영선종, 경남종, 고원종, 전남재래종, 강원재래종, 이천재래종이 있다.

재배방법 품질이 우수한 삼을 얻으려면 기후가 좋아야 한다. 생육기간에 기후가 온난하고 때때로 비가 내려 습기가 높으며, 성숙기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한 것이 좋다. 저온에서도 발아하지만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가 되어야 발아가 고르고 빠르므로 파종은 보통 양력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사이에 한다. 씨를 뿌릴 때 이랑 너비 25~30센티미터로 줄뿌림하는 경우가 많지만, 60센티미터 두둑에 흩뿌림을 하기도 한다. 섬유를 목적으로 재배할 때는 신장(身長)에 중점을 두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길이 6~7센티미터일 때 한번 솎아준 다음 15~18센티미터일 때 또 한번 솎아주어 고르게 자라도록 한다. 삼은 일찍 수확하면 섬유의 외곽은 좋지만 장력이 약하고 수량이 적으며, 늦게 수확하면 수량은 많지만 섬유의 빛깔이 좋지 않고 조강해지며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수확방법 삼을 낫으로 잘라내어 지름 20센티미터 가량의 다발로 묶어 거둔다. 거둔 삼은 냇가나 개울가에 설치한 가마로 가져가 찐다.

기타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로프, 그물, 모기장, 천막 같은 것들의 원료로 쓰인다.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로 쓰이고, 종자는 조미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화마인(火麻仁)


삼밭 농촌진흥청

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변비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털에서 나오는 진은 환각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말린 것이 대마초이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大韓植物圖鑑(李昌福, 鄕文社,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두산세계대백과사전(斗山東亞 百科事典硏究所, 두산동아, 2001).
필자 | 선영란(宣英蘭)

박심기

정의 박과의 일년생 덩굴풀[蔓草]인 박의 씨를 심는 행위.

내용 박은 덩굴손으로 다른 물건을 감아가며 뻗으면서 자란다. 음력 3월에 심어 9월 초순에 거둔다. 박속은 나물로 먹고, 껍질은 삶아 말려서 바가지나 뒤웅박을 만든다.

박은 토양 적응성이 크지만 특히 배수가 좋고 토양에 습도가 유지되면서 통기성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 박은 따로 밭을 잡아 심는 경우는 드물고 언덕, 담장, 지붕밑 같은 넝쿨이 자라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골라 구덩이를 파고 심는다. 구덩이는

박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황현만



호박과 같이 너비 1.5자, 깊이 1자 정도로 파고 퇴비를 잘 섞은 후 3~4알의 씨앗을 심는다. 많은 수확을 바라는 경우는 이전 해의 가을에 박구덩이를 크게 파고 퇴비를 넣는다. 인분을 한 장군 부어 발효시켜 지력(地力)을 돋우기도 한다. 여름에 흰 박꽃이 핀 후 열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짚으로 만든 또아리를 받쳐주어 균형 있게 클 수 있도록 한다. 호박처럼 크게 열리는 박 열매는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지면 수확한다. 호박은 여름에 수시로 따고 상강(霜降) 전에 모두 수확하지만 박은 한로(寒露) 이전에 완전히 익은 후 거둔다.

참고문헌 |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주인택(朱仁鐸)

밭갈이

정의 음력 이월에 채소나 곡식을 심을 밭을 처음 따비나 겨리쟁기로 갈아엎는 일.

내용 밭갈이는 논갈이와 연관이 깊다. 논갈이가 대부분 소와 쟁기를 이용하여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밭갈이는 밭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경작할 작물의 심는 체계와 심는 방식에 따라 따비, 쟁기, 극젱이, 가래, 쇠스랑, 괭이 같이 다양한 도구가 갈이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쟁기와 근원이 닿는 밭갈이용 도구는 따비이다. 『주역(周易)』에 신농씨(神農氏)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전하는 따비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쓰여 왔다. 서남해 섬지방과 제주도, 강원도에서 밭을 갈 때, 그리고 쟁기가 미처 갈지 못한 구석을 갈 때 따비가 쓰였고, 형태에 따라 크게 말굽쇠형, 코끼리이빨형, 주걱형으로 나뉜다.

쟁기 모습의 갈이용 도구는 따비보다 한층 발전한 것으로써 정확하게 시기가 밝혀진 바는 없으나 훨씬 후대에 발생하였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가축의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고 깊이갈이[深耕]가 본격화된 것을 미루어 그 즈음에 쟁기형 도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짐작되나,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끌었던 사례들도 있어 꽤 오래 전부터 쟁기형 도구가 사용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비는 몸체 자루와 쇠날 부위로 크게 나뉘고, 손과 발

을 사용하여 움직이는데, 쟁기형 도구들은 성에가 몸체의 중심 자루인 술에 연결되어 앞으로 길게 내뻗어 있고 끈이 달려 있어 견인할 수도 있다. 또한 면적이 넓은 철제 보습날이 끼워져 있어 흙을 일구는 능률이 높다. 쟁기형 도구들 중에서도 보통 쟁기라 부르는 도구는 일구어져 올라오는 흙을 되엎을 수 있도록 보습에 볏이 달려 있다. 몸체의 보습이 달린 술바닥 부위가 평평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볏이 없고 술이 곧게 내려가며, 술바닥이라고 할 부분이 거의 없는 극젱이도 쟁기형 도구에 속한다. 땅을 얕게 갈 때 극젱이가 쓰이며 때로는 사람이 직접 또는 지게에 매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축력이 사용되기 전에 사람갈이용으로 극젱이와 같은 형태가 쓰였으리라고 추측된다.

북부 지방과 강원도 산악지대에서는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데 이를 겨리(겨리질, 겨릿소)라 부른다. 현재 겨리는 밭갈이 작업에만 주로 이용되고 있다. 밭의 갈이작업을 횟수로 구분하여 보면 두 번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밭에 작물을 심기 훨씬 전에 밭을 우선 한 번 갈아두는데, 잡초나 흙 속에 남아 있는 이전 작물의 뿌리를 제거하면서 밭을 완전히 엎어놓기 위함이다. 이때 토양이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여 작물 성장을 돕게 하기 위해 밭에 두엄이나 비료를 군데군데 뿌려놓은 상태에서 갈이를 한다. 그러고 나서 작물을 심을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경작지를 갈이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고랑[**哄**]과 이랑[畝]을 만든다. 주로 밭갈이는 봄에 이루어지는데, 겨리농경을 통해 경작지가 어떻게 조성되는가를 살펴보면 파종하는 작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의의 밭갈이는 지역별로 토양환경에 맞춰 사용되는 도구와 기술이 다양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밭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작물의 심는 체계와 심는 방식에 따라 따비, 쟁기, 극젱이 같은 것들이 갈이도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周易, 겨리농경의 기술적 의의와 노동조직의 양상(李俊錫,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韓國의 歲時風俗 II-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농업과 농기구(주인택, 전라남도의 향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2).

필자 | 선영란(宣英蘭)



밭갈이
강원도 정선군 최수연

보리밭김매기

정의 보리의 생육과 동시에 발생하는 월동성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 잡초의 제거는 보리 수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리밭의 김매기 작업은 보리농사에 필수적인 일과의 하나이다.

시기와 횟수 보리밭의 김매기는 설날을 지내고 난 후부터 4월 초까지 이루어진다. 가을보리는 2~3회 매고, 봄보리는 1~2회 매거나 아예 매지 않기도 한다. 논매기는 남자들이 주로 하지만, 보리밭매기는 부녀자들이 주로 하고, 두레보다는 품앗이로 한다.

내용과 특징 보리밭에 자라는 잡초는 둑새풀, 능쟁이, 바랭이 따위인데, 둑새풀이 가장 대표적이다. 보리밭의 김매기는 잡초의 싹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뽑아내야 작업효율과 제초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잎이 5~6개 자랐을 때 초벌 김매기를 한다. 초벌은 음력설 무렵부터 한 달 동안, 두벌 김매기는 북을 주고 난 후인 3월 초에서 4월 초 사이에 한다. 보리밭의 김매기는 잡초를 뽑아내는 작업일 뿐 아니라, 겨우내 지표 위에 들떠 있던 보리의 싹을 가라앉히는 밟아주기의 효과도 있다. 또 호미로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표토를 고르게 함으로써 통기를 좋게 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김매기를 하면서 발아가 불량한 곳에는 싹이 빽빽이 돋아난 부분에서 솎아 보식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의 하나이다. 보식작업은 되도록 일찍 해야 활착률이 높으므로 대개 초벌 김매기 때 하는 것이 통례이다.



변천 및 풍속 보리밭김매기는 추운 날씨에 온종일 쪼그려 앉아 하는 매우 고된 일이어서 노동의 고단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보리밭매기 노래를 부르면서 하였다. 1970년대 초 '마세트' 같은 제초제가 등장하면서 보리밭매기 작업은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穡經,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농학개론(조장환 外, 선진문화사, 1991), 조선의 민속전통4 -로동생활풍습-(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조선시대 농법발달 연구(염정섭, 태학사, 2002).
필자 | 주인택(朱仁鐸)

봄보리파종

정의 봄에 보리를 파종하는 일. 보리는 파종시기에 따라 춘파형(春播形)인 봄보리, 추파형(秋播形)인 가을보리로 나누어지는데, 겨울의 추위가 심하여 가을보리를 파종하기 힘든 강원도, 평안도 같은 중북부 산간지방에서 봄에 보리를 파종한다. 대표적인 봄보리의 품종으로는 완주봄보리와 복대(福垈)가 있다.

시기 봄보리는 빨리 심을수록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혹한기만 넘기면 파종을 서둘렀다. 북한 지역에서는 춘분(春分), 경북 안동은 곡우(穀雨) 무렵, 전남의 남부 지역은 입하(立夏) 무렵에 파종한다.

내용 춘파성 품종을 가을에 파종하면 추위에 얼어 죽고, 추파성 품종을 봄에 파종하면 영양생장만 계속하고 이삭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봄보리는 추운 지방에서 동해(凍害) 방지의 목적으로 재배하지만, 파종시기를 놓쳤거나 논의 물 빠짐이 나빠 추파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을보리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파종의 방법은 밭보리일 때는 밭을 갈아 가느다란 이랑을 만든 후 '잔골뿌리기[狹播]'를 하고, 논보리일 때는 먼저 논바닥에 종자와 퇴비를 흩어 뿌리고 고랑의 흙을 파내어 종자를 덮어주는 방식의 '왕골뿌리기[廣播]'을 한다. 단위면적당 종자의 파종량은 중부 지방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봄보리 종자의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닥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아기간의 단축을 위해 파종하기 전에 미리 '싹틔우기[催芽]'를 하여 뿌리기도 한다. 싹틔우기는 미지근한 물이 든 항아리에 종자를 담가 불린 다음, 건져내어 시루에 담아 따뜻한 방에 하루 정도 놓아두면 싹이 튼다.

변천 요즈음 보리농사를 많이 하지 않는데, 가을보리에 비해 소출량이 적고 밥맛도 다소 떨어지는 봄보리는 거의 심지 않는다.

참고문헌 | 增補山林經濟,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田作(趙載英 外, 鄕文社, 1980), 조선의 민속전통4 -로동생활풍습-(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북한의 농업기술(신동완 外, 오성출판사, 1998),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주인택(朱仁鐸)

부추파종

정의 백합과의 다년생 식물인 부추의 씨를 뿌리는 일.

내용 부추의 잎은 식용으로, 씨는 약재로 쓰인다.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 중부 지역에서는 부추, 전라도에서는 솔, 경상도에서는 정구지 따위로 부른다. 식용으로는 김치, 전, 잡채, 짠지를 만들어 먹거나 살짝 데쳐 먹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부추는 남새밭에 자가소비용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 부추의 재배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가능한데, 파종하는 방법과 포기나누기 하는 방법이 있다. 씨를 뿌리는 경우는 김매기를 자주 해야 하고, 포기가 번식하는 동안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나누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뿌리에서 곧바로 뻗어나온 가느다란 잎을 모두 자르고 난 후, 뿌리를 2~3폭씩 나누어 심으면 곧바로 뿌리를 내려



부추 수확
경북 포항시 방상운

잘 살아난다. 거름은 재거름을 많이 주며, 가끔 사이사이에 소변을 뿌려준다. 수확은 일년에 보통 3~4회 정도 한다. 부추는 지력(地力)을 많이 소비하는 편이어서 해가 갈수록 성장이 더디고 잎이 부드럽지 못해 맛도 떨어지며, 부추밭도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3년마다 장소를 바꾸어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 | 주인택(朱仁鐸)

선배머슴대접하기

정의 머슴날인 이월 초하루 하루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갓 스무 살이 된 머슴들이 성년식을 치루고, 머슴들 간에 손위의 선배들을 대접하는 세시풍속의 하나.

내용 이월 초하룻날이 되면 주인은 술과 음식으로 한턱을 내고, 머슴들은 풍물을 치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소년들은 신체가 건강해도 어른들과 노동력을 맞교환하는 품앗이를 할 수 없으며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스무 살이 되어 한턱을 낸 다음부터는 성인 대접을 받아 어른들과 함께 품앗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아도 이월 초하룻날에 한턱을 내지 않으면 성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날 머슴들은 마을 어른들 외에 이미 성인이 된 선배머슴들에게도 음식을 내어 후히 대접한다. 이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으로 모두 어른으로 대접받아 서로 협력하며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서이다.

유사풍속 이와 비슷한 풍속으로 두레라는 공동 노동조직이 있는 마을에서는 새로 두레에 가입하게 될 스무 살 청년이 선배 성원들에게 술을 한턱내는 진세식을 가진다. 이는 이월 초하루가 아닌 백중날에 주로 하는데,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머슴들 사이의 우의를 다지고, 농사짓는 수고스러움을 덜어낸다. 이월 초하룻날의 선배머슴 대접하기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행해지다가 사라진 풍속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머슴들 사이의 노동의 상호협력을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세시풍속(학고재, 2001).

필자 | 서해숙(徐海淑)

써레질

정의 써레를 이용해서 모를 내기 직전에 갈아놓은 논바닥의 덩어리진 흙을 깨뜨리며 바닥을 판판하게 고르는 일.

명칭 써레는 쓰래(경기도 덕적도), 쓰레(경기 이천시), 써리(경남 영산), 써으리(전남 영광), 써그레(강원도 도계)로 불리며,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는 목작(木斫) 또는 소홀라(所訖羅)로 표기하고 있다. 『해동농서(海東農書)』, 『과농소초(課農小抄)』에서는 한자로 '파(耙)'라고 적고 있다.

써레종류 써레는 긴 토막나무에 끝이 뾰족한 이 6~10개를 빗살처럼 나란히 박고, 위에는 손잡이를 가로로 댄 것이다. 써레의 구조는 바탕이라고 부르는 손잡이와 써레발, 나루채, 찍게발로 이루어져 있다. 손잡이는 습기에 강한 버드나무나 소나무로, 써레발은 단단한 참나무나 박달나무로 만든다. 나루채는 써레 몸뚱이 앞면의 양쪽에서 앞으로 뻗어나오게 박은 나무로서 나루채 길이가 긴 것을 장써레라고 달리 부르기도 한다. 전남 고흥에서는 옹이진 참나무 자연목 6~7개를 밑으로 하여 바닥을 만들기도 하고, 옹이가 없으면 따로 발을 만들어 끼워 소가 끌게 하는데, 이것을 공이써레라고 한다.

짧은 써레는 나루채 끝에 봇줄을 매어 멍에와 연결하지만 장써레는 나루채 가장자리가 멍에와 연결되어 있어 소등에 바로 얹히면 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는 짧은 써레를 쓰는 반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장써레만 쓴다. 장써레는 봇줄 대신 나무로 채를 만들어 사람이 써레질을 할 때 힘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써레의 나루채 길이가 92센티미터인 반면 장써레는 250센티미터이고, 써레발의 폭은 모두 110센티미터, 길이는 19센티미터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써레의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왕정의 『농서(農書)』나 서광계의 『농정전서(農政全書)』의 써레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것과 모양이 같다. 이를 통해 14~16세기에 중국에서 사용한 써레와 우리 것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내용 『농사직설』 종도조(種稻條)에서는 "2월 상순에 기경을 하고, 써레로 숙치(熟治) 작업을 한다." 하였고, 『농서집요(農書輯要)』에서는 "2월에 해빙하여 땅이 마르면 기경한 후에 물을 넣고 10일째에 흙덩어리가 풀어지거든 써레[所訖羅]로 삶는다." 하였다.

써레는 논에서 쓰는 것을 무논써레, 밭에서 쓰는 것을 마른써레라고 달리 부르는데, 무논써레는 갈아놓은 논에 물을 대고 하는 써레질이고, 마른써레는 마른 땅의 흙을 부수는 것이다. 마른써레질은 써레발이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고 소가 끌게 하여 덩어리진 흙을 깨뜨리는 것으로 평상써레라고도 부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논에서 써레를 쓸 때는 '삶는다'고 하고, 밭은 '고른다'고 한다. 보통 농가에서는 모내기 2~3일 전에 무논갈이를 마치면, 다시 써레질을 해서 흙덩이를 부수고 바닥을 고른다. 써레질은 하루에 논 2,000평 정도를 삶을 수 있다.

써레질은 흙덩어리를 부수어 흙을 부드럽게 하며, 논바닥을 편평하게 하여 모내기 작업을 쉽게 하고, 물의 침투와 유실을 적게 하며, 비료와 흙을 섞어서 벼의 균등한 생육을 꾀하는 데 있다. 물이 잘 안 빠지는 논에서는 써레질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고, 산간지의 누수답에서는 써레질을 곱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써레질 방법은 사귀어치기와 돌아치기가 있는데, 사귀어치기는 우선 한 번은 논판을 가로 오가며 삶고 다음 번은 세로로 오가며 삶는 방법이고, 돌아치기는 논두렁 옆을 따라 빙빙 돌아 가운데로 들어가며 삶는 방법이다.

써레질은 깊을수록 좋기 때문에 소가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써레 손잡이를 눌러준다. 깊이 삶는 것은 벼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흙덩어리도 제대로 풀리게 한다.

기타 써레질은 잡초의 씨를 땅 속 깊이 묻고 그 뿌리를 끊어버림으로써 곡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름철 어려운 김매기를 덜 수 있게 한다. 또한 써레질은 흙 속의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작물에게 많은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횟수로 써레질을 하는 것을 풍년을 가늠하는 잣대로 생각하였다.

써레질은 농사의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써레시침이라 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농악을 치면서 하루를 즐긴다. 써레시침 또는 써레씻이는 써레를 씻어 걸어둠으로써 힘든 써레질을 마쳤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써레질 물은 형제간에도 안 나눈다.", "써레질 물은 사촌도 안 준다."라는 말은 모내기 전 써레질한 논의 흙탕물에는 비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





1~2 써레질
전남 신안군 암태도 심다스마

물의 유실은 토질의 거름기가 씻겨나가게 됨을 뜻할 뿐만 아니라, 써레질 물이 충분해야 모내기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소중히 여기라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참고문헌 | 課農小抄, 農事直說, 農書輯要, 農政全書, 王禎農書, 海東農書,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재관리국, 1969), 韓國農器具攷(金光彦, 韓國農村經濟研究員, 1986), 朝鮮後期農業史研究2(金容燮, 一潮閣, 1990).
필자 | 정연학(鄭然鶴)

참외파종

정의 박과(*Cucubitaceae*)의 한해살이풀인 참외의 씨를 뿌리는 일.

작물특성 한국에서 재배되는 참외(*Cucumis meto var. makuwa*)의 원산지는 중국 화북 지방으로 삼국시대에 만주를 통해 도입되었다. 원줄기는 덩굴손을 이용해서 길게 옆으로 뻗으며, 열매는 타원형의 장과(漿果)로 황록색이나 황색 또는 녹색을 띤다. 기후에 따라서 품질과 맛에 차이가 크다. 재래종으로는 은천참외, 강서참외, 성황참외가 있다. 1960년부터 은천참외를 개량하여 맛과 저장성을 높인 신은천참외와 금싸리기은천참외를 주로 재배하며, 개구리참외로 잘 알려진 성황참외 같은 재래종은 특산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재배방법 참외는 비교적 고온성 작물로서 발아적온은 25~30도이며, 일조량이 많아야 결실률이 높고 품질이 좋아진다. 토양은 산도 pH 6.0~6.8 정도의 사질 또는 점질양토가 적당하며, 뿌리가 얕게 내리므로 충분한 퇴비와 심경을 해야 한다. 재래식인 노지재배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사이에 파종하여 7~8월에 수확하며, 촉성재배나 억제재배 같은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재배는 5월에서 12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내용 알이 약간 작고 타원형으로 단단하며 냄새가 달콤한 것이 좋은 참외이다. 먹는 부분 100그램 중에는 90퍼센트 정도가 수분이며 나머지는 당질(7.3그램), 단백질(0.9그램), 섬유(0.9), 회분(0.8그램) 따위이다. 비타민C(10~200밀리그램)와 칼륨(14밀리그램)의 함유량이 높아 여름철 갈증해소와 피로회복에 좋은 알카리성 건강식품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참외가 진해 거담 작용을 하며, 풍담이





1 참외
2 참외밭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나 황달 또는 이뇨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외는 과일로서 그냥 먹기도 하지만 식혜, 술, 장아찌, 쩜,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참고문헌 | 東醫寶鑑, 本草綱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栽培飼育技術(鄭聖鳳, 大韓敎科書, 1993).
필자 | 이영재(李英宰)

춘경(春耕)

⇨ 논갈이: 봄편

1 파심기
인천시 구월동 이창호

2 파수확
충남 공주시 국립민속박물관





파파종

정의 백합과(*Liliaceae*) 여러해살이풀인 파의 씨를 뿌리는 일.

작물특성 파(*Allium fistulosum L.*)는 외떡잎식물인 백합과에 속하는 숙근성(宿根性) 여러해살이풀이며, 원산지는 중국 서부로 한국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한성과 내서성이 강하여 냉대에서 열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60센티미터까지 자라며 6~7월 무렵에 꽃이 핀다. 잎깍지[葉草部]를 이용하는 줄기파는 석창1본대파, 가가1본대파, 사촌1본대파, 천주흑, 그리고 잎사귀[葉身部]를 이용하는 잎파는 서울백파와 구조파가 주로 재배된다.

재배방법 파의 발아적온은 15~30도이지만 10도 이하에서도 발아가 잘 되며, 생육적온은 15~20도로 저온에 노출되면 추대(抽薹)가 되어 품질이 떨어진다. 습해와 산성에 약해서 pH 6~7 정도의 산도를 가진 표토가 깊고 통기성이 좋은 양토 또는 사양토가 적합하다. 파종기에 따라서 2~3월에 파종하는 춘파재배와 8~9월에 파종하는 추파재배로 구분한다. 파종방법은 지금까지 주로 흩어뿌리기(노가리)를 하였으나 중경, 솎음, 제초 같은 재배관리를 위해서 줄뿌리기가 좋다. 줄기파는 연백부의 생장이 좋은 저온 지대인 중부 지방과 고랭지에 알맞고, 잎파는 부드러운 잎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부 이남의 따뜻한 지방에 알맞다.

내용 파는 칼슘, 인, 철분,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고유의 자극적인 냄새와 맛으로 요리의 주재료나 보조재료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특히 유황이 많은 산성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의 기능을 도와주어서 『본초강목(本草綱目)』과 『동의보감(東醫寶鑑)』에 풍습, 복통, 마비통, 두통, 이통에 좋고 강장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東醫寶鑑, 本草綱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栽培飼育技術(鄭聖鳳,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3).

필자 | 이영재(李英宰)

대구잡이

정의 대구과의 바닷물고기인 대구를 잡는 일. 대구는 입이 커서 대구(大口)라고 표현하는데, 1950년대까지는 진해만 일원과 남해에서 많이 잡혔다.

내용 대구는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한겨울에 주로 잡히며, 육질이 기름기가 적어서 본래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에 딱 들어맞으므로 가장 즐겨 먹던 어종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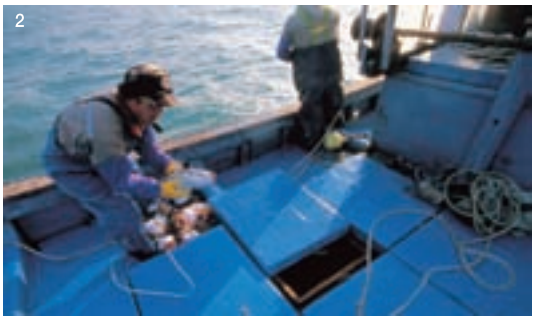
대구는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동해 이북의 북태평양, 즉 오호츠크해~베링해 일원에 살며, 서식수온이 4~12도 정도 되는 전형적인 한류성, 저서성 어족이다. 동해산 대구는 여름철 난류 세력이 확장되어 중층수온이 높아지면 그곳을 피하여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동해 중심부에 있는 만년냉수괴(萬年冷水塊)까지 내려간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 한류 세력이 확장되면 만년냉수괴의 세력도 확장되어 남쪽 끝부분이 혓바닥 내밀듯이 뻗어서 부산을 돌아 진해만으로 침입하여, 11~1월 한겨울에 진해만의 저층 수온이 4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시기가 있는데, 대구가 이때 이 해류를 타고 진해만 일대에 와서 산란을 하며, 일부는 거제도와 통영을 지나 남해 앞바다까지도 분포하였다.

진해만이 산란장으로서 좋은 것은 거제도와 가덕도에 둘러싸여 만내가 조용하고 서식수온의 한계 안에서는 남쪽에 위치하여 알의 부화와 성장이 빠르며, 플랑크톤도 풍부하여 부화된 치어의 성장에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영과 남해 앞바다는 이와 같은 산란장의 가장 변두리에 해당되는 곳인데, 대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아마도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어법 일제강점기에 대구를 잡는 데 쓰인 어법은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상남도에서 주로 쓰인 것이 소대망어법(小台網漁法)과 주복어법[壺網漁法]이다.

대구를 주대상으로 하는 어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소대망이다. 이것은 1900년대 초에 일본인 시호[四步一與助]가 진해만에서 대구를 잡기 위해 도입한 것이며, 그 후 통그물이 좌우에 있는 일기양통형도 고안했는데, 이것은 후에 멸치잡이에 널리 쓰였다. 따라서 대구를 주대상으로 하는 소대망도 기본 구조는 멸치 소대망과 같으나, 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구를 통그물로 유도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그물의 양옆에 통그물의 입구로 향하는 날개그물(화래)을 단 것이 많다. 당시에 쓰인 어구의 기본 크기는 길그물 600미터정도, 통그물의 폭 30미터, 길이 170미터, 통그물 입구 폭 30미터, 날개의 길이 135미터 정도였다. 1937년경 진해만 내 대구 소대망 면허 건수는 54건이었다고 한다.

통영 해역에서 대구를 잡는 데 쓰인 또 하나 대표적인 어구는 주복인데, 이것도 1898년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縣) 사람이 도입했다고 한다. 주복도 멸치잡이에 쓰는 소대망과 같이 유도함정 어구의 일종이어서 어구가 길그물과 통그물로 되어 있는 점은 같으나, 소대망은 어구를 한 번 설치하면 한 어기 동안 그대로 고정시키는 데 비하여, 주복은 어구를 이동하기 쉬운 점이 다르다.



〈대구잡이〉
1 이각망 대구잡이
2 이각망 대구잡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 김상수
3 자망 대구잡이
4 수협위판장의 대구
강원도 삼척시 원덕면 김상수

주복의 통그물은 크게 헛통과 자루그물로 구성되는데, 헛통의 전체 모양은 까래는 없으나 말[斗]이나 단지[壺]처럼 둥그스름한 우리이며, 자루그물은 원뿔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모양의 것을 헛통 둘레에 붙인 것인데, 자루가 3개 달렸으면 통그물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 삼각형이므로 삼각망, 5개 달렸으면 오각형으로 보이므로 오각망이라 한다.

자루그물에는 중간 중간에 대나무로 만든 둥근 테를 붙여 그물이 오므라들지 않게 하며, 그 테가 있는 곳마다 깔때기 그물을 붙여서 일단 자루그물로 들어간 고기는 되돌아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어획 성능이 매우 높다. 주복은 대구뿐만 아니라 도미, 볼락, 농어, 노래미 같은 연안의 바위 근처에 사는 고기를 잡는 데 널리 쓰였다. 훗날 진해만의 대구가 멸종하기에 이른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 주복의 어획 성능이 매우 좋았던 것이다.

기타 대구를 조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창자를 들어내고 4~5토막을 내어 무 같은 것을 썰어 넣어서 대구국을 끓이는 것인데, 이 대구국은 대구의 성어기가 동지 전후의 한겨울이었으므로 겨울을 나는 식품으로서 이 이상의 것이 없었다. 또 대구는 몸체나 내장을 여러 가지로 처리하여 장기 보존할 수 있었으므로 정말 버릴 부분이 없는 고기였다.

이러한 대구가 광복 이후 극도로 남획되어 멸종되다시피 했고, 1990년대 들어 정부가 인공부화방류(人工孵化放流)에 힘쓰고 있으나 자원의 회복은 쉽지 않다.

참고문헌 | 경남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 권삼문(權三文)

듬북조문

정의 바람에 쓸려 갯가로 밀려오는 밤색 조류의 하나인 '듬북'을 캐기 위해 갯가에서 이루어지던 행위. '듬북캐기'라고도 한다. 듬북은 하나의 개체를 지칭하는 명칭이라기보다는 바닷바람에 밀려 갯가로 나오는 풍조(風操) 전체를 이른다. 듬북조문이란 듬북을 캐기 위해 물 속에 들어가 작업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돗거름(돼지똥)과 정지(부엌)에서 나오는 재가 주요한 거름이었던 제주에서 모자라는 거름을 보충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듬북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듬북은 '몸'과 비슷하게 생겼고 주로 거름으로 사용한다. 말려서 눌었다가(쌓아두었다) 보리를 간 뒤에 덮어주는데 될 수 있는 한 많이 덮어준다. 바닷가 마을인 해각(海角)에서는 주로 듬북으로 보리밭의 거름을 하였다. 넓은 보리밭에 듬북을 덮어줄 수 없게 되면 돈을 들여 사서라도 비료를 주어야 했다. 물론 재로 거름을 했으며 소거름, 돗거름도 썼다.

보리가 시퍼렇게 난 뒤에 설을 쇠고 바로 보리밭에 듬북을 시퍼렇게 덮어주어야 종달이가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해야만 보리가 실하고 좋게 자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돈을 주고 사서 해야 했던 비료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해초(海草)의 하나인 감태도 비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화약의 원료로 공출(供出)하는 품목의 하나였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공출량이 할당(割當)되었고 이를 바치지 못하면 벌금이 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물질하는 잠녀가 있는 집은 잠녀가 가서 따고, 몇 집이 어울려서 '테우'를 타고 가서 베어와 말렸다. 물론 공출 전에는 거름으로 썼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생활에 이용했던 옛 선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민속의 하나로 화산섬 제주의 거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제주에 화학 비료가 나온 것은 4·3 항쟁 이후였으나, 흔해진 것은 그보다도 훨씬 나중이었다. 그것도 흰 비료 한 가지만 나왔는데 쉽게 살 수도 없었다. 보리농사를 하지 않고 밀감농사를 주로 하게 된 후에서야 인산, 가리까지 네 가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듬북조문
제주도 서귀포시 김상수

요즘에는 전처럼 바다에서 감태나 듬북이 나지 않는데 바다의 오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료가 많이 보급되고 나서 듬북을 덮는 일에 힘이 많이 들었으므로 그때부터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의의 농경 생산력의 증대(增大)를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농경의례는 물론, 검질매기 같은 농경기술이 활용되었으며, 거름의 이용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제주도해양생물의 지방명 I -藻類- (이기완, 硏究報告5, 제주대학교해양자원연구소, 1981).

필자 | 김동섭(金東燮)

숭어잡이

정의 독살, 구덩이, 뗏발 같은 전통 어구를 이용해 숭어를 잡거나, 낚시 또는 이각망, 삼각망, 각망, 육수망, 건강망(개막이) 같은 그물함정을 이용해 숭어를 잡는 일.

어원 숭어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며, 크기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다. 숭어는 우리나라 물고기 중 방언이 제일 많기로 유명하다. 방언은 대부분 숭어가 성장함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어서 출세어라고도 하는데 그 종류만도 100개가 넘는다. 걸치기, 객얼숭어, 격얼숭어, 글거지, 나무래기, 대다리, 댕기리, 덜미, 동숭어, 동아, 동어, 뚝다리, 모그래기, 마룩쟁이, 말어, 먹그물모쟁이, 모대미, 모댄, 모댕이, 모쟁이, 모지, 모찌, 모치, 목시락, 몰치, 못찌, 못치, 몽어, 무근사슬, 무근정어, 무글모치, 무찌, 무치, 미렁이, 미패, 살모치, 셋메기모쟁이, 수치, 숭애, 애사슬, 애정어, 언지, 준거리와 같은 많은 이름이 전국 각지에서 쓰이고 있다. 조상들은 숭어의 모양이 길고 빼어나다고 해서 수어[秀魚, 首魚]라고도 불렀다.

숭어가 많이 잡히는 전라남도 무안에서는 큰 것을 숭어, 작은 것을 '눈부럽떼기'라고 부르는데, 크기가 작다고 "너는 숭어도 아니다."라고 했더니 성이 나 눈을 부릅떴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특히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 지역인 영산강 하류에서는 지역마다 숭어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무안에서는 제일 작은 숭어를 모치라고 하며, 그 다음은 참동어, 손톱배기, 4년 정도 자라면 댕가리, 5년은 딩기리, 6년은 무구력, 7년은 자라야 숭어라고 부른다. 영암에서는 모치, 묵은못, 딩기리, 모그락, 숭애, 강진에서는 모챙이, 준거리, 숭어라고 칭한다.

유래 정약전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치어(鯔魚)라 적고, 작은 것을 속칭 등기리(登其里)라 하고 어린 것을 모치(毛峙)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는 물고기의 으뜸으로 수어(秀魚)라고 했으며,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수어(水魚)라 하였다. 그리고 서유구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는 숭어의 황금빛 알은 "햇빛에 말리면 그 빛깔이 호박 같고 맛은 진미"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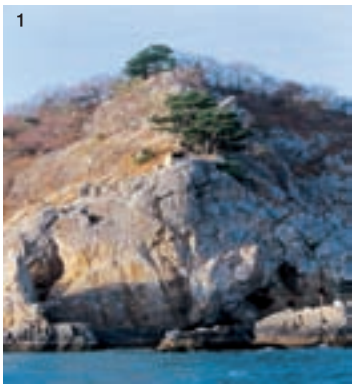
『자산어보』에서는 큰 놈은 길이가 5~6자 정도이며, 성질이 의심이 많고 화를 피하는 데에 민첩할 뿐 아니라 헤엄을 잘 치며 잘 뛴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숭어의 특징을 "물이 맑으면 그물에서 열 발자국쯤 떨어져 있어도 그 기색을 잘 알아챌 수 있으며, 그물 속에 들었다 해도 곧잘 뛰쳐나간다. 그물이 뒤에 있을 때에는 물가로 나가 흙탕 속에 엎드려 있고 물속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 그물에 걸려도 그 흙탕에 엎드려 온몸을 흙에 묻고 단지 한눈으로 동정을 살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맛이 좋아 물고기 중에서 제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숭어는 여름철에는 좀처럼 잡기 어려우며,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물에 걸리기 시작한다. 숭어는 봄철이면 맛도 좋고 많이 잡힌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숭어의 부릅뜬 눈에 하얀 막이 생기기 시작해 초봄이면 눈에 막이 쌓인다. 이때 숭어들이 그물에 많이 들어 잡힌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바다가 뒤집힐 정도가 되면 그물에 하얗게 숭어가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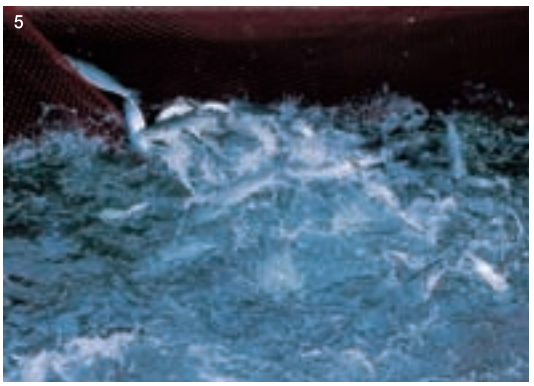
내용 및 지역 사례 숭어는 숭어(참숭어, 알숭어), 가숭어(개숭어), 등줄숭어로 구분한다. 도구를 이용해 숭어를 잡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어살이었다. 돌을 쌓아 만든 독살이나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죽방렴으로 갯골을 막아 숭어를 잡았다. 그물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목망, 안강망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만 최근에 연안 어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숭어잡이는 각망, 자망, 삼중망, 건강망 따위이다.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숭어는 그물에 걸리면 스스로 요동을 치면서 그물에 감기고 만다.

숭어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잡는 개땀이 두레가 있다. 전남 진도에서는 개막이로 숭어를 잡았으며, 전북 고창에서는 뻘구덩을 파고 말뚝을 박아 그물을 걸어 잡기도 하였다. 지역적으로 영산강에서는 참숭어가 많이 잡히고 섬진강에서는 개숭어가 많이 잡힌다.

낚시로 떡밥 같은 미끼를 쓰는 미끼낚시와 훌치기낚시가 있다. 훌치기낚시는 동해안의 영덕 같은 곳에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3갈구리(일반 낚시 3개를 묶어서 만든 낚시)를 숭어가 지나는 길목에 던져서 훌치는 방법이다. 그곳 주민들은 강도낚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숭어잡이〉
1 숭어잡이 망루
2 육수장망으로 숭어떼 포위
3 망루의 어로장
4 그물거두기
5 그물에 걸린 숭어
6 귀항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 김상수

부산 가덕도의 어민들은 '가덕도 대항 숭어들이'라는 이름으로 160여 년간 독특한 방법으로 이어져 온 전통 방법으로 숭어를 잡고 있다. 봄철이 되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숭어가 연안 수면 가까이로 떠오르면 산중턱에서 망을 보던 어로장이 "후려랏!" 하고 소리친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대여섯 척의 무동력 어선들이 일제히 그물로 숭어떼를 둘러싼 뒤 건져 올린다. 이를 육수망이라고 부른다. 부산 강서구청에서는 매년 4월 말 이러한 전통 숭어잡이를 지역축제로 재현하고 있다.

영산강 하류에서 숭어를 잡던 전통방식은 뗏발이다. 숭어의 뛰는 습성과 물에 뜨는 갈대를 이용해서 잡는 방법으로 갈대를 여러 매듭으로 묶고 매듭마다 통대나무를 엮어서 70미터나 되는 뗏발과 뗏발 앞에 쳐놓을 뗏줄을 준비한다. 그리고 강을 가로질러 뗏발을 펴고, 몽둥이를 든 접군들이 수면을 치면 숭어가 놀라서 깊은 곳으로 몰려든다. 눈이 밝은 숭어는 뗏줄을 보고 놀라서 뛰어넘다가 뗏발에 떨어지면 당구리(가래와 같은 모양)로 수어를 두들겨서 잡는다. 이 방법 외에도 배 두 척이 그물로 싸잡는 갱짜코나 훌치기낚, 공낚이 이용된다. 다음은 영산강 하구의 마을에서 불리는 뗏발을 띄우고 당구리로 숭어를 두들겨 패는 강마을 사람들의 뗏발치는 가래소리이다.

어허 넝청 가래야, 이 강 저 강 다 댕겨도,
이 강만한 강 없더라.
너기 넝청 가래야, 숭어 잡고 살다 살다,
이 강에다 뼈 묻을래, 어허 넝청 가래야,
이 강물에 시름 씻고 늙음마저 씻고 싶네.
너기 넝청 가래야.

기타 '5농 6숭이요 5, 6서에 준 사철이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농어는 5월에 숭어는 6월에 서대는 5월과 6월에 준치는 사철 맛이 좋다는 말이다. 곧 바닷고기의 맛은 생태환경, 산란기,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숭어 맛은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가장 좋은데, 계절마다 달라서 겨울 숭어는 달고, 여름 숭어는 밍밍하며, 가을 숭어는 기름이 올라서 고소하다고 한다.

겨울철의 대표적인 생선회로 숭어를 치는 속담으로 '숭어맛을 겨울숭어 앉았다 나간 자리 뻘만 훔쳐 먹어도 달디달다.', '여름숭어는 개도 안 먹는다.' 등이 있다. 그리고 숭어맛의 빼어남을 지적한 '숭어껍질에 밥 싸먹다 논 판다.'라는 속담도 있다.

서남해 일부 지역의 어촌에서는 숭어서리가 있었다. 농촌에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 수박서리, 참외서리가 있었고, 좀 철이 들면 명절이나 정월 대보름 무렵에 닭서리가 있었다. 숭어서리는 개막이를 해놓은 갯벌에 주인 몰래 들어가 그물에 걸린 숭어 몇 마리를 걷어오는 것을 말한다.

의의 숭어의 알로 만든 어란(魚卵)은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되거나 큰 종가집의 술안주로 이용되었다. 염장, 건조, 압축, 재건조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귀한 음식으로 친다. 경기도 평택과 전남 영암에서 어란이 전해왔지만 지금 어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영산강 하류의 무안 몽탄 지역이다. 이곳에서 잡은 숭어는 그 맛이 빼어나 조선시대부터 명성을 얻었다. 어란은 숭어알 외에 조기알이나 민어알로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숭어알로 만든 어란을 따를 수 없으며, 몽탄 숭어는 더욱 알려져 있다. 한편 숭어는 일본 에도(江戶)시대에 성게, 해삼 창자젓과 함께 천하의 3대 별미로 꼽히며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다.

영산강 하류에 속하는 나주에서는 당산제를 위한 제상에 숭어를 제물로 올리는 마을이 있다. 보통 제물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이나 귀한 것을 올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숭어가 이곳 특산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영산강 하구언이 생기기 전에는 바닷물을 오가는 숭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며 이곳에서는 숭어는 대표적인 어종이었다.

숭어는 음식과 술안주만 아니라 약재로 이용하였다. 한방에선 어떤 약과도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는 위(胃)를 열어 먹은 것을 통하게 하고 오장(五臟)을 이롭게 하며 살찌게 한다고 적고 있으며, 진흙을 먹으므로 온갖 약[百藥]을 쓸 때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적혀 있다. 『난호어목지』에 "숭어를 먹으면 비장(脾臟)에 좋고, 알을 말린 것을 건란(乾卵)이라 하여 진미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건제품(乾製品)을 건수어(乾水魚)라 하며 자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소비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蘭湖漁牧志, 東醫寶鑑, 世宗實錄地理志, 玆山魚譜, 鄕藥集成方,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漁民의 環境認知와 適應戰略 -거제도 '숭어들이'를 中心으로-(이경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남도의 맛과 멋(송수권, 창공사, 1995), 경남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숭어도둑(이청준, 디새집, 2003),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필자 | 김준(金準)

지충캐기

정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초(海草)인 지충을 캐는 일. 힘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비료가 싸게 보급되기 시작한 뒤로는 하지 않는다. 지충을 지역에 따라 지충이 또는 주충이라고 달리 부른다. 지충은 서귀포, 성산포 지역에서 주로 부르던 지역어이다. 화산섬인 제주에서 모자라는 거름을 보충하기 위해 지충을 오래 전부터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조간대(潮間帶)에 사는 해초인 지충을 캐어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한다. 집안의 식구들이 전부 바다로 나가 캐고, 베고, 줍는 일을 하여 걷어온다. 이를 듬북처럼 말려서 눌었다가 파종한 보리밭을 덮어준다.

보리밭에는 될 수 있는 한 듬북처럼 많이 덮어주면 좋다. 바닷가 마을인 해각(海角)에서는 주로 듬북이나 지충 같은 해초를 거름에 충당하였다. 많은 밭에 해초로 거름을 할 수 없게 되면 돈을 들여 화학비료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해초를 이용한 거름의 확보는 중요한 농경의 하나였다. 해초 이외에도 재나, 소와 돼지의 똥을 거름으로 썼다.

특히 제주는 다양한 해초를 거름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농사를 위해 여러 가지 바다 산물을 이용하는 모습을 제주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멸치가 많이 잡힐 때는 멸치도 거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의의 농작물의 생산력 증대(增大)를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입춘굿놀이, 마을제 같은 농경의례는 물론 보리뿌리점 등을 통해 풍년이 들 것인지를 점치기도 하였다. 지충캐기는 해초까지도 거름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높이기 위해 애썼던 선인들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민속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제주도해양생물의 지방명 I - 藻類 - (이기완, 硏究報告5, 제주대학교해양자원연구소, 1981).
필자 | 김동섭(金東燮)

주꾸미잡이

정의 주꾸미가 소라나 조개 또는 전복의 껍데기에 서식하는 습성을 이용해 주꾸미 주낙을 이용하거나 낭장망 그물을 이용해 주꾸미를 잡는 일.

어원 『자산어보(玆山魚譜)』에 '죽금어[踊魚]'라 하였으며 "크기는 4~5치에 불과하고 모양은 문어를 닮았으나 다리가 짧다."라고 하였다.

유래 주꾸미의 산란기는 5~6월이며, 조간대 하부에서부터 수심이 깊은 갯벌 바닥에 살며 수영을 아주 잘하고, 물이 빠져 밖으로 노출되면 모래를 파고 재빨리 숨는다. 주꾸미는 주로 고둥, 전복, 소라의



1 주꾸미잡이
2 소라껍데기
3 소라껍데기 속 주꾸미
전북 고창군 방상운

껍데기를 몇 개씩 묶어서 바다 밑에 넣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잡는다.

장흥, 고흥의 득량만과 보성만, 무안, 부안, 군산, 서천 같은 서남해안 지역에서 주꾸미가 많이 잡히며, 군산, 서천, 곰소 같은 지역에서는 봄철에 주꾸미축제를 열고 있다. 특히 격포항, 모항, 곰소항, 궁항, 위도항으로 들어오는 부안 주꾸미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많이 잡힌다. 부안의 주꾸미는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곰소항은 봄철이면 주꾸미를 먹기 위해 멀리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내용 및 지역사례 주꾸미는 지역에 따라 잡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서해 남부에서는 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9월 무렵이면 주꾸미를 잡기 시작해서 가을철이 한철이고, 서해 중부에서는 2월 하순부터 5월 하순에 주로 주꾸미 조업을 한다.

조업하며 잡는 방법은 주꾸미주낙과 낭장망 두 가지가 있다. 주꾸미주낙은 소라껍데기를 이용하며, 낭장망은 그물을 이용한다. 낭장망을 이용하여 잡은 주꾸미는 씨알이 잘고 싱싱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득량만과 곰소만 같은 부안 지역에서는 주꾸미주낙을 주로 이용한다. 이를 소라빵이라고도 부르는데 산채로 잡기 때문에 맛이 더욱 좋기로 유명하다.

주꾸미주낙은 몸줄에 60여 센티미터 간격으로 소라(피뿔고동)나 피조개의 껍데기를 달아서 만든다. 이 껍데기들을 주꾸미단지라고 하는데, 주꾸미단지는 조업철에 따라 가을단지와 봄단지로 나뉜다. 가을단지는 높이가 8센티미터, 길이는 4센티미터 남짓이다. 득량만 일대처럼 가을철에 조업을 하는 지역은 크기가 작은 가을단지를 이용하지만, 곰소 일대처럼 봄철에 조업하는 지역은 크기가 큰 봄단지를 이용한다. 주꾸미는 산란철에 가장 맛있는데 머리 부분만 잘라 살짝 데쳐 한 입에 넣으면 찹쌀밥 맛이 난다고 한다.


2


3

참고문헌 | 玆山魚譜, 漁具(고광민,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필자 | 김준(金準)

춘태잡이(春太-)

⇨ 명태잡이(明太-): 정월편





陽曆歲時

양력세시

전통적인 명절은 현대에 와서
공휴일로 지정된 설과 사월 초파일과
추석을 제외하고는 쇠퇴하고 있다.
반면 우가 기념일이나
입학과 졸업 같은 개인적인 날에
이루어지는 행사나 휴일의 행사 같은 것들은
앞으로 형성되는 세시풍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정의 매년 양력 2월 14일을 가리키는데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 1990년대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 매달 14일을 기념일로 정해 선물을 주고받는 포틴데이(fourteen day)가 유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2월 14일의 발렌타인데이가 가장 비중있는 기념일로 꼽히며 3월 14일의 화이트데이(White Day), 4월 14일의 블랙데이(Black Day)도 비중있게 여겨진다.

유래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는 3세기(269년)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결혼은 황제의 허락 아래 할 수 있었는데, 발렌타인(Valentine)은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을 시켜준 죄로 순교한 사제의 이름이다. 그가 순교한 뒤 이 날을 축일로 정하고 해마다 애인들의 날로 기념하여 온다. 이 날은 여자가 평소 좋아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허락된다. 주로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는 초콜릿이다. 최근에는 초콜릿 이외에도 자기만의 개성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발렌타인데이는 1980년대 중반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 일부에서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악용하려는 상혼이 빚어낸 그릇된 사회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남녀가 특정일을 이용해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는 관념이 넓게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도 '연인의 날'이 있었다. 벌레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양력 3월 6일경)이 그 날이다. 경칩날 정을 돋우고 싶은 부부나 멀어진 정을 다시 잇고 싶은 부부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처녀 총각들이 은밀히 숨어서 은행을 나눠먹었다. 『사시찬요(四時纂要)』에 보면 "은행 껍데기에 세모난 것이 수 은행이요, 두모난 것이 암 은행이다."라고 적고 있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는데, 서로 마주 바라보고만 있어도 사랑의 결실이 오간다는 믿음이 있다.

칠석날은 견우와 직녀가 은하를 가로질러 상봉하는 날로서 이 또한 연인의 날이라 할 수 있다. 이 날 밤 아가씨들은 걸교(乞巧)라 하여 반원형의 달떡을 빚어 놓고, 베짜는 솜씨와 바느질 솜씨를 비는 민속이 있다. 그런데 재주를 비는 걸교는 명분이고, 실속은 마음먹은 사람을 움직이게 해달라거나 시집가게 해달라는 사랑의 기도였음은 옛 잡가(雜歌)나 속요(俗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알려진 발렌타인데이가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바뀌고 있다. 마침 이 시기는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와 겹친다. 어린이들은 한 학년을 마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초콜릿으로 전한다.

1 초콜릿 가게
2 초콜릿 선물하기
서울시 종로구 최호식





내용 전통적인 명절은 현대에 와서 공휴일로 지정된 설, 사월 초파일, 추석을 제외하고는 쇠퇴하고 있다. 반면 국가 기념일이나 입학과 졸업 같은 개인적인 날에 이루지는 행사, 휴일의 행사 같은 것들은 앞으로 형성되는 세시풍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 기념일로 여겨지는 14일, 곧 포틴데이(fourteen day)의 풍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월 14일은 다이어리데이(Diary Day), 헬로우데이(Hello Day)이다. 일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연인에게 선물하는 날이다. 일년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다이어리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좋은 선물이 된다. 또 이 날은 헬로우데이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연인들에게 주어지는 일년 중 첫 번째 날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날 가장 먼저 인사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Valentine Day)이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White Day)이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트데이에는 발렌타인데이에 사랑을 고백한 여자의 마음을 남자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마음을 받아들일 경우라면 사탕을 선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나치게 된다. 연인들 사이에서는 남자가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선물을 답례하는 날로서 의미를 가진다.

4월 14일은 블랙데이(Black Day)이다. 2월과 3월에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지 못한 여자나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주지 못한 남자가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날이다. 옷을 비롯해 구두, 양말, 악세사리까지 검정색으로 입고, 음식은 자장면을 먹고, 블랙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만난 남녀가 연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월 14일은 옐로우데이(Yellow Day), 로즈데이(Rose Day)이다. 블랙데이까지 연인을 사귀지 못한 사람이 노란색 옷을 입고 카레를 먹어야 독신을 면한다는 날이다. 또한 5월은 장미의 계절이자 야외로 나가기 좋은 달이다. 연인 사이가 발전하려면 분위기가 있는 야외 데이트가 필요한데, 연인들의 경우 분위기가 있는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장미축제와 관련지어 로즈데이가 만들어졌다.

6월 14일은 키스데이(Kiss Day), 머그데이(Mug Day)이다. 14일에 만난 연인들이 입맞춤을 하는 날이다. 키스데이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뽀뽀하는 날로도 알려져 있다. 또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실 머그잔을 선물하는 머그데이라고도 한다.

7월 14일은 실버데이(Silver Day), 링데이(Ring Day)이다. 실버데이는 선배(학교나 직장의 선배 또는 부모님)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의 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선보이는 날이다. 그 자리에 나온 선배는 데이트 비용을 최대한 보조해주어야 한다. 또 실버데이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은제품을 선물하는 날이라고도 한다. 칠월칠석을 맞아 반지를 교환하며 링데이라고도 한다.

8월 14일은 그린데이(Green Day), 달데이(Doll Day), 껌데이(Gum Day)이다. 이 날은 산림욕 같은 것을 하며 연인들끼리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또한 이 날까지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린소주를 폭음한다고 해서 그린데이라고도 하고, 인형을 선물하는 달데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들은 이 날을 껌데이라 부르며 좋아하는 이성친구에게 예쁘게 포장한 껌 선물을 책상에 몰래 놓거나 건네준다.

9월 14일은 뮤직데이(Music Day), 포토데이(Photo Day)이다. 나이트클럽 같은 음악이 있는 곳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랑스럽게 연인을 소개하면서 둘 사이를 공식화하는 날이다. 또 이 날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연인과 사진을 찍는 포토데이이기도 하다. 둘이 찍은 사진을 각각의 수첩에 끼워넣고 날마다 가지고 다닌다면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연인들은 생각한다.

10월 14일은 레드데이(Red Day), 와인데이(Wine Day)이다. 붉은 와인을 마시는 날이라 레드데이, 와인데이라고 한다.

11월 14일은 오렌지데이(Orange Day), 무비데이(Movie Day), 쿠키데이(Cookie Day)이다. 오렌지쥬스를 마시는 날이라고도 하고 연인끼리 영화를 보는 날이라고도 한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쿠키데이로 알려져 있다. 호감이 가거나 좋아하는 이성친구에게 쿠키를 선물한다.

12월 14일은 머니데이(Money Day), 허그데이

(Hug Day), 양말데이이다. 머니데이의 배경은 그간 선물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이 이 날은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쓴다는 의미이고, 허그데이는 연인끼리 서로 포옹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양말을 선물하는 날이라고도 한다.

기타 최근에는 3월 3일은 삼겹살데이, 10월 24일은 애플데이(Apple Day),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하는 식으로 다른 기념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3월 3일은 나이와 관계없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 날이다. 3월 3일의 '삼(三)'과 삼겹살의 '삼'을 연결하여 삼겹살을 먹는 날로 삼았다. 2003년 이후에 만들어진 날이다.

10월 24일은 애플데이(Apple Day)이다. 애플데이는 먹는 사과(沙果)에 사과(謝過)하는 마음을 담아 주는 날이다. 곧 24일은 둘(2)이 서로 사(4)과하고 화해하는 날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화해문화를 이루어 가고자 매년 10월 24일을 애플데이, 화해의 날로 정하여 2001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가족, 친구, 선생님 또는 직장 상사나 선후배, 이웃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졌던 사소한 오해나 섭섭함, 미움의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용서와 화해,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의 마음을 사과로 전하는 날이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이다. 지난 1994년 부산과 경남 지역의 여중고생들이 "키 크자.", "날씬해지자.", "롱다리가 되자." 하며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았다. 밥 대신 빼빼로를 먹으면서 이런 발상을 했다고 전해진다. 11월 11일이 작대기 네 개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 '1'이 유달리 길쭉한 과자인 '빼빼로'와 모양이 닮았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소매점에 빼빼로데이를 내걸고 빼빼로데이 상품을 별도로 만들면서 빼빼로데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빼빼로데이는 이미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같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성에게 빼빼로를 선물한다. 선물로는 특정 기업의 상품인 빼빼로뿐만 아니라 변종 상품들도 많이 있다.

의의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는데도 전해오는 세시풍속은 옛 농경문화에 한정되어 있다. 오늘날의 새로운 풍속, 곧 발렌타인데이(2월14일), 화이트데이(3월14일), 블랙데이(4월14일)처럼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돌고 있는 각종 연중행사도 현대 세시의 하나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이른바 젊은이들 사이에 매년 14일 기념일로 정해 선물을 주고받는 '14일의 포틴데이'가 유행하면서 데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제과업이나 중매업 같은 관련업계는 매월 14일을 수익을 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 특히 발렌타인데이는 이미 최대의 특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처럼 요즘 생긴 각종 기념일이 상업성을 띠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지만 송파산대놀이나 양주 별산대놀이 역시 일정하게는 장터에서 활발하게 연행되고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전승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四時纂要, 세시풍속의 미래전설(천진기, 한국문화연구7,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졸업식(卒業式)

정의 매년 2월 각종 학교에서 그동안의 배움을 정리하고 상급학교로, 또는 사회로 인재를 배출해내는 마무리 의식. 전교생이 참여하는 졸업식은 졸업의 참된 의미를 알고 엄숙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 선후배의 따뜻한 정을 통하여 서로 돕고 협조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에 행사의 목표를 둔다.

유래 및 변천과정 졸업식이 최초로 열린 날짜와 장소는 문헌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고종 32) 7월 소학교령이 공포되고 소학교(초등학교)가 처음 생긴 것으로 미루어 졸업식 행사의 시발점은 일제강점기 이전이다.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사진 자료에서 보이는 초중등학교 졸업식 풍경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학생들, 까만 두루마기를 입은 남학생들이 정든 교문을 나서는 모습으로 대변된다.

오늘날 졸업식은 매우 간소하며 형식으로 흐르는 경향마저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보내는 정과 떠나는 정의 뜻이 담긴 송사와 답사마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날씨가 춥다는 핑계로 교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졸업식을 치르기도 한다. 졸업식 후 선생님이나 급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식이 끝남과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 우르르 나가버린다. 졸업의 경건함이나 헤어지기

아쉬워 선생님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훈훈한 정이 넘치는 졸업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졸업식장의 풍경은 엄숙했다. 당시는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마냥 좋았다. 그 시절만 해도 대학 졸업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고 스스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즐거움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졸업생 수가 적어 대학의 강당이나 체육관에 졸업자 전원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가족, 친구들로 식장이 북적거렸다. 요즘 대학 졸업식장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이며, 졸업식이 가족끼리 사진 찍는 가족 행사에 불과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교수를 모시고 같이 사진도 찍고 선후배가 어울려 서로 축하해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풍경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내용 졸업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앞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졸업생들에게 함께 안겨준다. 보통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입장함으로써 시작한다. 이때 내빈, 교사, 재학생은 미리 식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졸업생이 입장하여 준비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음악과 박수로 축하한다. 식은 ① 개식사 ②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③ 학사 보고 ④ 졸업장 수여 ⑤ 상장 수여 ⑥ 교장선생님 말씀 ⑦ 축사(학교운영위원장) ⑧ 송사(재학생 대표) ⑨ 답사(졸업생 대표) ⑩ 졸업식 노래 제창 ⑪ 교가 제창 ⑫ 폐식사 순으로 진행된다.

졸업식장은 떠나는 졸업생과 배웅하는 재학생 그리고 학부형과 선생님들로 어수선하고 복잡하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졸업생들은 대부분 교복이 아닌 평소 학교생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장과 화려한 머리 스타일, 화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졸업식 날에도 여전히 지각하는 학생과 졸업식 예행연습을 시키는 선생님께 야유를 보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막상 식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얼굴에는 떠나는 사람의 아쉬움이 나타난다. 졸업식 중에는 각 단체, 기관, 학교에서 준비한 상장 수여가 있고, 상장 수여가 모두 끝난 뒤에는 교장선생님 또는 학교 손님들이 축사를 한다. 그리고 졸업식에서 빠질 수 없는 노래 '석별의 정'을 부른다.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고개를 떨어뜨리고








1 졸업식장 밖
2 졸업식장
3 졸업장 수여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경성고등학교 최호식
4 학위수여식
5 기념사진 찍기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서울대학교 국립민속박물관

목이 매여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어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한다. 졸업식이 끝나고 졸업생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교실로 들어가 담임선생님의 종례를 받는다. 마지막 종례에는 졸업식장에서 받지 못한 남은 상장들을 나눠주며, 졸업장과 졸업 앨범도 나눠준다. 종례를 받는 학생들의 모습은 영화처럼 헤어짐이 아쉬워 선생님과 제자 모두 펑펑 우는 모습은 거의 없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대부분이다. 각 반에서의 종례가 끝나면 학생들은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선생님과 사진도 찍으면서 바쁘게 돌아다닌다. 떠나는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우리보다 좀더 학교를 아끼고,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 웃으며 졸업장을 받길 바란다."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주길 당부한다.

대학 졸업생들은 검정색의 단정한 학위복과 네모진 학사모를 쓰고 졸업을 맞는다. 대학 졸업식과 학위 수여식 때 관행적으로 입는 학위복은 차분한 검은색 바탕에 간단한 디자인으로 수도사의 수도복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 중세 수도사들의 예복에서 비롯되었다. 학위복의 역사는 중세 대학의 출현과 그 시작을 같이 한다. 12세기경 성당 학교로부터 비롯된 중세 대학에서는 성직자들의 외출복으로 쓰이던 카파 클라우사(Cappa clause)를 교복으로 입었다. 그러다가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를 거치는 동안 그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여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다. 이때 종교개혁이 100여 년간이나 지속되면서 대학은 지난 어느 때보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 개방되어 엄격했던 생활규범이 변화했다. 이후 대학 교복에 대한 법령이 점차 줄어들어 결국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학위복은 1893년 프린스턴대학 이사인 존 제임스가 만든 규약에 따르고 있다. 당시 그는 군인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계급과 지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복장이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그가 만든 학사복 규정은 몇 번의 수정을 거쳐 1960년 완성된 뒤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규약은 가운과 후드 그리고 모자의 디자인에서부터 옷감, 색, 장식물의 유무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학위복이 들어오게 되었다. 1899년 최초의 현대식 고등교육기관이자 의(醫)학교인 제중원(濟衆院)이 설립되어, 1908년 제1회 졸업식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학위복을 입었다.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유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형태는 흰 바지와 저고리에 흰 두루마기를 입어 정장차림을 한 뒤 그 위에 검은 가운을 입은 것이었다. 머리에는 검은색 술이 달린 검은 사각모를 썼다. 이후 1914년 이화학당 제1회 졸업식 때 학위복의 형태가 정립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공·사립대학이 전문대학에서 승격되거나 신설되었으며, 이 대학교들 또한 먼저 착용해온 대학들의 학위복을 모방하여 사용했다. 그리하여 차츰 학위복을 착용하는 대학들이 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우리가 익히 보아온 우리나라 대학의 졸업식 풍경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 사각모를 쓴 총장과 교수들의 엄숙한 모습은 여전하지만 식장 안의 분위기는 스산하다. 졸업식장으로 쓰이는 강당이나 체육관 안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졸업생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상을 받는 수상자들이나 앞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식장 바깥은 교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념사진 찍기 바쁜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활기가 있다. 졸업식에서는 점차 캠퍼스를 떠나는 이별의 아쉬움도 없고 즐거운 추억거리도 없으며, 경건함은 더군다나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졸업식은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 모두에게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격려하고 사회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자리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로서는 졸업식의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새로운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졸업 그 옛 모습들(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전시전 1995~1996), 일본인의 생활 365일(시사일본어사, 1999), 일본 키워드 99 이것이 일본이다(조양욱, 다락원, 2002), 가톨릭대신문93(2002.2.14), 와우진11(wowzine, 2002.3.1), 출구닷컴(choolgu.com, 2003.2.23), 동대신문1381(2004.1.26), 초등학교 학교행사문화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오재길,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 염미경(廉美炅)

아우내봉화제(一烽火祭)

정의 1919년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에서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해마다 2월 28일에 열리는 지역 축제. 3·1절을 기념하는 행사이므로 흔히 '아우내 3·1절 기념 봉화제'라고 한다.

유래 아우내 장터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31일(음력 2월 28일) 아우내와 가까운 매봉산과 인근의 24개소에 봉화를 올려 다음날 예정된 거사를 알림으로써 시작했다. 이 운동은 4월 1일 수천 명의 군중들이 아우내 장터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다가 현장에서 18명이 피살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일 의거이다.

이 날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1904~1920)은 일본 헌병의 무자비한 총칼에 부모를 잃었고, 함께 시위를 이끌었던 오빠인 관옥은 공주 감옥에 투옥되었다. 유관순 역시 주동자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정에서 일제의 조선 침략을 규탄하고 일본 법률과 그 하수인들에게 재판받는 것이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법정모욕죄까지 가산되어 징역 7년을 언도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이신애, 어윤희들과 만세를 외치며 불굴의 정신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1920년 17세의 나이로 온갖 고문을 받던 끝에 순국했다. 당시 유관순의 시신은 여섯 토막으로 참살된 처참한 모습이어서 수의를 입힐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1945년 조국이 광복을 맞이한 뒤에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으며,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생가가 복원되고 제향을 위한 사우(祠宇)가 설립되었다. 또 봉화를 올렸던 매봉산 정상에는 봉화대가 설치되고, 유관순 동상이 건립되었다. 1990년 4월에는 열사의 가묘(假墓)가 봉안되어 구천에 떠돌던 영혼이 편히 잠들게 되었고, 매봉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완성됨으로써 사적지가 완비되었다.

내용 아우내봉화제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병천면 주민들의 오랜 여망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아우내 장터의 만세운동을 기리는 행사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오던 중, 1978년 3·1절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된 제1회 아우내봉화제가 닻을 올렸다. 2005년 2월 28일로 27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횃불집회를 재현함으로써 열사들의 애국정신과 아우내 장터에 울려퍼졌던 그 날의 함성을 되새긴다. 행사의 주최와 주관은 아우내봉화제추진위원회와 병천청년회의소에서 맡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횃불 점화, 횃불 시위, 봉화대 점화, 불꽃놀이, 비문 낭독, 선언문 낭독으로 구성된다. 2005년 아우내 봉화제의 경우 식전행사로 풍선아트 소공연, 퀴즈(천안 지역 고교 및 대학팀), 테마 공연으로 '민족의 태동 단군', '강성한 조국 고구려', '시련과 극복 유관순 열사'의 4부작이 선보였다. 그리고 오후 7시에는 사적관리소 광장에서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아우내 장터 횃불 시위와 일본 헌병대와의 충돌 그리고 헌병분소 전소 장면이 재현되었다.

참고문헌 | 天安市誌(천안시지편찬위원회, 1987), 천안의 향토축제(천안문화원, 1997), 아우내 봉화제 자료(병천청년회의소, 2005).

필자 | 강성복(姜成福)

죽서문화제(竹西文化祭)

정의 1973년부터 강원도 삼척시 일원에서 정월 대보름에 하는 향토 축제.

어원 죽서문화제는 조선시대 삼척부의 객사(客舍)였던 진주관(眞州館)의 부속 건물인 죽서루(보물 제213호)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행사 초기에는 정월대보름축제라 불렀다.

유래 죽서문화제는 조선조 현종 3년(1662) 삼척부사로 재임했던 허목(許穆, 1595~1682)이 오십천 제방 축조와 저수지 공사를 위해 창안했다고 하는 정월 대보름날 게줄다리기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시민의 안녕과 풍년을 천신, 해신, 지신에게 기원하는 전통적인 삼원제가 합쳐진 축제이다. 게줄다리기 기원은 허목관련설 이외에도 전통적인 정월 대보름 점풍(占豊) 민속놀이인 줄다리기 기원설, 마을에 부과된 부역전가를 위한 연행설, 게줄을 통해 사대광장(沙臺廣場) 잡귀의 축출연행설 등이 있다.

내용 1973년 삼척민속놀이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월 대보름인 양력 3월 5일 삼척 사대광장 옛터인 구시청 앞에서 지역의 민속놀이인 게줄다리기(일명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제1회 삼척고유민속기줄대

회를 삼척번영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이 대회가 1978년의 제6회부터 삼척죽서문화제로 이름이 바뀌고 종합형 문화제로 확대되어 4월 또는 시민의 날인 6월 10일 개최되었다. 이후 학계와 시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개최일을 정월 대보름날로 되돌렸으며, 2005년 정월 대보름인 2월 23일 성내동 광장과 죽서루 일대에서 제33회 죽서문화제를 열었다.

2003년부터 삼척 지역에 잇따른 수해로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제례 행사만 지내고 있으나, 대체적인 행사는 오십천 둔치에서 전야제, 민속행사, 제례 행사, 경축 행사로 20여 항목이 진행되며 매년 7만 명 이상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가하고 있다. 행사 주최는 죽서문화제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삼척상공회의소의 상공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여느 지역과 차이가 난다. 이것은 삼척 지역에 발달했던 석탄산업과 시멘트 산업에 종사했던 이 지역 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기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 산업과 시멘트 산업이 퇴조한 오늘의 삼척은 동굴을 주제로 한 자연 관광과 아름다운 동해안의 어촌 관광, 너와집과 화전민촌을 주제로 한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죽서문화제의 제례 행사는 삼원제로서 죽서루 광장에서 천신제와 지신제, 해신제를 합사하여 지낸다. 한편 하장 댓재에서는 삼척임협 주관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에서는 신남 해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1998년부터 남근깎기전국대회가 민속 행사에 더해졌다.

남근깎기대회는 삼척 지역에 전해오는 민속 신앙이다. 정월 대보름 해신제 때 신남마을의 향나무로 남근을 깎아 바치며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사 안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각 작품은 신남 해신당 앞에 공원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여성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민속신앙의 축제화와 예술화라는 명분으로 삼척세계동굴축제 때에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참가하였다.

정월 대보름에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재액을 방지하는 민속신앙놀이인 살대 세우기를 하고 있으며, 삼척의 전래 민요인 메나리 경창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죽서문화제의 중심은 지난 1976년 6월 15일 강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게줄다리기이다. 정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13일부터 어린이들이 '속닥거리며 줄을 당긴다'는 속닥기줄과 다음날 청년들의 중기줄을 시작으로 성인들이 대보름 만월 때 게의 다리처럼 생긴 게줄을 당겨 승패를 가리는 민속놀이이다. 해안 마을로서 여성의 상징인 부내(府內)와 내륙 마을로서 남성의 상징인 말곡(末谷) 사이의 겨루기로써 풍흉을 점친 이 놀이는 조선시대 줄다리기 민속의 한 형태이다.

게줄은 줄을 '술술 비벼서 꼰다'는 술비통에서 짚을 꼬아서 만든 것을 여러 개 엮어 넣고 안쪽에는 칡을 넣어서 끊어지지 않게 한 쪽에 여덟 개의 게다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붉은 게가 액을 막는다는 지역의 속신에 따른 것이다. 어촌과 산촌을 경합시킨 줄다리기는 대체로 바다 쪽인 부내의 승률이 높았다고 하며, 부내는 부사의 부인이 응원을 하고 말곡은 부사가 응원을 했다고도 한다.

삼척 지역의 게줄다리기는 1759년 당시 부내면에 속한 정라리, 고자리, 북진의 주민들과 말곡면에 속한 원당리, 토하리, 도경리의 주민들이 중간 지역인 사대광장에서 힘겨루기를 펼친 개방형 마을 민속놀이로 각 마을에서 게줄 하나씩을 꼬아서 갖다가 붙이면서 큰 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확대형 큰줄다리기 형태를 지닌다. 아울러 말곡면의 인근 면인 미로면과 부내면의 인근 면인 근덕면 주민들도 합세하고 삼척부사 내외가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동네 줄다리기의 차원을 뛰어넘는 대단위 고을 줄다리기로서 관민 공동의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게줄다리기는 현재에도 경남 밀양과 조치원에서 전승되고 있으나, 삼척 게줄다리기와 외형상 차이가 나며, 강원 지역에서도 영월에 칡줄다리가 있으나 삼척과는 다르다. 조선 후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정월 대보름날 충청도, 경기도의 줄다리기와 영남 지방의 갈전(葛戰) 곧 칡줄다리기를 소개하였는데 모두 풍년을 점치는 것이라 하였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청주 지방의 줄다리기를 소개하였는데, 같은 형태의 줄다리기로 울산 지역에서는 단오 때 마두희(馬頭戱), 제주도에서는 한가위 때 조리희(照里戱)를 행하였다. 육당 최남선도 우리의 줄다리기를 중국의 시구, 혈하희(絜河戱)는 일본의 쓰나히키

와 동류로 보고 벼농사 재배권의 공통적 점풍 유희로 보았다.

의의 삼척의 향토 축제인 죽서문화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대보름민속놀이인 게줄다리기와 천신과 해신과 지신을 위하는 삼원제를 중심으로 행해진 민속 제의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게줄다리기는 지금부터 360여년 전 삼척부사 허목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며 암수줄의 모의 성적인 승부로 점을 치는 예축점세 유희로서 한 해의 해사(海事)와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또한 게줄다리기는 작은 힘을 크게 만드는 확대지향의 개방형 대보름 놀이로 만월 민속의 풍요관을 반영하며, 술비통에서 줄을 꼬는 작업과 줄꼬는 소리인 술비소리가 함께 연행된다. 특히 게줄다리기는 동해와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삼척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과 산촌의 풍년을 점치는 민속놀이로 죽서문화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죽서문화제는 전통 민속놀이인 게줄다리기의 원형을 계승하고 있으며 종합형 축제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전통 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고 있다.

참고문헌 |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삼척지방의 마을신앙(장정룡, 삼척문화원 삼척군, 1993), 삼척시 전래민요 「메나리」실태조사 보고서(삼척문화원, 1998), 삼척지역의 민속문화(이창식, 삼척문화원, 2000), 강원도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江原道民俗硏究(張正龍, 國學資料院, 2002), 삼척지역무형문화유산실태조사(김도현, 강원민속학18, 강원민속학회 2004).

필자 | 장정룡(張正龍)

태기문화제(泰岐文化祭)

정의 매년 음력 2월 1일부터 이틀 동안 횡성군 우천면 정금민속문화마을에서 열리는 민속 축제.

유래 1984년 횡성 회다지소리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985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횡성군은 정금민속관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6년 정금민속보존회가 조직되고 이때부터 온 군민이 참여하는 태기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를 주최하는 태기문화제위원회는 회다지소리 기능보유자 양중하를 비롯하여 전수교육자 양재학과 전수장학생 6명이 중심이 된 민속보존회원들과 우천면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었고, 행사의 실무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태기문화제가 열리는 정금문화마을은 태기산 자락에 16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1 풍물놀이
2 태기제례
3 회다지기
4 행상(行喪)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횡성군청

내용 2005년 제19회를 맞은 태기문화제의 핵심은 회다지소리이다. 횡성회다지소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노랫말은 느린 가락에서 자진가락으로 전환되고, 회다짐의 율동도 두발치기·세발치기 등이 있어 망자(亡者)를 애도하고(느린 가락) 산역(山役)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잦은 가락)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 행사내용을 보면 전야행사는 주민의 무사안녕과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태기제례와 농악한마당이고, 본행사는 개회식, 국악공연·어러리타령 경창대회·학생백일장·7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소리를 뽐내는 회다지소리 경연대회 등의 문화행사, 윷놀이·장기·제기차기·짚신삼기·연날리기·널뛰기·줄다리기 등의 민속경기 그리고 시범연날리기·고부 떡만들기 시식회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tour.com).

필자 | 김태수(金泰水)





三月

삼월

삼월은 일년 중 가장 따뜻한 날씨 속에
온갖 초목들이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나비와 새들이 날아들며
농사가 시작되는 달이다.
삼월은 각종 산물이
새로 나오는 달이어서
각 절기에 따른 음식이 성행한다.
이 시기의 절식으로는
삼진날의 화전(花煎)이 유명하다.
또 한식과 청명에 지내는 절사(節祀)와
성묘에 올리는 각종 제수
곧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들이
다채롭게 만들어져 제물을 올린 다음 나누어 먹는다.

3월(三月)

이칭 음력 3월은 봄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대표하며, 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마지막 달이다. 춘창(春暢), 춘천(春川), 잔춘(殘春), 계춘(季春), 모춘(暮春), 만춘(晩春)이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꽃피는 계절이란 의미로 화우(花雨), 화신(花信), 방신(芳辰)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 월건(月建)이 진(辰)으로 된 달이라 하여 진월(辰月)이라고도 하고, 아름답고 기쁜 달이라 하여 희월(喜月)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전통 사회에서는 음력 1, 2, 3월이 이에 해당하며 3월은 그 마지막 달이다. 겨우내 추위에 움츠렸던 만물은 1, 2월을 거치면서 따뜻한 봄기운에 재생의 기지개를 켜다가 3월에 이르러 그 활력이 절정에 이른다. 그래서 3월은 삼라만상이 생명의 부활을 한껏 펼치는 봄이 가장 무르익는 달이다.

내용 3월은 일년 중 가장 따뜻한 날씨 속에 온갖 초목들이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나비와 새들이 날아들며 농사가 시작되는 달이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는 3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삼월은 모춘이라 청명(淸明), 곡우(穀雨) 절기로다, 춘일이 재양(載陽)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백화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 당전(堂前)의 쌍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화간의 범나비는 분분히 날고 기니, 미물(微物)도 득시(得時)하여 자락(自樂)함이 사랑홉다……." 3월을 잘 나타내고 있는 '농가월령가'의 첫 구절은 이 달의 절기로서 청명과 곡우를 들고 있다. 또 예부터 민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삼짇날과 한식(寒食)이 모두 3월에 있어, 3월은 명절(名節)의 달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 절기와 명절들에 관련되는 각종 의식 행사나 풍속, 놀이들도 다양하게 행해졌다.

삼짇날 삼짇날은 보통 삼질이라 부르기도 하여 '제비 오는 날'로 유명하지만, 봄철 최대의 명절로서 다채로운 상춘(賞春)의 행사와 풍속이 행해졌다. 삼질의 이칭으로는 원사(元巳), 상사(上巳), 상사절(上巳節)이 있는데, 이는 3월 중 첫 사일(巳日)을 명절로 했던 중국에서 붙인 명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제(上除), 중삼일(重三日), 답청절(踏靑節) 같은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이 날에 수반되는 놀이와 민속으로는 화류(花柳)놀이, 화전(花煎)놀이와 같은 꽃구경놀이, 들에 나가 새로 돋은 풀을 밟으며 나물을 캐는 답청(踏靑)이 유명하다.

그리고 시내에 가서 묵은 때를 씻는 불계(**祓禊**), 구불구불 구비진 물가에 술잔을 띄워 보내면서 술을 마시던 유상곡수(流觴曲水), 벼슬에서 벗어난 선비들의 모임이었던 기로회(耆老會)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모두 삼국이래의 유속으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졌다. 한편 삼짇날 약수(약물)를 먹으면 연중 무병하고 몸이 좋아진다고 한다.

한식(寒食) 한식은 동지(冬至)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조상에 제를 올리는 조상제사[祭祖]의 4절일(節日) 중의 하나이다. 그 명칭은 중국 개자추(介子推)가 굶고 불에 타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우리 풍속에서도 이 날 궁중에서는 종묘에 제향(祭享)을 올리고, 민간에서는 무덤에 잔디를 입혀서 사초(莎草)를 하고 성묘를 했다. 그리고 한식은 3월의 절기인 청명과 같은 날이거나 하루 뒤가 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청명(淸明) 청명은 대체로 춘분(春分)과 곡우(穀雨)의 사이에 있으나, 한식과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그 풍속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란 속담은 이 두 날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게 그거로 별 다름이 없다.'는 뜻이며 홍석모(洪錫謨)는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에서 청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청명절 돌아와

참나무 새싹 심더스마



늦봄이 시작되니, 주나라 좋은 법 불씨를 바꾸네, 느릅, 버들 푸른 연기 궁궐에서 피어나고, 새 불씨 나누어주러 심부름꾼 달려가네(淸明節**届**晩春頭 改燧良規自盛周 楡柳靑烟生紫禁 傳頒新火走**僮**騶).” 이는 청명 풍속의 하나인 반화(頒火)를 말한 것이다. 반화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나오는데 개수(改燧) 또는 개화(改火)라고도 일컬으며, 계절이 바뀔 때 대궐에서 불을 내어 각 관청과 대신 그리고 각 고을에 나누어주는 풍속이다. 주로 벽사(**辟**邪)와 방역(防疫)에 목적을 둔 것인데, 대체로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서로 비벼 불을 일으켜 신화(新火)를 내어 구화(舊火)로 바꾸는 것으로 중국 당송(唐宋) 이래의 사화(賜火)에서 유래한 것이다. 청명의 민속과 행사로는 한식에서와 같이 사초와 성묘 같은 조상 제례와 각종 나무 심기, 그리고 다가오는 곡우에 대비하여 밭갈이로 씨 뿌릴 준비를 하며, 그네뛰기[**鞦韆戲**]를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곡우(穀雨) 곡우는 24절기의 여섯 번째로 청명과 입하의 중간에 있으며, 봄의 마지막 절기로 음력 3월 중에 해당한다. 이 무렵은 날씨가 고르고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백곡(百穀)이 자랄 좋은 절기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때이다. 따라서 모판을 만들고 볍씨를 뿌리며, 감자 심기, 목화와 담배의 파종, 고구마 이식이 행하여진다. 홍석모는 하종(下種)이란 이름으로 이때의 농사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쟁기질할 때쯤 되어 뻐꾹새 우니 바삐들 씨앗 나눠 밭두둑에 뿌리네, 가장 급한 농사는 도랑에 물 대는 일, 청명에 큰 비 오니 밭갈기 좋아라(于**耜**及時布穀啼 爭分春種播前畦 濬**疏**溝**洫**催農務 大好淸明雨一**犁**).” 이는 곡우절이 지니는 시농(始農)의 상황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절식(節食) 3월은 각종 산물이 새로 나오는 달이어서 각 절기에 따른 음식[節食, 時食]이 성하다. 이 시기의 절식으로는 삼짇날의 화전(花煎)이 유명하다. 이는 찹쌀가루 반죽을 하여 둥근 떡을 만들고 진달래꽃을 얹어서 기름에 지진 것으로 3월의 대표적인 절식이다. 그 외에 녹두가루 반죽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국에 띄우고 잣을 곁들인 화면(花麵), 녹두를 국수로 만들어 꿀물에 띄운 수면(水麵)이 유명하다. 또 한식과 청명에 지내는 절사(節祀)와 성묘에 올리는 각종 제수, 곧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들이 다채롭게 만들어져 제를 올린 다음 나누어 먹는다. 또 청포묵[菉豆泡]을 잘게 썰어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고 초장을 쳐서 먹는 묵청포[蕩平菜], 계란을 깨 끓는 물에 넣어 반숙한 다음 초장을 쳐 먹는 수란(水卵), 작은 조개를 넣고 조기[石首魚]로 국을 끓이는 생선국이 별미이다. 이러한 음식과 함께 선조들은 간식의 주를 이루는 떡을 즐겨 만들어 먹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꼽장떡이라 불리는 산병(**饊餠**)과 환병(環餠)이다. 산병은 멥쌀로 작은 떡을 만들어 콩으로 속을 넣고 머리 쪽을 오므린 다음 오색 물감을 들여 다섯 개를 죽 이은 것이며, 환병은 소나무 속껍질과 제비쑥[靑蒿]을 섞어 만든 오색의 둥근 떡으로 모두 3월의 절식으로 꼽힌다.

한편 3월에는 새로 나오는 생선들이 별미여서 궁중은 물론 민간에서도 반찬으로 즐겨 사용하였는데, 때에 맞추어 생선장수들이 거리와 동네를 소리치고 다니며 팔기도 하였다. 이때 주로 잡히는 생선은 안산(安山)과 내양(內洋)의 밴댕이, 고양(高陽)과 행주(幸州)에서 잡히는 웅어, 복사꽃이 떨어지기 전에 나서 미나리를 넣어 국을 끓이면 일미인 노호(露湖)에서 나오는 복어, 시절 생선으로 제일로 치는 숭어 따위가 있다. 특히 복어와 숭어는 국을 끓여 먹으며, 다른 생선들과 함께 회(膾)를 쳐 먹기도 한다.

또 3월에 담가 마시는 술로는 진달래꽃으로 빚는 면천(沔川)의 두견주(杜鵑酒)와 소나무의 새순을 넣





1~2 한식성묘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진주유씨家
황헌만





1 복사꽃
전북 장수군 신서면 오산리 이창호

2 개나리 무정

어 빚은 송순주(松荀酒)가 예부터 유명하다. 그 외에도 봄철의 술로는 충남 서천의 한산(韓山)에서 나오는 찹쌀로 만드는 소국주(小麴酒), 복숭아꽃을 넣어 빚은 도화주(桃花酒), 서울의 삼해주(三亥酒), 평양의 감홍로(甘紅露)와 벽향주(碧香酒), 황해도의 이강주(梨薑酒), 호남 지방의 계당주(桂當酒)와 죽력고(竹瀝膏), 충청도의 노산춘(魯山春)이 각 지방의 가장 좋은 술로 꼽혔다. 이 중에도 감홍로, 벽향주, 죽력고, 계당주, 평양의 문백주, 경주의 법주는 각종 한약재를 넣어 빚은 술로 맑고 향기로운 술로 이름났다. 더러는 아이들의 병에 특효가 있는 약으로도 사용된다.

민간신앙(民間信仰) 3월의 민간신앙으로는 각종 당제(堂祭)와 속신(俗信), 점복(占卜)과 금기(禁忌) 따위를 들 수 있다. 부산 지방에서는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龍王祭),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기자치성(祈子致誠)이 성하였고, 충북 괴산(槐山)에서는 이때 국사당(國師堂)에 당제를 올리는 풍속이 있었다. 충북 진천(鎭川)에서도 삼신당에 기자치성이 성행하였고, 경기도 수원을 비롯한 각 농촌에서는 3월의 종교 행사로 춘경제(春耕祭)도 빼놓지 않고 지냈다. 아울러 수원에서는 연중무병하고 몸이 좋아진다고 하여 삼짇날 약물을 마시는 풍속이 있으며, 특히 이날 흰나비를 먼저 보면 연중에 상복(喪服)을 입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재수가 좋다는 속신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해온다. 점복으로는 곡우절에 좋은 날을 가려 첫 밭갈이를 하였으며, 부산 지방에서는 당산나무잎점, 나비점, 새점, 담치점 같은 다양한 점(占)이 성행하였고, 별을 보고 한 해를 점치는 별점[星占]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금기(禁忌) 금기로는 삼짇날에 동침(同枕)않기, 제비 손대지 않기가 있고 한식날에는 고초일(苦草日)이라는 명칭 때문에 볍씨를 뿌리지 않으며, 불타 죽은 개자추(介子推)의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습속이 있다. 또 곡우에 볍씨 담글 때는 부정한 일을 했거나 본 사람은 볍씨를 보지 못하도록 솔가지로 볍씨 담은 가마니를 덮어두는 금기가 있다. 또 충남 당진(唐津)에서는 3월에 담근 장으로는 제물(祭物)을 장만하지 않으며, 산후(産後)의 국밥에도 사용하지 않는 풍속이 있다.

현대세시풍속 양력 3월의 기념일과 국경일로는 납세자의 날, 3·1절, 상공의 날 등이 있다. 지방축제는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영산 3·1민속문화제, 은산별신제, 행주대첩제 등이 있다. 한편, 3월에 개학하는 각급 학교들의 입학식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월초에 거행된다. 이달의 현대세시로는 화이트데이(White Day) 등이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洌陽歲時記, 朝鮮常識 -風俗 篇-(崔南善, 東明社, 1948), 朝鮮常識問答(崔南善, 三星文化財團, 1972),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國歲時風俗研究(金明子, 慶熙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0),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인권환(印權煥)

가월(嘉月)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가(嘉)는 아름답고 좋다는 뜻으로, 온갖 꽃들이 활짝 핀 아름답고 화사한 봄의 달이라는 말이다. 방신(芳辰), 염양(艶陽), 소화(韶華)라고도 한다.

내용 봄을 알리는 달인 3월은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므로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즐기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는 풍속은 예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 중국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혜련(謝惠連)의 시 '서릉우풍헌강락(西陵遇風獻康樂)'에 "옷을 갖춰 입고 좋은 때 기다려, 물결 위에 배 띄우고 3월을 즐기네(成裝候良辰 漾舟陶嘉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文選.
필자 | 정숙인(鄭淑仁)

계춘(季春)

정의 늦봄인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季)는 끝을 의미하므로, 봄의 시기인 음력 1, 2, 3월 중 마지막 달인 음력 3월을 말한다. 병월(暜月), 화월(花月), 가월(嘉月), 잠월(蠶月), 만춘(晩春), 모춘(暮春), 전춘(殿春), 재양(載陽), 청명(淸明), 곡우(穀雨), 중화(中和), 고세(姑洗), 진월(辰月)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예기(禮記)』「월령(月令)」에 "계춘의 달에는 해는 위수(胃宿)에 있고, 저녁에는 칠성이 남중하고 새벽에는 견우성이 남중한다. …… 오동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두더지가 변하여 메추라기가 되고,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개구리밥이 나기 시작한다(季春之月 日在胃 昏七星中 旦牽牛中. …… 桐始華 田鼠化爲鴽 虹始見 萍始生. ……)."라고 하였다. 이 밖에 『여씨춘추(呂氏春秋)』「십이기(十二紀)」 계춘기(季春紀)와 『회남자(淮南子)』「시칙훈(時則訓)」에도 『예기』「월령」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禮記, 呂氏春秋, 淮南子.
필자 | 신하령(申河令)

고선(姑洗)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양 음악의 12율(律) 중에서 다섯 번째인 고선(姑洗)에 해당한다.

내용 12율은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의 순으로 되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12율(律)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黃鍾)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고선(姑洗)은 3월에 해당한다. 중국 한(漢)나라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오행(五行)」편에 "3월을 고선(姑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姑)는 옛것이고 선(洗)은 새롭다는 것으로, 만물이 모두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서 선명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다(三月謂之姑洗何 姑者故也 洗者鮮也 言萬物皆去故就其新 莫不鮮明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필자 | 홍성훈(洪性薰)

도월(桃月)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복숭아꽃이 피는 달이라는 말로, 음력 3월이면 잎보다 먼저 흰색 또는 옅은 홍색으로 복숭아꽃이 핀다.

내용 중국에서는 도월(桃月)이 2월을 가리키는데, 중국 전국(戰國)시대 진(秦)나라 여불위(呂不韋)의 『여씨춘추(呂氏春秋)』「중춘기(仲春紀)」편에 "중춘의 달에는 해가 규성(奎星) 자리에 있고, 비로소 비가 내리며 복숭아와 오얏꽃이 피며 꾀꼬리가 운다(仲春之月 日在奎 始雨水 桃李華 蒼庚鳴)."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3월에 복숭아꽃이 피므로 3월을 가리킨다. 홍난파(洪蘭坡) 작곡의 '고향의 봄'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라고 하여 꽃피는 춘삼월의 고향을 잘 그려내고 있다.

참고문헌 | 呂氏春秋.
필자 | 정숙인(鄭淑仁)



복사꽃
경북 청도군 방상운

동월(桐月)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오동나무꽃이 피는 달이라는 뜻으로, 이 시기에 보랏빛 오동나무꽃이 피기 때문이다.

내용 『예기(禮記)』「월령(月令)」편에 "오동나무 비로소 꽃 피고, 들쥐 바뀌어 메추라기 되고, 무지개 비로소 보이고, 부평초 비로소 생겨난다(桐始華 田鼠化爲鴽 虹始見 萍始生)."라고 한 구절이 있다. 동월(桐月)은 오동나무 잎이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음력 7월을 가리키기도 한다. 『광군방보(廣群芳譜)』「목보육동(木譜六桐)」에 "오동나무 잎이 하나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가을이 온 줄 안다(梧桐一葉落 天下盡知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廣群芳譜, 禮記.
필자 | 정숙인(鄭淑仁)

만춘(晩春)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늦봄이라는 말로, 일년을 석 달씩 네 계절로 나누었을 때, 봄에 해당하는 석 달(1월, 2월, 3월) 중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전(箋)에 "주(周)나라의 초봄은 하(夏)나라의 늦봄이 된다. 제후들이 주나라 봄에 조회 왔기 때문에 늦봄에 보냈다고 한 것이다(周之孟春 於夏爲季春 諸侯朝周之春故晩春遣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정숙인(鄭淑仁)

모춘(暮春)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모(暮)는 해가 지평선 너머 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때가 늦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일년을 석 달씩 묶어서 4계절로 나눈 가운데 모춘은 봄에 해당하는 석 달(1월, 2월, 3월) 중 봄이 저무는 달이라는 뜻으로 3월을 가리킨다. 만춘(晩春) 또는 계춘(季春)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시 '두견(杜鵑)'에 "늦봄에 두견새 날아와 숲 사이에서 슬프게 우네(杜鵑暮春至 哀哀叫其間)."라고 한 구절과 '모춘(暮春)'에 "늦봄 물가에 서 있던 원앙과 해오라기 새끼 데리고 날아올랐다 풀숲에 돌아오네(暮春鴛鷺立洲渚 挾子翻飛還一叢)."라고 한 구절이 있다. 조선시대 작자 미상의 시조에 "동정에 건닌 달도 금음이면 무광이요, 무릉도화도 모춘 만나면 쓸 곳이 업네."라고 하였다. 또 다른 작자 미상의 시조에도 "暮春 三月 節조흔 제 春服 初成 때 맛거늘"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纂註分類杜工部集, 靑丘永言.
필자 | 정숙인(鄭淑仁)

방신(芳辰)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로운 때라는 뜻이다.

내용 3월은 봄날밤 활짝 핀 꽃들에 달빛이 비치는 광경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할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봄의 달이다.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시 '처성서원송리판관형무판관제부성도부(鄭城西原送李判官兄武判官弟赴成都府)'에 "높다란 누대에 올라 친한 이 보내니 오래도록 앉아서 꽃피는 3월 아쉬워하네(憑高送所親 久坐惜芳辰)."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纂註分類杜工部集.
필자 | 정숙인(鄭淑仁)

병월(炳月)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병(炳)은 아름답고 빛난다는 뜻으로, 이 시기가 되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내용 『이아(爾雅)』「석천(釋天) 월명(月名)」편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炳),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 이다(正月爲陬二月爲如 三月爲炳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그 소(疏)에 "병(炳)은 본래 병(昺)이라고도 하니, …… 병(昺)은 병(丙)의 뜻이다. 3월은 양기가 왕성하여 만물이 모두 환하게 빛나는 듯 하다(炳 本或作昺……昺者丙也 三月陽氣盛 物皆炳然也)."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爾雅.
필자 | 정숙인(鄭淑仁)

소화(韶華)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화창한 봄경치라는 뜻으로 방신(芳辰), 가월(嘉月), 염양(艷陽)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한유(韓維)의 『태후합첩자(太后閤帖子)』에 "소화를 맞이하여 중금(中禁)으로 들어가니 온화한 바람이 신주(神州)에 두루 미치네(迎得韶華入中禁 和風次第遍 神州)."라고 하였다. 당(唐)나라 대숙륜(戴叔倫)의 시 '모춘감회(暮春感懷)'에 "동황(東皇)이 떠난 뒤에 화창한 봄 경치 다하니(東皇去後韶華盡 老圃寒香別有秋)."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樂府, 太后閤帖子.
필자 | 정숙인(鄭淑仁)

염양(艷陽)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이라는 뜻이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시 '삭배리재주범강 유여악재제방 희위염곡이수증리(數陪李梓州泛江 有女樂在諸舫 戱爲艷曲二首贈李)'에 "환하고 고운 빛 다투니 3월의 화사한 꽃들을 훔쳐보듯 하네(競將明媚色 偸眼艷陽天)."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纂註分類杜工部集.
필자 | 정숙인(鄭淑仁)

잠월(蠶月)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봄누에를 치는 시기라는 말로, 음력 3월은 민가에서는 뽕나무 가지를 치고 뽕잎을 따는 바쁜 시기이다.

내용 『시경(詩經)』「국풍(國風)」의 '빈풍(豳風) 칠월(七月)'에 "누에 치는 달에 뽕나무 가지 치니 저 도끼를 잡네. 길게 뻗어난 가지를 치니 저 여린 뽕잎은 무성해지리(蠶月條桑 取彼斧斨 以伐遠揚 猗彼女桑)."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그 주(註)에 "잠월은 곧 하나라 역법으로 3월이니, 이는 양잠하는 달을 잠월이라 불렀기 때문이다(蠶月 卽夏曆三月 養蠶的月份所以叫蠶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중국 남조(南朝) 동진(東晋) 도연명(陶淵明)의 시 '전거(田居)'에 "오직 바라는 것은 뽕나무와 삼이 잘 자라서 누에 치는 3월에 길쌈할 준비하는 것이네(但願桑麻成 蠶月得紡績)."라고 한 구절이 있다.



누에뽕주는모양
기산풍속도 김준근

참고문헌 | 陶靖節集, 詩經.
필자 | 정숙인(鄭淑仁)

재양(載陽)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양(陽)은 봄의 따뜻한 기운을 뜻하는 말로, 따뜻한 봄기운이 감돈다는 뜻이다.

내용 『시경(詩經)』「국풍(國風)」 '빈풍(豳風) 칠월(七月)' 시에 "봄날이 비로소 따뜻해져 꾀꼬리가 우네. 아가씨는 아름다운 광주리를 들고 저 오솔길을 따라 가며 부드러운 뽕잎을 따네(春日載陽 有鳴倉庚 女執懿筐 遵彼微行 爰求柔桑)."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정숙인(鄭淑仁)

전춘(殿春)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만춘(晩春), 모춘(暮春), 계춘(季春)이라고 한다.

내용 전(殿)은 원래 진영의 뒤를 나타내던 말에서 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논어(論語)』 제6편 '옹야(雍也)'에 "패하여 도망가면서 군대 후미에 쳐져 있다(奔而殿)."라는 구절의 주(註)에 "군대의 후미를 전(殿)이라 한다(軍後曰殿)."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춘(殿春)은 늦은 봄이라는 뜻이며, 일년을 석 달씩 네 계절로 나눈 가운데 봄 3달(1월, 2월, 3월) 중 마지막인 음력 3월에 해당한다.



빈풍칠월도 제2면(이방운)
국립중앙박물관

참고문헌 | 論語.
필자 | 정숙인(鄭淑仁)

진월(辰月)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진(辰)은 십이지(十二支)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력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십이지(十二支) 중 세 번째인 인월(寅月)을 정월(正月)로 삼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진월(辰月)은 3월에 해당한다.

내용 이 시기가 되면 농가에서는 논밭의 가래질, 논밭둑 다지기, 보리밭 매기, 채소 파종 같은 일로 몹시 바쁘다. 『설문(說文)』에 "진은 천둥이다. 3월에 양기가 발동하여 천둥이 치므로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이다(辰震也 三月陽氣動 雷電振 民農時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說文.
필자 | 김정석(金正錫)

춘화(春和)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화(和)는 온화하고 따뜻하다는 말로, 춘화(春和)는 따뜻하고 온화한 봄날이라는 뜻이다. 일년 열두 달을 가운데 봄의 석 달(1월, 2월, 3월)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3월을 가리키며, 춘훤(春暄) 또는 춘창(春暢)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시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봄기운이 온화하고 경치가 환하며 파도가 잔잔할 때면 하늘과 물이 온통 푸르고 넓은 호수가 파랗게 펼쳐 있네(至若春和景明 波瀾不驚 上下天光 一碧萬頃)."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范文正公集.
필자 | 정숙인(鄭淑仁)

춘훤(春暄)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훤(暄)은 따뜻하다는 말로 춘훤(春暄)은 양기가 왕성한 음력 3월의 따뜻한 봄볕을 가리킨다.

내용 『시경(詩經)』 '빈풍(豳風) 칠월(七月)' 시에 "봄날 해가 길어지니 흰 쑥 많기도 해라(春日遲遲 采祁祁)."라고 하였고, 그 소(疏)에 "사람들이 봄날 양기가 왕성해지면 사지(四肢)를 활짝 펴고 편안해진다(人遇春暄 則四體舒泰)."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정숙인(鄭淑仁)

쾌월(夬月)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쾌괘는 봄 석 달(1월, 2월, 3월)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3월을 가리킨다.

내용 쾌(夬)는 『주역(周易)』에 나오는 괘 이름으로, 상괘(上卦)는 태괘(兌卦, ☱)이고 하괘(下卦)는 건괘(乾卦, ☰)로 이루어져 있다. 태괘는 늘어선 효(爻)로 보면 양(陽)의 기운 다섯이 힘차게 뻗어 종국에는 하나 남은 음(陰)을 밀어버리려는 형상이다. 순양지월(純陽之月)인 건괘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4월에 해당하므로, 쾌괘(夬卦, ䷪)는 봄 석 달(1월, 2월, 3월)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3월을 가리키게 된다. 주역(周易)의 64괘(卦) 중 12괘를 뽑아 일 년 열두 달에 배속시키는데,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처음으로 생겨나는 복괘(復卦)를 음력 11월에 배속시켰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정숙인(鄭淑仁)

혜풍(惠風)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혜풍은 만물을 나고 자라게 하며, 부드럽게 피부에 와닿는 동남풍의 3월 봄바람을 가리킨다.

내용 이 시기에는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므로 들판에 나가 꽃을 구경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긴다. 온화한 봄바람처럼 만백성을 돌봐주는 임금의 은혜를 혜풍에 비유하기도 한다. 중국 진(晋)나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집(蘭亭集)』 서문(序文)에 "이 날(3월 3일)은 하늘이 깨끗하고 날씨도 맑아 3월의 봄바람이 온화하게 불어오네(是日也 天朗氣淸 惠風和暢)."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중국 서진(西晉) 육기(陸機)의 '의고시십이수(擬古詩十二首) 의정중유기수(擬庭中有奇樹)' 시에 "철쭉꽃은 숲과 물가를 따라 피어 있고 따뜻한 봄바람 내 가슴에 들어오네(躑躅遵林渚 惠風入我懷)."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蘭亭集, 陸士衡集.
필자 | 정숙인(鄭淑仁)



쾌괘 『周易諺解』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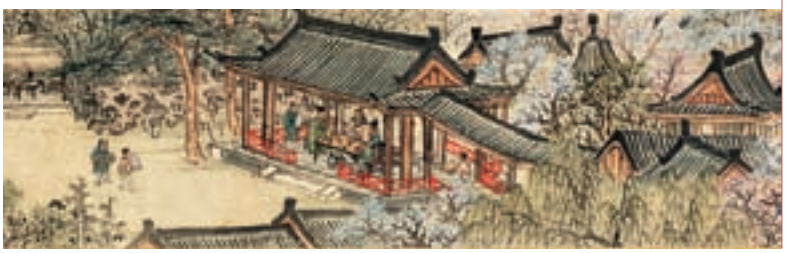
화월(花月)

정의 음력 3월을 달리 부르는 말. 아름다운 꽃이 한창 피는 달로, 음력 3월이면 산과 들에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만개하여 꽃놀이를 즐긴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시 '증특진여양왕이십운(贈特進汝陽王二十韻)'에 "늦은 봄에는 놀이와 잔치를 한껏 즐기고 한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네(花月窮遊宴 炎天避鬱蒸)."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纂註分類杜工部集.
필자 | 정숙인(鄭淑仁)

사계산수도(김두량)
국립중앙박물관







晉日

정일

삼진날에는 중구절에 강남 갔던 제비가
옛집을 찾아와서 추녀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치며
나비도 날아든다.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산과 들에 푸르고 붉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삼진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놀러 가는데
이를 화류놀이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화전놀이 · 꽃놀이
또는 꽃다림이라고 하며
대개 늙은이는 늙은이들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무리를 지어 가서
화전을 비롯한 음식들을 먹고
하루를 즐긴다.



화전놀이
충남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 황현만

삼짇날

정의 음력 3월 3일을 가리키는 말.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俗節)의 하나였다. 이 날을 '강남갔던 제비 오는 날'이라고도 하며, 삼질(삼짇날의 준말), 삼샛날 또는 여자의 날이라고 한다. 한자어로는 삼중일(三重日), 삼진일(三辰日), 상사일(上巳日), 상제(上除), 원사일(元巳日), 중삼일(重三日), 답청절(踏靑節), 계음일(禊飮日) 같은 이칭이 있다. 양의 수가 겹치는 삼짇날은 파릇파릇한 풀이 돋고 꽃들이 피어 봄기운이 완연하다. 그래서 이 날은 봄에 걸맞는 모든 놀이와 풍속이 집중되어 있다.

내용 이 날은 9월 9일에 강남 갔던 제비가 옛집을 찾아와서 추녀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치며, 나비도 날아든다.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산과 들에 푸르고 붉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삼짇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놀러 가는데, 이를 화류놀이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화전놀이, 꽃놀이 또는 꽃다림이라고 하며, 대개 늙은이는 늙은이들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무리를 지어 가서 화전을 비롯한 음식들을 먹고 하루를 즐긴다. 고시조에 "낙양 삼월시에 곳곳이 화류로다. 만성춘광이 그림에 들었세라. 아마도 당우세계(唐虞世界)를 다시 본 듯 하여라."라고 읊은 것이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기도 한다. 3월을 노래한 사친가(思親歌)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 연자(燕子)는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 호접(胡蝶)은 분분하여 구색을 자랑한다.
> 백마금편(白馬金鞭) 소년들은 화류춘풍(花柳春風)
> 흥에 겨워
> 쌍을 지어 노닐 적에 산화작작(山花灼灼)
> 난만개(爛漫開)라.
> 슬프도다 세월이여 애오생지(哀吾生之) 가린하나
> 탄광음지(嘆光陰之) 여류로다.
>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踏靑節)을 모르시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보면, 조선 중엽 이후에는 많은 유생들이 삼월 삼짇날에 시제(時祭)를 지냈다고 한다.

놀이 봄에는 다양한 놀이와 행사들이 펼쳐진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물곳(물넝개) 풀을 뜯어서 대나무쪽에다 풀 끄트머리를 실로 매고, 머리를 땋아 가느다란 나무로 쪽을 찌고 헝겊조각으로 노랑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입혀서 각시 모양의 인형을 만든다. 요, 이불, 베개, 병풍을 차려 놓고 인형놀이를 하는데, 이것을 각시놀음이라 한다. 사내아이들은 나뭇가지에 물이 오를 때쯤 되면, 버드나무나 미루나무 가지를 꺾어 비틀어서 뽑아 속뼈는 내버리고 껍질로 피리를 만들어 불고 다니면서 논다. 북청 지역에서는 "앵앵 울어라 너의 어미 죽어서, 부모가 왔다 앵앵 울어라."라고 노래 부르며, 옹진 지역에서는 "피리야 피리야 늴늴 울어라, 너의 어머니는 소금맛이 갔다가 소금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분다.

이때를 전후하여 경로회를 베풀어 노인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보면, 강릉 풍속에 노인을 공경하여 매년 좋은 계절을 당하면,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청해서 명승지로 모셔서 위로한다. 이를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라 한다. 비록 종에 속한 천한 사람일지라도 70세가 된 사람은 모두 모임에 나오도록 한다.

삼짇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한량들이 활터에 모여 편을 짜 활쏘기대회[弓術會]를 연다. 활을 쏠 때는 기생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한량들 뒤에 나란히 서서 소리를 하여 활 쏘는 이의 기운을 북돋워준다. 그리고 화살 다섯 개가 과녁에 바로 맞으면 기생들은 북을 울리고 "지화자 지화자……."라는 소리를 하면서 한바탕 춤을 춘다.

절식 삼짇날 무렵이면 봄기운이 왕성하고 흥이 저절로 나, 사람들은 산과 들로 몰려나가 화전과 수면을 만들어 먹으며 봄을 즐긴다. 찹쌀가루에 반죽을 하여 참기름을 발라가면서 둥글게 지져 먹으니 이것을 '화전(花煎)'이라고 한다. 또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혀서 가늘게 썰어 오미자(五味子) 물에 넣고, 또 꿀을 타고 잣을 넣어 먹으니 이것을 화면(花麵)이라고 한다. 더러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녹두가루와 반죽하여 만들기도 하며, 붉은 색으로 물을 들이고 꿀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수면(水麵)'이라고 하여 제사에도 사용한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봄철 여러 가지 떡을 해서 먹는다. 흰떡을 하여 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속에 팥을 넣고, 떡에다 다섯 가지 색깔을 들여, 다섯 개를 이어 구슬을 꿰어 만든다. 작은 것은 다섯 개씩이고, 큰 것은 세 개씩으로 하는데, 이것을 산떡[饊餠, 꼽장떡]이라고 한다. 또 찹쌀과 송기와 쑥을 넣어서 떡을 하는데, 이것을 고리떡[環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날에는 부드러운 쑥잎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쪄서 떡을 만들어 먹으니 이것을 쑥떡이라고 한다.

봄철에 먹는 술로 각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술을 빚으니 소면주(小麵酒), 두견주(杜鵑酒), 송순주(松荀酒), 과하주(過夏酒)가 유명하고, 관서 지방에서는 감홍로(甘紅露), 벽향주(碧香酒)와 해서 지방의 이강주(梨薑酒), 호남 지방에서는 죽력고(竹瀝膏), 계당주(桂當酒), 호서 지방의 노산춘(魯山春), 서향로(瑞香露)가 유명하다. 그리고 사마주(四馬酒)는 넷째 오일(午日)에 거듭 빚은 술이므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술은 한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송사(宋史)』에 "고려에는 상사일(上巳日)의 쑥떡을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친다." 하였고,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 "3월 3일에는 쑥잎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쪄서 떡을 만드는데, 이것을 쑥떡이라 하였으며, 중국에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속신 이 날 흰나비를 보면 그 해에 상복을 입게 된다고 하여 불길하며,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를 보면 그 해 운수가 좋다고 여긴다. 삼짇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물이 흐르듯이 소담하고 아름답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다투어 머리를 감기도 한다. 삼짇날에는 동면하던 뱀도 나오는데 이 날 뱀을 보면 좋지 않다고 해서 꺼린다. 이 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고, 호

1 화전만들기
2 화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
황현만





박을 심으면 잘 되고, 약물을 마시면 연중무병하고, 평소에 하지 못하던 집안 수리를 해도 무탈하다고 여긴다.

지역사례 『동국세시기』에는 "진천(鎭川) 풍속에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자들이 무당을 데리고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 및 삼신당으로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행렬이 끊어지지 않고 사방의 여인들이 모두 와서 기원하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시장을 이룬 것 같이 일년 내내 들끓었다."라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제주도 풍속에 매년 봄철을 당하면 남녀들이 광양당(廣壤堂), 차귀당(遮歸堂)으로 운집하여 주육을 갖추어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 또 그곳에는 뱀, 독사, 지네 따위가 많으며 만일 회색의 뱀을 보면 차귀신이라 하여 금기하고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

경북 고령, 문경에서는 '3월의 첫 뱀날이 발달하여 삼짇날이 되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월성에서는 쑥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그 해 뱀에게 물리지 않는다고 하고, 칠곡에서는 이 날 호박을 심으면 잘 된다고 한다. 달성, 군위, 의성, 영덕에서는 이 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하며, 청도, 칠곡, 금릉, 문경에서는 농사를 짓기 전의 마지막 놀이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울타리를 붙들고 운다고 한다. 선산과 달성에서는 흰나비를 보면 복을 입고 노랑나비를 보면 길(吉)한 일이 있으며, 약물을 먹으면 무병하고 집안의 보수 작업을 아무리 해도 무탈하다고 한다. 의성에서는 이 날 뱀을 보면 "썩은 새끼"라 부르는 금기가 있고, 달성에서는 이 날 뱀을 보면 운수가 길하다고 한다.

영천에서는 춘경제(春耕祭)를 지내며, 달성에서는 그 해의 길흉을 점치며, 동쪽으로 흐르는 냇물에 겨울 동안의 묵은 때를 씻고, 교외로 나가 청유(淸遊)를 즐기며 가정에서 화전과 화주를 만들어 조상에게 고사를 지낸다. 이 날 여자들은 진달래꽃을 꺾어 조상단지 앞에 꽂아두고 농사의 풍년과 해충의 예방을 빌기도 한다. 삼짇날을 고비로 앞으로 고된 농사일에 부대낄 것을 생각하니 슬퍼서 젊은 며느리들이 울타리를 잡고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경남 함양, 거창, 합천에서는 이 날 용왕먹이기를 강조하기도 한다. 거창에서는 삼짇날에 바람이 불면 그 해 대마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전북 군산, 익산에서는 삼짇날 조상에게 시제를 지내는데, 이것을 '시사(時祀)'라고 한다. 전주에서는 이 날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실을 매준다. 전남에서는 삼짇날 제비를 맞이하기 위하여 제비집을 손보기도 한다. 제비가 집에 와서 새끼를 네댓 마리 까고 길러서 나가면 그 해 복을 받는다고 여긴다. 이 날 당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또한 머리카락의 끝을 자르면 그 머리가 더 잘 자란다고 하여 머리를 자르기도 한다.

충남에서는 삼짇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물이 흐르듯이 소담하고 아름다워진다고 해서 부녀자들이 다투어 머리를 감기도 한다. 화류놀이는 미리 통문을 돌려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논다. 문장에 능통한 사람들은 즉흥시나 시조를 읊고 부녀자들은 안방가사를 읊으며, 농부와 아이들은 민요를 불러 흥을 돋우는데, 충남에서는 "제화제화 제화하 얼씨고 절씨고 좋을씨고 춘삼월 화전놀이를 간다. 춘향의 방문 앞 이도령 걸음으로 이그작 아그작 걸어서 거들거리고 나간다. 세모시 마당 앞에 금자라 걸음으로 아그작 아그작 걸어서 거들거리고 나간다. 둥그다당실 둥그다당싱 에라 두둥실 연자 버리고 마- 거리고 거들거리고 나간다."와 같은 민요를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까마귀가 새끼를 치되 한 마리를 치면 그 해는 가뭄이 온다고 하고, 두 마리를 치면 농사가 괜찮다고 하며, 세 마리를 치면 물이 넘쳐 흉년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농어촌에서는 꿩알줍기라 하여 꿩알을 주워오면 공덕지물이라 하여 재수 좋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는 대조적으로 한편에서는 꿩알을 주우면 재수를 망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이유로 꿩은 천신(天神)으로 내려온 하늘 닭이니 잡아서는 못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황해도에서는 화전 외에도 고운 밥, 곧 흰쌀밥을 해먹고, 아이들은 진달래꽃을 따다가 얇은 돌을 깔고 그 속에 꽃잎을 따 넣은 후 불을 때어 익혀서 꽃짐을 해 먹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어촌에서는 까나리잡이를 3월부터 시작하여 5월 단오 무렵까지 하는데, 까나리잡이를 할 때는 고사도 크게 지낸다.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삼짇날 동류수(東流水)에 몸을 씻으러 가는데, 이곳에서 몸을 씻으면 일년간 재액

을 떨어버린다고 한다. 신인과 묵객들도 강변 정자에 모여 시를 읊고 화전놀이를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洌陽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弘人文化社, 196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69~1977),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傳統文化의 脈(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7),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최인학(崔仁鶴)

계음일(禊飮日)

정의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이 날 액막이로 모여 술을 마신다고 하여 계음일이라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경주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버리고 계음을 한다."라고 했다. 『태재선생문집(泰齋先生文集)』 권1에 보면, 계음을 하지 못해 적막한 마음을 읊은 시가 있으며, 『점필재집(佔畢齋集)』 권7에는 3월 3일에 판관 최영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계음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 『모재선생집(慕齋先生集)』 권5에도 "답청에 향사의 사람들과 계음을 약속했으나 비가 와서 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있다. 이와 같이 3월 3일은 옛날부터 동류수에 가서 머리를 감고 즐기던 풍속이 있었다. 한편,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중국에서도 계음을 한 기록이 있으니 "지금 3월 상사(上巳)에 물가에서 하는 종류이며 관민이 모두 동류수에 가서 계음을 한다."라고 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慕齋先生集, 佔畢齋集, 泰齋先生文集, 荊楚歲時記.
필자 | 최인학(崔仁鶴)

답청절(踏靑節)

정의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새 봄을 맞아 교외의 푸른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답백초(踏百草)라고도 한다.

내용 기원은 당송(唐宋) 시대로 보인다. 이 날 묘제를 마치고 푸른 잔디 위에서 화전을 지져 먹으며 투



답청가는모양
기산풍속도(모사도) 국립민속박물관

백초(鬪百草)라는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서울 풍속에 산언덕, 물굽이에 나가 노는 것을 화류(花柳: 꽃놀이)라 한다. 이것은 곧 상사(上巳: 삼짇날)의 답청(踏靑)하는 데에서 비롯된 풍속이다. 『선원유고(仙源遺稿)』에 "답청일에 이웃 노인과의 약속에 가고자 하여 겨울옷을 꺼내 입었으나 아직도 춥다."라는 말이 있고, 『점필재집(佔畢齋集)』 권20에는 "3월 3일에 비가 와서 나가지 못하고 청호병(菁蒿餠; 푸른 쑥에 쌀가루를 섞은 떡)을 먹으면서 감회가 짙다."는 기록이 나온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仙源遺稿, 佔畢齋集,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최인학(崔仁鶴)

삼삼일(三三日)

정의 삼월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이 날은 달[月]과 날[日]에 모두 삼(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삼삼일(三三日)이라 한다.

내용 조선 중기 문신인 신광한(申光漢)의 '삼삼일에 모동 대구 박덕장에게 보내다. 일찍이 허곡 이군과 평촌 윤생 등과 삼삼일과 구구일의 모임을 약속했으나, 지금 허곡이 역질에 걸려 있고, 평촌은 홍수로 막혀 있으니 이 모임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동 한 사람 뿐이기에 율시 한 수를 지어 내 뜻을 보인다(三三日 寄茅洞朴大丘德璋 曾與虛谷李君 坪村尹生 約爲三三九九之會 今者 虛谷有疫 坪村阻水 能繼此會者 獨茅洞在 偶成一律 以示之云)'라는 시에 "삼삼일과 구구일에 해마다 만나자던 옛 약속은 아직 남았건만 모이는 일은 그렇지 않네. 향기로운 풀 답청하는 오늘 맑은 술두루미에 흰 거품이 이나 친구가 없구려(三三九九年年會 舊約猶存事獨非 芳草踏靑今日是 淸罇浮白故人違)."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企齋集.
필자 | 이창희(李昌熙)

삼샛날

정의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3월 3일 양수가 겹쳐 있는 날이라는 뜻으로 중삼(重三)과 같은 의미로 부르는 우리말이다.
내용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에 '중삼(重三)'이라는 시가 있고, 『송재시집(松齋詩集)』 권2에는 '봄이 밤은 지나 중삼을 맞으니 꽃과 새의 흥이 바로 한창이네' 라는 시와 더불어 3월 3일에 앞 시내에서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기재집(企齋集)』 권3에 이허곡(李虛谷)이 '삼샛날[三三日]' 시에 화답하여 보내니 다시 화답한다고 하여 시로 화답하는 글이 나온다. 또 『기재집』 권5에는 삼샛날[三三日]에 모동 대구 박덕장에게 시를 써 보낸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권6에는 "청명과 한식에 이어 또 삼샛날이니, 좋은 명절이 서로 이어져 나그네의 흥을 돋구네."라는 시구가 보인다.

참고문헌 | 企齋集, 松齋詩集, 聽天堂詩集.
필자 | 최인학(崔仁鶴)

삼진일(三辰日)

정의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3월 3일을 일컫는다.
내용 삼진일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동면하는 개구리와 뱀이 땅속에서 나오고 기러기도 북으로 날아간다고 한다. 삼진일에 시냇물에 가서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의 끝을 끊어서 시냇물에 흘려보내면 물줄기처럼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고 한다. 사천 지방의 민요에 "연자는 펄펄 호자는 탱택 나뭇잎 피고 가지가지 꽃피고"가 있는데 이것은 삼진일에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민요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필자 | 최인학(崔仁鶴)

상사일(上巳日)

정의 삼짇날을 부르는 말. 음력 3월의 첫째 사일(巳日)을 말한다.
내용 흐르는 물가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연중의 부정한 것을 씻어버린다. 위(魏)나라 이후 3월 3일을 상사일로 정하여 부르게 되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서울 풍속에 산언덕, 물굽이에 나가 노는 것을 화류(花柳: 꽃놀이)라 한다. 이것은 곧 상사일에 답청(踏靑)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소재선생문집(蘇齋先生文集)』 권3에 보면 '상사일에 향교에 모여 동쪽 계곡물 흐르는 곳에 술잔을 올려놓고 술에 취해 쓴다.'는 글이 있고, 『제봉집(霽峯集)』 권1에는 '상사일에 뭇 친구들이 곡수(曲水)놀이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시를 쓴다.'는 제목이 나온다. 『간이문집(簡易文集)』 권6에는 "상사일에 동풍이 불어와 고향 언덕을 생각하네."라는 시구가 보인다.

참고문헌 | 簡易文集, 東國歲時記, 蘇齋先生文集, 霽峯集.
필자 | 최인학(崔仁鶴)

상제(上除)

정의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3월의 상사(上巳)의 날을 말한다.
내용 중국 제(齊)나라 좌사(左思)의 문헌인 『제도부(齊都賦)』와 『상당사고(上堂肆考)』에 상제는 음력으로 3월 3일이며 이 날 물에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고 적었다.

참고문헌 | 上堂肆考, 齊都賦.
필자 | 최인학(崔仁鶴)

여자의 날(女子-)

정의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특히 여자들의 행사에 중심을 두고 이 날을 여자의 날이라고 했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진천(鎭川) 풍속에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자들이 무당을 데리고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과 삼신당으로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였다. 그리고 삼짇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물이 흐르듯 소담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부녀자들은 다투어 머리를 감기도 한다. 경남에서는 부녀자들이 이 날 절에 가서 삼짇불공을 드린다. 전북에서는 부녀자들이 음식을 장만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서 나누어 먹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무당들에게 가서 치성을 드리고 굿을 하는 곳도 있다. 경북에서는 이 날 여자들이 진달래꽃을 꺾어 조왕단지 앞에 꽂아두고 농사의 풍년과 해충의 예방을 빌기도 한다. 이 날에는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전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을 '화전'이라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傳統文化의 脈(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7).

필자 | 최인학(崔仁鶴)

원사일(元巳日)

정의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상사일(上巳)이라고도 한다.

내용 음력 3월 3일을 원사(元巳)라고 한다. 중국 한(漢)나라 장형(張衡)의 『남도부(南都賦)』에 따르면 삼월의 첫 사흘째를 말하는데 이 날은 곧 상사일이라고도 한다. 이 날 물가로 가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다.

참고문헌 | 南都賦.

필자 | 최인학(崔仁鶴)

제비오는날

정의 삼월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삼월 삼짇날은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고 하여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길한 날로 생각한다.

내용 제비는 귀소성이 강한 철새로 매년 같은 번식지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비는 보통 봄을 알려주는 새로 인식되어 제비가 오는 것을 보고 따뜻한 봄이 왔다고 생각한다. 또 제비는 천녀(天女)와 귀녀(貴女)를 상징하고, 비를 오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으며 부귀(富貴) 또는 장수(長壽)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익조(益鳥)로 여겨온 탓에 집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좋은 징조로 받아들인다. 이때 제비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 집안이 부귀해진다고 하여 익조의 다산을 길조(吉兆)로 여기기도 하였다. 이 날 마을에서 제비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꿩알을 줍는다는 믿음이 있다.

한편 제비가 오는 것을 보고 행동을 탐색하여 앞일을 예측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제비가 올 때 높이 날면 날씨가 쾌청하고 낮게 날면 비가 내리며, 계속 지저귀며 낮게 날아다니면 태풍이나 장마를 예고하는 것으로 믿는다. 또 삼짇날 일어나서 제비를 먼저 보면 일년 내내 부지런하고 몸이 아주 가벼우며 날쌔게 생활한다는 속신이 있다. 이러한 믿음은 제비가 주는 상징적 관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우리문화의 상징세계(김종대, 다른세상, 2001).

필자 | 박선애(朴善愛)

중삼일(重三日)

정의 삼짇날을 달리 부르는 말. 3월 3일 양수가 겹쳐 있는 날이기에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내용 중삼(삼월 삼일)도 삼일(뒤에 와전되어 삼질이 되었다) 명절이라 하지만 이는 중국의 상사(上巳)의 습속에서 온 듯하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이 날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든다. 이것을 참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花煎)이라 한다." 하였다.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에는 "우습게도 중삼일인데 꽃이 아직 안 피었네." 란 시가 있고, 『제봉집(霽峯集)』 권5에는 "절기가

중삼일이 되어 화려한 경치가 기다려지는데, 수연 베푸는 자리에 긴 병풍 모두 서로 마땅하네."라는 시구가 보인다. 『습재집(習齋集)』 권4에는 "105일(한식)이 지나 또 중삼일이 되니, 계절이 사람을 어지럽힘에 매우 견디기 어렵네." 했고, 『택당선생집(澤堂先生集)』 권5에는 "중삼 명절에 이미 봄도 깊은데 쓸쓸히 텅 빈 방에 월음(越吟)만 울려 퍼지네."라는 표현이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錦溪先生文集, 松齋詩集, 習齋集, 梧里先生文集, 霽峯集, 聽天堂詩集, 澤堂先生集, 열두달의 별칭(金台俊, 金台俊全集2, 1936).
필자 | 최인학(崔仁鶴)

봉화산도당굿(峰火山都堂-)

정의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봉화산 정상의 도당에서 삼짇날 마을의 평안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복을 기원하며 지내는 마을굿. 2005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다. 도당굿은 경기도 일원의 마을굿을 부르는 이름이지만 근래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서울의 일부 마을에서도 도당굿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도당굿(都堂-)의 도(都)자는 도시(都市), 도성(都城), 도원수(都元帥), 도사공(都沙工), 도편수(都-)에서 보듯이 모두 으뜸,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사 한국의 여러 지역 마을 제의는 근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대체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모든 마을 제의가 그렇듯이 봉화산도당굿도 그 기원이나 유래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옛 문헌이 없다.

근래에 서울시청이나 중랑구청 또는 중랑문화원 등에서 발간한 자료집들에서는 봉화산도당굿의 역사가 400년쯤 되는 것으로 적고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15, 세종 29년 3월 병인에 "연대의 상단에는 가옥(假屋)을 조성하여 병기(兵器)와 조석으로 공급하는 물과 불을 지피는데 필요한 기물을 보관한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이 기록에 의거 『봉우재 이야기』에서 도당의 연대를 400년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처음에는 초가 단칸이었으나, 광무 4년(1900년)에 정면 4칸, 측면 2칸의 단청을 올린 기와집으로 개축되었다고 하였다.

봉화산도당을 400년쯤으로 보려는 타당성은 다른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봉화산도당굿의 당주 계보가 방씨(여) → 오토바이(여) → 강기순(여) → 신위행(여, 현 당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방씨의 남편인 최씨가 이곳 도당굿의 13대째 당주였다.

고로(古老)에 의하면 면목 1동의 '고문계(이 지역 무당들의 모임인 듯함) 최씨무당' 하면 꽤 이름난 무당이었다고 한다. 신위행 현 당주의 신어머니가 곧 최씨 부인인 방씨무당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로 볼 때 봉화산도당의 제의는 최소 400년 이전부터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봉화산도당의 신상(神像)은 불사산신할머니로 흰색 고깔에 흰색 장삼을 입고 붉은 가사를 입고 앉은 자세이다. 이곳에 산신할머니를 모시게 된 유래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산신을 정성껏 모시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곳 마을 주민들이 이 할머니를 산신할머니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한다. 또 건물 안에는 높이 5척의 석불(石佛)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고깔을 쓴 산신할머니 소상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석불에 대해서는 그 형태를 알 수 없어 그것이 불상 형태인지 또는 자의적으로 된 일반 석상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봉화산의 도당에서 오랫동안 산신을 섬겨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제례(祭禮)의 축문에 "봉화산 산신께 엎드려 감히 고하나이다."라는 문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내용 봉화산도당굿은 마을의 신앙의례이다. 그러나 신앙의례로만 끝나지 않고 굿 자체의 연희성과 마을 전체의 축제성을 지니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굿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니면서 나름대로 굿의 형태와 구조를 지닌다. 봉화산도당굿은 도당굿 과정 초반에 제례 및 진적 의식이 들어 있어 유교식 제의와 무굿의 복합 형태를 이루고 있다.

봉화산도당굿의 사제무는 신(神)이 내린 강신무(降神巫)이지만, 남부 지역 세습무가 단골판을 이어받듯이 이곳 도당굿에서도 사제 권한을 이어 받는다. 이곳에서는 도당굿 사제 권한을 가진 무녀를 당주라고 부르는데 당주 밑에는 작은 당주를 두기도 하여 당주로부터 사제권을 이어받게 되어 있다. 현재 조사에 의해 드러난 당주 계보는 최씨무당(13대:

최석길의 어머니) → 방씨(14대: 최석길의 부인) → 오토바이(15대: 최석길의 작은부인) → 강씨(16대: 2000년 미국 이민) → 신위행(17대: 현 당주, 방씨의 신딸)으로 이어지고 있다.

봉화산도당굿에 참여한 악사 역시 계보를 이루고 있는데, 최석길(방씨의 남편) → 김순선(사망) → 김광수(김순선의 아들)와 김홍수(김광수의 동생)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에는 김광수가 당주 악사로 정해져 있다.

봉화산도당굿은 도당과 아래쪽 제단 및 우물터에 각각 제물을 차리고 거리부정에서 시작하여 뒷전까지 16제차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유식 형태의 제례도 들어 있다.

제물은 제당(도당) 안에 불사할머니상, 북두칠성님상과 제당 아래에 별도로 꾸며진 제단(굿청) 제물, 그리고 우물터에 용왕상을 차린다. 이는 고정으로 바쳐진 제물이고 그 밖에 일시적인 제물로 거리부정 제물상과 대잡이거리의 순력상, 뒷전거리의 제물상을 들 수 있다. 봉화산도당굿에서는 쇠머리와 쇠족을 바치고 다른 고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 제물로는 떡을 많이 올리고 다른 지역과 같이 메, 과일, 나물, 두부, 부침개, 과자를 올린다.

봉화산도당굿 16제차의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리부정: 일명 죽동굿이라고도 하며 선부정이라고도 한다. 본전인 도당에 잡귀 잡신의 부정이 들지 못하게 막아주고 풀어준다. 도당에 들어서는 산길에서 한다.

② 주당물림: 제당(당집) 안의 부정을 가시고 청정하게 하며, 굿당에서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당을 맞지 않도록 하는 굿이다. 막걸리와 나물 같은 제물을 약간 밖에 버린다. 도당 앞 산길에서 하는 부정거리는 서서 하는데 당집 안에서는 앉아서 한다 하여 앉은부정이라고도 한다.

③ 불사할머니거리: 봉화산의 신령을 대표하는 산신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위해주는 굿으로서, 이 불사할머니굿에서 천궁불사 또는 사해용왕불사라 하여 용궁(물동이)타기를 한다. 당 안에서도 주민들에게 공수를 주지만, 당집 문 밖에서도 물동이를 타면서 주민에게 공수를 내려주고 축원을 해준다.

④ 제례 및 진적: 도당굿의 굿청은 당집이 아닌 그 아래쪽에 꾸며져 본굿이 진행되는 굿청에서는 제례 및 진적부터 시작이 된다. 이 제례는 제관 3명(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헌작(獻爵), 배례(拜禮), 독축(讀祝) 등으로 유식 형태의 제례를 올린다. 초헌관이 세 번 절하고 아헌관이 두 번, 종헌관이 두 번 절하여 모두 일곱 번 절하고 각각 술잔을 올리며 제관 중 한 명이 축문을 읽는다.

⑤ 부정·가망청배: 굿청의 부정을 가시며 신을 청하는 굿으로 앉아서 장구를 치며 신을 청하는 무가를 부른다. 주민들은 상에 돈을 놓고 술잔을 올리기도 하며 절을 한다. 무녀는 이들을 위해 축원해 준다.

⑥ 본향거리: 일명 산거리라고도 한다. 먼저 산신을 위한 축원을 드리고 이어서 산말명, 대신할머니, 산제장, 굴막제장 할아버지를 놀리는 굿으로 윗대의 만신, 당지기를 비롯하여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즐겁게 놀려주면서 공수를 주고, 각자의 씨족 후손들과 태어난 곳을 위해 보살펴 달라는 굿이다. 곧 조상거리와 같은 굿이다.

⑦ 상산거리: 일명 상산마누라 또는 장군거리라고도 한다. 상산거리는 원래 상산의 높은 산신님(이곳에서는 도당님인 산신할머니격)을 맞이하여 대접하고 잘 보살펴 달라며 기원하는 굿인데, 봉화산도당굿에서는 상산거리 내용이 장군거리를 겸하고 있다. 곧 나라를 지키던 여러 장군들을 청하여 놀아주고 마을을 잘 보살펴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을 함께 한다.

⑧ 별상거리: 별상거리에서 별상은 마마신(홍역마마)을 이르는 말이다. 이 굿에서는 별상님을 위해주며 마을 주민의 병을 막아주고 마을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굿 중간에 삼지창과 월도로 사슬을 세운다.

⑨ 신장거리: 산신장이나 도당신장을 위해주고 잡신들을 다스려 인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기원하는 굿이다. 이 굿에서는 오방기를 뽑게 하고 공수를 주며 복을 준다.

⑩ 대감거리: 도당대감, 살륭대감, 군웅대감, 봉화산미륵대감을 청해서 위해주고 마을을 잘 돌보아 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신장거리에 이어 기를 뽑게 하고 복을 준다. 주민들은 굿판에 나와서 무복을 걸치고 무감(무관)을 서기도 한다. 끝에는 제당과 굿청 주위를 돌며 술과 떡 따위를 조금씩 버린다.


1


2


3


4


5


6


7


8


9

〈봉화산도당굿〉
1 거리부정
2 불사할머니거리 - 용궁(물동이)타기
3 악사
4 공수
5 제례
6 독축
7 소지올리기
8 상산거리
9 별상거리 - 사슬세움
10 신장거리 - 신장기뽑기
11 대감거리
12 대감거리
13 산제석거리
14 산제석거리 - 바라돌기
15 용왕
16 군웅거리
17 대잡이거리
18 뒷전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국립민속박물관


10


11


12


13


14


15


16


17


18

⑪ 산제석거리: 마을의 모든 부정한 것을 막아주고 주민들의 무병장수와 만복을 기원하는 굿으로서 재수굿에 해당한다. 이 굿에서는 바라를 팔고 계면떡을 판다. 바라팔기는 무당이 바라를 들고 주민의 신수를 가려주며 돈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계면떡팔기는 떡을 나누어주고 떡값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⑫ 창부거리: 광대신인 창부님을 모시고 대접하며, 한 해 동안 마을과 주민이 무사하게 지내고 또 안락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⑬ 군웅거리: 군웅은 장수신으로 모시는 신령이다. 이 굿에서는 여러 장수신을 모셔 대접하고 마을과 주민에 잡귀를 물리고 해가 없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신칼 위에 쇠머리를 얹어 가슴에 받치고 놀다가 사실을 세운다. 쇠머리를 얹은 신칼이 바로 잘 서면 굿을 잘 받는 것으로 여긴다.

⑭ 용신거리: 도당으로부터 30여 미터 아래에 있는 옛 우물터에서 우물용왕님을 위하는 굿이다. 옛날에는 이 우물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우물이 사용될 때에는 물이 늘 맑고 깨끗하며 물이 잘 나오도록 기원했었다. 현재는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나 옛 우물터인 만큼 굿을 해주고 산가묶이나 산사태를 없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⑮ 대잡이거리: 우물터에서 용왕굿을 마치고 도당의 굿청에 올라와 한 쪽에서 대를 잡힌다. 마당에 제물상을 하나 차리고 그 옆에서 대잡이가 대를 잡으면 무녀의 축원과 빠른 악기의 반주 소리에 대가 흔들리고 신이 내리면 그때부터 대를 앞세우고 제물상을 들려 도당을 중심으로 산허리를 한 바퀴 돌아온다. 중간 중간에 상을 내려놓고 축원을 하며 마을을 위해준다.

⑯ 뒷전: 도당굿의 마지막 절차로 온갖 잡귀를 풀어먹이는 거리이다. 끝에 술과 음식을 조금씩 버리고 이어서 칼을 던진다. 이때에 칼끝이 바깥쪽을 향해야 된다. 이것은 잡귀와 모든 부정한 것이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이다. 이 뒷전거리를 마지막으로 봉화산도당굿이 끝난다.

의의 봉화산은 중랑구 지역에 위치한 단일 산봉우리로서 중랑구 내의 묵동, 중화동, 상봉동, 신내동의 접점지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봉화산도당굿을 2개 마을씩 합동으로 번갈아 주관을 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중랑구 전체의 제의로 지내오고 있다. 봉화산도당굿도 시초에는 마을 제의로서 신앙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에는 많은 주민의 호응과 참여로 큰 축제판을 이루고 있다. 중랑구 각 동의 유력 인사들이 봉화산도당굿을 통해 단합하게 되는 계기를 이루며, 각 동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본인의 가정과 마을을 위해 기원하고 사제무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모두 화합하고 즐거움을 얻는다.

참고문헌 | 봉우재이야기(서울 중화동 향토연구소 편, 2000), 봉화산 도당굿(중랑문화원 편, 2001).
필자 | 하효길(河孝吉)

산맥이

⇨ 산메기: 봄편

산메기

정의 산을 대접하는 의례로 산을 먹인다는 뜻.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행하며, 혈연 중심의 신앙이다.

내용 산메기는 산과 관련된 신앙으로, 전국에 널리 분포해 있는 보편적인 산간 신앙과는 달리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전해지는 독특한 신앙 의례이다. 산메기는 문자 그대로 산에게 무엇인가를 먹이는 신앙으로 산을 대접하는 의례이다. 지금의 산메기는 조상을 대접하고 자손의 발복을 기원하려는 신앙이 지배적이며 산신과 삼신 그리고 조상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산에다 소를 풀어놓고 먹이기 때문에 소를 위한 의례라고도 한다. 평소 집안에서 모시는 신체인 산을 마구간 앞에 모셔놓고, 소가 병이 나면 빈다는 것으로도 그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산메기 풍습은 지금까지 강원도 영동 지역과 정선, 영월 같은 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이들 지역 중 삼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현재도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삼척 지역의 산메기는 자연마을 단위의 동족(또는 문중) 집단이 무당이나 경을 읽는 복자(卜者) 같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으로 행해지는 삼척의 산메기는 단순한 신앙 의례만이 아니라, 봄에 마을이나

집안사람들이 모여 함께 조상에게 예를 올린 후 봄나들이한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신앙 의례이자 화전놀이와 같은 축제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삼척 산메기는 일찍이 조선총독부에서 나온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 놀이로 소개되었다.

삼척 지역의 산메기는 혈연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지연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중에서 혈연공동체인 문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많고, 일부 지역에서만 각성이 모여서 한날 한곳으로 가는 지연공동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삼척의 산메기가 세시명절에 주로 행해진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를테면 명절에 행한다는 것은 신앙의례만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축제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삼척 지역의 산메기는 주로 세시명절(歲時名節)에 행해진다. 곧 삼월 삼짇날,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옷날, 칠월 칠석, 구월 구일 같은 세시명절에 행하는 사례가 많고 그 외에 봄에 날을 받아서 지내거나 가을에 날을 받아서 지내기도 하고, 집안의 안택을 지내고 하기도 한다.

영동 지역에서 강릉시 지필마을의 경우는 단옷날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집안의 안주인이 미리 준비해둔 제물을 머리에 이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개인적으로 혼자 치성을 드리는 형태이다. 반면에 삼척 산메기는 보통 무당굿의례, 독경의례, 비손의례로 나눌 수 있다. 굿이나 독경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비손은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례이다.

제의형태 산메기의 제의 형태는 무당이 굿으로 진행하는 형태와 복자가 독경으로 진행하는 형태,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이 비손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세 가지가 있다.

무당굿으로 진행되는 산메기는 비교적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자연마을에서 주로 행해지며 이는 마을신앙의 성격을 지닌다. 곧 마을에서 당주를 뽑아 대표로 선정하고 일을 진행한다. 마을에서 보통 서너 명의 무당을 초청하면 이들은 하루 전에 마을로 들어와서 당주집에서 자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간다. 먼저 당주집에서 축원을 한 다음, 산으로 올라가서 부정을 가셔내고 산신을 청하는 먼산맞이를 한다. 산신맞이는 산에 올라가면서 산메기를 알리는 목적으로 간단하게 행하기도 하고, 산령경이나 산신굿으로 멀리 있는 태백산, 쉰음산, 두타산 같이 집안에서 모시는 산을 맞이하기도 한다. 먼산맞이가 끝나면 바로 조상을 모시게 되는데 이 조상거리가 가장 규모가 크다. 오랜 시간을 축원한 다음에 소지를 올리고 삼베를





1 산메기줄
2 산메기
3 산메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신곡리
황헌만







〈산메기〉
1 산신맞이
2 산신당
3 먼산맞이
4 산신경
5 조상경
6 조상경 후 점보기
7 삼신맞이
8 용왕제
9 소지
10 조상옷가르기
11 조상옷입히기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국립민속박물관






3


4


5


7


10


11

갈라서 조상 옷을 해 입힌다. 그 다음은 삼신을 모시고, 소를 위해 군웅을 모시며, 말명 조상이 있는 집에서는 말명을 모신다. 마지막에 뒷전으로 객귀들을 풀어먹이면서 산메기는 끝이 나고 마을 사람들의 놀이판이 이어진다.

독경 의례는 복자가 징이나 북을 치면서 부정경, 산령경, 조상경, 삼신경을 읽어 진행한다. 일반 민간인들이 직접 비는 비손의례는 무당이나 경객을 데려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비는 것이다.

산메기의 장소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름 있는 산을 찾는 경우와 마을에서 가까운 야산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후자에 속한다. 보통 산메기를 하는 곳은 그 명칭이 남아 있어 영산메기, 동산메기 따위로 부르며, 이러한 지명이 나오는 곳은 반드시 산메기를 했던 곳이다.

마을 야산은 소를 풀어놓고 먹이는 곳이며 화전농사를 짓고 땔나무를 하고 거름으로 쓸 풀을 베어오는 생활의 터전으로서 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치성이 깊은 산으로 들어가 인적이 드문 곳을 찾는 점과 대조된다.

산메기를 하는 장소, 곧 산메기터는 아주 넓게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집안에서 지정해 둔 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한지나 실을 매어 신체로 삼는다. 나무는 보통 무당이나 복자가 지정해 준다.

기능 및 목적 산메기에서 산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그 기능이나 목적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산메기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소가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를 키우는 집들이 산메기를 많이 하며, 산메기의 장소가 되는 마을 야산은 소를 먹이는 장소이자 농사를 짓는 장소로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곳을 관장하는 신을 잘 대접하여 화를 면하고 복을 기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산에 소를 풀어놓고 먹이기 때문에 소가 구르거나 다치지 말고 짐승의 피해도 막아달라고 하며, 또 그곳에서 짓는 농사가 풍년이 들고 잘되게 해달라고 축원한다. 이때는 산을 관장하는 산신에게 축원하는 것이 주요 의례이다. 그리고 산 또는 군웅이라 하여 소를 담당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도 집안의 가신으로서 마구간 앞에 모신다.

둘째, 조상을 잘 모셔 집안이 안과태평(安過太平)하고 자식들이 잘되게 해달라는 목적이 있다. 산메기를 갈 때 조상 수대로 메를 지어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어떤 마을들에서는 조상거리가 가장 크고 성대하게 이루어진다. 곧 산메기의 중심이 조상에 실리는데 산신에게는 처음에 간단하게 산메기를 알리는 것으로만 끝내고 조상 축원을 길게 한다. 조상 축원에서는 축원과 소지올림, 삼베를 찢어 조상 옷을 입히는 것 따위로 그 절차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조상을 잘 대접하여 살아있는 후손들이 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산메기에서 조상 축원이 중심이 되는 것은 집안에서 지내는 기제사와 마찬가지여서 이때 종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셋째, 산메기터에 삼신당을 마련해두고 여자들이 집안의 어린 자식들이 탈 없이 잘 크게 해달라고 빌고, 아이를 못 낳은 집안의 여자들은 삼신을 타오기도 한다. 산에서 삼신을 타오는 것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산제불공'을 비롯하여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민속이다. 집안에서 모시는 삼신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열 살이 될 때까지만 모시지만, 산메기의 삼신은 자손 번창과 관련하여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화전촌(火田村)의 산멕이기(張籌根, 韓國의 鄕土信仰, 乙酉文化社, 1975), 朝鮮의 鄕土娛樂(村山智順 著 · 朴銓烈 譯, 集文堂, 1992), 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장정룡, 韓國民俗學25, 民俗學會, 1993), 삼척민속지1~5(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2), 산메기 현지연구(김진순, 역사민속학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필자 | 김진순(金鎭順)

삼짇고사(- 告祀)

정의 음력 삼월 초사흘인 삼짇날에 지내는 고사.

유래 삼짇날 의례를 하는 관행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 온달조에 고구려에서는 매년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돼지와 사슴을 잡아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紀異)」 가락국기(駕洛國記)에, 가야에서는 3월 계욕일(禊浴日)에 여섯 개 황금알이 담긴

금합이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다. 계욕은 3월 상사일(上巳日)에 액을 쫓는다 하여 물가에서 회음(會飮)하는 것으로 의례의 일종이다.

고려시대 9대 속절의 하나였던 3월 상사일(上巳日)에는 봉은사의 태조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산에서 계음(禊飮) 행사를 했다. 상사일은 훗날 음양오행 사상의 영향에 따라 3월 삼짇날이 되었다.

내용 및 지역사례 삼짇날은 유교 의례에서도 중요한 날이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삼짇날조에는 봄의 삼짇날과 가을의 중양절에 시제(時祭)를 지냈음이 기록되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삼짇날조에는, 진천 풍속에 3월 3일부터 4월 초파일까지 여자들이 무당을 데리고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과 삼신당으로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곧 삼신고사이다. 이 밖에도 삼짇날 가정에서 간단하게 고사를 지내거나 약수터를 찾아 약수제를 지내기도 한다.

삼짇날에는 가정에서 고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제사, 문중의 시제를 지내기도 한다. 가정신[家庭神, 家神]을 모시는 집에서는 삼짇날 떡과 북어포 같은 간단한 제물을 장만하여 성주와 조상에게 올려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무병장수를 빈다. 이러한 고사는 대개 주부가 맡아서 지낸다. 이는 서울과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일론마을에서는 삼짇날과 중구일에 가정 단위로 산고사를 지낼 뿐 아니라 동제(당고사)를 지낸다. 산고사를 흔히 산기도라고 하는데, 주부가 명산 명소를 정해놓고 매년 그곳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앞두고 사흘 전부터 부정을 타지 않도록 온 가족이 매사에 조심한다. 고사를 올리는 주부는 제물로 흰무리(백설기)를 시루째, 그리고 북어 한 마리와 소지용 종이(한지)를 가지고 산에 가서 빈다. 또는 새옹과 쌀, 나무, 소지용 종이, 정화수를 산에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 올리고 고사를 지낸다.

의의 이 무렵은 봄이 무르익을 때로 농사로 치면 파종기에 해당한다. 반면 중구 무렵은 수확기이다. 이에 파종기와 수확기의 계절제로서 의미가 있다. 삼짇고사는 마을과 가정이 모두 한 해 농사를 기원하고 예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洌陽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韓國의 山村民俗 I -치악산 편-(金泰坤 外, 敎文社, 1995),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명자(金明子)

삼짇불공(-佛供)

정의 삼월 삼짇날 불교 신도들이 하는 종교의례. 예부터 음력 삼월 삼일에 행해졌던 각종 민속에 더해 번뇌를 없애고 생명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희망을 비는 불교 의식이 행해져 종교의례로 자리잡았다.

내용 모든 생명이 다시 삶을 되찾는 계절의 의미에 맞게 삼짇불공은 감로의 물로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차 공양, 일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뜻에서 다른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 그리고 생명의 안녕을 희구하는 산신제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인간의 근본적인 번뇌인 탐(貪), 진(瞋), 치(癡)의 삼독(三毒)을 벗어나 계(戒), 정(定), 혜(慧)의 삼학(三學)을 수행하여 해탈을 얻고 불사(不死)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감로의 물을 상징하는 차 공양은 신라 경덕왕 때 충담사가 매년 중삼(重三)과 중구일(重九日)에 남산 삼화령의 미륵부처님께 공양했던 기록이 보일 만큼 오래되었고 오늘의 불교 의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방생과 산신제도 생명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방생은 살아 있는 짐승을 놓아줌으로써 악업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이 생겨 세간과 출세간의 공덕이 되는 의례이다. 산신제는 고구려에서 시작했으며 고려조에 이르러 불교와 습합되어 오악 명산을 섬기는 팔관회로 이어져 진호국가(鎭護國家)와 개인적인 기원을 바라는 의례로 정착되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佛敎와 民俗(洪潤植, 東國大學校 譯經院, 1980),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문상련, 운주사, 2001).

필자 | 김경집(金敬執)

시제(時祭)

⇨ 시제(時祭): 겨울편

향사례(鄕射禮)

정의 예(禮)와 악(樂)의 확립을 통해 성리학적인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례. 중국 주(周)에서 향대부(鄕大夫)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활을 쏘던 의식에서 유래하였다.

유래 『주례(周禮)』 사도교관직조(司徒敎官職條)에는 지방 단위를 향(鄕), 주(州), 당(黨), 족(族), 여(閭), 비(比)로 나누고, 그 장(長)을 각각 향대부, 주장(州長), 당정(黨正), 족수(族帥), 여서(閭胥), 비장(比長)으로 정해 놓았다. 그리고 향사례(鄕射禮)는 주에서 행하는 의례로 향대부가 정월에 사도(司徒)로부터 교수하고, 그것을 주장에게 전수하면 주장은 정월 중의 길일을 택해 향사례를 행하였다. 향사례의 '사(射)'는 "그 뜻을 바르게 한다(定其志)."라는 의미이다. 『의례(儀禮)』 향사례조(鄕射禮條)에는 "주장이 춘추(春秋) 두 계절에 예법에 따라 백성을 모아 주서(州序: 州의 학교)에서 활쏘기를 익히는 것[習射]."이라고 기록하여 향사례의 또 다른 의미를 알려준다.

고려(高麗)말 성리학(性理學)이 전래됨에 따라 향음주례(鄕飮酒禮)와 더불어 향사례가 전래되었다. 향사례에 대한 기록은 세종(世宗) 때에 보이기 시작한다. 세종 15년(1433) 왕은 술의 해로움을 경고하며 내린 교지(敎旨)에서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는 술잔을 주고받는 것으로 절도를 삼으며, 활을 쏘고 술 마시는 자리에서는 읍하고 사양하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향사례는 친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양로례(養老禮)는 나이와 덕있는 사람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중앙에서 대사례(大射禮)의 시행을 통해서 예와 악을 확립하고자 한 반면, 지방에서는 향사례를 통해서 예와 악의 확립 과정을 거쳐서 지방민을 통치하고 교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을 토대로 시행되는 향사례에 대한 의논은 성종(成宗)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정성근(鄭誠謹)은 조정에서 하는 양로례와 대사례에 병행해서 지방에서도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재된 대로 시행해서 백성을 교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성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성종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서 맹동(孟冬)에는 개성부와 주, 부, 군, 현에서 길일을 택하여 향음주례를 행하고,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향사례를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김종직(金宗直)은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재직할 때에 향사례와 향음주례에 대한 원칙을 준행하고 그 긍정적 결과를 피력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사례에 효제자(孝悌者), 재예자(才藝者)를 참여하게 하여 풍화(風化)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사림파(士林派)는 『주례』의 향사례와 향음주례의 실천을 통해서 성리학적인 향촌 교화를 성취함으로써 향촌 자치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유향소(留鄕所)를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향촌에서는 향사당을 별도로 설치하여 향촌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중심 기구로 삼고자 하였다. 초기에 안동, 영천, 광주에 향사당이 설치되었다. 예천(醴泉)에서 권오복(權五福)이 지은 「향사당기(鄕射堂記)」에 이르기를 "지금 국가에서 옛 법을 좇아 예교(禮敎)를 숭상하고 향사(鄕射)의 예(禮)를 마련하였다. 아, 활을 쏘는 것[射]은 한 가지 기예(技藝)에 불과하다. 그러나 손님의 차례를 정하고 좌주를 드는 예가 이 의식(儀式)에서 거행된다. 그리하여 한 고을의 선(善)과 악(惡)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 고을의 부로(父老)들이 명칭은 비록 향사당이라고 하였지만 권장하고 징계하는 깊은 뜻이 실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향사례가 향촌 교화(敎化)의 기능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중앙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에서는 향사례와 향음주례에 대한 시행 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성종 10년(1479) 사경(司經) 조위(曹偉)가 지방 수령의 향사례 시행을 검찰할 것을 요청한 것이나, 성종 13년(1482) 전한(典翰) 정성근(鄭誠謹)이 불만 섞인 주장을 편 것 또는 성종 16년(1485) 성종(成宗)의 종용에서도 알 수 있다. 중종조(中宗朝)에 들어서서는 지방 풍속 교화의 방법으로서 향사례보다는 향음주례와 친영례(親迎禮)가 거론되고 있다.

향사례의 실행은 주례(周禮)의 회복이라는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민의 교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중시될 수 없었던 것은 그 시행 절차가 무척 번거로웠고, 또 일정하게 습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1 **御射禮圖**『大射禮儀軌』
2 **侍射禮圖**『大射禮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경우에는 행할 수 없는 예제인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원래 조선 초기에는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고제(古制)이고, 향약은 송대의 시제(時制)이므로 전자에 더 비중을 두었으나, 중종대 사림파 조광조의 등장 이후 향약 보급 운동으로 향약 시행이 더욱 강조되고, 또 향약 규정 안에 향음주례, 향사례, 강신례(講信禮)가 함께 포함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된 듯 하다. 이후 향사례는 별도로 행해지기보다는 통상 중삼(重三, 3월 3일), 중구(重九, 9월 9일)의 향약 집회 때에 부속 행사로 행해졌다.

정조(正祖)대에는 향례(鄕禮)에 근간을 이루는 향음주례, 향사례, 향약을 종합한 『향례합편(鄕禮合編)』을 출간하여 유교적 지배 질서에 의한 국가 차원의 풍속 교화를 강조하였다.

내용 세종대 향사례 의식과 절차는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五禮)」에 잘 나타나 있다. 향사례는 「군례의식(軍禮儀式)」의 향사의(鄕射儀) 항목에 그 절차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향사례는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성부(開城府)와 여러 도(道)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루 전에 주인[主人, 소재관사(所在官司)]이 빈(賓)에게 알린다. 이때의 빈은 효제충신(孝悌忠信)하며 예의(禮儀)를 좋아하고 행실이 난잡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택된다. 사단(射壇)은 학당(學堂) 근처에 만들며 단(壇)과 후(侯)와의 거리는 90보(步)이다. 주빈(主賓)이 서로 예(禮)를 행하고 제자리를 잡으면 술을 세 순배 돌리고는 사례(射禮)를 시행한다.

사사(司射)가 빈에게 활쏘기를 청하면, 빈이 이를 허락한다. 사사가 주인에게 고하고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제자(弟子)에게 명하여 사기(射器)를 바치게 한다. 사사(司射)가 활을 가지고 네 대의 화살을 등에 꽂고 사단으로 다시 올라와서 활을 쏜다. 주빈이 임시로 서로 짝을 지어 화살 세 대를 등에 꽂고 한 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서 차례대로 활을 쏜다. 화살을 쏠 때마다 풍악이 시작되고, 화살을 쏘면 반드시 절차에 맞게 한다. 활쏘기를 마치면, 맞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에 의거해서 벌주(罰酒)를 마시게 한다. 평소처럼 주인이 예(禮)를 갖추어 문 밖에서 참석자를 보내는 것으로 향사례를 마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세종실록』「오례」 군례의식(軍禮儀式) 향사의(鄕射儀)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었다.

의의 향사례(鄕射禮)는 단순히 화살로 과녁을 맞추는 기예(技藝)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바로 하는[正志] 예의와 연고덕행자(年高德行者)를 숭상하고 백성들에게 선(善)을 권면하고 악(惡)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풍속 교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新增東國輿地勝□, 儀禮, 朝鮮王朝實錄, 周禮, 鄕禮合編 韓國社會史硏究(李泰鎭, 知識産業社, 1986), 正祖朝 『鄕禮合編』의 刊行과 鄕約의 性格(朴京夏, 金龍德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조선 중기 鄕禮에 대한 인식의 변화(高英津, 國史館論叢81, 國史編纂委員會, 1998).
필자 | 박경하(朴京夏)

갓난아기머리깎기

정의 삼월 삼짇날에 갓난아기의 배냇머리를 깎아주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머리에 부스럼도 나지 않는다고 믿는 속신.

내용 및 지역사례 갓난아기의 머리는 대체로 백일 이후나 돌날에 깎아주는데, 충청도의 금강 상류 지역에서는 삼월 삼짇날에 배냇머리를 깎아준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도 이 날 갓난아기의 배냇머리를 깎아주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머리에 부스럼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상남도 고성에는 삼짇날에 갓난아기의 배냇머리를 깎아주되 아기의 장수와 복록을 위해서 서너 오래기의 머리카락은 깎지 않고 남겨두는 풍속이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삼짇날 검은 떡을 만들어 머리 깎은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이렇게 하면 검은 머리카락이 나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며, 아이의 머리를 깎을 때 제비초리가 있는 아이는 장수하라고 깎지 않는다고 한다. 강원도 홍천과 영월에서는 삼짇날 아이들의 머리를 깎는데, 이 날 머리를 깎으면 머리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고 믿었다.

삼월 삼짇날은 양기(陽氣)가 충만한 날이라 하여 부녀자들도 이 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며 머릿결이 곱고 부드러워진다고 믿었다. 또 부녀자들이 머리를 감을 때 빠진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의 끝을 잘라 부추밭이나 솔밭에 묻으면 머리카락이 부추가 자라듯 무성히 자란다고 믿는 유사주술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文化論(任東權, 集文堂, 1983),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강원전통문화총서 -민속-(김의숙 외, 國學資料院, 1997),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김승찬(金承璨)

까치집점

⇨ 제비집점: 봄편

나비점

정의 삼월 삼짇날에 산이나 들에서 나비의 색깔을 보고 그 해의 길흉을 예언하는 동물점(動物占)의 하나.

어원 나비의 어원은 '놀다(飛)'와 '-방이'의 합성어로, 곤충이나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의 민속 현상에 나타난 나비는 죽은 자의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나타내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나비 보고 운수보기, 나비 보고 점치기, 나비 색깔로 점치기, 나비점보기, 나비점치기, 처음 보는 나비 보고 점치기, 처음 본 나비 색깔로 점치기, 처음 보는 동물 보고 점치기라고도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삼월 삼짇날은 3의 양(陽)이 겹치는 봄철의 시작을 장식하는 명절로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겨우내 움츠렸던 동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다. 삼짇날에는 부녀자들끼리 경치 좋은 곳에서 화전놀이를 한다. 화전놀이를 하면서 또는 나무를 하고 나물을 캐기 위해 산이나 들에 가서 맨 처음 본 나비의 색깔을 보고 그 해의 운세를 점친다. 예컨대 흰나비를 먼저 보았다면 그 해 상복(喪服)을 입게 되거나 다른 불길한 일이 생기고,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를 먼저 보았다면 그 해 운수가 좋다고 점을 친다. 그 밖에 나비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이 먼다는 속신이 전한다.

충남 서산에서는 총각들이 호랑나비 같이 색깔이 있는 나비를 먼저 보면 올해는 장가가겠다고 점을 치기도 하고, 전남 목포에서는 실제로 나비를 보지 않고 꿈에서 나비를 보아도 이와 같이 그 색깔에 맞추어 점을 치기도 한다. 흰나비가 불길한 징조를 상징하는 것은 나비의 흰색이 하얀 상복을 연상하게 하고, 나비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하는 설화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전해지는 아랑의 설화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비로 환생하는 설화가 우리나라에는 많다.


나비 이범호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표인주(表仁柱)

날씨점[氣候占]

정의 삼월 삼짇날의 날씨로 그 해 농작물의 풍흉을 점치는 기후점(氣候占).

내용 및 지역사례 음력 삼월 삼짇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나비도 나오는 날이다. 농가에서는 이 날 날씨가 좋아야 세풍(歲豊)이 된다고 믿었는데, 부산에서는 날씨가 맑고 따뜻하면 그 해 시절이 좋고 풍년이 들며, 날씨가 나쁘고 뇌성이 울리면 그 해 시절이 나쁘고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 삼짇날 새벽에 바람이 불면 그 해 농사가 잘 되고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면 그 해 삼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는 이 날 바람이 불면 그 해 삼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세시풍속』에 따르면 이 날 오전에 바람이 불면 초장(初場)에 삼 값이 오르고, 오후에 바람이 불면 파장(罷場)에 삼 값이 오른다고 하였다. 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에서는 이 날 비가 오면 콩과 팥 같은 밭농사가 흉년이 든다고 하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이 날 비가 오면 누에치기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의의 농작물의 성장 또는 결실과 기후의 변화는 지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는 특정한 날의 날씨로 그 해 농작물의 풍흉을 점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는 그 해 세풍을 기원하는 농민의 원초적 심리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세시풍속(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김승찬(金承璨)

동물점(動物占)

정의 삼월 삼짇날 동물을 통해서 그 해의 길흉화복이나 농사의 풍흉을 알아보는 점속(占俗). 이러한 점법을 지역에 따라서 동물 보고 점치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처음 보는 동물로 그 해 운수 점치기, 동물 울음소리 듣고 점치기, 동물 점치기, 먼저 나온 짐승 보고 신수점치기, 먼저 나온 동물 보고 신수점치기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삼월 삼짇날의 동물점(動物占)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점을 치기도 하나, 주로 삼월 삼짇날에 처음 본 동물을 가지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경우가 많다. 정초에 동물의 울음소리, 동물이 우는 시기, 동물의 동작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동물들은 뱀, 도마뱀, 제비, 개구리, 벌, 개미, 흰나비와 호랑나비 같은 것들이다.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뱀을 보면 일년 내내 게으르거나 몸이 제일 무겁다고 점을 치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뱀을 보면 그 해 재수가 없다고 점을 친다. 이것은 뱀의 행동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에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인식되며, 보편적으로 달동물로 생각되는 풍요의 상징이다. 강원도 지역에서 도마뱀을 보면 일년 내내 행동이 재빠르고 부지런하며 몸이 가볍고 날래다고 점친다. 도마뱀은 용처럼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몰고 오는 주력을 지닌 동물로 여기며 도마뱀의 꼬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돈이 생긴다고 믿는다. 또 꿈에 도마뱀을 만지면 길하다는 속신은 도마뱀이 재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때 도마뱀은 길조(吉兆) 또는 행운을 상징한다.

대체로 제비를 보면 오곡풍등이라고 손을 흔들기도 하지만, 경기도 여주에서는 제비가 학질을 가져다준다고 해서 처음 본 제비는 모른 척하기도 한다.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제비를 먼저 보면 부지런해진다고 점치기도 한다. 우리 민속에서 제비를 길조(吉鳥)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비가 새끼를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경기도 포천에서 개구리를 보면 일년 내내 배부르겠다고 하여 먹을 복이 있다고 점을 친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첫 개구리 울음소리를 앉아서 들으면 일년간 편안하고, 누워서 들으면 아파 누워 있을 수도 있으며, 경기도 광주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걸어다니며 일하다 들으면 그 해 일이 힘들어진다고 점친다. 개구리는 인간의 삶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친근감과 땅과 물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신기한 존재로서 부여 신화나 주몽 신화에서 보면 다산(多産)의 생산성과 신성(神聖)을 상징하기도 한다.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또는 "개구리가 처마 밑으로 들어오면 장마진다." 같은 속담은 개구리가 비를 예견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충남 아산에서는 삼짇날에 벌을 보면 빠르고 뭔가 톡톡 쏘듯이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겠다고 점치고, 전북 정읍에서는 벌을 보면 성질이 사나울 것이라 점치기도 한다. 또 전북 순창이나 전남 순천에서는 그 해 부지런해서 일을 잘한다고 점치기도 하고, 개미를 봐도 부지런하다고 점친다. 개미는 앞일을 예시하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서 비나 장마를 예보한다고 믿는다. "부지런하기가 개미 같다."는 속담이 있듯이 개미는 근면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미는 자기 몸보다 몇 배 더 큰 짐을 지고, 협동으로 더 큰 물체를 옮기는 점에서 힘과 집단을 뜻한다. 개미의 알이야말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삼짇날에 흰나비를 보면 그 해 불길한 일이 생기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그 해 운수가 좋다고 점을 친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韓國文化상징사전2(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5),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표인주(表仁柱)

머리카락 물에 띄우기

정의 삼짇날 머리카락을 끊어서 물에 흘려보냄으로써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하는 경상남도 지방의 풍속.

내용 음력 삼월 삼짇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겨우내 머물던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는 날이다. 경남 함양과 합천에서는 이 날 부녀자들이 물줄기처럼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시냇물에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 끝을 끊어서 그 물에 흘려보낸다.

의의 삼월 삼짇날 물가에 가서 계욕(禊浴)을 하거나 유월 유두날 동류수(東流水)에 머리를 감는 것은 한 해의 재액을 떨쳐버리는 풍속이다. 삼짇날 시냇물에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의 끝을 끊어 물에 흘려보내어 머리카락이 물줄기처럼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유사주술의 원리에 입각한 속신이고, 머리를 흐르는 물에 감는 것은 한 해의 재액(災厄)을 씻어 없애는 속신 행위라 하겠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세시풍속(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황경숙(黃京淑)

머리카락 잘라묻기

정의 삼월 삼짇날 머리카락의 끝을 조금 잘라 밭에 묻음으로써 머리카락이 무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풍속.

내용 음력 삼월 삼짇날은 양기(陽氣)가 많은 날이라 이 날 부녀자들은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부추처럼 무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의 끝을 조금 잘라 부추밭이나 솔밭에 묻는다.

지역사례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삼짇날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의 끝을 끊어서 소풀[韭菜: 부추] 밭에 묻으면 머리칼이 소풀처럼 무성해진다고 믿었다. 또 통영 욕지면에서도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부추처럼 무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부녀자들이 삼짇날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의 끝을 잘라 부추밭에 묻기도 하였다. 전남에서는 삼짇날에 머리카락의 끝을 자르면 머리카락이 더 잘 자란다고 여기며, 부산 금정구 산성마을에서는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이 날 머리를 감은 뒤에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부추밭이나 솔밭에 묻는다. 해운대구에서도 그 해 탈 없이 잘 넘겨 달라고 머리를 감는다.

의의 머리카락의 끝을 잘라 부추밭이나 솔밭에 묻는 것은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낳는다.'고 하는 유사주술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풍속은 머리카락에 생명력이 강한 부추나 솔잎처럼 윤기 있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海雲臺民俗(海雲臺區, 1996),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황경숙(黃京淑)

제비맞이

정의 삼월 삼짇날 무렵 강남에서 돌아오는 제비[燕子]를 맞이하는 전라남도 지방의 풍속.

내용 삼월 삼짇날이면 강남으로 간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여 제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이때 제비집을 손보는데, 제비가 집에 와서 새끼를 네댓 마리 낳아 기른 뒤에 집을 나가면 그 해 복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남녀 아이들이 봄에 제비를 처음 보았을 때 제비에게 절을 세 번 올린다. 그리고 왼손으로 옷고름을 줄였다가(또는 풀었다가) 다시 여미어 맨다. 그러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서해숙(徐海淑)

제비보고말하기

정의 삼월 삼짇날 제비를 처음 보았을 때 제비에게 말을 하고 한 해의 운[年運]을 기원하는 풍속.



제비
충남 아산시 심디스마

내용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여름새인 제비는 대부분이 대만, 필리핀, 타이, 베트남 같은 강남(동남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이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봄철의 시작인 삼월 삼짇날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옛집을 찾아온다고 하며 마음씨 좋은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추녀 밑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깐다고 믿었다. 이처럼 제비는 항상 남쪽에서 오는 반가운 봄손님이다.

삼월 삼짇날 제비를 처음 보았을 때, 바로 제비라고 부르지 않고 문둥이, 문디, 연자(燕子)새끼 따위로 부른다. 만일 처음 제비를 보았는데 제비라고 말을 하면 그 해 말라리아(초학, 학질, 도둑놈 등)에 걸린다고 하여 삼가는데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을 '초학한다.'고 한다.

경북 안동에서는 이 날 처음 제비를 보면 '문디' 또는 '연자새끼'라고 불러야 하는데 만일 '제비'라고 하면 여름에 '도둑놈을 하게 된다.' 하여 삼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이 날 제비를 보았을 때 "저 문둥아 어디 갔다 왔나!"하고 소리치면 그 해 신수가 좋다고 한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이때를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때라 하여, 제비를 처음 보게 되면 "문둥이 봐라."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풍속으로 삼짇날 제비를 보고 "제비다, 제비 왔다."하고 소리치면 그 해 '초학(학질)이 걸린다.' 하여 반가워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제비는 복을 부르고 봄을 부르는 길조(吉鳥)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나쁜 액운과 병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삼짇날 처음 만난 제비를 비속어(卑俗語)로 불러 일단 경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강릉의 민속문화(장정룡, 대신출판사, 1991), 韓國의 鄕村民俗誌 I -慶尙北道 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제비집점

정의 삼월 삼짇날 제비집의 위치나 모양을 보고 길흉화복(吉凶禍福)이나 강우 또는 풍흉을 점치는 동물점(動物占).



내용 제비집점은 제비집의 위치에 따라 강우나 풍흉을 점치는 방법과 제비집의 모양으로 집안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이 있다.

제비집의 위치에 따라 치는 점은 제비집이 처마나 추녀의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로 따진다. 안쪽에 있으면 집안에 길한 일이 있고 바깥쪽에 있으면 사람이 떠나거나 집안의 흉상이 있을 징조라고 한다. 혹 제비가 방안에 집을 지었다면 그것은 매우 길하게 여겨 집안의 어른 모시듯 잘 모신다고도 한다. 또 제비집의 문의 위치가 집의 안쪽으로 나 있으면 집안에 복이 있고, 바깥쪽으로 나 있으면 집에 나쁘다고도 한다.

제비집의 모양에 따라 치는 점은 제비가 집 짓는 데 사용한 재료와 그 집의 모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강우나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것이다. 제비가 짚을 많이 섞어서 지저분하게 집을 지으면 그 해에 물이 적고 논밭에 풀이 많아 흉년이 든다 하고, 짚을 조금 섞고 흙을 발라서 지으면 물이 많고 풀이 적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유사풍속 제비집점과 유사한 풍속으로 까치집점이 있다. 3월에 짓는 까치집의 위치를 보고 풍우(風雨)나 집안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으로, 까치가 나무의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적고 장마가 들며,

낮은 곳에 지으면 바람이 많고 물이 흔하지 않다고 한다. 까치는 영물이라 그 해의 바람이나 강우를 미리 알아서 그에 따라 집을 짓기 때문에 이를 보고 그 해의 바람의 세기나 강우량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까치 역시 제비와 마찬가지로 길조(吉鳥)로 여겼기에 "이른 아침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거나 "이른 아침 까치를 보면 그 날 운수가 좋다." 하는 속신이 있다.

의의 우리 조상들은 제비를 길조(吉鳥)로 여겨 복을 몰고 온다고 믿었다. 그 복이 자신의 집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비집점 풍속에 담겨 있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朝鮮의 占卜과 豫言(村山智順 著 · 金禧慶 譯, 東文選, 1990).
필자 | 이찬욱(李潔旭)

진달래화채(-花菜)

정의 진달래가 피는 봄철에 진달래꽃으로 만들어 먹는 음료. 삼월 삼짇날의 절식이다.

내용 화채란 꿀이나 설탕을 탄 오미자 국물에 과일을 썰어 넣거나 먹을 수 있는 꽃과 실백을 띄우는 음료이다. 첫서리를 맞은 잘 익은 오미자를 말린 것을 택하여 티를 고르고 먼지만 없앨 정도로 씻은 다음 끓여서 미지근하게 식힌 물에 10시간 이상 담가 놓으면 물이 빨갛게 우러난다. 이것을 고운 체에 받쳐서 끓여 식힌 설탕물과 꿀을 넣고 색과 맛을 조절한다. 진달래꽃을 따서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씻어 물기를 뺀 다음, 꽃술을 뺀 꽃잎에 녹두전분을 묻혀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냉수에 씻어 건져서 화채 그릇에 담고, 오미자 국물을 붓고 잣을 띄워 낸다.

참고문헌 | 韓國의 맛(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7),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필자 | 서혜경(徐惠卿)

수면(水麵)

⇨ 화면(花麵): 봄편

화면(花麵)

정의 녹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후 채를 썰어 오미자(五味子) 국물에 꿀을 타고 띄운 음료. 화면은 화채의 한 종류로 이와 비슷한 음료로는 창면, 책면, 배화채, 진달래화채, 앵두화채, 원소병(元宵餠), 송화수(松花水), 보리수단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화면은 주로 봄부터 가을 사이에 마시는 음료로 제철에 나는 꽃잎에 녹말을 묻혀서 익힌 것을 오미자 국물에 띄우거나, 녹말가루에 꽃잎을 섞어서 반죽하여 국수를 만들어 오미자 국물에 띄운 것을 가리킨다.

유래 및 역사 화면은 아마도 화전과 함께 고려시대 답청(踏靑) 행사 때 생긴 풍속으로 여겨지지만 그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후기의 문헌인 『진작의궤(進爵儀軌)』와 『시의전서(是議全書)』에 각종 화채의 조리법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화면도 화채와 함께 궁중과 일부 양반가에서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화면을 삼월 삼짇날에 화전(花煎)과 함께 먹는 시절음식이라고 했다.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국에 띄우고, 꿀을 섞고 잣을 곁들인 것을 화면이라 한다. 또는 진달래꽃을 넣은 녹두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붉은색으로 물을 들여 그것을 꿀물에 띄우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수면(水麵)이라고도 부른


1


2

1 진달래화채
2 화면
궁중음식연구원

다. 이것은 삼월 삼짇날의 시절음식으로 제사상에 올리기도 한다. 따라서 삼월 삼짇날에 먹는 화면은 다른 말로 진달래화면이 된다.

만드는 방법 진달래화면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미자를 씻어서 물에 담가 이삼일 차게 두어 국물을 우려낸다. 이것을 체에 밭쳐서 거른 다음 끓여서 식힌다. 여기에 꿀을 타서 잘 섞어 놓는다. 진달래꽃의 술은 뽑아버리고 물에 헹궈서 한 개씩 녹말가루를 묻힌 후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별도로 둔다. 대접에 오미자 국물을 붓고 녹말가루를 묻힌 꽃을 몇 개 넣고 실백을 띄워서 상에 올린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是議全書, 進爵儀軌,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방신영, 靑丘文化社, 1954).
필자 | 주영하(周永河)

화전(花煎)

정의 찹쌀가루를 연하게 반죽하여 번철에 기름을 두른 후 찹쌀가루를 무르게 반죽하여 얇게 펴놓고 그 위에 제철에 나는 꽃잎을 장식하여 지진 떡. 다른 말로 꽃지지미 또는 꽃부꾸미라고 한다. 굿상이나 제사상에서 편틀에 고임을 한 떡 위에 놓는 웃기떡으로도 쓰인다. 보통 봄에는 진달래꽃잎으로 두견화전(杜鵑花煎)을 부치거나 배꽃으로 이화전(梨花煎)을 부친다. 여름에는 장미꽃으로 장미화전(薔薇花煎), 가을에는 황국화와 감국잎으로 국화전(菊花煎)을 부치기도 한다. 만약 꽃잎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미나리나 쑥잎 또는 석이버섯이나 대추로 꽃모양을 만들어 붙여 화전을 만들었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삼월 삼짇날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드는데, 이것을 화전이라 한다고 한다. 아마도 고려시대 답청(踏靑) 행사에서 나온 풍속으로 여겨진다. 화전 중에서 두견화전은 삼월 삼짇날에 부녀들이 화전놀이를 하며 지져 먹는 시절음식이다. 화전놀이는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중턱에 올라 서로 편을 나누어 화전가(花煎歌)와 화전답가(花煎答歌)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다. 이때 미리 사방에 만발한 진달래꽃잎을 따서 장식을 하여 두견화전을 부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삼월 삼짇날 중전을 모시고 창덕궁 금원의 옥류천 가에서 두견화전을 부쳐 먹으면서 화전놀이를 하였다고 전한다.

만드는 방법 화전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철에 나는 꽃잎을 따서 깨끗이 씻어둔다. 찹쌀을 곱게 빻고 여기에 소금을 적당히 넣고 간을 맞춘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무르게 반죽한다. 반죽한 것에서 밤알 크기만큼씩 떼어내어 둥글납작하게 빚은 후 기름을 두른 번철에 올려 약한 불에 지진다. 이때 준비한 꽃잎으로 모양을 내서 장식을 한다. 하얀 찹쌀떡이 노란색을 내면 익은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朝鮮常識 -風俗 篇-(崔南善, 東明社, 1948),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방신영, 靑丘文化社, 195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필자 | 주영하(周永河)



화전 국립민속박물관

답청(踏靑)

정의 음력 삼월 삼짇날이나 청명일에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먹고 마시며 봄의 경치를 즐기는 풍속. 답백초(踏白草)라고도 한다. 특별히 삼월 삼짇날을 답청절(踏靑節)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은 새봄이 찾아옴을 기뻐하여 술과 음식을 장만해 경치가 좋은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아 봄을 즐기는 것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래 답청에 대한 기원은 중국의 당송시대로 여겨지는데, 장안에서는 청명절에 묘제(墓祭)를 마친 남녀가 함께 들에 나가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투백초(鬪百草)라는 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천록각식록(天錄閣識錄)』을 보면, 장안 근교의 답청에 대해 "북을 가지고 교외에서 즐기며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온다. 이것을 영부(迎富)라고 한다." 하였다.

내용 조선 중기의 학자 김인후의 『하서전집(河西全


꽃시즌
조선일보 1965년 4월 25일

集)』 '상사답청(上巳踏靑)' 시에 "홍이 나서 봄옷을 마련했으니, 거리낌 없이 늦도록 노닐 것이네. 주나라는 곡수(曲水)에 잔을 띄웠고 진나라 나그네는 청류(淸流)에서 시 읊었네. 언덕 위 꽃은 붉고 어린 싹이 고운데 들녘 풀은 푸르러 나풀거리네(有興裁春服 無妨作晩游 周家觴曲水 晉客詠淸流 陌上紅方嫩 郊邊綠正柔 ……)."라고 삼짇날 답청의 흥겨움을 읊었으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 월내(月內) 조에도 "도성 풍속에 산이나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꽃놀이[花柳]라고 한다. 이것은 상사일(上巳日: 삼짇날)에 답청하는 데서 유래한 풍속이다(都俗出遊於山阿水曲謂之花柳 卽上巳踏靑之遺俗也)."라고 기록하고 있어 민간의 오래된 풍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날 사람들은 부드러운 쑥잎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만든 쑥떡이나 찹쌀가루 반죽에 진달래꽃을 놓고 화전(花煎)을 해 먹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天錄閣識錄, 河西全集, 歲時風俗(崔常壽, 瑞文堂, 1988),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우리나라 세시기(李允熙, 金龍圖書株式會社, 1998),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한미옥(韓美玉)

화류(花柳)

⇨ 화전놀이(花煎-): 봄편

화전놀이(花煎-)

정의 삼월 삼짇날 교외나 산 같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꽃을 보며 노는 꽃놀이. 진달래꽃으로 화전(花煎)을 지져 먹고 가무를 즐기는 여성놀이이다. 화류(花柳) 또는 회취(會聚)라고도 한다.

유래 화전놀이의 전통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시작하였다. 『교남지(嶠南誌)』 권4, 경주 산천조에는 화절현(花折峴)이라는 고개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신라의 궁인(宮人)들이 봄놀이를 하면서 꽃을 꺾은 데서 비롯하였다고 한다. 한편 같은 책 고적 조에서는 재매곡(財買谷)을 소개하면서, "김유신의 맏딸 재매부인을 청연(靑淵)의 위에 있는 골짜기[上谷]에 묻었으므로 이 이름을 붙였는데, 매년 봄에 같은 집안의 부녀자들이 그 골짜기의 남쪽 물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송화(松花)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골짜기의 입구에 초막을 하나 얽었는데 그런 까닭으로 송화방(松花房)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물과 산이 있고 수많은 꽃이 만발한 데다 놀이를 위한 초막까지 따로 얽었으니, 꽃과 송화로 지짐을 지져먹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이미 신라시대에 모습을 갖춘 화전놀이의 전통은 조선 전기에도 크게 다를 바 없이 이어진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권7, 세조 3년 4월 22일(을묘)의 기록을 보면, "이때에 금령(禁令)이 자못 간략하므로 무풍(巫風)이 성행하였으니, 도성의 남녀들이 떼 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매양 한 번 술자리를 베풀면 반드시 음악을 베풀고 해가 저물어서야 헤어져 돌아갔다. 남녀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큰 소리로 떠들면서 태평시대의 즐거운 일이라고 하였다. 귀가(貴家)의 부인들도 또한 많이 본받아서 장막을 크게 설치하고는 며느리들을 다 모아서 호세(豪勢)와 사치를 다투어 준비하는 것이 매우 극진하였다. 진달래꽃[杜鵑花]이 필 때에 더욱 자주 그러하니 전화음(煎花飮)이라고 하였다." 한다.

집안의 여성들, 특히 시집온 며느리들이 함께 모여 놀이를 위해서 장막을 세우고 참꽃으로 지짐을 지져 먹으며, 질펀한 음주와 가무악을 즐겼으니 이때의 봄나들이는 신라의 화전놀이는 물론 후대의 화전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







〈화전놀이〉
1 진달래꽃 2 꽃놀이 3 화전반죽 4 화전만들기 5 화전지지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황현만

그러나 당시의 화전놀이가 여성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16세기의 시인 임제(林悌)는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 상권(上卷)에, "작은 개울가에 돌고여 솥뚜껑 걸고, 기름 두르고 쌀가루 얹어 참꽃[杜鵑花]을 지졌네. 젓가락 집어 맛을 보니 향기가 입에 가득, 한 해 봄빛이 배속에 전해지네."라는 맛깔스런 시 한편을 남겼다. 이 시로 보자면 남성들도 낭만적인 화전놀이를 즐겼다. 하지만 남성들의 화전놀이는 부정기적인 봄맞이 풍류의 일환이었으며, 참여 범위도 지인(知人)들로 제한되어 여성들의 화전놀이와는 구별된다. 또 남성들에게는 가벼운 여가활동이었으나 여성들에게는 일년에 한 번밖에 없는 공식적인 집단 나들이였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 의미에 차이가 있다.

한편 화전놀이와 화전가(花煎歌)의 만남은 조선 후기, 그것도 19세기 초 이후에야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이르러 여성들은 화전놀이의 과정과 소회를 담은 전형적인 화전가를 즐기기 시작한다. 화전가의 창작과 음영이 화전놀이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여성들의 화전놀이는 남성들의 화전놀이는 물론 그 이전 시기 여성들의 화전놀이와도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다.

지역사례 영남지방 여성들의 화전놀이는 춘삼월 진달래꽃이 만발할 무렵에 마을 또는 문중의 여성들이 통문을 돌리거나 해서, 놀이를 가기로 뜻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뜻이 모이면 시어른들의 승낙을 얻은 뒤에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참여 인원은 대략 30~60명 내외이다.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두루 참여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삶의 이력이 붙어 집안이나 마을에서 인정받는 중년 여성들이 주도하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따라가지 않는다. 음식을 비롯하여 놀이에 드는 경비는 화전계(花煎契)가 있으면 그 기금으로 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하게 갹출한다.

놀이날이 정해지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들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놀이날이 되면 미리 준비한 음식과 조리도구 그리고 지필묵(紙筆墨)을 챙긴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무의 반주를 위해서 풍물을 가져가기도 한다. 지필묵은 현지에서 화전가를 지을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성들은 어느 때보다 용모에 정성을 들여서 곱게 단장하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놀이하는 장소는 보통 마을에서 10리 안팎의 거리에 있는, 산천경개가 수려한 곳이다.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음식을 장만한다. 이미 가져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발한 진달래꽃잎을 한 움큼씩 따와 화전(花煎)을 만든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 3일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화전을 소개하였다. "참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을 하여 둥근 떡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이라 한다. 이것이 곧 옛날 오병(熬餠)의 한구(寒具)이다. 또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국에 띄우고 꿀을 섞고 잣을 곁들인 것을 화면(花麵)이라고 한다. 혹 참꽃을 녹두가루에 반죽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 혹 붉은 색으로 물을 들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꿀물에 띄운 것을 수면(水麵)이라 한다. 이것을 아울러 시절음식으로 제사에 쓴다."

화전을 다 부치고 푸짐한 먹거리가 마련되면 본격적인 놀이판이 벌어진다. 판마다 한결같지는 않았지만 음주가무를 즐기고, 시댁 식구 흉보기를 비롯해서 거리낌 없는 담화가 이루어졌다. 음주가무와 자유로운 담화 말고도 신명풀이가 끊이지 않도록 다양한 놀이들이 베풀어졌다. 대표적인 놀이가 윷놀이와 꽃싸움이다. 꽃싸움은 진달래꽃의 꽃술을 서로 마주 걸고 당겨서 먼저 끊어지는 쪽이 지는 놀이인데, 때에 따라서는 편을 갈라 승패를 가르고 상주(賞酒)와 벌주(罰酒)를 나누어 마시면서 즐기기도 하였다.

화전놀이는 여성들이 평소 숨겨두었던 다양한 재주를 마음껏 드러내는 경연장이 되기도 하였으니, 놀이판은 연극과 엉덩글씨, 봉사놀음, 꼽사춤과 병신춤, 모의혼례와 닭싸움 같은 다채로운 놀이로 채워졌다.

다른 한편으로 화전놀이는 화전가의 산실이기도 하였다. 화전가는 일반적으로 서사(序詞), 신변탄식, 봄의 찬미, 놀이의 공론, 택일, 통문 돌리기, 시부모 승낙 얻기, 준비, 치장, 승지찬미, 화전굽기, 회식, 유흥소영(遊興嘯詠), 파연감회(罷宴感懷), 이별과 재회 기약, 귀가, 발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회를 담아내는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또는 귀가 후에 만들어진다.

화전가를 짓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합작(合作)이다. 여러 명이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 지은 뒤에 그것을 합쳐 한 편의 화전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작이다. 참여한 여성들이 따로 따로 화전가를 짓는 것이다. 다 지으면 작품들을 놓고 합평을 하기 때문에 창작자는 자연히 사실성과 문학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전가는 비록 개인작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공동작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마시며 가무악과 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어느덧 초봄의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간다. 이제 여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걸 어찌할 수 없다. 다음의 화전가는 이때의 심경을 담고 있다. "정신없이 놀다보니 해는 어이 잘 가는고, (중략) 잘있거라 잘있거라, 산천초목 잘있거라. 꽃은꺾어 손에들고 잎은따서 입에물고, 내려오며 놀아보세. (중략) 그럭저럭 내려오니 해는지고 달이솟네. 가련하다 인생들아 몇몇천을 놀자하니, 마음대로 아니되네. 명년이때 다시만나 즐거웁게 놀아보세. 다놀고 헤어지니 섭섭하기 그지없다."

정신없이 놀다가도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운명이다. 그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했던 자연, 그리고 동료들과 만남을 지속하고 싶지만 여성들에게 허용된 것은 거기까지이다. 내년의 화전놀이를 기약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리는 여성들의 손에는 곧잘 한 움큼의 봄꽃이 들려 있다.

참고문헌 | 嶠南誌,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旬五志, 朝鮮王朝實錄, 화전가연구(권영철 외, 형설출판사, 1981), 閨房歌詞各論(權寧徹, 螢雪出版社, 1986), 화전가의 창작동인과 구조원리(金相一,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화전놀이의 축제성과 문화적 의미 -경북지역을 중심으로-(한양명, 韓國民俗學33, 韓國民俗學會, 2001).

필자 | 한양명(韓陽明)

화전놀이노래

정의 삼짇날 무렵 화전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삼짇날 무렵이면 날씨가 온화하고 산과 들에는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때를 전후로 화창한 날을 골라 야외로 나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즐기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화전놀이 또는 화류(花柳)놀이라고 한다. 화전(花煎)은 다른 말로 꽃달임이라고도 부른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게 빚은 뒤 그 위에 진달래를 따서 얹은 다음 참기름을 발라 지져 먹는 부침개다. 화전놀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내용 화전놀이와 관련하여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삼월조에는 "서울의 버들과 꽃은 3월에 성하여 남산(南山)의 잠두(蠶頭)와 북한산의 필운대(弼雲臺)와 세심대(洗心臺)는 놀이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안개같이 자욱하여 한 달 동안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화전놀이는 봄철 전통적인 세시유희 풍속으로 예부터 성행해 왔다. 화전놀이를 갈 때는 미리 통문을 돌려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겼다. 문장에 능통한 사람들은 즉흥시나 시조를 지어 읊고, 여성들은 내방가사를 부르며, 농부나 아이들은 즉흥적인 민요를 불렀다. 상층의 부요(婦謠)는 여성의 규범 위주로, 하층의 그것은 여흥의 심사와 들놀이의 즐거움을 읊었다. 충북 제천시 봉영읍 명도리와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에 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화란춘색 만화방초, 억대는좋다 벗님내야,
산천경계 구경가세, 죽장집고 마하신어
천리강산 들어가니, 일년일도 다시피여,
춘색을 자랑도다, 색색이도 붉어구나
장송쥐족은 창창노를, 개화요촌 반발중에,
꽃속에는 잠든나비가, 자최없이도 날아든다
유상앵비는 편편금, 화간접무는 푼푼설,
상춘가자지 좋을시고, 이화도화 만발허면
여주축성 해산초는, 무릉도원이 이아닌가,
제비는 물을차고, 기러기는 멀리이강산
어이날고도 슬피운다, 원살은첩첩 대자는 주충,
개양은청청 장송은 낙낙, 여기여차 고불어져서
광풍에흥을 개워서, 우줄우줄 춤을춘다
층암절벽상에 폭포수는콸콸, 수정엽이 들어온다
이물이 쭈르륵, 저물이 살살,
여래열한데 합수를하여, 천방자지방자는 소쿠라지고
벙파자는 줄지고, 방울이젓어서 평풍속으로,
오로롱콸콸 흐르는물골, 은옥같이 흩터지니

소북허요 문안다단, 계산영수가 에안닌가,
제비는 주각제기만, 천고전이 적다
천년이 일년이다.

(충북 제천시 봉영읍 명도리)

제화 좋소 제 제화 좀도 좋소,
멩년 춘삼월로 화전놀이를 가세
가세 가세 화전놀이를 가세,
산천 들판으로 화전놀이를 가세
청천에 하날에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속에는 아이고야 수심도 많네
십오야 밝은 달 구 구름 속에 놀고,
이십 안짝 새 큰아기는 내품안에서 논다
화전놀이 들가에서 놀면, 들사람 다 구경해서
아이고야 내 신명 더 난다
오란디는 바 밤에나 가고,
동네야 술집이는 아이고야 대낮에 간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

의의 화전놀이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산이나 들로 나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놀면서 앞으로 다가올 노동의 괴로움을 미리 위로하는 공동체 잔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더 이상 옛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에 꽃피는 봄이면 야외로 나가 봄놀이를 즐기고 학생들이 소풍을 가고 하는 것들이 화전놀이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洌陽歲時記, 韓國歲時風俗(任東權, 瑞文堂, 1973), 韓國의 遊戲民謠(이창식, 집문당, 1999),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 2(최상일, 돌베개, 2002).

필자 | 이창식(李昌植)

한식(寒食)

정의 동지(冬至) 후 105일째 되는 날.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이다.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이다.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금연일(禁烟日), 숙식(熟食), 냉절(冷節)이라고도 한다. 한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 명절이 아니다. 따라서 한식은 음력 2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음력 3월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2월 한식과 3월 한식을 구분하는 관념이 있다. 그래서 2월에 한식이 드는



한식에산소보레가는모양
기산풍속도(모사도) 국립민속박물관

해는 세월이 좋고 따뜻하다고 여기며, 3월에 한식이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개사초를 하지 않는다.

유래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춘추시대의 인물인 개자추[介子推, 介之推] 설화이다. 개자추는 망명해 있던 진(晉)나라의 공자 중이(重耳)를 위해 헌신했고, 중이는 마침내 진 문공(晉文公: 재위 B.C. 636~628)으로 즉위했지만, 개자추에게는 아무런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 분개한 개자추는 면산(聣山)으로 은둔했고, 뒤늦게 이를 깨달은 진 문공이 개자추를 등용하려 했지만, 그는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했다. 진 문공은 개자추를 나오게 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으나, 개자추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타죽고 말았다. 그래서 개자추를 기리기 위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만을 먹는 한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대의 개화(改火) 의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원시 사회에서는 모든 사물이 생명을 가지며, 생명이란 오래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기적 갱생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불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오래된 불은 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오래 사용한 불을 끄고 새로 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개화 의례를 주기적으로 거행했는데, 한식이란 구화(舊火)의 소멸과 신화(新火) 점화까지의 과도기란 설명이다. 그리고 한식이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인 것도 28

수(宿)의 하나이며 불을 관장하는 심성(心星)이 출현하는 것이 이때이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개자추의 죽음은 구화를 끄면서 제물을 태우는 관습을 반영한 설화라고 한다. 이 중 개화 의례와 관련짓는 후자의 설이 더 유력하다.

내용 한국에서 한식을 언제부터 명절로 여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 문종 24년(1070) 한식과 연등 날짜가 겹치므로 연등을 다른 날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늦어도 고려 전기에는 한식이 중요한 명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식에는 금화(禁火)와 성묘의 풍습, 투란(鬪卵: 계란 위에 누가 그림을 더 잘 그리는지를 겨루는 유희) 놀이가 있었으며, 소나기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로 여겨졌다. 고려시대에 한식의 시기가 변하였는데 고려 후기에는 동지 후 105일이었지만, 전기에는 그보다 7일 정도 빠른 양력 3월 30일 무렵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시대에도 한식은 중요한 명절로 지켜졌다. 한식을 주제로 한 많은 시가 전해지는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한식에는 금화와 개화가 행해졌다. 세종 13년(1431)에 한식 사흘 동안 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으며, 매년 임금은 내병조(內兵曹)에서 바친 버드나무를 마찰하여 일으킨 불을 궁중에 있는 관청과 대신 집에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상 숭배였다. 왕실에서는 종묘 제향을 지냈고, 종묘에서 제외되었거나 후손이 없는 왕과 비빈 등에 대해서는 성묘를 했다. 허물어진 능묘를 보수하기도 하였다.

또 민간에서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절사(節祀)라 하여 산소로 올라가 성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식과 추석이 가장 성하여 교외로 향하는 길에 인적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농가에서는 이 날을 기하여 밭에 파종을 했다.

이렇듯 한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조상 숭배와 관련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다. 집안에 따라서는 사당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성묘를 하고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이때 서울 지역에서는 제사에 앞서 먼저 산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성묘의 대상은 기제사를 받는 조상도 있지만,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먼 조상이나 후손이 없는 사람인 경우도 많다.

또 손 없는 날 또는 귀신이 꼼짝 않는 날로 여겨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는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소에 개사초(改莎草: 잔디를 새로 입힘)를 하거나 비석 또는 상석을 세우거나 이장을 한다. 이렇듯 성묘와 산소 돌보기의 풍속이 유지되는 데에는 한식이 식목일과 겹치며, 식목일이 공휴일인 점이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한식은 농사를 준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소를 부려보기도 한다. 또 한식 무렵이면 볍씨를 담근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 말라죽거나 새가 파먹는 고초일(苦草日)이라 하여 씨를 뿌리지는 않는다. 또 강원도 지역에서는 과일나무의 벌어진 가지 사이로 돌을 끼워넣는 과일나무 장가보내기를 하는데, 열매를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한식의 날씨를 살펴서 그 해 시절의 좋고 나쁨이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곧 한식에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잔잔하면 시절이 좋거나 풍년이 든다고 하며, 어촌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그러나 폭풍이 불고 큰비가 내리면 그 반대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식날 새벽에 천둥이 치면 서리가 일찍 오고 저녁에 천둥치면 늦게 온다는 믿음도 있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 한식은 산서(山西) 지방에서 시작되어 남북조시대 말부터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날짜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후한(後漢)시대부터 동지 후 105일 전후 3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4절기의 하나로 한식과 날짜가 겹치는 청명(淸明)은 동지 후 107일로 밀려났으며 한식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한식은 농사의 시작과 겹치므로 풍년을 기원하여 제기차기, 그네타기, 갈고리 던지기 같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으며 당나라 무렵부터는 왕실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상묘(上墓)가 중요한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남송 때부터 한식의 금화(禁火) 풍속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명나라 때에는 한식 자체가 폐지되었다. 대신 청명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청명의 날짜도 다시 동지 후 105일로 환원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東國李相國集, 朝鮮王朝實錄, 寒食考(守屋美都雄, 和田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講談社, 1951), 寒食與改火(裘錫圭, 古代文史研究新探, 江蘇古籍出版社, 1992), 中國歲時史の研究(中村喬, 朋友書店, 1993), 中國傳統節日文化(楊琳, 宗教文化出版社, 2000),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Chinese Festivals(Wolfram Eberhard, Henry Schman Inc, 1952), The Cold Food Festival in Early Medieval China(Donald Holzma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6-1, 1986).
필자 | 서영대(徐永大)

고초일(苦草日)

정의 한식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한식날 씨를 뿌리면 씨가 말라죽거나 새가 씨를 파먹는다는 믿음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러한 믿음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와 달리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매월마다 특정 일진이 든 날을 고초일(苦焦日)이라 하여 파종을 금하고 있다. 곧 정월은 진(辰), 2월은 축(丑), 3월은 술(戌), 4월은 미(未), 5월은 묘(卯), 6월은 자(子), 7월은 유(酉), 8월은 오(午), 9월은 인(寅), 10월은 해(亥), 11월은 신(申), 12월은 사(巳)가 일진에 든 날이 고초일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山林經濟,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서영대(徐永大)

공마일(空魔日)

정의 한식을 달리 부르는 말.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 부르는 한식의 다른 이름이다.

내용 마(魔)가 끼지 않은 날, 곧 귀신이 발동하지 못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이 날은 묘를 손질해도 뒤탈이 없다고 하여 묘를 안심하고 손질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江原道 篇-(文化財管理局, 1977).
필자 | 서영대(徐永大)

금연일(禁煙日)

정의 한식일(寒食日)을 달리 부르는 말. 연기 피우는 일을 금한다는 뜻으로, 이 날에는 불 피우는 것을 금한다.

내용 중국 춘추시대 개자추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불에 타서 죽었는데, 이를 기리는 풍습이 한국에도 전해졌다. 그래서 이 날 마을마다 밥 짓기를 금하여 연기가 끊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한식을 금연일이라고 한다. 조선 전기 문신인 신광한(申光漢)의 '한식날 길 가다가(寒食道中)'라는 시에 "어둑어둑 비바람 부는 금연날 꽃나무 마을마다 하루해 길기도 해라. 수많은 자고새가 푸른 대숲에서 우니 나그네길에 마시는 봄술 금귀(金龜)만큼 귀하네(冥冥風雨禁煙時 花木千村日色遲 無數**鷓鴣**啼翠竹 客程春酒當金龜)."라고 한 표현이 있다.

조선 후기 문신인 이안눌(李安訥)의 '양정 석탄은이 공주의 별서에 있으면서 시를 보내 초청하기를 늦매화가 이미 피고 새 술이 익었다고 하였으나, 마침 나는 공무에 바빠서 달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시의 운을 따라 시를 지어 보내어 감사드린다.이 날은 한식날이다(石陽正灘隱 在公州別墅 寄詩見邀 報晩梅已發 新**醞**方熟 適官務**倥傯** 未獲馳赴 謹次其韻以謝之 是日寒食).'라는 시에 "시를 보내 전하기를 금연일(禁煙日)에는 술이 익고 매화 떨어지는 때라네. 꽃 찾아 길 떠날 수 없는 이 몸 관청에 있노라니 마음만 절로 슬퍼지네(詩傳禁煙日 酒熟落梅時 未得尋芳去 官居意自悲)."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企齋集, 東岳集.
필자 | 이창희(李昌熙)

냉절(冷節)

정의 한식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한식날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찬 음식을 먹는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또한 한식을 숙식(熟食)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한식날에는 미리 익혀둔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비롯한 것이다.

참고문헌 | 簡易集, 樂田堂集, 東國歲時記, 漁村集, 潛庵逸稿, 佔畢齋集, 鶴峯集.
필자 | 서영대(徐永大)

개사초(改莎草)

정의 한식에 하는 산소 손질의 일종으로 무덤이 헐었거나 떼(잔디)가 부족할 때 떼를 다시 입히는 일. 사초(莎草) 또는 떼입히기라고도 한다.

내용 한식이나 청명 때 성묘하는 풍습은 고려시대의 기록에서부터 등장하며, 이때 이미 헐은 산소의 손질도 함께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개사초는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풍습이 보편화되었고, 나아가 개사초 의례도 있었다. 조선시대 말기의 문헌인 『상례편람(喪禮便覽)』과 『사례홀기(四禮笏記)』에 개사초 때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의례를 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개사초고제(改莎草告祭)를 드려 산소의 주인이 놀라지 않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토지신에게 개사초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사초를 마친 후에는 위안묘제(慰安墓祭)를 올려 산소의 주인으로 하여금 안정을 되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처럼 복잡한 절차는 생략한 채 떼를 입히고 산소를 손질하는 것에 그친다.

한식이나 청명 때 성묘를 가서 산소와 그 주변의 풀을 베고 떼를 입히는 것은 거의 전국적인 풍속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의 사례처럼 2월 한식에는 개사초를 하지만 3월 한식에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충청북도 진천군의 사례처럼 개사초를 한 다음, 집에서 한식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한식이나 청명 때 개사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때가 식물이 잘 자라는 시기이고 또 이 날은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날 또는 손 없는 날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의의 한식과 청명을 전후한 시기에 산소를 돌보는 풍습은 중국에도 있었는데, 소묘(掃墓)가 그것이다. 소묘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한식과 청명의 가장 중요한 풍속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개사초도 중국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사초 풍습의 유지는 중국의 영향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한국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겨울에 얼어붙었던 흙이 한식과 청명 전후가 되면 녹아서 부서져 내리기 때문에 산소의 손질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름 우기에 빗물이 산소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개사초 풍습을 유지시켜 온 것이다.

참고문헌 | 四禮笏記, 喪禮便[illegible], 中國歲時節令辭典(喬繼堂 · 朱瑞平,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 · 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서영대(徐永大)





1 개사초
2 개사초
3 한식성묘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무자후제사(無子后祭祀)

정의 후손 없이 죽은 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지내주는 제사. 무후제(無後祭), 후손 없는 조상제사, 무연고 노인제사, 동네할아버지제사, 은처사제사라고도 부른다.

유래 무자후제사는 후손을 남기지 못한 노인이 마을에 토지를 기증하고 제사를 부탁하여 지내는 제사다. 특수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기가 고정되기보다는 한식이나 중양절과 같은 기존 절기에 맞춰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시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보편성을 지닌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사례로는 임진왜란 전후(16세기 말)에 시작되었다는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의 동네할아버지제사가 이른 시기의 자료로 전한다. 학교리의 '동네 할아버지'는 윤내국(尹乃國)이란 사람으로 16세기 말에 동네에 살았던 주민이라고 한다. 윤내국은 제사 지내줄 자식이 없자 자신의 농토와 재산을 마을에 기증하고 매년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그 후로 동네 할아버지 제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무자후제사를 지내는 시기는 3월과 9월에 집중되어 있다. 한식 전후나 중양절에 주로 지내며, 지역에 따라서는 일년에 두 차례 지내는 경우도 있다. 제사를 지내는 계기나 방식이 저마다 다르므로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남 함평군 학교리의 동네할아버지제사는 매년 음력 3월 25일에 지낸다. 제사를 위해 동회(洞會)에서 유사(有司)를 선출해 음식을 장만하고, 비용은 마을의 시제답(時祭畓)인 설형답의 소출로 부담하고 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70여 년 전부터는 비석을 세우고 묘역을 정리한 후 산에 가서 산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 사람 모두가 산에 올라가 먼저 유교식 제사를 올리고 제사가 끝난후에 마을 잔치를 한다. 마을 앞 500미터 지점에 동네할아버지 유덕비(遺德碑)와 묘소가 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에서는 3월에 무연고 노인 제사를 지낸다. 산에서 불에 타 죽은 개자추의 한을 기리기 위해 한식 차례를 지내주듯이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난 노인의 제사를 지내준다. 마을에서 살던 노인 중에서 마을에 논을 희사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논의 도지를 받아 해마다 제사를 지내준다. 9월 9일 중양절에도 후손 없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에서는 3월 한식에 무자후차례를 지낸다. 후손 없이 죽은 이들이 자신의 땅을 남에게 양도하고 차례를 지내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 이들의 분묘를 찾아 차례를 올린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에서는 3월 한식과 9월 중구에 은처사제사를 지낸다. 은처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설이 있다. 하나는 여러 세대 전에 마을 근처 암자에서 생활하던 힘이 장사였다는 스님이 은처사라는 전설이다. 이 스님이 죽으면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마을에 희사하여 농사를 짓게 했는데, 주민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전설에서는 은처사가 벼슬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살았는데 관찰사나 부사가 부임 또는 이임할 때 반드시 은처사 집에서 여장을 풀고 쉬어 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 은처사는 일제강점기 때 사망했는데 일본인이 은처사가 살던 집을 사려고 계약하자 저절로 집이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전설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은처사가 힘이 장사이며 마을에 논을 물려주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은처사가 희사한 토지는 저수지로 수몰되거나 일부는 팔리고 현재 논 여섯 마지기, 밭 서너 마지기 정도가 남아 있다. 은처사제사는 마을의 최고령자와 이장이 주관한다. 제물에 고기를 쓰지는 않으며, 시루떡과 삼실과, 상어포, 대구포, 명태포 등을 쓴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에서는 무후제라고 부르는 제사를 10월에 지낸다. 무후제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땅을 조금 내놓고 자신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해서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땅은 '가는골'에 있으며, 옛날에는 이 땅에 농사지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주었으나 밭을 묵힌 뒤로는 동네에서 지내준다. 묘지의 유래나 성씨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신위 없이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묘지에 직접 가서 지냈으나 지금은 이장집에서 지낸다. 한때는 여러 집이 해마


1


2


3


4


5


6

〈무자후제사〉
1 제물준비
2 진설
3 진설된 모습
4 강신례
5 초헌례
6 독축
7 아헌례
8 아헌례
9 사신
10 음복례
11 분축
12 헌식
13 철상
14 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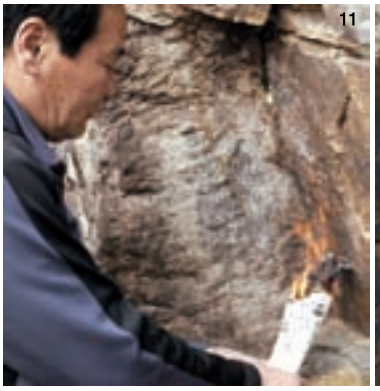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국립민속박물관


7


8


9


10


11


12


13


14

다 돌아가며 지내기도 했다. 제물은 주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지내며, 대상이 되는 4개의 묘는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벌초를 해준다. 확실한 유래를 모르지만 200년 이상 되었다고 전한다.

무자후제사를 9월 중양절 차례로 지내는 경우도 많다. 충남 금산군 군북면 헌대리에서는 토지를 마을에 희사한 임자없는 조상들에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사를 지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토를 경작한 사람이 그 소출로 제사를 모시기도 한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에서는 10월 24일에 후손 없는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 삼거리노인네와 진서방네가 이 제사의 주인이다. 충북 충주시 안림동과 영동군 매곡면 수동리에서도 비슷한 제사가 전승되고 있다.

의의 무자후제사는 후손 없는 노인이 마을에 토지를 희사해서 성립된 제사다. 무연고 노인을 위해 마을 단위에서 전승하고 있는 제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사에는 제사를 통해 이승에서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애착이 반영되어 있다. 양자를 들여 가문의 전통을 잇고자 하는 것과 달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개별적인 제사를 지내게 하는 방식이 특징적이다.

참고문헌 | 삼척민속지1-가곡사람들의 삶과 문화-(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경엽(李京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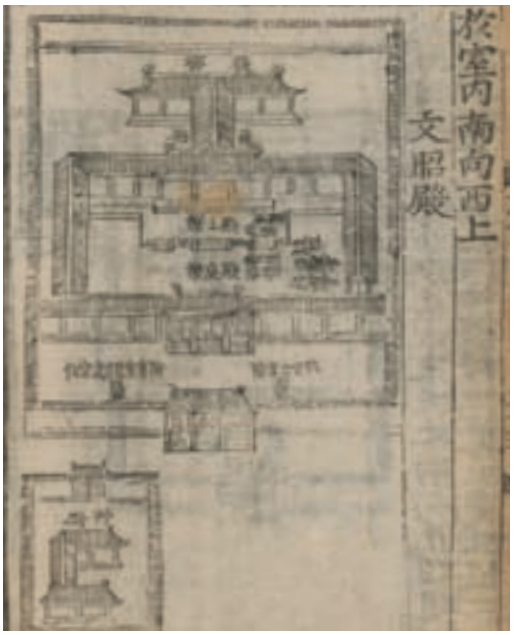
문소전제(文昭殿祭)

정의 조선 전기에 사시(四時)와 한식, 추석 같은 속절(俗節)에 원묘(原廟)인 문소전(文昭殿)에서 지냈던 제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문소전제를 종묘, 사직 같은 대사(大祀), 풍운뇌우, 문선왕 같은 중사(中祀), 명산대천, 칠사(七祀) 같은 소사(小祀)와 달리 산릉(山陵) 진전(眞殿)에 지내는 제사와 같이 속제(俗祭)로 분류하였다. 문소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묘전(廟殿)으로 규모는 후침(後寢) 5칸, 전전(前殿) 3칸이며, 각각 감실(龕室)을 두었다.

유래 중국은 한(漢)나라 혜제(惠帝) 때 숙손통(叔孫通)의 건의로 시조 이하 조상을 위하여 원묘를 처음 건립하였는데 당송(唐宋)대에 이르면 집을 세운 것이 수천 칸에 이를 정도로 더욱 성하게 되었고, 명(明)대에 와서도 황제 가묘로서 대궐에 봉선전(奉先殿)이라는 원묘를 세웠다.

고려시대에는 경령전(景靈殿)이라는 원묘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식으로 영정인 진영(眞影)을 모시는 진전(眞殿) 형태로 원묘인 경령전이 설치되었다가, 조선이 건국되어 태조·태종대까지는 불교식으로 진영을 모시고 육식이 아닌 채식인 소손(素飡)을 올리는 진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세종대에 세워진 원묘인 문소전은 불교식 진전 형태를 탈피하여 진영이 아니라 신주를 모시고 시조와 4대조를 모시는 국왕 가묘(家廟)의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원묘인 문소전은 조선 전기에 주자의 성리학에 입각한 왕실에서 가묘제가 확립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문소전에서는 사시(四時)에 제사를 지내는데, 한식과 추석 같은 명절에도 제사를 지냈다. 종묘에서는 납일(臘日)에 제사를 지내는데 문소전에서는 납일에는 지내지 않았다. 『국조오례의』에 사시(四時)와 속절(俗節)의 문소전 향사에 관한 의식[四時及俗節享文昭殿儀], 사시(四時) 및 속절(俗節)의 문소전 향사 대리에 관한 의식[四時及俗節享文昭殿攝事儀],



문소전 『국조오례』 서례 도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문소전의 기신(忌晨)에 관한 의식[文昭殿忌晨儀], 문소전의 삭망(朔望)의 향사에 관한 의식[朔望享文昭殿儀]이 있다.

내용 문소전은 원래 태종 8년 5월 24일 태조가 승하하자 태조의 혼전(魂殿)으로 만들어졌다가 태종 10년 7월 26일 태조를 종묘에 부묘하고 나서 태조와 신의왕후의 진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태조의 진전으로 만들어진 사당이다. 그러다가 세종 14년(1432) 10월에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 안순(安純), 예조판서 신상(申商), 풍수지리가 이양달(李陽達)에게 명령하여 경복궁 안에 새로 문소전을 세우고, 사대부의 가묘처럼 시조인 태조와 직계 4대조를 모시는 사당으로 하여 5실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에게는 원래 조상을 모시는 종묘가 있어 조상의 제사는 모두 여기에서 지내야 하는데,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 태조와 4대조를 모시는 사당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원묘라고 한다. 원묘의 원(原)은 이중(二重)이라는 뜻으로 정묘(正廟)인 종묘가 세워진 뒤에 다시 이중으로 세우는 제왕의 가묘를 말한다.

따라서 세종대에는 태조와 태종을 모시고 정종은 직계가 아니라 하여 모시지 않고, 문종대에는 태조와 태종과 세종을, 단종대에는 태조와 태종과 세종과 문종을 모셨다. 그러나 세조가 찬탈하고 난 다음에는 문종은 문소전에서 쫓겨났고, 예종대에는 태조와 태종과 세종과 세조를 모셨다. 성종대에는 태조와 태종과 세종과 세조와 예종을 모셨다. 나중에 성종의 생부인 덕종이 추숭되자 덕종을 모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예종을 그대로 모시고 덕종은 연은전(延恩殿)이라는 새로운 원묘를 만들어 모셨다.

중종대에는 태조, 세종, 세조, 예종, 성종을 모시고 태종은 4대가 지나 문소전에 모시지 않았다. 인종이 중종 상을 치르다가 8개월 만에 승하하니 명종대에 중종 3년상을 지내고 태조, 세조, 예종, 성종, 중종을 모시고 세종은 4대가 지나 옮겼다. 인종은 명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므로 명종에게는 아버지와 같다 하여 문소전에 모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명종의 형이라 하여 덕종을 모신 연은전에 모셨다. 선조대에 문소전에 명종을 모시면서 편법으로 인종을 동세이실(同世異室)로 같이 모셔 5실을 원칙으로 하였던 문소전을 6실로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1묘는 시조인 태조, 2묘는 4대조인 예종, 3묘는 3대조인 성종, 4묘는 2대조인 중종, 5묘는 1대조인 인종과 명종을 모시게 되었다. 이는 선조대에 정통론이 확립되면서 인종을 정통 임금으로 문소전에 모시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선조에게 직계 4대조인 예종을 옮길 수도 없고 하여 취해진 편법이었다.

한편, 원묘는 원래 종묘가 있는데 이중으로 세워진 이중묘이므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여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이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선조대까지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로 다시 건립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世宗實錄, 朝鮮前期 儀禮硏究 -性理學 正統論을 中心으로-(池斗煥,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필자 | 지두환(池斗煥)

사초(莎草)

☞ 개사초(改沙草): 봄편

한식성묘(寒食省墓)

☞ 한식절사(寒食節祀): 봄편

한식절사(寒食節祀)

정의 한식에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 한식에 지내는 제사라 하여 한식제사(寒食祭祀), 한식차례(寒食茶禮), 한식성묘(寒食省墓)라고도 한다.

어원 설, 한식, 단오, 추석 같은 명절에 지내는 제사라 하여 절사[節祀, 節祠]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명절에 지내는 묘제(墓祭)와 차례(茶禮)를 총칭하기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도시 풍속에 묘소에 올라가 제사 지내는 것을 절사라 하고 설, 한식, 단오, 추석의 사명일(四名日)에 행한다고 하였다. 이 날에는 술, 과일, 포, 식해, 떡, 국수, 탕, 적 같은 음식으로 제사 지내며, 집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식과 추석에 가장 성행한다고 하였다.

내용 한식에 묘제를 지내는 풍속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한식을 대표적 명절로 여겨 국가에서는 종묘(宗廟)와 경령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관리에게 3일의 휴가


1


2


3


4


9


11


12


13


14


5


6


7


8


10

〈한식절사〉
1 제장준비
2 제수운반
3 진설
4 삼상향
5 강신뢰주
6 강신례
7 초헌례
8 전작
9 독축
10 아헌례
11 전작
12 종헌례
13 진다
14 합반개
15 음복례
16 산신제 독축
17 음복

충남 논산시 두마면 왕대리
국립민속박물관


15


16


17

를 주었으며, 죄수의 사형을 금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 이후 주자의 『가례(家禮)』가 수용되어 사당(祠堂)의 예가 강조되었지만, 민간에서도 묘제를 지내는 것이[上墓, 上墳] 매우 성하였으므로 설, 한식, 단오, 추석 같은 속절(俗節)에 묘제를 지내는 풍속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한식에 종묘와 각 능원(陵園)에서 제향을 지냈고, 민간에서도 이를 좇아 술, 과일, 포 같은 음식으로 묘소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에 유학자들은 『가례』에 의거하여 사당에서의 예와 사시제(四時祭)를 강조하고 명절에 행하는 묘제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나, 이언적(李彦迪)은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 설, 한식, 단오, 추석에 묘소에 가서 배소(拜掃)를 하여도 인정상 해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이(李珥)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마땅히 한식과 추석에는 『가례』 묘제에 의거하여 제수를 갖추어 축문을 읽고,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라고 하여 한식의 묘제를 큰 제사로 여기었다. 특히 김장생의 『상례비요(喪禮備要)』 묘제조(墓祭條)에는 묘제의 축문에 '雨露旣濡(계절이 바뀌어 비와 이슬에 이미 젖었고)'라고 하여, 한식무렵이면 기후가 변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추모의 정을 펼치고자 한다는 한식 절사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한식 절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묘소이지만, 요즘에 와서는 재실이나 사당에서 지내기도 한다. 절사의 절차는 『가례』 묘제에 준한다. 그 절차는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진설,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사신, 철상 순으로 진행하며, 산신제도 지낸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식이 2월 내지는 3월에 걸치거나, 청명, 삼짇날과 중복되거나 하여 대체로 2월의 시제나 절일제(節日祭)와 겹치기도 했다. 또한 『가례』의 묘제가 3월에 택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식에 사당에서 시제를 지내거나 시조와 선조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래서 『면암유고(勉菴遺稿)』에는 "각 능원과 묘궁에도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며, 4대조의 범위를 넘어선 조상의 산소에서 모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으며,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청명과 한식에 "산소에 간다."라고 하여, 한식에는 4대조는 물론 5대조 이상 선조의 묘제를 지냈다.

이에 지역에 따라 한식에는 차례를 지내고 4대 조상의 묘제를 지내거나,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오늘날 한식에는 성묘를 많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절사(節祀)로서 4대 조상의 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의의 한식이 추석과 함께 명절로서 가장 성행해온 것은 이 날들이 절기상으로 계절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식이 봄이라는 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날 개사초(改莎草)와 봉분의 보수를 하기에 알맞아 오늘날까지도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

참고문헌 | 家禮增解,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勉菴遺稿, 奉先雜儀, 四禮便[illegible], 喪禮備要, 朱子家禮, 海東竹枝, 가정의례준칙(常元出版社, 1969),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崔順權)

한식차례(寒食茶禮)

정의 한식날 사당이나 조상의 묘소에서 간단히 지내는 제사. 이를 명절 제사라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절사(節祀)라고도 한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차례를 설, 한식,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데 한식에 지내기 때문에 한식차례(寒食茶禮)라 한다. 달리 한식절사(寒食節祀), 한식성묘(寒食省墓)라고도 한다.

어원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규범이었던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비롯한 예서(禮書)에는 차례에 대한 전례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당에서 행하는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처럼 간단한 제사를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에서 차례라고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일반적으로 차례라고 부른다.

내용 이 날 성묘하는 풍습은 당(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며,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신라 때로 알려져 있다. 『고려사(高麗史)』 권118 「열전(列傳)」











〈한식차례〉
1 진설된 제물
2 참신
3 초헌례
4 독축
5 합문
6 음복
7 지방 떼기
8 분축
9 철상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2리
국립민속박물관

31에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제사를 지내되, 한식에 묘에 올라가는 예는 속례(俗禮)에 따를 것을 허락하여 이로써 조상을 추모하는 풍습을 후하게 여기고……."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민간에서는 한식에 성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가례』에 의거하여 사시제(四時祭)를 강조하고 명절에 행하는 묘제를 폐지하여 일년에 한 번만 행하도록 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학자와 지역, 집안에 따라 속절(俗節)의 시기를 달리 규정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명일(四名日)로 설, 한식, 단오, 추석을 꼽았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한식에 산소에 올라가 잔 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절사라 하고, 설, 한식, 단오, 추석 같은 사명일에 행한다고 하였다. 이 날 술, 과일, 포, 식해, 떡, 국수, 탕, 적 같은 음식으로 제사 지내며, 집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식과 추석에 가장 성행한다고 했다. 이처럼 한식에는 조상의 묘소를 돌아보고 간단한 제물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낸다. 이러한 풍습은 현재까지도 전국에 남아 있는데, 지역과 집안에 따라 집에서 차례를 지낸 후에 성묘를 하기도 하고 묘소에서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김수미(金秀美)

날씨점[氣候占]

정의 한식날의 날씨를 보고 그 해 농작물이나 어획물의 풍흉을 점치는 기후점(氣候占).

내용 농촌에서는 이 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적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날씨가 궂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여긴다. 또 서리가 내리면 땅이 석 자 세 치나 타는 큰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들 징조라 여긴다. 특히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흉조로 여긴다. 어촌에서는 이 날 비가 오거나 풍랑이 심하거나 바람이 불면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 해 풍어가 될 조짐이라 하는 반면에 천둥이 치면 잔고기가 적게 잡힐 조짐이라 여긴다.

전남 무안에서는 한식날 비가 오면 물한식이라 하여 그 해 풍년이 든다고 점을친다. 이는 『세시풍요(歲時風謠)』에 따르면 한식 때 비가 오는 것을 물한식[水寒食] 풍점(豊占)이라 기록한 것과 일치한다.

지역사례 전국적으로 농촌에서는 한식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날씨가 궂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면 흉년이 들 조짐이라 점치며,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시끄러운 일들이 생긴다고 여긴다.

경남 양산에서는 한식에 천둥이 치면 그 해 아이들이 경기(驚氣)를 심하게 할 조짐이라 여겼고, 통영에서는 이 날 비가 오면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 해는 풍어가 될 조짐이라고 믿었다. 이 지방에서는 바다에 고기가 많은 것을 두고 "고기 눈깔 배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천 어촌에서는 이 날 날씨가 좋으면 어종이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여기는 반면 바람이 불면 좋지 않다고 여긴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는 오전에 바람이 불면 올벼가, 오후에 바람이 불면 늦벼가 잘 된다고 하며, 강서구와 경남 사천의 어촌에서는 이 날 풍랑이 심하면 그 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부산 해운대구 어촌에서는 뇌성이 있으면 그 해 바다에 잔고기가 적게 잡힌다고 한다. 경기나 충남에서는 이 날 서리가 내리면 그 해 땅이 석자 세 치나 타서 흉년이 든다고 한다.

의의 날씨를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속신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공통되는 점은 기후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제철이 아닐 때 나타나면 농업이나 어업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歲時風謠,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 민간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김승찬(金承璨)

돈돌날이

정의 해마다 한식 이튿날에 함경남도 북청 지방의 부녀자들이 남대천가나 속후면의 모래산 기슭에 모여 달래를 캐고, 오후가 되면 춤을 추며 노는 놀이. 이 놀이를 달래터놀이라고 하며, 이때 추는 춤을 달래춤이라고 한다.

내용 이 놀이에서는 '돈돌날이'를 비롯하여 전갑섬타령, 이 강산 서산에, 도래미쏘, 라리라 라따, 거스러미노래, 봄철 나비, 양류나 청산, 삼천리노래, 좋구 좋소, 리리흘리리 같은 20여 가지 유행하는 민요들을 번갈아가며 부른다. 이 중에도 특히 돈돌날이가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 많이 부르므로 점차 이 놀이의 이름도 '돈돌날이'로 바뀌고, 이때 추는 춤도 돈돌날이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돈돌날이의 가사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강산아,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후렴)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이다.

돈돌날이판에서 부르는 돈돌날이하는소리들은 모두 가락이 밝고 경쾌하며 흥겨운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노래들은 돈돌날이군 민요라고 묶어서 부를 수 있다. 돈돌날이춤도 매우 경쾌하고 흥겨운 춤으로서 돈돌날이군 민요들과 잘 어울린다.

돈돌이라는 낱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돈돌은 회전을 의미한다. 곧 제 굽이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틀 날, 곧 여명이라는 뜻도 있다. 옛날 북청 지방 사람들은 지금은 가난하고 살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잘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가 된 우리 땅이 다시 우리의 손에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항일의 성격을 띤 민요로 부각되었다.

흰 모래밭의 춤판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큰 원형을 이루면서 둘러앉으면, 그 중 몇 사람이 춤판 한복판으로 뛰어든다. 이때 모여 앉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피리나 퉁소 같은 악기의 반주가 뒤따르기도 한다. 머리에는 종이로 만든 고깔을 쓴다.

이리하여 놀이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한복판에 나간 사람들은 놀이꾼들의 손뼉 장단과 북장단 그리고 노래에 맞추어 명랑하고 경쾌한 돈돌날이춤을 춘다. 그러면 물러앉았던 사람들이 춤판에 뛰어들어 본격적인 군무가 벌어진다. 돈돌날이 춤사위의 특징은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드는 것, 손목을 돌리며 잔가락을 쓰는 손동작, 발을 살짝살짝 뒤로 들면서 춤추는 다리 동작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춤동작이 활발하고 움직임이 잦고 절도가 명료하며 경쾌하다.

일제강점기에는 한식 다음날 오후 2시 무렵이면 북청군 내의 여러 마을 부녀자들이 남대천 신북청철교 아래로 모여들어 돈돌날이판을 벌였다. 처음에는 어수선하지만 마을별로 부녀자들이 무리를 지어 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연히 여러 집단의 돈돌날이패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신나게 놀게 되었다.

참고문헌 | 북청지방 민요들의 특색(문하연, 문화유산4, 조선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7), 조선의 민속 놀이(군중문화출판사, 1964),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돈돌날이
경기도 포천시 종합운동장
국립민속박물관








돈돌날이
경기도 포천시 종합운동장
국립민속박물관

돈돌날이

정의 함경남도의 부녀자들이 바닷가나 강변 또는 산에 모여서 춤을 추고 놀면서 부르던 춤과 노래.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분포지는 신포시, 북청군, 신창군, 덕성군, 단청군을 비롯한 함경남도 일대와 갑산군, 풍산군 같은 양강도의 일부 지역이다. 이 중에 돈돌날이가 가장 활발하게 불린 대표적인 지역은 신포시, 북청군 같은 함경남도의 동해안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북청군에서는 한식 다음날 각 마을의 부녀자들이 남대천 강가나 속후의 모래산에 모여 달래를 캐며 지내다가, 오후가 되면 춤을 추며 노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놀이를 달래터놀이라고 하였고, 여기에서 추는 춤을 달래춤이라고 하였다. 이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는 돈돌날이를 비롯하여 이 강산 서산에, 도레미쏘, 삼천리노래, 거스러미노래, 라리라라따, 전갑성타령, 미나리꽃, 양류나청산, 시집 안 가겠다고, 리리흘리리, 좋구 좋소를 비롯하여 20여 가지이다. 이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돈돌날이'이다. 이러한 연유로 돈돌날이는 차츰 달래터놀이와 달래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돈돌날이가 이러한 여러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말로 굳어져 있다.

달래터놀이와 달래춤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노래를 부르며 노는 놀이와 춤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를 전후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무엇보다 돈돌날이하는소리들이 창가의 영향으로 형성된 노래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돈돌날이하는소리들은 제4음과 제7음인 '파'와 '시'가 빠진 '도-레-미-솔-라'로 구성되는 일본식 요나누끼 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선율의 진행도 창가와 닮아 있어서 '미-솔-라-도-레'로 구성되는 이 지역 향토 민요의 고유 음계와 다른 면을 보인다. 따라서 돈돌날이의 놀이와 춤은 달래터놀이와 달래춤의 민속적 전통 위에 일본에서 들어온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돈돌날이의 춤판은 봄이 되어 한창 생기가 감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부녀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으면서 시작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흥이 오르면, 둥그렇게 둘러앉은 가운데로 뛰어들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이들의 춤에 흥이 올라 여러 사람들이 잇달아 춤판에 끼어들어 그 수가 늘어나 판이 커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면 자연스레 춤을 선도하는 사람이 생겨나 그에 의해 때로는 둥그렇게,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대열을 이루면서 춤판은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도록 노래들 또한 모두 경쾌한 리듬으로 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 노래들을 되도록 힘차게 소리를 내지르며 부르는 경향이 있다. 노래가 춤판의 흥겨움을 유발하고, 또 그러한 흥겨움에 호응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그러한 분위기가 나도록 다소 격앙되게 노래하는 것이다.

돈돌날이의 춤판은 돈돌날이를 부르면서 시작된다. 돈돌날이는 후렴이 있는 노래지만, 제창으로 부르며, 돈돌날이라는 말은 사설과 후렴에 모두 들어 있으면서 자주 반복된다.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후렴)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한국구연민요: 연구편)

돈돌날이는 돈돌라리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돈돌은 돌고 돈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고 돈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로서 일제가 물러가고, 식민지가 된 조국도 해방되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밖에 돈돌을 동틀로 이해하여 어둠이 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돈돌날이의 해석에 함경남도 민중들의 항일의식이 개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돈돌날이판에서 돈돌날이에 이어서 부르는 노래는 20여곡에 이를 만큼 다양한 것이지만, 그것들의 내용과 성격은 항일과 시대 의식, 여성적 정서와 관

심, 놀이적 정서와 흥취를 표현한 것으로 구분된다. 다음은 이 중에 항일과 시대 의식을 지닌 노래에 해당하는 노래이다.

'이 강산 서산에'
이강산 서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일출 동산에 해가 솟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한국구연민요: 연구편)

"서산에 해가 떨어진다"는 것은 해를 상징으로 하는 일본이 패망한다는 뜻이며, 또 "일출 동산에 해가 솟아온다"는 것은 조국이 해방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얼씨구나 잘한다"며 노래할 수 있다. 이처럼 돈돌날이하는소리에 항일 의식 또는 시대 의식이 드러나는 노래는 이 밖에도 후렴에 "빛나는 조선"을 반복하여 외치는 '삼천리노래', 일본 경찰을 경계하는 '거스러미노래', 징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라리라라따' 같은 것들이 있다.

돈돌날이는 여성들의 놀이이다. 뒤에는 남성들이 함께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역시 춤판의 주류는 여성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돈돌날이를 하면서 여성적 정서와 관심을 노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갑섬타령'
양천전촌에 전갑섬이 오매한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갱피방아찧기가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별안대이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밥임나르기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해안전촌에 말이났소
나는좋아요 나는좋아 해안퉁소가 나는좋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한국구연민요: 연구편)

전갑섬은 북청군 신북청면 신북청리에 있는 전씨 집성촌인 양천마을의 처녀이다. 전갑섬의 혼사 말이 이곳저곳에 났는데, 그의 반응은 이러하다. '속후면의 오매 한촌은 피농사를 많이 지어서 피방아를 많이 찧어야 하기 때문에 싫고, 신북청에 있는 별안대 이촌은 밭농사가 많아서 밥을 이어 날라야 하므로 싫다. 이에 반해 청해면의 해안전촌에는 퉁소를 잘 부는 총각이 있기에 그 곳으로 시집가고 싶다.' 출가를 앞둔 처녀들의 심리와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노래이다. 이 밖에 다소 희롱하는 기분으로 총각을 노래한 '양류나청산', 시집가는 날 처녀의 심리를 표현한 '시집 안 가겠다고'도 돈돌날이하는소리로서 여성적 정서와 관심을 그린 노래에 해당한다.

춤판이 어우러져 흥이 오르면, 노래도 그에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돈돌날이하는소리에 놀이적 정서와 흥취를 담은 노래들이 편입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좋구 좋소'
좋구 좋소 에라 좋구나
이십살 애들이 놀기 좋구나
십팔세 젊은시절이 놀기 좋구나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아름다운 매화꽃이 곱게 피었네
라리라 이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한국구연민요: 연구편)

젊음은 봄이며, 봄은 젊음이다. 노래에는 젊음과 봄을 만끽하는 발랄한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돈돌날이하는소리로 놀이의 흥취를 돋구는 노래는 이 밖에도 미나리꽃을 들고 춤을 추자고 하는 '미나리꽃', 주로 해학적 소재를 담아 노래하는 '리리흘리리'가 있다.

의의 돈돌날이하는 소리처럼 민요에 창가의 요소가 끼어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돈돌날이하는 소리처럼 조국애와 항일 의식이 분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는 노래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역시 매우 드물다. 여기에는 함경도가 역사적으로 민중적 저항이 강한 곳이며, 또한 일본에 의한 근대산업이 일찍부터 들어선 곳이고, 개화기 이래 신학문이 활발하게 교육된 곳이라는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배경으로 놓여 있다. 돈돌날이는 본래 달래터놀이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기본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여성의 축제라는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달래터놀이의 춤판에서 부르던 전통 민요가 있었을 터인데, 창가의 영향을 받은 노래들이 끼어들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돈돌날이의 춤과 놀이는 전통 문화가 새로운 외국 문물의 영향을 받

으며 쇠퇴되거나 변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북청지방 민요들의 특색(문하연, 문화유산4, 조선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7), 민요따라 삼천리(최창호, 평양출판사, 1995), 한국구연민요 -연구편-(한국구연민요연구회, 집문당, 1997), 창가에서 민요로 -함경도 북청민요 '돈돌날이'의 형성에 관한 연구-(이용식, 한국민요학7, 한국민요학회, 1999).
필자 | 강등학(姜騰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정의 한식과 청명은 보통 하루 사이이므로 하루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별 차이가 없음을 일컫는 속담.
유래 한식날 조정에서는 종묘(宗廟)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을 지냈으며, 민간에서는 성묘를 했다.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중국의 옛 습속에 이 날 풍우가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던 습관에서 나왔다는 설과 진(晋)나라의 현인(賢人) 개자추(介子推)가 이 날 산에서 불에 타죽었으므로,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이 날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비가 오는 한식날을 물한식이라 하며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내리는 비라고 믿었다.
내용 한식(寒食)은 4대 명절(설, 단오, 추석, 한식)의 하나로 24절후의 하나인 동지(冬至) 후 105일 또는 그 이튿날에 드는데 청명(淸明) 이튿날이거나 같은 날일 때도 있다. 대체로 한식과 청명은 양력 4월 5~6일쯤 하루 사이로 든다. "한식날 비가 오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유사속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도낀 개낀이다."와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가 있다. 모두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속담들이다.

참고문헌 | 국어대사전(李熙昇, 民衆書林, 1961),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필자 | 강재철(姜在哲)





節氣
절기

청명(淸明)이란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이고
날씨가 좋아야 봄에 막 시작하는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같은 생업 활동을 하기에도 수월하다.
곳에 따라서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하여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도
이 날 산소를 돌보거나
묘자리 고치기 · 집수리 같은 일을 한다.
이러한 일들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겨우내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다.
곡우(穀雨)는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있으며
곡우의 의미는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청명 풍경 이억영

청명(淸明)

정의 음력 3월에 드는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 청명(淸明)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내용 청명은 음력으로는 3월에, 양력으로는 4월 5~6일 무렵에 든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15도에 있을 때이다. 이 날은 한식(寒食)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일 수 있으며,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에 있다.

중국에서는 청명 15일 동안을 5일씩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오동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중후(中候)에는 들쥐 대신 종달새가 나타나며, 말후(末候)에는 무지개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청명조(淸明條)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며, 임금은 이 불을 정승과 판서를 비롯한 문무백관 그리고 360 고을의 수령에게 나누어준다. 이를 '사화(賜火)'라 한다. 수령들은 한식날에 다시 이 불을 백성에게 나누어주는데,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한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서는 불을 나누어주는 일을 한식조(寒食條)에 기록하고, 청명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다. 청명과 한식은 흔히 같은 날이 되기 때문에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 오늘날 민간에서도 뚜렷한 구분 없이 전해지고 있다.

농사력으로는 청명 무렵에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특히 논농사의 준비작업이 된다. 청명이 되면 비로소 봄밭갈이를 한다. 청명은 농사력의 기준이 되는 24절기의 하나로 날씨와 관련된 속신이 많다. 청명이나 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그 해 농사가 잘 되고 좋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점친다. 바닷가에서는 청명과 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어종이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날씨가 좋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이 날 바람이 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파도가 세게 치면 물고기가 흔하고, 날씨가 맑아도 물밑에서 파도가 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경남 사천에서는 청명날의 날씨가 좀 어두워야 그 해 농작물(農作物)에 풍년(豊年)이 들고, 너무 맑으면 농사(農事)에 시원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청명에 나무를 심는데, 특히 '내 나무'라 하여 아이가 혼인할 때 농을 만들어줄 재목감으로 나무를 심었다. 이 날 성묘(省墓)를 가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청명이나 한식은 지상에 있는 신들이 하늘로 올라간 날이어서 특별히 택일(擇日)을 하지 않고도 산소를 돌보거나 이장(移葬)을 해도 좋다고 믿는다. 또 이 날은 손이 없기 때문에 묘자리 고치기, 비석 세우기, 집 고치기를 비롯해 아무 일이나 해도 좋다고 한다.

의의 청명이란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이고, 날씨가 좋아야 봄에 막 시작하는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같은 생업 활동을 하기에도 수월하다. 곳에 따라서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하여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도 이 날 산소를 돌보거나, 묘자리 고치기, 집수리 같은 일을 한다. 이러한 일들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겨우내 미루어두었던 것들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黃海·平安南北 篇-(文化財管理局, 1980),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강릉의 민속문화(장정룡, 대신출판사, 1991), 경기민속지 III -세시풍속·놀이·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필자 | 김지욱(金志昱)

개화(改火)

☞ 반화(頒火): 봄편

반화(頒火)

정의 일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불을 피우던 나무를 바꾸어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씨를 나누어주던 일. 다른 말로 개화(改火), 사화(賜火), 개목(改木)이라고 한다.

유래 중국 고대 왕조인 하은주(夏殷周) 시대부터 한(漢)나라 시대까지는 이 제도가 지켜졌으나 위진(魏晋)시대에 사라졌고, 수(隨)나라 때에 잠깐 시행되었다가 곧바로 폐지되었다. 당(唐)나라 시대에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후로는 청명 때에만 시행하였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에는, 그 철에 맞는 나무로 불을 피움으로써 음양(陰陽)의 조화가 순조롭고 역질(疫疾)의 재앙이 사라져서 통치의 도리가 잘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였다. 당송(唐宋) 이후로는 청명 때가 되면 천지(天地)간에 양기(陽氣)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 기운을 받음으로써 음기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불씨는 가까운 신하들과 왕가의 친척들에게만 나누어주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태종실록(太宗實錄)』 6년 3월 24일 조에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불씨를 오래 두고 변하게 하지 않으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에 지나쳐서 여질(癘疾)이 생기는 까닭으로, 때에 따라 바꾸어 변하게 해야 합니다. 그 변하게 하는 법은 불을 피우는 나무를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榆]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取)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하고, 계하(季夏)에 이르러 토기(土氣)가 왕성하기 때문에 황색(黃色)인 뽕나무[桑]와 산뽕나무[柘]에서 불을 취(取)하고, 상수리나무[柞]와 졸참나무[楢]는 희고, 홰나무[槐]와 박달나무[檀]는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계절의 방위 색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후 해마다 사시(四時)의 입절일(入節日: 立春, 立夏, 立秋, 立冬)과 계하의 토왕일(土旺日: 입추 전 18일)에 내병조(內兵曹)에서 불을 새로 피워 각 궁전에 진상하고 관청과 대신들의 집에 나누어주었으며, 각 고을에서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의 기록으로는, 홍석모(洪錫謨)의 『도하세시기(都下歲時記)』에 "청명절에 맞추어 늦봄이 시작되니 불씨 바꾸는 좋은 규범 주나라 때 시작했네. 느릅과 버들의 푸른 연기 궁궐에서 일어나고, 새 불씨 나누어주는 하인들 급히 달려가네(淸明節屆晩春頭 改燧良規自盛周 榆柳靑烟生紫禁 傳頒新火走傴騶)."라는 시가 있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청명(淸明)조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에서 불을 일으켜 각 관청에 나누어주었으니, 이는 곧 '주관(周官)에서 불을 내었다.' 와 '당송(唐宋) 때에 불을 나누어주게 하였다.' 는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取榆柳之火 頒賜各司 則周官出火 唐宋賜火之遺制也)."라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論語, 都下歲時記, 東國歲時記, 周書, 太宗實錄.
필자 | 이창희(李昌熙)

날씨점[氣候占]

정의 음력 3월에 드는 청명일(淸明日)의 날씨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기후점(氣候占).

내용 및 지역사례 청명이 든 3월은 날씨가 따뜻하고 맑으며 동남풍이 부는 좋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천둥이 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렵의 날씨 변화는 특별한 조짐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청명일의 날씨변화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대개 비나 바람으로 농사의 풍흉이나 어촌의 어획 같이 생업과 관련된 예견이 이루어진다. 곧 날씨가 쾌청하고 옅은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고 어종도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흉년이 든다고 예견하고, 파도가 세게 치면 물고기가 흔하다고 믿는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날씨가 어두워야 그 해 농작물이 풍년든다고 하고, 너무 맑으면 농사가 시원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대개 청명에 날씨가 맑아야 한 해의 일이 길하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南國의 民俗 -濟州道歲時風俗-(秦聖麒, 敎學社, 197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90),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지욱(金志昱)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정의 청명에는 부지깽이와 같이 생명력이 다한 나무를 꽂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청명에 심으면 무엇이든 잘 자란다는 말.

내용 청명은 24절기의 하나로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드는데, 한식 하루 전날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 된다. 농경 사회에서는 이 날을 기다려 농사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 날을 즈음하여 비가 서너 차례 땅을 적시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명은 생명력이 왕성한 절기이다. 청명 무렵에 보통 가래질을 시작하여 곡우가 되면 못자리판을 준비하게 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 청명조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에서 불을 일으켜 각 관청에 나누어준다. 이는 곧 주관(周官)에서 불을 내고 당(唐), 송(宋)에서 불을 나누어 주던 옛날부터 전해진 제도다. 농가에서는 이 날부터 봄갈이(春耕)가 시작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불에 타죽은 개자추의 넋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불로써 만물을 소생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형(金基珩)



곡우 풍경 이억영

곡우(穀雨)

정의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 곡우(穀雨)는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있으며, 음력 3월 중순경으로,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한다. 곡우의 의미는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내용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 그래서 "곡우에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곡우에 비가 오면 농사에 좋지 않다.",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 같은 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속담이 전한다.

곡우가 되면 농사에 가장 중요한 볍씨를 담근다. 한편 볍씨를 담아두었던 가마니는 솔가지로 덮어둔다. 이때 초상집에 가거나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집 앞에 불을 놓아 그 위를 건너게 하여 악귀를 몰아낸 다음 집 안에 들이고, 집 안에 들어와서도 볍씨를 보지 않게 한다. 만일 부정한 사람이 볍씨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싹이 잘 트지 않아 그 해 농사를 망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창에서는 곡우날 사시(巳時)에 볍씨를 담그면 볍씨가 떠내려간다고 하여 사시를 피해 볍씨를 담근다. 볍씨를 담그면 항아리에 금줄을 쳐놓고 고사를 올린다. 이는 개구리나 새가 와서 모판을 망칠 우려가 있으므로, 볍씨 담근 날 밤에 밥을 해놓고 간단히 고사를 올리는 것이다. 전북 익산에서는 곡우 때 씨나락을 담고 솔가지로 덮어놓는다. 초상집이라든가 궂은 일이 생긴 집에 다녀오면 문 밖에서 귀신이 도망가라고 불을 놓고 들어온다. 충남 보령에서는 곡우낙종이라 하여 곡우에 볍씨를 논에 뿌렸다고 한다. 볍씨를 담은 가마니에는 물을 줄 때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게 볍씨 위에 솔가지를 덮어두었으나, 물뿌리개가 생긴 뒤에는 솔가지가 필요 없어 올리지 않는다.

곡우 무렵에는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가 북상해서 충남의 격열비열도(格列飛列島)까지 올라오므로 황해에서 조기가 많이 잡힌다. 이때 잡힌 조기를 곡우사리라고 한다. 이 조기는 아직 살은 적지만 연하고 맛이 있어 서해는 물론 남해의 어선들도 모여든다. 전남 영광에서는 한식사리나 입하

사리 때보다 곡우사리 때에 잡히는 조기가 알이 많이 들어 있고 맛이 좋다. 그래서 곡우사리 조기를 가장 으뜸으로 친다.

북한에서는 이 무렵이면 용흥강으로 숭어떼가 올라온다. 살진 숭어 같은 물고기들이 산란기가 되어 올라오는데, 강변에 모인 사람들은 어부가 잡은 생선으로 회(膾)나 찌개를 만들어 술을 마시며 하루를 즐긴다. 이때 강변 사람들은 물고기가 오르는 조만(早晩)을 보고 그 해 절기의 이르고 늦은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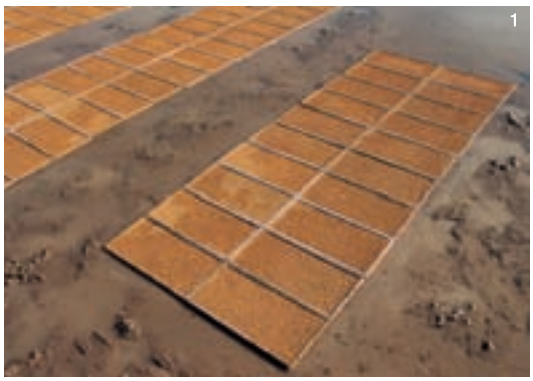
속신 지역에서는 이 날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대문에 들어가기 전에 불을 놓아 잡귀를 몰아낸 다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날은 부부가 함께 자는 것을 꺼리는데, 이는 부부가 잠자리를 하면 토신(土神)이 질투하여 쭉정이 농사를 짓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곡우에 무명을 갈거나 물을 맞기도 하는데, 이 날 물을 맞으면 여름철에 더위를 모르며 신경통이 낫는다고 한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곡우 때 나물을 장만해서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곡우가 지나면 나물이 뻣뻣해지기 때문이다. 또 경북 구미에서는 곡우날 목화씨를 뿌리며, 파종하는 종자의 명이 질기라고 찰밥을 해서 먹는다. 그리고 새를 쫓는다고 동네 아이들이 몰려다니기도 한다. 곡우 무렵은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르는 시기로 곡우물을 먹으러 가는 풍습도 있다. 곡우물은 자작나무나 박달나무 수액(樹液)으로 거자수라고도 하는데, 위장병이나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경남 남해에서는 이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인천 옹진에서는 이 날 비가 오면 샘구멍이 막힌다고 하는데, 이는 가뭄이 든다는 말이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곡우에 비가 많이 오면 그 해 농사가 좋고, 비가 적게 오면 가물어서 흉년이 든다고 하며, 전북 순창에서도 곡우에 비가 오면 농사에 좋지 않다고 여긴다. 이런 날씨점을 통해서도 풍년을 기원하는 소박한 농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洪城의 民俗(홍성문화원, 1994),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1 모판
2 모판비닐덮기
3 모판비닐덮기
4 모판보온
경북 청도군 방상운









〈곡우물마시기〉
1 나무에 구멍뚫기
2 나무에 관꽂기
3 관 연결하기
4 곡우물 채취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국립민속박물관

곡우물마시기

정의 곡우(穀雨) 무렵에 나무에 상처를 내어 받은 수액(樹液)을 마시는 풍속. 전라북도에서는 거자수물마시기, 전라남도에서는 다래물마시기, 경상북도에서는 약물마시기라고 한다.

내용 곡우 무렵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로 전남, 경상도, 강원도에서는 깊은 산이나 명산으로 곡우물을 마시러 간다. 주로 자작나무나 산다래 또는 박달나무에 칼로 흠을 내거나 가지를 휘어 늘어뜨리고 끝을 잘라 병 속에 꽂아두고 하룻밤을 지내면 병에 물(수액)이 가득 고인다. 이 물을 곡우에 마시는 물이라 하여 곡우물이라 하며 전남에서는 다래물, 전북에서는 거자수물 또는 고금물, 경북에서는 약물(약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곡우물은 경칩 때 나는 고로쇠물보다 덜 달콤하고 텁텁한 맛이 나는데 위장병, 신경통, 당뇨, 이뇨, 관절염, 요통, 대하증에 좋으며 고부간의 갈등으로 생긴 속병도 곡우물을 먹으면 치료된다고 믿는다. 특히 신병이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물을 마시는데 외지 사람들에게 더 약이 된다고 한다.

전남 강진과 해남에서는 곡우물을 먹으러 대흥사로 가고, 고흥에서는 금산으로, 성주에서는 가야산으로 간다. 곡우물은 비가 자주 오는 해에 마시면 맛이 덤덤하고 하루만 놔두어도 색깔이 변하여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날이 가물고 비가 적을 때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물 한 통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양이 적다. 거자수는 특히 지리산 아래 전남 구례 지역에서 많이 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1969),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

정의 산란 직전의 조기를 곡우철조기, 곡우살조기, 오사리조기라 하여 최고로 치듯이 조기는 곡우가 지나서 잡는 것이 좋다는 뜻.

내용 조기는 산란할 때에 소리 내어 우는 습성이 있다. 산란할 때 울고 산란을 마친 뒤에도 우는데, 그 시점이 곡우를 전후한 시기이다. 전남 흑산도 근해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가 곡우 때가 되면 북상하여 충청도로 올라가는데, 이때 잡은 고기를 곡우살조기 또는 오사리조기라고 한다. 곡우살조기는 크지는 않지만 연하고 맛이 있어 가장 좋은 일품으로 친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7).
필자 | 김기형(金基珩)

곡우에는 못자리를 해야 한다

정의 곡우(穀雨)에는 못자리를 해야 농사 일정에 어그러짐이 없어 추수할 때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

내용 농경 사회에서는 곡우 무렵이 되면 농번기에 접어들게 되어 농사일을 서두르게 된다. 가래질, 논둑 다지기, 논갈이 그리고 못자리 만들기가 이 무렵의 대표적인 농사일인데, 청명 무렵에는 겨우내 얼었던 논둑에 물이 새지 않도록 가래질을 한다. 가래질을 마치고 쟁기로 논갈이를 하여 못자리를 만드는데, 이때가 곡우 무렵이다. 볍씨를 일주일 가량 물에 담가서 싹을 틔우고 가래질과 못자리를 장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래종 벼는 신품종보다 스무날 정도 늦게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곡우 무렵에는 못자리를 해야 농사에 차질이 없다. 옛날에는 벼농사의 파종이 있는 곡우 무렵에는 죄인도 잡아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모판고르기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황헌만

참고문헌 |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형(金基珩)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

정의 곡우에 비가 오면 못자리 물로 쓰기 좋기 때문에 풍년이 들게 된다는 속담. 곡우는 봄비가 내려 백곡(百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내용 곡우는 양력 4월 20일이나 21일에 해당하며, 음력으로는 3월의 절기이자 봄의 마지막 절기이다. 농경사회에서는 곡우 무렵에 못자리할 준비로 볍씨를 담갔다. 재래종 벼는 신품종보다 약 20일 정도 늦게 못자리를 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곡우에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곡우에 비가 내리면 못자리하기에 제격인 것이며, 못자리가 잘 되면 가을에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는 것이 있다. 곡우에 가뭄이 들면 그 해 농사에 치명적이라는 뜻이다. 곡우 무렵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비가 안 오면 파종한 씨앗에 싹이 트지 않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형(金基珩)







月內 월내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을 단위의 굿이 있다.
우리 갈매동도 다양은 마을의 공동 축제를
제의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다.
마을의 신성한 신을 모시고
마을 사람 전체가 동참하여
세속적 놀이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는 형식을 지닌다.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시기에
풍농을 기원하고
마을 수호신을 빌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은
농경세시의 례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春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에서 매년 음력 3월 초정일(初丁日)에 가야진(伽倻津)의 용신(龍神)에게 올리는 의례. 1997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가야진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유래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2, 잡지(雜志) 제사조(祭祀條)에 따르면 가야진용신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국가적 제전(祭典)으로 제정한 중사(中祀)이다. 중사는 국가에서 칙사(勅使)를 보내어 명산대천에서 올리던 제사로, 오악(五岳), 사진(四鎭), 사해(四海), 사독(四瀆)으로 구분하였는데, 가야진용신제는 사독의 하나이다. 사독이란 경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위치한 큰 강이다. 곧 동쪽은 토지하(吐只河), 남쪽은 황산하(黃山河), 서쪽은 웅천하(熊川河), 북쪽은 한산하(漢山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2, 양산군(梁山郡) 산천조(山川條)에 "가야진은 일명 옥지연(玉池淵)이라고도 한다. 고을 서쪽 40리이며 황산강 상류에 있다. 우리 세종조 때 황룡이 물 속에 나타났으며, 가물 때 비를 빌면 문득 효험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였다. 또 같은 책 사묘조(祠廟條)에 "가야진사는 사전(祀典)에 공주, 웅진과 함께 남독으로 삼았다고 중사에 실려 있다. 나라에서 해마다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 지낸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낙동강 중류인 양산시의 황산하 상류에서 중사를 지내던 사당이 가야진사임을 알 수 있다. 가야진사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창건된 후로 인조 22년(1644)과 숙종 34년(1708) 그리고 고종 12년(1875)에 각각 중수(重修)하였다. 이후 1935년 하천정리 때 당곡마을의 산기슭으로 옮겼다가 1966년에 다시 원위치인 용당리 615번지로 옮겼다. 1983년에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가야진사의 용신제는 조선조 말기까지는 국가적 제례로 용신에게 뱃길의 안정과 우순풍조를 비는 제례였으나,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사당의 복원과 정비를 한 것을 계기로 가야진용신제의 예능 보유자였던 이장백(1914~1998) 옹이 가야진용신제보존회를 조직하고 용신제의 내용을 고증하고 보완하여 민속놀이인 용신제놀이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가야진용신제는 재래의 용신제와 지방의 기우제와 동민의 풍물놀이를 융합시킨 것이다.

내용 가야진사의 용신제는 부정(不淨)가시기, 칙사영접, 용신제, 용소(龍沼)풀이, 사신(辭神)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가시기는 제례 사흘 전부터 제관들이 목욕재계하고 제당 안팎을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례 당일에는 부정을 가시기 위해 제당 주변에 황토를 뿌리고 출입문에는 금줄을 치며 제수를 준비한다. 칙사영접은 칙사가 당도하기 전에 먼저 길닦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괭이와 망깨와 비 같은 연장을 가지고 '길닦기소리'에 맞추어 길의 흙을 고르고 다지고 비질한다. 길닦기가 끝나고 칙사가 길목에 당도하면 선창자가 길을 밟는 지신풀이를 하면서 영접길에 오르는데, 나머지 일행들은 풍물을 치며 뒤따라간다. 이때 하는 지신밟기소리는 다음과 같다.

려루 지신아 가야지신을 누리자 하늘생겨 갑자년
땅이생겨 을축년
갑자을축 생긴후에 천지신명이 밝았고 천지신명
밝은후에 이나라가 생겼고
이나라가 생긴후에 황산강이 생겼고 황산강이
생긴후에 용당터가 생겼네
용당터가 생긴후에 가야제당을 세웠고
가야제당 세운후에 삼용신을 모셨네
삼용신을 모신후에 용신제를 지냈네
용신제를 지내려고 칙사님을 모셔오네
삼정승 육판서는 나랏일로 못오시고
이고을 원님께서 칙사명을 받으셨네
가슴에는 바람안고 등뒤에는 바람지고
칙사님이 오시네요 칙사님을 맞이하세
칙사님을 모신후에 용신제를 지내보자
배띄워라 배 띄워라 황산강에 배띄워라
순풍에 돛을달아 용당용김에 당도하여
삼용신을 청한후에 희생을 바쳤더니
영험하신 삼용신이 비를몰고 오는구나
비가온다 비가온다 온누리에 비가온다
풍년일세 풍년일세 금년농사 풍년일세
먹고쓰고 남은식량 술도빚고 떡도하여
남녀노소 즐겨보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국태민안 비나이다 어려루 지신아
가야지신을 누리자 지신지신 지신아

칙사를 만나 절을 올리고 풍물을 친 후 칙사를 사인교에 태워 제당으로 모셔온다. 칙사가 제당에 당도하면 집례관이 칙사의 입실을 고한 다음 용신제를 행한다. 용신제는 홀기에 따라 진행하는데, 사당 안에서 분향례, 헌작례, 음복례를 하고, 사당 밖에서 망료례(望燎禮)를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제물은 모두 익히지 않은 것들로 쓰는데, 가야진지신(伽倻津之神)의 위패 앞 첫째 줄에는 왼쪽부터 기장, 쌀, 수수, 둘째 줄에는 조기, 육회, 돼지머리, 고기포, 육포, 셋째 줄에는 미나리, 무, 겉밤, 대추를 차리고, 넷째 줄에는 술잔 세 개를 얹어 놓는다. 술잔 세 개를 얹어놓는 것은 세 용신을 봉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신제에서 읽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 세차 갑신 삼월 무진삭 초십일에 양산군수 ○○○가야진의 신께 감히 밝게 고합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위해 빌면 만물을 윤택케 하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에게 백복을 주옵니다. 삼가 희생과 폐백과 술과 밥 등 여러 제수를 이에 베풀어 밝게 올리니 흠향하소서(維 歲次甲申三月戊辰朔初十日丁丑 梁山市長 ○○○敢昭告于 伽倻津之神 伏以 爲國之祝 澤潤萬物 克禋克祀 錫我百福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尙饗)."

용소풀이는 용소침돈례(龍沼沈豚禮)의 과정이다. 용신제를 마치면 칙사를 비롯한 제관이 강변에 지어놓은 송막(松幕: 불집)으로 가는데, 풍물패는 풍물을 치며 따라가서 송막을 한 바퀴 돌면 칙사가 송막에 불을 지른다. 이때 풍물패의 잡색들은 짚신을 벗어 불길에 던지며 용의 승천을 기원한다. 한편 알자(謁者)의 안내로 희생물인 돼지를 배에 싣고 풍물을 치면, 헌관인 칙사는 집례, 대축, 사령을 대동하고 배에 올라 용소로 향한다. 용소에 당도하면 희생물을 뱃머리에 두고 칙사가 헌작하며 재배한 후 "용신님, 이 희생을 바치오니 부디 흠향하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돼지를 강에 던지면서 "침하돈(沈下豚)"이라고 세 번 외친다. 이때 강변의 불타는 송막에 있던 사람들이 "비가 온다. 풍년이 온다." 외치면서 한바탕 풍물놀이를 벌인다.

용소풀이가 끝나면 제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제당으로 돌아오고, 풍물패는 풍물을 치고 춤을 추면서 제당으로 온다. 알자가 제당을 향해 제향이 끝났음을 고한 후 칙사는 관복을 벗고 제관을 비롯한 모든 참례자들이 풍물패와 어울려서 한바탕 난장을 벌이고 의례를 마감한다.

전설 가야진사의 세 용신에 대한 전설은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기 위해 용당리 일대를 전초기지로 삼았을 때부터 전승되어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가야진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국립민속박물관


1


2


6



7


9


10


11


3


4


5


8

〈가야진용신제〉
1 부정가시기
2 길닦기
3 칙사모셔오기
4 칙사영접
5 관세례
6 초헌례
7 독축
8 음복례
9 망료례
10 희생물 운반
11 송막
12 용소침돈례준비
13 용소침돈례
충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국립민속박물관


12


13

양주도독부에 있던 한 전령이 공문서를 가지고 대구로 가던 중 이곳 주막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나는 이 곳에 사는 암룡인데, 숫룡인 남편이 첩만 사랑하고 나를 멀리하니 첩을 죽여주면 꼭 은혜를 갚겠다." 하며 애원하였다. 전령은 여인의 딱한 사정에 동정심이 생겨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날 여인이 가리켜주는 대로 숫룡이 첩을 데리고 논다는 용소에 가서 칼을 빼어들고 바위틈에 숨어 기다렸다. 한참 있으니, 갑자기 강물이 끓어오르면서 용 두 마리가 불쑥 솟아오르며 서로 엉켜 놀기 시작하였다. 겁에 질린 전령은 다급한 나머지 앞뒤를 가릴 새도 없이 칼을 번쩍 들어 가르쳐준 첩룡을 내려친다는 게 공교롭게도 칼이 빗나가 숫룡을 쳐죽이고 말았다. 남편의 죽음에 슬피 울던 암룡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고, 당신에게 용궁을 구경시켜 줄까 하니 가겠느냐?"라고 제의하였다. 전령은 용궁에 대한 호기심에 암룡의 제의를 받아들여 입었던 전복과 칼, 투구를 벗어놓고 암룡의 등에 올라타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암룡과 전령의 자취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이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재앙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므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용이 놀던 용소가 보이는 곳에 사당을 짓고, 세 마리의 용과 전령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돼지를 잡아 용소에 던져 넣으며 제사를 지내니, 재앙이 그쳤다고 한다.

의의 가야진용신제는 그 역사가 오래인 만큼 제례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면서 전승된 것이라 하더라도 중사인 사독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용신제이다. 신라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는 수로의 안전과 우순풍조를 용신에게 기원하는 유교식의 제례였으리라 추정되나, 근래에는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용신에게 올리는 제례에, 기우제의 송막태우기와 침돈(沈豚) 그리고 풍물놀이가 덧붙여져 민속제례화한 용신제로 변모되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내고장 傳統(梁山郡, 1983), 梁山歷史文化觀光選集(梁山文化院, 2001), 梁山市誌(梁山市誌編纂委員會, 2004).

필자 | 김승찬(金承璨)

광양당제(廣壤堂祭)

정의 광양당(廣壤堂)에서 춘추(春秋)에 남녀가 모여 지내던 제의. 광양당은 지금의 제주시 이도2동에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과양이라고 하고 당에 대해서도 과양당이라고 하였다. 본래 토속적인 무속신당이었으며 본향당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 광양당제는 무속신당인 광양당에서 베풀어지던 제의로 본래 하로산또, 곧 한라산신을 위하여 당굿 형태로 벌이던 것이다. 한라산신은 제주도 당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남성 신격이다. 그 직능으로 보면 산신(山神)으로 수렵과 목축의 신이다. 그러한 점에서 비록 산신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본토의 산신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조선조 들어 사전(祀典) 정비의 일환으로 한라산신에 대한 제의가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로 인정되면서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조선 태종 18년(1418) 한라산이 사전(祀典)에 등재되어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가 춘추로 베풀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광양당에서 모시던 하로산또와 국행제로 모시게 된 한라산신은 종종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한라산신제는 한라산에 따로 마련된 제장에서 관주도로 지냈으니 광양당에서 민간인들과 심방들이 주도하여 지낸 광양당제와는 분명히 달랐다. 한라산에 대한 국행제는 제대로 시행된 것 같지 않다. 이는 왕조실록에 한라산신제와 관련한 기록이 통일되지 않은 데서 확인된다. 특히 1702년 이형상(李衡祥) 목사의 장계에는 사전에 누락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조정에서도 그 누락된 까닭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 보아 조정이나 관에서도 한라산신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진산 한라는 주 남쪽에 있는데 한편으로 두무악 또는 원산이라고도 한다. 그 관에서 제를 행한다."라고 하였다. 태종 이후 한라산신제가 시행되기는 한 셈이다.

한편, 같은 기록에 "속전에 이르기를 한라산 주신은 계제로 태어나 성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명신이 되었다. 마침 호종단이 이 땅을 진양하고 배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데 산신이 매가 되어 돛대 머리로

날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단의 배를 격쇄하여 서경 비양도 암석 사이로 침몰시켰다. 나라에서는 그 영이함을 포상하여 식읍을 내리고 광양왕에 봉하여 해마다 향폐를 내리어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라고 적었다. 이 이야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읍지류에도 실려 있다. 속전이라 하였으니 구전을 토대로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호종단의 단혈에 대한 전설은 제주도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 한라산을 사전에 등록하여 제사 지내는 것을 이와 결부짓고, 다시 이를 광양당과 관련짓고 있다. 한라산신의 지역 수호신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한라산신과 광양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라산신과 광양당신에 대한 혼란이 바로잡힌 것은 1702년 이형상이 신당 철폐를 한 뒤의 일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한라산신제가 사전에 제대로 등재되고 본격적인 제향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에는 어찌하였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당시 제주목에 사묘(祀廟)로 광양당(廣壤堂), 차귀사(遮歸祠), 천외사(川外祠), 초춘사(楚春祠) 같은 신당들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당이었다. 광양당은 다른 지역의 대표적인 신당들과 함께 사묘로 인정되었던 셈이다. 이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사전 정비에도 불구하고 토착신에 대한 제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신에 대한 유교식 제의와는 별도로 광양당에서는 하로산또에 대한 당굿이 지속적으로 베풀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이형상 목사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광양당에서 이루어지던 당굿은 금지되고 한라산신에 대한 유교식 제의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까지 광양당의 위상이 어떠하였는지는 남구명(南九明)의 『우암선생문집(寓庵先生文集)』「탐라시기사지(耽羅時紀事志)」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광양당은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신당의 조종(祖宗)이라고 한다. 이로 보아 광양당은 지금의 송당본향당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이형상에 의하여 훼철된 뒤에도 광양당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따로 유지되었으며, 민간에서는 비공식적으로나마 비념 수준의 제의를 지속하였다.

의의 광양당은 근래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토속 신앙의 생명력이 강했다. 한라산신에 대한 유교식 제의는 한라산에서 지내다가 추위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자 제주성 남쪽 산천단으로 옮겨 지냈다. 그 전통이 남아 지금도 산천단에서는 매년 한라산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광양당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신당이었으며 본래 토착신인 한라산신을 모시는 곳이었다. 한라산신은 사전 정비에 따라 제주목을 대표하는 산천신으로 제향되기도 하였다. 사전 정비 이후에도 토착신에 대한 제향의 성격이 강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1702년 이형상에 의하여 정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寓庵先生文集, 太宗實錄.

필자 | 강정식(姜晶植)

구리갈매동도당굿(九里葛梅洞都堂-)

정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전승되는 마을굿. 갈매동은 속칭 갈매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을에 전승되는 굿을 갈매동도당굿이라고 일컫는다. 경기도 남부의 도당굿과는 다르게 경기도 북부에서 강신무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도당굿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갈매동도당굿의 제일은 음력 3월 2일에서 3월 3일까지이므로, 음력 3월의 춘경 세시 절기와 관련된다.

유래 현재 갈매동 마을에는 1928년과 1960년에 기록된 도당굿 제의 관련 문서가 남아있다. 이 두 자료들은 조선 후기 갈매동 도당굿의 면모와 실상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서들이다. 1928년 기록인 갈매동도당굿의 굿청 진설도에는 각각의 제차대로 음식과 물목을 올린 상이 나옴으로써 어떤 상차림을 갖추었는지 알 수 있으며, 당시에 이루어지던 굿거리와 지금의 굿거리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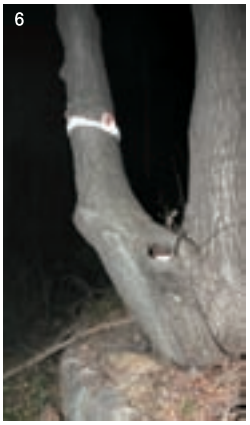
상차림은 대동차지와 무당차지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측에 제장상(당주상, 화주상), 가운데에 제석상, 좌측에 무당상을 각각 4상씩 모두 12상을 차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말명상과 안반상, 호구상, 세 개의 시루를 쪄서 바치는 것으로 나


1


2


4


5


6


7


12


13


14


15



〈구리갈매동도당굿〉
1 산제사 진설
2 초헌례
3 독축
4 서낭맞이
5 서낭맞이
6 서낭맞이
7 서낭맞이
8 유가의례
9 유가의례 - 고사
10 장문밟기
11 굿청 도착
12 대세우기
13 제석거리
14 군웅거리
15 군웅거리
16 굿당돌기
17 걸립놀기
18 결산
19 뒷전 - 액막이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황헌만

















타난다. 대동차지는 이 가운데 제장상과 제석상에 해당한다. 무당차지는 무당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당이 도당굿을 실제로 거행할 때에 차리는 상을 말한다. 굿거리별 상차림 준비는 각각의 제차에 쓰이는 '떡살(떡)'을 기준으로 뽑은 것으로, 당시에 쓰이던 굿거리와 굿거리 제차의 다양한 진행 그리고 제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굿에 필요한 제물 목록을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 제의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제물 준비가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굿의 규모도 성대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기록을 살펴보면, 굿청진설도와 굿거리별 떡살차림은 1928년 것과 동일하나 산치성의 제수 목록이 약간 축소되었음이 확인된다.

내용 갈매동도당굿은 마을굿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참석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특성은 두 가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하나는 새오개의 서낭에 모셔져 있는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셔와 마을굿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잡이 행사에 의한 것으로, 새오개의 도당신을 상수리나무 또는 참나무에 모셔 마을 곳곳을 다니는 유가의례(遊街儀禮)이다.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마을굿의 행사는 구체화된다. 신을 청해서 신의 이름 아래 마을의 결속을 이루고, 동시에 신을 빙자해서 신을 모시기 위한 자금을 공동으로 추렴하여 자금 조달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대잡이의 나무에 창호지로 돈을 싸서 묶는데, 이 돈은 대잡이돈이라고 해서 대잡이가 가진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은 쌀도 걷는데, 이 쌀이 굿의 자금이 된다. 이러한 행사는 음력 3월 2일에 시작해서 밤늦게 유가(遊街)를 한다.

3월 3일부터 본격적인 굿이 거행된다. 도당굿은 부정을 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군을 놀고, 본향바라기를 하고, 대안주를 드리고, 제석을 놀고, 성주창부를 놀고 나서 뒷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차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보통 굿을 관장하는 굿당주라고 일컫는 사제무와 사제무가 초청한 청승무인 초청무가 굿거리를 관장하여 분할하는 방식이 된다. 예컨대 부군을 노는 것은 반드시 당주무가 해야 한다. 나머지는 재주와 기량을 가진 초청무들이 한다.

부정을 친다는 것은 굿판의 정화를 의미한다. 부정을 가시고 물과 불로 정화한 뒤에 이어서 '신줄'인 가망을 행하고, 이어서 본향노랫가락을 부른다. 진적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굿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어서 상산노랫가락을 부르고 앉은굿을 마친다. 다음에 선굿으로 하는 굿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부군신을 놀리는 의례를 한다. 부군신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다. 이 마을 수호신과 마을굿에 종사한 여러 말명과 잽이들을 함께 놀리는 것이 이 제차의 주된 목표이다.

본향바라기를 하는 것은 마을 구성원의 성씨를 있게 한 원고향의 본향을 바라는 것을 말한다. 이 본향바라기에 이어서 다시 가망을 헤쳐서 신들이 있게 된 내력을 다시 상기하게 한다. 그 후 대안주라고 하는 것을 올리게 된다. 대안주로 모셔지는 신은 굿의 통합에 따른 것인데, 이른바 상산, 별상, 신장, 대감을 통합해서 노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바치는 것이 대안주이므로, 이를 통합해서 대안주거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제석은 마을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고 명과 복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들을 함께 모셔서 이를 통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를 거행한다. 성주창부를 하는 것은 만신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므로, 이를 밑천삼아 다양하게 놀이를 하면서 일년 동안 생길지 모르는 여러 가지 횡액이나 횡수를 막아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뒷전은 굿판에 있는 여러 가지 잡귀잡신을 대접해서 보내는 굿거리이다. 만신이 평복 차림으로 이들을 대접해서 보낸다.

일반적인 마을굿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마을굿의 특징은 부군을 노는 굿거리에 있다. 부군은 마을의 도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거리에는 마을굿에 종사한 사제자인 대신말명, 대잡이를 위시한 마을 굿의 관련 신들인 말명, 그 밖의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굿이다. 사람은 죽으면 이러한 굿거리를 통해서 마을의 신으로 대접받는 특징이 있으며, 마을굿의 정신이 응집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갈매동도당굿에서는 만신에 의해서 마을의 신이 새오개 서낭으로 내모셔지는 행사는 하지 않고 대신에 대잡이가 가서 새오개 서낭으로 신을 내모시는 뒷전 뒤의 의례를 거행한다.

지역사례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을 단위의 굿이 있다. 갈매동도당굿은 인근의 담터도당굿과 성격이 상통한다. 경기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굿이

있으니 도당굿, 부군당굿, 고창굿이 그것들이다. 이 세 가지 사이에 용어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여 거의 일치한다. 한편 그 같은 용어의 차이는 지역적 특성을 해명하는 데 유용한 준거가 된다.

부군당굿은 서울의 한강변을 끼고 발달한 마을굿이고, 고창굿은 다소 예외가 있으나 대체로 서해안을 끼고 발달한 마을굿을 가리킨다. 도당굿은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마을에 산재한 마을굿을 일컫는다. 그러나 도당굿의 경우에 경기도 남부와 경기도 북부의 사제자가 전통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어서 굿의 본질적 내용에 차이가 있다. 기본적 성격은 공유하나 예술성에는 차이가 있다. 이와 동일한 굿이 다른 고장에서는 별신굿, 대동굿으로 전승된다. 동해안 일대의 별신굿, 남해안의 별신굿, 충남 부여의 별신굿 따위와 성격이 상통하고, 황해도 일대의 대동굿과도 견줄 수 있는 요긴한 마을굿이다.

의의 갈매동도당굿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 하나는 마을의 공동 축제를 제의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다는 의의이다. 마을의 신성한 신을 모시고 마을 사람 전체가 동참하고 세속적 놀이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는 형식이다. 다른 하나는 세시 절기상 음력 3월은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춘경의 계절이다. 이 시기에 풍농을 기원하고 마을 수호신을 빌어서 축제 의례를 벌이는 것은 농경세시의례로서도 긴요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京畿道 都堂굿 巫歌의 現地 硏究(김헌선, 집문당, 1995), 갈매동 도당굿(구리시 문화공보실, 1996).

필자 | 김헌선(金憲宣)

국사신당제(國師神堂祭)

정의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淸安)에서 3월 초에 장압산(長鴨山)의 큰 나무에서 국사신 부부를 맞이하여 관아에 모셔 제사하고 돌려보내던 풍속. 청안의 국사신당제는 조선시대에 현(縣) 차원에서 준비되었던 대규모의 행사였으나, 지금은 단지 청안면 운곡리의 마을 신앙으로 축소되어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에 세 마을이 각각 제사를 지낸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 월내조(月內條)에, "청안 풍속에, 삼월 초가 되면 그 현의 우두머리 관리가 읍민들을 거느리고 국사신 부부를 동



國師神祭
『朝鮮の年中行事』 조선총독부

면(東面) 장압산 위에 있는 큰 나무에서 맞이하여 읍내로 들어온다. 그리고 무격(巫覡)들로 하여금 술과 음식을 갖추어 놓고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며 떠들썩하게 현아(縣衙)와 각 관청에서 그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하기를 20여 일 한 후에야 그 신을 도로 그 전 큰 나무로 돌려보낸다. 이런 행사를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청안의 국사신당제는 조선 후기 관아에서 거행되었던 매우 성대한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안의 국사신당제는 산신신앙과 풍수지리설의 비보(裨補) 관념이 결합되어 생성된 신앙의례로 여겨진다. 청안은 예부터 남산(南山)이 높아 화기(火氣)가 많은 까닭에 그 산의 이름을 수신(水神)인 거북이의 이름을 붙여 좌구산(坐龜山)이라 했다. 또 그 산에 비보사찰(裨補寺刹)인 구석사(龜石寺)를 세워 화기를 압승(壓勝)했는데, 국사신이 좌정한 장압산은 운곡리 안장압 마을의 배산으로서 좌구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이다. 그러므로 국사신의 신격은 화기를 제어하고 읍치를 수호하는 산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사신당제는 청안현의 관아와 여러 관청 건물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화재막이로서, 2년마다 민관이 함께 국사신 부부를 모셔다가 제사하고 무당이 관아와 관청을 돌면서 굿을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국사신당제를 지내는 동안 그 부부를 20여 일 동안 모셔두었던 국사당은 청안

면 소재지인 읍내리 동쪽에 있었다. 그 밑에 자리잡은 마을을 지금도 국사랭이로 부르고 있어 위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현행 국사제 지금도 안장압을 위시한 밭장압과 괴실 같은 운곡리 세 마을에서는 해마다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정결한 제관을 선정하여 음력 정월 14일 밤에 각각 국사제를 지낸다. 마을에서는 "옛날 삼국시대에 국사(國師) 부부가 이 곳을 지나가다가 마침 임신한 부인이 입덧이 나서 고기가 먹고 싶었다. 그래서 국사 몰래 도랑에서 가재 한 마리를 잡아 먹었다. 국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생을 했다고 진노하여 장압산 꼭대기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열반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국사의 고매한 덕망을 기리고 부인이 가재를 먹고 죽은 한을 달래기 위하여 국사제를 지내게 되었다."라는 설화가 구전되고 있다.

한편, 『동국세시기』에 나오는 국사신 부부를 맞이했던 큰 나무는 운곡리 안장압의 국사숲을 일컫는다. 촌로들에 따르면 고을의 원님이 부임을 하면 반드시 이 마을의 국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또 예전에는 숲속에 국사가 타고 다니는 신승물(神乘物)을 상징하는 목마(木馬)가 안치되어 있었다. 국사신당제의 중요한 특징은 고기를 제물로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온 동민이 일주일 가량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설화에 따라 주신의 신격이 국사인 점을 고려한 까닭이다. 그렇긴 하되 가재를 먹고 죽은 부인의 한을 달래기 위하여 제관은 소매 속에 북어 한 마리를 감추고 있다가 제사를 마치면 국사의 신목이 안 보이게 부인의 신목 옆에 몰래 놓아둔다.

의의 청안의 국사신당제는 조선시대 읍치 차원에서 거행되었던 관행제(官行祭)이다. 현재는 마을 신앙의 형태로 변모하여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충청 지역에서 확인되는 국사당(국수당, 수당, 국시당)의 존재는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보이는 계룡산 국사당을 비롯하여 보고된 서산시 안면도 우포 국수당과 서산시 부석면 창리 국수당 같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국사당신앙은 산신이나 성황신 또는 서낭신에 대한 신앙과 혼효(混淆)되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청안의 국사신당제와 이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의 운곡리 국사제는 그 역사성과 지속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輿地圖書, 韓國民間信仰硏究(金泰坤, 集文堂, 1983), 槐山郡誌(槐山郡誌編纂委員會, 1990), 괴산의 마을공동체신앙(김근수, 괴산문화원, 1998).

필자 | 강성복(姜成福)

꽃맞이굿

정의 꽃피는 봄철을 맞이하여 신(神)의 음덕에 감사하기 위해 행하는 무속 의례. 이 굿은 신을 모시는 기자(祈子)가 스스로 행하는 것과 기자를 따르는 재가집(단골집)의 요청에 의해 행하는 것이 있다. 앞엣것은 신을 따르는 기자의 몸이 건강하고 무업(巫業) 번창을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뒤엣것은 집안의 평안을 감사하는 목적이 있다. 두 경우 모두가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지만, 무사태평, 무병장수, 부귀공명을 비는 기복적 내용이 들어 있다. 꽃맞이굿의 다른 이름으로는 맞이굿, 잎맞이굿, 진적, 진적맞이굿, 철물이굿(철맞이굿), 신사굿, 신사맞이굿이 있다.

유래 꽃맞이굿은 꽃피는 봄, 춘삼월에 이루어진다. 꽃맞이굿을 할 무렵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로서 새싹이 돋고 나무에 잎이 나는 때이다. 이러한 자연을 배경삼아 치르는 굿이기 때문에 이 굿을 잎맞이굿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을철의 햇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치르는 굿을 햇곡맞이굿이라 부르는데, 이때에는 단풍잎이 물드는 계절이어서 단풍맞이굿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꽃맞이굿이 철따라 행해지는 신(신령)맞이굿의 한 형태로서 일종의 철맞이굿임을 짐작케 하는데, 그러한 것은 꽃피는 춘삼월의 꽃맞이굿 이외에도 매달 베풀어지는 굿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정월의 세배맞이(또는 홍수맥이), 이월의 개춘(開春)맞이, 사월의 철쭉맞이, 오월의 단오맞이, 유월의 햇밀천신(薦新, 또는 유두맞이), 칠월의 칠석맞이, 팔월의 한가위맞이(또는 햇곡맞이), 구월의 구일맞이, 시월의 햇곡맞이, 동짓달의 동지맞이 그리고 섣달의 설경(雪景)맞이(또는 계면맞이)가 그것들이다. 이 중에서 속칭 무당제굿이라고 해서 신을 모시는 기자가 스스로 지내는 것은 춘삼월의 꽃맞이굿과 가을의 햇곡맞이











〈꽃맞이굿〉
1 굿청 2 굿에 참여하는 무당들 3 신장거리 비수놀림 4 신장거리 할아버지 모시기 5 초감응거리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국립국악원 유효철
6 신어머니께 인사드림 7 작두거리 치마걸림 8 작두타기 9 뒷풀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국립국악원 김기

굿이다. 재가집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매달 지낼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꽃맞이굿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고대인의 삶은 신앙과 의례 그 자체였으며 그러한 흔적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의 단군, 주몽 또는 혁거세에 관한 기록들은 강림한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의 융합을 통해 인간이 태어났으며 그에 따른 삶의 질서인 문화가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대인들이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던 천신신앙(天神信仰)은 그들의 일상적인 의례로 직결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기본적인 의례는 곧 강림한 천신(天神)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맞이굿의 기본적인 골격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확증케 해주는 문헌 자료는 중국 문헌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의 기록이다. 이 기록의 부여(夫餘)조에 보면, 은(殷) 정월에 천신(天神)을 맞이하여 제천의식을 베풀었으며 이를 영고(迎鼓)라고 불렀다. 여기서의 영고(迎鼓)는 곧 무속 의례인 영신제(迎神祭)로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맞이굿과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고(迎鼓)를 행할 때는 반드시 음주가무가 동반되는데, 이는 단순한 오락이나 흥을 풀기 위한 것 이외에도 천신을 맞이하여 함께 즐기기 위함이고, 동시에 황홀경의 세계로 접어들어 영적 존재인 신령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신앙행위의 골격은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하였던 고려시대에도 전승되어 고대인들의 천신신앙의 틀이 이어졌고, 그것들은 기복적 또는 호국적 신앙 형태인 팔관회(八關會)나 연등회(燃燈會)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내용 꽃맞이굿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굿을 주관하게 되는 기자의 생기복덕을 가려 길한 날을 고른다. 날이 잡히면 집 안에 모신 신당에 고하고 그때부터 굿 준비에 들어간다. 신령님 물건들을 새롭게 장만하기도 하고, 신복을 새롭게 꾸미기도 한다. 기자 자신의 것은 물론 제자들(신딸)의 옷도 새롭게 장만하여 입힌다. 새롭게 모셔야 할 신령이 있으면 신도(神圖)를 꾸며 신당 벽에 맨다. 진설할 굿 음식 또는 굿에 쓸 물건을 장만할 때는 최상품으로 고르되 흥정하지 않는다. 음식은 먹고 남도록 하여 굿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장만한다. 주위의 많은 선후배 무당들과 유명한 잽이들을 부르고 재가집과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려 많은 사람이 굿에 참관토록 한다.

굿을 주관할 기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계한 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굿을 하는 동안에는 정갈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관한다. 과거의 꽃맞이굿은 삼일 굿으로 진행되었는데, 굿이 드는 날(시작하는 날)과 묵는 날(굿을 하는 날) 그리고 나는 날(굿을 끝내는 날)로 구분하였다. 꽃맞이굿은 원칙적으로 신당이 모셔져 있는 기자 집에서 하는 것이지만 근래에는 공공 굿당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울 지역의 꽃맞이굿에서는 각별하게 맞이상(일명 진적상)을 차린다. 이 상에는 준비한 갖가지 음식을 올려놓고 사방 주위를 돌아가며 열두 잔의 명잔, 복잔 그리고 열두 그릇의 국수를 놓는다. 굿이 진행되어 부정청배와 가망청배가 끝나면 모든 참석자들이 둘러앉아 상을 받는다. 이때에 국수를 먹으면 명이 길어지고 술을 마시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수수반대기, 조반대기, 해달반대기를 만들어 추녀 끝에 매단다. 강령 까치산 마누라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기자의 경우에는 바람떡(개피떡)을 만들어 올린다. 특별히 메밀묵과 녹두청포를 장만하고 돼지 순대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특히 황해도의 꽃맞이굿에서는 굿하기 전날 저녁, 굿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안반(떡판)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마당 한편에서 자손을 위하는 석함굿을 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굿을 시작한다.

서울 지역의 꽃맞이굿 순서는 주당물림을 시작으로 부정청배, 가망청배, 진적올림, 청궁맞이거리(불사거리), 산신거리, 대신말명거리, 조상거리, 상산거리(장군, 별상, 신장, 대감), 성주거리, 창부거리를 거쳐 뒷전으로 마무리된다. 황해도의 꽃맞이굿은 당울림을 시작으로 부정거리, 산천거리, 초감흥거리, 소대감거리, 칠성거리, 영전거리, 군웅거리, 타살거리, 성주거리, 대감거리, 신장거리, 장군거리(작두거리), 조상거리, 뒷전 등 모두 열다섯 거리로 이루어진다. 굿거리 중간마다 사람들이 신명을 돋우기 위해 무감서기를 한다.

의의 꽃맞이굿은 철따라 행해지는 일종의 철맞이굿으로서 꽃피는 봄을 맞아 신령을 강림케 하여 즐겁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기본적 틀을 갖추고 있는 이른바 강림신앙(降臨信仰)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이 굿은 신령에게 예의를 표하는 일종의 감사제이기 때문에 신령을 모시고 무업을 하는 무당이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행하는 굿으로서 신령이 좋아하는 음식을 넉넉하게 장만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의례는 시종일관 흥겹고 즐겁게 치른다. 굿을 주관하는 기자는 굿거리를 통해 춤과 소리를 자랑하고 잽이들은 무악 연주를 자랑하게 된다.

봄은 만물이 생성하는 계절로 개화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땅속에 들어갔던 개구리와 구렁이가 나오고 곤충들도 활동을 시작하며 강남 갔던 제비가 되돌아오는 이른바 시작의 시기이다. 이렇듯 꽃피는 봄은 새로움과 시작을 뜻하며, 이때 하는 맞이굿은 젊음, 생명력, 새로움, 시작, 순환의 속성을 나타낸다. 맞이굿은 또한 사회 생활의 구심점이 되게 하는 집단적인 공동체 모색과 그들의 동일성 확인 그리고 일체감 형성을 이루게 한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三國志,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柳東植, 延世大學校出版部, 1975), 韓國巫俗論(崔吉城, 螢雪出版社, 1981), 韓國巫俗思想硏究(金仁會, 集文堂, 1987), 한국의 굿(하효길 외, 民俗苑, 2002).

필자 | 양종승(梁鍾承)

만구대택굿(萬口大擇-)

정의 황해도 지방에서 무당이 모시는 신령을 대접함으로써 무당 자신과 단골의 액을 막는 굿. 황해도 지방의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주로 봄과 가을에 한다. 옹진을 중심으로 해주, 연백, 재령, 안악에서 크게 전승되었다. 만구대택(萬口大擇)굿을 발음하기 좋게 만구대탁굿이라고 하는데, 이를 편의상 만대탁이라고도 한다. 이는 만인간과 만 단골의 만 가지 나쁜 구설수와 액을 크게 막는다는 뜻이다. 만구대택굿을 한편에서는 만수대택(萬壽大擇)굿이라고도 한다.

내용 만구대택굿은 의례의 기능과 형식으로 보아 일종의 맞이굿 형태로 전승, 발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굿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당 자신이 모시는 신령을 대접함으로써 무당 자신은 물론이고, 만(萬) 단골의 만 가지(여러 가지) 구설수와 나쁜 액을 크게 막고 가리는 데 있다. 그리고 마을 동민의 건강을 기원하고 대동단결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만구대택굿은 무당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굿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자를 거느린 족보 있는 무당이어야 하고 주위로부터 큰무당이라는 칭호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굿은 황해도 지역의 무당들 중에서도 큰무당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무당 평생에 세 번 하면 많이 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 세 번의 경우는 무당 자신의 회갑 또는 진갑 그리고 칠순과 팔순 같은 통과의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황해도 지방의 무속의례에서 만구대택굿과 함께 대규모 굿으로 치는 대동굿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라면, 만구대택굿은 무당 자신이 주관한다. 무당 자신의 든든한 재력으로 치르는 이 굿은 그 짜임새, 절차, 차림새가 보통 굿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고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굿을 치르기 위해선 제자, 선배, 후배, 동료, 환쟁이, 악사들이 여러 달 전부터 모여서 논의하고 준비에 들어간다.

만구대택굿의 목적은 무당 자신은 물론이고, 굿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 만 단골, 마을 주민들의 구설수를 막고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위함이다. 또 국태민안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크게 축원한다. 그래서 이 굿은 개인굿이면서 동시에 나라굿 형태의 굿이기도 하다.

대규모로 행해지는 만구대택굿은 보통 굿의 12거리의 배수인 24거리로 짜여져 있는데 이 굿을 안팎으로 하게 된다. 24거리의 굿이 모두 끝나면 굿청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매어놓고 또 한 번의 24거리굿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구대택굿의 굿거리 수는 모두 48거리가 되는데 이러한 형식의 굿을 겹굿이라고 한다. 만구대택굿에 필요한 신화(神花)와 신구(神具)는 일반 굿에 비해 특별하게 추가될 뿐만 아니라, 잽이 구성도 쌍장구, 쌍징, 쌍제금(소, 대), 태평소, 쌍피리, 해금, 대금 같은 삼현육각을 갖추고 소요되는 시일도 빨리 끝내면 3일이고 보통 5일, 7일 또는 15일이 걸리기도 한다. 만구대택굿을


1


2


3


7

〈만구대택굿〉
1 일월맞이
2 배치기
3 칠성거리
4 대감거리
5 초부정거리
6 잔내림
7 소대감거리
8 별상마마거리
9 성주거리
10 사실세우기
11 사냥거리
12 타살거리
13 걸립대감거리
14 개돌기
15 떡팔기
16 작두거리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내모리 국립민속박물관


10


11


12


13


4


5


6


8


9


14


15


16

주관하는 경관만신(무당의 왕초 격으로서 만구대택굿을 총괄하는 큰 무당)은 환쟁이(굿에 필요한 꽃과 신구들을 제작하는 장인)를 여러 달 전부터 집에다 깍듯이 모셔놓고 굿에 필요한 꽃, 장식품들을 새롭게 장만한다. 이때 환쟁이가 제작한 꽃과 장식품들은 만구대택굿이 시작되는 첫날 칠성거리에서 경관만신에게 판다.

만구대택굿을 장식하는 신화(神花)들은 다음과 같다. 온 천하를 밝히는 일월성신님의 꽃인 해달꽃[日月花], 백모란으로 만들어진 칠성님의 꽃인 칠성화(七星花), 연꽃으로 만들어져 재생을 의미하는 사해용왕님 꽃인 수팔연화[水波蓮花], 부처님의 꽃인 불도화(佛桃花), 오색 작약으로 만든 감흥신령님 꽃인 감흥화(感應花), 만인간의 시주걸립을 하는 걸립꽃인 걸립화(乞笠花 또는 무동화), 장발화로 만든 삼천병화대장군님 꽃인 삼천병마화(三千兵馬花), 미륵님 꽃인 미륵화(彌勒花), 황색으로 만든 조상님 꽃인 조상화(弔喪花), 상산부군님 꽃인 부군화(府君花), 흰색으로 된 99홉 전발화(奠撥花), 샛별화로 만든 삼불제석님 꽃인 삼태성화(三台星花), 성수님의 꽃인 성수화(成守花), 뿌리 없는 제석님의 꽃인 서리화(雪裡花)가 있다. 이 꽃들을 새롭게 장만하여 굿청을 장식한다.

만구대택굿에 사용되는 기(旗)로는 일월기(日月旗), 신기(身旗), 부군기(府君旗), 제만신기(諸萬神旗), 백호기(白虎旗), 장발영기(長撥令旗), 걸립기(乞笠旗), 몽기, 홀기가 있다. 오색(五色)의 만장발을 굿청 중앙에 높다랗게 깃대를 세워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으로 띄우고 오색 줄에다 십왕개(十王盖), 전전개(錢錢盖), 송송개(送送盖), 보화개(寶貨盖), 인물개(人物盖), 청천개(青天盖), 일월개(日月盖), 청학(青鶴), 백학(白鶴), 청황의 잉어 한 쌍, 일월등(日月燈) 한 쌍, 팔모등(八牟燈) 한 쌍, 만월등(晩月燈) 한 쌍을 매달아 띄운다. 오색의 만장발과 함께 한지에 청홍흑백황의 오색을 물들여 열두 쪽으로 붙여 기다랗게 만든 후, 오방지신에 관한 내용의 글을 쓴 오방장발을 비롯하여 베로 길게 만들어 제석님 전에 복을 비는 글의 내용을 쓴 제석장발, 칠성님 전에 명을 비는 글의 내용을 적은 칠성장발, 기다란 무명천에 상산부군님께 만복을 점지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쓴 상산부군장발, 홍색 천으로 만들어 감흥님 전에 축원을 비는 내용과 모든 재앙재화를 천리만리로 소멸하여 달라는 내용의 글을 쓴 감흥장발, 청색 천에 걸립님 전에 축원을 비는 내용의 글을 쓴 걸립장발, 무지개색으로 된 무지개 장발들을 굿당에 설치한다. 모든 장발에는 시유수시(時維隨時)라 써서 신명 수양자인 만신이 신령님에게 신명을 언제라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다.

굿청 입구에는 잡귀잡신의 침범을 막고 좋지 못한 기운을 걸러내기 위해 솔잎으로 만든 세 개의 솔문(소설문, 중설문, 대설문)을 남향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경관만신이 세경돌이를 할 때 타는 꽃가마를 만든다. 성수님과 선관님이 하강할 때 타고 내려오시는 쌍무지개, 육환대사, 상좌 같은 것들도 만들어 굿청 옆에 세운다.

만구대택굿에 진설되는 음식은 일반적인 굿과는 달리 가지각색으로 갖춘다. 기본적으로 갖추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육고기는 삼타살이라 하여 소, 돼지, 닭을 준비하는데 소는 한 마리, 돼지는 세 마리, 닭은 경관만신 가족 수에 따라 준비한다. 떡으로는 시루에 찐 각 신령님 몫의 시루떡, 인절미, 차절미, 백설기, 팥시루, 녹두시루, 일월떡(해달떡), 별떡, 무지개떡, 흰 반대기, 조반대기, 수수반대기를 준비한다. 삼색 실과로 밤, 감(곶감), 대추를 비롯하여 배, 사과, 수박, 포도, 귤, 참외, 딸기 같은 생실과를 철에 따라 준비한다. 그리고 은행, 잣, 호두 같은 견과류와 옥춘, 팔보 같은 당속류(糖屬類) 그리고 약과, 산자, 박산 같은 조과류(造菓類)를 준비한다. 삼색전으로는 육원전(동그랑땡), 생선전, 녹두전, 육적으로는 소적(두부적), 녹두적, 산적, 육적, 어적(생선적), 봉적(鳳炙), 삼색나물로는 산에서 나는 검정색의 고사리, 들에서 나는 흰색의 도라지, 물에서 나는 초록색의 숙주를 준비한다. 그리고 청주를 준비한다.

만구대택굿은 고(故) 김기백에서 고(故) 우옥주에게로, 거기에서 다시 정학봉에게 로 전승되어 왔다. 만구대택굿의 명인이었던 김기백(1893~1944)은 황해도 신천에서 출생하여 10세부터 옹진에서 무업을 시작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황해도 만신들 사이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명성을 떨쳤던 큰무당이었다. 김기백은 그의 굿문서를 제자 우옥주(1920~1993)에게 전승하였다. 우옥주는 17세부터 황해도 옹진에서

김기백과 함께 무업을 하면서 만구대택굿을 전수받은 후, 6·25 전쟁 때 월남하여 인천, 서울, 이천 지역에서 무업을 하였다. 우옥주는 스승으로부터 익힌 만구대택굿을 현재의 전승자 정학봉(丁鶴鳳)에게 전수하였다. 정학봉은 1931년 황해도 안악군 대행면 풍곡리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무업을 시작하였고, 한국전쟁 때 남하하여 인천을 중심으로 무업을 계속하였다. 우옥주로부터 만구대택굿과 소놀이굿을 학습하였다. 현재 만구대택굿을 전승하고 있는 정학봉의 제자로는 김혜순, 이정자, 강옥희, 김화선, 신오목, 양명덕이 있다.

절차 만구대택굿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저녁 경관만신 집에서 안반고사를 지낸다. 떡을 빚을 때 사용되는 안반(安盤) 위에 인절미, 흰반대기, 조반대기, 수수반대기를 겹겹이 쌓아서 올려놓고 굿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고사문을 외운다. 신령님을 모시고 놀리기 위해 정성으로 굿음식을 준비하여 만구대택굿을 대령하니 잘 받으시고 아무 탈 없이 굿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축원하는 것이다. 이때 아흔아홉 상쇠방울을 흔들어 떡판 위에 쌓아올린 떡을 붙여 방울에 붙어 올라오는 떡의 숫자를 보고 점을 치는데 떡이 홀수로 붙으면 좋은 징조라고 믿는다.

만구대택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관만신을 포함한 모든 참여 무당들과 악사들이 복색을 갖춰 입고 마을을 도는 세경돌이를 한다. 경관만신은 홍색으로 된 상산의대와 백학홍대를 허리에 두르고 머리에는 호수 갓을 쓴 후 꽃가마에 탄다. 행렬의 맨 앞에 잽이들이 서고 그 뒤로 꽃가마가 따른다. 이어서 무당들이 줄을 잇는다. 경관만신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을 세 번 돈다. 세경돌이를 하면서 경관만신이 마을 사람들의 집 앞에 내려 축원덕담을 해 준다. 이때에 마을 사람들은 고사반을 차려낸다. 세경돌이는 마을 사람들을 축원하고 굿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다. 한편, 무당이 꽃가마를 타는 것은 경관만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벼슬을 한 만큼이나 금상자리(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과시하는 뜻도 담고 있다. 세경돌이를 마치면 남향으로 세워둔 세 개의 소솔문, 중솔문, 대솔문을 통과하여 굿청으로 들어간다. 만구대택굿의 제차는 다음과 같다.

① 주당물림: 잡귀나 잡신들이 굿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주당물림이 끝나면 굿청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굿을 시작한다.

② 부정거리: 굿청 주위를 정화하며 굿판에 참가한 모든 단골들은 물론 무당과 참관자들에게 붙어 있는 부정한 것을 물리친다. 쟁반 위에다 물 한 사발, 고춧가루 한 사발 굿청에 진설된 갖가지 음식들을 조금씩 담는다. 오른손에 대신칼을 들고 왼손에 부정쟁반을 들고 부정 청배를 한 후, 쟁반 위의 내용물을 굿청 밖으로 내다버린다.

③ 초감흥거리: 모든 신령을 불러들여 신복과 신구들을 가지고 거풍(擧風)하면서 놀린다.

④ 산천거리: 일명 상산맞이거리 또는 산거리라고도 한다. 맑은 정기를 가진 산천의 신들, 곧 산신들을 굿청으로 모셔오는 거리이다.

⑤ 칠성거리: 무당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명을 축원한다. 칠성님을 모신 후 도령, 천문지리풍수, 부인마마, 팔선녀 같은 것들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특히 이 거리에서는 경관만신이 환쟁이로부터 꽃, 개, 학, 잉어 같은 꽃과 장식품들을 타기도 하다. 또한 칠성거리에서는 요미성수님도 강림한다. 명다래를 가지고 만 단골들의 명복을 비는 명다래춤을 춘다.

⑥ 제석거리(소놀이굿 포함): 제석님 전에 복을 비는 거리로서 칠성복을 입은 채로 이어 하는 거리이다. 제석거리는 만구대택굿이 드는 날(굿이 시작되는 날) 마지막 거리의 말미에 제석거리가 펼쳐지는데, 이때에 소놀이굿을 하게 된다. 경관만신은 소를 몰고 온 마부 그리고 풍물패들과 갖은 재담을 주고받게 된다. 소놀이굿의 마지막에는 모두가 마당으로 나와 풍악에 맞춰 한바탕 논다.

⑦ 소대감거리: 소찬으로 받는 대감, 곧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대감을 소대감이라 한다. 소대감은 대감님과 같이 술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한다. 그리고 복을 주는 기능도 다른 대감님과 같다. 서낭기(소당기)를 가지고 사면춤을 추면서 복을 몰아온다.

⑧ 사냥거리: 만구대택굿에서 신에게 제물로 받칠 소, 돼지, 닭을 사냥하러 상산막둥이와 경관만신이 활, 화살, 삼지창, 월도 따위를 가지고 나간다. 상산막동이는 높고 깊은 산 속에 살면서 신의 부름으로 만신의 만구대택굿판에 온 영험한 소년이다. 그는 산길은 물론 짐승이 있는 곳을 잘 알기 때문에 만신이 사냥을 나갈 때 함께 나가 도와준다. 만신과 상

산막동이는 갖은 익살스러운 재담과 우스꽝스러운 장난을 하면서 사냥길에 나선다.

⑨ 생타살거리: 사냥거리에서 잡은 소, 돼지, 닭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생타살을 한다. 무당은 짐승들을 타살하여 피를 먹는다. 이때 신에게 제물로 올리는 육찬들을 삼지창에 꽂아 사실을 세운다. 사실이 잘 세워지면 신이 흔쾌히 받았다고 믿는다.

⑩ 군웅거리: 생타살거리에서 잡은 육고기들과 피를 가지고 군웅을 푼다. 군웅은 원한이 맺혀 죽은 신들을 말한다.

⑪ 익은타살거리: 생타살된 육고기를 삶아서 신에게 바치는 거리이다.

⑫ 성주거리: 경관만신집의 성주신을 위하고 놀리며 동시에 참석자 그리고 만 단골들 집의 성주신들도 불러들여 놀린다.

⑬ 잔내림거리: 잔에 술을 부어 쟁반에 올려놓고 축원한다. 술잔을 신에게 올리면서 무당 자신의 가족과 모든 참석자와 만 단골들을 축원한다.

⑭ 영전거리: 새로 사들인 집안의 모든 물건에 묻어 있는 잡귀, 잡신들을 내쫓는다.

⑮ 대감거리: 대감님들을 불러 대접하고 놀린 후 재복을 달라고 한다.

⑯ 서낭거리: 마을 일대를 수호하는 서낭신을 불러들여 대접하고 흥겹게 놀린다.

⑰ 말명거리: 무당으로 불리다 죽은 후 다른 무당에 의해 신령님으로 모셔질 때 그 신을 말명신이라 한다. 그러므로 말명신은 무당들의 조상격인 셈이다. 말명거리의 주기능은 무당신(말명신)을 대접하고 놀리어 무당의 신명을 극대화함에 있다. 말명신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고 자손을 점지해주기도 한다.

⑱ 조상거리: 경관만신의 조상들을 불러들여 위로하고 후손들의 축복을 빈다.

⑲ 신장거리: 여러 신장님들을 모셔 위하고 놀린다.

⑳ 성수거리: 성수님을 모셔 위하고 놀린다.

㉑ 장군거리: 일명 작두거리라고도 한다. 장군복을 입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오방기를 뽑게 한다. 작두를 타는 이유는 장군님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며 모든 액을 작두날로 눌러 없애기 위함이다.

㉒ 광대거리: 광대신과 창부신을 불러들여 위하고 놀린다. 이때 가면을 쓰고 탈춤을 추기도 하며 줄타기를 하기도 한다.

㉓ 터주상영거리: 터주지신거리 또는 터주살량거리라고도 한다. 굿을 끝내기 전에, 마당에 나가서 징을 치면서 하는데 이때 터주상을 따로 마련한다. 집과 마을 그리고 나라 땅의 터주신을 위하는 거리이다.

㉔ 마당거리: 일명 뒷전 또는 뒤풀이라고도 하는데 굿청 앞마당에서 한다. 굿청으로 들어오지 못한 모든 잡귀잡신들을 먹이고 놀려 보낸다. 마당거리가 모두 끝나면 무당과 참관자 모두가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며 논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三國志,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柳東植, 延世大學校出版部, 1975), 韓國巫俗論(崔吉城, 螢雪出版社, 1981), 한국의 무속 -서울·황해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의 굿(하효길 외, 民俗苑, 2002).
필자 | 양종승(梁鍾承)

만수대택굿(萬壽大擇-)

⇨ 만구대택굿(萬口大擇-): 봄편

방생재(放生齋)

정의 자비와 선(善)을 베풀기 위해 살아있는 물고기나 새 또는 짐승 따위를 못이나 산에 놓아주는 불교의식 또는 무속 의식. 방생(放生)은 살생(殺生)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살생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행(善行)이고, 방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 방생은 이미 포획되어 죽음을 눈앞에 둔 물고기나 새 또는 짐승 따위를 살려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유래 『불조통기(佛祖統紀)』에는 『금광명경(金光明經)』을 인용하여 "유수장자(流水長子)가 물고기 만 마리를 구제함으로 천자(天子)가 덕을 갚았다 하니 방생의 근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에 천태지자(天台智者)가 고기 잡는 기구를 모두 없앴으며,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금하고 이를 불교법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방생은 원래 덕을 갚기 위한 불교 의식으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무속 집단에 의해 기복적 행위의 수단으로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내용 사찰에서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불교도들이 방생을 하기 위해 방생계(放生契)를 조직하여 집단



방생재
경기도 양평군 양근나루 황헌만

적인 방생회(放生會)를 열고 있다. 방생재를 하는 시기는 원래 음력으로 3월 3일이나 8월 보름이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일정하지 않다. 방생은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못이나 강, 바다 또는 산이나 들에서 하는데, 이러한 곳을 방생지라 하고 이 곳은 주로 기도처나 신성한 곳이다. 무속 신앙에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방생을 하는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주로 영적 존재가 강림하여 있다고 믿는 강, 바다, 산, 들에서 한다.

참고문헌 | 佛祖統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양종승(梁鍾承)

벗고사(-告祀)

정의 소금을 굽기 위해 가마에 처음 불을 지필 때 소금가마의 움막인 염벗의 소유주인 벗주가 일꾼과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소금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 벗고사는 지역에 따라서 소금고사, 가마제사 따위로 부르며, 고사의 내용이나 형식, 고사를 지내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반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소금을 구워서 생산하였다. 이를 자염(煮鹽) 또는 화염(花鹽)이라고 한다. 곧, 밀물에도 갯벌이 많이 잠기지 않는 조금 때 5~6일 동안 개흙을 갈아엎어서 햇볕에 말려 흙 속에 염분이 많이 포함되도록 한 뒤, 그 흙을 넓게 편 후에 바닷물을 투과시켜서 염도가 높은 함수(鹹水)를 얻는다. 그리고 이를 굴껍질 또는 쇠로 만든 가마에 부은 후에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따라서 함수를 얻으려면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기운이 돌아야 가능하였다. 매년 일정하지는 않지만 첫 소금은 음력 3월에 생산했는데, 태안 지역에서는 3월 8일 전후에 "첫 가마를 때었다."라고 한다. 그 이전에 벗주는 소금가마를 포함하여 염벗을 보수하고, 염한이는 함수를 모으는 간통[鹽井]을 보수한다.

소금가마는 짚으로 엮은 움막에 설치하는데, 충청도에서는 이를 염벗이라고 하였다. 염벗의 소유주를 벗주라 하는데, 직접 함수를 생산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보통 갯벌을 갈아엎는 일을 맡은 염한이[鹽漢]와 함수의 염도를 측정하는 간쟁이 같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경영하였으며, 염한이와 간쟁이에게 생산한 함수를 끓여주는 대가로 일정량을 배분해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처럼 벗주는 대부분 마을의 부유층이었으며, 소금을 굽는 순번 또한 머슴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순번을 정하는 일을 맡은 머슴을 태안 지역에서는 물부시라고 하였다. 1950년대까지도 농우(農牛)가 흔치 않아 갯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소를 빌리기가 어려웠고, 5~6일간 소를 빌린 경우에는 장정 3인의 몫으로 계산하여 품앗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내용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의 벗고사 제상에는 대체로 술, 떡(백설기), 포(명태), 돼지머리(또는 통돼지), 삼색실과(밤, 대추, 배, 곶감), 청수가 오른다. 그러나 제물의 양과 종류는 벗주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벗주가 첫 잔을 올리고, 물부시가 아헌, 일꾼 중의 한 사람이 종헌을 맡는다. 유교식 제례로 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는 축문을 읽는 경우도 있다. 주민 중의 한 사람이 덕담을 하기도 하고, 벗주의 경제력이 괜찮으면 경쟁이를 불러 용왕경을 읽기도 한다. 이 일대에서는 정월 이후 벗고사를 지내는 3월까지, 특히 각 가정에서 고사를 많이 지내는 정월에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구불식(正狗不食)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한편 마금리에서는 1950년 처음으로 천일염전이 조성되었는데, 천일염전에서 첫 소금을 내었을 때에는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크게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벗고사와 따로 염한이가 함수(鹹水)를 모으는 간통에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통고사 또는 우물고사라 하였다. 뱃일을 하는 주민들은 도


1


2

1 벗고사
2 염벗 앞에 진설된 제상
충남 태안군 태안문화원

깨비를 모시기도 했는데, 그 주민들이 소금일을 하는 경우에는 간통에서 범벅고사를 올리기도 했다. 범벅고사는 수수 또는 보리쌀로 범벅을 만들어 "물윗 참봉, 물 아래 참봉, 먹는 음식이라도 수저를 놓고 비나이다……." 하고 외면서 범벅 조각을 사방으로 흩뿌렸다고 한다.

지역사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서도 그 해 처음으로 소금을 구울 때 벗고사를 지냈다. 음력 2월과 3월 사이에 벗임자(화주)가 술과 떡 같은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고사를 지내고 고사에 참석한 동민들과 나누어 먹는다. 화주가 먼저 절을 하고 다음으로 간쟁이가 한다. "산신, 지신, 물아래참봉(도깨비), 물위참봉(도깨비) 소금 좀 많이 나게 점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비손하고 절한 후 음식을 떼어 사방에 뿌린다. 고남면 장곡리 3구 양지뜸에서는 양력 3월경(음력 2월경)에 소금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시루떡을 하고 돼지머리와 삼색실과를 준비해 염전에 가져다놓고 "우리 소금 잘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절을 하고, 고사가 끝나면 떡을 조금씩 떼어서 '짠물 보관하는 굴' 지붕 아래쪽에 한 접시씩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석천리 낭개마을에서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음력 3월부터 8월 사이에 소금을 구웠는데, 소금철이 시작되면 간통에서 고사를 지냈다.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沙銅里)에서는 가마를 걸 때 가마제사라 하여 술, 떡, 밥, 생선, 삼색실과를 놓고 가마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참고문헌 | 어촌 민속지(경기도·충남남도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6), 기성면 기성리 답사 보고서(민속학연구4,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1998),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석민(吳碩珉)

선잠제(先蠶祭)

정의 인간에게 처음으로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던 서릉씨(西陵氏)를 치제(致祭)하고, 제사 후에 왕비가 채상(採桑)의 모범을 보이는 국가의례. 제사의 시기는 계춘(季春: 음력 3월)의 길사(吉巳: 길한 사일)이다. 선잠제는 왕이 선농단에서 제사한 후 적전(籍田)에서 농사지어 제수(祭需)를 마련하면, 왕비가 선잠단(先蠶壇)에서 제사한 후 북교(北郊)에서 누에를 쳐 제복(祭服)을 만든다는 이념 아래 설정되었다.

유래 선잠제와 관련된 채상의 기록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에 보여, 그 기원이 중국의 주대(周代) 이전임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선잠제가 유교적인 국가 제사로 제도화된 것은 한대(漢代)이며, 당대(唐代) 이후 사전(祀典)에 중사(中祀)로 규정되었다. 선잠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대에는 선잠제의 기록이 없고, 고려시대에는 『고려사(高麗史)』 권62 「예지(禮志)」4 길례중사(吉禮中祀) 선잠조(先蠶條)에 그 제향 절차가 수록되었지만, 연대기 기사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위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선잠단의 크기는 사방 2장, 높이 5척이고, 폐백은 흑색(黑色)이며, 희생은 돼지 한 마리이다. 헌관은 정3품인 태상경(太常**卿**) 이하가 담당하였다. 그렇지만 선잠제와 관련된 왕후의 채상과 잠실(蠶**室**)의 기록이 없어 당시 왕비의 친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선잠제의 내용은 조선시대에 더 강화되었다. 태종대 중반까지는 고려의 체제를 바탕으로 했지만, 같은 왕 후반기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 양유(兩**壝**)로 제단이 마련되었고, 헌관(獻官)은 정1품관으로, 희생은 양, 돼지 각 한 마리로 바꾸어 제의(祭儀)의 내용을 새롭게 하였다. 이 규정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재되었다.

조선에서는 고려와 달리 채상단(採桑壇)에서 왕비가 친잠례(親蠶禮)를 거행하였다. 친잠례는 성종 8년(1477) 3월 임오일에 왕비가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채상단에 나가 행한 것이 최초였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잠의(親蠶儀)가 완성되었고, 후원(後苑)에 사방 3장, 높이 5척 4촌의 채상단과 잠실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선잠단은 북교(北郊)에, 채상단은 후원에 있어 왕비의 친제가 어렵다 하여 제사는 관

리가, 왕비는 친잠(親蠶)을 하도록 조처하였다. 이후 이에 근거하여 친잠례가 시행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모두 8차례의 사례가 보인다.

내용 선잠제는 북교의 선잠단에서 정1품의 초헌관이 주관하는 제사와 후원의 채상단에서 왕비가 주관하는 친잠례의 2단계로 구성되는데, 『국조오례의』에서는 앞엣것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잠제는 5일간의 재계(齋戒)와 2일간의 제수 진설(陳設), 전날의 희생 검사와 향축(香祝) 전달 같은 준비 단계를 거쳐 제사 당일 헌관이 제단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의식은 전폐(奠幣)와 작헌(酌獻), 송신(送神)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전폐는 서릉씨에게 초헌관이 향을 세 번 올리고 폐백을 드린 후 절을 하는 과정이다. 작헌에서는 초헌관이 먼저 서릉씨에게 술잔을 올리고 엎드린 후 축문을 읽고 절을 하는 초헌례가 진행되고, 이어 아헌례와 종헌례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축문은 읽지 않는다. 헌례가 끝나면 음복(飮福), 수조(受胙)를 하고 제기를 거둔다. 이후 제수를 구덩이에 파묻고 헌관 이하가 퇴장한다.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 왕비가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궁을 나와 후원의 채상단에서 친잠례를 행하였다. 이때 왕비는 채상단에서 뽕잎 5가지를 따고, 이후 내외명부 1품은 7가지, 내외명부 2품과 3품은 9가지를 차례대로 딴다. 채상을 마치면 왕비는 궁으로 돌아가고, 내외명부가 잠실에서 뽕잎을 누에에게 뿌리면 의식이 마무리된다.

의의 고대 이래 의식(衣食)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사회 유지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권농상(勸農桑)은 일찍부터 전근대 국가의 농업 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국가에서는 의복의 원료이자 화폐로 사용되던 직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재정의 확보와 민생의 안정을 꾀하고자 정책적으로 양잠을 권장하였고, 민간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업으로 양잠을 주목했다. 이러한 현실적 농정(農政)과 연결된 선잠제는 고려 때 국가의 사전(祀典)에 등재되었지만, 현재 제사 의식만 기록에 남아 있을 뿐 친잠례의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국왕의 친경(親耕)과 더불어 왕비의 육잠(育蠶)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원들이 대행하는 선잠제와는 별도로 왕비가 주관하는 친잠례가 채상단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는 국왕 이하 남성들이 주관했지만, 선잠제는 유일하게 여성이 주체가 되었던 의식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朝鮮王朝實錄, 春官通考, 韓國中世禮思想硏究(李範稷, 一潮閣, 1991), 朝鮮初期 祀典에 관한 硏究(金海榮,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博士學位論文, 1994), 朝鮮初期 中祀祭禮의 정비와 그 운영(韓亨周, 震檀學報89, 震檀學會, 2000), 朝鮮前期 養蠶業硏究(南美惠,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高麗前期 重農理念과 農耕儀禮(韓政洙,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 한형주(韓亨周)



선잠제(봉축)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선잠단
국립민속박물관


1


2


3


7

〈선잠제〉
1 관세례
2 점촉
3 개독
4 천조례
5 분향
6 전폐례
7 초헌례
8 독축
9 아헌례
10 종헌례
11 음복례
12 철변두
13 폐독
14 망료례
15 예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선잠단 국립민속박물관


10


11


12


4


5


6


8


9


13


14


15

숭선전제례(崇善殿祭禮)

정의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숭선전(崇善殿)에 봉안한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과 허씨왕후(許氏王后)에게 올리는 제례.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도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숭선전은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2번지에 있는 전각으로 우리나라 팔전(八殿)의 하나로 꼽힌다. 이곳에는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과 그 왕후인 허씨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다. 서기 199년(己卯) 수로왕 승하 후, 그 후손들은 물론 조정에서도 숭선전을 시조묘(始祖墓)로 인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매년 춘추(春秋)에 부중(府中)의 부노(夫老)들이 모여 수로왕과 왕후의 제사를 모신다."라고 하였다. 정조 16년(1792)에는 '가락국 시조왕릉 춘추시향의절(駕洛國始祖王陵春秋時享儀節)'을 상정하는 전교가 내려, 축문을 국왕의 이름으로 고하게 되었다. 현재는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에 경남지사의 초헌(初獻)으로 대제(大祭)를 지내는데, 후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제를 올리고 있다.

내용 제의에 필요한 여러 사항은 15일 전부터 준비한다. 먼저 15일 전에 제관을 선정하고, 10일 전에 제주를 담고 제복을 점검한다. 7일 전에 제물을 구입하되 값을 깎지 않으며, 희생에 쓸 돼지를 예약한다. 5일 전에 제기를 손보며, 3일 전에는 구내외 대청소를 하고, 하루 전인 14일 15시에는 납릉(納陵) 앞뜰에서 희생을 바치는 성생(省牲)의 예를 행한다.

제례는 15일 아침 8시부터 숭선전 입구에서 접수[時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든 제관이 모여 초헌관을 선두로 숭선전으로 간다. 창홀(昌笏)에 따라 진설, 진설점검, 개함(開函), 착복(着服)하고 나서 각 제관들이 제 위치를 잡는다. 알자(謁者)가 초헌관에게 행사 개시를 청한다. 헌관 이하 학생과 제관들이 사배(四拜)한다. 다음은 전폐례(奠幣禮)로서 초헌관이 대왕과 왕후 신위 앞에 삼상향(三上香)하고 폐백을 올린다. 이어서 초헌례(初獻禮)로 대왕 신위에 헌작(獻爵)한 다음, 왕후 신위에도 올린다. 독축(讀祝),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로 진행된다. 초헌관이 음복례를 마치면 헌관이 모두 사배한다. 대축이 변(籩)과 두(豆)를 하나씩 그 위치를 약간 옮겨놓은 후 일동 사배한다. 초헌관이 망료위(望燎位)에 가서 축과 폐백을 태우면 예필(禮畢)하고 퇴장한다.

의의 숭선전의 춘추대제는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과 허씨를 모시는 제례로 시작되었으나, 그 전승과정에서 특정 집안만의 제례를 넘어 김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의 공동 제례가 되었다. 숭선전제례는 현재 조상숭배 사상과 경로사상을 통해 지역민의 화합과 아울러 애향심 함양의 계기가 되고 있다. 기능보유자 김병수 씨가 기능 전수에 힘쓰고 있다.

참고문헌 | 慶南文化財大觀(慶尙南道, 1995), 경남무형문화재(김열규 편, 경남은행, 1997), 崇善殿誌(姜鍾薰 譯, 崇善殿, 1999).

필자 | 박성석(朴性錫)



제관입장
경남 김해시 서상동 국립민속박물관


1


2


3

〈숭선전제례〉
1 참례자 재배
2 관세례
3 분향
4 전폐례
5 초헌례
6 독축
7 전작
8 종헌례
9 음복례
10 망료례
11 제관 퇴장
경남 김해시 서상동 국립민속박물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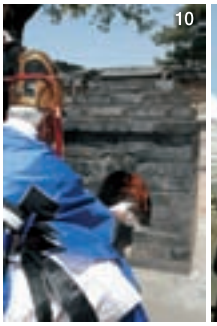

5


6


7


8


9


10


11

영해별신굿놀이(寧海別神-)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청으로 세습무(世襲巫)들이 주재하는 마을굿. 굿을 하는 날짜와 기간, 굿의 주기(週期)는 대체로 마을마다 정해져 있다. 영해별신굿놀이는 1980년 12월 30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되었으며, 보유자는 세습무인 송동숙(宋東淑)이다. 근래에는 별신굿놀이를 풍어제(豊漁祭)라고 하기도 한다. 풍어제는 마을굿인 별신굿놀이의 목적이 농촌에서는 풍농이지만 어촌에서는 풍어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며, 굿이 미신이라는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내용 동해안 지역에서 전승되는 마을굿인 별신굿놀이는 전승 지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남해안이나 서해안 지역에 비해 지금도 강한 전승력을 지니고 있다. 동해안 지역 별신굿놀이는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 전 지역에서 전승된다. 1978년의 조사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에는 78개 마을에서 별신굿놀이가 전승되고 있으며,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서는 사진1동(바래내미), 사진2동(시너리), 사진3동(말바리)에서 음력 3월에 행해졌다. 이처럼 동해안 지역에서 마을굿의 전승력이 강한 이유는 남해안이나 서해안보다 바다가 더 거칠어 어로 작업이 항상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는 해마다 별신굿놀이를 하는 마을이 많았으나 요즈음에는 3년, 5년, 10년 주기로 하는 마을이 많다. 3년 만에 하는 별신굿놀이는 만 2년 만에 하는 굿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3년 도리굿 또는 3년 두리굿이라고 부른다.

별신굿놀이는 개인이 아닌 마을 단위의 굿이며, 강신무(降神巫)나 독경무(讀經巫)가 아닌 세습무가 거행하는 굿으로 주술성보다는 오락성이 강한 굿이다. 오락성이 강한 굿이기는 하지만 별신굿을 주재하는 무당은 주술적 의미를 강조한다.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술적 의미는 풍어(豊漁)이며, 그 외에 안과태평(安過太平), 부귀공명(富貴功名), 재수소망(財數所望), 소원성취(所願成就), 사고방지(事故防止)를 빈다. 굿거리에 따라 특별한 주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천왕굿은 관가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며, 심청굿은 눈병이 들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물론 동일한 굿거리도 연행하는 무당마다 서로 다른 주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별신굿놀이를 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5일에서 7일 전에 제주(祭主)를 선정하고 굿당 주변에는 금줄을 친다. 제주는 별신굿이 끝날 때까지 매일 찬물에 목욕을 하고 궂은 일은 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금기를 지킨다. 별신굿놀이를 시작하는 날 마을을 지키는 골매기신을 당에서 대나무로 내려 굿이 연행되는 곳으로 모시고 와서 본격적인 굿을 시작한다. 동해안 지역의 골매기신은 이씨할배, 김씨할매 같은 마을의 입향 시조가 골매기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신굿놀이가 끝나면 골매기신은 다시 당으로 모셔진다.

영해별신굿놀이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부정굿, 골매기청좌굿, 당맞이굿, 화해굿, 세존굿, 조상굿, 성주굿, 장군굿, 천왕굿, 심청굿, 놋동이굿, 손님굿, 계면굿, 용왕굿, 탈굿, 거리굿으로 이루어지며, 이 순서는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생략되기도 한다. 동일한 세습무가 주관하는 별신굿놀이라도 마을에 따라 굿거리의 구성이나 순서가 다르기도 하다. 이를테면 영해별신굿놀이를 담당하는 송동숙 무가계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2리에서 1995년에 한 굿거리는 부정굿, 청좌굿, 당맞이굿, 화해굿, 세존굿, 도둑잡이, 조상굿, 성주굿, 산신굿, 지신굿, 심청굿, 천왕굿, 원님놀이, 장수굿, 손님굿, 용왕굿, 탈굿, 제면굿, 꽃노래, 뱃노래, 등노래, 내림굿, 상제반, 대거리이다.

의의 동해안 지역에서 전승되는 별신굿놀이는 종합예술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지역 문화 자산이다. 지금도 영해별신굿놀이가 열리면 인근 마을의 거의 모든 노인들이 모여서 굿을 즐기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참고문헌 | 韓國巫俗의 硏究(崔吉城, 亞細亞文化社, 1978), 無形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慶尙北道, 1981), 東海岸巫歌(崔正如·徐大錫 編著, 螢雪出版社, 1982), 동해안 별신굿(李均玉, 박이정, 1998),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李均玉, 박이정, 1998), 한국의 굿(하효길 외, 民俗苑, 2002).

필자 | 이균옥(李均玉)


1


2


3


4


5


6


7


8


9


10


11

〈영해별신굿놀이〉
1 제관에 의한 마을 동제 2 대잡이 3 청좌굿 4 세존굿 5 원님놀이 6 탈굿 7 탈굿 8 탈굿 9 놋동이굿
10 대잡이굿 11 소제 경북 영덕군 영해면 김상수

조기심리

정의 한식 무렵 조기를 사서 선영에 올리는 의례. 조기심리의 어원은 새 조기를 조상에게 맛보게 한다는 의미에 비추어볼 때 조기신미(新味)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에 따라 조기심니라고 하는 곳도 있으며, 조기의 방언인 조구라는 말을 써서 조구심리, 조구심니라고 하는 곳도 있다.

내용 그 해 처음으로 잡힌 조기가 판매될 즈음에 시장에서 생조기를 사다가 고사리를 넣어 지지고 밥과 나물을 준비해 선영에 바친 후, 집안 어르신을 모셔다 조기 맛을 보게 해드리는 것이 조기심리이다. 조기심리를 할 때에는 조기뿐만 아니라 밥과 반찬을 함께 마련하여 성주 앞에 올린다. 조기심리는 명절 차례처럼 격식을 갖춘 의례는 아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조기심리를 한 후에야 조기를 먹을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심리하기 전에는 남의 집에 가서도 조기를 먹지 않았으며, 이웃에서 선물로 주어도 바로 먹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사례 조기심리는 조기의 주요 생산지인 전라도 서해안에서 주로 전승되었으며, 전남 목포로부터 전북 군산 일대까지 널리 전승되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잡은 고기 중 가장 좋은 것 한 마리를 골라서 조상에게 올리거나 뱃고사의 제물로 드린다. 전북 무안군 운남에서는 찌지 않은 생조기를 시루에 담아 올리는데 일년에 두세 번 심리를 하며, 정성이 지극한 이들은 어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심리를 하기도 한다. 한편 농사를 주로 짓는 집에서는 첫 모를 심는 날에 밥을 담아서 조상에게 올리고 조기심리를 대신한다. 반대로 조기심리를 하게 되면 첫모 심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서는 세 차례 심리(심니) 중의 하나로 조기심리를 한다. 조구심리 외에 외심리는 여름에 참외가 나오면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며, 올벼심리는 첫 나락을 베어서 조상에게 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의의 조기심리는 어업 생산과 관련 있는 의례로서 추석 무렵의 올벼심리와 대비된다. 해양 관련 민속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의례지만, 수확기에 주요 생산물을 조상에게 바치는 천신이라는 점에서 올벼심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조기의 주생산지인 전라도 서해안 지역이 전승지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역성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 시기가 모심기철과 비슷하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농경의례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 조구심리를 행하는 마을(문화관광부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1998), 韓國의 歲時風俗 II-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경엽(李京燁)

차귀당제(遮歸堂祭)

정의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차귀당에서 베풀어진 제의. 조선시대에는 봄과 가을에 남녀가 모여 신에게 제사 지냈다. 차귀당은 오늘의 고산본향당으로 짐작된다.

유래 기록에 따르면 차귀당을 비롯한 대정현 관내의 신당은 이형상 제주목사 이전에 한 차례 혁파를 겪었다. 이러한 사실은 『인조실록(仁祖實錄)』 인조 3년(1625) 3월 3일 신해조(辛亥條)에 "대정현의 심방에 대한 세포(稅布)를 견감(蠲減)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인 김효의(金孝義)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또 대정에 있는 신사(神祠)는 혁파한 지가 이미 오랜데 심방에게 세포(稅布)라고 일컫는 것을 해마다 징봉(徵捧)하니 백성들이 거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호조가 청하여 그들의 소원에 따르도록 한 까닭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라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와중에도 차귀당은 사묘(祠廟)로 지정될 정도로 대표성이 있는 당이었기에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주목되는 바는 차귀당은 사신(蛇神)을 모시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대정현의 사묘 또는 성황사(城隍祠)로 제향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본래부터 한라산신을 모시던 광양당이나 내왓당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마땅하다. 결국 광양당이나 내왓당이 한라산신을 모시는 당이어서 사묘로 인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차귀당의 예로 보아 전래의 무속 신당이 그대로 사묘로도 인정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제주도의 기층 신앙이 공고하게 유지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양상은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신당을 철폐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형상 목사가 제주 지역의 신당을 철폐할 당시 차귀당도 함께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차귀당제도 지속되지 못하였다. 민간에서는 소규모로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다시는 이전과 같은 규모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귀당제에 대한 기록은 제주도의 기층 신앙이 얼마나 공고하게 유지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절도(絶島)였던 까닭에 토착 신앙이 늦은 시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조차 쉽사리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면에서 이형상은 매우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차귀당제는 전승되지 않는다. 차귀당은 고산본향당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한 비념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내용 차귀당제는 본래부터 당굿 형태로 지냈다. 해마다 정해진 날 신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심방이 제의를 집행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봄과 가을에 남녀가 신당에 모여 신에게 주육을 바치고 제사를 하니(於春秋 男女群聚 具酒肉祭神) 그 무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簫鼓不絶)."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차귀당이 사묘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사묘조(祠廟條)를 통하여 그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에는 각각 사직단(社稷壇), 문묘(文廟), 성황사(城隍祠), 여단(**厲壇**)이 있었다. 제주목에는 이밖에 광양당(廣壤堂), 차귀사(遮歸祠), 천외사(川外祠), 초춘사(楚春祠)가 있었다. 이 가운데 차귀사는 대정현 소속의 사묘였다. 차귀사는 곧 차귀당이다. 차귀당을 성황사로 삼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로 보아 차귀당은 대정현을 대표하는 무속 신당이었는데, 그 대표성을 인정받아 사묘로도 지정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묘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철저하게 관 주도 아래 유교식으로만 제사를 지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참고문헌 | 南槎錄, 新增東國輿地勝覽, 仁祖實錄, 南國의 巫歌-濟州道巫歌 全集-(秦聖麒, 濟州民俗叢書4, 濟州民俗文化硏究所, 1960).

필자 | 강정식(姜晶植)

철물이굿

정의 황해도 지역에서 경사스러운 일을 위하여 행하는 굿. 서울 지역의 재수굿과 성격이 같다. 철물이의 뜻에 대해서는 무당마다 뜻풀이가 조금 달라 '철을 따라 사람들이 무리 지어 온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철이(해가) 바뀌어 나쁜 것을 물린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해가 바뀌어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철물이굿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굿이고, 다른 하나는 무당 자신의 경사를 위하여 하는 굿이다. 개인을 위한 철물이굿은 정월에 마을 대동굿을 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대개 이월과 삼월에 많이 하며, 봄가을로 한다. 무당을 위하여 하는 철물이굿은 서울 지역 무당의 진적과 성격이 비슷하여 꽃맞이굿, 햇곡맞이굿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및 특징 철물이굿은 황해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굿이었다. 지금도 월남한 황해도 무속인들이 경사굿의 하나로 행해서 비교적 손쉽게 관찰할 수 있다. 다만 황해도 지역에서 행하던 이전의 굿에 비해 여러 구체적인 절차를 생략해 간략해졌다. 특히 지금은 일반인들의 집에서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건립된 일반 굿당에서 하기 때문에 굿하는 날짜를 정하고 음식을 준비한 후, 안반고사를 올리는 사전 준비 절차가 생략되기 일쑤이다. 당을 매고 맞이를 띄워 굿을 하는 장소를 꾸미는 것도 지금은 개인 굿당의 사정에 따라 모두 준비해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격식을 갖추지는 않고 있다.

철물이굿은 굿을 주재하는 무당에 따라, 또 무당의 계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황해도굿의 일반적인 제차에 따라 진행한다. 황해도굿은 무당의 말에 따르면 "옹진굿과 연백굿, 해주굿이 달랐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적인 편차가 있어 정형화된 굿거리 순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 서해안 배연신굿 기능보유자인 김금화에 따르면 철물이굿은 신청울림, 일월성신맞이, 칠성맞이, 세인굿, 상산부군맞이, 초부정 초감흥굿, 복잔내림, 영정물림, 제석굿, 소놀음굿, 성주굿, 소대감놀이, 도산말명 방아찜굿, 사냥


1


2


3


4


9


10


11


12


14


15


16


5


6


7


8


13

〈철물이굿〉
1 신화(神花)제작
2 굿당 준비
3 솔문 달기
4 신청울림
5 상산맞이
6 초감흥거리
7 칠성거리
8 소놀음굿
9 작두거리
10 사냥거리
11 사슬세우기
12 말명거리
13 서낭거리
14 타살거리
15 대감거리
16 마당거리

국립문화재연구소

굿, 성수거리, 별상거리, 타살굿, 군웅굿, 먼산장군거리, 대감놀이, 서낭굿, 조상굿, 걸립대감놀이, 작두거리, 마당굿 하여 모두 25거리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며, 매우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한 굿거리를 가진 철물이굿은 현재 보기 쉽지 않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황해도 무당들이 진행하는 철물이굿은 주당물림, 부정거리, 초감흥거리, 산천거리, 칠성 제석거리, 소대감거리, 군웅거리, 타살거리, 영정거리, 대감거리, 서낭 말명거리, 조상거리, 성수거리, 장군거리, 마당거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굿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당을 물리고 부정거리에서 굿 주변을 정화한 후, 초감흥거리에서 여러 신령들을 불러들인다. 불러들인 신령을 순서에 맞게 모시는데 정기의 원천인 산신, 수명을 담당하는 칠성신, 복을 나누어주며 소찬을 좋아하는 대감신을 불러 모신다. 다음으로 억울하게 죽은 군웅을 풀고 고기를 익혀 신에게 바치는 타살거리를 진행한다. 죽은 영혼들을 풀어주는 영정거리 후 복을 나누어주는 대감님을 놀리고 서낭신과 말명신을 대접한다. 여러 조상을 불러 모신 후 무당의 몸주신인 성수신을 놀리고 나서 작두를 타 모든 액을 물리고 마당에서 급이 낮은 신들을 물린다. 이러한 짜임은 같은 강신무권인 서울굿과도 매우 흡사하다.

황해도 무속 음악의 보편적 현상처럼 장구와 징, 제금을 기본으로 하는 악기 연주에 맞추어 무당은 만세받이 무가를 부른 후 다양한 춤사위로 신을 모시고 놀린 후 공수를 듣는다. 일반 사람들은 이때 무당의 공수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수 소망을 기원하고 액을 미리 막기를 간절히 바란다.

변천 및 현황 현재 철물이굿은 굿당에서 주로 거행되며, 정해진 굿거리를 지키기보다는 굿을 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다. 예술성이 풍부한 거리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연행할 수 있는 무당의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고, 공수 중심의 굿을 원하는 재가집의 사정과도 맞물려 그러하다. 비교적 빈번하게 행해지고는 있지만, 격식을 갖춘 굿이 아닌 재가집의 소망을 들어주는 일회성 행사 중심의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 철물이굿의 주요 절차였던 소놀음굿은 보기가 쉽지 않으며, 연행 시간도 점차 짧아져 앞으로는 불과 네댓 시간 만에 공수만 주고 마는 철물이굿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의의 철물이굿은 굿의 기본 목적인 소망을 이루어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굿이다. 굿의 처음부터 끝까지 굿을 의뢰한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굿을 의뢰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 뿐 아니라, 한 해 동안의 모든 액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충전할 수 있다. 가족 하나하나의 운수를 짚어주며 미리 예방책을 일러주기 때문에 굿을 하는 소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아직도 황해도 무속 중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이다.

규모가 큰 철물이굿은 사흘 동안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 굿에서 연행되는 소놀음굿은 매우 중요한 연희적인 의의가 있다. 칠성거리 다음에 연행되는 제석거리에서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지는 것이 소놀음굿이다. 풍농을 기원하는 소놀음굿은 연희적인 재담이 풍부하여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현재는 평산소놀음굿이 중요무형문화재 90호로 지정되어 있다. 평산소놀음굿은 양주소놀이굿과의 연계성이 있어 경기 북부와 황해도 지역의 연희상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이러한 연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철물이굿의 의의가 한층 더하다.

참고문헌 |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황해도 굿(양종승, 한국의 굿, 民俗苑, 2001), 황해도 만구대탁굿 무가 채록(홍태한, 한국음악33, 국립국악원, 2002), 서경욱 신명기 대담 황해도 무속 자료집(홍태한, 미간행, 2005).

필자 | 홍태한(洪泰漢)

칠사(七祀)

정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서례(序例) 길례(吉禮) 변사(辨祀) 안에서 소사(小祀)로 사전(祀典)에 편제된 국가 제사 중 하나. 이는 중국 고대 주대(周代)부터 있었던 제례로서 사명(司命), 중류(中霤), 국문(國門), 국행(國行), 태려(泰厲), 호(戶), 조(竈)에 대한 제사를 말한다. 봄에 사명(司命)과 호(戶)에 제사 지내고, 여름에 조(竈)에 제사 지내고, 가을에 국문(國門)과 태려(泰厲)에 제사 지내고, 겨울에 국행(國行)에 제사 지내고, 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

日)에는 별도로 중류(中霤)에 제사 지낸다. 협사(祫祀)의 제향과 납일(臘日)의 제향에는 두루 제사 지내고 있다.

유래 왕이 군성(群姓)을 위하여 칠사를 세웠는데, 『예기(禮記)』 제법(祭法)의 주(註)를 보면 칠사는 백성을 위하여 세워 무리들과 함께 모시었으며, 사시(四時)에 상사(常祀)하고 군성도사(群姓禱祀)하게 되자, 그 세운 자와 왕이 스스로 도제(禱祭)하여 마땅한 하나의 신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여 따로따로 달리 칠사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의 주에 "사명은 궁중(宮中)의 소신문(小神門)이요, 호는 출입(出入)을 주관한 것이요, 행은 도로의 행작(行作)을 주관한 것이요, 여(厲)는 공려(公厲)를 이름[謂]이니, 옛날 제후(諸侯)들의 무후(無後)한 사람이요, 조는 음식의 일을 주관한 것이요, 중류는 당실(堂室)의 거처(居處)를 주관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하면 생활 속에서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해 기도처의 신위를 주례(周禮)로부터 인습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조실록(宣祖實錄)』 권166 선조 36년 9월 12일 을축(乙丑)일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칠사의 신위판이 없어져 제향이 폐기되기도 하였다.

내용 칠사에 대한 행례 절차를 서술하는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30 오례에, "칠사는 각기 시향(時享)으로 인해 제사하는데, 납향(臘享)과 협향(祫享)에는 두루 제사하여 그 의식이 모두 종묘 제향 의식에 붙였으나, 오직 중류는 계하(季夏)에만 제사한다." 하여 달리 기술하고 있다. 곧 "계하(季夏) 토왕일(土旺日)에 중류(中霤)를 종묘의 뜰에서 제사 지낸다. 제사하기 전 3일에 여러 제관이 2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하고, 1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묘소(廟所)에서 한다.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신위를 묘정(廟庭)에 설치하는데, 서문 안의 길 남쪽에다 동향하게 하고, 자리[席]는 왕골[莞]로 한다.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있다. 축판은 소나무로 만들고 길이는 1척 2촌 너비는 8촌 두께는 6푼이다. 국왕 감소고(國王敢昭告)라 쓴다."라고 하였다. '국왕 감소고(國王 敢昭告)'라 쓰는 것은 바로 국왕의 이름으로 행례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행례 절차에 대하여 『국조오례의』에는 따로 기술된 것이 없고, 여제의와 주현여제의로 설정되어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일상생활의 돌발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기도처로 삼아 칠사로 정하려는 고대적 발상으로 본다면 그 대상에서 여제만을 따로 떼어내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칠사 전반에 대한 의례는 종묘제례 절차 가운데 집례자를 공신헌관과 같이 칠사헌관을 설정하여 종묘제례 행례에 붙여 행하고 있었다. 종묘제례에서 종헌관의 행례가 시작되었을 때, 찬인(贊引)이 칠사헌관(七祀獻官)을 인도하여 행례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 배향공신에게 행례하는 과정을 부치고 있다. 종묘제례가 끝나고 나면 칠사헌관이 칠사의 예감(瘞坎)으로 가서 축판을 구덩이에 넣어 묻는 것으로 종료한다. 종묘 향사에 각각 배향공신과 칠사가 함께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행례 내용이 없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宣祖實錄, 世宗實錄, 禮記, 儀禮經傳通解續.

필자 | 이범직(李範稷)

까마귀새끼점

정의 음력 삼월에 까마귀가 새끼치는 것을 보고 그 해의 풍흉과 가운(家運)을 점치는 새점[鳥占].

내용 및 지역사례 음력 삼월에 까마귀가 새끼를 칠 때, 새끼의 수가 많고 적음을 보아 그 해의 풍흉을 예측한다. 또 새끼를 치는 것을 보면 가운이 좋지 않다고 믿는다.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에서는 까마귀가 새끼를 치되 한 마리를 치면 그 해 가뭄이 오고, 두 마리를 치면 물을 져올려 농사가 괜찮고, 세 마리나 그 이상을 치면 물이 넘쳐 흉년이 든다고 한다. 부산 기장군 월평에서는 까마귀가 새끼를 많이 치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믿는 반면 고촌에서는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금정에서는 음력 삼월에 까마귀가 울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또 까마귀 새끼의 침이 검은 색이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남구에서는 삼월에 까마귀가 새끼치는 것을 보게 되면 집안이 좋지 않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 -濟州道歲時風俗-(秦聖麒, 敎學社, 197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南區誌(釜山直轄市 南區廳, 1994), 기장군 문화유적과 기층문화(김승찬 외 공편,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황경숙(黃京淑)

담치점[紅蛤占]

정의 음력 삼월에 바닷가 바위에 담치[紅蛤]가 붙어 있는 정도를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예측하는 점복.

내용 및 지역사례 어촌에서는 음력 삼월에 바닷가 바위에 붙어 있는 해초와 어패류들의 종류와 수량을 통해 그 해의 풍흉을 예측한다. 이 중 담치점은 바위에 붙은 담치의 수를 보고 그 해 담치 수확을 점치는 풍속인데, 지역마다 예조(豫兆) 풀이에 차이가 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는 봄에 담치가 바위에 많이 붙어서 자라면 그 해 농사 시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흉년이 든다는 예조로 풀이하지만, 부산 금정구에서는 바닷가 바위에 담치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 해 풍년이 들고 적게 붙어 있으면 그 해 흉년이 든다는 예조로 풀이한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는 삼월에 바닷가 바위에 파래가 많이 붙으면 시절이 나쁘고, 담치가 많이 붙어 있으면 시절이 좋다는 예조로 풀이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加德島의 基層文化 調査(김승찬, 釜山大學校 人文論叢38, 釜山大學校 附設 韓國民族文化硏究所, 1991),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황경숙(黃京淑)


바위에 붙은 홍합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김상수

당산나무잎점

정의 마을 제사의 신체(神體)인 당산나무의 잎이 피는 상황과 방향, 시기를 보고 그 해 농사 풍흉을 알아보는 점. 지역에 따라서 당산나무 잎 피는 것을 보고 풍흉 점치기, 당산나무 잎으로 점치기, 나뭇잎으로 점치기, 나무점치기, 나뭇잎점보기, 느티나무 잎으로 점치기 따위로 달리 부른다.

내용 당산나무잎점은 당산나무 잎이 무성하게 피었는지 아니면 듬성듬성 피었는지, 잎이 위에서부터 피었는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피었는지, 잎이 한꺼번에 피었는지 여러 번에 걸쳐 피었는지 같은 상태에 따라 점을 친다. 일반적으로 당산나무 잎이 한꺼번에 피면 그 해 비가 알맞게 흠뻑 와서 일시에 모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년이 들고, 조금씩 여러 번 피면 비가 조금씩 와서 모내기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어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친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를 신성한 나무인 신수(神樹)로 여기고, 당산나무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어 보이지 않는 주력(呪力)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당산나무를 외경(畏敬)하고 신성시한다. 당산나무의 수종(樹種)으로는 감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떡갈나무, 팽나무, 모과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

지역사례 경북 청송에서는 당산나무의 위에서부터 잎이 피면 산골에 있는 논부터 모심기를 해야 하고, 아래에서부터 잎이 피면 평지의 논부터 모심기를 해야 한다고 점친다. 충남 서천에서는 위의 논부터 모내기를 하는 것은 위의 논의 물이 가득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그 해 풍년이 든다는 것이고, 아래의 논부터 모내기를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경남 진해에서는 당산나무 잎이 아래만 피고 위에는 피지 않으면 마을 아래 있는 논에는 농사가 잘 되지만 마을 위쪽의 논에는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경남 양산에서는 당산나무 잎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피면 밭농사가 잘 되고, 아래부터 피어 올라가면 논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다. 전남 함평에서는 당산나무의 잎이 아래에서부터 피면 벼가 풍년 들고, 위에서부터 잎이 피면 피가 풍년 든다고 점친다. 고흥에서는 당산나무의 잎이 윗부분에서 잘 피면 북부 지방의 시절이 좋고, 아래에서 잘



당산나무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이옥희

피면 남부 지방의 시절이 좋으며 중간에서 잘 피면 중부 지방의 시절이 좋다고 한다. 충남 아산에서는 잎이 위에서부터 피면 비가 늦게 온다고 하고 아래에서부터 피면 비가 일찍 온다고 점친다. 공주에서는 당산나무 잎이 한꺼번에 많이 피면 비가 흔하고, 반면에 잎이 늦게 피면 비가 적다고 믿는데 잎이 필 때 아랫부분이 늦게 피면 가뭄이 일찍 오고, 윗부분이 늦게 피면 가뭄이 늦게 든다. 그래서 잎이 위아래 구분 없이 골고루 피어야 물이 넉넉하다고 점친다. 전북 순창과 전남 담양에서는 당산나무 잎이 두 번 피면 그 해 큰물이 두 번 들고, 세 번에 걸쳐 피면 큰물이 세 번 든다고 점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3 -民間信仰 · 宗敎-(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표인주(表仁柱)

마디점

정의 봄철 물가에 피는 풀의 줄기에 생긴 마디를 보고 그 해의 날씨를 점치는 점속(占俗). '풀마디 보고 날씨점치기'라고도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3월이 되면 물가에는 억새나 갈대를 비롯한 많은 풀들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때 풀이 성장하면서 대나무처럼 줄기에 일정한 마디를 형성하는데 이를 물마디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것의 많고 적음이나 그 위치를 따져서 그 해의 전반적인 날씨와 장마의 시기를 예상한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의 경우 봄철 갈대 잎의 마디가 가운데에 있으면 여름철 중순에 장마가 오고, 갈대 잎의 끝에 마디가 있으면 하순에 장마가 온다고 한다.

마디점 풍속은 자랑포기로 비의 양을 점치는 것과 그 방식이나 성격이 유사하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에서는 여름철 논둑 옆에서 흔히 보는 들풀인 자랑포기를 살펴서 풀마디가 밑에 있으면 일찍 비가 많이 오고, 위에 있으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소쩍새울음점

정의 3월에 우는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해의 농사 풍흉을 알아보는 동물점(動物占). 지역에 따라 소쩍새울음 듣고 풍흉 점치기, 소쩍새울음소리로 풍흉 점치기, 소쩍새울음으로 점치기, 소쩍새울음 점치기 따위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농가에서는 3월에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데, 소쩍새가 "소쩍다 소쩍다." 울면 가을에 추수할 곡식이 많아 솥이 적어서 우는 것이므로 그 해 풍년이 든다고 점을 친다.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지역에 따라 "소쩍 소쩍"으로 듣기도 하고, "솥~쩍다 솥~쩍다." 또는 "솥쩍 솥쩍"으로 듣기도 한다. 또 "솥팅 솥팅"으로 듣기도 하고, "소팅 소팅", "소탱 소탱", "솥탱 솥탱"으로 듣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소쩍새가 "소쭉 소쭉"하고 울면 곡식이 없어 솥이 텅텅 비어 있으니 그 해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친다.

충남 홍성에서 소쩍새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우는데, 초저녁에 많이 울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늦은 밤부터 새벽에 울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소쩍새는 대개 초저녁에 많이 운다. 천안에서는 소쩍새가 "촉국 촉국" 운다고 한다. 이 새에는 중국 촉(蜀)나라 사람의 혼이 실려 있는데,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곳에서 죽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촉나라가 그리워서 "촉국 촉국" 우는 것이라 한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표인주(表仁柱)

개피떡

정의 멥쌀가루를 시루에 쪄서 안반이나 절구에 넣고 쳐서 차지게 한 다음 밀방망이로 얇게 밀어 소를 넣고 접어 작은 그릇을 사용해 반달 모양으로 떠서 만든 떡. 갑피병(甲皮餠), 갑피떡, 가피떡[加皮餠], 바람떡이라고도 한다. 특히 껍질로 싸는 떡에 쑥을 넣어 만들면 쑥개피떡, 송기를 넣으면 송기개피떡이라고 한다.

어원 궁중에서는 갑피병(甲皮餠)이라 하였고,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가피떡(加皮餠)이라고 하였다. 얇은 껍질로 소를 싸서 만들었다고 갑피병이라 했으며 갑피병이 갑피떡에서 개피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 소를 넣고 접어 반달 모양으로 찍을 때 공기가 들어가 볼록하기 때문에 바람떡이라고도 한다.

유래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흰 떡을 쳐서 거피한 팥고물로 소를 넣어 만들고, 쑥개피떡은 쑥떡으로 소를 넣어 작은 접시로 떼서 만든다." 하였다. 1873년의 궁중의 잔치상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 개피떡은 껍질이 쫄깃해야 하므로 떡반죽을 꽈리[수포(水疱)]가 나도록 잘 쳐야 한다. 개피떡의 소로는 녹두나 콩, 팥고물을 쓰는데 주로 거피팥고물을 많이 쓰며 만든 후 참기름을 바른다. 한 개로도 만들지만 가늘게 만들어 두개나 세 개를 붙이기도 하는데, 붙일 때는 흰떡 외에 쑥떡이나 송기떡도 같이 만든다. 쑥개피떡은 연하고 어린 쑥을 파랗게 데쳐서 꼭 짠 후 절구에 곱게 찧어 흰떡에 섞어서 다시 절구에 넣고 한참 찧은 후 만들며, 송기개피떡은 흰떡에 소나무껍질을 삶아 찧은 송기를 넣고 절구에 쳐서 충분히 혼합시킨 후 만든 분홍빛깔의 개피떡이다. 쑥이나 송기를 넣어 자연의 아름다운 색을 냄과 동시에 향기롭고 질감이 좋아 봄철에 많이 먹는 떡이다.



개피떡 궁중음식연구원

참고문헌 | 是議全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韓國 떡에 관한 文獻的 考察(李哲鎬 외, 韓國食文化學會誌, 1987), 조선시대 떡류의 분석적 고찰(이효지, 韓國飮食文化硏究院論文集3, 韓國飮食文化硏究院, 1988), 한국과 일본 떡류의 변천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윤덕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전통병과류의 종류 및 발달과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및 연구동향 분석(정창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한국음식대관3 -떡·과정·음청-(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이영옥(李永玉)

도미국수

정의 도미로 전을 부쳐서 여러 가지 채소, 버섯류와 함께 고명을 얹어 장식하고 육수를 부어 한소끔 끓인 후 국수를 넣어 끓여 먹는 전골류.

내용 도미국수는 도미로 만든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간다. 도미의 살을 떠내어 크게 도막을 내서 전을 부쳐서 전골 그릇에 고기, 버섯과 함께 담아 고명을 얹어 끓여서 국수를 넣어가며 먹는 음식이다.

도미국수는 승기악탕(勝妓樂湯)으로도 불리는데, 홍선표의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성종 때 오랑캐가 함경도 일원을 침입하여 허종(許琮)을 의주에 보내 오랑캐를 무찌르게 하였다. 허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의주에 도착하자 그곳 백성들이 환영하며 그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도미에 갖은 고명을 다하여 정성껏 만들었다. 이 도미 음식의 맛이 훌륭하여 기녀나 음악보다 더한 즐거움을 준다 하여 허종이 승기악탕(勝妓樂湯)이라 이름하였다."라고 한다.

의의 초봄이 제철인 생선으로는 도미, 조기, 준치, 밴댕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로 꼽히는 생선이 도미이다. 도미는 늦가을부터 이른봄까지 겨울잠을 자다가 얼음이 녹고 물이 따뜻해지면 깨어나 알을 낳으므로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시기가 봄철에서 여름철까지이다. 도미가 가장 맛있는 봄철에 채소와 버섯류를 넣고 국수와 함께 끓여 먹는 도미국수는 단백질의 급원인 생선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채소, 버섯류와 더불어 국수를 곁들여 끓여 먹으므로 이 음식만으로도 맛과 영양이 골고루 배합되는 일품요리이다.


도미국수 궁중음식연구원

참고문헌 | 朝鮮料理學(洪善杓, 朝光社, 1940),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우리말 조리어 사전(윤숙경, 신광출판사, 1996), 한국음식대관2 -주식·양념·고명·찬물-(조창숙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필자 | 임희수(林姬洙)

마제병(馬蹄餠)

⇨ 환병(環餠): 봄편

복어국[河豚羹]

정의 3월에 먹는 절식의 하나로 복어[河豚]로 만든 국.

어원 복어국의 재료가 되는 복어의 또다른 명칭은 하돈(河豚)이며, 하돈갱은 복어국을 말한다. 하돈은 강물 하(河)에, 새끼돼지 돈(豚)으로 강에서 잡히는 새끼돼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복어가 수면에서 공격을 받으면 공기를 들이마셔 배를 불룩하게 내미는 성질에서 유래한 것이다.

내용 『본초강목(本草綱目)』 하돈에 "하해(河海)에 있다. 춘월(春月)에 진상(珍賞)한다. ……간과 알에 대독(大毒)이 있다." 하였고,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 하돈에는 "성온(性溫) 미감(味甘)하다. 허(虛)를 보(補)하고 습(濕)을 없애며 요각(腰脚)을 조리하고 치충(痔蟲)을 죽인다. 미나리와 같이 달여 먹으면 독(毒)이 없다." 하였다. 이상의 의학서 외에도 하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기록이 보인다. 허균은 『도문대작(屠門大嚼)』에서 "하돈(河豚)은

한강일대의 것이 가장 좋으나, 독이 있어 사람이 먹으면 죽는 일이 많다. 영동지방의 것은 그 맛이 이를 따르지 못하나 독이 없다." 하였다. 홍만선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하돈(河豚)은 피와 알에 많은 독이 있다. 사람이 잘못 먹으면 죽기도 한다. ……그런데 곤쟁이젓이 복어독을 잘 풀어준다." 하였으며, 유중림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서 "河豚 血卵有大毒 ……又方但切取河豚白肉作片 香油炒煎取出而作湯 則萬無一失 味亦絶美." 하였다. 또한 유득공이 쓴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하돈갱(河豚羹)은 그 독을 꺼린다. 그 대신 독미어(禿尾魚)를 쪄서 쓴다." 하였으며, 홍석모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조에서 "하돈갱(河豚羹)은 도화(桃花)가 아직 떨어지기 전에 복어를 청미나리와 조화하여 유장으로 국을 만들면 맛이 참 진미하다." 하였다. 빙허각이씨의 『규합총서(閨閤叢書)』에도 기록이 보이는데 "하돈은 복생선을 지칭한다. 피와 알에 독이 많다. 백반, 참기름, 맑은장, 미나리를 넣어 끓이거나 살만 토막낸 하돈을 참기름에 지져내어 끓이면 맛도 아름답고 해독도 된다. ……옛날부터 맛좋기로 이름났으니 안 먹을 수 없다. ……끓여서 먹은 후 숭늉 마시는 것을 크게 꺼린다. 곤쟁이젓이 복어독을 푼다." 하였다. 한편 작자 미상의 『부인필지(夫人必知)』에서는 "피와 알에 독이 많다. 배와 등을 따고 혈맥을 다 거누어 ……물에 여러 차례 헹군 다음 백반 한 조각을 넣고 참기름을 많이 부어 미나리를 넣고 청장에 끓인다. 곤쟁이젓이 복어의 독을 없게 한다." 하였다.

이처럼 문헌에 등장하는 복어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복어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경도잡지』이다. 복어를 먹은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년 중 복어가 가장 맛있을 때가 도화(桃花)가 아직 떨어지기 전인 3월이므로 『동국세시기』에는 3월의 절식으로 하돈갱(河豚羹)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어국은 『동의보감』의 기록처럼 허를 보하고 습을 없애는 약선(藥膳)으로서도 애용된 것으로 보인다. 복어국을 조리할 때 반드시 미나리를 같이 사용하는 까닭은 해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해독에 동원된 재료는 미나리 외에 참기름과 곤쟁이젓이 있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閨閤叢書, 屠門大嚼,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本草綱目, 婦人必知,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필자 | 김상보(金尙寶)

산병(饊餠)

정의 멥쌀가루를 쪄서 안반이나 절구에 넣고 쳐서 얇게 밀어 소를 넣고 종지로 조금씩 떠내어 손으로 오그려 2~5개씩 붙인 떡. 또는 멥쌀로 만든 떡 속에 소를 넣고 방울 모양의 작은 떡을 만들어 오색 물감을 들여 다섯 개를 쭉 이어 염주같이 만든 떡이다. 곱장떡, 수란떡, 셋붙이(셋붓치, 세부치), 곡병(曲餠), 산떡, 삼부병이라고도 한다.

내용 수란떡이라는 이름으로 『음식법(飮食法)』에 처음 기록되어 있고, 『규곤요람(閨**壺要**覽)』과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곱장떡,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산병(셋붓치), 곱장떡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송편 모양인데 솔잎에 찌지 않고 무늬가 있고 얇게 만들어 익힌다고 했으며, 『규곤요람』에서는 멥쌀, 콩, 참깨, 꿀로 만든다고 했고, 『시의전서』에서는 "흰떡에 각색 물감을 들여 개피떡 모양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 세 개씩 또는 다섯 개씩 붙여 만든다." 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는 "성균관에서 많이 만들었다." 했다.

재료로는 멥쌀, 팥, 쑥, 치자, 연지, 기름, 꿀, 콩가루, 계피, 잣이 사용되었다. 치자, 연지, 쑥으로 황색, 분홍색, 청색을 내어 3~4개씩 부친 후 기름을 발라 떡의 웃기로 얹는다. 『규곤요람』에서는 찹쌀을 사용하고 소로는 콩, 깨, 잣을 넣었다.

꽃산병은 충청도 지방에서 떡 위에 꽃을 얹어 만든 떡으로 흰떡을 조금씩 떼어 팥소를 넣고 동글납



작하게 빚은 다음, 천연 색소로 물을 들인 작은 떡조각을 얹고, 떡살로 눌러 문양을 넣은 독특한 형태의 떡이다. 여주산병(驪州散餠)은 흰떡을 얇게 밀어서 팥소를 넣고 덮어 큰 보시기와 작은 보시기로 개피떡처럼 각각 찍어 낸 다음, 큰 떡 안에 작은 떡을 붙여 넣고, 네 끝을 모두 붙인 떡으로 모양이 특별하고 아름다워 편의 웃기로 올렸다고 한다.

참고문헌 | 閨壺要…(延大), 星湖僿說, 是議全書, 飮食法,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韓國食生活史(姜仁姬, 三英社, 1978), 떡類의 文獻的 考察 -1670年~1943年의 文獻을 中心으로-(孟惠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조선시대 떡류의 분석적 고찰(이효지, 韓國飮食文化硏究院論文集3, 韓國飮食文化硏究院, 198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식 백가지 1, 2(한복진, 현암사, 1998), 한국의 떡·한과·음청류(윤숙자, 지구문화사, 1998), 한국음식대관3 -떡·과정·음청-(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이영옥(李永玉)

서여증식(薯蕷蒸食)

정의 3월에 먹는 절식의 하나로 참마인 서여(薯蕷)를 쪄서 만든 음식. 서여증, 산약증, 서여찜, 산약(山藥)찜이라고도 한다.

어원 서여증식의 재료인 서여(薯蕷)는 산마[山芋] 또는 산약(山藥)이라 한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권102에 의하면 본명은 서여이지만, 당(唐)나라 대종(代宗)의 이름이 여(預)이었기 때문에 휘(諱)를 피하여 서약(薯藥)이라고 하였고, 그 후 송(宋)나라 영종(英宗)의 휘가 서(署)이었기 때문에 다시 고쳐서 산약(山藥)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내용 서여증식에 관한 기록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처음 나온다. 그러나 산약의 식용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산약에 대하여 "성온(性溫), 미감(味甘), 무독(無毒)하며, 허로(虛勞)를 보(補)하고 오장을 채우고 기력을 더한다. 근골(筋骨)을 강하게 하고 신(神)을 편히 하며 지혜를 기른다. ……2월, 8월에 뿌리를 캐어 긁어 쓰며 흰 것이 좋다." 하였기 때문에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상식하였던 식품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서여병과 비슷한 음식으로 『규합총서(閨閤叢書)』에 서여향병(薯蕷香餠)이 나오는데, "생마를 익게 쪄서 찧어 꿀을 합하여 잣가루에 묻혀라. 찹쌀가루를 묻혀 지져도 좋다." 하였다. 또 『동국세시기』에는 "3월에 마를 캐다 쪄서 먹는데 혹 잘게 잘라 쪄서 꿀을 조화하여 먹기도 한다." 하였다. 이처럼 서여증식은 약선(藥膳)이자 계절 식품의 하나로서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대부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먹었음을 알 수 있다.

만드는 방법 조선왕조궁중연향식의궤(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인 『진찬의궤(進饌儀軌)』와 『진작의궤(進爵儀軌)』에도 서여를 재료로 한 서여병(薯蕷餠)이란 찬품(饌品)이 등장한다. 재료가 서여, 꿀, 잣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재료 구성 비율로 만드는 방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서여를 수증기에 쪄내어 으깬 다음 절구에 넣고 쳐서 꿀을 합하여 단자 모양으로 떼어내 잣가루를 묻힌 음식이 서여병이다.

참고문헌 | 閨閤叢書,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進爵儀軌, 進饌儀軌, 和漢三才圖會,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飮食의 實際(金尙寶, 修學社, 1995), 朝鮮王朝宮中儀軌飮食文化(金尙寶, 修學社, 1995).
필자 | 김상보(金尙寶)

석수어탕(石首魚湯)

정의 봄이 제철인 석수어(조기)에 갖은 양념을 넣고 함께 끓인 탕. 조기탕이라고도 한다.

내용 석수어라고 부르는 조기는 그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며, 저마다 맛이나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다. 그 중에 참조기의 맛이 으뜸이다. 참조기는 제주도 남서쪽바다와 중국 상해 동남쪽 근해에서 겨울을 나고 이월 무렵에 알을 낳기 위하여 서해안


석수어탕 궁중음식연구원

을 따라 천천히 북상을 한다. 삼월 초순이면 전라도의 칠산 앞바다에 이르고 사월, 칠쭉이 만발할 때에 알을 낳고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때에 알을 통통하게 밴 조기로 만든 오사리 굴비가 가장 맛이 좋다. 굴비는 그냥 찢어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상치쌈을 해먹기도 한다. 때로는 간장 양념을 하여 쪄서 먹기도 한다. 그 중에서 햇고사리를 넣어 끓인 찌개는 다른 생선찌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맛이 개운하다. 생선찌개는 무엇보다도 재료가 신선해야 그 맛이 산다. 참조기로 만든 굴비는 머리가 삐죽 올라가지 않고 둥그스름하며 옆줄이 뚜렷하거나 두 줄이고, 비늘은 흰색이 도는 듯하면서 자색이 감돌아 전체적으로 회색빛이 나는 것을 고르면 된다. 몸통이 통통하고 눌러보아 단단한 것이 살이 깊어 맛이 좋고, 몸에 하얀 성에가 끼었으면 간이 너무 짜게 된 것이다.

겨울 동안 허해진 사람의 원기를 돕는다는 뜻에서 조기(助氣)라고도 한다. 지방질이 적은 흰살 생선으로 머리 속에 돌이 들어 있어 석수어(石首魚)라고도 한다. 양질의 단백질이 많고 지방질이 적으며 비타민 B_1, B_2 따위가 많아 성장기 어린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노인에게 좋은 식품이다. 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굴비는 단백질이나 지방질, 칼슘, 인, 철분, 무기질, 비타민 B_1과 B_2, 나이아신의 함량이 조기보다 높다. 굴비는 빛이 선명하며 노릇노릇하고 머리쪽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각진 참조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 요리로는 조기구이, 조기매운탕, 조기탕수, 조기튀김 같은 것들이 있다.

만드는 방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생선은 고유한 향기가 있어 고추장에 끓이면 향기를 모르게 되므로 맑은 장국에 끓이는 것이 좋다. 고추장에 끓이는 것은 지지미라 한다." 하였다. 따라서 석수어탕은 맑은 장국에 끓인 탕과 매운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굴비 매운탕 만드는 법은 굴비 한 마리에 쇠고기 등심 백그램, 햇고사리와 쑥갓, 풋마늘, 달걀 두개, 빨간 고추와 풋고추 각 서너개 그리고 쌀 뜨물,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찧은 것, 참기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4), 봄가을 음식(뿌리깊은 나무, 대원사, 1989), 韓國의 맛(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3), 한국음식대관6 -궁중의 식생활·사찰의 식생활-(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한국의 상차림(강인희 외 공저, 효일문화사, 1999), 한국의 나물(한국의 맛 연구회, 북폴리오, 2004).
필자 | 박인경(朴仁璟)

수란(水卵)

정의 계란을 깨뜨려 끓는 물에 넣어 반쯤 익혀서 초장(醋醬)을 친 음식. 난탕(卵湯)이라고도 한다.

내용 유기나 금속으로 만든 국자처럼 생긴 수란기(水卵器)에 기름을 바르고 계란을 깨뜨려 담는다. 솥에 물을 붓고 식초를 조금 떨어뜨린 후 끓는 물에 수란기를 넣고, 흰자가 가장자리부터 익기 시작하면 물 속에 담근다. 흰자가 노른자 위쪽을 덮으면 노른자가 완전히 익기 전에 꺼내서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실고추, 석이채 따위를 고명으로 올린다.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기름을 두른 뜨거운 번철에 계란을 깨어 넣고, 반숙으로 익히는 것을 건수란(乾水卵)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노른자를 익히는 정도에 따라 생란(生卵), 숙란(熟卵), 반숙란(半熟卵), 팽란(烹卵)으로 나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음력 3월의 시식(時食)이라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나온 『조선의 연중행사(朝鮮の年中行事)』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 널리 퍼진 세시음식은 아닌 듯하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是議全書, 朝鮮の年中行事(朝鮮總督府, 1933),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필자 | 주영하(周永河)



쑥국[艾湯]

정의 쑥과 고기를 빚어 만든 완자에 밀가루와 달걀을 묻혀 장국에 넣어 끓여 먹는 국[湯]. 쑥잎은 한명(漢名)으로는 애엽(艾葉)이라고 하는데 독한 맛이 있어 삶아서 하룻밤쯤 물에 담갔다가 먹는다. 이른 봄에 나온 여린 잎일수록 맛과 향이 좋다. 그러나 연한 잎은 일년 내내, 아직 자라나는 쑥을 뜯어다가 데쳐서 잘게 송송 썰고, 쇠고기 살코기를 다져 고기와 같이 이겨 빚어 완자를 만든다. 여기에 밀가루를 고르게 묻힌 다음 잘 풀어놓은 달걀에 적셔서 펄펄 끓는 장국에 넣어 익어서 떠오를 때까지 끓여서 내는 것이 애탕(艾湯)이다.

유래 쑥은 우리나라의 역사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오랜 식물로서 단군신화에 등장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환웅(桓雄)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신령스러운 풀인 마늘 20통과 함께 쑥[靈艾] 한 자루를 주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일렀으며, 곰은 환웅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21일 만에 웅녀(熊女)가 되었고 나중에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 단군을 낳았다. 한편 환웅이 신시를 건설하고 인간사를 다스릴 때 마늘과 쑥으로 병을 다스렸다고도 전해진다. 이처럼 쑥은 오랜 옛적부터 우리 민족에게 귀한 식품이며 예부터 귀한 약초였다.

내용 및 특징 애탕은 맑은 장국의 일종으로서 『산림경제(山林經濟)』와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맑은 장국의 하나인 완자탕 만들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큰 생선을 살만 발라 곱게 두드려놓고, 돼지고기 또는 쇠고기, 생회, 닭 중에서도 하나를 곱게 두드려 후추, 생강, 파, 표고를 기름장에 합하여 주물러 밤톨만하게 환을 만들되, 가운데에 온잣을 하나씩 넣어 계란이나 녹말을 씌워 장국에 간 맞추어 끓인다."

여린 쑥을 가지고 국을 끓일 때, 시월에 나는 관목어(貫目魚, 과메기)를 넣고 끓이게 되면 쑥이 지닌 쓴맛과 청어의 기름기가 잘 어우러져 색다른 상달의 애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한식을 전후하여 조상의 무덤에 떼를 다시 입히고 민간에서는 이 날을 전후하여 쑥탕과 쑥떡을 해먹었다.

참고문헌 | 閨閤叢書, 東國歲時記, 山林經濟,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명절 음식(한복선, 대원사, 1992).
필자 | 박인경(朴仁璟)

쑥굴리

정의 찹쌀가루에 삶아 다진 쑥을 섞고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끓는 물에 삶아내어 고물을 묻힌 떡. 찹쌀가루 찐 것에 삶아 다진 쑥을 넣고 고루 섞이도록 친 다음 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 고물을 묻힌 떡이다. 쑥경단[艾瓊團], 보풀떡, 쑥굴레, 쑥글래, 쑥구리라고도 한다. 『간편 조선요리제법(簡便朝鮮料理製法)』,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서는 보풀떡 또는 쑥굴리, 『조선요리법(朝鮮料理法)』에서는 쑥굴리,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쑥굴리, 쑥경단이라 불렀다.

내용 및 특성 재료로는 찹쌀가루, 쑥, 콩, 팥, 녹두, 밤, 대추, 꿀, 설탕, 계피, 후추, 깨, 귤병, 청매가 사


1


2

1 쑥국
2 쑥굴리
궁중음식연구원

용되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찹쌀가루 두 되와 연하고 좋은 쑥 한 되 가량을 물에 씻어 물기 있는 채로 버무려 절구에 흠뻑 찧어서 반대기를 만들고 그것을 끓는 물에 삶아낸다. 또 찹쌀가루 한 되를 섞어 안반에서 쳐서 경단처럼 만들 때, 삶은 밤과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 소를 넣고 끓는 물에 삶아 건져내어 물을 뺀 후에 꿀을 묻히고 삶은 밤을 체에 거른 것이나 잣가루 그리고 껍질 벗긴 깨소금이나 거피팥이나 녹두를 삶아 거른 것 따위 어느 것이든지 묻혀서 봄철에 먹으면 봄소식도 반가우려니와 향기로운 맛이 극히 담하니라." 하였다. 『역잡록(歷雜錄)』과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 쑥굴리는 삶아서 만드는 경단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찹쌀가루 찐 것에 삶아 다진 쑥을 넣고 고루 섞이도록 친 다음 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 팥고물을 묻힌 것도 쑥굴리라 하는데, 소로는 삶은 밤이나 껍질을 벗긴 팥고물인 거피팥고물에 꿀과 계피가루 섞은 것 또는 유자청에 대추 섞은 것을 사용했다. 고물로는 거피팥고물 대신 녹두고물, 밤채, 대추채, 삶은 밤을 체에 거른 밤고물, 잣가루, 거피깨소금 같은 것들을 묻히기도 했다.

한편 경상도를 비롯한 남쪽 지방에서 유명한 쑥굴레(쑥굴리)는 녹두고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다. 곧, 거피한 녹두를 찐 다음 으깨어 설탕을 넣은 뒤 일부는 소로 만들고 일부는 체에 내려 고물로 준비한다. 찹쌀가루 찐 것에 삶은 쑥을 넣고 푸른빛이 나도록 안반에서 친 다음 밤톨만큼씩 떼어 녹두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 녹두고물을 묻혀 만든다. 또는 녹두소를 밤톨만큼씩 떼어 떡과 함께 뭉쳐지도록 손으로 쥐어 만드는데 이때 찰떡의 양은 녹두소보다 약간 많게 한다. 먹을 때는 조청을 따로 내어 조청에 찍어 먹는데, 조청에 생강즙을 섞으면 또 다른 맛이 있다. 쑥은 연두색의 포름한 귀쑥이어야 보들보들하면서도 쫄깃하다.

쑥은 색깔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뛰어나 여러 가지 떡에 이용되고 있다. 식용 쑥은 삼사월 봄철이 제철로 이 시기가 지나면 너무 자라서 향이 진하고 줄기가 억세어서 먹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오월 단오 이전까지를 채취 시기로 잡는다. 예전에는 새봄에 쑥을 캐 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금을 뿌려 절여놓았다가 쑥이 없는 계절에 꺼내어 물에 담가 염분을 뺀 뒤 꼭 짜서 떡을 만들어 먹었으나 요즈음은 봄에 나온 쑥을 끓는 물에 삶아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냉동고에 넣어두어서 사용한다. 쑥을 씻을 때나 쌀가루를 섞을 때 너무 세게 주무르면 풋내가 나므로 살살 다루어야 한다. 쑥에는 독한 맛이 있으므로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먹는 게 좋다. 쑥떡을 할 때 쑥을 떡쌀과 함께 넣고 찌게 되면 색이 누렇게 변하여 본래의 빛깔이 잘 살아나지 않으며, 다 익은 떡쌀에 쑥을 넣고 잘 치면 고운 쑥빛이 나온다.

참고문헌 | 簡便朝鮮料理製法, 歷雜錄,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朝鮮料理法, 朝鮮料理製法,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떡類의 文獻的 考察 -1670年~1943年의 文獻을 中心으로-(孟惠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조선시대 떡류의 분석적 고찰(이효지, 韓國飮食文化硏究院論文集3, 韓國飮食文化硏究院, 1988), 한국의 떡과 과줄(강인희, 대한교과서, 1997), 한국음식대관3 -떡·과정·음청-(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이영옥(李永玉)

쑥단자[香艾團子]

정의 익힌 찹쌀가루에 삶아 다진 쑥을 넣어 고루 섞이도록 치댄 뒤 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 팥고물 같은 것을 묻힌 떡. 쑥구리단자, 보풀떡이라고도 한다.

내용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신화에 "신이 신령스러운 쑥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주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한 데서 오랜 옛적부터 우리 민족이 쑥을 식용해온 것을 알 수 있거니와, 청애병(靑艾餠)은 어린 쑥잎을 쌀가루에 섞어서 떡으



로 찐 것으로 우리 민족이 또한 일찍부터 쑥을 이용하여 떡을 만들어 먹었음을 알게 해준다.

쑥단자[香艾團子]는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처음으로 기록이 보이는데, "찹쌀 두 되를 불려 절구에서 매우 쳐서 탕수로 반죽하여 삶아 건진 것에 쑥 한 되를 넣고 쳐서 떡을 만들고 밤소를 넣고 빚어 다시 끓는 물에 삶아 건져 밤고물, 잣고물 등을 묻힌다. 봄철 시식이다." 하여, 찹쌀과 쑥을 주재료로 하고 밤소, 밤고물과 잣고물을 썼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문헌에 따르면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물을 섞은 다음 덩얼덩얼하게 버무려 푹 찐다. 쑥은 파랗게 삶아 물기를 꼭 짠 다음 곱게 다진다. 찹쌀가루 버무린 것과 다진 쑥을 양푼에 넣어 색이 고루 섞이도록 충분히 치댄다. 소는 곱게 다진 유자청 건데기 씨를 빼고 다진 대추를 준비한다. 손에 꿀을 묻힌 뒤 떡을 조금씩 떼에 소를 넣고 손으로 갸름하게 쥐어 오무린다. 빚은 떡 겉에 꿀을 바르고 팥고물을 묻힌다. 쑥단자의 소로는 팥고물을 넣어도 좋고, 계피가루를 약간 넣어도 향이 좋다. 고물로는 밤고물, 대추채, 밤채를 해도 별미이다.

쑥구리단자는 찹쌀을 불려 씻어 가루를 빻아 체에 내리고, 쑥은 파랗게 데쳐서 절구에 찧는다. 소는 거피팥에 꿀과 계피가루를 넣어 되직하게 만든다. 찹쌀가루에 물을 내려 쪄낸 후 쑥을 넣어 절구에서 곱게 친 후 떡판에 쏟고 길게 펴서 가운데 팥소를 넣고 떡을 오무려 손끝으로 새알 모양으로 끊어서 꿀을 발라 팥고물을 묻힌다.

찹쌀가루와 쑥의 비율은 2대 1 또는 1대 1이며 찹쌀가루와 쑥을 섞어 반죽하여 반대기를 지어 끓는 물에 삶아 건지거나 또는 익반죽, 찹쌀가루에 물을 내려 찌는 법을 사용하며, 떡소로는 녹두, 계피가루, 설탕, 대추, 청매, 귤병, 설탕즙, 유자청건데기, 대추 다진 것, 팥소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고물로는 대추채, 밤채, 팥고물, 또는 콩가루고물을 묻힌다. 떡을 만들 때 손에는 꿀을 묻혀가며 만든다.

참고문헌 | 增補山林經濟, 朝鮮料理製法 -改訂增補-(方信榮,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한국음식(황혜성, 민서출판사, 1987), 한국의 떡과 과줄(강인희, 대한교과서, 1997), 식생활 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 1999).

필자 | 윤덕인(尹德仁)

쑥떡[艾餠]

정의 쑥과 쌀가루를 섞어 만들어 먹는 떡. 쑥은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각지의 들에 난다. 식용하는 부분은 잎으로서 독특한 향기가 있고, 잎의 뒷면에는 우유빛 솜털이 돋아나 있다. 쑥을 이용하여 만든 떡은 쑥설기, 쑥시루떡, 쑥갠떡 같은 것들이 있다.

유래 단군신화에 곰이 쑥을 먹고 환웅의 아내가 되어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쑥을 식용한 역사는 유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도 중요한 구황 식품으로 백성들이 쑥만 바라보고 산 것이 오래라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의 나물국으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왔다. 쑥의 효능에 대해 신비함마저 느끼게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쑥을 단순한 식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액을 물리치는 신성한 식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단옷날 이른 아침에 쑥을 뜯어다가 세워두는 풍속을 볼 수 있다. 또한 쑥은 조선조의 민간요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초의 하나였다. 특히 단옷날 오시(오전11시부터 오후 1시)에 뜯는 쑥이 약효가 좋다고 하여 이때 약쑥을 뜯는 풍속도 있다.

내용 비타민A와 C가 많아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며, 쑥 나물 한 접시(약 80그램)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A의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연소시켜 흡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비타민A와 C는 영양 성분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보조 역할을 한다. 비타민C는 감기의 예방과 치료에도 좋다. 칼슘과 철분도 많아 쌀



쑥떡 궁중음식연구원

밥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체질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쑥은 제철에 한꺼번에 많이 삶아서 한번에 먹을 양만큼 나눠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면 좋다. 쑥은 다른 채소와 함께 즙을 내어 마시기도 하는데, 소화흡수를 돕고 간의 활동을 도우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히 여자들에게 좋다. 원래 쑥떡은 쑥이 나올 즈음해서는 지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져가서 쑥에다 쌀가루를 훌훌 흩뿌려 쑥버무리를 하여 양식을 아껴 먹던 구황 작물의 일종이다. 요리로는 쑥버섯볶음, 쑥국, 애탕국, 쑥부침개, 쑥설기, 쑥시루떡, 쑥개떡, 쑥칼국수, 쑥콩죽, 쑥겉절이, 쑥연근전 같은 것들이 있다.

만드는 방법 쑥설기 만드는 방법은 우선 쌀 3컵, 어린 쑥 3컵, 소금 약간을 준비한다. ① 깨끗이 다듬은 쑥은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꼭 짠다. 쌀은 쑥과 같은 양으로 준비해 하루 정도 물에 담가둔다. 불린 쌀과 쑥을 섞어서 소금을 넣어 곱게 빻은 후 체에 한 번 내린다. ② 시루에 쑥과 빻은 쌀가루를 평평하게 안친다. 시루를 올려 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시루번을 붙인다. 시루번은 쌀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말랑하게 반죽해서 만든다. 처음에는 마른 베보만 덮고 찌다가 떡이 내려앉으면 뚜껑을 덮어 20~30분간 찐다. 대꼬치로 찔러 보아 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불을 끄고 뜸을 들인다. 중국 찜기를 이용할 때는 찜기 밑에 젖은 베보를 깔고 쑥을 넣고 쌀가루를 올린 뒤 김이 오른 솥 위에 얹어 20분간 찐다. 다 쪄진 뒤에는 불을 끄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목판이나 도마에 쏟아 베보를 떼어내고 한번 식힌 다음에 보기 좋게 썰어 그릇에 담는다.

쑥시루떡은 쌀 3컵, 어린 쑥 3컵, 팥 2컵, 소금 약간의 재료를 준비한다. ① 깨끗이 다듬은 쑥은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꼭 짠다. 쌀은 쑥과 같은 양으로 준비해 하루 정도 물에 담가둔다. 불린 쌀을 쑥과 섞어서 소금을 넣어 소금을 넣어 곱게 빻은 후 체에 한 번 내린다. ② 팥은 깨끗이 씻어 물을 붓고 우르르 끓인 후 물을 따라 버리고 새로 물을 부어 무르게 삶는다. 팥이 익은 후에도 물이 남아 있으면 남은 물을 따라내고 센 불에서 남은 물을 증발시키듯이 볶아 팥알을 포슬포슬한 상태로 만든다. 그릇에 삶은 팥을 넣고 소금간을 하여 찧는다. ③ 찜통이나 시루 밑에 한지나 베보를 깔고 물을 뿌린 후 팥고물, 쑥을 넣은 쌀가루 순으로 켜켜이 안친다. 김이 오른 솥에 쌀가루를 안친 찜통을 올려 25분간 찐다. 대꼬치로 찔러 흰 가루가 묻어나지 않도록 밀가루로 시루번을 붙여 떡을 찐다.

쑥갠떡은 쌀 3컵, 어린 쑥 3컵, 소금 약간을 준비한다. ① 쌀은 씻어서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다. ② 쌀은 소금을 넣고 가루로 곱게 빻는다. ③ 쑥가루와 멥쌀가루를 체에 내린다. ④ 물에 설탕을 넣어 설탕물을 끓인다. ⑤ 내린 쑥가루와 멥쌀가루에 설탕물을 넣고 반죽한다. ⑥ 반죽한 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다. ⑦ 나눈 반죽을 떡살로 찍거나 손으로 눌러 모양을 만든다. ⑧ 김이 오른 찜통에 면보를 깔고 10분 정도 찐다. ⑨ 쪄낸 쑥갠떡을 참기름에 묻힌 뒤 접시에 담아낸다.

참고문헌 | 韓國의 맛(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7),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4), 봄가을 음식(뿌리깊은 나무, 대원사, 1992), 한국음식대관6 -궁중의 식생활·사찰의 식생활-(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한국의 상차림(강인희 외 공저, 효일문화사, 1999), 한국의 나물(한국의 맛 연구회, 북폴리오, 2004).

필자 | 박인경(朴仁璟)

쑥버무리

정의 이른 봄의 어린 쑥을 뜯어서 날것 그대로 멥쌀가루와 섞어 시루에 찐 떡. 음력 3월 무렵에 먹는 시절 음식이다. 향긋한 쑥내음 때문에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별미이다. 쑥버무리를 쑥범벅, 쑥설기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충북에서는 이른 봄 농가에서 못자리할 때 해 먹는다. 농가에서는 모판을 만들기 위해 볍씨를 물에 담근다. 그리하여 모판을 하고 남은 볍씨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여기에다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쑥을 깨끗이 씻어 함께 버무리고 소금간을 약간 하여 시루에 쪄서 먹는다. 호남 지역에서는 이른 봄에 쑥을 캐어 말려놓았다가 단오 무렵이 되면 멥쌀가루를 묻혀서 시루에 찐다. 쑥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로 자생력이 강하고 향기가 독특하며 어느 음식과도 친숙하게 어우러지는 재료이다. 이러한 쑥을 넣어서 만든 쑥버무리는 봄과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음식이라 할 만하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忠淸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6),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서해숙(徐海淑)

애탕(艾湯)

⇨ 쑥국[艾湯]: 봄편

조기탕(-湯)

⇨ 석수어탕(石首魚湯): 봄편

탕평채(蕩平菜)

정의 녹두묵을 만들어 잘게 썰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고 초장(醋醬)으로 무쳐 서늘한 봄날 저녁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 묵청포라고도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월내조에 탕평채를 음력 3월 시식(時食)으로 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1849년 이전에 이 음식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언제부터 탕평채를 3월의 시식으로 먹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조선 후기 탕평책(蕩平策)이란 정책을 내세웠던 영조 때 이 음식이 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곧 중국의 『상서(尙書)』에 "무편무당(無偏無黨) 왕도탕탕(王道蕩蕩) 무당무편(無黨無偏) 왕도평평(王道平平)"이란 문장에서 나온 '탕평'이란 말이 이 음식의 이름을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와 같은 이름의 음식이 없다.

만드는 방법 탕평채를 만들려면 먼저 녹두묵이 필요하다. 요사이는 공장에서 만든 녹두묵을 사서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녹두를 물에 하룻밤동안 불려둔다. 그러면 껍질이 야들야들해진다. 껍질을 벗기고 물을 조금 붓고 곱게 간다. 그것을 고운 체에 걸러 가라앉히면 녹말 앙금이 생긴다. 이 녹말에 물을 작작하게 붓고 솥에서 끓인다. 이때 주걱으로 계속 저어주어야 굳지 않는다. 이것을 그릇에 피서 굳히면 녹두묵이 된다.

그 다음에 굳은 녹두묵을 굵게 채 썬다. 숙주는 머리와 꼬리를 떼고 데쳐 물기를 빼둔다. 미나리도 줄기만을 가운데 손가락 길이로 썰어 소금을 넣고 살짝 볶는다. 김은 구워서 잘게 부순다. 만약 쇠고기가 있다면 이것도 곱게 채를 썰어 간장으로 양념하여 볶아둔다. 여기에 달걀로 황색과 백색의 지단을 부쳐 미나리와 비슷한 길이로 썬다. 녹두묵을 뺀 나머지 재료들을 함께 섞어서 참기름과 간장 그리고 식초로 무친다. 무친 재료와 녹두묵을 그릇에 반반 담아내면 그 색깔이 한 쪽은 하얗고 다른 한 쪽은 화려하다. 먹을 때는 이것을 함께 섞어야 한다. 개운하고 상큼하면서 녹두묵의 신선한 맛이 일품이다. 일제강점기에 나온 『조선의 연중행사(朝鮮の年中行事)』에도 3월편에 『동국세시기』와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랫동안 탕평채를 음력 삼월 삼일에 진달래를 넣어 만든 화전과 화채 그리고 쑥경단과 함께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朝鮮の年中行事(朝鮮總督府, 1933).
필자 | 주영하(周永河)



탕평채 궁중음식연구원

환병(環餠)

정의 멥쌀가루에 송피(松皮: 소나무 속껍질)와 청호(靑蒿: 제비쑥)를 섞어 오색으로 만든 둥근 떡. 환떡이라고도 하고 큰 것은 마제병(馬蹄餠)이라고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환병은 3월에 떡집에서 오색의 둥근 떡을 만드는데, 송피와 청호를 섞어서 만들며 큰 것은 마제병이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및 특성 재료로는 백미, 쑥, 소나무껍질을 쓴다. 떡은 쌀만으로도 만들지만 쑥을 넣어 비취색을 내기도 하고, 송기를 섞어서 붉은 색을 내기도 한다. 삼월 삼짇날과 오월 단옷날의 쑥은 맛있고 약기운이 높으며 향긋하기 때문에 즐겨 찾는 시식(時食)이기도 했다. 멥쌀가루에 어린 쑥을 섞으면 고운 색을 띄고 질감이 쫄깃쫄깃해질 뿐만 아니라 영양도 뛰어나다. 쑥에 있는 다량의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은 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므로 재료 배합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다. 붉은색을 내려면 송기를 섞는다. 솔나무 상순 껍질을 벗겨서 겉껍질을 제거하고 물을 부어 삶아낸 후, 물에 담가서 우려낸 다음 짜서 찧어 사용하는데 질기고 맛이 독특하다.

참고문헌 | 한국과 일본 떡류의 변천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윤덕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韓國飮食文化硏究院論文集3, 韓國飮食文化硏究院, 1988),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90), 떡류(배영희, 國民營養, 199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식 백가지1, 2(한복진, 현암사, 1998), 조선시대 떡류의 분석적 고찰(이효지, 韓國飮食文化硏究院論文集3, 韓國飮食文化硏究院, 1998), 한국의 떡·한과·음청류(윤숙자, 지구문화사, 1998), 한국음식대관3 -떡·과정·음청-(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이영옥(李永玉)

황저합탕(黃苧蛤湯)

정의 3월에 먹는 절식의 하나로 황합[黃蛤, 黃苧蛤, 가막조개, 모시조개]으로 만든 탕. 황저합탕의 재료가 되는 황합[黃苧蛤]은 조개껍질의 색깔이 누런 모시의 색깔과 같다하여 모시조개 또는 황저합이라고 부른다. 황저합은 누를 황(黃), 모시 저(苧), 조개 합(蛤)이다.



내용 황합이 가장 맛이 있는 계절은 봄이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황합(黃蛤)은 2월에 캐서 먹는데 소화가 잘되고 혈압을 내린다. 일명 모시조개라 한다."하였고,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서 "황합(黃蛤) 모시조개는 二月間取生蛤連甲下鍋少添水煮之至八分熟食 …… "라 하였다. 또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조에서 "황저합(黃苧蛤)과 석수어(石首魚)로 탕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라고 하여 3월의 절식으로 황저합탕을 들고 있다. 이는 봄에 캔 모시조개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 통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필자 | 김상보(金尙寶)

개꽃상여놀이

정의 봄에 진달래가 피면 진달래꽃으로 지게를 장식하여 꽃상여를 만들어 상여소리를 하면서 노는 놀이.

내용 지게는 구한말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눈에 매우 효율적인 운반 기구로 비쳐졌다. 어깨뿐만 아니라 등과 엉덩이에 무게를 나누기 때문에 몸무게의 3배 이상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민족의 지혜일 수 있는 지게는 운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놀이 도구로서 활용된 예도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개꽃상여놀이이다. 개꽃상여라는 것은 꽃으로 장식한 상여이기는 하지만 진짜 상여가 아니라 거짓으로 만든 상여라는 의미이다. 지역에 따라 개꽃생이놀이라고도 부른다.

늦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농한기에 시골 사람들은 산에서 땔감을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여자들은 대



〈개꽃상여놀이〉
1 지게
2 지게연결
3 지게상여
4 지게상여 이동
5 지게상여놀이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변
국립민속박물관

개 나뭇단을 머리에 이고 날랐지만, 남자들은 지게에 지고 옮겼다. 산에 나무를 하러 오르내리면서 지게목발을 두드리며 구성진 산타령을 부를 때 지게는 악기가 되고, 평평한 곳에 모여서 짱치기놀이를 할 때 지게는 골문이 되기도 한다. 또 지게에 올라타서 멀리걷기 시합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게를 가지고 노는 놀이의 하나로 지게상여놀이를 들 수 있다.

지게를 가지고 하는 상여놀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나무꾼들이 지게를 연결하여 지게상여를 만들고, 상여소리에 맞춰 장사를 지내는 놀이를 하였다. 이때 마을에서 마음씨가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을 지목하여 장사를 지내는 흉내를 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봄에 진달래가 피면 진달래꽃으로 지게를 장식한 꽃상여를 만들어 나무꾼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장례를 치르는 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이때 앞에서 누군가가 상여소리를 하면 나무꾼들이 뒷소리를 받아서 함으로써 상여놀이뿐만 아니라 상여소리 역시 매우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학습되는 효과가 있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양구바랑골지게놀이(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강원도 출연작 설명서), 스웨덴기자아손, 100년전 한국을 걷다(아손 그렙스트 지음·김상열 옮김, 책과함께, 2005).
필자 | 나경수(羅景洙)

궁술회(弓術會)

⇨ 활쏘기대회[射會]: 봄편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

정의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機池市里)에 전승되고 있는 줄다리기. 윤년(閏年)이 드는 해 음력 3월초에 인근의 마을들은 수하(水下)편과 수상(水上)편으로 나뉘어 시장의 번성과 지역의 제액초복(除厄招福) 그리고 대동(大同)을 위하여 줄다리기를 한다.

이칭 기지시는 틀못[機池] 또는 틀모시라고도 불러왔고, 줄다리기는 원래 줄난장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기지시줄다리기를 틀모시줄난장이라고 불렀다. 줄다리기로 인하여 난장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유래 기지시리는 본래 면천군(沔川郡) 승선면의 지역으로서 틀처럼 생긴 못이 있다 하여 틀모시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에 면천의 남쪽과 서쪽의 고을 사람들이 한양을 가려면 이 곳 면천을 거쳐 기지시를 통과해 한나루[漢津]를 건너야 했다. 이러한 교통의 요지인 기지시에 이미 19세기 중엽 이전에는 정기시장(市場)이 섰고, 내포(內浦) 지역에서 면천 읍내장과 더불어 가장 번성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 후 점차 상인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줄다리기가 행해졌다.

현지 고로(古老)들의 증언에 의하면, 1910년 이전부터 1940년대 초까지 윤년마다 줄난장을 벌였다고 한다. 물론 처음에는 줄난장의 수준은 아니었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대규모의 줄다리기로 발전했다. 1940년대 초반 이후 20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196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다시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 후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지정을 받고, 여러 차례 백제문화제에도 참여했으며, 1981년에는 '국풍(國風)81'에 참가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2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을 받았다.

한편, 시장의 번성과 촌락의 형성이 계기가 된 줄다리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곧 예부터 이 곳의 지형은 풍수상으로 보아 옥녀직금형(玉女織錦形)이라고 한다. 기지시라는 지명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 이 곳의 지형이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이기 때문에 베틀 기(機)자가 들어가고, 또한 짠 베를 물에 담가서 우려낼 못이 필요하다 하여 연못 지(池)자가 합성이 된 것이다. 시(市)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국의 시장에서 줄다리기를 하여 베를 짜고 마전(피륙을 삶거나 빨아서 바래는 일)하는 흉내를 내면 모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줄을 당기는 것이 마전하는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삼베, 짚, 늑다리, 칡넝쿨 따위로 줄을 꼬아 소규모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지시가 베틀에서 유래된 지명이 아니라, 농경지에 물을 대는 좁은 둑에 둘러싸인 저수지인 틀못이가 한자어 기지(機池)로 표기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설화에 의하면 이 곳의 지형이 지네 형국이기 때문에 지네 같은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지기(地氣)를 누르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화들은 시장의 번영을 위하여 난장으로서 시작된 줄다리기를 정당화하는 데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

내용 및 특성 현재 기지시줄다리기는 보존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윤년마다 하는 대제(大祭)는 나흘간에 걸쳐서 하는데, 첫쨋날은 당제와 용왕제를 지내고, 둘쨋날과 셋쨋날은 여러 민속 놀이를 부대행사로 펼치며, 마지막 날에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 일시는 양력 4월 1일로 고정시켰다. 소제(小祭)는 매년 음력 정월 그믐과 이월 초하루에 치르는데, 이때에는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다.

줄다리기 한 달 전부터 수상(水上)과 수하(水下)에 속한 마을들이 각각 짚단을 가져와 줄을 만든다. 먼저 짚단을 한 주먹씩 넣고 비벼 꼬아서 작은 줄을 만들고, 이 작은 줄 70가닥을 다시 큰 줄로 만들고, 큰 줄 세 개를 마련한 후 줄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거대한 원줄을 만든다. 여기에 줄을 잡아당기는 데 쓸 수 있도록 곁줄을 연결한다. 줄은 암줄과 숫줄 두 개를 만드는데, 암줄의 머리는 타원형으로 크게 만들고 숫줄의 머리는 원형으로 작게 만든다. 암숫줄 모두 길이는 200미터 정도 되고, 직경은 1미터, 둘레는 1.8미터에 달한다.

줄이 완성되면, 일종의 전야제로서 당제와 용왕제를 지낸다. 당제는 마을의 동쪽에 있는 국수봉에서 지내는데, 유교식의 제사에 이어 승려의 독경과 무당의 굿으로 진행된다. 이를 보존회에서는 유불











〈기지시줄다리기〉 1 용왕제단 2 유교식제사 3 승려 독경 4 무당굿 5 줄머리 6 비녀목꽂기 7 줄다리기(청기편) 8 줄다리기(황기편) 9 시가행진 충남 당진군 송학면 기지시리 김대벽

선(儒彿仙)의 합동 제사라고 한다. 다음에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서 용왕제를 모시는데, 제사 방식은 당제와 동일하다. 밤에는 일종의 축원 행사로 시장에서 굿을 벌인다.

둘쨋날과 셋쨋날은 풍물 경연, 씨름, 그네뛰기, 궁도, 연날리기, 시조 경창, 민요 경창, 널뛰기, 윷놀이, 새끼 꼬기, 베짜기, 그리고 효자효부 선발과 표창이 부대 행사로 벌어진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면사무소 광장에서 대회식을 치르고, 오후 2시부터 약 두시간 동안 줄을 옮긴다. 줄을 마련해놓은 시장통에서 줄을 당기는 홍척동까지 줄을 운반하는 과정이다. 숫줄이 앞에 서고 암줄이 뒤를 따른다.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양편 주민들은 풍물을 울려 기세를 올리며 줄 옆에 모여 선다. 중앙선에 기지시의 두레농기를 꽂고 좌우에 수상의 청기(靑旗)와 수하의 황기(黃旗)를 세운다. 양편은 대장이 지휘하는데 심판의 신호에 따라서 첫 번째 신호에 줄을 잡고 두 번째 신호에 줄을 들고 세 번째 신호에서는 줄을 당겨 끌어간 쪽이 이긴다.

수하편 곧 암줄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매번 수하편이 승리한다. 수하 쪽이 수상 쪽보다 지형이 낮아서 수하가 줄을 당기기에 유리하다. 승부가 결정이 되면 줄다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넓은 들판에 널려 있는 줄에 달려들어 칼이나 도끼 따위로 줄을 잘라 간다. 이 줄들은 개인이나 가정의 각종 소망을 이루는 용도로 쓰인다. 특히 암줄과 숫줄을 결합시켰던 비녀목을 꽂았던 부분의 줄은 불임과 요통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 원줄은 썰어서 논에 거름으로 쓰기도 한다.

의의 기지시줄다리기에는 시장의 번성을 위한 난장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 벼농사 지대의 줄다리기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한편 예전에는 충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줄다리기가 전승되었지만, 현재로는 기지시줄다리기가 가장 대표성을 지니게 되었다.

참고문헌 | 틀못시 유래(김기호, 당문사, 1981),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45호 기지시줄다리기(임동권, 문화재관리국, 1982), 機池市 줄다리기(李禹永, 集文堂, 1986),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기지시줄다리기(宋鳳和,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1998), 중요무형문화재2 -연극과 놀이-(문화재연구회, 대원사, 1999), 기지시 줄다리기의 재조명(이인화, 考古와 民俗4, 韓南大學校博物館, 2001), 기지시 줄다리기(이필영,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韓·日 兩國의 民俗줄다리기에 관한 考察 -機池市와 刈和野줄다리기를 中心으로-(李載喆, 韓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필자 | 이필영(李弼泳)

닭싸움[鬪鷄]

정의 훈련시킨 수탉끼리 싸우게 하여 승패를 가르는 놀이. 제주도에서는 닭싸움을 씨왓붙임이라 한다. 닭싸움은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즐기던 놀이였다. 현재는 투계(鬪鷄)대회라는 이름으로 창녕의 3·1민속문화제 같은 각종 민속행사 속에서 많이 행해진다.

기원 닭싸움의 연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미 기원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전한(前漢) 사마천(司馬遷)이 저술한 『사기(史記)』에는 "계씨(季氏)와 후씨(邱氏)가 닭싸움을 붙였다. 계씨는 닭의 날개에 겨자가루를 뿌렸고 후씨는 발톱에 쇠갈고리를 끼웠다. 계평자(季平子)가 화가 나서 후씨를 침범하니 후소백(邱昭伯) 역시 평자에게 화를 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당대 닭싸움의 거친 일면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기록이다. 이규



닭싸움
광주시 남구 칠석동 김대벽

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실린 '봄날에 협객과 노니면서(春日同俠客遊)'라는 시에서는 투계(鬪鷄)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춘향전(春香傳)』에서는 이도령이 춘향이를 찾는 장면에 "투계소년(鬪鷄少年) 아이들은 야입청루(夜入靑樓)하였으니 지체말고 어서가자."라는 구절이 있다. 투계소년은 다름 아닌 닭싸움을 붙이는 소년을 말한다.

내용 닭싸움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특히 경남 일대에서 활발히 전승되어왔다. 무라야마(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서 닭싸움을 행하는 곳을 확인해보면 경남이 여덟 곳으로 제일 많다. 진양, 함안, 창녕, 밀양, 울산, 김해, 고성, 사천 그 여덟 곳이다. 창녕에서 전승되는 닭싸움을 중심으로 그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싸움닭으로는 인도의 샤모, 일본의 한두, 재래종의 혼혈인 우두리 같은 닭들이 있다. 이 닭들에게는 모이로 뱀, 미꾸라지, 달걀 따위를 준다. 모이는 어릴 때부터 키보다 높이 주는데, 목이 길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또 목을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기 위하여 먹이를 이리저리 빙빙 돌려가며 준다. 싸움닭은 생후 두세 달이 지나면 한 마리씩 우리에 나누어 키운다. 8~9개월이 지나면 닭끼리 싸우는 연습을 시키게 된다. 경기는 둥우리에서 벌어지며 주저앉거나 주둥이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것이다. 싸움닭은 앞치기, 뒤치기, 턱치기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싸움닭은 무게가 보통 4.5~5킬로그램이다. 이들이 날아서 상대방의 머리를 치는 데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싸움이 길어질 경우는 한 시간 이상 이어진다. 닭싸움에서는 내기를 걸기도 한다. 윗닭과 아랫닭으로 나누어 돈을 걸며, 약 10퍼센트는 닭 주인에게, 나머지는 내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진다.

인접국가사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대규모로 닭싸움이 행해지는데 싸움닭에게는 쇠발톱을 붙인다. 쇠발톱이 매우 날카롭고 강하므로 금방 승부가 나며 상당수의 닭이 죽는다. 이 곳의 닭싸움 시합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도박성이 강하다. 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는 1958년 인도네시아 발리의 닭싸움을 현지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문화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Culture)』에 수록한 바 있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集, 史記, 春香傳,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靈山地方의 나무쇠싸움, 줄다리기(金光彦·張籌根, 民俗資料調査報告書12, 文敎部文化財管理局, 1968), 남국의 민속놀이(진성기, 흥인문화사, 1975), 문화의 해석(클리퍼드 기어츠 저, 문옥표 옮김, 까치글방, 1998).

필자 | 유승훈(柳承勳)

마산오광대(馬山五廣大)

정의 경상남도 마산시 자선동에서 전승되는 탈놀음. 다른 지역의 탈놀음이 대부분 정월 대보름에 연희되는 데 비하여, 마산오광대는 어촌의 봄축제로 음력 3월 그믐이나 4월 초순에 연희되었다. 1890년대부터 낙동강 중류 지역인 율지리의 오광대놀음이 창원에 전파되고 다시 마산에 전파되어, 주민들을 중심으로 놀게 되었다.

유래 19세기 낙동강 중류 지역인 율지리(栗旨里, 경남 합천군 덕곡면)는 하운(河運) 교통의 중심지였다. 낙동강 하구로부터 물건을 실은 배가 올라와서 짐을 풀고, 내려갈 때는 다시 주변에서 모여든 물건을 싣고 갔다. 상품의 집산장이자 하시장인 율지리는 언제나 사람으로 붐비고 경제적으로 흥청거렸다. 오광대가 이 곳에서 발달한 것은 이런 요인 때문이었다. 오광대만이 아니라 전국의 유랑연희단이 순회 도중에 반드시 거쳐 가는 시장이기도 했다. 상품과 정보의 유통이 가장 빠른 지역도 이 곳이었다.

오광대놀음은 대표적인 광대의 숫자를 지칭한 것으로, 역시 이 탈놀음도 다섯 광대(오방신장역 또는 양반, 말뚝이, 영감, 할미, 제물집역)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탈놀음과 유사한 인물과 내용이 포함된 것은 18세기 이후 서울과 지방의 연희자들이 빈번하게 교류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은 율지에서 배웠고, 통영과 마산은 다시 창원에서 배웠다. 이것은 연희자들의 교류나 이주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통영오광대의 연희자 이봉근(李琫根)과 채구생(蔡九生), 마산오광대의 이영재(李灤宰)와 김순일(金珣壹)의 일대기는 이를 입증한다.

19세기말부터 193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 시국은 불안해졌고, 한편으로는 일제의 전통 민속 탄압책의 영향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다른 지역의 탈놀음들은 복원되는 전기를 마련했지만, 마산의 경우는 연희자들의 고령화와 마산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연희자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옛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말았다.

내용 마산에서는 3월 그믐께 별신제를 한 후에 오광대놀음을 했다. 3년마다 행한 소제(小祭)와 10년마다 행한 대제(大祭)가 있었다. 무당이 주재하는 별신제와는 별도로 탈춤의 연희자[契員]들은 연초부터 주민에게 비용을 거두어들이고 탈을 만들며 행사를 준비했다. 공연 장소로는 보통 서원(書院)골이라고 부르는 자산동(慈山洞) 놀이터를 이용했다. 마산오광대를 주도한 김순일은 장기간 기생조합장을 연임한 인물이었다. 영남의 풍물이나 지신밟기에 자주 사용하는 덧뵈기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추는 덧뵈기춤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생긴 것이다. 악사들은 자신이 맡은 악기 이외에도 노래와 춤에 익숙했다. 공연 도중에 부르는 삽입가는 중타령, 약타령, 팔도강산 유람가, 죽장망혜, 신세타령, 아기 어르는 노래, 무가, 상여노래 같은 일반인들이 자주 부르는 친숙한 노래들이었다.

의의 현재 단절되어버린 마산오광대는 지난날 낙동강 유역의 연희 문화를 계승하고 빛낸 탈놀음으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韓國假面劇(李杜鉉, 韓國假面劇研究會, 1969), 야류오광대(강용권, 형설출판사, 1977), 野遊·五廣大假面劇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4),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정상박, 집문당, 1986), 韓國의 탈놀이(徐淵昊, 열화당, 1990),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전경욱, 悅話堂, 1998), 오광대소고(宋錫夏, 石南 宋錫夏 -한국 민속의 재음미上-,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서연호(徐淵昊)

삘기뽑기

정의 음력 3월을 전후한 시기에 띠풀의 어린 새순인 삘기를 뽑으며 노는 놀이. 주로 아이들 사이에서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난날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삘기를 뽑아 먹기도 했다.

내용 모초(茅草), 백모(白茅), 백모향(白茅香) 따위로 불리는 띠는 벼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들에 널리 자생하는 풀로서 높이는 30~80센티미터 가량 되고, 땅속 깊게 뻗은 뿌리줄기 마디마다 잔털이 나 있다. 잎은 긴 칼 모양이며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인데, 이삭 모양의 꽃은 음력 3~4월 무렵에 잎보다 먼저 나와 길게 자란다.

삘기는 띠의 꽃대가 채 피어나기 전에 풀잎 속에 둘러싸여 있는 어린 이삭을 일컫는다. 그 빛깔은 은백색이고 은은한 풀냄새가 나는데 맛은 연하고 부드러워 입에 넣고 씹으면 사르르 녹아든다. 삘기뽑기는 으레 등하교길에 양지바른 무덤 주변이나 길섶에서, 또는 여자아이들이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하는 놀이이다. 이때 누가 더 긴 것을 뽑았는지 내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수[花穗]가 피기 시작하면 억세져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삘기뽑기는 봄철 한때 잠시 유행했다가 끝나기 마련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大韓植物圖鑑(李昌福, 鄕文社, 1980).

필자 | 강성복(姜成福)

삼색유산놀이(三色遊山-)

정의 나주 지방에서 전승되는 세시놀이. 전남 지역의 양반마을에서는 봄이 되면 으레 산으로 봄놀이 가는데, 이를 흔히 '화전놀이', '산놀이'라고도 하고, '유산(遊山)'이라고도 한다.

내용 봄에는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머슴에게 지워 산에 올라간 양반들은 남자들인 경우 시회를 열고, 여자들은 강강술래와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즐긴다. 전남 나주에서는 여자들이 주동이 되어 남자 재인들을 불러다 하루 동안 춤과 노래를 즐기는 산놀이가 있다. 이를 '삼색유산놀이'라고 하는데, 삼색이란 양반, 평민(농군), 천민(백정, 대장장이, 당골)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보통 음력으로 4월 10일경에 놀던 놀이지만 본래는 음력 3월 보름에 놀았다. 음력 3월 보름이 되면 양반가를 비롯한 여인네들이 삼향사 골짜기와 남산공원에서 꽃구경을 하면서 하루 동안 풍류를 즐겼다. 놀이 경비는 평소 양반가 출입이 잦은 재인들이 집집마다 쌀과 돈을 염출해서 마련한다. 삼색유산놀



삘기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이종한

이를 하기 전 이른 아침에 재인들은 준비된 술과 밥, 떡, 나물 등 음식으로 개최 장소인 맛재에서 산신제를 먼저 모신다. 이는 이 날 하루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뜻이라 한다. 그러면 여인네들은 자기 집에서 출발하기 전 먼저 성주에 간단히 제를 지낸 뒤 맛재에 모여서 삼현육각에 맞추어 논다. 유산놀이를 마치고 나면 여인네들은 그로부터 3일 후인 3월 18일에 다시 그곳에서 반드시 후렴풀이를 한다. 점심을 먹고 난 후 한바탕 삼현육각에 맞추어 즐기는데, 삼색유산놀이를 하고 후렴풀이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 재앙이 따른다고 믿는다.

삼색유산놀이는 현재 그 시기에 있어 양력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에 나주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의의 삼색유산놀이는 예사 마을의 산놀이와 달리, 신분을 넘어서 나주의 여인들이 모두 모여 춤추고 노래하고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즐겁게 놀았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달리 지주나 양반, 평민, 천민이 함께 어울린다는 점에서 사회사적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전라남도·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태학사, 2002).
필자 | 서해숙(徐海淑)

전춘(餞春)

정의 음력 삼월 그믐날, 봄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며 경치가 좋은 산과 계곡을 찾아 먹고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는 행위.

내용 이때를 맞이하여 시인묵객들은 지나가는 봄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시로 적어 달래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하루를 보낸다. 음력 삼월은 계춘(季春)이어서 봄의 마지막 달이고 그믐날은 봄의 마지막 날이다. 해마다 봄은 다시 오지만 그래도 가는 봄이 서운해서 감상과 춘흥으로 봄잔치를 하는 것이다. 18세기 조선 정종(正宗) 때 사람 신자하(申紫霞)는 "올해 핀 꽃은 작년 봄에 핀 것과 거의 같은데, 해마다 꽃은 떨어지니 애석함이 새롭구나(今年花似去年春 花落年年惜別新)." 하며 지나가는 봄이 아쉬워 전춘을 읊었다.



전춘
『朝鮮の年中行事』 조선총독부

의의 삼월 삼짇날의 답청(踏靑)이 새로운 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것임에 비해, 전춘은 화창한 봄이 지나감을 애석해 하며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답청이나 전춘 모두 음식을 장만하여 산으로 들로 나가 놀이를 하며 하루를 즐긴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는 봄의 계절이 주는 흥을 한껏 만끽하고자 함이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歲時風俗(崔常壽, 瑞文堂, 1988),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우리나라 세시기(李尤熙, 金龍圖書株式會社, 1998),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한미옥(韓美玉)

지게상여놀이

☞ 개꽃상여놀이: 봄편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

정의 음력 3월에 70세 이상 노인들을 경치 좋은 곳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위로하는 잔치.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 월내조에서는 강릉의 풍속으로 청춘경로회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강릉 풍속에 노인을 공경하여 매년 좋은 계절을 당하면,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청해서 명승지로 모셔다가 위로한다. 이를 청춘경로회라 한다. 비록 종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70세가 된 사람은 모두 모임에 나오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강릉부 풍속조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청춘경로회: 고을 풍속이 늙은이를 공경하여 매양 좋은 절후(節侯)를 만나면, 나이 70 이상 된 자를 청하여 경치 좋은 곳에 모아놓고 위로한다. 판부사(判府事) 조치(趙**豸**)가 의롭게 여겨서 공용(公用)에서 남은 쌀과 포목을 내어 밑천[泉貲]을 만들고 자제 중에서 부지런하며 조심성 있는 자를 가려서 그 재물의 출납을 맡아 회비로 쓰도록 하고 청춘경로회라 이름하였다.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으며, 비록 노부의 천한 사람이라도 나이 70이 된 자는 모두 모임에 오도록 하고 있다."

우선 청춘경로회라는 모임의 명칭은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을 위하는 잔치라는 데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모임은 따로 그 일시를 정해둔 게 아니라 연중 시절이 좋을 때, 예컨대 새순이 돋고 꽃이 만발하는 봄이나, 만산홍엽(滿山紅葉)의 가을에 수시로 열린 것이었다. 이 모임의 경제적 기반은 관에서 출자한 회비를 바탕으로 하였다. 아마도 당시의 강릉부사로 생각되는 인물이 관의 예산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내놓았고, 사족의 자제들 가운데 반듯한 이를 가려 모임의 업무를 전담시켰던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을 뿐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면모는 청춘경로회가 평등에 기초한 축제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新增東國輿地勝覽.
필자 | 한양명(韓陽明)

투계(鬪鷄)

⇨ 닭싸움[鬪鷄]: 봄편

풀각시놀이[閣氏戱]

정의 봄철에 여자 아이들이 지랑풀이나 각시풀 또는 무릇이나 진풀 같은 풀을 가지고 각시 인형을 만들어 노는 놀이.

어원 풀각시놀이라는 명칭은 풀을 가지고 각시 인형을 만들고 논다는 데서 온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각시놀이 또는 풀각시라고도 하고 곤각시만들기라고 달리 부르기도 한다.

유래 인형의 기원에는 종교성 또는 주술성뿐만 아니라 상당히 일찍부터 장난감으로서 요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형은 처음에는 어느 것이나 모두 간소한 구성으로, 행복을 부르고 재액(災厄)을 쫓는 신앙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형은 세계 각지에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인형을 만들어 놀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풀각시에 대한 자료는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아가씨들이 푸른 풀을 뜯어다가 머리채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것을 붙인 다음, 붉은 치마를 입히는데, 이를 각시라 한다. 이부자리와 침병(枕屛)을 쳐놓고 놀기도 한다." 하였다.

내용 각시인형을 만드는 재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풀을 가지고 각시머리를 만드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대략 한 뼘 정도의 수수깡이나 대나무,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몸통으로 삼아 준비한다. 그리고 담장 밑이나 밭두렁에 자란 지랑풀이나 각시풀 또는 무릇의 잎을 필요한 양만큼 뜯어 머리카락으로 마련한다. 이 풀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손으로 비벼서 숨을 죽여 부드럽게 만든 다음, 가지런히 추려 몸통으로 준비한 대의 상단(上端)에 실로 묶어 머리처럼 곱게 만든다. 그러면 머리채처럼 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머리처럼 땋아서 처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은 각시로 만들기도 한다. 더 잘 만드는 경우에는 팔을 만들어 치마와 저고리를 입혀 제대로 각시인형을 만들기도 한다.

풀각시가 완성되면 또 다른 신랑(新郎)인형을 만들고, 대례상(大禮床)을 차린 후 서로 절을 시키며 혼례를 올린다. 신방(新房)을 차리고, 흙 음식을 담은 사금파리 같은 것으로 음식상을 차려 서로 나누어 먹는 시늉을 하면서 논다.

지역사례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는 각시놀이라 하여 계집아이들이 여름철에 각시풀과 수수깡으로 각시를 만들어 논다. 한 뼘씩 자란 각시풀을 한 움큼 뜯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숨을 죽여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만들고, 풀의 밑쪽을 실로 묶어서 각시 머리

카락을 만든다. 수수깡을 한 마디 잘라서, 한 쪽 자른 곳의 속을 파내고 여기에 각시풀 묶음을 박은 다음, 세워서 머리를 땋아 댕기를 드리거나 쪽을 짓는다. 경남에서는 풀각시라 하여 여아들이 물곳(물렁개), 각시풀, 비단개를 뜯어다 나뭇가지에 매고 머리를 땋아 성냥개비 같은 나뭇가지(또는 건명태의 관자뼈)를 비녀로 하여 쪽을 지고, 치마와 저고리를 해서 초인형(草人形)을 만들어 논다. 물곳으로 만들기 전 소금물에 담가 숨을 죽이고 땋기도 한다. 또한 이 지역에는 마늘의 줄기를 잘게 찢어서 머리를 땋고 풀각시 모양 낭자를 트는 마늘각시만들기 놀이도 있었다.

경기와 충남에서는 풀각시라 하여 만들어 논다. 3월이 되면 양지쪽 울 밑에는 각시풀이 파릇파릇 자라서 한 뼘 가량 된다. 소녀들은 젓가락 길이만한 나뭇가지에다 각시풀을 뜯어다 실로 매고 뒤로 젖혀서 두 갈래나 세 갈래로 땋아서 풀각시를 만든다. 각시풀을 땋은 것도 마치 소녀의 소담한 머리채 같으며, 여기에 고운 천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만들어 입혀서 인형을 만든다.

의의 세시놀이는 대개 풍년을 기원하고, 사악한 악귀를 물리치며, 액을 막고 복을 부르는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순한 놀이도 이렇듯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세시놀이가 되고 보면 주술성과 신앙성이 가미되면서 더욱 확고한 전승력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풀각시놀이는 단순한 인형 만들기 놀이이면서도, 통과의례 중 혼례라고 하는 앞날의 일을 미리 기대하고 꾸며보는 모방주술성이 짙은 여자아이들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희는 세계 여러 민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이들은 이렇게 그 사회의 생업이나 의례를 흉내 내는 놀이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고, 사회의 관습을 익히게 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장주근, 대한기독교서회, 1974), 남국의 민속놀이(진성기, 흥인문화사, 1975),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필자 | 김지욱(金志昱)









〈풀각시놀이〉
1 풀꼬기
2 머리만들기
3 풀옷입히기
4 신랑인형과 풀각시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풀싸움

정의 음력 3~4월 무렵에 풀잎이나 화초를 꺾어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 옛 문헌에는 초전(草戰), 초희(草戲), 투초(鬪草), 교전희(較戰戲) 따위로 기록되어 있다. 풀싸움에 주로 이용되는 식물은 잔디, 자귀풀, 억새, 갈대, 질경이, 토끼풀, 제비꽃 같은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지만, 더러는 잎사귀가 여럿 달린 나뭇잎이나 꽃망울을 이용하기도 한다.

내용 풀싸움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풀도 백초(百草)가 등장할 정도로 각양각색이다. 근래까지 아이들 사이에서 널리 전승되었던 풀싸움놀이의 유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물방울뺏기: 주로 잔디를 이용한 겨루기이다. 봄철이 되면 4~5센티미터 남짓한 잔디의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것을 뽑아서 엄지와 검지의 손톱 사이에 살짝 물린 다음, 훑으면 줄기 끝에 끈끈한 수액이 방울처럼 맺힌다. 이때 두 사람이 서로 진액을 마주 대면 어느 한쪽에 흡수되는데, 상대의 물방울을 빼앗으면 승자가 된다.

② 무늬맞추기: 자귀풀을 이용한 놀이이다. 콩과에 속한 자귀풀의 잎은 깃 모양의 겹잎으로 어긋맞게 난다. 그 잎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암수가 교접을 이룬 것과 유사한 모양(≪ 또는 ≫)으로 떨어진다. 이때 잘라진 한 쪽 잎을 손에 감춘 뒤 상대로 하여금 그 무늬(암수)를 알아맞히게 한다.

③ 잎사귀따기: 잎사귀가 여럿 달린 아카시아 나뭇잎 같은 것을 엄지와 중지로 세게 튀겨서 떼어내는 놀이이다. 방법은 각자 나뭇잎 하나씩을 따서 가위바위보로 차례를 정한 다음 이긴 사람이 먼저 나뭇잎을 튀기는데, 상대보다 적은 횟수에 잎사귀를 떼어내면 승자가 된다. 또는 하나의 나뭇잎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따내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남은 잎사귀를 모두 떼어내면 승부가 난다.

④ 줄기끊기: 풀잎의 줄기를 엇갈리게 걸고 동시에 잡아당겨서 상대의 것을 먼저 끊어지게 하는 놀이이다. 토끼풀이나 질경이처럼 줄기가 억센 풀이 겨루기에 안성맞춤이다.

⑤ 풀잎맞추기: 술래놀이의 일종이다. 가위바위보로 순위를 가린 다음, 일등을 한 아이가 하는 대로 뒤쫓아 다니며 여러 종류의 풀을 뜯어와서 확인을 한다. 이때 일등이 풀잎 하나를 내밀면 나머지 아이들도 동일한 종류를 내놓아야 하는데, 일일이 대조를 해서 엉뚱한 풀을 뜯어왔거나 빠뜨린 아이는 술래가 된다. 또는 두 패로 편을 짜서 놀이를 할 수도 있다.

19세기 문인화가로 널리 알려진 권용정(權用正)이 지은 『세시잡영(歲時雜詠)』은 여아들이 손에 쥔 풀잎을 서로 내밀며 놀이하는 정겨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잘 묘사하였다. "화창한 날씨에 봄놀이 나온 계집아이들, 푸른 잎 붉은 잎 서로 내밀며 다투네, 꿩사냥 토끼몰이 도롱뇽 잡지 않고, 저희들은 따로 풀싸움놀이 있다 하네(嬉春女兒趁晴天 拈綠抽紅較後先 稚兎人魚俱不用 儂家別有草投箋)."

이 밖에도 억새풀이나 갈대처럼 같이 키가 큰 식물의 줄기를 뽑아서 누가 멀리 던지는가 다투거나, 미리 시간을 정한 다음 많은 종류의 풀을 뜯어오기, 꽃망울 따기, 풀이름 알아맞히기 같은 놀이들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된다.

인접국가사례 풀싸움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루 전승되었던 놀이의 하나이다. 중국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단오에 여러 가지 풀싸움놀이를 벌인다(五月五日有鬪百草趾戲)."라는 내용이 있다. 또 유





1 풀싸움
2 잎사귀따기
충북 옥천군 심디스마

우(劉禹)는 오왕(吳王)과 서시(西施)의 풀싸움을 시로 남겼으며, 당의 유속(劉餗)도 『수당가화(隋唐嘉話)』에서 "중종 때 안락(安樂)공주가 단오에 풀싸움을 하였다."라고 적고 있으며, 명대의 소설 『홍루몽(紅樓夢)』에는 등장 인물들이 저마다 화초를 꺾어서 풀싸움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다.

일본에서는 풀싸움을 초합(草合), 투초(鬪草), 풀씨름[草木相撲]이라 불렀으며 8~9세기부터 궁정의 귀족들이 즐겼다. 가장 오랜 기록은 818년에 나온 『문화수려집(文化秀麗集)』에 실린 것으로, "백초(百草)로 겨루고 백화(百花)로 다툰다."라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6세기 말 성덕태자가 건립하였다는 오사카 사천왕사(四天王寺)에 소장된 『선면법화경책자(扇面法華經册子)』에는 두 계집아이가 마주 앉아 풀싸움을 하는 그림이 보인다.

의의 풀싸움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놀이이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갖가지 초목의 이름을 자연스레 익힐 뿐 아니라, 식물의 특성을 세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는 지혜를 키우게 된다. 놀이의 대상과 놀이감을 거의 전적으로 생활의 현장에서 찾아야 했던 지난날, 흔하디흔한 잡풀을 매개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겨루기의 전통은 건강한 놀이문화가 급속히 사라지는 오늘의 세태에 신선한 청량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 歲時雜詠,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풀싸움과 꽃싸움(리석중,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88),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부여의 민속놀이(강성복, 부여문화원, 1994),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동아시아의 놀이(김광언, 민속원, 2004).

필자 | 강성복(姜成福)

호드기불기

정의 봄철에 물이 오른 버드나무나 미루나무 가지로 호드기를 만들어서 부는 아이들 놀이의 하나. 호드기란 그 소리에서 유래된 명칭이며, 지방에 따라서는 호두기, 횃대기, 호띠기, 호뚜기, 버들피리, 풀피리, 날라리 따위로 불린다.

내용 음력 3월이 되면 시냇가에 자라는 버드나무에





1~2 호드기불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물이 오른다. 그 가지를 꺾어 한쪽 끝의 껍질을 일정한 길이로 벗긴다. 그런 다음 벗겨낸 부분을 잡고 비틀면 물이 오른 나무껍질이 조금씩 돌아간다. 이어서 그 껍질을 칼로 잘라낸 뒤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잡아당기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속이 텅 빈 껍질만 남고 나뭇가지는 빠져나온다.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한쪽 끝의 표피를 칼이나 앞니로 긁어내고 납작하게 입구를 좁히면 호드기가 완성된다.

호드기는 그 길이와 굵기에 따라 음의 높낮이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가령 길이가 짧은 호드기를 입에 대고 불면 '호득호득'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지만, 반대로 길게 만들면 그 음도 긴 여운을 띠게 된다. 또 호드기의 구멍이 가늘면 고음이 나고, 굵은 버들가지를 이용하면 저음이 난다. 솜씨가 좋은 아이는 피리처럼 여러 개의 구멍을 내어 불기도 하는데, 전승 지역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모양과 소리가 난다. 밤에 호드기를 불면 집 안으로 뱀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호드기소리는 귀신을 부른다고 하여 밤에 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속신이 있다.

참고문헌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강성복(姜成福)

활쏘기대회[射會]

정의 활쏘기의 기술이나 실력을 겨루기 위한 모임. 활쏘기가 활에 화살을 걸어 쏘아 목표물을 맞히는 행위라면, 활쏘기대회는 개인 또는 단체가 활쏘기에 참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경기이다. 일정한 경기 규칙 아래 궁술대회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활쏘기대회는 전통 놀이의 하나이다. 일명 궁술회(弓術會)라고도 부른다.

유래 활쏘기대회는 그 유래가 꽤 오래다. 일설에는 중국 고대에 대사례(大射禮)라는 활쏘기대회에서 과녁[口]에 맞춘 화살을 기록하는 사람[人]을 글자로 만든 것이 '사(史)'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대회도 역시 오래 되었다. 고구려가 매년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활쏘기대회가 사냥대회와 함께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는 비류왕 때 사대(射臺)를 만들어 매월 초하루에 습사(習射)를 하였고, 신라는 매년 8월 15일에 활쏘기를 하여 포상하였다. 고려도 또한 활쏘기를 통해 무예를 권장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활쏘기대회는 삼국 이래 거의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민간에서 활쏘기대회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 유교사회였던 조선왕조는 육례(六禮) 가운데 하나인 활쏘기를 선비들에게 장려하는 한편, 국왕이 대사례(大射禮)를 실시하고 지방에는 향사례(鄕射禮)를 시행하였다. 태종 때부터는 활쏘기 연마를 위해 궁궐 안에 사정(射亭)을 처음 설치하는 한편, 도성 내에는 사청(射廳)을 두었다. 또한 무과를 비롯한 각종 무관 시험에서 활쏘기를 크게 강조하였다. 특히 무과에서 활쏘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민간에서의 활쏘기대회가 성행하는 배경이 되었다.

16세기부터는 유교 이념이 확산되면서 춘추로 향사례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 향사당(鄕射堂)이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향사당 이외에 새로이 민간 사정이 등장하였다. 이중화의 『조선의 궁술』에 따르면, 선조 때 경복궁 동쪽에 오운정(五雲亭)을 지어 일반인에게 개방하니 이것이 민간 사정의 시작이라고도 한다. 그로부터 서울과 지방에 점차 많은 사정이 생기기 시작하여 전국에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민간사정을 중심으로 편사라고 불리는 활쏘기대회가 성행하였다. 무예 연마와 심신 수련을 위한 활쏘기대회가 총포의 등장으로 점차 여가 수단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하여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매년 3월에는 서울과 지방의 무사와 동리 사람들이 모여 과녁을 펼쳐 걸고 편을 나누어 활쏘기대회를 열어 승부를 겨루었다. 아울러 9월에도 역시 활쏘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에 이르러 춘추로 서울과 지방에서 활쏘기대회가 하나의 세시풍속으로 정착하는 바탕이 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편사 중심의 활쏘기대회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09년 최초의 사설 궁술 단체인 사궁회(射弓會)가 조직되었는가 하면, 1922년에는 조선궁술연구회(1926년 조선궁술회로 개칭)가 창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32년부터는 제1회 전조선궁술대회가 열렸으며, 이로써 새로이 전국 규모의 활쏘기대회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조선궁도협회(1948년 대한궁도협회 개칭)가 설치되어 활쏘기대회를 주관하는가 하면, 서양의 활인 양궁이 보급되면서 국궁대회와 양궁대회로 나뉘어 발전해 왔다. 한편, 1994년 서울 정도(定都) 6백년을 기념하여 황학정(黃鶴亭)에서 장안편사(長安便射)를 복원하여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다.

내용 활쏘기대회는 그 시행 주체에 따라 국가와 민간으로 구분된다. 국가 주도의 활쏘기대회는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사례(大射禮)와 관사(觀射), 무예 시험을 위한 시사(試射), 군사들의 무예 연마를 위한 습사(習射)로 구분된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활쏘기는 지방에서 유교 질서의 권장을 위한 향사례(鄕射禮), 사족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사회(射會), 지역 내지 단체로 편을 갈라 쏘는 편사(便射)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편사(便射)는 편을 나누어 활쏘기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서, 민간에서 사정을 중심으로 행해진 대표적인 활쏘기대회를 뜻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흔히 활쏘기대회라 함은 바로 편사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가 근대 이후에는 편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궁술대회, 궁도대회, 활쏘기대회로 불러왔다.

조선시대의 민간 활쏘기대회인 편사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 첫째, 사정(射亭) 대항의 터 편사[射亭便射] 둘째, 동리 또는 고을의 구역 안에 있는 사정이 연합해서 다른 고을의 연합팀과 겨루는 골편사[洞便射] 셋째, 도성 안이 한편이 되고 도성의 밖 동촌과 서촌이 각각 한편이 되어 경기를 하는 장안편사(長安便射) 넷째, 사랑과 사랑의 교유하는 무사들이 사원을 편성하여 경기하는 사랑편사(斜廊便射) 다섯째, 사계 상호간의 편시합을 하는 사계편사(斜稧便射) 여섯째, 한량으로만 편성하여 경기하는 한량편사(閑良便射) 일곱째, 한량과 무과 출신이 연합하여 편사하는 한출편사(閑出便射) 여덟째, 당(堂)과 무과 출신 그리고 한량 각각 한 사람이 편을 짜 사정끼리 겨루는 삼동편사(三洞便射) 아홉째, 고종 17년(1880) 종로 이북과 이남을 갈라 편을 짜 시합한 남북촌편사(南北村便射) 열째, 아동들의 궁술 장려를 위한 아동편사(兒童便射)가 그것들이다.

편사는 일년에 봄과 가을 두 번씩 열렸는데, 한 편의 사원(射員)을 15명씩 선정하여 삼순(三巡)에 걸쳐 맞히고 못 맞힌 화살수를 계산하여 승패를 가렸다. 활쏘기대회는 보통 80간(145미터) 거리의 사정(射程)에 높이 열두 자, 너비 여덟 자의 목판으로 된 과녁을 만들어 세우고 원선(圓線)으로 중심을 표시하여 사정(射亭)에서 사수들이 번갈아 활을 쏘는 방식이었다. 이때 기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활 쏘는 한량들 뒤에 나란히 줄지어 서서 소리를 하여 사수들을 격려하였다. 쏜 화살 5개가 과녁에 바로 적중된 것을 신호수가 신호로 알리면 기생들은 북을 울리고 "지화자" 소리를 하면서 한바탕 춤을 춘다.

의의 활쏘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달해왔다. 일찍이 한민족의 장기로 부각된 활쏘기는 고구려에 이르러 동북아 최고의 궁술로 발전하였다. 그 전통을 이은 조선의 활은 임진왜란 때에도 한중일 삼국의 무예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았다. 오늘날 국궁(國弓)이라 불리는 활쏘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예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에서 궁술이 발달한 배경은 각궁(角弓), 편전(片箭) 같은 성능 좋은 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국가와 민간 주도의 활쏘기대회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수렵을 겸한 군사 활동으로 출발한 활쏘기대회는 이후 무예 연마와 함께 심신 수련의 수단으로 성행하다가 민간의 여가 활동으로 정착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시작한 편사는 서울과 각 지방의 활터인 사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활쏘기대회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활쏘기대회의 특징을 이룬다.

또한 민간의 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사는 한국의 활쏘기 문화가 대중화 되고 경기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점은 서양의 근대 스포츠가 클럽 중심으로 발전한 것과 비교할 때 주목되는 점이다. 봄과 가을로 시행한 편사는 향사례의 시행 시기(3월 3일, 9월 9일)와 일치한다. 결국 조선시대의 활쏘기대회가 유교 덕목의 실천을 기반으로 대중화되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특색을 지닌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芝峰類說, 朝鮮武士英雄傳(安自山, 明星出版社, 1919), 朝鮮의 弓術(李重華, 朝鮮弓術研究會, 1929), 韓國의 弓術(梁在淵, 文化財管理局, 1970), 한국의 궁도(대한궁도협회, 1986), 조선초기 무과제도(심승구, 북악사론1, 1989), 韓國洋弓三十年史(韓國洋弓三十年史編纂委員會, 1992), 조선시대 무과에 나타난 궁술과 그 특성(심승구, 학예지7,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0), 한국의 궁술과 그 특성(심승구, 제4회 동북아세아스포츠체육사학회 발표문, 2001), 고구려 무예의 특성과 그 의미(심승구, 역사민속학1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필자 | 심승구(沈勝求)



활쏘기대회 국립민속박물관

나물캐는노래

정의 봄철에 여성들이 산이나 들에서 나물을 캐며 부르는 민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사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만 해안과 평야에 비해 산악 지역에서 많이 전승되었다. 특히 생활 환경이 척박했던 화전(火田)마을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이다.

내용 및 특성 나물캐는노래는 여성들이 즐겨 부르며 사설도 여성의 삶을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봄철 먹거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자위적인 노동요다. 친정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 임에 대한 상사(相思)의 감정, 시집살이의 애환 같은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때 뜯고자 하는 나물을 소재로 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도라지, 곤드레, 딱주기, 냉이, 비름, 취 따위가 있다. 이 나물들은 많이 먹어도 부황기가 없고 배탈이 나지 않았다. 나물을 곡기와 같이 무쳐야 하기에 이른 보리와 송기껍질을 이용하였다. 전통 사회에서 기층민들은 가난에 함몰되어 살아왔다. 특히 강원도 지역 사람들은 화전을 일궈 옥수수와 감자, 콩 같은 농사를 지었으나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 춘궁기의 보릿고개는 나물캐는노래를 만들었다.

나물을 캐는 일은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노동이었지만 시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여성들은 나물을 캐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남을 의식하지 않고 노래를 통해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나물캐는노래는 잡역 노동요로서의 기능에 비해 아라리 계통의 유희요로서의 기능이 많은 노래다.



나물캐기
강원도 삼척시 김상수

특히 유희성과 여성성은 노래를 향유하던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향유할 수 있었던 놀이가 많지 않았으며, 나물캐는노래의 경우는 놀이 도구 이상의 구실을 하였다. 나물을 캐는 동작과 상관없이 음영조로 읊조리는 방식을 취하며, 4음보 내지는 2음보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사례 나물캐는노래는 각 지방의 토리(土理)에 따라 임의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백두대간을 따라 화전형 마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아라리권의 나물캐는노래는 단조롭고 생태적인 데 반해, 메나리권의 그것은 엮음방식이고 해학적인 면이 있다. 다음은 강원 영월군 남면 토교3리와 주천면 판운2리,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충북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에서 각각 불리는 나물캐는노래이다.

도라질캘라면 캐지야 산삼을캘라면 캐지,
나의아부지 귀동냥 병든에 조초나캐구나.
도라지도라지도라지 강원도 금강산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 정든님반찬 만드는구나.
한치뒷산에 곤두레딱주기 님의맘만 같다면,
병자년 대흉년에도 봄살어 나지.
산나물 하러가세 산나물 하러가세,
우리나 산넘세 봄나물 가세
하루 종일 한되백기 두되백기 세되백기,
뜯어다가 오늘 시부모님 공경하세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뚝뚝뜯어 꽃다지, 쏙쏙뽑아 나생이
질로가면 질갱이, 대로가면 대사리
골로가면 고사리, 오용조용 물래쟁이.

의의 나물캐는노래는 여성들의 삶과 밀착되어 대다수 기층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노래한 것이다. 곧 그들의 생활 자체가 노래의 소재이자 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모함에 따라 나물캐는소리는 애써 청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노래가 되고 말았다. 물자가 풍족해지고 경제적 여유를 누림에 따라 나물을 캐던 현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와 동시에 나물캐는소리도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린 상태다. 친자연적 요소에 봄철의 생산성과 세시성을 담고 있다. 고사리꺾자 유형처럼 여성 향유층의 부활의식을 담아내는 각편들이

있고 얼레지 유형처럼 여성 향유층의 이상 의식을 담아내는 각편들이 있다.

참고문헌 | 民潭民謠誌(文化公報擔當官室, 忠淸北道, 1983), 마을축제 오티별신제(이창식, 집문당, 2001), 강원의 민요 I, II(강원도, 2001, 2002).
필자 | 이창식(李昌植)

염전밭가는소리

정의 장마가 오기 전인 4월에서 5월까지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밭[鹽田]을 갈면서 부르는 소리. 이 소리는 일을 하면서 곡괭이나 삽을 이용해서 갯벌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부르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요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염전(鹽田)은 그 자체로 소금밭이라는 말이지만 여기에 밭이 추가되어서 염전밭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은 염전이 왜 밭인가 하는 유래를 해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뭍에서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기 마련인데 천일염(天日鹽)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자염(煮鹽)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는 작업이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밭갈이의 소리가 있게 마련이다.

시기적으로 음력으로 3월에서 4월까지 소금을 만들면서 하는 소리이다. 자염은 바닷물을 간수로 만들고 이 간수를 가마에 부어서 불을 때서 만드는 것이다. 제염법 가운데 지금은 잊혀져버린 자염법(煮鹽法)으로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만 이 소리를 불렀다. 그러므로 이 소리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있기도 한데 이는 천일염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는 자염의 공정 과정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견 타당한 의의를 지닌다. 사실을 따져보면 자염의 분포지가 넓었으므로 이 자염법에 따른 염전밭가는소리는 분명한 존재 의의가 있었다.

자염을 굽는 과정에서 소금의 결정체를 이루는 것이 이 작업의 요긴한 순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고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충족시키면서 노동의 고통을 덜어내고자 소의 힘을 빌려 소금밭가는 작업을 하면서 이 소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염의 분포지는 자염을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 기억만으로 확인되는 곳들은 예전에 경기도에 속했던 인천광역시의 남구 주안동, 경기도 화성 제부도, 충남 태안, 전북 군산 비안도, 강원도 삼척 같은 곳들이다. 이 지역들은 자염이나 그에 준하는 토염(土鹽)이 생산되던 곳들로서 염전밭가는소리가 전승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자염을 얻기 위한 전단계로 써레질, 덩이질, 나래질 같이 염전의 흙을 갈아엎는 과정이 제시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소리가 전승되었다. 자염전의 염부들이 염밭을 고르게 다지는 과정에서 이 소리가 불렸고, 덩이를 바술 때에 하는 덩이질, 넓게 펴서 번지게 하는 나래질에서 이 소리가 불렸다. 나래질은 논을 삶을 때에 번지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세 가지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하는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 작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소리의 양상이 달라졌으리라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소의 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소리의 양상은 전혀 달랐을 개연성이 있다.

현재 전승되는 소리는 소를 모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직접 써레질, 밀대질, 곡괭이질 같은 노동을 할 때에 하는 소리이다. 간통을 쌓고 통자락을 넓게 만들어서 통조금 때를 기다려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한다. 간통은 짠물인 간수가 배어들도록 만든 것이다. 통자락은 간통에 물이 배도록 하는 갯벌밭을 뜻한다. 통조금은 소금을 만드는 시기로 물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상현과 하현이 되는 조금인 8일~12일과 사리인 23~27일을 피해서 바로 그 앞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벌이 말라 있을 때에 이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리가 집중적으로 불린다. 소금 결정체가 하얗게 피는 것이 밭을 갈아엎어 곡물을 심어서 꽃이 피는 것과 대응할 정도로 기쁜 것이었다고 전한다.

염전밭가는소리는 메기고 받는 소리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어찌나 하니 일시에 놓고 어기여차 밭갈이
가세 밭갈이 가세
강경함에 감돌아든다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박연하니 때는 입고 어기여차 밭갈이 하세
밭갈이 가세

봉당닢에 나돌아든다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평택같이 흘러가는 물이라도 어기여차 밭갈이 하세
밭갈이 하세
간데 족족 정들여놓고 여기여차 밭갈이 하세
밭갈이 하세
아까운 청춘 다 늙었구랴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저기 가는 저 아주머니 어기여차 밭갈이 하세
밭갈이 하세
딸이 있거든 사위를 삼우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딸은 있네만 어려서 안 되네 어기여차 밭갈이
하세 밭갈이 하세
아이구머니 그 말 마오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참새는 작아도 알만 까구요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가구요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아서야 말아야 괄세를 마소 어기여차 밭갈이 하세
밭갈이 하세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고대광실 높은 집에 어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장포밭에 금잉어 놀 듯 어기여차 밭갈이 하세
밭갈이 하세
금실금실 잘도 노는데 여기여차 차산에 새로다
차산에 새로다

이 소리는 받는 소리가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달라진다. 게다가 메기는 소리도 일정하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메기는 소리)
어찌나하-니일시에놓-고
어-기여-차밭-갈-이가-세-
(받는 소리)
1. 밭-갈-이가-세-
2. 차-산-에세-로다-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보면 매우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메기는 소리는 음보로 본다면 시가가 ♩.으로 3소박 4박자와 3소박 6박자가 복합되어서 2음보인 '어찌나 하니/일시에 놓고'와 3음보인 '어기여차/밭갈이 가세'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받는 소리도 메기는 소리의 끝에 여음을 뺀 2음보를 반복해서 '밭갈이 가세'로 부르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소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불규칙한 소리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정격의 소리가 달라지면서 이러한 비정격의 소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일에 따른 장면 지시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사설의 실상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

의의 염전밭가는소리는 염전밭을 가는 소리라는 점에서 매우 긴요한 의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예사밭갈이는 소를 몰면서 하기 때문에 소모는소리로 되어 있으며 소의 수에 따라서 호리소모는소리와 겨리소모는소리로 양분된다. 이에 반해서 염전밭은 갯벌을 중심으로 하는 소리로 소를 몰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할 때에만 이 소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염전밭가는소리는 소금 생산 방식이 획일화된 공법인 천일 염법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예전의 자염법의 성립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리라는 점에서 염전 노동요로 전통적인 소리이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봄에 햇빛과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바닷물의 사정과 함수 관계를 지니고 있는 소리라는 점에서 이 소리는 천체의 변화와 달의 공전 주기와도 작업이 관련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조금과 사리에 앞서서 마른 갯벌을 일구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경기도 편(문화방송, 1996), 韓國의 民謠 -인천지역 편-(李鮮周, 民俗苑, 1996).
필자 | 김헌선(金憲宣)

진달래꽃노래

정의 진달래꽃과 철쭉꽃이 피는 봄철이 되면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 진달래와 철쭉을 꺾어서 뭉쳐 꽃방망이를 만들어 돌리면서 벌에게 꿀을 떠가라며 부르는 노래.

내용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던 노래

로, 봄철 아이들이 부르는 세시유희요라고 할 수 있다. 진달래꽃과 철쭉꽃을 뭉쳐 돌리는 동작을 하면서 꿀벌에게 꽃을 주며 꿀을 따가라고 하는 가사 내용을 볼 때, 단순유희요라기보다는 꿀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을 지닌 동요라고 할 수 있다.

진달래꽃노래는 대체로 진달래꽃과 철쭉꽃을 벌에게 주면서 꿀을 떠가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를 반복해 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벌아벌아 꿀떠라, 연달래(진달래) 꽃주까, 주게달래(철쭉) 꽃주까."라는 가사를 반복하거나 "연달래꽃 주까, 지게달래꽃 주까, 연이나 꽃이나 다주까."라는 가사를 반복해 부르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노래에서는 꽃을 제공하는 대상이 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었거나, 두 꽃을 한꺼번에 다 준다고 하는 사설이 있고 없음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벌에게 꽃을 준다고 하면서 꿀을 많이 따라고 하는 기원의 내용은 동일하다.

관련자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에는 꽃타령의 일종으로 진달래꽃타령이 울릉도와 전북 부안에서 각기 한 편씩 채록된 바 있는데, 그들 민요들은 진달래꽃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석산(石山)의 바위 위에 피어 있어 꺾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인들이 부르는 타령으로, 동요로 불리는 진달래꽃 노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의의 아이들이 봄철에 피는 꽃을 갖고 놀면서 부르는 유희요의 성격이 강하지만, 산에 핀 진달래꽃을 벌에게 꺾어주는 행위를 하면서 벌에게 꿀을 많이 모으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서 꿀의 생산이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기능을 지닌 동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謠集 II(任東權 編, 集文堂, 1974),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필자 | 권태효(權泰孝)

고사리는 아홉 형제이다 (고사리는 아홉 성제다)

정의 봄에 돋아나는 고사리의 줄기가 한 번 꺾이면 계속해서 아홉 번까지 다시 돋아난다는 뜻을 담은 속담. 한 뿌리에서 아홉 번이나 줄기가 돋아나는 것을 끈질기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에 비유하였다.

내용 고사리줄기는 강하게 눌러도 오뚝이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집안마다 자손이 강하게 자라고 번성하기를 바랄 때 고사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제사 음식 중 고사리탕쉬를 으뜸으로 치는 것은 고사리의 번식력과 강인한 성질을 본받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고사리를 제상에 올리는 것은 고사리의 생김새가 한 줄기에서 세 가닥의 삼발이처럼 위로 뻗어 있어서 그 사이에 제사 음식을 놓고 가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도 고사리 중에는 벳고사리와 자왈고사리가 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고사리의 품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서식지에 따른 것들이다. 곧 벳(햇빛) 고사리는 햇빛이 잘 비치는 들판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늘고 짧다. 고사리가 돋아날 때 햇빛을 받으면 빨리 자라는데 24시간 이상 햇빛을 쬐면 이미 다 자라서 먹을 수 없고, 한번 꺾인 고사리는 줄기가 가늘어진다. 반면 자왈고사리(가시덤불에서 자라는 고사리)는 적당히 습기가 있어 고사리의 성장에 알맞으며, 여기서 자라는 고사리는 윤택하고 굵다.

참고문헌 | 濟州島俗談辭典(제주도, 1999).
필자 | 문순덕(文舜德)

동지섣달 긴긴밤에 임 없이는 살아도, 삼사월 긴긴해에 점심 없이는 못 산다 (동지섣둘 진진밤이 임 엇인 살아도, 삼스월 진진헤에 징심 엇인 못 산다)

정의 동지 섣달 기나긴 밤을 홀로 드새는 독수공방의 외로움보다 삼사월 춘궁기의 배곯는 고달픔이 더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

내용 동지 섣달은 일년 중 낮보다 밤이 긴 때이므로, 홀로 지내는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임 그리움이 간절해서 심적인 괴로움이 크지만 참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삼사월은 춘궁기인 데다 낮 시간마저 길어져 굶고 지낸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간한 고통이 아니다. 더구나 점심을 안 먹고 일을 하려면 허리가 휘어지고 힘이 달려 견딜 수가 없다. 이 속담은 제주도 민요 맷돌방아노래의 노랫말로도 쓰이고 있다.

참고문헌 | 濟州島民謠硏究 上(金榮敦, 一潮閣, 1965),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보리 안패는 삼월 없고, 나락 안패는 유월 없다

정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내용 음력 삼월에는 보리 이삭이 패고 음력 유월이면 벼 이삭이 팬다. 그 전에는 아무리 서두르거나 재촉하여도 보리나 벼 이삭이 패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때를 기다려야 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이 말을 쓴다. 또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도 이 말을 쓰기도 한다.

참고문헌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최운식(崔雲植)

봄 이는 띠밭에도 간다 (봄 뉜 새왓디도 간다)

정의 봄철의 이는 띠밭에도 간다는 뜻. 봄철에 옷 밖으로 기어 나온 이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거처를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몸을 숨기기 위해 띠밭으로 이동하는 해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내용 늬는 이(飴), 새왓은 띠밭을 가리키는 제주말이다. 새는 제주도의 초가지붕을 이는 재료로 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풀이다.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집집마다 지붕을 이었으므로 새왓은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빽빽하고 촘촘한 새왓은 몸을 숨기기엔 안성맞춤이어서 꿩들이 몰래 알을 품는 곳이기도 했다. 이들은 겨우내 옷 틈새에 숨어 지내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옷 밖으로 기어 나오는데, 이가 얼마나 많았던지 띠밭으로까지 번질 정도였다는 것이다.

가난해서 옷이 귀한 시절에는 대개 단벌 무명옷으로 겨울 한철을 보내야 했다. 제주에서는 긴 겨울이 지나고 춘삼월이 되면 겨우내 덮었던 이불과 가족의 옷들을 모두 내놓아 일제히 빨래하는 풍습이 있다. 빨랫감을 마당에 내놓으면 이불 홑청이나 옷깃에 숨어 있던 이가 밖으로 기어나온다. 빨랫감을 뒤집어 탁탁 털어낸 다음 빨래를 전담하는 서답구덕(빨래바구니)에 담아 등에 짊어지고 해변의 빨래터를 찾는다. 특히 물이 귀한 중산간 마을에서는 음력 삼월 보름을 기해 일제히 해변마을로 빨래하러 내려오는 풍습이 연중행사로 치러졌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내려온 여자들은 막개(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며 신나게 빨래를 해서 담벼락에 널어 말린다.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리며 멱을 감거나 먹을 것을 나눠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구덕을 지고 마을로 돌아가곤 했다.

참고문헌 | 濟州島俗談辭典(제주도, 1999), 제주여성전승문화(양영자 외, 제주도, 2004).
필자 | 양영자(梁永子)

봄 문절이는 개도 안 먹는다

정의 봄철 산란 후의 문절이가 맛이 없어지듯이 한 시기가 지나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을 담은 속담.
내용 문절이의 원래 이름은 문절망둥어이다. 문절망둥어는 초여름부터 활발한 먹성을 보여 몸이 비대해지도록 큰 입으로 게걸스럽게 먹이 활동을 하는 탐식성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낚을 수 있어 "바보도 낚는 망둥어"라는 말까지 생겼다. 가을이 되면 차츰 깊은 바다로 내려가기 때문에 초가을에 기수지역에서 낚이는 망둥어가 씨알이 굵고 가장 맛이 좋다. 그러다가 봄철에 산란을 하는데, 산란 직후의 문절 망둥어는 맛이 없기 때문에 개를 주어도 먹지 않는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결국 무엇이든 때가 있는 법이라는 말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3월 넙치는 개도 안 먹는다."가 있다. 넙치의 제철은 10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늦가을과 겨울이 가장 좋다. 봄철 산란 후에는 맛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비유해 생겨난 속담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형(金基珩)

봄 잠은 가시덤불에 걸어져도 잔다
(봄 줌은 가시자왈에 걸어져도 잔다)

정의 봄철은 한낮에도 유난히 졸음에 시달리게 되는데, 가시덤불에 드러누워도 잠이 들 정도로 봄잠에 부대끼는 현상을 과장하여 부풀린 속담.
내용 엄동설한의 추위를 넘기고 봄철로 접어들면 춘곤증이 겹쳐 온몸이 나른해지기 마련이다. 앉아 있으면 자꾸 졸음이 밀려들기 일쑤이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가시덤불 위에 드러누워도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고 잠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가시덤불에 누워 잠을 자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봄잠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봄 해에는 아기 데리고 차조 한 말 번다
(봄 해엔 애기 둘앙 흐린조 혼 말 버신다)

정의 봄은 밤보다 낮 시간이 길어서, 아기를 데리고도 생계를 해결한다는 근면성을 되새기는 속담.
내용 봄에는 낮이 길어지므로 일할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니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인네는 그 아기를 돌보는 일 외에 별도로 남의 일을 도와서 그 품값으로 메조도 아닌, 차조 한 말을 벌어들이는 1인 2역을 수행해낸다는 것이다. 웬만한 근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버거운 일임에도 마다 않고 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녀자들의 근면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봄꽃도 한때

정의 좋은 시절도 한 때 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
내용 경판(京板) 『춘향전(春香傳)』에 "노세 절머 노세 늘거지면 못노나니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츠면 기우ᄂᆞ니 인싱이 일쟝츈몽이니 아니 놀구……."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꼿도 혼철이곡, 나비도 혼철인다(꽃도 한 철이고, 나비도 한 철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꽃이 피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나비도 역시 화사한 모습으로 꽃을 찾아 자유로이 돌아다닌다.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꽃도 나비도 한때일 뿐 화사했던 날은 덧없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곧 위 속담들은 모두 전성기의 유한성(有限性)을 되새길 때 쓰는 말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매화도 한철 국화도 한철, 봄도 한철 꽃도 한철, 메뚜기도 한철,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다, 열흘 붉은 꽃 없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달도 차면 기운다, 그릇도 차면 넘친다,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같은 것들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조선속담집(엄병섭 · 박용순 · 김종선 · 류영걸, 사회과학출판사, 1992),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7),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강재철(姜在哲)

봄 꿩이 제 바람에 놀란다

정의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놀란다는 말.
내용 봄이 되면 꿩이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매우 긴장하므로 제풀에 놀라기도 한다. 사람도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꿩에 빗대어 "봄 꿩이 제 바람에 놀란다." 한다.
유사속담 "제 방귀에 놀란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한 일에 대하여 도리어 자기가 놀라는 것을 빗댈 때 쓴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최운식(崔雲植)

봄 꿩이 제 울음에 죽는다

정의 제 허물을 제가 스스로 드러내어 해를 자초(自招)할 때 쓰는 말.
내용 이 속담은 봄철의 꿩사냥에서 나온 말이다. 일매이마삼첩(一鷹二馬三妾)이라는 말이 있다. 첫째가는 재미가 매사냥이고, 다음가는 재미가 말타기

이고, 셋째가 첩을 두는 재미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선인들은 매사냥을 꽤나 즐겼다. 그런데 매사냥꾼[鷹師]이 꿩을 보았다고 무조건 매를 날리는 것은 아니다. 꿩이 날아가는 방향과 매가 날아가는 방향이 같도록 날리는 것이다. 곧 매사냥꾼이 매를 날려 보내는 방향으로 꿩이 날아가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꿩이 횡으로 날아가면 절대로 잡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꿩이 제아무리 매의 코 앞에서 뜨더라도 매보다 위쪽이나 바람을 안은 쪽으로 치달을 때는 매를 놓지 않는다고 한다. 매가 꿩을 따라가지 못해 절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꿩의 소재 파악이 되어야 일단 잡을 수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조바심 많은 까투리가 항상 먼저 푸득거리며 울기 때문에 매사냥꾼에게 발각된다고 한다. 여기서 "봄 꿩이 제 울음에 죽는다."는 속담이 생겼다. 춘치자명(春雉自鳴)과 같은 말로 공연한 일을 하여 화를 스스로 입게 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7).
필자 | 강재철(姜在哲)

봄내 여름내 사등이뼈가 휘다

정의 봄과 여름은 곡식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계절이기 때문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절이 사등이뼈가 휠 정도로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뜻. 사등이뼈는 등골뼈, 곧 등마루를 이루는 낱낱의 뼈인 등뼈를 말한다.

내용 우리나라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하여 선비 다음으로 농사 짓는 사람을 우대하여 왔고, 대부분의 세시풍속과 절기들이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봄철은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계절로서 농부들이 아침 일찍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철이며, 여름철은 모내기를 하고 가꾸는 것은 물론 밭농사까지도 함께 지어야 하는 때이므로 제대로 허리 한 번 펴보기 힘들 정도로 바쁜 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봄부터 여름까지는 농사일에 파묻혀 등뼈가 휠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다.

의의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여 농사를 으뜸으로 삼아서 생활해왔다. 따라서 농사와 관련된 속담이나 행사가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봄내 여름내 사등이뼈가 휜다." 같은 속담도 결국은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나 특용작물 재배, 부업 같은 것들로 농촌의 겨울이 더 바쁘고 일손도 부족한 경우가 있지만, 옛날에는 봄과 여름철이 가장 바쁘고 힘든 계절이었다. 따라서 이 속담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작물을 가꾸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옛날의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를 알려주는 속담으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8),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유재복,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 유재복(柳在福)

봄 눈 녹듯 하다

정의 봄에 내린 눈은 쉽게 녹는다는 뜻. 사물의 형상이나 기분이 쉽게 사그라지는 것을 빗댄 속담이다.

내용 봄이 되면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린다. 봄에 내리는 눈은 내리는 즉시 녹아 없어진다. 그래서 무엇이 속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봄 눈 녹듯 하다."라고 한다. 먹는 것이 쉬 삭는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쓰기도 한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필자 | 최운식(崔雲植)

봄떡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정의 봄에는 꿈에서라도 떡을 보면 살이 찔 것 같다는 뜻으로 봄떡이 매우 귀함을 이르는 말.

내용 농경 사회에서는 봄이 되면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경우가 많았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긴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보릿고개란 저장해놓은 쌀은 다 떨어지고 대체 식량인 보리는 아직 수확하기 이른 시기로 대략 음력 4월이나 5월을 일컫는다. 끼니

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시기이므로 봄떡을 꿈에서만 보아도 살이 찔 것 같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유사속담 대접하기 가장 어려운 사돈을 농가에서는 한참 궁한 봄에 맞게 되는 것을 꺼리는 말로 "봄 사돈은 꿈에도 보기 무섭다."가 있다. "봄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라는 속담은 먹을 것이 궁한 봄철에 해는 길고 출출하니 점잔빼고 들어앉은 샌님도 떡을 먹고 싶어할 정도로 봄에는 누구나 군것질이 반갑다는 의미로 쓰인다.

참고문헌 | 음식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8).
필자 | 김기형(金基珩)

봄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정의 먹을 것이 궁한 봄철에 해는 더 길어져만 가고 배는 출출하고 입맛이 동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점잖 빼고 들어앉은 샌님도 떡을 먹는 데에는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뜻. 봄철에는 누구나 군것질이 반갑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내용 봄철은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져서 춘궁기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배고픔에 시달리며 사는 계절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여도 배고픔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가릴 여유가 없게 된다.

샌님은 양주별산대놀이나 송파산대놀이, 남사당패의 탈놀음에 나오는 인물을 일컫기도 하고, 너무 얌전하고 고루한 사람을 농담 삼아서 일컫기도 하는데, 이렇게 얌전하고 점잖은 샌님이라고 하여도 배고픔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일차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서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귀하고 값진 보물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동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경계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필요를 느끼게 되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하려고 한다는 것에서도 유래한 속담이다.

의의 농사 기술과 시설이 발달하지 않고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옛날에는 적은 소출을 가지고 일년을 보내야 했으므로 봄이 되어 보리가 익을 때까지는 대부분 먹을 것이 매우 귀했다. 이러한 때에 떡을 해먹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라면 점잖고 체면을 중히 여기는 샌님이라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실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3),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필자 | 유재복(柳在福)

봄물에 방개 기어나오듯

정의 따뜻한 봄철이 되어 연못에서 물방개들이 기어나와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빗댄 말. 어떤 사물이나 물건, 사람, 동물이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내용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물은 조상들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많은 속담들이 농사나 조상들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의 시골 마을에는 대부분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수많은 수상 생물들이 서식하였다. 또 농사를 짓는 논 주변에도 조그마한 방죽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물방개들이 많이 살고 있다. 물방개들은 봄이 되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물 밖이나 물 가장자리로 몰려들기 일쑤이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거나, 사람이나 동물이 연달아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물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방개가 연못에서 기어나오는 것에 비유하는 표현에서 이 속담이 나온 것이다.

의의 봄이 되면 모든 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 활발



방개 심디스마

한 활동을 시작한다. 봄은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 기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때이며, 연못에 사는 방개도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절기와 함께 조상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어떤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도 없이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봄물에 방개가 기어나오는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속담이다.

참고문헌 | 東言解, 耳談續纂,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필자 | 유재복(柳在福)

봄바람에 말좆도 터진다

정의 봄바람을 쐬면 살갗이 잘 튼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보통 "봄바람에 말씹도 터진다."라는 속담으로 더 많이 쓰이며,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봄바람은 가능하면 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와 함께, 봄바람[春情]이 나는 것을 경계하려는 중의적 의미 전달을 더욱 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내용 우리 조상들은 계절과 절기에 따라 꼭 알아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많은 속담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특히 별다른 치료약이 없었던 옛날에는 질병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많은 생활의 지혜를 짜내었는데,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속담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경계하고 되새길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건조한 봄철에 바깥바람을 많이 쐬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계의 의미를 이 속담에 담았다.

의의 봄철은 날씨가 매우 건조해져서 불이 나기 쉬운 계절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 쉬운 계절이다. 이때 함부로 바깥바람을 쐬게 되면 건강에도 해롭고 피부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커다랗게 나와 있는 말의 성기에 빗대어 봄철의 건조한 날씨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상들의 지혜와 해학이 함께 담긴 속담이다.

참고문헌 | 東言解, 耳談續纂,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3),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필자 | 유재복(柳在福)

봄바람에 여우가 눈물 흘린다

정의 봄바람이 매우 매섭고 쌀쌀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속담.

내용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짐승으로 모피(毛皮)는 보온 효과가 뛰어나 방한용으로 애용되었다. 옛날에는 호구(狐裘)라 하여 여우가죽으로 갓옷을 만들었는데 여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갓옷보다 높이 쳤다. 이러한 털을 가진 여우마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바람이 몹시 맵짜다는 것이다. 봄바람의 차가움을 봄의 이미지와 보온성이 뛰어난 여우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역설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는 "봄철 갈바람에 여우가 눈물 짓는다."와 "여우도 눈물을 흘릴 날이다."가 있다. 제주도에는 "보리 추위에 중늙은이 얼엉(언) 죽나(보리 추위에 중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보리 수확기인 음력 오뉴월의 낮 기온은 후덥지근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중늙은이가 죽을 만큼 춥다는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의 초여름 한밤중은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다. 그러니 이 속담은 노숙(露宿)할 때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참고문헌 | 조선속담집(엄병섭 · 박용순 · 김종선 · 류영걸, 사회과학출판사, 1992),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강재철(姜在哲)

봄바람은 처녀바람, 가을바람은 총각바람

정의 봄에는 여자가 바람이 나기 쉽고, 가을에는 남자가 바람이 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비추 여희춘(男悲秋 女喜春)이라 하여 "가을에는 남자가, 봄에는 여자가 더 다감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남녀의 정서적인 차이와 계절의 이미지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내용 예부터 봄처녀라는 말이나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라는 노랫말과 같이 봄은 여자의 계절로 여겨, 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바람나기도 쉬운 계절로 보았다. 그리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로서 남자들이 바람나기 쉬운 계절이라 하였다. 봄이나 가을에 부는 바람이라는 일차적인

의미와 그것을 남녀가 바람나는 것이라는 이차적인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해서 이런 속담이 나왔다.

봄과 달리 가을은 성숙, 난숙, 수확, 초로(初老), 황량(荒凉)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며 한자말로 금추(金秋)라 하기도 한다. 가을바람은 신선하고 서늘한 바람을 의미한다. 흔히 봄철에 부는 따뜻한 바람을 의미하는 봄바람과 대조적으로 표현된다. 이를 남녀에 빗댄 속담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봄바람은 품으로 기어든다."가 있다. 처녀가 봄바람이 나게 되면 정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3).
필자 | 유재복(柳在福)

봄 방 추우면 맏사위 달아난다

정의 날씨에 방이 추운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봄철은 추운 겨울을 지나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며, 집에서는 겨우내 쓰던 것들을 정리하고 봄옷과 봄이불로 바꾸어놓는다. 그렇지만 이른 봄에는 겨울 날씨 못지않게 추울 때도 있고, 특히 꽃샘추위라 하여 매우 강한 추위가 찾아오기도 한다.

내용 예부터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하여 귀한 대접을 받았고, 사위가 오면 아끼고 아끼던 씨암탉을 잡아서 먹일 만큼 융숭하고 후한 대접을 하였다. 더군다나 그것이 맏사위라면 그 대접은 훨씬 더 귀하고 융숭했을 것이다.

우리의 몸이 이미 추위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겨울철에는 방이 조금 춥다고 하더라도 능히 견딜 수가 있으나, 따뜻한 봄이 되고 나서는 우리의 신체도 따뜻한 것에 적응이 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꽃샘추위라는 말도 있듯이 꽃이 피는 춘삼월이 왔어도 가끔씩은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 이때 방이 추우면 견디기 힘들어 맏사위도 달아난다는 것이니 봄에 방이 춥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는 특히 감기에 걸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기 위한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요즘처럼 난방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사람들이 계절과 날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자연히 이에 관련된 속담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봄을 맞아 환절기가 되면 감기 환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될 염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은 속담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 속담은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반가운 손님인 맏사위를 등장시켜, 봄 방이 추우면 맏사위가 달아난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강도 높은 비유를 통해, 봄날의 안전과 건강 생활을 유지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耳談續纂,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8),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속담이야기(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3), 우리속담 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유재복,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 유재복(柳在福)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정의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딸을 더 아끼고 위한다는 뜻.

내용 따사로운 봄볕은 뜨겁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까맣게 그을게 된다. "봄볕에 거슬리면 (그을면) 보던 님도 몰라본다."는 속담도 있다. 며느리보다 딸을 더 아끼는 시어머니는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놓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놓는다. 가을볕보다 봄볕에 살갗이 더 잘 타고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부계혈족집단으로 시집온 외자(外者)적 존재로서 미묘한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다. 며느리 시절에 힘든 시집살이를 겪은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역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게 한다. 시집살이는 며느리를 시집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들을 빼앗긴 시어머니의 심술이 은근히 작용하여 더욱 혹독해지기도 한다. 말로는 며느리도 자식이라지만 직접 낳은 피붙이인 제 딸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니, 아무래도 며느리보다 딸을 더 위하게 되는 인지상정을 표현한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배 썩은 것은 딸을 주고 밤 썩은 것은 며느리 준다.”, “딸에게는 팥죽 주고 며느리에게는 콩죽 준다.”, “죽 먹은 설거지는 딸 시키고 비빔 그릇 설거지는 며느리 시킨다.”, “딸 손자는 가을볕에 놀리고 아들 손자는 봄볕에 놀린다.” 따위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천혜숙(千惠淑)

봄 불은 여우불이라

정의 봄이 되면 날씨가 건조하고 새싹이 나기 전에는 마른 나뭇가지나 잎들이 대부분이어서 여우가 둔갑하여 사방팔방에 나타나듯 여기저기서 불이 나기 쉬우며 무엇이나 잘 탄다는 뜻을 담은 속담.

내용 예부터 여우는 꼬리가 아홉 개 달렸다느니, 백년 또는 천년 묵은 여우라느니 하여 매우 영특하고 신출귀몰한 동물로 여겨왔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여우를 봄 불에 비유한다. 봄 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만큼 빈번하고 위험하다. 이것을 경계하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속담이다.

어느 마을이나 집에서 이유 없는 불이 나게 되면 여우의 짓이라 여기기도 했으며, 여우는 전래 동화나 민담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신출귀몰하고 영악하며 변신을 잘하는 동물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봄에 날씨가 건조하여 불이 잘 나는 것을 여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불조심을 한층 더 강조하고 경계하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의의 화재는 예나 지금이나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앙 중의 하나이다. 더군다나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여 불이 나기 쉬운 계절이며 실제로 여기저기서 불이 나곤 한다. 따라서 봄에 불이 나기 쉬운 것을 신출귀몰하는 여우에 빗대어 경계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東言解, 旬五志,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한국 민간 속신어 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필자 | 유재복(柳在福)

봄비가 잦으면 마을집 지어미 손이 크다

정의 아무 소용도 없고 도리어 해로움을 이르는 속담.

내용 봄철, 특히 파종하기 전에 비가 잦으면 가을에 풍년이 들고, 풍년이 들면 먹을 것이 풍부하니, 마을 지어미들의 손이 커지고 인심이 좋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잦은 봄비에 풍년이 들 것을 믿고 미리 지나치게 지어미 손이 커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을걷이한 것으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보릿고개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단단히 방비하지 않으면 식량은 늘 부족하다. 『이담속찬(耳談續纂)』에는 “부녀자 손이 크면 지난 봄비가 잦은 것(婦子手闊譬彼春潦)”이라는 속담이 전하고, “미리 많이 베풀고 흘려버리면 적절하게 쓰지 못함을 말하는 것(言先多施洩而不適於用).”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그래서 ‘봄비 잦은 것’은 곧 ‘부녀자 손 큰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둘 다 자연스럽게 이로울 것은 조금도 없고 해롭기만 한 것을 뜻하게 되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는 “봄비 잦은 것은 가을 지어미 손 큰 것과 같다.”가 있고, 해로운 것 또는 쓸데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형 속담들로 “봄비 잦은 것”, “지어미 손 큰 것” 외에도 “돌담 배부른 것”, “어린애 입 잰 것”, “노인 부랑한 것”, “사발 이 빠진 것” 따위가 있다. 이들은 『패관잡기(稗官雜記)』 권4에 무용지사(無用之事)를 의미하는 속담으로 실려 있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천혜숙(千惠淑)

봄비는 벼농사 밑천이다

정의 봄비는 벼농사를 잘 되게 한다는 뜻.

내용 음력 삼월에는 봄일을 시작하는 시기인 청명(淸明)과 벼농사에 때맞춰 비가 온다는 곡우(穀雨)가 든다. 농가에서는 청명이 지나면 논갈이를 시작하여 가래질과 써레질로 농사지을 땅을 준비하고, 곡우 무렵에 못자리판을 만들고 논농사를 시작한다. 예부터 나라에서도 곡우에는 농민들에게 볍씨를 내어주며 못자리를 마련하도록 장려했다. 모심기는 물이 있는 못자리에 볍씨를 뿌리고, 이 볍씨가 일정 기간 자라 모가 되어야 할 수 있다. 대체로 볍

씨는 물길이 좋은 땅, 곧 못자리 배미 같은 곳에 뿌리게 마련이고, 이 무렵 내리는 봄비는 벼농사가 잘 되게 하는 밑천이 된다.

유사속담 관련속담으로 "봄비가 잦으면 가을에 마누라 손이 커진다.", "봄비가 잦으면 시어머니 손이 커진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봄에 비가 자주 와서 농사가 풍년이 들면 며느리나 시어머니 인심이 좋아지고 헤프기까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記(姜舞鶴, 東湖書舘, 1981), 여성속담사전(宋在璇 編, 東文選, 1995).
필자 | 양영자(梁永子)

봄 사돈은 꿈에 보기 무섭다

정의 사돈 간은 어려운 사이어서 예의를 갖추고 대접을 잘 해야 하는데, 춘궁기인 봄철에는 먹을 것이 궁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 사돈을 맞이하는 일을 꺼리게 된다는 속담.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할 때, 친한 친구나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걱정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내용 예를 갖추어 대접해야 하는 사돈이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변변한 식사조차 대접하지 못하는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마다 꼬박꼬박 되풀이되는 보릿고개로 고생하던 우리 조상들의 어려운 생활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속담이다. 보릿고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옛날의 생활 모습과 식량 사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는 "삼사월 손님에 반가운 손님 없다."가 있다. 삼사월이면 봄철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은 사돈처럼 중요한 손님을 봄철에 모시기를 무척 꺼렸다.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옛날에는 특히 봄철은 어느 집이나 식량이 바닥나는 때였기 때문이다. 봄철이 너무 먹고살기에 궁한 계절이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으로는 "봄에 의붓아비 재 지낼까."와 "가을에 내 아비 재도 못 지내거든 봄에 의붓아비 재 지낼까."가 있어서, 옛날에는 봄철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계절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耳談續纂,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8),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속담이야기(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3),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필자 | 유재복(柳在福)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본다

정의 이해타산에 어수룩함을 이르는 속담.

내용 봄에 깐 병아리들을 여름이 다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신경을 쓰지 않다가 가을에 와서 헤아려 보면 그 수가 그대로일 리 없다. 더러는 죽고, 더러는 도망가고, 더러는 남이 가져가버리기도 했을 것이다. 소득을 제때 헤아리고 챙겨야 제 것이 될 터인데 어리석게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쓴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천혜숙(千惠淑)

봄에 씨 뿌려야 가을에 거둔다

정의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니 젊어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속담.

내용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봄이 오면 흙도 생명의 움을 틔울 준비를 한다. 이때 파종을 해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 사람의 배움에도 때가 있으니, 젊어서 호기심과 총기가 충천할 때 배워두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곧 젊어 부지런히 배움에 힘써야 큰 그릇이 되어 세상에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사속담 『공자(孔子)』에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다(春若不耕秋無所望)."라는 구절이 있다. 그 밖에 비슷한 속담으로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봄에 꽃피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가 열지 않는다.",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연다."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천혜숙(千惠淑)

봄에 의붓아비 재 지낼까

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긴요하지 않은 일을 무리해서 할 수 없다는 속담.

내용 먹고 살기도 어려운 봄철에 꼭 지내야 하는 친아비 재(齋)도 지내기 어려운데 의붓아비의 재를 지내기는 더욱 어렵다는 뜻이다. 한참 궁한 처지에 있으면서 그다지 긴요하지도 않은 체면을 위하여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친아비도 아닌 의붓아비, 또한 기제(忌祭)가 아닌 재(齋)의 비유를 가져온 것은 그 적절치 못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형편이 넉넉할 때 꼭 치러야 할 일도 못하였는데, 하물며 어려운 때에 오로지 체면을 차리기 위해 무리한 일을 할 수는 없다. 『동언해(東言解)』에는 "가을에 못 지낸 장인의 재를 봄에 지낼 것인가(秋未行之婦翁僧齋春可行乎)."라는 속담과 함께 "좋은 때에 못하고 지났는데 어려운 때 어찌 바랄까(易時差過難時何望)."라는 해설이 붙어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는 "가을에 내 애비 재도 못 지내거든 봄에 의붓아비 재 지낼까.", "가을에 못 지낸 제사를 봄에 지낼까.", "의붓아비 제삿날 물리듯" 같은 것들이 있다.

참고문헌 | 東言解,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천혜숙(千惠淑)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정의 젊어서 놀기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전통 농가에서는 음력 이월이면 농사 준비를 시작해서 봄철 내내 농사일로 분주하다. "이월이면 머슴이 담 붙들고 운다."거나 "모심기철에는 부지깽이도 놀지 않는다." 같은 속담들은 농번기의 분주함을 말해준다. 농번기 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는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진다. 식량이 부족해서 굶는 일이 다반사가 될 수도 있다.

여름에 노래만 하면서 놀기를 일삼던 베짱이가 겨울이 되어 빈궁해지자, 여름내 쉬지 않고 일했던 개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이솝 우화와 같은 의미이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젊어서 부지런히 힘쓰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곤궁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조그만 방심과 허실이 나중에 큰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오뉴월 하루 놀면 동지섣달 열흘 굶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천혜숙(千惠淑)

봄에는 굼벵이도 석 자씩 뛴다

정의 봄 농사철에는 몹시 바빠서 게으른 사람도 저절로 부지런해진다는 뜻.

내용 농경 사회에서 가장 바쁜 계절은 봄이다. 농작물을 파종해야 하고 이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손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굼벵이는 동작이 느리고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봄에는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굼벵이 같은 사람이라도 농사일을 거들어 바삐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유사속담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라는 속담은 농사일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쁠 때는 조금이라고 보탬을 줄 수 있는 일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 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형(金基珩)

봄에는 생말가죽이 마른다

정의 봄철에 비가 모자라서, 살아 있는 말의 털가죽마저 말라버릴 정도로 가뭄이 심한 경우에 빗댄 속담.

내용 봄철에 비가 잘 내리기도 하지만 날씨가 불규칙해서 가뭄이 심해질 수도 있다. 어쩌다 가뭄이 계속되는 날이면 사람들의 생활은 물론이고 동식물들의 생태마저 큰 타격을 입는다. 제일 예민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은 땅 위에서 자라는 생물들인데, 수분이 딸리면 발육은 고사하고 말라죽기 마련이다. 그 피해의 양상을 실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 생말가죽이 마른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속담집(엄병섭 · 박용순 · 김종선 · 류영걸, 사회과학출판사, 1992),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고재환(高在奐)

봄 조개 가을 낙지

정의 봄에는 조개가 가을에는 낙지가 제철이라는 의미의 속담.
내용 조개는 봄에 난 것이 맛이 있고, 낙지는 가을에 잡은 것이 맛이 있듯이 음식은 제철에 난 것이 맛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 제때가 되어야 제 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유사속담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봄 멸치, 가을 전어"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2),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文學, 1997), 세계 속담 대사전(서정수 · 정달영,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문금현(文錦賢)

삼사월 아기 어머니 돌이라도 이빨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삼ᄉᆞ월엔 애기 어멍 돌이라도 늬 아니 들엉 못 먹나)

정의 삼사월 춘궁기의 유모는 애에게 젖을 먹이고 나면 허기에 시달려 돌멩이라도 깨물어 먹고 싶을 정도로 식생활의 어려움을 상기시키는 속담.
내용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애에게 젖을 먹이고 나면 허기가 생겨 무엇이든 먹고 싶어한다. 특히 삼사월 춘궁기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더욱 먹을 것 생각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멩이라도 이[齒]만 들어간다면 깨물어 먹겠다는 것이다. 식량난에 시달려 먹고살기가 어려웠던 지난날 식생활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삼사월에 난 아기 저녁에 인사한다

정의 삼사월은 하루 해가 몹시 길다는 뜻.
내용 갓 태어난 아이가 낮 동안 성장하여 저녁이면 인사를 할 만큼 삼사월은 하루 해가 길다. 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한 봄, 한 달 두 달 갈수록 해는 점점 길어진다. 서둘러 어둠이 내리던 겨울에 비하면 삼사월의 한낮은 길기만 하다. 이에 하루의 낮 시간을 아이의 성장 기간에다 견준 것이다. 해가 가장 긴 절기는 하지(夏至)이지만 삼사월의 해가 길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농사일로 이것저것 바쁜 봄날 낮 시간을 짧다고 불평하지 말고 잘 안배해서 쓰기를 바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삼사월 해 짜르당 하민(짧다 하면) 죄가 된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한울아카데미, 1993),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필자 | 천혜숙(千惠淑)

삼사월에는 말가죽도 뻣뻣하다
(삼ᄉᆞ월엔 물가죽도 버짝 혼다)

정의 삼사월에는 말가죽도 뻣뻣하다는 뜻으로 춘궁기의 쪼들린 생활상을 되새기는 속담.
내용 음력 삼사월은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시기이지만,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먹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춘궁기이다. 말고기는 살이 쪄서 지방기가 있어야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나는데, 이 시기에는 말도 살이 빠지고 윤기를 잃게 되어 부드러운 말의 가죽마저 뻣뻣하게 굳어질 만큼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함을 상징하는 속담이다.
유사속담 이와 관련하여 "구시월 물궤기"라는 말이 있다. 구시월은 수확을 하여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때로 우마도 살이 찐다. 그래서 일년 중 말고기의 맛이 제일 좋은 구시월에는 물추렴을 하였다.

참고문헌 | 濟州島俗談辭典(제주도,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양영자(梁永子)

삼사월에는 숭어 눈 어둡다 (삼ᄉᆞ월에 숭에 눈 어둑나)

정의 삼사월의 숭어는 그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부유스름해져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잡기가 수월하다는 속담.

내용 삼사월은 해변의 수온이 깊은 바다보다 높아서 따뜻해지므로, 밀물 때가 되면 숭어들이 많이 몰려든다.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이때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 잡거나 그물로 떠올릴 정도로 많이 잡힌다고 한다. 잡아서 보면 그 눈에 부연 막이 덮여 있다. 그 때문에 숭어는 앞을 잘 보지 못한다. 특히 숭어는 10월 상강(霜降)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눈에 동그란 고리가 박힌다고 한다.

참고문헌 | 濟州俗談總論(高在奐, 민속원, 2001).
필자 | 고재환(高在奐)

삼사월 웅마(삼ᄉᆞ월 웅매)

정의 삼사월이 되면 수말[雄馬]의 기운이 되살아나서 활기차고 억세지는 생태를 일컫는 속담.

내용 삼사월은 사람에게는 춘궁기인 보릿고개에 해당하지만, 말에게는 들판에 풀이 한창 돋아날 때이므로 배를 불릴 수 있는 때이다. 또 이 시기는 말들이 짝짓기를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수말의 야성이 발동한다. 수말이 활기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앞발로 땅을 찧고 콧소리를 으르렁거려 암말[雌馬]을 거느리기 위한 억세고 거친 야성적 기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삼사월이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삼월 보름 무수기부터 살림 가른다 (삼월 보롬 물찌부떠 자리 갈른다)

정의 바닷물이 잘 썰 때 해산물의 수익을 밑천으로 해서 살림을 따로 내는 분가(分家)나 분거(分居)의 기회로 삼았던 어촌의 생활상을 떠올리는 속담.

내용 살림살이가 궁핍한 어촌에서는 혼인한 자식을 분가시켜 살림을 따로 내고 싶어도 줄 식량과 살림 도구가 없으니, 그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일년 중 바닷물이 제일 잘 써는 삼월 보름 무수기가 되면, 해산물 수확이 잘 되므로 살림을 따로 낼 밑천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를 분가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도둑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삼월 보롬 물찌엔 도독질 셍각나민 집에 든다)

정의 물이 잘 써는 음력 삼월 보름 무수기 때 해산물을 채취하러 바다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집을 노린 음흉한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꼬집는 속담.

내용 음력 삼월 보름은 일년 중 물이 제일 잘 써는 날이므로, 온 식구가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기에 바쁘다. 그런데도 집안에 남아 있으면 남의 눈에는 무슨 음흉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 쉽다. 바다로 나가버린 틈을 타서 남의 빈집 물건을 도둑질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썰물 때는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모두 집을 비우고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선비 부인도 바구니 차고 내닫는다 (삼월 보롬 물찌엔 하우장 각씨도 구덕창 돋나)

정의 음력 삼월 보름날은 일년 중 바닷물이 제일 잘 써서 해산물이 많이 잡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속담.

내용 먹고 살아가는 식생활의 본능에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다. 음력 삼월 보름날의 무수기는 칠월 보름 백중날과 함께 일년 중 제일 물이 잘 써는 날이다. 이날은 평소와는 달리 물에 잠겼던 밑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므로, 귀한 해산물인 전복, 소라, 해삼이 많이 잡힌다. 그래서 어촌의 주민은 물론이고 중산간 농촌에서도 모여드는데, 선비의 부인이라고 체통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 체면 무릅쓰고 바구니를 옆구리에 차고 바다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사월 보름 무수기에는 선비 부인도 문갑(책갑) 지고 어른다."가 있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삼월달에 명주실 선돈 쓴다

정의 봄 양식이 떨어진 어려운 농가에서는 유월에 생산되는 명주실 선돈을 삼월에 고리(高利)로 쓰게 된다는 말.

내용 옛날에는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꾸어주고 가을에 받을 때 꾸어준 곡식의 반을 이자(利子)로 받는 장리(長利) 제도가 있었다. 고리(高利)인 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만큼 농민에게는 춘궁기인 보릿고개가 힘겨웠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보릿고개에 죽는다.",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삼사월 손님엔 반가운 손님 없다.", "사월 없는 곳에 가서 살면 배는 안 곯는다." 따위가 있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7),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강재철(姜在哲)

삼춘(三春) 고한(苦旱) 가문 날에 감우(甘雨)오니 즐거운 일

정의 매우 즐거운 일이라는 뜻.

내용 봄철 석 달 동안 계속되는 모진 가뭄 끝에 내린 달디 단 비처럼 반갑고 즐거운 일을 빗댄 속담이다. 봄 가뭄이 계속되면 흉년이 들 걱정에 농부들은 간절히 비를 기다린다. 밭에 파종도 못하고 논에 못자리도 못하던 터에 그토록 고대하던 단비가 오니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본 춘향전(古本春香傳)』에서는 춘향이 이도령과 재회한 기쁨을 이 속담에다 견주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칠십 노인 구대 독자 생남하여 즐거운 일", "천리타향 고인 만나 반가워서 즐거운 일", "동방화촉 노도령이 숙녀 만나 즐거운 일" 같은 것들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천혜숙(千惠淑)

진달래꽃 피면 청어 배 돛 단다

정의 진달래꽃이 피는 3월 무렵이면 청어가 많이 나는 시기이므로 청어를 잡는 배가 돛을 달고 출항한다는 속담. 청어는 다른 말로 비웃이라고도 하고 말린 것은 관목이라고 한다. 『명물기략(名物紀略)』에서 '비웃'의 어원을 "가난한 선비들이 즐겨 먹은 선비들을 살찌게 한 물고기, 비유어(肥儒魚)로 쓴다."고 했다. 청어를 중국말로 비유[鯡魚]라 하는데 이것을 새로 비유어로 만들었고, 또 줄여 비웃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메기는 말린 청어[乾靑魚]를 가리키는 관목(貫目)에서 관메로 변하였고, 이것이 다시 과메기로 변천했다고 추정한다.

내용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우리나라에서 청어는 중요한 어종으로, 팔도 연안에서 잡힌다고 했다. 청어는 예부터 값싸고 맛이 있어 가난한 이들도 즐겨 먹었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청어가 정월이면 알을 낳기 위해 오는데, 수억 마리가 바다를 덮을 지경이라고 했다. 청어는 산란기에 약 8만 개의 알을 낳는 엄청난 생식 능력을 가졌으므로, 영남과 일본에서는 예부터 정초에 많은 자손을 얻겠다는 의미로 청어 알을 먹는 풍습이 생겼다.

청어는 동지 전에 경상도 지역에 나타났다가 남해를 지나 서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여 음력 3월에는 황해도에 나타난다. 황해에서 잡힌 청어는 남해의 청어에 비해 곱절이나 크다. 석 달 동안 산란을 마치고 물러가는 남해의 곱절이나 큰 청어를 잡으러, 진달래꽃이 만발할 때 돛을 달고 의기양양하게 출항함을 뜻한다.

참고문헌 | 名物紀略, 世宗實錄地理志, 玆山魚譜.
필자 | 김낙효(金洛孝)





生業
생업

설을 지나면 나물을 캤다.
이때 나오는 나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구·취나물·달래·쑥·산미나리가
주를 이룬다.
산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산 속의 도랑가에서 주로 자라던 것을 가리킨다.
나물을 해서 콩가루를 넣고
쑥 같은 것과 양해 일을 해와서
국을 끓여 먹는다.
고수마도 저장해 두었다가 삶아서
캐온 봄나물과 함께 먹었다.

春

기장파종[黍播種]

정의 곡물이나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벼과(*Poaceae*)에 속하는 기장을 재배하는 행위.

작물특성 기장(*Panicum miliaceum L.*)은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서 원산지는 동부 아시아와 중국 대륙성 기후의 온대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에 속하는 함경북도 회룡읍 오동 유적에서 기장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도 일찍부터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 수확량은 적지만 생육 기간이 짧고 가뭄에 강하여 경상북도를 비롯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서 주로 재배하였다. 재배 품종으로는 높이 50~120센티미터로 곧게 자라는 기수형(寄穗型)이 많이 이용되며, 열매는 황백색이나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지만 정백하면 모두 노란색을 띤다.

재배방법 민간에서는 기장을 메기장[稷]과 찰기장[黍]으로 분류하며, 건강 식품으로서 맛이 좋은 찰기장을 주로 재배한다. 기장의 발아 온도는 6~45도이나 최적 온도는 30도 내외이며, pH 4.9~6.2 정도의 사양토에 춘분(春分) 무렵인 5월 상순에 파종한다. 파종할 때는 조와 섞어서 혼파하기도 하며, 기경 후 막뿌리기 또는 이랑을 지은 뒤 줄뿌리기를 한다. 싹이 나면 2회 정도 솎기와 김매기를 해주며, 생육 기간은 70~90일 정도로 8월 하순에서 10월 상순 사이에 수확을 한다.

내용 주성분은 당질(糖質)로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A가 풍부하며 조단백질의 95퍼센트가 순수단백질로 쌀보다 많아서 소화율은 떨어진다. 메기장은 정백하여 주로 쌀 또는 잡곡과 섞어서 밥이나 죽으로 먹으며, 찰기장은 쪄서 떡, 엿, 과자 같은 별식과 술의 원료로 사용한다. 줄기와 잎은 사료나 땔감 또는 지붕 재료로 이용하며, 이삭은 묶어서 빗자루로 사용한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황기장은 곽란, 설사, 번열(煩熱)에 좋고, 백기장은 위장과 번갈(煩渴)에 효험이 있다고 했다.

참고문헌 | 本草綱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田作(趙載英 外, 鄕文社, 1997).

필자 | 이영재(李英宰)





1 기장열매
2 낟알떨기
인천시 옹진군 정연학

나물채취

정의 빈궁기인 봄에 부족한 식량을 늘려 먹기 위해 이용하였던 취나물, 쑥, 산미나리, 양해잎, 물릇(무릇) 나물을 캐는 행위. 뜯어온 나물을 콩가루에 넣고 국으로 끓여 먹었다.

내용 설을 지나 2월과 3월에 주로 나물을 캤다. 이때 나오는 나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구, 취나물, 달래, 쑥, 산미나리가 주를 이룬다. 산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산 속의 도랑가에서 주로 자라던 것을 가리킨다. 나물을 해서 콩가루를 넣고 쑥 같은 것과 양해 잎을 해와서 국을 끓여 먹는다. 고구마도 저장해 두었다가 삶아서 캐온 봄나물과 함께 먹었다. 쑥도 많이 먹는데 삶아서 물에 담가두었다가 떡을 해 먹었다. 배추도 예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재거름이나 돗거름이 부족하여 거름을 못하는 집도 반은 되었다. 배추를 갈면 바닷물을 퍼와서 물에 타서 거름 대용으로 뿌려주면서 키웠을 정도였으므로 나물을 많이 이용했다.

아주 옛날에는 물릇이라는 것도 먹었다. 봄농사를 위해 밭갈이를 하면 그 갈려진 벙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바다의 넙패라는 것을 뽑아다 넣고 다린다. 큰 항아리 속에 넣어 솥에 얹고 솥



나물채취
전남 곡성군 입면 황헌만

에서 김이 새나오지 못하도록 진흙을 바른 다음 다려야 한다. 한나절 정도를 다리면서 나면 물릇과 넙패가사리가 떡 모양으로 한 살이 된다고 한다. 시간과 공이 많이 드는 것이어서 이것을 어머니들이 부잣집으로 지어 다니면서 보리곡식으로 바꾸어 오기도 하고 먹기도 하였다.

특징 제주의 식생활 중 특징적인 한 가지가 국의 애용임을 알 수 있다. 김치, 짠지, 고추장 같은 반찬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 한가지로 밥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국거리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국의 재료로는 콩은 물론 다양한 바다 산물이 이용되고 있다.

의의 지난해 농사에 따라 정도는 달랐지만 보릿고개, 빈궁기는 해마다 맞이하는 숙명의 하나였다. 이러한 때 가난하고 식량이 없는 집에서는 나물이 쌀이나 잡곡 대신 먹었던 중요한 식품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濟州道의 食生活(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5).

필자 | 김동섭(金東燮)

누에치기

정의 봄과 가을에 누에를 쳐서 견직물의 원료인 고치를 생산하는 일.

유래 우리나라에서 누에를 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양잠법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기록에 따르면 주(周)나라의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옮겨와서 기자조선을 세울 때 기자에 의하여 전래되었다고 한다.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에 잠직물 제작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잠의 시작은 3천여년 전의 일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 뒤 삼한과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에 이르기까지 역대 임금이 장려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 11년에 후비친잠(后妃親蠶)의 예법을 제정하여 역대 왕후가 궁중에서 누에를 치게 하였고, 세조 1년에는 종상법(種桑法)을 제정하였다. 또 양잠에 관계된 서적도 간행하여 양잠 기술을 전파하였다. 세종 때에는 언해된 농잠서(農蠶書)가 있었다고 하며, 중종 때는 김안국(金安國)이 『잠서언해(蠶書諺解)』, 숙종조 박세당(朴世堂)의 『색경(穡經)』이 저술되었고, 고종 연간에는 『잠상집요(蠶桑輯**要**)』, 『잠상촬요(蠶桑撮**要**)』,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閨閤叢書)』가 저술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누에치기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면서 농촌 경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군수 산업의 하나로 장려되었던 누에치기는 광복 후 쇠퇴하다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62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1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과 그에 이은 제2차 잠업증산 5개년 계획(1967~1971)을 통해 새롭게 번성하였다. 이어서 1980년 이후에도 농가의 부업으로 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지금은 사양 산업으로 고치실보다는 몇몇 농가에 의해 약재를 생산하기 위한 누에치기가 성한 편이다.

누에치기는 대개 봄누에와 가을누에로 일년에 두 번 친다. 아기누에를 길러 넉잠을 자고 나서 5령에 이른 누에를 섶에 올린 후 봄에는 8일 만에 고치를 따낸다. 고치는 품질에 따라 상고치, 중고치, 하고치, 쌍고치로 분류한다. 생고치의 보관은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건조한 곳에 한다. 누에가 섶에 오를 때는 고치 모양의 송편(고치






〈누에치기〉
1 뽕잎따기
2 뽕잎먹이기
3 누에
4 누에고치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기리 황헌만

편이라고도 한다)을 빚어놓고 누에를 향하여 "고드레돌처럼 딱딱하게 잘 지어 주십시오." 하고 축원했다고 전한다.

의의 누에를 치는 목적은 견직물의 원료인 고치실을 얻는 데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도 적지 않다. 누에똥[蠶糞, 蠶砂]은 가축의 사료, 식물의 발근촉진제, 녹색 염료, 활성탄 제조 그리고 연필심 제조에 쓰이고, 제사 과정에서 나오는 번데기는 사람이 먹기도 하고, 가축과 양어의 사료, 고급 비누나 식용유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누에가 죽어서 마른 것, 누에고치 번데기, 두 번째 기른 누에나방, 누에똥, 누에알 낸 종이, 풋고치 따위를 약으로 쓴다.

참고문헌 | 한국의 농기구(김광언, 문화재관리국, 1969), 韓國蠶業史(大韓蠶絲會,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농업과 농기구(주인택, 전라남도의 향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2).
필자 | 선영란(宣英蘭)

늦벼파종[晩稻播種]

정의 벼의 품종은 익는 시기에 따라 이른벼[早稻], 중생벼[次早稻], 늦벼[晩稻]로 나눈다. 조선 중기의 농서인 『금양잡록(衿陽雜錄)』, 후기의 농서인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행포지(杏蒲志)』, 『백운필(白雲筆)』에 늦벼의 품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른벼와 늦벼의 분산 재배는 농사의 위험성 감소와 농사력의 일시적인 집중을 조절하는 역할도 있다.

시기 옛 기록에 벼의 파종 시기를 보면 이른벼는 청명, 중생벼는 청명 이후, 늦벼는 곡우 무렵에 파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른벼를 파종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중생벼와 늦벼를 심어나간 것이다. 현대의 개념은 옛날과 차이가 있다. 현대는 생육 기간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누는데, 생육 기간이 긴 만생종을 제일 먼저 심고 중생종과 조생종을 차례로 심어 수확기를 맞춘다.

내용 모내기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직파법(直播法)이 일반적이었다. 직파법에는 건삶이와 무삶이 방법이 있었다. 늦벼 파종에 많이 쓰였던 건삶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봄갈이한 논을 써레질하여 덩이를 잘게 깨고 잘 고른 다음 이랑을 낸다. 볍씨 한 말

과 오줌에 재인 재 한 섬의 비율로 섞은 종자를 소쿠리나 종다래끼에 담아 이랑에 뿌리고, 다른 사람은 뒤를 따라가면서 쇠스랑으로 흙을 고루면서 이랑을 묻는다. 벼가 마른 땅에서 튼튼히 자란 후 물을 대어 준다. 무삶이는 건삶이와 달리 볍씨를 물에 담가 따뜻한 아랫목에 두었다가 싹이 0.5센티미터 정도 자라면 파종을 한 다음 곧바로 물을 대주는 방법이다. 모내기가 일반화된 17~18세기 이후에는 조생종 못자리와 만생종 못자리를 따로 설치하여 모내기를 하였다.

변천 근래에는 남부 지방 특히 벼 수확 후 보리 재배가 불가능한 논에 주로 심는다. 한편 다수확을 위한 조기 재배법이 정착되고 농업 기계화가 진척됨으로써 늦벼를 재배하는 추세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참고문헌 | 課農小抄, 衿陽雜錄, 白雲筆, 增補山林經濟, 杏蒲志, 李朝農業技術史(李春寧, 韓國硏究院, 196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1981), 조선의 민속전통4 -로동생활풍습-(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韓國中世農業史硏究(金容燮, 지식산업사, 2000).
필자 | 주인택(朱仁鐸)

모판준비

정의 벼농사에서 논 한쪽에 따로 볍씨를 뿌려 모를 키우기 위해 모판을 만드는 일. 모가 자라는 곳이라는 뜻으로 못자리 또는 모판이라고도 한다. 못자리는 논에다 직접 볍씨를 뿌리던 직파재배(直播栽培) 이후에 생겨난 농사기술로, 별도의 논에 모판을 만들어 볍씨를 뿌린 다음 40~50일 정도 모가 자라면 이를 쪄서 제 논으로 옮겨 심는 이앙재배(移秧栽培)에 필요한 일종의 육묘(育苗) 기술을 말한다. 고려 말에 처음 시작된 이앙재배는 어린모의 관리가 쉽고 소출이 높지만 가뭄에 자칫 농사를 망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여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다가 수리시설(水利施設)이 발달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성행하였다.

내용 못자리는 곡우(穀雨)에 준비한다. 2월에 얼음이 풀리면 쟁기로 논갈이를 미리 해둔 논에 모를 낼 전체 논 면적의 1할 가량에 사방으로 두둑(개둑이라고도 함)을 만들고 물을 댄다. 물을 대고 열흘 가량 지나 흙덩이가 풀리면 써레질을 하는데 흙덩이가 곱게 부서질 때까지 여러 차례 삶는다. 그러고 나서 삽이나 괭이 또는 쇠스랑과 같은 연장으로 모판너비가 120~150센티미터 되게 모판 사이에 골을 파고 파낸 흙을 모판으로 올린다. 모판의 표면은 수평이 잘 맞아야 하므로 고무래로 우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번지나 발번지로 다시 높고 깊은 곳이 생기지 않도록 평평하게 고른다.

예전에는 생풀을 못자리에 두툼하게 깔고 흙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몽둥이로 마구 두드려서 평평하게 하기도 하고, 풀을 썩힌 거름과 재거름을 함께 섞어 뿌린 다음 모판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벼가 잘 자라고 나락이 살찐다고 한다. 모판이 완성되면 물을 빼고 하루나 이틀 가량 땅을 굳힌 다음에 볍씨치기를 한다.







〈모판준비〉
1 논둑가래질
2 모판고르기
3 모판써레질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참고문헌 | 穡經, 韓國 在來農耕의 地域差(張籌根 외,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博物館 開館特輯-(京畿大學出版部, 1983), 〈農事直說〉단계에서의 水田農業(李根洙, 韓國의 農耕文化3, 京畿大學校博物館, 1991), 경기민속지(경기도박물관, 2003).
필자 | 박호석(朴虎錫)

목화파종(木花播種)

정의 목화(木花, cotton plant, *Gossypium*)는 무궁화목 무궁화과의 섬유 작물이다. 방적(紡績), 충전(充塡), 착유(窄油)에 활용하기 위해서 파종한다.

내용 수확한 목화씨는 짚으로 만든 오쟁이나 다래끼에 넣어서 시렁처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한다. 목화의 발아 온도는 12~13도로 빠르면 춘분(春分)에 파종하기도 하나, 대체로 평균기온이 15도인 곡우(穀雨) 무렵에 파종한다.파종 방법은 목화만 파종하는 단작(單作), 보리와 함께 짓는 윤작(輪作)이나 간작(間作), 참깨 따위와 섞어 짓는 혼작(混作)이 있다. 밭을 갈지 않고 골을 짓는 간작과 달리 단작, 윤작, 혼작은 쟁기로 밭을 갈아주는 아이갈이를 한다. 목화는 심근성 작물로 깊이 밭을 갈아주어야 하며, 거름을 넣기도 한다.

재래면인 아시아면은 무상기일이 150일 이상, 육지면은 200일 이상 되어야 좋은 면을 수확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찍 파종한 노가리는 품질이 좋지만, 보리와 간작 또는 윤작으로 늦게 파종한 '보리작 끝'은 품질이 떨어진다. 방적용으로 우수한 육지면이 보급된 이후 조숙계 113호와 114호, 풍산계 380호, 조숙성 수원1호, 목포 3호, 4호, 5호, 6호를 주로 파종한다. 목화씨는 지역에 따라서 별다른 처리 없이 바로 파종하기도 하지만, 종자에 솜털[地毛]과 밀납질이 있어서 서로 엉켜 파종이 어렵고 발아가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줌이나 물에 10~20분간 담았다가 재[草木灰]를 묻혀 손으로 비빈 뒤 파종하며, 파종량은 대체로 단보당 5.5~7.5킬로그램 정도이다. 이랑의 방향은 토지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되도록 햇빛이 잘 들도록 동서로 내며, 너비는 약 60센티미터 정도로 하고 골 속에 인분과 재 따위로 만든 밑거름을 넣어준다. 종자는 삼태기에 담아서 골을 따라가며 줄뿌림하고, 괭이나 고써래로 골의 가장자리를 긁어서 씨앗을 덮어준다. 발아가 좋지 못할 때에는 음력 5월 상순 전에 추파(追播)한다.






〈목화파종〉
1 목화밭
2 목화밭
3 목화
4 목화송이
전남 나주시 다시면 무경

참고문헌 | 作物學槪要(趙載英·李殷雄 共著, 鄕文社, 196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8(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栽培飼育技術(鄭聖鳳,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3).
필자 | 이영재(李英宰)

무배추파종

개관 전통적으로 배추와 무는 김치의 주재료이므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채소이다. 보통 1년에 2회 경작하는데,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여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은 피한다. 봄철 재배는 음력 2월말~3월초에 파종하여 5월초(망종 무렵)에 수확하는데, 시차를 두어 중첩하여 재배하기도 한다. 가을철 재배는 음력 7월에 파종하여 10월(입동 무렵)에 수확한다.

내용 무와 배추를 파종할 때는 습해를 입지 않도록 이랑을 만들어 씨를 뿌리는 농종법(壟種法)을 썼다. 관수와 배수가 좋은 곳을 골라 소두엄이나 돼지두엄을 밑거름으로 넣고, 무나 배추가 깊이 뿌리박기 쉽도록 하기 위해 두벌갈이를 하여 이랑을 지어야 한다.

주로 뿌리를 먹는 무는 흙이 부드럽고 일정한 습기가 보장되어야 잘 자란다. 그래서 사질토양이 좋지만,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갈이하고 퇴비를 넣어 흙을 부드럽게 해주면 잘 자란다. 이랑은 약 4자 정도의 너비에 두 줄로 심는다. 무씨는 매우 잘기 때문에 씨뿌릴 때 2~3알씩 떨어지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무는 메밀밭이나 목화밭에 한여름용으로 사이갈이를 하기도 한다. 싹이 두 잎 되었을 때 가물면 물대기를 하고, 수시로 김을 매면서 솎아주어 가능한 빨리 하나만 남겨 두어야 알이 굵게 든다.

무와 달리 배추는 주로 이식재배를 하는데, 전통적인 직파재배에서 18세기에 이르러 이식재배가 보급되었다. 봄에는 김치용 잎배추, 가을에는 김장용 통배추를 심는다. 배추는 묘상에서 싹을 틔운 후 네 잎 정도 날 때 모종을 옮겨 심는데, 씨를 뿌린 후 약 보름이 되는 때이다. 어릴 때는 수시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하고, 자라면서 솎음질을 해준다. 가을배추는 상강이 다가오면 배추통묶기를 해주고, 음력 10월에 무를 뽑아낸 뒤 수확한다.






1 무밭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무수확 농촌진흥청

3 배추밭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4 배추수확 농촌진흥청

참고문헌 | 韓國의 鄕村民俗誌 I -慶尙北道 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2), 조선의 민속전통 -로동생활풍습-(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조선기술발전사5(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필자 | 주인택(朱仁鐸)

밭벼파종[山稻播種]

정의 밭에 뿌려 키우는 벼를 재배하는 일.

내용 밭벼는 부지런하지 않은 농부는 지을 수 없는 농작물이다. 밭벼의 파종과 밭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밭벼는 보통 메밀그루에 파종한다. 밭벼는 밭을 가리지 않는 편이나 비교적 산전(山田)에 파종하는 수가 많다. 또 품종에 따라 어느 정도 토질을 가렸다. 제주도에는 네 가지의 밭벼 품종이 전한다.

밭벼는 소만(小滿)에 파종하고, 상강(霜降) 전후에 거두어들인다. 450평을 기준으로 하면 밭벼 씨앗은 넉 되를 뿌린다. 밭갈이 전에 3분의 2의 씨앗을 뿌린다. 이때의 씨앗을 '알씨(또는 밋씨, 굽씨)'라고 한다. 3분의 2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밭갈이를 한다. 그 후에 나머지 3분의 1의 씨앗을 뿌렸다. 이때의 씨

앗을 웃씨 또는 놀씨라고 한다. 섬비를 끌어주며 복토(覆土)한다. 그 후에 밭의 거죽을 마소의 발로 탄탄하게 밟는다. 보수력(保水力)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일을 두고 '산듸 밧 볼림'이라고 하였다. 물기가 촉촉한 밭에서는 3~4일 후면 싹이 나온다.

밭매기는 모두 세 번 한다. 파종 1개월 후에 첫 밭매기를 한다. 첫 밭매기 때는 김을 맬 뿐만 아니라 씨앗이 발아하지 않은 곳에 발아가 잘 된 곳의 모종을 뽑아다가 옮겨 심는 일도 한다. 그러니 첫 밭매기를 두고 방골름검질이라 한다. 7~8센티미터 간격으로 모종의 방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김도 맨다. 그 후에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밭매기가 이루어진다. 네 차례까지 매주는 수도 있다. "산듸밧 검질은 시앗을 빌려다 매야 좋다."는 속담도 전한다. 검질은 잡초(雜草)의 제주어(濟州語)다. 시앗은 동서와 같이 김을 맬 때 쉬 부아가 치솟기 십상이다. 그래서 힘차게 잘 맬 수밖에 없다. 곧 밭벼의 김은 그렇게 힘차게 매줘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수확 상강(霜降) 전후에 낫으로 밭벼를 벴다. 곧바로 줄기와 이삭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삭에서 까끄라기를 분리한다. 이삭을 멍석 위에 펼쳐놓고 방망이 따위로 두드리며 까끄라기를 이삭으로부터 떨어내 바람에 날려버린다. 이후에 남방아와 연자매에서 탈곡한다. 탈곡하다 보면 온전한 쌀과 으깨진 쌀도 나온다. 으깨진 모양의 쌀을 두고 '소레기'라고 한다. 그런 쌀은 죽의 재료로 이용한다.

참고문헌 |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필자 | 고광민(高光敏)

밭작물파종

정의 밭농사가 시작되는 3월에 겨우내 묵혀두었던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는 작업. 낙종(落種), 부종(付種), 종파(種播), 파식(播植)이라고도 한다. 씨뿌리기는 농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작물의 뿌리내림이 활발한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많이 수확할 수 있다.

내용 예부터 밭농사는 논농사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 후기 이모작으로 논보리를 갈지 않았을 때에 보리는 오직 밭에서만 재배됐고, 각종 잡곡과 채소를 밭에서 길러 주부식류를 충당했기 때문이다.

3월이 되면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밭갈이가 시작된다. 밭은 논과 달리 여러 번 갈이를 하지 않고 씨뿌리기 전에 갈아두었다가 파종 직전에 다시 골을 타서 씨를 뿌린다. 갈이 도구로는 볏이 없고 보습만이 달린 극젱이(홀챙이)를 사용한다.

작물은 생육 시기에 따라 파종 시기가 다르다. 19세기 중엽 소당(嘯堂) 김형수(金逈洙)가 열두 달에 대한 절기와 농사일을 7언 고시의 형태로 기록한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를 보면, 3월에는 기장, 콩, 들깨, 옥수수, 마, 호박, 박, 동아, 순무, 상추, 배추, 아욱, 고추, 가지, 겨자, 마늘, 파, 오이 따위를 파종하여 여름철 반찬거리로 삼는다고 했다. 그 밖에도 3월에 파종하는 작물로는 감자, 땅콩, 동부 같은 것들이 있다.

파종 방법으로는 씨 뿌리는 장소가 이랑인가 고랑인가에 따라 이랑에 씨를 뿌리는 농종법(壟種法)





1~2 생강파종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황헌반

과 고랑을 이용하는 견종법(畎種法)이 있다. 농종법은 배수와 통풍이 잘 되는 이랑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하(立夏) 이후 여름에 파종하는 경우가 많다. 고구마, 무, 배추, 수박, 참외 같은 습해에 약한 작물을 파종할 때 이 방법을 쓴다.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견종법은 아직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고 봄가뭄의 피해도 예상되는 3월에 주로 쓰는 파종법이다. 특히 보리와 밀은 대개 이 방법으로 파종한다.

한편 파종은 씨 뿌리는 방식에 따라 점뿌림[點播], 골뿌림[條播], 흩뿌림[散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점뿌림은 콩, 옥수수, 박, 호박, 파, 마늘처럼 씨앗 1~5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멍에 심는 방법이다. 골뿌림은 일정한 너비와 깊이로 골을 만든 후, 골을 따라서 다소 여유 있게 씨앗을 심고 흙을 덮어, 성장하면 솎아내는 방법으로 배추와 무는 대개 이 방법으로 심는다. 흩뿌림은 일정한 면적에 적당량의 씨앗을 흩뿌리는 것으로 들깨를 파종할 때 사용한다.

또 일정한 면적에 어떠한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단작(單作), 혼작(混作), 간작(間作), 주위작(周圍作)으로 나눈다. 단작은 한 가지 작물만을 심는 방법이다. 혼작은 생육 기간이 거의 같은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섞어 심는 것으로 콩밭에 옥수수를 심거나, 목화씨 뿌릴 때 참깨를 사이사이에 뿌리는 방법이다. 간작은 자라고 있는 작물의 골이나 포기 사이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보리 이삭이 패는 3월 하순에 보리밭 사이에 면화 종자를 뿌리거나, 간혹 3월초에 파종하여 성장한 담배밭 사이에 5월말~6월초에 기장이나 조를 파종하고 담배를 베어낸 후 기장이나 조를 본격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이다. 주위작은 콩밭, 참외밭, 수박밭에 키가 큰 옥수수나 수수를 심거나 논두렁에 콩을 심는 경우에 해당한다. 혼작, 간작, 주위작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기후나 병충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다.

3월에 파종하는 주요 밭작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리는 파종 시기에 따라 가을보리와 봄보리로 구분하는데, 특히 조생종 봄보리는 곡우(穀雨) 이전부터 심는다. 가을보리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심는 봄보리는 왕골을 치고 줄뿌림을 하여 파종한다. 간혹 경북 지방에서처럼 흩뿌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망보리라고 한다.

밭벼[山稻]도 3월에 파종하는 작물로 꼽는다. 밭벼는 논벼에 비해 맛이 떨어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산간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고, 논물을 잡기 곤란한 가파른 땅이나 다른 대체 작물을 심기 곤란한 곳에서는 골을 타고 거름을 깔아 줄뿌림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재배한다.

콩이나 팥 같은 콩과작물은 보리 다음으로 많이 심는 작물이다. 대체로 콩과작물들은 곡우 전까지 골을 타고 2~3알씩 점뿌림이나 골뿌림을 하여 심는다. 일반적으로 콩이나 팥은 한대작물(寒帶作物)이므로 저온에서도 잘 자라 이른 시기에 파종해도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작황이 좋지 못하므로 이랑을 내서 파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간혹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에서는 흩뿌림으로 파종하는 경우도 있다. 또 대개 저온에 약한 것으로 알려진 녹두는 흩뿌림을 하는데, 봄철 기온이 따뜻한 해에는 3월에 파종하기도 한다.

목화는 2월 중순에 갈이 작업으로부터 시작한다. 갈이를 많이 할수록 소출이 좋다 하여 주곡 재배처럼 두벌 세벌을 갈이하는 경우도 많다. 거름을 충분히 넣은 다음 갈아서 두둑을 만들고, 목화씨를 물에 푹 담갔다가 재와 섞어 버무려 점뿌림하고 흙을 덮는다. 호박이나 박도 이 무렵에 심는다. 이 작물들은 따로 밭을 잡아 심는 경우는 드물고 언덕이나 담장 또는 지붕밑 같이 넝쿨이 자라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골라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한 후 3~4알의 씨앗을 심는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民俗大觀5 -民俗藝術·生業技術-(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2), 농학개론(조장환 外, 선진문화사, 1991), 韓國의 鄕村民俗誌1 -慶尙北道 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2), 조선의 민속전통 4 -로동생활풍습-(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조선기술발전사5(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전라남도의 향토문화(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조선시대농법발달연구(염정섭, 태학사, 2002),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주인택(朱仁鐸)

볍씨담그기

정의 못자리에 뿌릴 볍씨에 섞인 쭉정이나 협잡물을 골라내고, 볍씨에 기생하는 병해충을 구제하며, 볍씨의 싹이 고르게 나게 하기 위해 볍씨를 물이나







1 볍씨담기
2 소금물 붓기
3 보관하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볍씨치기

정의 모판에 볍씨를 뿌리는 일. 미리 준비해 둔 모판에 싹을 틔운 볍씨를 뿌린다. 모판에 볍씨를 고르게 흩어 뿌린다고 해서 "볍씨를 친다."라고 한다. 볍씨치기는 곡우(穀雨) 무렵에 하고, 땅에 처음 씨앗을 내는 신성한 일이어서 일부 지방에서는 날을 가리는 풍습이 있다.

내용 『색경(穡經)』「수도편(水稻編)」에는 "동지(冬至) 후 110일이 지나면 볍씨치기를 한다." 했는데, 이 시기는 대략 곡우 무렵이 된다. 물에 담근 볍씨를 2푼 정도 싹을 틔워 모판에 뿌린다. 조수(潮水)가 있는 날에 볍씨를 치면 씨가 몰린다고 해서 이른 아침에 친다. 그리고 경기 지방에서는 고초일[辛日]과 음력 2월에는 토끼날[卯日], 3월이면 개날[戌日]을 피했다. 볍씨는 모를 낼 논 한 마지기(150~200평)에 서너 되를 쳤다.

볍씨치기는 모판에 물을 대고 하는 경우와 볍씨를 먼저 뿌리고 나중에 물을 대는 경우가 있으며, 볍씨치기가 끝나고 적어도 사흘 동안은 새들이 먹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볍씨를 치고 사흘이 지나면 모가 뿌리와 잎이 제법 자라서 새들이 먹지 못한다.

지금은 기계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볍씨치기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볍씨도 육묘 상자에 파종기로 뿌린다. 또한 농사기술이 발달하여 모내기 시기가 빨라지면서 곡우 무렵에 하던 볍씨치기도 지금은 한식(寒食) 무렵으로 앞당겨졌다. 그리고 볍씨치기를 한 다음에 플라스틱 필름(비닐)으로 모판을 덮어 냉해를 예방한다.



볍씨치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소금물에 담그는 일. 볍씨담그기는 한 해 농사의 시작이라는 경건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날을 가려서 하는 풍습이 있다.

내용 한식(寒食)이 되면 추수 때 따로 보관해두었던 볍씨를 꺼내 햇볕에 잘 말려서 키질을 해둔다. 이를 곡우(穀雨) 무렵에 다시 꺼내 물에 일어서 깨끗이 한다. 그리고 1~3일 동안 물에 담가두었다가 건져서 물기를 뺀 다음, 소쿠리나 둥구미 같은 그릇에 담아 1~2일 동안 방안에 두어 싹을 틔운다. 올벼는 청명(淸明)에, 늦벼는 곡우에 담근다.

볍씨를 소금물에 담그는 것을 염수선(鹽水選)이라 하는데, 이는 살균(殺菌)과 살충(殺蟲)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함이다. 달걀을 띄웠을 때 잠기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만든 소금물에 보통 하루 정도 볍씨를 담갔다가 다시 맹물에 하루나 이틀을 담근다. 염수선은 근래에 시작된 방법이다.

지역사례 경기도에서는 볍씨 담그는 날을 가리지 않는 대신 볍씨 치는 날을 가린다. 볍씨는 오래 담글수록 좋다고 해서 10일 이상, 많게는 한 달 동안 물속에서 싹이 날 때까지 담그는 경우도 있다. 전라도에서는 곡우 무렵에 볍씨를 담그지만 뱀날[巳日]을 피해서 한다. 경상도에서는 새날[乙日]과 고초날[辛日]을 피하는데, 새날에 볍씨를 담그면 새가 쪼아먹고, 고초날 담그면 모가 자라면서 잎의 끝이 마른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穡經, 韓國 在來農耕의 地域差(張籌根 외,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 博物館 開館 特輯-, 京畿大學出版部, 1983), 〈農事直說〉단계에서의 水田農業(李根洙, 韓國의 農耕文化3, 京畿大學校博物館, 1991), 경기민속지(경기도박물관, 2003).

필자 | 박호석(朴虎錫)

참고문헌 | 穡經, 韓國 在來農耕의 地域差(張籌根 외,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 博物館 開館 特輯-, 京畿大學出版部, 1983), 〈農事直說〉단계에서의 水田農業(李根洙, 韓國의 農耕文化3, 京畿大學校博物館, 1991), 경기민속지(경기도박물관, 2003).
필자 | 박호석(朴虎錫)

보냄

정의 2월 그믐부터 3월 초순에 소를 밭으로 처음 내보내는 일. 첫보냄이라고도 하며 '보냄이'라고도 한다. '첫보냄이'라고도 하는데 겨우내 얼었던 밭이 해빙이 되어 물러지면 한다.

유래 보냄을 하는 날짜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좋은 날을 가리는데 열두 띠 가운데 털 없는 날을 택한다고 한다. 이는 표면이 매끈한 뱀이나 용처럼 무엇에 걸림 없이 미끄러지듯이 밭을 갈아서 소도 힘들지 않고 농사일도 수월하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냄은 대체로 털이 없는 용날이나 뱀날을 택하는데 농사일로 이웃에 소를 빌려 줄 때에도 반드시 주인이 먼저 보냄을 한 후에 빌려 준다.

내용 농부들은 겨우내 우리 안에 가두었던 소를 들판으로 내보내 처음으로 밭을 갈면서 일년 농사가 잘되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 또한 가구(家口)라 불릴 정도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은 취급을 받는 소가 다치지 않고 일을 하며 쟁기가 부러지지 않기를 빈다. 대체로 보냄을 하는 소는 암소 구분이 없으며 집에서 기르던 소를 데리고 텃밭으로 나가며 한 두 고랑만 갈아보고 돌아온다.

지역사례 강원도 원주에서는 지금도 옥수수밭이나 고추밭에서 소 한 마리를 쓰는 호리소로 보냄을 하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농사를 위한 밭갈이가 아니고 일종의 입춘날 시경(試耕)이나 모의춘경(模擬春耕)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첫보냄을 할 때 주인은 소를 몰며 "어디 어디 내려서라." 하고 소몰이소리를 하면서 실제의 밭갈이와 같이 고삐를 당긴다.

보냄 풍습은 입춘날 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농사철을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입춘 전날 흙으로 빚은 소를 길거리에 세워놓았으며 이후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함경도에서 나무로 소를 관청에서 만들어 마을로 끌고 돌아다녔다고 하였고, 제주도에서도 입춘굿놀이를 하여 풍흉을 점쳤는데 입춘 전날 나무소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나무소에 농쟁기를 매어 밭 가는 시늉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지역에서는 타축(打丑)이라 하여 소를 끌어내어 채찍질을 하면서 소를 부리는 행동을 하고 소에 쟁기를 매어 시험삼아 몇 마지기 논밭을 가는 모의 농경을 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춘경(春耕) 의식을 지냈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의 입춘 풍속으로 토우(土牛)를 내보내 이 날 한기(寒氣)를 쫓았다고 하는 것은 『예기(禮記)』 월령에 처음 보이는데, 관에서 소를 데리고 예축적(豫祝的) 농경의례를 행하는 타춘(打春) 풍속은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이나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에 작은 춘우(春牛)를 팔거나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춘우도(春牛圖)를 증정하는 권농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대만에서는 입춘날을 농민절로 정하여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을 새기고 있다.

의의 보냄 풍습은 입춘을 맞아 농사에 큰 역할을 하는 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사철이 다가왔음을 알려 철을 놓치지 않고 농사 준비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영농 기계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경운기로 밭을 갈지만, 산촌의 작은 텃밭을 갈 때 행해지는 소의 보냄 풍습은 힘든 밭갈이가 쉽게 미끄러지듯 넘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이며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는 모의농경의 내농작(內農作)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歲時風俗 및 歌謠研究(張正龍, 集文堂, 1988), 立春風俗考(簡濤, 上海文藝出版社,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江原道民俗研究(張正龍, 國學資料院, 2002), 열두달 민속이야기(리정순 외, 근로단체출판사, 2002).
필자 | 장정룡(張正龍)

봄바령[糞田]

정의 소나 말의 똥이나 오줌 같은 분비물을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곳에 모아 받는 일. 낮에 돌보

면서 풀을 뜯게 했던 소나 말을 밤에 가두어 두었던 밭을 바령밭 또는 바령통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소를 넣었던 밭을 쇗통이라고도 한다.

내용 예부터 돗통에서 얻은 돗거름을 거름 중에 최고로 쳤다. 그래서 소를 키우는 외양간을 가진 집에서도 그냥 소거름을 거름으로 쓰기보다는 소의 분비물을 다시 돗통에 넣어 돗거름과 섞이도록 한 다음 이용하기도 하였다.

제주에서는 소나 말을 주로 방목(放牧)으로 사육하는데, 겨울이 되면 방목하던 소를 내려 자기 집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새 풀이 나면 다시 목장에 올려 방목하게 된다. 이때 외양간을 따로 확보할 수 없으면 밭에 풀어놓아 소똥과 오줌을 그 밭에서 직접 거름으로 확보하여 이용한다. 바령밭에는 가난한 사람은 마소를 1~2마리씩, 보통은 3~5마리를 넣어 키운다. 많으면 10마리 이상도 넣어 키운다. 말보다는 주로 소를 키우는데, 소는 농경에도 이용하고 새끼를 낳으면 당장에 돈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가까이 있는 밭을 바령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조를 수확하고 나서 보리 파종을 준비할 기간이 보름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봄바령이 3월에서 5월 무렵까지 겨울갈이를 하지 않은 밭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름바령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을바령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특징 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소를 몰아넣는 바령밭은 밭담을 1.5미터 정도로 높고 튼튼하게 쌓아 다른 밭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보리의 파종 때가 되면 우선 돗거름을 마당으로 내어놓는데, 올래 목에 내어놓는 사람도 있다. 이것에 ᄂᆞ람지를 덮어 씌어 두었다가 소나 말에 실어 밭으로 나른다. 이것을 흩어놓고 다음날 씨를 흩친 다음 밭을 갈면 파종이 되는 것이다.

의의 봄바령은 거름으로 활용할 소의 분비물(分泌物)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직접 밭에 소를 들여놓아 밤새도록 누는 똥과 오줌을 얻는 것이다.

참고문헌 | 濟州島(泉靖一, 東京大出版會, 1966).

필자 | 김동섭(金東燮)

올벼심기[早稻 -]

정의 본격적인 추수에 앞서 추석 때를 맞춰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올벼(조생종)를 음력 3월에 심는 일.

내용 및 작물특성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올벼 품종으로 구황되오리, 옥자강이, 에우지, 왜자, 쇠노되오리, 황금자가 소개되어 있다. 구황되오리[救荒狄所里]는 일명 빙절도(氷折稻)로 까끄라기가 없고, 누런색에 껍질이 얇은 품종이다. 성질이 매우 빨리 자라고 귀가 매우 약하며 쌀이 희고 연하다. 기름지고 마르지 않는 밭에 적합한데, 3월 상순(上旬) 얼음이 풀리자마자 심어야 한다. 옥자강이[著光]는 까끄라기가 짧은 품종으로 처음 이삭이 팰 때는 약간 흰 색깔이었다가 익으면 황적색(黃赤色)이 된다. 쌀이 희어 밥이 좋다. 귀가 질기고 바람을 잘 견딘다. 척박한 땅을 꺼리고, 비록 푸석푸석한 견실하지 못한 땅이라도 이삭이 잘 패고 결실도 잘 한다. 심는 시기는 구황되오리와 같다.

중올벼인 에우지[於伊仇智]는 까끄라기가 짧다. 처음 이삭이 팰 때에는 연한 흰색이었다가 익으면 까끄라기는 황적색(黃赤色)이 되고 껍질은 진누런색이 된다. 쌀이 윤기가 있고 희며 밥을 지으면 매우 연하다. 귀가 매우 질기며 성질이 강건하여 푸석푸석하여 견실하지 못한 땅에서도 잘 된다. 심는 시기는 구황되오리와 같다. 왜자(倭子)는 까끄라기가 매우 짧아 없는 것 같다. 처음 이삭이 팰 때는 푸른 색깔이었다가 익으면 까끄라기는 누렇고 껍질은 연한 흰색이 된다. 쌀이 윤기가 있고 희며 밥을 지으면 쩟쩟하다. 성질이 강해 바람을 잘 견딘다. 푸석푸석하고 물이 차가우며 견실하지 못한 땅에도 잘 된다.

쇠노되오리[所老狄所里]는 까끄라기가 없다. 처음 이삭이 팰 때는 푸른 색깔이었다가 익으면 누렇게 된다. 쌀이 윤기가 있고 희며 밥을 지으면 연하다. 귀가 질기고 바람을 꺼린다. 척박한 데는 잘 자라지 않으므로 기름지고 습한 곳에 심어야 한다. 황금자(黃金子)는 까끄라기가 길다. 처음 이삭이 팰 때는 푸른 색깔이었다가 익으면 진한 황색으로 변한다. 쇠노되오리와 대략 같은데, 알이 길고 크며 조금 일찍 된다. 쌀이 희고 밥을 지으면 연하다. 귀가 질기고 바람을 꺼린다. 높거나 척박한 데는 잘 안 되고, 기름지고 하습한 데가 좋다. 경상도에서 잘 심는다.

대체로 올벼는 산간 고랭지에서는 평탄한 곳보다는 울퉁불퉁한 곳에, 기름진 땅에서보다는 척박한 곳에 심는다.

수확방법 올벼는 절기상 추석 전에 수확한다. 나락이 반쯤 익으면 먼저 논물을 빼내고 논바닥을 말린다. 낫으로 벼를 베어 몇 포기씩 뭉쳐 일주일간 논바닥에 널어 말린다. 일주일을 말린 다음에 한 다발씩 묶고, 묶은 볏단은 타작할 장소에 눌러둔다.

기타 호남 지방에서는 수확한 올벼를 바치고 조상 숭배를 곁들인 천신의식(薦新儀式)을 행하는데, 이를 올벼심리, 올개심리 또는 올이심리라고 한다. 올벼심리를 하는 나락은 솥에 쪄서 말린 후 절구에 찧어내는데 이를 올벼쌀이라고 한다. 올벼심리는 그 해 처음 수확한 올벼쌀로 밥을 하고 과일, 각종 나물, 닭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 조상에게 바친 후 집안 어른들을 드시게 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이다.

참고문헌 | 山林經濟,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선영란(宣英蘭)

참깨파종

개관 깨는 5월에 파종하여 8월 말에 거두는데, 거둔 참깨는 말리고 몽둥이로 털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고 체로 고르는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

작물특성 깨의 원산지는 인도와 이집트로 알려져 있으며, 원줄기는 네모지고 부드러운 털이 많다. 씨는 흰색, 누런색, 검은색이 있으며, 꽃은 흰색 바탕에 연한 자줏빛이 돈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줄기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 한 송이씩 달린다.

잎 모양은 부위에 따라 다른데, 일찍 나온 아랫부위의 잎은 크고 톱니모양이 크게 발달하여 세 쪽으로 갈라지며, 중간 부위의 잎은 타원형으로, 상부의 잎은 피침형(披針形)으로 폭이 좁고 작다.

깨는 참깨와 들깨가 있는데, 『농사직설(農事直說)』과 『산림경제(山林經濟)』에 따르면, 참깨는 호마(胡麻), 지마(芝麻), 거승(巨勝: 검은깨), 진임자(眞荏子)로 적고 있다. 참깨의 품종은 팔릉자(八稜者)와 백호마(白胡麻)로 나뉘는데, 팔릉자는 참깨 가운데 기름이 많이 나는 품종이다. 『산림경제』에서도 참깨를 색깔에 따라 검은 것, 흰 것, 누른 것,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흰 것이 기름이 많다고 적고 있다. 들깨는 수소자(水蘇子), 유마(油麻), 수임자(水荏子)로 표기하며, 중국에서는 백유마(白油麻)로 적는다.

내용 참깨는 다습한 땅에서는 잘 안 되지만, 가뭄이 드는 해에는 오히려 잘 된다. "가문 해 참깨는 풍년







1 참깨
2 참깨수확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이창호
3 참깨말리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이 든다.”, “깨는 불을 담아 부어야 풍년이 든다.”라는 속담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참깨 재배지에 대해 『농사직설』에서는 거친 땅이나 백양토가 좋고, 『산림경제』에서도 백양토가 합당하나 묵은 땅을 더욱 좋은 것으로 여겼고, 『한정록(閑情錄)』에서는 비옥한 땅이 좋다고 적었다. 실제 농가에서는 따비로 개간한 밭(묵은 땅)에 깨를 심었다. 깨의 파종은 『농사직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력 4월 사이에 비가 온 뒤 땅을 갈고 씨를 파종하고, 곰방메로 흙덩어리를 깨뜨려 덮기도 하고, 북방 지역에서는 드베로 깨를 파종하기도 하였다. 깨밭의 김매기는 두 번 이상 매지 않아도 된다. 들깨는 길가나 밭둑에 심는 것이 좋고, 포기와 포기 사이는 한 자로 한다.

깨는 양력 5월에 파종을 하는데, 『한정록』과 『산림경제』에서는 음력 3월 상순을 적기라고 하였고, 비옥한 땅이면 4~5월에도 가능하다고 적었다. 또한 시기가 늦을수록 열매가 적고 쭉정이가 많다고 한다. “뻐꾹새 울면 참깨 파종이 늦다.”라는 속담도 늦어도 5월 중에 파종을 하라는 의미이다. 깨는 4월 상순에 보리를 베어낸 밭에 쟁기질을 해서 똥재나 오줌재를 거름으로 하여 드물게 심기도 하고, 다른 작물과 섞어서 파종하기도 하는데, 들깨는 늦팥과 3대 1로, 참깨는 녹두와 1대 2의 비율로 섞어 종자를 고루 뿌리고 흙을 덮어준다.

수확방법 참깨는 익는 대로 베어 작은 다발을 만들고, 5~6다발을 서로 기대어 세워 묶고 끝이 벌어지기를 기다려, 다발을 하나하나 거꾸로 세워들고 작은 막대로 가볍게 두드려 탈곡한다. 탈곡한 다발은 다시 세워 말렸다가 3일 후에 다시 탈곡을 하는데, 이 같은 행동을 4~5차례 한다. 다발을 작게 하는 것은 다발이 크면 말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털린 곡물은 바람에 쭉정이를 날리고 체로 거른다. 이 같은 내용은 『농사직설』와 『산림경제』에서도 보인다.

기타 참깨의 용도는 기름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종실(種實)을 그대로 기름과 함께 이용하는 형태 그리고 깻묵을 이용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깻묵은 참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이다. 옛날부터 허약한 사람이나 환자에게 깨죽을 쑤어 먹였고, 깨를 많이 먹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노화를 막고, 젖이 부족한 산모가 참깨를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고 여겼다.

참깻대도 농가에서는 거름과 방충으로 사용하는데, 『농가집성(農家集成)』에서는 못자리의 밑거름으로 참깻대를 썰어 외양간에서 마소가 밟게 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거름으로 쓴다는 설명이 있다. 『산림경제』에서는 참깻대를 쌀 창고 안에 놓아두면, 쌀이 벌레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깨는 실생활에서 생활을 풍자하는 도구로 쓰이는데, “깨가 쏟아진다.”는 것은 몹시 재미가 있음을, “깨소금 맛”은 몹시 통쾌함을, “깻묵 맛을 들인다.”는 남모르는 고소한 맛을 알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깻묵에도 씨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변변치 않은 물건에도 제 속은 있다는 뜻이며, “물 묻은 바가지에 깨 엉켜 붙듯”은 무엇이 다닥다닥 가득히 끼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십년 묵은 참깨에서 기름내가 나랴.”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 물건의 질이 변해버린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참고문헌 | 農家集成, 農事直說, 山林經濟, 閑情錄,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정연학(鄭然鶴)

토란심기[土蓮-]

정의 음력 3월 천남성과에 속하는 다년생 채소인 토란을 밭에 심는 일. 토란은 토련(土蓮), 토란(土卵), 우자(芋子), 가우(家芋)라고도 한다.

유래 원산지는 인도와 그 접경 지역의 고온다습한 지대로 보고 있다. 중국에는 기원전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지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작물특성 땅 속에서 알줄기[球莖]로 번식하며 약간 습한 곳에서 잘 자란다. 알줄기는 타원형이며, 겉은 섬유로 덮이고 옆에 작은 알줄기가 달려 있다. 잎은 뿌리에서 돋아 1미터 정도의 높이로 자란다. 긴 잎자루가 있으며 난상 넓은 타원형이다. 회록색 잎몸은 길이 30~50센티미터, 나비 25~30센티미터이고 겉면에 작은 돌기가 있다. 양면에 털이 없고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밋밋하다. 잎몸 밑부분은 밑으로 처진다.

내용 토란은 고온성 식물로서 중부 이북에서는 재배하기 어렵다. 기르기는 비교적 쉬우며 봄에 종구(種球)를 심는다. 추운 곳에서는 4월 중순,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조숙 재배는 3월 중순이나 하순이 적합하다. 조숙 재배를 할 때는 온상 또는 냉상에서 싹을 틔워 심는데, 종구를 소독한 다음 본밭에 심기 25~30일 전에 모판에 밀착시켜 심고, 3센티미터 가량 흙을 덮는다. 종구는 30~40그램 이상의 것이 좋다. 본밭에는 1헥타르 당 석회 400킬로그램을 뿌리고 밭을 간다. 비료는 1헥타르 당 질소 180킬로그램, 인산 100킬로그램, 칼리 15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거름은 비교적 많은 양인 20,000~30,000킬로그램의 퇴비를 주는데, 밑거름과 덧거름을 3~4회에 걸쳐 나누어 준다. 북주기는 3~4회 하고 물주기도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좋다.

수확방법 늦가을 서리가 오면 토란의 잎과 줄기는 모두 베어낸다. 수확한 토란은 흙 묻은 채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기타 땅속 부분의 알줄기를 식용하며, 줄기를 식용하는 수도 있다. 토란국은 추석의 절식이고, 말린 토란잎과 줄기를 이용한 나물은 설날과 정월 대보름의 절식이다. 부침 또는 가루를 이용하여 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토란의 점액질에는 갈락탄, 만난, 뮤틴, 칼륨, 각종 비타민 같은 약효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 소종(消腫)과 해독의 효능이 있다.

참고문헌 | 鄕藥救急方, 菜蔬園藝各論(表鉉九 外, 鄕文社,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두산세계대백과사전(斗山東亞 百科事典硏究所, 두산동아, 1996), 單方藥(李炫石, 향지사, 1997).
필자 | 선영란(宣英蘭)

피파종[稷播種]

정의 논이나 밭에 피[稷]의 씨를 심는 일.

작물특성 피는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서 어릴 적에는 생김새가 벼와 비슷하다. 따뜻한 온대 지방에 대체로 서늘하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며 병충해에도 강하다. 크게 논피와 밭피가 있는데, 논피는 벼농사를 망치고 밭피는 보리농사를 망치는 잡초지만, 생육이 왕성하여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므로 예전에는 흉작을 대비하여 구황작물로 재배하였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피 재배 농가를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피는 제주피, 공주피, 진천피, 삼척피, 진주피가 있다. 피 종자는 식용으로, 짚은 사료용으로 쓰인다.

내용 2월 중순에 밭을 갈고 써레로 흙을 골라 두었다가 3월 상순부터 4월 상순 사이에 파종한다. 파종은 기장이나 조를 심는 것과 같이 골을 타고 줄뿌림[條播]하거나 넓은 두둑을 짓고 흩어뿌림[散播]하기도 한다.

만약 땅이 척박하면 거름으로 인분이나 오줌재를 쓰는데, 잘 썩힌 인분을 오줌재에 섞어서 뿌린다. 또 밭에다 미리 풀을 깔고 쟁기로 간 다음 씨를 뿌리기도 한다. 김매기는 두 번 정도 한다.

늦은 피는 6월 상순에 보리나 밀을 심었던 곳이나 가뭄으로 미처 모내기를 못한 논에 심었다. 강피[羌稷: 피의 한 종류]는 늦게 심어도 일찍 수확할 수 있다. 예전에는 양날[未日]과 범날[寅日]에 피 파종을 삼가는 풍속이 있었다.

수확방법 피는 벼가 익을 무렵에 피의 낟알 8~9할이 익으면 수확한다. 수확이 조금 늦으면 바람에 씨가 쉽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낫으로 베어서 말린 다음 도리깨로 타작한다. 알곡은 절구에 찧어 핍쌀로 만들어 밥에 섞어 지으면 맛이 좁쌀보다 좋고, 맷돌에 타서 가루를 내어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참고문헌 | 農事直說, 增補山林經濟, 栽培學汎論(趙載英 · 李殷雄, 鄕文社, 2000).
필자 | 박호석(朴虎錫)

호박심기

정의 음력 3월 박과에 속하는 덩굴성 한해살이풀인 호박을 심는 일.

유래 및 작물특성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 알 수 없고, 조선시대 문헌에 비로소 나타난다. 한국에서 재배하는 호박은 중앙아메리카 또는 멕시코 남부의 열대 아메리카 원산의 동양계 호박(*C. moschata*), 남아메리카 원산의 서양계 호박(*C. maxima*), 멕시코 북부와 북아메리카 원산의 페포(*C. pepo*)의 3종이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한

국에서 예부터 애호박, 호박고지용, 호박범벅 따위로 이용해 온 동양계 호박이다. 그 후 쪄먹는 호박 또는 밤호박으로 불리는, 주로 쪄서 이용하는 서양계 호박이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조숙재배용이나 하우스 촉성재배용으로 이용된 호박, 곧 주키니호박이라 불리는 덩굴이 거의 뻗지 않고 절성성(節成性)을 나타내는 애호박용의 페포계 호박이 도입되었다. 동양계 호박은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숙과와 청과는 겸용하는 것이 많다. 동양계 호박은 과실이 크고 익으면 과피가 황색이 된다. 육질은 점질이지만 익기 전부터 맛이 좋아 애호박으로 많이 이용한다.

내용 서양계와 동양계의 호박은 덩굴성이나 페포계는 덩굴을 뻗지 않고 군생한다. 발아 적온은 25~30도이며 생육 일수는 120~150일이 된다. 뿌리를 얕게 뻗으므로 관수가 용이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알맞다. 서양계 호박은 그 모양이 동양계와 비슷하여 구별이 곤란한데 이때는 줄기의 단면으로 구별한다. 서양계는 단면이 둥글고 동양계와 페포계는 오각형을 나타낸다. 재배 양식은 하우스 촉성 재배와 반촉성 재배, 조숙 재배, 여름 재배, 억제 재배가 있다. 촉성 재배와 반촉성 재배는 12~2월에 걸쳐 파종하여 3~6월에 걸쳐 수확하는 형태이다. 조숙 재배는 3~4월에 파종하여 6~7월에 수확하는 방법이며, 여름 재배는 4월 하순에서 5월 사이에 걸쳐 노지에 직파하여 6~9월에 수확하는 방법이다. 억제 재배로는 남부 해안 지방과 제주 지방에서 가능한데 8~9월에 파종하여 11~1월에 수확하는 방법이다. 촉성 재배와 억제 재배에서는 대부분 덩굴이 뻗지 않는 주키니호박을 가꾼다. 육모 방법은 화분에 심어 묘목을 기를 경우는 약 25~30일이 걸리는데 싹을 틔운 뒤에 파종한다. 호박은 먼저 구덩이를 깊게 판다. 판 구덩이에 흙과 거름, 퇴비를 섞어넣고 호박씨 10여 개를 넣는다. 이 경우는 수박에서처럼 들쥐나 새들의 공격에 대처하여야 한다. 싹이 나면 2개 정도만을 남기고 솎아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종(移種)한다.

수확방법 동양계나 페포계는 7~10일이면 수확하는데 이는 생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서양계는 개화 후에 35~40일이 지나서 과피가 황갈색이 될 때 수확한다. 동양계의 익은 호박은 서리가 오기 전에 따서 서늘한 장소의 상온에서 1~2개월은 보존할 수 있다.

기타 호박은 과채류 중에서는 녹말 함량이 가장 많아 감자, 고구마, 콩에 이어 칼로리가 높아 전시에는 대용식으로 재배하였다. 그러나 보통은 조리용으로 이용되는데, 익은 호박은 비타민A가 많고 비타민B와 C도 약간 있어 비타민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어린 호박은 나물, 부침 같은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늙은 호박은 과육으로 떡, 범벅, 죽, 조림을 만들어 먹거나, 쪼개 말려 가루를 만들어 먹는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호박잎을 쪄서 쌈을 싸서 먹고 씨를 볶아 먹기도 한다. 햇볕이 좋은 가을에 썰어 말린 애호박은 큰 명절인 설날과 정월 대보름에 나물 재료가 되고, 호박씨는 음력 이월 초하루 자식의 건강을 위해 각종 씨앗을 볶아 먹이는 관행에 재료로 쓰인다. 호박은 폐암, 위암, 식도암, 후두암 같은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 특히 통기(通氣)와 이뇨 작용에 좋고, 호박씨를 햇볕에 말려 볶아 먹으면 구충제가 된다.

참고문헌 | 大韓植物圖鑑(李昌福, 鄕文社, 1980), 菜蔬園藝各論(表鉉九 外, 鄕文社,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두산세계대백과사전(斗山東亞 百科事典硏究所, 두산동아, 1996), 單方藥(李炫石, 향지사, 1997), 약용식물대사전(다나카 고우지, 동학사, 2004).

필자 | 선영란(宣英蘭)

1 호박꽃
제주도 제주시 황헌만

2 호박따기
농촌진흥청





갈치잡이

정의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이 잡히는 갈치를 잡는 일. 주로 갈치는 봄과 가을에 많이 잡힌다.

내용 조선왕조 효종(孝宗) 때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토산(土産)」에 도어(刀魚)가 있다. 도어(刀魚)는 곧 갈치이다. 갈치는 바다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물고기인데 이런 성격의 물고기를 두고 걸물궤기라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예부터 갈치가 많이 잡혔는데 주로 낚시로 잡았다. 전통적으로 갈치잡이는 펄바다에서 이루어진다. 펄바다는 닻을 드리우고 배를 조금씩 이동해가며 낚시질을 할 수 있는 바다이다. 갈치를 '걸바다'에서 잡지 않는 이유는 걸바다는 바닥이 거칠어 닻을 드리우고 배를 흘려줘가면서는 갈치를 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갈치를 낚는 데는 두 가지 어법(漁法)이 전승되었다. 배를 거의 세워 낚는 묻음갈치술과 배를 어느 정도 이동시키며 낚는 흘림갈치술(끄림바리)이 그것이다. 묻음갈치술은 밤과 낮에, 흘림갈치술은 밤에만 이루어진다.

묻음갈치술은 줄낚시나 다름없다. 미끼는 고도리라는 고등어새끼와 갈치의 살을 발라낸 것으로 쓴다. 바다의 물때를 가리지 않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닻을 드리운 채 낚는다. 갈치는 물리는 수심(水深)이 다르다. 그 지점을 ᄀᆞ리라 한다. ᄀᆞ리를 잘 찾아야 많이 낚는다.

흘림갈치술은 배를 흘려가며 낚는 끌낚시이다. 어구는 제법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갈치 끌낚시는 알봉돌이 돋보인다. 물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낚시가 옆으로 눕거나 빙글빙글 돌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봉돌들이 중심을 잡아준다. 알봉돌에 두 개의 낚시가 박혀 있다. 흘림갈치술에서 갈치 미끼로 갈치꼬리를 쓴다. 꼬리의 앞부분을 윗낚시에, 뒷부분을 알낚시에 끼운다. 끌낚시로 낚는 갈치는 가을에 달이 훤한 달밤이나 해가 기울어가는 어스름 무렵에 배를 이동시켜 가며 낚는다. 어스름 햇살이나 달빛에 반사되는 갈치꼬리인 미끼는 마치 멸치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갈치가 갈치꼬리 문다."는 속담은 바로 이와 같은 어로 기술에서 비롯되었다.

제주도에서 전통적으로 갈치를 낚는 어기(漁期)는 봄과 가을로 두 번이다. 음력 3월에서부터 음력 5월 사이에 낚는 갈치를 봄갈치, 음력 7월에서부터 10월 상강(霜降) 사이에 낚는 갈치를 ᄀᆞ실갈치라고 한다. 봄갈치는 아침 일찍 먼 바다로 나갔다가 해가 질 때까지 낚고, ᄀᆞ실갈치는 주로 밤에 낚는다. ᄀᆞ실갈치보다 봄갈치가 굵고 크다.





1 봄갈치잡이
제주도 서귀포시 김상수

2 갈치위판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김상수

참고문헌 | 耽羅志,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필자 | 고광민(高光敏)

게잡이

명칭 및 종류 게는 몸통에 5쌍의 다리가 있고 바다나 강에 사는 동물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게의 종류는 180여 종에 이른다. 한자로는 해(蟹)라 하며, 한글로 궤라고 한다. 방언으로는 평안도, 황해도 그리고 함경남도에서 불리는 거이라고 부르며, 충청도와 전라북도와 강원도에서는 그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름들이 음운 축약되어 게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1


2


3


4

1 유자망꽃게잡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김상수

2 유자망꽃게잡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김상수

3 닻자망꽃게잡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김상수

4 낭장망꽃게잡이
충남 보령시 외연도 김상수

게는 『자산어보(玆山魚譜)』와 『전어지(佃漁志)』에서 개류(介類)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물명고(物名攷)』에서는 개충(介蟲)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참게를 해(蟹)라 하고 대게를 자해(紫蟹)라고 하고 있다.

게는 비슷한 무리와 구별할 때 단미류(短尾類)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새우류와 집게류에 비해 꼬리 부분이 짧은 까닭이다. 게는 비슷한 세 가지 무리(게, 집게, 새우) 중 가장 진화하였으며, 몸통은 윗면이 한 장의 등딱지로 덮여 있다. 새우에서 볼 수 있는 배 부분은 딱딱한 형태로 퇴화하여 몸통에 붙어 운동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하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게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슴다리인데, 첫째 다리는 집게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는 다섯 개의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꽃게 종류는 마지막 다섯째 다리가 헤엄을 칠 수 있도록 노(櫓)의 모양을 하고 있다.

게의 크기를 나누는 기준은 게의 몸통 또는 다리와 몸통을 이은 전체 길이이다. 학술적인 면에서 게의 크기를 말할 때는 게의 몸통, 곧 등딱지의 폭이 주로 이용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로 대게를 꼽을 수 있다. 대게라는 이름은 조선 초기 임금의 명을 받고 대게를 찾아나선 신하가 죽도(竹島)라는 섬에서 이를 발견하고 언기(彦其)라고 하였다. 궁궐에 들어와 발견 장소의 죽(竹)자를 넣어 이름을 짓도록 학자들과 논의해 죽해(竹蟹)라고 하였다. 죽해를 풀어쓰면, 죽침언기어(竹針彦其魚), 죽육촌어(竹六寸魚), 죽육촌침해어(竹六寸針蟹魚), 죽육촌기해어(竹六寸其蟹魚)라는 말로 대나무 섬의 죽(竹), 마디가 6개라 하여 육촌(六寸), 침이 있다고 하여 침(針), 크고 이상한 벌레라 하여 언기(彦其)를, 엄지가 2개, 다리가 8개, 자연 가미되고 내장이 없는 희귀한 벌레라는 뜻에서 해(蟹)가 된다. 따라서 죽해를 한글로 옮긴 것이 대게라고 한다.

강구항은 해방 직후 대게의 집산지였다. 가장 좋은 상품이 강구와 축산 사이의 영덕 지방 3마일 해상에서 잡힌다고 하여 영덕대게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게가 많이 잡히는 영덕 지방에서는 황금색이 짙고 속살이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것들을 박달게

또는 참대게라고 부르며, 껍질을 벗은 것들은 홑게라 하여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암컷은 빵빵하다고 하여 빵게라고 부르고 있다. 대게와 모양, 크기, 색깔이 비슷하지만 대게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붉은대게(홍게)가 있고, 대게와 붉은대게의 잡종 형태로 태어난 너도대게가 있다. 대게가 많이 나는 동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큼직한 게가 있는데 그것이 털게이다. 수심이 깊고 찬 동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온몸이 빳빳하고 가는 털로 덮여 있으며, 크기는 몸통의 크기만을 따진다면 대게보다 크고, 몸통의 두께 또한 두껍다. 하지만 대게에 비해 잡히는 양이 많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내용 및 어법 옛날부터 사용한 게잡이 방법으로 갯가에 나가 직접 손으로 돌멩이와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게를 잡거나, 간단한 먹이(생선, 육고기)를 낚시나 줄에 매어 잡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게잡이는 놀이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것이, 어구가 발달하면서 양적인 면의 증가로 인해 어업 행위로 정착되었다.

전통적으로 게잡이는 그믐(사리)에 횃불을 들고 바다에 나가 바닷물이 빠질 때, 먼 바다로 가지 못한 참게나 동남참게, 돌게(민꽃게)를 돌멩이로 잡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배의 크기와 성능이 좋아져 바다 멀리까지 나가면서 통발, 유자망과 트롤 어업으로 게잡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통발 어업은 둥근형 또는 사각형의 철 뼈대를 그물로 싸서 만든다. 미끼로 통발 중간에 생선을 넣는다. 동해에서는 주로 정어리, 청어, 꽁치를 넣고, 남해와 서해에서는 고등어, 전갱이 같은 생선을 넣어 하루 또는 날씨가 좋지 않아 조업을 못할 경우는 사흘까지 기다린다. 서해에서는 장어를 잡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형 통발을 이용하여 게를 잡기도 한다. 어민들은 자신의 통발을 표시하기 위해 양쪽 끝에 부표(스티로폴)를 설치하고 부표 위에 대나무를 꽂고, 하얀색 또는 붉은색과 같은 깃발을 달아 표시한다. 통발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는 별의 위치와 산과 골짜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구분하였으나 요즘은 GPS라는 위성을 이용한 최첨단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원동기를 이용하여 밧줄을 끌어올려 통발 속에 잡힌 대게 중 살아 있는 것은 물칸(수조)에 넣고, 죽은 것은 얼음에 보관한 후 판매한다.

유자망은 예전에는 명주실을 굵게 하여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낚싯줄을 마름모꼴로 엮어 4~5미터 또는 1~2미터의 폭으로 만든다. 바닥에는 약간의 추와 윗부분에 부표를 매달아 펼쳐진 형태로 게들이 움직이는 통로에 설치하여 통발과 같이 하루 또는 이틀을 기다린다. 어민들 자신의 유자망 표시 방법과 자리의 위치 표시 방법은 통발에서 이용하는 것과 같다. 유자망에 걸려온 게들은 꺽쇠와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그물에서 떼어내며, 사후 처리는 통발에서 이루어지는 방법과 동일하다. 유자망은 잡고자 하는 게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발달되어 현재 이용되고 있다.

트롤은 자루 형태의 긴 그물을 합성수지로 만들어 배와 연결하고 중간에 그물을 벌려주는 전개판을 철로 만들어 설치한다. 그물의 바닥에 쇠사슬과 고무 타이어를 중간 중간에 설치하여 가라앉게 하고, 그물 윗부분을 부표로 뜨게 하여 그물 입 부분을 넓게 한 후 배를 천천히 이동하며 그물로 바닥을 끌면서 바닥에 있는 게들을 잡는 형태의 어업을 트롤 어업이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게, 붉은대게와 털게와 꽃게, 앙쌍게(돌게, 민꽃게), 털복숭이게(밤송이게)를 잡을 수 있다.

시기 게를 잡는 시기는 게맛과 게살의 풍성함으로 결정되는데, 게맛은 시기적으로 암컷이 알을 밖으로 품지 않고 몸통 속에 간직하고 있을 시기가 가장 좋다. 대게는 음력 1~3월 사이에 잡히는 것을, 꽃게는 음력 4~5월 사이에 잡히는 것을 최고로 친다. 이에 비해 게살의 풍성함은 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달빛이 환한 보름에 잡히는 게들은 달빛에 놀란 탓인지 많이 움직여 살이 빠진 상태이고, 그믐에 잡히는 게들은 살이 꽉 차 있다고 전해진다.

조리법 대게는 그 어떤 게보다도 속살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하며 맛이 좋아 일찍이 궁중에 진상되어 온 명물로, 그 명성은 멀리 일본에까지 알려져 있다. 껍질을 막 벗어 몸통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횟감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대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가마솥에 물을 조금 붓고 뜨거운 김으로 쪄 먹는다. 대게를 찔 경우 반드시 등딱지를 아래로 하여 쪄야 하는데 이것은 내장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게의 맛을 즐기려면 늦겨울에서부터 늦봄까지 잡히는 것이 살이 많고 맛도 일품이라고 하니 시기를 잘 택하여 먹는 것도 좋다. 현재 식품으로의 가치 이외에도 대게의 껍질을 잘게 부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만들어내는 키토산과 같은 물질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신물질로도 각광받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동식물도감 -집게 · 게류 편-(김훈수, 문교부, 1973), 玆山魚譜(정약전 지음 · 정문기 옮김, 知識産業社, 1977),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필자 | 최정화(崔廷華)

까나리잡이

정의 까나리과의 바닷물고기인 까나리를 잡는 어업법.

내용 및 어법 까나리의 몸은 가늘고 길며 원통형으로 배지느러미가 없고, 몸 옆에 비스듬히 뒤쪽으로 달리는 피부 주름이 있다. 등은 푸른빛이 돌지만, 몸 옆과 배 부분은 은백색이다.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양미리라고 부르고, 흑산도 일대에서는 솔멸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공멸(工蔑)이라 기록되어 있다.

까나리는 이동성이 적고, 생김새가 다른 몇 가지 지방군(地方群)이 있다. 낮에는 헤엄쳐 다니고, 밤에는 연안의 모랫바닥에서 저생(低生) 생활을 한다. 여름에 수온이 높을 때에는 모래 속에 파묻혀 여름잠을 잔다.

서남해안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낭장망을 이용하여 까나리잡이가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횃불로 해안 가까이로 까나리를 몰아 후릿그물로 잡아내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낭장망은 저인망 그물과 같은 긴 자루그물의 날개 앞쪽과 자루 끝쪽을 로프로 연결된 멍이나 닻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에 의하여 들어간 고기를 건져올리는 방법이다.

주목망으로 잡는 방법은 굵은 통나무를 기둥처럼 세우고 거기에 그물을 설치하여 잡는 것인데, 하루에 두 차례 물 보는 작업을 하여 썰물에 잡힌 고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여 신선도를 유지시키며 잡아올린다. 동해안에서는 주로 자망으로 잡는다.

기타 까나리는 까나리액젓으로 가공되는데, 까나리액젓은 비린내가 적고 담백해서 김장을 담글 때 넣는 양념으로 인기가 높다. 동해안산 까나리인 양미리는 구이용으로 이용되는데, 서해산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참고문헌 | 玆山魚譜, 어촌 민속지(경기도 · 충청남도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6), 경기민속지(경기도박물관, 2003).
필자 | 이태호(李泰鎬)

미역해경(-解警)

정의 성장기에 있는 미역을 따는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하였다가 다 성장하였다고 생각되는 어느 정해진 날에 이 금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 매역해경, 메역해경, 해채(解採)라고도 한다. '따 모으다'는 의미에서 미역도 채집(採集)의 대상물이다. 미역의 채집을 금한다는 의미로 보통 12월부터 금채(禁採)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를 다시 푼다는 의미로 해채(解採)라고도 한다. 금채의 기간을 정한 것은 마을민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마을 사람 모두가 경계(警戒)하는데, 이 금채를 해제하는 것을 미역해경이라고 한다.

내용 미역해경은 보통 3월 중순에 있는데, 이 날에는 은퇴했던 좀수(해녀)들까지도 바다로 나가 작업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좀수들의 가족들도 이 날 작업을 돕기 위해 바닷가로 나가게 되므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룬다. 미역해경을 하는 때는 언제나 3월 15일이었다. 남자들도 경운기나 지게를 가지고 가서 실어오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많은 잠수들이 이 날에 일제히 바다로 몰려들어 미역을 베어들이므로, 이 날 하루의 수확은 굉장

1~3 낭장망 까나리잡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김상수









1 미역해경
2 미역올리기
제주도 서귀포시 김상수

히 많다. 미역을 베는 도구로는 중게호미를 사용하는데, 물 속에서 작업하다 떨어뜨려도 자루가 가벼워 뜨게 만들었다.

자기 가족이 한 것만이 전부여서 가족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할 수 있었다. 그것을 바닷가에 널어 말린다. 이 날 미역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날 와서 작업하는 사람은 "이삭 줍는다." 하여 조금씩밖에 하지 못한다. 깊지 않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어서 물이 든 때는 깊이 들어가야 하지만, 물이 싼 때는 깊지 않아서 쉽게 작업할 수 있다. 물에서 거둬들인 것인 것을 바닷가에 널어 말린 다음 이용한다.

좀수는 이 날 아침에 바다에 나가 저녁 때까지 작업한다. 낮에 물이 한 번 싸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도 함께 쓸려 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는 나와서 쉬게 되는데, 그때를 피하면 하루 내내 작업한다.

보통 이 날 하루 한 사람이 수확하는 미역의 양은 30근 정도이다. 마른 미역 하나를 한 락이라 하고, 열 락이 한 뭇이 되며, 열 뭇이 한 뭉치가 된다. 옛날에는 한 뭇의 가격이 보리쌀 몇 말을 살 정도였다고 한다.

필자 | 김동섭(金東燮)

바다풀채취

정의 제주도에서 음력 3월에 밭에 거름으로 쓰려고 바다풀을 채취하는 일.

내용 제주도에서는 갈조류(褐藻類)와 홍조류(紅藻類)가 음력 10월에 발아(發芽)하여 음력 3월에 성숙하면 채취 대상이 된다. 거름용 바다풀을 뭉뚱그려 듬북 또는 물망이라고 한다. 화학 비료가 흔해진 1970년대 이전까지 제주도 사람들에게 듬북은 생명선이나 다름이 없었다. 밭에 거름으로 쓰는 바다풀은 듬북, 물레듬북, 실갱이 따위이다.

듬북조문은 음력 3월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톳을 채취하는 시기와 미역을 따는 시기의 중간이다. 듬북은 일정 기간 채취를 금했다가 점심대(漸深帶)에 나는 것은 잠수해서 따고 조간대(潮間帶)에 나는 것은 그대로 베어낸다. 듬북조문을 할 때는 보통 한 집에서 한두 명씩 동원된다. 해녀들이 잠수하여 나베기듬북을 따고, 늙은이들은 갯가에서 지충을 베어낸다. 그리고 남자들은 지게로 듬북을 지고 뭍으로 나른다. 이렇게 모인 듬북을 말려서 집집마다 골고루 나누어 가져간다.

봄부터 여름까지 갯가에 듬북이 뭉뚱그려진 체로 밀려드는데, 이 바다풀을 물레 듬북이라고 하였다.



바다풀운반 김상수

이것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수습(收拾)하고 말려 나눈다. 실겡이(*Sargassum micracanthum*)라는 바다풀은 줄아시라는 기다란 낫으로 배 위에서 베어낸다. 실겡이는 점심대(漸深帶) 바윗돌 위에서 자라는 모자반과의 바다풀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음력 3월과 4월 사이에 실겡이를 채취하여 밭의 거름으로 삼는다. 갓 베어낸 것을 보리밭 위에 깔아 웃거름[追肥]할 때 쓰거나 말려 보관해두었다가 보리를 갈 때 파종비(播種肥)로 쓴다.

참고문헌 |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필자 | 고광민(高光敏)

바릇질

정의 바닷물이 들었다가 많이 빠진 썰물 때 넓게 펼쳐진 갯가에 나는 몸, 보말, 구젱기, 깅이 같은 어패류(魚貝類)를 잡는 간단한 어로 행위. 전문적인 어로 기술이 요구되지 않기에 누구나 썰물 때 쉽게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바릇질은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보인다.

내용 옛날에는 구덕을 지고 가서 고동, 소라, 조개, 문어를 잡았다. 그것을 바릇질이라고 한다. 주로 3월에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3월에 집에 있으면 "도둑질하려고 있다." 할 만큼 무엇인가를 해야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다.


1


2

1 바릇질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 김상수

2 바릇질
전남 진도군 송봉화

바람이 세어 좀수들마저 바다에 들지 않는 영등달에는 바다의 어패류들을 영등할아버지가 와서 다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간혹 있는 조개류의 살도 줄어든다고 한다. 영등달을 지나고 나면 그만큼 3월 바다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해올 것도 많다. 그때는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전부 바다로 나가게 된다. 특별한 도구도 없이 밭일에 쓰는 골갱이면 충분한데, 든 물이 쌀 때이므로 물이 자박자박한 곳에서 바릇질이 주로 이루어진다. 모래를 파면 모살조개라고 하는 작은 조개가 나오기도 하고, 대합조개라고 하여 큰 것도 나온다. 또 동그스름하게 생긴 조개도 나오는데, 이때 얻을 수 있는 조개만도 몇 종류에 이른다.

이렇게 잡은 것으로 반찬도 하고 많이 잡은 사람은 시장에 내어 팔기도 한다.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하는 것이므로, 쇠뭉치를 갖고 가서 큰 돌을 일구어 소라를 잡기도 한다. 요사이는 바다도 주인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기조차 어렵게 되어, 바릇질도 이제는 옛날 일이 되고 말았다.

의의 바닷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고기잡이는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바릇질은 물이 싼 때를 맞추어 바닷가로 나가 몸, 메역세 같은 것을 걷어다 먹는 것을 말한다. 그믐과 보름 사이에 두 번 물이 많이 싼 때가 있다. 주로 그때를 보아 바닷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채취(採取)해 먹는 것을 가리킨다.

필자 | 김동섭(金東燮)

밴댕이잡이

정의 가까운 바다 연안, 특히 남서해안에서 청어과에 속하는 밴댕이를 잡는 고기잡이 방식. 밴댕이회와 밴댕이젓으로 유명한 밴댕이는 반댕이, 반당어, 띠푸리, 반담이 따위로 부른다. 충청남도 서천 일대에서는 들퍼리라고도 부른다. 정약전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짤막한 멸치 곧 단추(短鰌), 반도멸(盤刀鱴)로 기록하고 있다.

내용 밴댕이 큰 놈은 6~7치 정도의 크기로 몸은 가늘고 길며 매우 납작하고 능선이 발달해 있다. 비늘이 잘 떨어지지 않으며, 등쪽은 청록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이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고 배 부분의 가





1 낭장망 밴댕이잡이
인천시 강화군 김상수

2 빅게잡이
제주도 서귀포시 김상수

장자리에 날카로운 모비늘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맛은 달고 짙다. 흑산 앞바다에서도 간혹 보인다. 서해안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낭장망, 안강망, 주목망으로 밴댕이를 잡는다.

낭장망은 저인망 그물과 같은 긴 자루그물의 날개 앞쪽과 자루 끝쪽을 로프로 연결된 멍이나 닻으로 고정시키고 조류를 따라 그물로 들어간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안강망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해역에 날개가 없는 긴 자루그물을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회유하던 물고기가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이다. 주목망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해역에 말목을 박고 날개그물이 없는 긴 자루그물 입구를 말목에 고정하여 어구를 부설한 다음, 조류를 따라 회유하던 물고기가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하여 잡는 어법이다.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 물고기의 이동을 살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어획한다.

참고문헌 | 玆山魚譜, 어촌민속지(경기도 · 충청남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6), 경기민속지(경기도박물관, 2003).

필자 | 이태호(李泰鎬)

빅게잡이

정의 제수(祭需)의 하나인 빅게적(-炙)을 마련하기 위해서 낚시나 그물로 빅게를 잡는 일.

내용 작은 상어처럼 생긴 바닷고기를 가리킨다. 빅게는 어린 상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물고기로 등에 얼룩의 점들이 새겨져 있다. 보통 1미터 내외의 것을 빗게라고 하고,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전저리라고도 한다. 상어 새끼같이 생겼으나, 크지 않게 생긴 것을 빅게라고 한다. 이를 잡기 위해 아주 먼 바다는 아니지만 테우를 타고 멀지 않은 곳으로 나가서 잡는다. 테우를 이용한 어로(漁撈) 행위의 하나인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보인다.

빅게는 해방 전 바닷가에서 흔하게 잡혔다. 그러나 지금은 잡히지 않는데, 그 원인이 오염 때문인지, 해수 온도의 변화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예전에는 테우를 타고 나가 남자들이 주로 잡았다. 빅게가 나는 철이 덥지 아니한 때 한철밖에 없었기에 이를 잡았던 기간도 12월부터 4월까지에 주로 이루어졌다. 이때를 지나게 되면 빅게는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한다. 주낙을 이용하여 잡았으며 주로 낮에 잡아 저녁에 시장에 가서 팔았다. 저녁 늦게 들어오게 된 때는 다음날 아침에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였다.

빅게는 비싸지만 맛이 있었다. 미역보다도 비싸서 미역이 2원 50전 정도하면 빅게는 10원 정도였다. 빅게를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것은 순전히 재수 상간이었다. 빅게잡이를 위해 영등달에 영등할아버지에게 해상의 안전은 물론 풍어를 위해 쌀, 떡을 준비해서 굿을 하고, 배에서 고사도 지내서 한 해 동안의 안녕을 기원했다.

빅게는 반찬으로도 먹고 날로도 많이 먹었다. 바다에서 잡으면 그 자리에서 날로 먹었다. 뼈가 강하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맛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큰 것은 맛이 싱거웠으므로 크지 않은 것을 주로 식용으로 이용하였다.

지역사례 제주시 동쪽 지역인 삼양에서는 멸치를 잡을 때 그물 속에 함께 쓸려오는 빅게를 잡기도 한다.

참고문헌 | 日本產魚類大図鑑(益田一 外, 東海大學出版會, 1994).

필자 | 김동섭(金東燮)

소금생산

정의 암염(巖鹽), 천연 함수(鹹水), 해수(海水) 같은 원료들에서 소금을 얻어내는 일.

내용 소금의 원료에는 암염(巖鹽), 천연 함수(鹹水), 해수(海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수(海水)에서 소금을 생산한다. 바닷물에서 얻는 소금으로는 자염(煮鹽)과 천일염(天日鹽)이 있다. 자염은 바닷물의 염도(鹽度)를 높인 뒤에 끓여서 석출(析出)하는 소금이다. 자염은 화염(火鹽), 전오염(煎熬鹽), 육염(陸鹽)이라 부르기도 한다. 천일염은 해수를 끌어들인 뒤에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을 점차 증발시켜서 결정시킨 소금이다. 천일염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태양염 또는 청염(淸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염을 생산해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석우로(昔于老)가 "왜왕(倭王)을 염노(鹽奴)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또한 신라의 애장왕(哀莊王)이 죽임을 당하는 809년에는 "서형산성(西兄山城)의 소금창고가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로써 신라대부터 소금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체제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조 충렬왕(忠烈王) 14년(1288)에는 여러 도(道)에 사신을 보내어 소금을 전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백성 중에서 염호(鹽戶)를 뽑았으며, 염창(鹽倉)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양광도(楊廣道)를 비롯한 여섯 도에 소금가마 616개와 염호 892호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보인다. 조선조에 들어서 소금의 전매제는 철폐되었으나 염업(鹽業)의 국영(國營) 형태는 이어졌다. 양란(洋亂) 이후에는 염철사(鹽鐵使)와 염철조도사(鹽鐵調度使) 그리고 양호염철사제(兩湖鹽鐵使制)를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였다. 영조(英祖) 7년(1731)에는 진휼곡(賑恤穀)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김해(金海)의 명지도(鳴旨島)에서 공염제(公鹽制)를 운영하였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서는 자염 생산 방식을 염전식 제염법(鹽田式 製鹽法)과 해수직자법(海水直煮法)으로 구분하고, 염전식 제염법은 제방의 유무에 따라 유제염전(有堤鹽田)과 무제염전(無堤鹽田)으로 구분하였다. 함경도의 일부 지역에서 바닷물을 직접 끓이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염전식 제염법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자염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짠물을 만드는 채함작업(採鹹作業)과 짠물을 끓여서 소금을 결정시키는 전오작업(煎熬作業)을 거쳐 생산된다.

서해안에서는 해수면이 가장 낮은 조금 때를 이용하여 갯벌을 써레로 간다. 다시 바닷물을 뿌리고 써레로 가는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말린 개흙을 긁어모아 섯등[鹽井] 위에 올린다. 섯등은 구덩이를 판 후에 솔나무와 갈대 따위를 넣어서 만든 일종의 여과 장치이다. 섯등 위에 바닷물을 부으면 개흙 속의 염분이 걸려져 아주 짠 함수(鹹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벌막[製鹽場]의 가마에다 부은 뒤 가열한 것이다. 가마로는 철부(鐵釜)와 토부(土釜)가 있으며, 가마는 아궁이 시설 위에 걸쳐져 있다. 연료로는 대체로 인근의 야산에서 얻은 솔가지 따위를 사

1 소금생산
2 소금담기
3 소금운반
충남 태안군 심디스마





용하며, 보통 8시간 이상 가열한 후에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1907년 탁지부(度支部)에서는 인천의 주안(朱安)에 천일염 시험장을 설치하였다. 이 천일염전은 대만의 갑종제염전(甲種製鹽田)을 도입한 것이다. 이때의 시험 결과를 기초로 평안남도의 광양만(廣梁灣) 일대에 대단위 천일염전을 만들었다. 천일 제염 작업은 크게 해수취입작업(海水取入作業), 함수농축작업(鹹水濃縮作業), 채염결정작업(採鹽結晶作業)으로 나뉜다. 작업의 소요일은 약 10일간이다. 먼저 저수지에 해수를 끌어들여 저장한 후 제1증발지와 제2증발지를 차례로 통과시킨다. 증발지로 갈수록 점차 함수의 농도가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결정지에 도달하면 채염한다. 1920년대 말부터는 2억 근 이상의 천일염이 생산되었고, 한국산 소금의 주종이 천일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자염의 명맥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자염 생산은 보통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난다. 자염 생산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4~6월이다. 7~8월에는 장마로 소금 작업이 어렵다. 천일염의 생산시기도 비슷하다. 천일염도 5~6월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인다. 이것은 한반도의 기후가 봄철에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소금의 소비량은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제일 많았다. 이것은 김장과 장을 담그는 철에 소금이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식생활의 변화로 소금 소비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韓國水產誌1(朝鮮總督府農商工部 水產局, 1908), 朝鮮專賣史(朝鮮總督府專賣局, 1936), 天日製鹽工業(이봉희, 재무부전매국, 1950), 곰소灣의 漁業과 漁村硏究(김일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朝鮮後期 鹽業史硏究(金昊鍾,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8), 朝鮮後期 魚鹽政策 硏究(이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0세기초 인천지역의 소금생산 -天日鹽을 중심으로-(유승훈, 인천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필자 | 유승훈(柳承勳)

조기잡이

정의 서해안 최대의 어종은 조기로, 조기는 지역에 따라 조구 또는 조긔라고도 부르며, 한자음으로는 석수어(石首魚)로 지칭한다. 조기라 하면 참조기를 뜻하며, 보굴치, 부서, 백조기 같은 참조기와 다른 근연종이 상당히 많다.

내용 조기의 산란기는 4~6월로서 주 산란기는 5월, 산란하기 좋은 수온은 10~13도이다. 산란장은 서해 중부 연안으로서 주 산란장은 전통적으로 연평도 연안이었으나, 남쪽에서의 저인망 어선의 남획으로 산란장이 남하되었다. 암컷의 생물학적 최소형은 전장 20센티미터 전후로, 마리당 포란수는 체장 30센티미터에서 3~7만개, 35센티미터에서 10만개이다. 성장이 상당히 빠르다. 당해년도에 새끼가 12센티미터로 자라며, 2년차에 17센티미터, 5년차에 24센티미터, 6년차에 26센티미터로 자라는데 평균 몸길이는 20~30센티미터이고 평균 몸무게는 280그램이다. 참조기의 수명은 최대로 11세로 추정된다. 수온이 16도 이상 높아지면 알을 밴 조기들은 물 깊이 들어가고, 수온이 낮아지면 다시 연안으로 나오며 10월 무렵에 월동처로 간다. 조기는 중층과 표층을 회유하며 낮에는 심층으로 들어간다.

조기잡이는 이같은 조기의 생태에 따라서 밑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조기는 동중국해 쪽에서 서해로 올라오는 회유 어종으로 흑산도로부터 신의주 앞바다와 중국 대련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어부들은 조기를 따라서 북상하면서 잡아나간다. 조기잡이 출어는 여러 단계의 사리로 구분된다. 흑산도 일대에서 첫 어장이 형성된 후, 전라도 영광과 부안 앞바다인 칠산어장, 충남 태안 앞바다인 방우리어장(격렬비열도), 연평도어장, 평북 철산 앞바다인 대화도어장이 중요하다. 밑에서 올라온 조기는 알을 실어 통통하게 살져서 칠산에서 곡우사리를 형성하며, 이때의 조기가 굴비를 제조하는 데 적격이다. 위도의 왕등이섬을 빠져나가 방우리어장에서 잠시 어장이 형성되며, 곧바로 연평도에서 입하사리가 이루어진다. 입하에는 알이 매우 굵어지고 살이 빠지게 되는데 이때쯤이면 기온이 높아져서 굴비를 만들 수 없게 된다. 대화도에 이르면 이미 산란이 이루어지고 살이 빠지게 되는 바, 이를 소만사리라 부른다. 따라서 곡우와 입하 때의 조기를 최상품으로 친다.

조기는 흑산도에서는 낚시로도 잡으나 대개 중선망을 이용한다. 자원이 풍족했을 때는 연안의 돌멩


1


2


3


4


5

1 자망조기잡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추자도 김상수

2 자망조기잡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추자도 김상수

3 조기잡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김상수

4 조기염장
전남 영광군 법성포 김상수

5 굴비
전남 영광군 법성포 김상수

이로 막은 돌살 또는 대나무나 소사나무로 엮은 어살에서 다량으로 잡아들이기도 했다.

연평도에 있던 어살은 임경업신화를 배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서해 어부들은 임경업 덕분에 조기를 잡게 되었다는 믿음을 지니고, 열성으로 임경업장군을 모셔왔다. 특히 연평도 임경업당은 '민간 신앙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고기잡이배들의 순례지였다. 임경업이 병사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던 중에 소사나무로 어살을 메어서 조기를 잡아 병사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전설에서 비롯하는 바, 어로 도구와 신화 탄생의 연관성을 말해준다.

서해에서는 조기잡이를 최대의 생계 수단으로 하여 어업을 꾸려왔고, 어로 기술상으로는 전래의 어살로부터 중선배를 거쳐 기계배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겪어왔다. 임경업을 조기의 신으로 모시기도 했으며, 당(堂)이 지금껏 존재하며, 구전문학으로서의 설화뿐만 아니라 배치기와 뱃고사가 조기잡이에 연계되어 전승되고 있다. 어부들은 흑산도로부터 신의주 앞바다와 만주 대련에 이르기까지 넓은 어장을 확보하였다. 조기가 많이 잡히고 돈이 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시가 형성되었다. 이 풍습들이 모두 조기잡이의 쇠퇴와 더불어 사라져갔다.

지역사례 조기잡이는 전라도의 칠산어장과 경기도의 연평어장을 최고로 친다. 북쪽으로 대화도어장도 중요하지만 알이 꽉 찬 조기는 양대 어장에 주로 모인다. 칠산과 연평의 사례를 보면 서해안 조기잡이의 핵심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칠산어장의 경우는 일찍이 지도군수 오횡묵이 정무일기 『지도군총쇄록(智島郡叢刷錄)』에서 말하기를, "법성포 서쪽 칠산바다에는 배를 댈 곳이 없고…… 고기를 사고팔며 오가는 거래액이 가히 수십만 냥에 이른다.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조기로 팔도에서 모두 먹을 수 있다." 하였다. 칠산바다는 법성 근역의 칠뫼[七山]뿐 아니라 북쪽의 위도까지 아우른다. 곡우가 되면 한시부터 열세시 사이에 정확하게 조기떼가 울었다. 어부들은 대나무통을 바다에 넣고 한쪽 귀를 막고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법성포 구수산의 철쭉꽃이 뚝뚝 떨어져 바다를 물들이면 어민들은 조기떼가 왔다는 신호로 알아듣고 이내 고기잡이를 나갔다. 그때 잡아들인 조기를 말려서 오가잽이(오사리에 잡는다는 뜻) 굴비를 만들

었으니, 그 전통이 오늘에 이어져서 법성포 굴비가 되었다. 법성포 굴비가 맛좋은 이유는 참조기만으로 1년 이상 된 양질의 소금을 사용하여 건조하며, 해풍, 습도, 일조량이 알맞은 기후 조건에서 만들기 때문이다. 법성포는 '하늘이 내린 굴비의 고장'이라 하거니와, 굴비 제조에 필수적인 소금, 바람, 갯벌이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연평도의 경우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조기잡이로 명성을 날렸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토산은 석수어가 남쪽 연평평(延平坪)에서 나고, 봄과 여름에 여러 곳의 고깃배가 모두 이곳에 모이어 그물로 잡는데, 관에서 그 세금을 거두어 나라 비용에 쓴다." 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조기떼가 대규모로 잡히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영광의 파시평(波市坪)과 더불어 황해도 연평평에서의 조기잡이가 등장한다. 연평파시는 연평파시평, 연평작사라 불렀다. 불과 30~40년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파시가 벌어져서 수천 척의 배가 몰려오는 성황을 이루었다. 칠산파시와 더불어 최대의 조기어장을 형성하면서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연평어장은 해주만 일대의 잘 발달한 리아스식 해안과 자잘한 섬들을 포괄한다. 미력리도, 갈리도, 장재도, 초마도 같은 자잘한 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 연평열도라고 부른다. 조기잡이 중선의 주어장은 연평도 서쪽 10~15리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어구도 중선, 건강망, 궁선, 어살이 쓰였다. 중선은 연평도 앞바다보다도 서쪽에 길게 돌출한 황해도 등산곶(登山串) 근역과 구월봉 아래에서 조업을 했는데, 수심이 20미터를 넘는다. 구월봉 아래는 이른바 구월이바다로 부르던 구월반도가 길게 늘어진 곳이다. 구월봉은 조기잡이배들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가늠을 잡는 봉우리다. 등산이와 구월이 앞바다는 자잘한 여와 모래밭으로 형성되어 있어 조기에게 최적의 산란장이었다. 연평파시에는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를 비롯하여 각지의 배가 몰려왔다.

1968년 조기잡이가 '공식적'으로 퇴장할 때까지 수천 척의 배들이 줄지어 서서 포구에서 당섬까지 배를 딛고서 그대로 걸어들어 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연평파시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나무와 쌀, 물 따위를 이곳에서 장만하였으니, 이런저런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극성을 떨었고, 300여 곳이 넘는 술집이 번성하여 수백의 여성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사내들을 기다렸다. 배들이 몰려오면 연평의 아낙과 처녀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허리 깊이까지 빠지면서 배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팔았다. 조기가 잡히면 시선배가 몰려왔다. 마포나루에서 얼음을 잔뜩 실은 시선배들이 땔깜, 식량 따위를 싣고 연평도까지 와서 사로잡은 조기와 맞바꾸었다. 일부는 해주항을 거쳐 개성부잣집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얼음에 차곡차곡 채워진 조기들은 강화도 북쪽을 통해 그대로 한강을 거슬러올라가 마포나루까지 직진하였다. 이 상인들을 경강상인(京江商人)으로 불렀으며, 마포새우젓 동네까지 진출하여 서울의 생선 공급을 도맡아 했다.

의의 1960년대 이래의 남획으로 말미암아 조기잡이가 대거 쇠퇴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조기는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야 하는 '절 받는 물고기'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있으며, 매우 비싼 값에 팔리고 있어 조기의 문화적 장기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산학적 통계에 의하면 조기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생선의 하나로 인정된다. 조기잡이를 통하여 창조된 파시 풍습, 어로 도구, 당신화 같은 것들은 비록 조기잡이가 쇠퇴하였더라도 여전히 어업문화사적 의미를 지니며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 玆山魚譜, 조기에 관한 명상(주강현, 한겨레신문사, 1998), 黃金の海(朱剛玄, 法政大出版部, 2003).
필자 | 주강현(朱剛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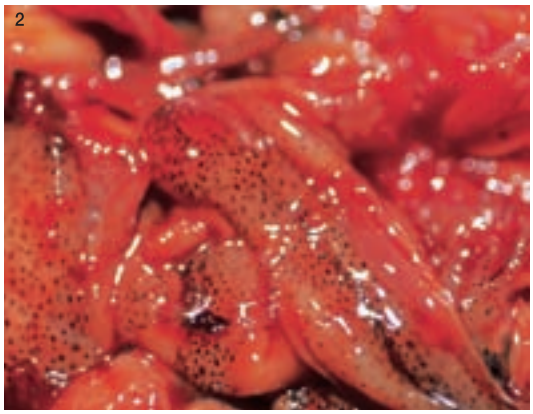
게장담그기

정의 봄·가을에 게장을 담그는 일. 게장은 참게를 간장에 절여 만드는 저장 음식의 하나이다.

내용 참게는 게딱지가 둥근 사각형이며 엄지발에 털이 다발로 난 게로 가을에 주로 논에서 잡는다. 꽃게는 봄에 바다에서 많이 잡힌다. 게장은 게젓이라고도 하는데 게젓은 게 종류 중에서도 맛이 있는 참게나 꽃게로 담그므로 소금물에 담가도 맛이 있다고 한다. 평안도에서는 겨울에 바다가 얼어 고기잡기가 불가능하므로 가을에 담근 게젓을 이듬해 봄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장에 담그지 않고 소금물을 짜게 만들어 담그는 것이 관례이며, 소금물에

1 꽃게장
2 꼴뚜기젓
김상수


1


2

담그면 게젓의 색이 변하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

게장 담그는 방법은 게가 그릇 밖으로 기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그릇에 물을 붓고 살아 있는 참게를 넣고 하룻밤 지나면 게가 속의 불순물을 뱉는다. 게는 거친 솔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낸 다음 물기를 없앤 항아리에 넣고, 여기에 끓여서 식힌 간장을 붓는데 이때 생강과 마늘을 썰어 넣는다. 참게 스무 마리면 간장 한 되 정도를 넣는다. 뚜껑을 덮고 3~4일이 지난 다음 간장을 따라 솥에 붓고 다시 끓여 식힌 다음 게 위에 붓기를 여러 번 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요즘은 폐디스토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게로 게장을 담그지 않고 바닷게인 꽃게나 그 밖의 게로 게장을 담그는 일이 일반화되어 게장이라면 으레 바닷게로 담그는 것이 게장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에는 게장은 참게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밖의 게로 담그는 게장은 방게장, 꽃게장 같이 게의 이름에 장이라는 말을 붙여서 불렀다. 게장은 간장에 담그기 때문에 전라북도 진안에서는 게장아찌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料理 百科事典(黃慧性, 三中堂, 1976), 우리나라 젓갈의 지역성 연구(徐惠卿,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전북 진안군의 장아찌에 관한 조사 연구(徐惠卿, 尹瑞石博士 停年退職紀念論叢, 尹瑞石博士 停年退職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8).
필자 | 서혜경(徐惠卿)

꼴뚜기젓담그기

정의 꼴뚜기가 많이 잡히는 봄에 꼴뚜기를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일.

내용 꼴뚜기젓을 담그려면 생꼴뚜기의 먹통과 눈을 뗀 다음, 굵은 소금에 절여 3~4일 두었다가 물을 빼고 다시 고운 소금에 절여 삭힌다. 잘 삭았으면 냉수로 빨리 씻어 물기를 빼고 채를 썰어 고춧가루, 마늘 따위를 넣고 무쳐서 먹는다.

지역사례 꼴뚜기젓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황해 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주로 담근다. 전라남도에서는 고록젓 또는 꼬락젓이라고 하며, 전라북도에서는 꼬록젓, 경상남도에서는 호래기젓, 황해도에서는 꼴띠기젓, 평안북도에서는 홀째기젓이라고 부른다.

참고문헌 | 우리나라 젓갈의 지역성 연구(徐惠卿,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필자 | 서혜경(徐惠卿)

꽁치젓담그기

정의 꽁치를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일.

내용 꽁치는 냉수성 근해 어류로서 한국에서는 동해를 따라 10월~12월에 북쪽에서 남하한다. 산란기는 5월~8월이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에 꽁치가 모여든다. 그러므로 꽁치젓은 주로 경상북도과 강원도 일대에서 담근다. 꽁치와 소금을 섞어 버무려 담그거나 또는 꽁치를 한 켜 놓고 소금을 꽁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고 그 위에 꽁치 한 켜, 그 위에 소금 이런 순서로 담근다. 버무려 담그거나 한 켜씩 담그거나, 필요한 소금의 양은 꽁치의 삼분의 일 정도이다. 맨 위에는 소금을 두껍게 덮고 두꺼운 종이나 비닐로 항아리 주둥이를 덮은 뒤, 고무줄로 동여매서 둔다.



꽁치젓 김상수

참고문헌 | 우리나라 젓갈의 지역성 연구(徐惠卿,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필자 | 서혜경(徐惠卿)

두견주빚기(杜鵑酒-)

정의 진달래를 이용하여 술을 빚는 일.

내용 이른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꽃으로 전국의 야산을 온통 연분홍으로 물들이는 꽃이 진달래이다.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어서 화전(花煎)을 부치고 나물로 무쳐먹기도 하고 술을 빚기도 하는데, 그 중 술이 으뜸이다. 옛 음식 관련 문헌인 『규합총서(閨閤叢書)』를 비롯해서 『술 빚는 법』, 『시의전서(是議全書)』, 『김승지댁주방문(金承旨宅酒方文)』 같은 여러 문헌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빚은 두견주를 소개하고 있다. 한 방법을 보면 "멥쌀 두 말을 곱게 빻아 끓인 물 한 말에 갠 다음, 하룻밤 동안 재워 차게 식힌다. 누룩은 김체에 쳐서 내린 가루누룩으로 한 되 서 홉을 준비하고, 이슬을 맞혀 뽀얗게 바랜 것으로 준비한다. 밀가루 서 홉을 누룩과 함께 범벅에 넣고 고루 버무린다. 술밑을 독에 담아 안치고 한지로 밀봉하여 사흘간 발효시킨다. 멥쌀 서 말과 찹쌀 서 말을 각각 깨끗이 씻어 건져 고두밥을 짓고 차게 식히고 쌀과 같은 양의 물을 끓여 차게 식혀놓는다. 밑술을 같은 양으로 나누어 각각 메밥 한 켜와 찰밥 한 켜, 진달래 한 켜씩 켜켜로 안친 다음, 메밥을 맨 위에 덮는다. 차게 식혀 둔 물을 위에 붓고 열나흘에서 스무하루 동안 익힌다."라고 하였다.

진달래꽃은 다른 꽃과는 달리 꽃술에 도도덴드론(안드로메도록신)이라는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해야 하며, 날것은 시큼한 맛이 있어 발효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술맛을 떨어뜨리므로 건조시킨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향기와 빛깔이 좋은 술을 얻으려면 켜켜로 안치고, 약효를 얻고자 하면 직접 버무려 넣는 것이 좋다.

두견주는 충남 당진이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가양주로 빚어지고 있는데 찹쌀로만 빚고 있으나, 형편에 따라 멥쌀로도 빚고 멥쌀과 찹쌀을 반반씩 섞어 빚기도 한다. 두견주는 끈적거릴 정도로 단맛과 진달래향이 강한 것이 특징으로, 진달래의 연붉은 꽃빛깔이 그대로 술에 녹아들어 애주가들을 사로잡는다.

기타 진달래는 아름다운 향기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을 비롯해 고혈압, 피로, 천식, 여성의 허리냉증에 효과가 있어 예부터 애용되어 왔다. 특히 진달래꽃을 이용한 술은 신분의 구별 없이 널리 빚어 마셔온 절기주(節氣酒)이자 가향주(佳香酒)이다. 전통 민속주 제조 기능을 보존하고 전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6년 정부가 현재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의 두견주 제조 기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하였다.



〈두견주빚기 I〉
1 그늘에서 진달래꽃을 말린다.
2 밑술과 고두밥을 켜켜로 담는다.
3 진달래꽃을 켜켜로 담는다.

〈두견주빚기 II〉
4 밑술과 진달래를 함께 버무린다.
5 항아리에 담아 안친다.
6 술독에 발효시킨다.

한국전통주연구소

참고문헌 | 閨閣叢書, 술 빚는 법, 是議全書.
필자 | 박록담(朴碌潭)

두부장담그기(豆腐醬-)

정의 봄에 두부장을 담그는 일. 두부장은 두부를 간장, 된장 또는 고추장에 넣어두었다가 먹는 장아찌의 하나이다.

내용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삼월령의 "고추장 두부장도 맛맛으로 갖추 하소."라는 대목에서 보듯이 두부장은 음력 삼월에 만드는 저장 음식이다. 만드는 방법은 두부를 두껍게 저며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면으로 만든 자루에 넣어 지그시 눌러 물을 뺀다. 물이 다 빠지면 베주머니에 넣고 입을 봉한 다음, 간장이나 고추장에 넣어두었다가 간이 들면 먹는다. 다른 방법은 두부를 보자기로 싸서 단단히 눌러 물을 뺀다. 물기를 꼭 짠 것을 절구에 넣고 소금간을 하여 찧는데, 이때 간을 세게 하여야 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베주머니에 두부를 다시 담아 된장 속에 박아두었다가 간이 들면 꺼내어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로 양념하여 베주머니에 넣는다. 다시 된장에 묻어두었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꺼내어 보면 노란빛이 나며 맛이 있다. 두부장은 조금씩 꺼내어 풋고추를 찍어 먹거나 상추쌈을 할 때 넣는다. 먹으면 특이한 맛이 있다.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요즘은 보기 힘든 음식이 되었다.

참고문헌 | 韓國料理 百科事典(黃慧性, 三中堂, 1976),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한국음식대관4 -발효·저장·가공 식품-(장지현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필자 | 서혜경(徐惠卿)

마농지담그기

정의 제주에서 콥대산이라고 부르는 마늘을 늦봄에 반찬의 하나로 담궈 먹는 것. 보통 마늘은 음력 7월 말에 심어 겨울을 지나 다음해 3월에 거둬들인다. 예부터 제주에서 반찬의 하나로 마농지를 담아 즐겨 먹었으며, 다른 반찬을 만드는 데도 넣어 맛을 돋우는 양념으로도 사용하여왔다. 또한 음식을 먹고 속이 거북스러울 때나 음식 냄새가 많이 날 때도 먹었으며,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체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혹 체하였을 때 먹어도 효과가 좋다고 한다. 또 심하게 체한 사람이 토하고자 할 때 소금물에 이 마늘을 조금 풀어 넣은 물을 마시게 하면 쉽게 토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는 혈액 순환을 돕고 보양(補陽)에도 좋다고 알려지게 되었다.

내용 제주에서 마늘을 이용해 마농지를 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통마늘만을 이용하여 담는 방법이 보통이고, 보드라운 줄기를 담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뒤엣것은 보드라운 줄기를 이용해야 하므로, 음력 3월 초순부터 20일까지 주로 담가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줄기가 새어져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담은 것은 오래 두고 먹기가 곤란하여 늦봄을 중심으로 좀 일찍 먹게 된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 추석 때까지 먹으려면 통마늘만을 이용하는 앞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마늘이 완전히 영글어 굳기 전의 것을 이용하여 담아야 한다. 완전히 영글어 굳은 것은 바깥 껍질이 마르고, 너무 세어서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담을 수 없으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앞서 서둘러 담는다. 너무 여린 것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으므로 시기에 유의한다. 우선 마늘의 알이 좀 영글어가는 것 중 껍질이 마르지 않은 것을 골라 뽑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흙을 말려 털어낸 다음 씻어 말린다.

보통 네 사람이 한 가족일 때에 한 말 정도를 담근다. 담그는 방법은 간단하다. 집에서 만든 간장만 있으면 된다. 집에서 만든 간장에 20여 일 담가두었다가 먹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맛을 내어 먹는 집에서는 멜치젓(멸치젓)의 국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 멜치젓에서 건더기 멜(멸치)을 건져내고 국물을 걸러 받은 다음, 그것을 간장에 섞어 타서 이용한다. 이렇게 담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부드러운 맛이 더해지므로 마농지의 맛이 더욱 진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 김이라도 한 장 구워 비벼넣은 다음 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

이렇게 담궈 먹는 것과는 달리 얼마 전부터는 뉴슈가를 적당하게 탄 소금물에 마늘을 하루 저녁 넣어 삭힌 것을 먹기도 한다. 하루 정도 그 물에 삭히고 나서 다음날 소금물에서 마늘을 건져내어 고리나 체에 받쳐 소금물을 다 뺀 다음에 마늘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오래도록 남아 있는 마늘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삭히는 소금물에 소금을 많이 넣게 되면 마늘에 밑간이 되어버리므로, 아주 조금 소금을 넣은 물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요사이는 왜간장에 사이다를 곁들인 다음, 조금 사근사근하도록 뉴슈가를 넣어 간장에 담그기도 한다. 이때 설탕이나 조청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아 20일만 지나면 먹을 수 있으나 보통은 한 달 이상 삭힌 후에 이용한다. 장항에 두어 햇볕을 맞으면 냄새가 고소하고 좋게 난다고 한다. 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맛이 좋게 난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볕이 뜨거울 때는 약간 그늘진 곳으로 옮겨야 한다. 햇볕에 너무 오래 두면 물컹해져 마농지 자체도 빳빳한 감이 없어지게 되므로 좋지 않다.

줄기로 담을 때는 통마늘이 다 익지 않은 때라 굵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 통마늘로 지를 담글 때는 통마늘도 다 익게 된다. 지를 담는 데 적당한 것은 하나하나 마늘의 굵기가 엄지손가락 만했을 때의 것이 너무 굵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 좋다. 이것을 통째로 간장에 재워 지를 담갔다가 먹을 때 잘라먹는다. 옛날에는 밥상에 올릴 때도 통째로 올렸으나 지금은 간편하게 하기 위해 반으로 잘라서 올려 먹기 쉽도록 하고 있다.

마농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아 언제나 먹어온 반찬이다. 보리가실할 때도 마농지를 반찬으로 내놓으면 좋다고 하였다. 생선보다도 마농지를 더 좋은 것으로 쳤다. 왜냐하면 마농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시원하고 향긋한 맛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 고기반찬을 준비하였더라고 마농지는 별도로 있어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었던 것에는 마농지가 최고였기 때문이다.

마농지는 쌀밥과 보리밥을 가리지 않으나, 예전에는 쌀밥이 쉽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주로 보리밥과 함께 먹었다. 물론 밥을 물에 말아서 먹을 때 반찬으로도 많이 이용하였다. 마농지를 주로 먹었던 때는 오이, 호박나물, 애호박 같은 것들을 재료로 한 반찬도 함께 해서 먹었다. 한치를 살짝 데쳐서 오이와 함께 마늘도 넣고 식초, 깨소금, 참기름도 조금 넣어 무친 것을 여름철 별미로 쳤다고도 한다. 물론 무, 오이, 우미 냉채(冷菜)도 많이 먹었다.

마농지말고도 제주에서는 무말랭이도 지를 담아 먹는다. 무를 좀 굵게 잘라 소금에 절여 하룻밤을 재운다. 그리고 그것이 꼬들꼬들하게 될 때까지 말린다. 가을 무를 잘라 겨우내 말렸다가 음력으로 2월초에 담근다. 이 또한 여름 반찬의 최고로 쳤는데, 소고기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소금간으로 불린 다음 말린 것은 간장에 넣어도 풀어지지 않고 쫄깃쫄깃하여 맛이 소고기 같다고 한다. 4월 중순 무렵에 꺼내어 먹는다.



마늘장아찌 최수연

참고문헌 | 濟州島의 食生活(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5), 제주도 음식문화(김지순, 제주도105, 제주도, 2002).

필자 | 김동섭(金東燮)

밴댕이젓담그기

정의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내만에서 음력 4~6월에 많이 잡히는 15센티미터 정도의 작은 청어과 물고기인 밴댕이를 염장하여 젓갈을 담그는 풍속. 밴댕이는 문헌에 한자로 소어(蘇魚), 해도어(海魛魚), 늑어(勒魚), 한글로 반당이라 기록되어 있다. 밴댕이의 학명은 Big eyed herring(Harengula zunast)이다. 밴댕이젓은 한자로 소어자(蘇魚鮓), 소어식해(蘇魚食醢), 소어해(蘇魚醢)라고 한다.

어원 밴댕이라는 이름은 『자산어보(玆山魚譜)』 권1 린류(鱗類) 도어조(魛魚條)에 반당어(伴倘魚),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어명고(魚名攷) 해어류(海魚類)」 늑어조(勒魚條)에 반당이, 『물명고(物名考)』 권2 유정류(有情類) 개충조(介蟲條)에 반당이, 『송남잡지(松南雜識)』(林氏本) 권木比 지리류(地理類) 가오리조(嘉五里條)에 반당(伴當)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밴댕이는 이상의 반당어, 반당이, 반당에서 공

통된 어근인 '반당'에 접미사 '이'가 붙은 후 모음동화의 과정을 거쳐 '밴댕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유래 밴댕이젓은 문헌에 기록되기 전부터 식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문헌으로는 조선 초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45 세종11년 7월 계해조(癸亥條)에 명나라에 진헌되는 물목으로 밴댕이젓이 소어자(蘇魚鮓)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의 토산조(土産條)에도 강원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 지역의 토산물로서 공물로 바치는 밴댕이가 기록되어 있다. 『난중일기(亂中日記)』에서는 을미년 5월 21일조에 이순신 장군이 전복, 어란과 함께 밴댕이젓을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어우야담(於于野談)』 권4 사회(社會) 구변조(口辯條)에 밴댕이는 인천과 안산 지역에서 많이 나며 그물로 잡아 시장에 팔기도 하는데 기름에 발라 구우면 맛있다고 기록되었다. 『미암일기(眉巖日記)』의 신미 8월 18일에도 소어해가 증물(贈物)로서 보내지는 찬물(饌物)로 기록되어 있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밴댕이는 탕이나 적 또는 회를 만들어 먹으면 모두 좋고 단오가 지난 후 염장하여 젓갈로 만들어 겨울에 식초를 곁들여 먹으면 맛있다고 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 공상대전조(供上大殿條)에는 소어해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진공되는 공상 음식으로 기록되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3 「산요준여변증설(山曜餕餘變證說)」 찬조제어식해조(餐譜諸魚食醢條)에도 소어로 식해를 담가 먹는다는 기록이 있다. 『자산어보』에는 흑산 바다에서 간간이 이 물고기를 볼 수 있으며, 망종 때부터 암태도(巖泰島)에서 잡힌다고 하였다. 『난호어목지』에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밴댕이가 많으며, 음력 5월에 어부들이 발을 설치하여 잡는데 특히 강화와 인천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하였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자반밴댕이구이를 소개하고 있다.


밴댕이젓 궁중음식연구원

내용 및 특성 밴댕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잡히는데 주로 조류가 세고 간만의 차가 심한 경기 인근 서해안에서 많이 잡힌다. 특히 인천, 강화, 안산 일대에서 많이 잡히며 주요 어장으로 선수어장과 만도리 어장이 유명하다. 밴댕이를 잡는 어구로 『난호어목지』에 발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연안낭장이 밴댕이 어획용 주요 어구이다. 선수어장에서는 이를 돼지그물이라고도 하는데, 치어까지 잡게 되는 폐단이 있다.

밴댕이젓을 담그기 전 밴댕이를 잡는 조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장에 미리 그물을 설치한 후 밀물과 썰물이 바뀌기 30분 전이나 30분 후 조류가 약해서 그물이 물살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때 그물을 올린다. 그물에 잡힌 밴댕이는 배 위에서 잡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바닷물로 씻은 다음, 플라스틱 용기(가고)에 담아서 선착장으로 옮긴다.

잡은 밴댕이는 미리 준비해둔 소금에 염장해서 드럼통에 보관한다. 밴댕이 한 드럼통(200킬로그램)에 3가마(150킬로그램)의 소금이 들어간다. 제조한 밴댕이젓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그 해 김장철에 김장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다음해 김장철에 쓰면 더 맛있다. 밴댕이젓은 갖은 양념을 해서 밴댕이젓 무침을 하면 밥반찬으로 좋다. 밴댕이와 관련된 속담으로 "밴댕이 소갈딱지(소갈머리)"가 있는데, 이는 밴댕이 내장이 워낙 작아서 속 좁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지역사례 현재 밴댕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를 비롯해서 일본의 혼슈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분포하지만, 밴댕이젓은 주로 강화도의 특산품이다. 강화도 선수어장에서는 음력 5월 사리에 잡는 밴댕이를 오사리밴댕이라 하며 살지고 기름져서 횟감용으로 쓰고, 이후 금어기인 양력 7월 15일까지 잡는 밴댕이는 살이 빠지고 기름기가 적어서 빨밴댕이라고 하며 젓갈용으로 쓴다.

의의 5월 단오 즈음의 밴댕이젓담그기는 더운 날씨와 작은 어체로 인해 밴댕이가 쉽게 부패되는 것을 막고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 소금으로 염장하여 발효시키는 풍습이다. 밴댕이젓은 반찬을 구하기가 힘든 겨울과 생선을 구하기 힘든 내륙 지방의 밥반찬으로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연장시킨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亂中日記, 蘭湖漁牧志, 萬機要覽, 物名考, 眉巖日記, 世宗實錄, 松南雜識, 新增東國輿地勝覽, 於于野談, 五洲衍文長箋散稿, 玆山魚譜,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增補山林經濟, 江華史(江華史編纂委員會, 1976), 韓國傳來 醱酵食品史硏究(張智鉉, 修學社, 1989), 韓國의 젓갈(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0), 한국어류도감(김익수 · 강언종, 아카데미서적, 1993), 어촌민속지 (경기도 · 충청남도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6).

필자 | 안정윤(安廷允)

봄케매기

정의 케매기는 담이 없는 밭인 무장전(無牆畑)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로 무장전에는 마소들의 침입이 많으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한 해 동안의 케매기 조직을 결성하는 모임.

내용 제주도 사람들은 일정한 집에 거주하면서 소말[牛馬]을 방목해서 길러왔다. 제주도는 정주형 방목 중심 문화권역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유목 문화권인 몽골, 그리고 제주도 주변의 정주형 사사 중심 문화권역과 다른 점이 몇 있다. 그 중에서도 공간 구조가 돋보인다. 제주도의 공간 구조는 비방목지와 방목지로 짜여 있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서는 "반드시 돌을 모아 담을 두른다. 이는 우마(牛馬)를 막기 위함이다(必聚石爲垣 以防牛馬)." 하였다.

우마를 막으려고 돌담을 두른 곳은 크게 세 공간, 곧 가옥, 밭, 무덤이다. 집 울타리의 돌담을 집담, 밭의 돌담을 밧담, 그리고 무덤의 돌담을 산담이라고 이른다. 제주도에서 돌담으로 묶여 있지 않은 공간은 방목지나 다름없다. 그런데 제주도 일부 지역에 돌담을 에두르지 않은 밭이 더러 있다. 돌담의 재료인 돌멩이가 귀한 곳이기 때문이다. 담밧에는 우마가 침범하여 농작물을 해칠 위험이 적지만, 무장전(無牆畑)은 그 우려가 높다.

무장전을 가지고 있는 밭들은 우마의 침범에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케매기의 '케'는 동일한 조건의 일정한 구역, 그리고 '매기'는 맺다[結]의 의미를 가지는 제주어다. 케매기는 무장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경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이고, 케지기는 그런 농경지를 돌보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제주도에서 케매기는 지난날의 남제주군 중문면과 안덕면 일대에서 전승하였다. 이 일대는 돌담으로 둘린 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장전이 제법 분포하고 있다. 그만큼 밭담을 에두를 돌멩이가 귀한 곳이기 때문이다.

옛 남제주군 중문면 하원리의 케매기는 1971년까지 이루어졌다. 이 마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방목 문화권으로 묶인 제주도에서, 돌담으로 둘린 밭에는 우마가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하는 일은 덜하겠지만 무장전에는 우마들의 침입이 걱정이다. 걱정을 덜려고 일정 구역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관리 조직을 결성한다. 동일 구역 안에 있는 담밧의 주인들은 케매기의 조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조직의 책임자를 감관(監官)이라 한다. 또 문서 책임자를 서세라고 한다. 그리고 농경지를 수시로 감독하는 사람을 케지기라고 한다. 밭 임자들은 밭을 돌봐 준 값으로 케지기에게 곡식을 준다. 이때의 곡식을 켓곡식이라고 한다.

봄에 농작물, 목초, 모(茅)를 재배하는 밭주인들이 공동 관리 조직을 결성하는 일은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밭들을 두루 살피기에 용이한 곳이다. 이런 곳을 두고 케매기동산이라 하였다. 하원리 740번지 일대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은 지금도 하나의 지명으로 남아 있다. 그곳에 모여 한 해 동안 농경지 공동 관리 조직을 맺었다. 이를 봄케매기라고 하였다. 이때 조직의 으뜸인 감관과 요즈음의 총무나 다름없는 서세를 선임하였다. 케지기의 선임권은 감관에게 있었다. 감관은 마을의 이장이나 부이장이 겸임하는 수가 많았다.

봄케매기가 결성되고 케지기를 선정하면, 케지기는 부지런히 그 일대 농경지를 감시하였다. 제대로 잘 살펴야 가을케매기에서 결정된 양의 곡식 곧 켓곡식을 잘 받게 되는 것이다. 케지기는 매일 정해진 구역 내 여러 밭을 돌보았다. 누구네 우마가 곡식이나 모초를 먹었는지 감시했다. 봄이 되어 그 일이 시

작되면 상강 넘어 메밀을 베어들일 때까지 계속되었다.

보통은 낮에만 돌아보지만 조와 산도(山稻)를 파종할 음력 6월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한다. 목초전이나 모전(茅畑)에 소를 몰아넣는 일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파종기라 밭갈이 소들은 지쳐 있을 때이다. 또 장마 무렵 안개가 자욱하여 시야를 가리기 좋을 때도 으슥한 밭으로 소를 슬쩍 몰아넣어버리는 본새가 나쁜 이들도 더러 있었다. 그런 사람을 꼭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잡아내지 못하면 밭주인으로부터 원성을 샀다. 원성을 안 듣기 위하여 부정 방목자를 꼭 찾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찾았다고만 해서 끝나지 않았다. 꼭 물증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집수(執囚)라 하였다. 낫이건 모자건 빼앗았다. 집수(執囚)의 물증을 감관에게 바쳤다. 감관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을 불러다 세웠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속을 밟아나갔다. 처음 들킨 이는 꾸짖음만으로 끝냈다. 두 번째 들킨 이는 벌금 정액의 절반을, 세 번째 들킨 이는 벌금 전액을 내야 했다.

농사를 지은 밭, 첫 밭매기 무렵에 우마가 들어가 먹어버렸을 때와 두 번째 밭매기 후에 들어가 먹어버렸을 때는 우마 임자가 밭주인에게 보상해줘야 했다.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달랐다.

봄케매기가 한 해 동안의 케지기 조직을 결성하는 모임이라면, 가을케매기는 케지기에게 줄 곡식의 양을 결정하는 모임이다. 여러 조직원들과 함께 밭을 돌아보며 감관이 주동이 되어 밭마다 그 양을 정하였다. 정해지는 대로 서세는 이를 기록했다. 켓곡식은 밭의 크기와 흉풍을 고려하였다. 음력 8월 추수 무렵에 켓곡식 받기가 이루어졌다. 케지기는 문서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켓곡식을 받았다. 켓곡식을 받기는 케를 돌보는 일보다 더 어려웠다.

참고문헌 | 耽羅誌草本(李源祚),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ケメギとケジギ(高光敏, 季刊東北學3, 東北文化研究センター, 2005).

필자 | 고광민(高光敏)

송순주담그기(松筍酒-)

정의 쌀과 누룩, 물과 함께 부재료로 송순(松筍)을 써서 술을 빚는 일. 발효주의 하나인 송순주는 계절주(季節酒)이자 가향 약주(佳香藥酒)이다.

역사 고려 인종 때의 『국선생전(麴先生傳)』에 화향입주법(花香入酒法)이 소개되어 있고, 고종 때의 『한림별곡(翰林別曲)』과 조선조 초기의 『고려사(高麗史)』에 송주(松酒)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송순주도 일찍부터 빚어 마셨던 것으로 짐작한다. 지금도 민가에서는 송순주를 빚을 때 송순이 나지 않을 때에는 솔잎을 넣어 술을 빚고 솔주, 솔순주, 송주, 솔잎술 따위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순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으로 조선 초기의 『구황보유방(救荒補遺方)』을 비롯하여 『치생요람(治生要覽)』,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규곤요람(閨壼要覽)』, 『규합총서(閨閤叢書)』, 『민천집설(民天集說)』, 『임원십육지(林園十六誌)』와 『주찬(酒饌)』, 『양주방(釀酒方)』, 『군학회등(群學會謄)』, 『시의전서(是議全書)』와 『술 빚는 법』 같은 것들이 있어 그 제조법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1900년대의 『조선고유색사전』,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861년의 『술방문』에는 송순을 이용한 적선소주방도 등장한다.

내용 송순은 솔순이라고도 하는데, 이른 봄철에 소나무의 가지마다 맨 끝에 자라난 어린 솔가지, 곧 새순(筍)을 가리킨다. 주로 5월 중순과 6월 하순까지 채취할 수 있는 재료로서, 이른 봄 자연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뻗치는 때에 송순의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인식하여, 특히 노인의 기력을 돋우고 질병을 치료할 목적에서 송순을 이용한 술빚기 곧 송순주가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좋은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하면 그 효과가 좋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송순주는 일반적인 방법의 발효주(醱酵酒)와 발효 도중에 소주를 첨가하는 혼양주법(混釀酒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발효주는 물론 혼양주로서의 송순주도 문헌이나 가전 비법에 따라 재료의 배합 비율과 밑술의 주재료 처리 방법에서 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방문이 생겨난 것은 송순주 역시 일찍이 가양주(家釀酒)로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이다.

『주찬』은 "송순을 뜨거운 물로 사나흘 동안 우려낸 물에 찹쌀 한 말로 지은 고두밥과 누룩가루 한 되

를 섞어 빚는" 발효주법을 보여준다. 『증보산림경제』에는 송순주방(松荀酒方)과 송순주본법(松荀酒本法)의 두 가지 방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송순주본법을 보면 "찹쌀 두 되로 죽을 쑤어 식힌 것에 누룩가루 칠 홉을 섞어 밑술을 빚고, 끓는 물로 데쳐낸 어린 송순과 찹쌀 한 말로 지은 고두밥, 별도로 쑨 죽을 한데 합하여 술밑을 빚는다. 이때 미리 쌀 서 말에 누룩을 많이 넣고 빚어 익힌 술을 증류한 보통 소주를 함께 술독에 안쳐 발효시키는" 혼양주법을 소개하였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은 『주찬』과 동일하다. 『규합총서』에는 "멥쌀 두 되를 가루로 하여 2.5~3배의 물을 넣고 끓인 죽에 누룩가루 한 되를 섞어 빚은 밑술에 찹쌀 한 말로 지은 고두밥과 삶아 낸 송순 한 말을 한데 섞어 술을 빚고 발효시킨 후, 소주 30복자를 넣고 후숙시키는" 방법으로, 『증보산림경제』와는 또 다른 방문(方文)을 적고 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된 송순주는 오늘에 김제송순주와 대전송순주가 있다. 김제송순주에 연관해서는 "조선조 선조 때 병조정랑 김택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다가 비구승의 처방대로 송순주를 빚어 마시고 병이 나았다." 하는 기록이 전한다. 김제송순주는 김제의 경주 김씨 집안에 전해오는 가양주로서 멥쌀로 지은 설기에 백곡, 물을 섞어 빚은 밑술을 5~6일간 발효시킨 후 밑술 쌀의 4배가 되는 찹쌀로 지은 고두밥과 조곡, 시루에 쪄낸 송순을 한데 섞어 땅속에 반쯤 묻어 12일간 발효시킨 후, 멥쌀고두밥과 누룩에 적당량의 물을 섞어 6~7일간 발효시킨 술을 증류하여 얻은 소주를 붓고 후숙시키는 혼양주이다. 대전송순주는 조선조 효종 때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동춘당 송준길의 가문비주(家門秘酒)로서, 멥쌀로 지은 설기와 백곡가루, 물을 섞어 밑술을 빚고, 다시 찹쌀 고두밥과 적당량의 물을 섞어 덧술을 빚는데, 술을 안칠 때 송순을 먼저 한 켜 깔고, 그 위에 술밑을 안친 후 30일간 발효시키는 발효주이다.

또 경상남도 함양의 가양주로 전해오는 것으로 멥쌀가루로 된죽을 쑤고 누룩을 섞은 밑술에 솔순을 넣고 발효시킨 후, 찹쌀고두밥과 누룩과 물을 섞어 덧술을 해넣는 방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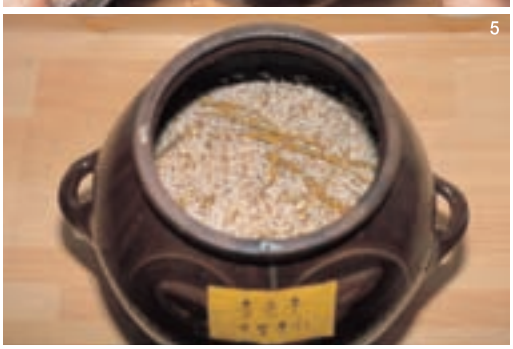
의의 송순주는 1600년대에서 1900년대 초기까지 오랜 기간 주로 반가(班家)의 상비주(常備酒)로 자리











〈송순주 담그기〉
1 송순 찌기
2 송순 모엽제거
3 송순 섞기
4 술독에 담기
5 발효
한국전통주연구소

잡았던 술로서, 양반과 선비들이 반주(飯酒)와 약용 목적의 건강주로 즐겼던 계절주이다. 그 배경은 송순이 전국 각지의 야산에서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재료라는 사실과 함께 봄철에 한하여 빚어 마시는 계절주(季節酒)이고, 여러 가지 가향 약주 가운데 그 향기나 약효가 뛰어나다는 데 있다. 송순주는 특히 혈액 순환과 위장병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 지금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반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救荒補遺方, 麴先生傳, 群學會騰, 閨壺要□, 閨閣叢書, 民天集說, 술방문, 술 빚는 법, 是議全書, 釀酒方, 林園十六誌, 酒饌, 增補山林經濟, 治生要□,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永昌書舘, 1924), 朝鮮固有色辭典(北川左人編, クサギ 文庫, 1932), 傳統民俗酒(無形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 163號, 文化財管理局, 1985), 名家銘酒(朴碌潭, 효일문화사, 1999).

필자 | 박록담(朴碌潭)

장담그기[沈醬]

정의 메주를 쑤어서 간장, 된장 같은 장(醬)을 담그는 일. 침장(沈醬)이라고도 한다. 메주에 소금물을 부어 발효시키고 숙성시킨 후 장을 뜨면 액상 부분이 간장, 고상 부분이 된장이 된다.

유래 장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 본기 신문왕조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신문왕 3년(683)에 왕비를 맞이하면서 보내는 납채(納采) 품목에 장(醬)과 시(豉)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장을 담가왔음을 알 수 있다.

시기와 종류 시기적으로 장을 담그기 위한 메주 쑤기는 보통 10~12월 무렵 장 담그기는 정월~3월 무렵이지만, 주로 입동(立冬) 무렵에 메주를 쑤고, 정월~3월 무렵에 장을 담근다. 그러나 시기는 지역이나 장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는 11월에 메주 쑤고, 3월에 장을 담그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서울에서는, 5월에 장을 담근다고 나온다. 제주도에서는 동짓달과 섣달 사이(12월경)에 장을 담그며, 전라도에서는 정월 말날이나, 2월 또는 3월 삼짇날에 장을 담근다. 한편 절메주로 담그는 진장(眞醬)은 음력 4월 무렵에 쑨 메주로 5월 무렵에 담근다. 장을 담그기 위해 택일하고 고사를 지내 부정 타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장담기에 좋은 날(造醬吉日)로 『규합총서(閨閣叢書)』에서는 "병인(丙寅), 정묘일(丁卯日)과 제길신일(諸吉神日), 정월 우수일(雨水日), 입동일(立冬日), 황도일(黃道日), 삼복일"을 들고 있다. 민간에서는 손 없는 날인 10일, 20일, 그믐날, 또는 말날(午日)이나 돼지날(亥日)에 장을 담근다. 장을 담근 후 장을 뜨는 시기는 40~60일 정도 발효와 숙성을 한 다음이다.

장의 종류는 200여 종 이상이 되며, 청장(淸醬), 즙장(汁醬), 담뿍장, 청국장, 고추장 같은 일반적인 것과 청태장, 접장, 막장, 시금장(등겨장), 거름장, 비지장 같은 별미장이 있다. 흉년이 들어 콩이 부족할 때는 콩잎, 콩깍지, 느릅나무 열매도 장 담그는 데 이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장은 메주쑤기, 메주띄우기, 장담그기, 발효와 숙성, 장뜨기(가르기)의 과정을 통해 만든다. 침장할 때 장 담그는 물은 감천(甘泉)이나 강심(江心)의 물을 큰 솥에 받아 백비(白沸)하고 여기에 소금을 녹여서 식으면 받쳐서 쓴다고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기록되어 있다. 적정 염도는 18~20도 정도인데, 대개 정월장이면 물 한 동이에 소금 석 되를 넣으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소금을 더 넣는다. 이를 판정하기 위해 『규합총서』에서는 소금물이 싱거우면 메주가 떴다가 도로 가라앉으므로 소금을 더 타서 도로 뜨는 점이라고 하였으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흰밥 덩어리를 상수리만큼 넣어 한 뼘 뜸 내려가 떠 있으면 간이 맞은 것이고, 한 뼘이 못 되게 떠오르면 너무 짜다." 하였다. 민간에서는 달걀을 넣어보아 달걀이 반 정도 수면 위에 떠오르면 간이 맞는 것으로 본다.

장을 담근 지 40~60일 정도 지나면 장을 뜬다. 이때에도 매일 아침 장독 뚜껑을 열어 볕을 쬐어주며, 장독 관리를 한다. 『규합총서』나 『농가월령가』 6월령에도 장독 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의의 『증보산림경제』에서 "장(醬)은 모든 맛의 으뜸이요, 인가의 장맛이 좋지 않으면 비록 좋은 채소나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좋은 요리가 될 수 없다. 촌야의 사람이 고기를 쉽게 얻지 못해도 여러 가지 좋은 장이 있으면 반찬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가장은 모름지기 장담그기에 뜻을 두고 오래 묵혀 좋은












〈장담그기〉
1 소금물 만들기
2 소금물 완성
3 메주 씻기
4 장독 청소
5 메주 담기
6 소금물 붓기
7 숯 띄우기
8 말린 고추 넣기
9 금줄치기
10 뚜껑덮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황현만

장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으며, 『규합총서』에서는 "장은 팔진(八珍)의 주인으로…… 만일 장맛이 사나우면 비록 진기하고 맛난 반찬일지라도 능히 잘 조화치 못할 것이니 어찌 중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이 때문에 장담그기가 민가에서는 일년의 2대 행사 중 하나였다.

한편 장은 식용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이용되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장은 모든 어육, 채소, 버섯의 독을 지우고 또 열상과 화독을 다스린다. 메주가 식체를 지운다."라고 소개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생활에서 장이 차지하는 의미가 큼을 알 수 있다.

속신 및 속담 『규합총서』에 보면 조장길일에 장을 담그면 벌레가 안 꼬이고, 해 돋기 전에 담그면 벌레가 없으며, 그믐날 얼굴을 북쪽으로 두고 담그면 벌레가 안 생기며, 또한 신일(辛日)에 담그면 맛이 사납다고 나온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는 합장사(合醬使)로 선임된 신집을 조정의 대신들이 신(申)씨라서 반대하였다는 순조 때의 일화가 나온다. 이는 신일은 '시다[酸]'라는 음과 통하기 때문에 이날 장을 담그면 장맛이 시어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장담그기 사흘 전부터 외출을 삼갔으며, 개를 꾸짖어도 안 된다. 장담그는 여인의 입을 창호지로 봉하기도 하였다. 장에 숯이나 고추를 띄우고, 장독에도 금줄을 치거나 버선본을 거꾸로 붙여 부정을 방지하였다. 장을 담근 후에도 삼칠일 동안은 상갓집에 가지 않았고, 해산한 여인이나 달거리를 하는 여인 또는 잡인은 장광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2월은 남의 달이라 하여 장담그기를 피한다.", "2월에 장을 담그면 조상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 "망한 집은 장맛이 변한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장맛도 좋아진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 같은 장에 관한 속신이나 속담이 많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閨閣叢書,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是議全書, 洌陽歲時記,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增補山林經濟, 개정증보 조선요리제법(방신영, 보진재, 1942), 韓國食品社會史(李盛雨, 敎文社, 1984), 한국식품문화사(이성우, 교문사, 1997).
필자 | 정현미(鄭賢美)

진달래꽃술담그기

☞ 두견주빚기(杜鵑酒-): 봄편

청명주담그기(淸明酒-)

정의 청명(淸明)은 24절기의 하나로 동지 후 105일째, 춘분에서 15일 째, 음력 3월이며 양력으로는 4월 5일 또는 6일 무렵에 해당한다. 청명주는 청명절(淸明節)에 담그는 술이다. 춘주(春酒)라고도 한다.

기원 1830년 무렵에 쓰인 『농정회요(農政會**要**)』에, 술을 빚을 때 물의 맛이 맑고 달아야 하는데, 청명 또는 곡우 때 취한 물로 술을 빚으면 맛과 색이 좋다고 하였다. 또 청명 또는 곡우에 양자강(揚子江)의 물을 취하여 술을 빚으면 술맛과 색이 좋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청명절에 양자강 물을 이용하여 술 담는 풍습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된 듯하다. "凡造酒**要**泉味淸甘若泉味不佳則酒亦不義 淸明水及穀雨水造酒色紺味烈可儲久 淸明穀雨日取長江水造酒色紺味別盖取時侯之氣也."와 같은 내용이 1800년대 초반 무렵에 쓰인 『농정찬요(農政纂**要**)』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청명날 맑은 물을 취하여 술 빚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판단된다.

내용 1700년대 초엽의 『음식보(飮食譜)』에는 청명듀법이라 하여 "백미 서말을 하얗게 가루로 만들어 정화수 열말을 넣어 죽을 만들어 차게 식힌다. 여기에 누룩 넉되 닷홉에 밀가루 아홉홉을 합하여 넣고 괴거든 찹쌀 열말을 쪄서 합하여 괴거든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곧 정화수가 청명수(淸明水)인 셈이다.

참고문헌 | 農政纂要, 農政會要, 飮食譜, 荊楚歲時記.
필자 | 김상보(金尙寶)



〈청명주담그기〉
1 찹쌀가루로 죽을 쑨 뒤 식힌다.
2 죽에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넣고 섞는다.
3 술독에 담아 안친다.(밑술 만들기)
4 주발효가 끝나고 후발효 중인 밑술독
5 고두밥에 밑술을 섞는다.
6 골고루 버무린다.
7 술독에 담아 안친다.(덧술과정)
8 후발효가 끝난 술독에 용수를 박는다.

한국전통주연구소





陽曆歲時

양력세시

영산 3·1민속문화제는 3·1독립만세운동 때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애국지사의 영령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위령제와
기념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최 초기에는 다소간의 백일장과 공연 같은
일반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결합한 형태였으나
해가 거듭하는 동안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많은 유형·무형의 민속문화재를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향토문화 전반의 향상을 도모하는
종합 민속문화제로 발전하였다.

3·1절(三一節)

정의 1919년 3·1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4대 국경일 중 하나.

내용 삼일절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국가 기념일로 평가받는다. 이는 3·1운동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의 때문이다. 이 점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분명한 거부와 문화적, 역사적 민족 개념에 기반한 이상적 국가 건설이라는 지향이 한국 민족 개개인에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비록 3·1운동을 통해 일제 식민 통치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3·1운동은 비로소 한국 민족을 한국 민족으로 각성시켰던 것이다.

3·1운동 이후 활동한 거의 모든 독립 운동 세력은 3·1운동을 자신들의 모태로 간주하였으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당위성과 그들 활동의 역사적 논거로서 3·1운동을 꼽았고, 따라서 매년 이 날을 기념하면서 독립을 향한 의지를 새롭게 했다. 1920년 3월 1일 상해 올림픽대극장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주최한 제1회 삼일절 기념식에서 안창호는 "과거 일년간 일본인(日本人)은 이 날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 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소. 일인의 최대 문제는 이 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 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외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작년 3월 1일에 가졌던 정신을 변치 말자 함이요." 하고 연설했는데, 이는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세력들에게 3·1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적절히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민족을 한국 민족으로 각성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던 3·1운동은 당연히 해방 이후에 전 민족적으로 기념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1946~1948년까지 해방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다투었던 각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3·1운동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삼일절 기념식을 자신의 주도로 치르고 격렬한 경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3월 1일은 '삼일절'이라는 명칭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되었다. 매년 3월 1일에는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광복회와 독립 유공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일절 기념식을 거행한다. 또 각 지역별로 1919년 3·1운동 당시 각 지역 만세 운동 광경의 재현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열기도 한다.

1~2 3·1절 기념행사
국가기록원





참고문헌 | 나라 찾기와 국사 지키기: 독립운동 세력의 한국사 인식(한상도, 1999), 한국인의 역사의식(이범직·김종연, 청년사, 1999),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煥)

납세자의 날(納稅者 -)

정의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

변천과정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세금의 날(3월 3일)과 관세의 날(8월 27일)을 지정하여 기념했으나, 1973년 정부의 기념일 축소 방침에 의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면서 조세의 날로 이 두 기념일을 통합하였다.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 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다.

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이 점차 완비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일들이 생겨났다. 납세자의 날도 여기에 속한다. 2000년부터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이 날을 전후하여 성실 납세자 사진 게시, 성실 납세자 세금 수기 모집,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위촉 같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煥)

상공의 날(商工 -)

정의 상공업의 진흥과 상공인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변천과정 1964년 5월 12일 제1회 상공의 날 행사가 열렸으며, 1972년 기념일이 대한상공회의소 설립 공고일인 10월 31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상공의 날(10월 31일), 중소기업의 날(5월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족일), 발명의 날(5월 19일, 측우기가 발명된 날), 전기의 날(4월 10일, 구한말 최초 전등에 불이 들어온 날), 계량의 날(10월 26일, 조선 세종이 계량법을 통일한 날) 같은 다섯 개의 기념일이 상공의 날(10월 31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4년에 3월 셋째 주 수요일로 기념일자가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발명의 날은 1999년 다시 법정 기념일로 부활했다.

내용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같은 정부 대표와 기업인들이 참가하며, 해외 교포 상공인, 주한 외국 상공인도 참가한다. 그리고 상공업 진흥에 이바지한 상공인들을 선정해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수여한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煥)





1 상공의 날 기념식
2 훈장 수여
대한상공회의소

1 입학식
2 입학식하는 아이들
3 반 배정
4 부모들의 모습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국립민속박물관







입학식(入學式)

정의 매년 3월 초에 '학교 당국의 주관 아래 계획되고 진행되는' 학교 행사로 신입생을 맞이하는 의식.

유래 및 변천과정 입학식이 처음으로 시행된 날짜와 장소는 문헌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한말에는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소학교였다. 소학교령이 실시(1895년 7월)되면서 소학교가 생겼는데, 보통교육령이 발표(1906년 8월 27일)되어 그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당시 보통학교 연중 행사 속에 입학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입학식은 4월 5일에 있었다.

졸업식과 함께 입학식은 하나를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입학식에 대해 누구나 애절한 사연이나 즐거운 에피소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풍속도 변했다.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대 학교의 태동기인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입학식 모습을 보면, 여학생들은 단발머리에 치마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입학의 즐거움은 학생들의 가슴 벅찬 기쁨이자 감격이었고, 부모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영원한 추억의 장이었다. 입학식장 양쪽에는 선배들이, 가운데는 입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고 선배들이 신입생을 환영해 주었다(1930년 경성여자상업학교 입학식 장면 자료). 그리고 초등학교(예전 국민학교) 입학식 날 부모들은 아이들의 가슴에 콧수건을 달아주었다. 1960년대 이후 입학식의 의미와 풍속도 변했다.

내용 입학식 행사도 다양해져 일렬로 줄을 서서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연설을 듣던 것에서 벗어나 선배들이 사탕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거나 한 아이씩 업고 빙그르르 도는 행사를 가지기도 한다. 또 꿀떡 나눠주기, 풍선에 각자의 희망을 적어 날려보내기, 선배들과 포크댄스 추기, 인형 선물, 폭죽 터트리기 같은 많은 행사를 통해 입학식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기도 한다.

오늘날 입학식은 매우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지극히 형식적인 의식으로 마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 입학식은 ① 개식사 ②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③ 입학 허가 선언 ④ 교장선생님 말씀 ⑤ 재학생과 신입생 인사 ⑥ 담임 발표와 교실 배정 ⑦ 교가 제창 ⑧ 폐식사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펴낸 특별활동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별로 모임을 가져 입학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고, 반대표들이 모여 전교 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그렇게 계획된 것을 실천해 보는 입학식이라야 학생 중심의 입학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였다. 교사들이 학교 행사 활동을 주관해오던 것에서 점차 학생 중심의 입학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인접국가사례 일본에서는 매년 4월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입학식이 이루어진다. 이는 일본에서 재정의 회계연도도 학교나 회사도 모두 4월부터 시작하고, 3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평일에 입학식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서 어머니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입학식에서 아버지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졸업 그 옛 모습들(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전시전 1995~1996), 일본인의 생활 365일(시사일본어사, 1999),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오성철, 교육과학사, 2000), 일본 키워드 99 이것이 일본이다(조양욱, 다락원, 2002), 초등학교 학교행사문화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오재길,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특별활동 -행사활동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교육인적자원부, 2004), 중앙일보(2005.3.1).

필자 | 염미경(廉美炅)

화이트데이(White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江陵沙川荷坪踏橋 -)

정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하평마을에서 좀생이날 다리밟기를 하며 단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축제. 사천 하평마을의 답교놀이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2003년 3월 10일 지정되었는데 기능보유자는 조규복(1941. 7. 27)이다.

내용 사천 지역은 신라시대 이후 사화면(沙火面)으로 불리다가 조선조 고종 3년 사천면으로 개칭된 곳이다. 130여 호가 거주하는 역사가 깊은 곳으로 넓은 농경지를 끼고 있어 오랫동안 농경민속이 전승되었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11-라호로 지정된 강릉농악의 상쇠 고 김용현이 이끌던 사천농악대가 옛 명성을 잇고 있으며, 조선 광해군 시대 문인인 교산 허균의 아호를 딴 교산과 그의 형 하곡 허봉과 관련된 설화가 전승된다. 또한 허균의 장인 애일당 김광철과 동생 이설당 김광진의 집터가 전하고 있다.

하평마을은 하곡(荷谷) 허봉(許篈, 1551~1588) 선생과 지명이 연관된다고 전하는데, 민속놀이 행사로 매년 음력 2월 초엿새 좀상날에 마을의 다리를 밟는 행사가 마을 축제로 열린다. 이곳의 다리밟기는 정월 대보름날에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매년 좀상날에 이루어진다. 이곳 답교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것이나 하평마을의 동제와 함께 행해지는 농경의례 중심의 문화 유산으로 볼 수 있다.

하평답교놀이는 좀상날 낮부터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잔치를 펼치고, 입구에 산에서 뜯어온 푸른색의 솔잎으로 장식하고 짚에 흰색 한지를 매달아 칭칭 감은 솔문을 세워 액을 막고 횃불을 준비한다.

가정마다 가족수대로 횃대를 만들고 초생달이 뜨면 사천 진리다리까지 농악 가락에 맞추어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간다. 미놀평과 하평마을 사이에는 옛날에 통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 위에서는 한 해의 풍년을 비는 제사를 올리고 진리와 하평마을 간에는 다리뺏기와 농악 가락의 쇠절금 겨루기를 한 다음, 마당에서 횃불을 태우고 좀생이별을 보면서 풍흉을 점친다.

하평답교놀이는 다리굿으로부터 시작하여 농악 상쇠간의 쇠겨름을 하는데, 하평과 진리의 상쇠들이 서로 꽹과리를 치면서 경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쇠절금이 끝나면 돌싸움을 하는데 서로 편을 갈라 상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다리 위에서는 서로 먼저 다리를 건너기 위하여 횃불싸움이 펼쳐진다. 이렇게 편싸움 형식이 끝나면 화합의 다리밟기를 한다. 한 해의 액을 면한다는 속신으로 각질병을 예방한다고 하며, 일년 열두 달을 상징하여 열두 번 다리를 건너기도 한다.

하평답교놀이를 통해서 사천진리마을과 하평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평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한 해의 풍년을 비는 제의적 축제판을 펼치고 있다. 좀상주를 만들어 함께 술을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1 달집
2 솔문지나기
3 다리고사
4 횃불놀이
5 달집태우기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하평마을
김종달

마시고 농악대들이 모이는 초군방에서는 겨우내 짚을 꼬아 가마니를 만들기도 하고 좀상날(좀생이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액운을 건너는 다리밟기와 풍흉을 점치는 좀생이보기 민속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전승되는데, 마을에서는 이것을 대동 잔치로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민속의 현장을 찾고 있다.

보존회가 2002년 3월 2일 설립되어 허남욱(1955.5.7)이 회장을 맡고 있다. 2005년 현재 전수 조교로 허남욱, 박종명(1943.1.1), 용기원(1949.6.20)의 세 사람이 지정되어 활발한 전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인근에 전수회관 부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강릉의 민속문화(장정룡, 대신출판사, 1991), 許筠과 江陵(장정룡, 강릉시, 1998), 강릉시 사천면 하평마을 민속지(장정룡 외, 강릉문화원, 2001).
필자 | 장정룡(張正龍)
☞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江陵沙川荷坪踏橋-): 봄편

영산 3·1민속문화제 (靈山三一民俗文化祭)

정의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에서 매년 2월 28일(또는 29일)에서 3월 3일까지 열리는 민속문화제. 경상남도 내 3·1독립만세운동 발상지인 영산 지역 항일 애국 선열의 충절을 기리고, 영산의 대표적 전통 민속놀이인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의 시연을 통한 전통 문화계승과 군민 화합을 목적으로 1961년부터 열고 있다. 3·1문화제, 3·1민속문화제라 부르기도 한다.

유래 경남 창녕군 영산면은 3·1독립만세운동이 봉기될 당시 24인의 결사대가 조직되어 독립 만세를 외치다 일본 경찰과 충돌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3·1절이 되면 결사대원 24인 중 생존자를 중심으로 기념 행사를 성대히 개최해 왔다. 그러나 영산과 가까운 진주의 개천예술제(1949)와 밀양의 아랑제(1957) 같은 문화제 행사가 전국 각처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열리는 것을 보며 자극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961년 초 20여 명의 지역 유지와 청년들

을 중심으로 삼일문화향상회(三一文化向上會)를 결성, 3·1절을 기하여 3·1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제1회 문화제(1961년)는 백일장과 사생대회, 웅변대회, 시조경창대회, 시화전, 국악 공연과 무용 공연 같은 주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열렸다.

그러나 2회부터는 씨름, 농악대회, 문호장굿 같은 지역 민속 행사가 등장하였고, 영산줄다리기도 이때부터 시도되었다. 4회부터는 이틀이었던 행사 기간을 사흘로 늘렸으며, 영산 쇠머리대기를 새로 발굴하여 공연에 포함하였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10년간 이어 온 3·1문화제는 본격적인 기금 조성을 바탕으로 11회 행사 때부터는 대회 명칭을 '3·1민속문화제'로 개칭하고, 삼일문화향상회장과 민속문화제대회장을 분리하여 본격적인 종합문화제로 변모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3·1민속문화제의 중심 행사인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제25호와 제26호로 지정(1969년)되자 이때부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속문화제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현재 개최되는 3·1민속문화제는 모두 30여 가지 행사로 진행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와 제26호로 지정된 영산쇠머리대기와 영산줄다리기 발표회, 문호장굿, 구계목도놀이, 원다리밟기, 괭이말타기, 장사씨름대회, 전국연날리기대회 같은 민속 문화 행사가 중심이 되며, 제등 축하 퍼레이드, 불꽃놀이, 봉화놀이, 전국시조경창대회와 각종 백일장이 부대 행사로 치러진다. 문화제의 중심이 되는 민속 문화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민속문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쇠머리대기와 영산줄다리기이다. 쇠머리대기는 쇠머리처럼 생긴 나무 조형물을 서로 부딪치며 노는 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우전, 목우전, 나무쇠싸움, 쇠머리대기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지정 당시 영산쇠머리대기[木牛戰]로 결정되면서 쇠머리대기란 이름으로 고정되어 전한다.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놀이로 즐겼으나, 현재는 3·1민속문화제 때 발표회를 겸한 연례 행사로 치러진다.

쇠머리대기는 본격적인 결전 이전에 서낭대대기와 진잡이놀이로써 먼저 승부를 결정하는데, 서낭대대기는 쇠머리대기에 앞선 전초전으로 행해진다. 10미터 정도 되는 대나무 위를 꿩깃으로 장식하고, 서낭옷을 입혀 싸움을 벌인다. 동서 양쪽에서 차출된 장정들이 마주 보고 건들거리는 서낭대싸움을 벌이는데, 양군에서는 장군을 위시하여 풍물과 기치, 응원단이 모두 합세해 응원전을 펼친다. 서낭대싸움은 흔들리는 서낭대를 맞부딪쳐 한쪽 서낭대가 땅에 떨어지거나 부러지는 쪽이 패하게 된다.

쇠머리대기의 앞 놀이에는 진잡이놀이가 전개되는데, 장정들이 오색 깃발과 농악대를 앞세워 적진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돌진해 일대 공방전을 펼친다. 때로는 깃발이 찢어지고 부러지며 상처를 입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열기를 느끼게 한다. 서낭대대기와 진잡이놀이가 끝나면 장군들이 나무소를 타고 독전을 위한 칼춤을 추며, 농악대와 군중들이 쇠머리를 에워싼다. 이어서 두 마리의 소가 맞부딪쳐 한쪽의 쇠머리가 기울어져 땅에 누우면 승부가 끝난다.

쇠머리대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투놀이 형태를 취한다. 서낭대싸움을 시작으로 진잡이놀이가 각 진지를 두고 양군의 공방전을 치열하게 만들어 쇠머리를 대는 일은 최후의 승패를 가름하는 일대 격전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쇠머리대기를 할 때에는 영산 주민들만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잔치 기분을 만끽한다.

쇠머리대기와 함께 민속문화제의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주요 행사는 영산줄다리기이다. 3·1민속문화제에서 하는 영산줄다리기의 특징은 줄다리기가 어린이들의 골목줄다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데 있다. 이때는 동부와 서부로 편을 나누어 새끼줄 몇 가닥을 묶어서 줄 형태를 만들어 걸어 당긴다. 이긴 편에서는 상대방 줄을 끌어다 전리품으로 하여 줄의 굵기가 배로 커진다. 동서부의 편제는 영산면 마을을 동서부로 나누고, 면 바깥 지역은 대구와 마산 사이의 도로를 경계로 하여 동서로 구분한다. 본격적인 큰줄다리기의 과정은 양줄이 결전장에 도착하면 먼저 줄머리를 경계로 양편이 서로 기세를 올리는 전초전인 진잡이놀이로 시작된다. 이어서 줄걸기 과정이 펼쳐지는데, 암줄편(서부)과 숫줄편(동부)이 서로 구애하고 호소하고, 아우성치는 암수 교합을 위한 마당극을 펼친다.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보통 오후 5시 이후의 늦은

저녁에 시작되는데, 3~5분이면 승부가 결정된다. 승부가 결정되면 이긴 편의 끝줄을 끊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끝줄을 끊어가서 지붕 위에 얹어두면 가정에 행운이 오고 풍농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문호장굿은 원래 단오에 하던 굿으로 아전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호방으로 있었던 영산 사람인 문호장의 제사를 영산 지방 관아에서 모셔온 것이 유래가 된 것이다. 굿의 내용은 문호장의 가정적 사연과 영험 그리고 말을 타고 달리는 일이 주축을 이룬다. 영산단오굿은 360년 가까이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치러오고 있었으나, 단오굿의 주동적 역할을 맡아온 무당이 없어짐으로써 형식적 굿만 전해져 민속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계목도놀이는 영산면 구계리에 전해지던 목도놀이를 재현한 것으로 산간 오지에 돌이나 목재 같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오던 것이다. 목도놀이는 큰 목재나 돌덩이를 얽어맨 밧줄에 목도채를 꿰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으로 2명, 4명, 8명, 16명, 32명이 각조로 짝이 되어 맞서 메고 목도의 앞소리와 뒷소리를 외치며 발을 맞추어 물건을 옮긴다.

원다리밟기는 원래 정월 대보름날 하던 것으로 달을 보면서 자신의 나이대로 다리를 왔다갔다 하면 일년 내내 다리에 탈이 없고 신경통이 낫는다고 한다. 괭이말타기는 영산 지방에 전승되어온 노래, 춤, 농악이 하나가 된 놀이이다. 괭이말이란 세벌 논매기가 끝날 무렵 큰머슴이 소를 타고 다른 논매기꾼은 농악을 울리고 고동(오동나무로 만든 악기)을 불고 춤을 추면서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하는 놀이를 말한다. 큰머슴은 얼굴에 검정으로 탈을 그리고 삿갓을 구겨 쓰고 소를 타며, 이 고장 특유의 민요를 주고받으며 행진한다.

의의 영산 3·1민속문화제는 3·1독립만세운동 때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24인의 영령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위령제와 기념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최 초기에는 단순히 백일장, 공연 같은 일반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결합한 형태였으나, 해가 거듭하는 동안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많은 유형, 무형의 민속문화재를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향토 문화 전반의 향상을 도모하는 종합 민속문화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다른 문화제와 달리 중심이 되는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가 모두 놀이꾼과 구경꾼 구분 없이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이 영산 3·1민속문화제의 특색이라 할 만하다. 축제는 지역민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즐기며 흥겨운 놀이판을 벌이는 화합의 큰 잔치이자 대동의 장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靈山地方의 나무쇠싸움, 줄다리기(金光彦 · 張籌

〈영산3·1민속문화제〉
1 쇠머리 만들기
2 행사시작
3 영산쇠머리대기
4 영산쇠머리대기
5 영산쇠머리대기
6 기싸움
경남 창명군 영산면 김대벽








根, 民俗資料調査報告書12, 文敎部文化財管理局, 1968), 줄다리기에 대하여(張籌根, 韓國文化人類學1, 韓國文化人類學會, 1968), 靈山 줄다리기 쇠머리대기(曹星國, 素民苑, 1978), 韓國民俗大觀5 -民俗藝術·生業技術-(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2), 韓國祝祭의 理論과 現場(김선풍 외, 月印, 2000), 靈山의 民俗文化(金亨權, 靈山쇠머리대기保存會, 2004).

필자 | 류종목(柳鍾穆)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서 하는 음력 2월 택일 마을 행사. 196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전통 문화 축제이다.

개관 전통 문화 축제는 축제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속 향토 축제와 종합 향토 축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은산별신제는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 향토 축제의 전형이다. 백제 계통 인물과 별신당의 종교성, 보부상 관련 시장 번영책 같은 것들로 미루어볼 때 위령제의 기념성이 강하다. 하나는 군사적 성격으로 승마 무장들과 농악을 통한 모의전쟁 상황극 행렬이고 다른 하나는 보부상 조직을 활용한 장시(場市) 후원적 성격인데 장터 하당굿이 주목된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들어 복신장군(福信將軍), 토진대사(土進大師), 삼천신위(三千神位: 백제 삼천궁녀신)이 백제문화권 지역 의식으로 말미암아 존치되어 위령제 성격이 드러난다.

유래 은산별신제는 상당의 산신(山神), 복신장군, 토진대사 그리고 하당의 장승을 기원의 대상 신격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복신장군은 흑치상지가 버티고 있는 임존성을 근거지로 해서 오랫동안 도침대사(道琛大師)와 협력하여 백제 재건을 위해 싸운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진대사는 복신장군과 같이 백제 부흥 운동을 한 도침대사의 와음(訛音)으로 인한 오기인지, 아니면 제당의 중수기에 나오는 토지신(土地神)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백제 부흥 운동의 주역이라는 점, 토진대사가 도침대사와 발음상 비슷하고 두 신상(神像)이 같은 복색에 각기 칼이나 창을 들고 있어 싸움을 연상시키는 장수라는 점, 두 인물이 모두 원통하게 죽었다는 점에서 토진을 도침이라는 역사적 인물로 간주해서 해석해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은산별신제의 근원과 관련한 유래담을 공통 화소별로 정리하면, ① 지역의 병마(病魔) 풍미 ② 백마장군(白馬將軍) 현몽 ③ 백골 수습의 대가로 질병 퇴치 약속, 백골 수습과 위령제 시행 ④ 마을 태평 ⑤ 이를 계기로 정기적으로 별신제 거행의 다섯 가지이다. 신화적 전설로 제의 과정과 일치한다. 근원설화에 한정할 때 은산별신제는 7세기 후반 백제 부흥 전쟁에서 장렬히 전몰한 장졸(將卒)의 위령제(慰靈祭)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비로 전승되고 있는 유래담에서 백제의 전몰 장병을 위로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은산별신제의 중심에는 분명히 패몰한 백제 장졸의 원혼(冤魂)과 그 해원(解冤)이 자리 잡고 있어, 이 지역 일대의 장군 인물 전설에서 보이는 백제 편향성이 나타난다.

내용 은산별신제는 1900년 전후만 하더라도 한동안 매년 3월 24~25일쯤에 거행하였다. 그러나 1920년 이후에는 경비 문제로 세 해마다 치루는 행사로 바뀌었다. 은산별신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제일(祭日)은 원래 특정한 날짜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새 봄에 벌레나 뱀이 나오기 이전인 음력 2월 그믐이나 한식 이전의 특정한 날 또는 화주의 생기복덕을 가려 운이 닿는 길일을 선정하였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윤월은 피했다. 오늘날에는 은산별신제보존회에서 양력 3월 마지막 주의 일주일 동안(2005년의 경우에는 양력 2월 말에 했음)을 별신제 기간으로 고정시켰다.

1978년부터 행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짝수의 해에는 대제(大祭)의 방식을, 홀수의 해에는 소제(小祭)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제에는 대제에서 행하는 진대베기, 꽃받기, 상당굿(별신당), 하당굿(하당굿터)은 생략하고, 본제와 독산제(독산제단), 장승제(사방 장승거리)를 단독으로 행한다. 대제 때에 비로서 은산별신제의 원형과 무형문화재 재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제에는 본제 외의 여러 제의 절차가 옛 모습대로 베풀어지고, 물자와 사람도 대규모로 동원된다. 기간도 일주일에 가깝다. 이때에는 유교식 제사와 무속의 굿이 혼합된 제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굿으로 인한 긴장감과 오락성이 크게 부각된다. 요컨대 소제로서 본제, 독산제, 장승제는 동민을 주축으로 한 화주 중심의 유교적 동제라고 할 수 있으며, 대제로서의 별신제는 동민은 물론 시장 상인들을 주축으로 화주, 대장, 무녀 중심의 유









〈은산별신제〉
1 제물운반
2 별신당
3 상당굿
4 상당굿
5 고두백배
6 소지올리기
7 장승
충남 부여군 은산면 김대벽

교적 제의와 무속적 제의가 습합된 신사(神祀)라는 점이다. 부속 행사로 강다리, 척사대회, 제기차기가 열리나 충청남도의 상징적 전통 축제가 되기 위해 역사적 복원과 현대적 제목 찾기를 해야 한다. 은산별신제보존회가 정통성을 유지하고 예전 권위로 주관하기 위해서는 기능 보유자 확대와 부여문화원 같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의의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특수성 부각을 위한 수단으로 은산별신제와 같은 전통적 마을 축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은산별신제의 보존과 전승은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가능해졌으나, 은산리 마을의 현대적 변모로 제의 주체나 지정의 문제가 있다. 화주, 축관, 집례 정도로 치러졌던 동제가 인근 상권 집약지로 부상된 마을 위상으로 말미암아 보부상 관련 은산장의 장시별신제로 승격되어 공동체 의례의 상징이 되었다. 농경의례와 시장 번영책이 상생되어 동제와 별신제의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곧 농경 마을의 산제, 거리제 위주의 동제 전형에다 시장 활성화의 장군제(將軍祭)가 혼합되었다. 수구막이의 장승세우기와 진대베기 행사 그리고 꽃받기도 축문의 '재곡함부(財穀咸富)' 구절처럼 농상(農商) 축제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은산별신제의 역사적 전개와 전통 창출(成基榮, 安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은산별신제(이필영, 화산문화, 2002)
필자 | 이창식(李昌植)

☞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정월편

행주대첩제(幸州大捷祭)

정의 임진왜란 때에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던 권율 장군이 일본군 3만 여 명과 맞서 크게 물리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

연혁 1593년 음력 2월 12일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고, 왜장 총수 우키다 히다이에는 3만여 군사를 이끌고 총공격을 하였다. 산성 안에 있던 우리 군사는 물론 인근에 사는 부녀자들까지 합세하여 열두 시간 동안 무려 아홉 차례에 걸친 맹공격을 물리치고 왜군 일만 여 명을 사상(死傷)한 전투가 바로 행주대첩이다. 이는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 길이 빛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당시 부녀자들이 앞치마에 돌을 날랐다고 하여 이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하는데, 행주치마란 용어는 이미 1527년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나오는 어휘로서 후대 사람들이 의미를 추가해서 붙인 듯하다.

행주대첩제는 이러한 역사적 무훈을 기리며 임진왜란을 극복한 행주대첩의 공적을 널리 선양하고 호국의식을 고취하며 애국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3년 3월 14일, 곧 행주대첩 승전 기념일인 2월 12일의 양력 날짜를 택하여 첫 행사를 가졌다. 이후 현재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민 단체가 주관하여 치루고 있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내용 행사는 권율 장군 추모제와 부대 행사로 이루어진다. 권율 장군 추모제는 행주대첩 승전 날짜인 3월 14일에 맞추어 행주대첩제를 시작하는 선포를 겸하여, 권율 장군의 영정을 모신 행주산성 내 충장사(忠莊祠)에서 지낸다. 부대 행사로는 행주대첩제의 성격이 행주대첩 자체의 성격에 걸맞도록 강조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매년 기본적으로 치러지는 행사 중 하나는 궁도대회, 승전무, 어린이 권율 선발대회, 각종 무예시범과 같은 무술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희생한 영령을 위로하는 영산재, 진혼제 같은 추모제를 곁들인다는 점이다.

또한 행주대첩제는 역사적인 사실을 되새기는 행사이므로, 이에 따른 각종 민속놀이를 치르기도 한다. 특히 최근부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행주산성 역사 기행과 어린이 권율 선발대회를 통하여 행주산성과 행주대첩제의 의의를 고취시키고 있다.

의의 행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힘의 발휘를 되새기며 국난 극복의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많은 주민들이 한 자리에 참여하여 서로 우의를 다지고 친목의 기회도 가지게 된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訓蒙字會, 행주얼(고양문화원 기관지1~40, 1984.6~2005.6), 韓國民族傳說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5).
필자 | 정후수(鄭後洙)

ㄱ

가구경행(街衢經行) 96
가락국(駕洛國) 268
가래 129, 140, 150, 241
가래괭이 147
가래소리 129
가례(家禮) 226, 228
가수(嫁樹) 풍속 19
ᄀᆞ실갈치 337
가야진사 245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 244
가양주(家釀酒) 355
가월(嘉月) 179, 181
가을 가지는 남도 안 준다 141
가을감자 143
가을바령 332
가을케매기 354
가지 140, 141, 328
가지 따 먹고 외수(外數)한다 141
가지파종 140
각망 159
각시놀이 298
간작 326, 329
간쟁이 263
간통[鹽井] 263
갈고리 던지기 216
갈매동도당굿 249
갈치 337
갈치잡이 336
감자 143, 177, 304, 328, 336
감자심기 141
감저(甘藷) 143
감춘(酣春) 28, 32, 300
감홍로(甘紅露) 172, 287
갓난아기 204
갓난아기머리깎기 204
강강술래 61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江陵沙川荷坪踏橋-) 70
강신례(講信禮) 203
강신무(降神巫) 192, 270
강화외포리곶창굿(江華外浦里-) 92
개구리 울음소리 86, 206
개구리(Rana nigromaculata) 15, 82, 85, 86
개구리[田鷄] 86
개구리알 85, 86
개구리알먹기 85
개구리울음점 85
개꽃상여놀이 290, 297
개꽃생이놀이 290
개나리 20
개날 330
개막이 159
개목(改木) 237
개미 206
개벚나무 23
개빙제(開氷祭) 89
개사초(改莎草) 216, 218, 223, 226
개사초고제(改莎草告祭) 218
개암나무 20
개원례(開元禮) 98, 99
개자추(介子推) 176, 178, 215, 216, 233
개춘(開春)맞이 254
개피떡 256, 280, 282
개화(改火) 177, 215, 216, 236, 237
개회식 173
갯버들 22
갯벌 162
거가출궁(車駕出宮) 108
거가환궁(車駕還宮) 108
거름 126, 158, 322, 336, 342
거름내기 126, 140
거름내는소리 126
거리부정 92, 193
거스러미노래 231, 232
거자수 240
거자수물마시기 240
걸립대감놀이 276
검은 떡 204
검은 암소 137
검질매는소리 133
게 338, 339, 347, 348
게잡이 337, 339

게장 348
게장담그기 347
게젓 347
게줄다리기 171
겨리 127, 132, 151
겨리소소리 132
격몽요결(擊蒙要訣) 226
경도잡지(京都雜志) 38, 40, 43, 45, 191, 282
경령전(景靈殿) 222
경적례(耕籍禮) 106, 108
경조 민속 66, 67
경칩 지난 게로군 88
경칩(驚蟄) 20, 26, 27, 40, 82, 83
85, 86, 87, 88, 106,140, 166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겨울잠을 깬다 88
경행(經行) 96
계당주(桂當酒) 178
계면굿 270
계면맞이 254
계욕(禊浴) 207
계욕일(禊浴日) 200
계음(禊飮) 201
계음일(禊飮日) 186, 189
계춘(季春) 176, 179, 180, 182, 264, 297
계칩(啓蟄) 82, 83
고구마 85, 143, 144, 177, 336
고구마 수확 144
고구마심기[甘藷-] 143
고금석림(古今釋林) 137
고둥 162
고드름 122
고려사(高麗史) 89, 96, 97, 99, 103
106, 109, 226, 264, 344, 354
고로쇠나무 85
고로쇠물 87
고로쇠물마시기 86
고리떡[環餠] 187
고리수먹기 87
고사리 260, 304, 307
고사리는 아홉 성제다 307
고사리는 아홉 형제이다 307
고선(姑洗) 33, 179
고싸움 19
고유제(告由祭) 98
고창굿(高昌-) 112
고초일(苦草日) 178, 216, 217, 330
고추파종[苦椒播種] 145
곡우(穀雨) 16, 22, 137, 140, 152, 176, 177
179, 235, 236, 238, 239, 240, 241
314, 324, 325, 326, 329, 330, 358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 238, 240
곡우물 240
곡우물마시기 240
곡우사리 137, 239
곡우살조기 240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238, 241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 든다 238, 241
곡우에는 못자리를 해야 한다 241
골리수(骨利樹) 87
공마일(空魔日) 217
과농소초(課農小抄) 153
과메기 285
과일나무 시집보내기[嫁樹] 16
과일나무 장가보내기 216
과하주(過夏酒) 187
관세의 날 363
관행제(官行祭) 254
광대거리 252
광양당(廣壤堂) 188, 248, 249, 273
광양당제(廣壤堂祭) 248
괭이소리 134
구계목도놀이 367
구당서(舊唐書) 98
구럭달기 36
구리갈매동도당굿(九里葛梅洞都堂-) 249
구양수(歐陽修) 8
9월 82, 83, 150, 163, 167, 186, 201
202, 203, 204, 219, 222, 268, 303
9월 9일 202, 203, 219, 303
구일맞이 254
구추례(九推禮) 108
구화(舊火) 177, 215
구황되오리[救荒狄所里] 332
구황보유방(救荒補遺方) 354

국경일 362
국궁(國弓) 23, 303
국문(國門) 276
국사(國社) 98, 99, 102
국사당(國師堂) 254
국사신당제(國師神堂祭) 253
국사제 254
국선생전(麴先生傳) 354
국자감(國子監) 113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02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83, 84, 97, 102, 108, 112 121, 202, 222, 264, 276, 277
국직(國稷) 102
국학(國學) 103, 113
국행(國行) 276
국화전(菊花煎) 210
군웅거리 196, 256, 262, 276
군웅굿 92, 276
군학회등(群學會騰) 354
궁술회(弓術會) 291, 302
권농일(勸農日) 37, 39
권농책(勸農策) 106
권오복(權五福) 202
권율 371
귀밝이술 18
규곤요람(閨**壼要**覽) 282
규합총서(閨閤叢書) 282, 285, 232, 254, 255, 256, 258
그네뛰기[**鞦韆戱**] 177, 294
그네타기 216
그린데이(Green Day) 267
금광명경(金光明經) 262
금양잡록(衿陽雜錄) 324
금연일(禁烟日) 215, 217
금화(禁火) 216
기고제(祈告祭) 98
기내림 92
기념일 37, 363
기독(旗纛) 83, 84
기로회(耆老會) 176
기우제(祈雨祭) 244
기자(祈子) 110, 254, 256, 323
기자치성(祈子致誠) 178
기잡 풍속(祈蠶風俗) 46, 47
기장파종[黍播種] 322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 292, 293
기후(氣候) 12, 13, 65, 144, 228, 347
기후점(氣候占) 49, 122, 205, 228, 237
길그물 157
길닦기소리 244
김매기 151
김종직(金宗直) 202
김형수(金逈洙) 328
까나리 340
까나리잡이 340
까마귀새끼점 277
까치가 발 벗으니 가지 따 먹는 시절인 줄 아나 141
까치집점 204
껌데이(Gum Day) 167
꼴뚜기젓담그기 348
꽁치젓담그기 348
꽃게 338, 339
꽃노래 270
꽃놀이[花柳] 171, 185, 186, 189, 190, 211
꽃다지 23, 304
꽃마리 23
꽃맞이굿 254, 256, 273
꽃산병 282
꽃상여 291
꽃샘, 잎샘에 반늙은이 얼어 죽는다 136
꽃샘[花妬娟] 26, 136, 313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136
꽃샘추위는 꾸어다 해도 한다 136
꿩(Phasianus colchicus) 14, 309
꿩매(Falco peregrinus) 14, 15
꿩알줍기 188
꿩의바람꽃 20

ㄴ

나도바람꽃 20
나물채취 322
나물캐는노래 304

나비 205, 229, 334
나비점 178, 204
나생이 23, 304
나이떡날 37, 39
나이떡먹기 45, 51
나이송편 45
난중일기(亂中日記) 352
난탕(卵湯) 284
난호어묵지(蘭湖漁牧志) 159, 161, 352
낟가릿대[禾竿] 26, 39
날씨점[氣候占] 205, 228, 257
남만초(南蠻草) 145
남비추 여희춘(男悲秋女喜春) 312
남자물 87
납세자의 날(納稅者-) 363
납일(臘日) 98, 222, 277
낭위성(郎位星) 74
내림굿 270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20, 23, 124
125, 304
냉잇국 124
냉절(冷節) 215, 217
너도바람꽃 20
널뛰기 19, 294
노고초(老姑草) 23
노다리 38
노래기날 38
노래기부적(-符籍) 38, 45
노래미 158
노루귀(Hepatica asiatica Nakai) 20, 22
노비송편[奴婢松餠] 45, 51
노비일(奴婢日) 36, 39
노산춘(魯山春) 178, 187
논가는소리 127, 135
논갈이 146, 155, 241
논고르는소리 128
논꾸미는소리 128
논둑 다지기 241
논둑가래질소리 129
논매기 130, 168
논삶기 130
논삶는소리 130
놋동이굿 270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 328
농가언(農家諺) 71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65, 71, 126, 175, 176, 350, 356
농가집성(農家集成) 334
농군의 날[農軍-] 39, 41
농기세배 19
농사직설(農事直說) 154, 163, 333, 334
농서집요(農書輯**要**) 254
농어 158
농점(農占) 19, 50, 88
농정전서(農政全書) 154
농정회요(農政會**要**) 358
뇌사(雷師) 120
뇌성벽력(雷聲霹靂) 122
뇌성점(雷聲占) 122
누에떡걸기 46
누에치기 205, 323
눈부럽떼기 159
능원(陵園) 226, 233
늦벼[晩稻] 324
늦벼파종[晩稻播種] 324

ㄷ

다래물마시기 240
다리밟기 19, 71, 75, 365
다이어리데이(Dairy Day) 167
단술먹기 46
단오 75, 172, 176, 188, 215, 216
223, 226, 228 233, 286, 289, 358
단오맞이 254
단작(單作) 326, 329
단풍나무 82
단풍나무물마시기 87
단풍맞이굿 254
단향매(檀香梅) 21
달데이(Doll Day) 167
달래 23, 322
달불이 19

닭싸움[鬪鷄] 213, 294, 295, 298
담배심기 147
담치점[紅蛤占] 178, 278
답교놀이 75
답백초(踏百草) 189
답청(踏靑) 176, 189, 190, 209, 210, 297
답청절(踏靑節) 176, 186, 189
당맞이굿 270
당산나무잎점 178, 278
당산제(堂山祭) 20
당주무당 92
대감거리 92, 193, 256, 262
대감놀이 276
대거리 270
대게 339
대구잡이 156
대마파종(大麻播種) 149
대반야경(大般若經) 96
대사(大祀) 98, 99, 102, 108, 109, 222, 369
대사례(大射禮) 202, 302
대성전[文廟] 113
대신말명거리 256
대잡이 252
대잡이거리 196
대장괘(大壯卦) 28
대장월(大壯月) 28, 32
대한(大寒) 136
대한이 소한 집에 가 얼어 죽는다 136
도깨비 264
도낀 개낀이다 233
도당굿 192, 249, 253
도롱뇽알 86
도미 158, 281
도미국수 281
도산말명 방아찜굿 273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 57, 61
도월(桃月) 179
도하세시기(都下歲時記) 237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176
독경무(讀經巫) 270
독경의례 197
돈돌날이 229, 232
돈돌날이하는소리 231
돈돌라리 231
돗거름 258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331
동곳점 122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0, 38, 39, 40, 41, 42, 43, 45
50, 57, 58, 65, 71, 73, 177
188, 189, 190, 191, 201, 209
210, 211, 223, 228, 236, 237
253, 254, 282, 283, 284, 289
290, 297, 298, 302, 331, 356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29, 58, 187, 188
249, 273, 338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295
동류수(東流水) 188, 207
동물(動物) 12, 14, 143, 205, 206
동물점(動物占) 204, 206, 280
동백꽃 20, 57
동세이실(同世異室) 223
동언해(東言解) 316
동월(桐月) 180, 187
동의보감(東醫寶鑑) 22, 82, 155, 159, 161
281, 282, 283, 358
동제(洞祭) 19, 201, 371
동지(冬至) 82, 98, 158, 176, 215, 216
233, 307, 316, 319, 330, 358
동지맞이 254
동지섣달 긴긴밤에 임 없이는 살아도,
삼사월 긴긴 해에 점심 없이는 못 산다 307
동지섣둘 진진밤이 임 엇인 살아도,
삼ᄉᆞ월 진진혜에 징심 엇인 못 산다 307
동채싸움 19
동해(凍害) 152
동회(洞會) 219
두견주(杜鵑酒) 22, 177, 187, 349, 350
두견주빚기 349, 358
두견화(杜鵑花) 21
두견화전(杜鵑花煎) 210
두벌갈이 146
두부장 350
두부장담그기(豆腐醬-) 350
두신(痘神) 47

두지떡 49
둑[纛] 83, 84, 129, 140, 241
둑새풀 151
둑제[纛祭] 83
뒷전 196, 252, 256, 262
듬북조문 158
듬북캐기 158
등노래 270
따비 150, 151
따비질소리 131
딸 손자는 가을볕에 놀리고 아들 손자는 봄볕에 놀린다 314
떡국 17
떡뜸질 123
떡살(떡) 252
떡살차림 252
떼몰이놀이 66
뗏발치는가래소리 161
띠밭 131

ㄹ

레드데이(Red Day) 167
로즈데이(Rose Day) 167
링데이(Ring Day) 167

ㅁ

마(麻) 149, 333
마구간 200
마농지담그기 350
마당거리 262
마당굿 276
마두희 172
마디점 279
마륙(馬陸) 45
마른논갈이 146
마른써레 154
마마신 193
마보제(馬步祭) 97
마사제(馬社祭) 97
마산오광대(馬山五廣大) 295
마제병(馬蹄餠) 281, 290
마조단(馬祖壇) 97
마조제(馬祖祭) 96, 97
막뒤놀음 92
만구대택굿(萬口大擇-) 257, 262
만기요람(萬機要覽) 352
만수대택굿(萬壽大擇-) 262
만첩홍매화 21
만첩흰매화 21
만춘(晩春) 176, 180, 182
말뛰기놀음 67
말뛰기놀이 66, 67
물레듬북 341, 342
말명거리 262, 276
말몰아내기 47
묾 342
망둥어 308
망제(望祭) 110
맞이굿[迎神] 57, 254, 257
매화나무(Prunus mume Sieb. et Zucc.) 20, 21
맹자(孟子) 98, 113
머그데이(Mug Day) 167
머니데이(Money Day) 167
머리카락 물에 띄우기 206
머리카락 잘라묻기 207
머슴날 36, 38, 39, 40
머슴떡 40
머슴송편 45
메김소리 135, 136
메나리 128, 172, 173
메주 356
멧돼지(Sus scrofa) 14
멧비둘기(Streptopelia orientalis) 15
멧토끼(Lepus sinensis) 15
면암유고(勉菴遺稿) 228
면화(棉花) 46, 123, 329
명물기략(名物紀略) 319
명태(Theragra chalcogramma) 16, 263
모시조개 125, 290

모심기 130
모심기철에는 부지깽이도 놀지 않는다 316
모심는소리 130
모자반 342
모찌기 130
모춘(暮春) 176, 179, 180, 182
모판준비 325
목란 23
목련(Magnolia kobus A.P. DC.) 20, 23
목화파종(木花播種) 326
목화풍년놀이(木花豊年-) 46, 47
못자리 215, 241, 325
묘성(昴星) 71, 73
묘월(卯月) 29
묘일(卯日) 27, 28, 123
묘제(墓祭) 110, 189, 210, 223
무논갈이 146
무방수날 78
무배추파종 327
무비데이(Movie Day) 167
무성왕묘(武成王廟) 83
무연고 노인제사 219
무자후제사(無子后祭祀) 219
무형문화재 61, 117, 270, 355, 365, 369, 371
무후제(無後祭) 219
묵청포[藕平菜] 177
문묘석전(文廟釋奠) 97
문선왕묘(文宣王廟) 83, 121
문소전제(文昭殿祭) 222
문익점(文益漸) 47
문호장굿 367
물명고(物名攷) 338, 352
물방새날 79
물방수날 79
물쑥 125
물쑥나물 125
물한식 228
뮤직데이(Music Day) 167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16
미나리꽃 231, 232
미륭알 85
미암일기(眉巖日記) 352
미역해경(-解警) 340, 341
미용(微龍) 85
민속문화제 366
민천집설(民天集說) 354

ㅂ

바다풀채취 341
바람님 오는 날 51
바람님 오는날과 가는날 54
바람떡 256
바람몰이 47
바람영등 59
바람영등드린다 53, 55, 59
바람올린다 27
바람이 불면 안 되는 날 55
바람점[風占] 65
바룻질 342
박달나무 130, 237, 239
박세당(朴世堂) 323
박심기 150
반고(班固) 33, 179
반야경(般若經) 96
반죽(班竹) 43
반화(頒火) 177, 236, 237
받음소리 135, 136
발렌타인(Valentine) 166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166, 167, 168, 365
방문자점 48, 49
방생(放生) 201, 262
방생계(放生契) 262
방생재(放生齋) 262, 263
방생회(放生會) 263
방신(芳辰) 176, 179, 180, 181
방택(方澤) 98, 102
밭가는소리 127, 132, 134
밭갈이 17, 150, 151, 305, 306, 327, 328, 354
밭매기 328, 354
밭매는소리 134
밭벼파종[山稻播種] 327
밭일구는소리 134

밭작물파종 328
배방선[送神] 56, 61, 66, 67, 68, 69
배소(拜掃) 226
백가반(百家飯) 18
백거이(白居易) 33
백두옹(白頭翁) 23
백운필(白雲筆) 324
백호통의(白虎通義) 33, 179
밴대채날 29, 79
밴대추날 79
밴댕이젓담그기 351
밴댕이추위한다 79
뱀장어(Anguilla japonica) 16
뱃고사 16
뱃기오름 92
뱃놈의 액달(-厄-) 29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 22, 237, 278
법고(法鼓) 18
법정 기념일 363
벗고사(-告祀) 263
벚나무(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 Wils.) 22, 23
벼룩나물 23
벽향주(碧香酒) 178, 187
별상거리 193, 276
별상님 47
별상애기 47
볍씨담그기 329
볍씨치기 330
볏가릿대 18, 26, 38, 40
볏가릿대내리기 43
볏섬들인다 39, 41
병월(病月) 179, 181
보냄 331
보냄이 331
보리 15, 38, 40, 46, 55, 82, 86, 89 137, 151, 308, 312, 325, 329, 351
보리 안패는 삼월 없고, 나락 안패는 유월 없다 308
보리 추위에 중늙은이 얼어 죽는다 312
보리누름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136
보리밭 151, 158, 162, 182, 329, 342
보리밭김매기 151
보리뿌리점 162
보리싹점 88
보릿고개 296, 304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319
보릿고개에 죽는다 319
보춘화(報春花: Cymbidium goeringii Reichb.fil) 20
복과[福裹, 복쌈] 18
복사꽃 20, 178, 180
복사냉각(輻射冷却) 13
복수초(福壽草: 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 20
복숭아꽃 57, 179
복어국[河豚羹] 281
복자(卜者) 196
복조리 18
복토(福土)훔치기 19
복회(福會) 97
볶음점 48
본초강목(本草綱目) 156, 281, 322
본향거리 193
본향당(本鄕堂) 61
본향당신(本鄕堂神) 61, 64
본향듦 57, 64
볼락 158
봄 꿩이 제 바람에 놀란다 309
봄 꿩이 제 울음에 죽는다 309, 310
봄 눈 녹듯 하다 310
봄 뉜 새왓디도 간다 308
봄 문절이는 개도 안 먹는다 308
봄 방 추우면 맏사위 달아난다 313
봄 불은 여우불이라 314
봄 사돈은 꿈에 보기 무섭다 315
봄 이는 띠밭에도 간다 308
봄 잠은 가시덤불에 걸어져도 잔다 309
봄 조개 가을 낙지 317
봄 해에는 아기 데리고 차조 한 말 번다 309
봄 헤엔 애기 둘앙 흐린조 흔 말 버신다 309
봄 좀은 가시자왈에 걸어져도 잔다 309
봄[春] 12, 13, 14, 15, 16, 17, 20, 22, 30 33, 113, 116, 124, 125, 136, 152, 179 180, 181, 182, 183, 189, 190, 191, 197 210, 254, 289, 291, 295, 297, 304,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9, 322, 347, 348, 354

봄갈이(春耕) 238
봄갈치 337
봄감자 143
봄꽃도 한때 309
봄내 여름내 사등이뼈가 휘다 310
봄누에 323
봄떡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310
봄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311
봄맞이꽃 20, 23
봄물에 방개 기어나오듯 311
봄바람에 말씹도 터진다 312
봄바람에 말좆도 터진다 312
봄바람에 여우가 눈물 흘린다 312
봄바람에 죽은 노인 136
봄바람은 처녀바람, 가을바람은 총각바람 312
봄바람은 품으로 기어든다 313
봄바령[糞田] 331
봄볕에 거슬리면(그을면) 보던 님도 몰라본다 313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313
봄보리파종 152
봄비 잦은 것은 가을 지어미 손 큰 것과 같다 314
봄비가 잦으면 가을에 마누라 손이 커진다 315
봄비가 잦으면 마을집 지어미 손이 크다 314
봄비가 잦으면 시어머니 손이 커진다 315
봄비는 벼농사 밑천이다 314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본다 315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연다 315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315
봄에 씨 뿌려야 가을에 거둔다 315
봄에 의붓아비 재 지낼까 315, 316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316
봄에는 굼벵이도 석자씩 뛴다 316
봄에는 생말가죽이 마른다 312
봄철 갈바람에 여우가 눈물 짓는다 312
봄케매기 354
봇줄 154
봉선잡의(奉先雜儀) 226
봉화 196
봉화산 192
봉화산도당굿(峰火山都堂-) 192, 193
부군당굿 92, 253
부정(不淨)가시기 244
부정거리 92, 256, 261, 276
부정경 200
부정굿 270
부정청배 256
부추파종 152
북향화 23
불게(祓禊) 176
불사할머니거리 193
불영등내린다 65
불조통기(佛祖統紀) 262
블랙데이(Black Day) 167
비녀목 294
비달 74
비렴(飛廉) 120
비영등드린다 53
비우달 73
빅게잡이 343
빙절도(氷折稻) 332
빼빼로데이 168
뻐꾹새 울면 참깨 파종이 늦다 334
뽈기뽑기 296

ㅅ

사내기 38
사냥거리 261
사대(射臺) 102
사독(四瀆) 109, 244, 248
사디소리 133
ᄉᆞ레기 328
사례홀기(四禮笏記) 218
사림파(士林派) 202, 203
사마주(四馬酒) 187
사마천(司馬遷) 29, 294
사명일(四名日) 223, 228
사물이명록(事物異名錄) 31, 32
사시제(四時祭) 26, 228
사시찬요(四時纂要) 166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140, 141
사월 없는 곳에 가서 살면 배는 안 곯는다 319

사직단(社稷壇) 273
사직대제(社稷大祭) 98
사진(四鎭) 109, 244
사천왕(四天王) 31
사초(莎草) 78, 176, 218, 223
사친가(思親歌) 186
사한제(司寒祭) 189
사화(賜火) 177, 236, 237
사회(射會) 302
삭일(朔日) 36, 41, 42, 43, 57
산개구리(Rana dybowskii) 15
산다래나무 22
산동백 21
산떡[**饆餅**, 꼽장떡] 187, 282
산령경 200
산림경제(山林經濟) 141, 145, 217, 324, 332, 333, 334
산맥이 196, 200
산메기 196
산벚나무 23
산병(**饆餅**) 177, 282
산수유꽃 20
산수유나무(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 22
산신거리 256
산신굿 270
산신할머니 192
산제불공 200
산제석거리 196
산천거리 256, 261, 276
산천성황(山川城隍) 120
살구꽃 20, 28, 179
삼[麻] 28
삼겹살데이 168
삼국사기(三國史記) 98, 99, 103, 106, 109, 113
149, 200, 244, 256, 344, 356
삼국유사(三國遺事) 66, 67, 200, 256, 285, 286
삼국지(三國志) 46, 99, 256
삼독(三毒) 201
삼묘일보기(三卯日-) 47, 123
삼사월 손님에 반가운 손님 없다 315
삼사월 아기 어머니 돌이라도
이빨 아니 들어서 못 먹는다 317
삼사월 웅마 318
삼사월에 난 아기 저녁에 인사한다 317
삼사월에는 말가죽도 뻣뻣하다 317
삼사월에는 숭어 눈 어둡다 181
삼삼일(三三日) 189
삼색유산놀이(三色遊山-) 296
삼샛날 190
삼성(參星)보기 72
삼신[産神] 31, 196, 200
3월(三月) 12, 13, 15, 16, 20, 30, 32, 57, 82
85, 88, 89, 117, 141, 142, 143, 147
149, 151, 166, 167, 168, 171, 176, 177
179, 180, 182, 183, 186, 187, 188, 189
190, 191, 192, 200, 201, 202, 203, 204
211, 213, 215, 216, 218, 219, 238, 244
249, 252, 253, 263, 264, 288, 289, 295
296, 297, 302, 308, 319, 329, 331, 332
334, 335, 339, 340, 342, 350, 356, 362
363, 364, 365, 366, 369, 371
삼월 모롬 물찌엔 하우장 각씨도 구덕창 듣나 318
삼월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136
삼월 보롬 물찌부떠 자리 갈른다 318
삼월 보롬 물찌엔 도독질 생각나민 집에 든다 318
삼월 보름 무수기부터 살림 가른다 318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도둑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318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선비 부인도 바구니 차고 내닫는다 318
3월 넙치는 개도 안 먹는다 308
삼월달에 명주실 선돈 쓴다 319
3월 3일 30, 183, 190, 191
203 , 272, 303, 363
3 · 1운동 362
3 · 1절(三一節) 171, 178, 362
삼일절 362
삼재(三災) 18
삼재면법(三災免法) 19
삼점[麻占] 48, 49
삼중일(三重日) 186
삼진일(三辰日) 186, 190
삼짇고사(告祀-) 200
삼짇날 19, 176, 178, 186, 187, 188, 189
191, 192, 197, 200, 201, 204, 205
206, 207, 208, 210, 211, 214

삼짇불공(-佛供) 201
삼천리노래 229, 231, 232
삼춘(三春) 고한(苦旱) 가문 날에 감우(甘雨)오니 즐거운 일 319
삼학(三學) 201
삼ᄉᆞ월 웅매 318
삼ᄉᆞ월에 숭에 눈 어둑나 318
삼ᄉᆞ월엔 애기 어멍 돌이라도 늬 아니 들엉 못 먹나 317
삼ᄉᆞ월엔 물가죽도 버짝 흔다 317
상강(霜降) 22, 144, 150, 315, 327, 328, 337, 354
상공의 날(商工-) 178, 363
상례비요(喪禮備**要**) 226
상례편람(喪禮便覽) 218
상사일(上巳日) 86, 186, 187, 190, 191, 200, 201, 211
상사절(上巳節) 176
상산거리 193
상산부군맞이 273
상원(上元) 18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99
상정제(上丁祭) 103
상제(上除) 176, 186, 190
상춘(賞春) 176
상치세전(尙齒歲典) 18
새우 338
새점[鳥占] 178, 277
색경(穡經) 141, 323, 330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Bl.) 21
생강나무꽃 20
생업(生業) 16, 236
생타살거리 262
서경(書經) 32
서낭거리 262
서낭굿 276
서릉씨(西陵氏) 265
서여증식(薯**蕷**蒸食) 283
서해안배연신굿 273
서향로(瑞香露) 187
석수어탕(石首魚湯) 283, 289
석전(石戰) 19, 75
석전(釋奠) 103, 113, 116, 117
석전대제(釋奠大祭) 97, 103
석채(釋菜) 103, 113
선농(先農) 102, 106, 121
선농제단 108
선농제(先農祭) 82, 106
선머슴날 39, 41
선목제(先牧祭) 97
선배머슴 153
선배머슴대접하기 153
선부정 92, 193
선신(船神) 68
선잠단(先蠶壇) 266
선잠제(先蠶祭) 264
선조실록(宣祖實錄) 277
선주굿 92
선행절차(先行節次) 108
설경(雪景)맞이 254
설날 17, 18, 56, 176, 215
설문(說文) 182
설연(雪蓮) 20
설할초(雪割草) 22
섬떡 49
섬밥먹기 49
섭제(攝祭) 102, 108
성군(星群) 28, 73
성균관 116, 282
성생기(省牲器) 112
성수거리 262, 276
성인식(成人式) 40
성종실록(成宗實錄) 82
성주거리 92, 256, 258, 262
성주굿 270, 273
성주단지 52, 55
성주왕신거리 92
성황사(城隍祠) 272, 273
세금의 날 363
세배맞이 254
세병(歲餠) 38, 40, 45
세수(歲首) 17, 35, 47
세습무(世襲巫) 270
세시명절(歲時名節) 197
세시풍속(歲時風俗) 17
세시풍요(歲時風謠) 42
세인굿 273

세존굿 270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61, 248, 319, 347
세주(歲酒) 17
세찬(歲饌) 17
세화(歲畵) 18
소금가마 344
소금고사 263
소금밭 305
소금생산 344
소날 16, 146
소놀음굿 273, 276
소놀이 19
소놀이굿 261
소대감거리 256, 261, 276
소대감놀이 273
소대망어법(小台網漁法) 157
소라껍데기 163
소라빵 163
소면주(小麵酒) 187
소모는소리 127, 132, 134
소묘(掃墓) 218
소사(小祀) 83, 84, 89, 109, 120, 222, 276
소손(素飡) 222
소쩍새울음점 280
소학교 168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136
소한(小寒) 136
소화(韶華) 179, 181
손님굿 270
손님마마 47
솔떡 45
솔잎 46
송남잡지(松南雜識) 137
송동숙(宋東淑) 270
송병 39, 45
송사(宋史) 187
송상현(宋象賢) 117
송순(松荀) 354, 355
송순주담그기(松筍酒-) 354
송엽병 45
송주(松酒) 354
송편 40, 45, 49, 59, 282, 323
쇠노되오리[所老狄所里] 332
쇠머리대기 367
수란(水卵) 177, 284
수로왕(首露王) 268
수면(水麵) 177, 187, 209, 213
수목신앙(樹木信仰) 98
수복병(壽福餠) 38, 40, 45
수세(守歲) 18
수수 40, 50, 52, 134, 264
수심방[首巫] 67
수액(樹液) 82, 239, 240
수한점(水旱占) 72
수호목(守護木) 20
숙식(熟食) 215, 217
술 빚는 법 349, 354
술방문 354
숭선전제례(崇善殿祭禮) 268
숭어껍질에 밥 싸먹다 논 판다 161
숭어맛을 겨울숭어 앉았다
나간 자리 뻘만 훔쳐먹어도 달디달다 161
숭어잡이 159
스컹크 캐비지(Skunk cabbage) 22
습사(習射) 302
승기악탕(勝妓樂湯) 281
시경(詩經) 33, 181, 182, 183
시루떡 44, 123, 260
시사(試射) 302
시의전서(是議全書) 209, 280, 282, 354
시제(時祭) 17, 186, 201, 203
시제답(時祭畓) 210
식물(植物) 20, 23
신과세제 61
신농(神農) 106
신당서(新唐書) 98
신사굿 254
신사맞이굿 254
신수점치기 206
신입생 365
신장거리 193, 256, 26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57, 67, 298
신청울림 237
신화(新火) 177, 215

신화(神花) 257, 260
실갱이 341, 342
실버데이(Silver day) 167
심청굿 270
12율(律) 33, 179
써레시침 154
써레질 130, 153, 154, 155, 305
써레질 물은 사촌도 안 준다 154
써레질 물은 형제간에도 안 나눈다 154
써레질소리 130, 135
썩은달 26
쑥[靈艾] 183, 282, 285, 286, 287, 288, 290, 322
쑥갠떡 287
쑥국[艾湯] 285, 288, 289
쑥굴리 285, 286
쑥단자[香艾團子] 286, 287
쑥떡[艾餠] 49, 280, 287
쑥버무리 288
쑥범벅 288
쑥설기 287, 288
쑥시루떡 287, 288
씀바귀나물 125
씀배나물 126
씨드림 57, 61, 64
씨름꽃 23

ㅇ

아수라(阿修羅) 31
아우내 3 · 1절 기념 봉화제 171
아우내봉화제(-烽火祭) 171
악학궤범(樂學軌範) 23
악해독제(嶽海瀆祭) 109, 110
안락서원(安樂書院) 117
안반고사 256
안택고사 44
앉은뱅이꽃 23
앉은부채(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20, 21, 22
애탕(艾湯) 285, 289
애플데이(Apple Day) 168
액막이 17
앵두나무꽃 20
야광귀(夜光鬼) 18
약마희(躍馬戱) 27, 59, 61, 66
약물마시기 240
양로례(養老禮) 202
양열재료(釀熱材料) 143
양주방(釀酒方) 354
양효(陽爻) 29, 183
어란(魚卵) 161
어러리타령 173
어사용 128
어우야담(於于野談) 352
얼레지(Erythronium japonicum Decne.) 20, 23, 305
여단(厲壇) 273
여름바령 332
여름숭어는 개도 안 먹는다 161
여씨춘추(呂氏春秋) 32, 179
여우(Vulpes vulpes) 14, 312
여우도 눈물을 흘린 날이다 312
여월(如月) 29, 32
여월(麗月) 30, 32
여자의 날(女子-) 191
여제(厲祭) 84
여종날[婢日] 41
여주산병(驪州散餠) 283
여지도서(輿地圖書) 254, 352
여한(餘寒) 30, 33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110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 331
연날리기 19, 173, 294
연달래 307
연등회(燃燈會) 112, 256
연수(年首) 17
연은전(延恩殿) 23
연인의 날 166
연평도 92, 345, 346, 347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42, 73, 186, 201, 214
염벗 264
염양(艷陽) 179, 181
염업(鹽業) 344
염전밭가는소리 305

염한이[鹽漢] 236
영감놀이(令監-) 64, 68
영고(迎鼓) 256
영동할머니날 51, 55
영동할미달 30
영등굿 56, 57, 64
영등날 30, 57
영등날바람점 65
영등내리기 52, 55
영등달 30, 57
영등달 초하루 사흘 맑으면 종달리
여자 죽젓개 들고서 춤춘다 70
영등당[燃燈堂] 52
영등맞이 58, 59
영등물뜨기 65
영등송별제 64
영등신 57, 64, 65
영등제 58, 65
영등하르방 57, 58
영등할망 57, 58, 59
영등할망 청치메 입엉 들어오면 날 좋곡,
우장 쎙 들어오민 날 우치곡,
무지게 입엉 들어오민 날 춥곡, 사나우민 ᄇᆞ름 분다 70
영등할머니 51, 52, 56, 65
영등할머니 청치마 입어서 들어오면 날 좋고,
우장 써서 들어오면 비 내리고,
누비옷 입고 들어오면 춥고, 사나우면 바람 분다 70
영등ᄃᆞᆯ 초ᄒᆞ를 사을 ᄇᆞᆯ민 종달릿넌 남죽 들렁 춤춘다 70
영산 3·1민속문화제(靈山三一民俗文化祭) 366
영산쇠머리대기 367
영산줄다리기 367
영산홍(映山紅) 22
영신제(迎神祭) 256
영월(令月) 31, 32
영전거리 256, 262
영정물림 273
영해별신굿놀이(寧海別神-) 270
예기(禮記) 32, 33, 98, 102, 106, 113, 179, 180, 264, 277
옐로우데이(Yellow Day) 167
오곡밥 53, 54
오동나무꽃 180
오랑캐꽃 23
오렌지데이(Orange Day) 167
오례의(五禮儀) 89
오리나무 20, 130
오리정 신청궤 64
오리정 정대우 201, 209, 244
오미자 국물 209, 210
오사리굴비 284
오악(五岳) 109, 201, 244
오쟁이 40, 49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83, 172, 352
오추례(五推禮) 106, 108
옥란 23
온양수(溫養水) 147
올개심리 333
올벚나무 23
올벼 65, 332
올벼심기[早稻-] 332
올벼심리 272, 333
와인데이(Wine Day) 167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ura) 23
왕사(王社) 98, 99
왜겨자[倭芥子] 145
요왕맞이 57, 64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 61
용소(龍沼)풀이 244
용소침돈례(龍沼沈豚禮) 245
용신거리 196
용신제 244, 245
용알[龍卵] 85
용왕굿 92, 270
용왕제 198
용재총화(慵齋叢話) 38, 45
우경(牛耕) 146
우물굿 92
우물용왕 92
우사(雨師) 120
우암선생문집(寓庵先生文集) 249
우옥주 260
운사(雲師) 120
원놀음 19
원님놀이 270
원다리밟기 367

원단(元旦) 17, 20
원단화 20
원사일(元巳日) 186, 191
원상제(元狀祭) 110
원일소발(元日燒髮) 18
월자(月滋) 50
위안묘제(慰安墓祭) 218
유가의례(遊街儀禮) 252
유관순 171
유두맞이 254
유상곡수(流觴曲水) 176
유향소(留鄕所) 202
육묘(育苗) 325, 330
윤작(輪作) 326
윤흥신(尹興信) 117
윷놀이 19, 173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369, 371
은처사제사 219
음식보(飮食譜) 358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 277
이강주(梨薑酒) 178
이능화(李能和) 31
이담속찬(耳談續纂) 314
이랴소리 127, 132
이른벼[早稻] 324
이방[豫防] 42
이상 건조 현상(異常乾燥現象) 13
28성수(星宿) 73
이아(爾雅) 29, 181
이어짓기 145
이원진(李元鎭) 57, 337
2월(二月) 12, 19, 20, 26, 27, 28, 29, 30, 31
32, 33, 36, 37, 38, 39, 40, 41, 42
47, 50, 55, 56 57, 58, 59, 64, 67
71, 72, 73, 74, 75, 78, 79, 83, 89
92, 97, 98, 110, 112, 113, 116, 120
122, 123, 137, 141, 142, 145, 148, 149
154, 163, 166, 167, 168, 171, 172, 173
180, 182, 183, 215, 226, 283, 308, 329
331, 335, 351, 356, 365, 366, 369, 371
이월 눈 가린 지게 잠긴다 136
이월 눈이 지게를 덮는다 136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137
2월 천둥이 조기 몰아 올린다 137
이월 초하루 36, 37, 39, 40, 48
50, 55, 65, 156, 336
이월 초하룻날 바람이 불면 봄바람이 세다 51
이월 초하룻날 장닭 꼬리만 날려도 곡식이 준다 51
이월 초하룻날 체질을 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 곡식의 피해가 많다 51
이월 초하룻날에 바람이 불면
그 해에 폭풍이 많고 흉년이 든다 51
이월밥 해먹는 날 51, 55
이월에 보리 환상(還上) 갔다가 얼어 죽는다 137
이월이면 머슴이 담 붙들고 운다 316
이월할매 먹는날 51, 56
이장(移葬) 78, 236
이하(李賀) 28
이형상(李衡祥) 248, 272
이화전(梨花煎) 210
익은타살거리 262
인월(寅月) 182
인조실록(仁祖實錄) 272
일꾼날 39, 42
임경업 346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145
임원십육지(林園十六誌) 354
입동(立冬) 82, 327, 356
입수도(入宿度) 71
입춘(立春) 12, 16, 19, 106, 331
입춘날 내린 누 작대기 잠긴다 137
입하(立夏) 12, 106, 120, 152, 235, 238, 329, 346
입하사리 239
입학식(入學式) 364
잎담배 147
잎맞이굿 254

ㅈ

자두나무꽃 20
자산어보(玆山魚譜) 159, 319, 338, 340, 342, 351
자염(煮鹽) 263, 305, 344

자작나무 22, 87
자화지정(紫花地丁) 23
작두거리 92, 255, 275
작헌(酌獻) 108, 112, 121, 265
잔내림거리 262
잔춘(殘春) 176
잠상집요(蠶桑輯**要**) 323
잠상촬요(蠶桑撮**要**) 323
잠서언해(蠶書諺解) 323
좀수굿 57
잠실(蠶室) 264
잠월(蠶月) 179, 181
장(醬) 356
장군거리 92, 256, 262, 276
장군굿 207
장군상(將軍像) 18
장닭꼬리점 49
장담그기[沈醬] 356
장미화전(薔薇花煎) 210
장수굿 270
재계(齋戒) 84, 108, 112, 212, 265
재예자(才藝者) 202
재양(載陽) 176, 179, 182
재지사족(在地士族) 202
저인망 340, 345
적전례(籍田禮) 106
전갑섬타령 231
전곶목장(箭串牧場) 97
전복 57, 67, 162, 319, 359
전어지(佃漁志) 338
전춘(殿春) 179, 182
전춘(餞春) 297
전폐(奠幣) 84, 108, 121, 265
절사(節祀) 177, 216, 223, 265
절제(節祭) 110
점나도나물 23
정구불식(正狗不食) 263
정발(鄭撥) 117
정약전 340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우는 닭의 울음소리가
10번을 넘으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 51, 70
정월대보름 161, 171, 335
정이월 늦바람에 바위 끝 눈물난다 137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 137
정제(丁祭) 103, 113
정초 십이지일(十二支日) 18
정학봉 261
정화수 20, 47, 59
제 방귀에 놀란다 309
제기차기 137, 216
제면굿 270
제비(Hirundo rustica) 14, 20, 186, 191, 206
제비꽃(Viola mandshurica W. Becker) 22, 23, 300
제비맞이 207
제비보고말하기 207
제비 오는 날 186, 191
제비집점 204, 208
제석(帝釋) 31, 92
제석(除夕) 18
제석거리 261, 276
제석굿 273
제석달[帝釋月] 31
제석할미달(帝釋-) 31
제액초복(除厄招福) 19
제웅직성 19
제웅치기 19
제주칠머리당굿 61
조기[石首魚] 61, 122, 137, 177, 245, 272
281, 283, 284, 325, 346, 347
조기심리 272
조기잡이 17, 345, 346, 347
조기탕(-湯) 289
조리희(照里**戱**) 172
조상거리 92, 256, 262, 276
조상경 200
조상굿 270, 276
조선고유색사전 254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31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282, 284, 285, 354, 355, 358
조선부(朝鮮賦) 187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02, 211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 295
족제비(Mustelar sibirica) 14

졸업식(卒業式) 168, 169, 170
좀볶는날 42
좀상날 72, 75, 365, 366
좀생이 보는 날 72
좀생이날 71, 75, 78, 365, 366
좀생이별 365
좀생이보기 366
좀생이점 73
종경도놀이(승경도놀이) 19
종구(種球) 335
종다리(Alauda arvensis) 15
종묘제 102
주꾸미잡이 162
주당물림 193, 261, 276
주례(周禮) 96, 98, 106, 113, 202, 264, 277
주복어법[壺網漁法] 157
주역(周易) 28, 33, 150, 183
주자가례(朱子家禮) 228
주찬(酒饌) 354, 355
죽력고(竹瀝膏) 178, 187
죽서루 171, 172
죽서문화제(竹西文化祭) 28, 171
죽해(竹蟹) 338
줄다리기 19, 171, 172, 173, 292, 368
중구일(重九日) 201
중류(中霤) 276, 277, 295
중사(中祀) 83, 98, 106, 108, 109, 110 113, 120, 222, 244, 264
중삼일(重三日) 176, 186, 191
중양(仲陽) 26, 31, 32
중양절 222
중요무형문화재 57, 61, 103, 172, 273 276, 292, 350, 367, 369
중용(中庸) 42
중이(重耳) 215
중추(仲秋) 110, 210
중춘(仲春) 26, 27, 32, 42, 97, 98, 110, 179
중화절(中和節) 26, 37, 41, 42, 43
중화척(中和尺) 26, 36, 41, 42, 43
즙장(汁醬) 356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89, 144, 282 290, 352, 354, 358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56
지게상여놀이 297
지도군총쇄록(智島郡叢刷錄) 346
지력(地力) 150, 153
지방무형문화재 232
지봉유설(芝峰類說) 86, 145, 159
지신밟기 296
지신제 172
지진신(地鎭神) 122
지충캐기 162
직성(直星) 19
직파법 324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20, 21, 24 307, 349
진달래꽃 피면 청어 배 돛 단다 319
진달래꽃노래 306
진달래꽃술담그기 358
진달래꽃타령 307
진달래술 22
진달래화면 210
진달래화채(-花菜) 209
진세식(進世式) 40
진월(辰月) 176, 179, 182
진적맞이굿 254
진좌제(鎭坐祭) 112
진채식(陣菜食) 18
집터다지는소리 135

ㅊ

차귀당제(遮歸堂祭) 272
차귀사(遮歸祠) 249, 273
차례(茶禮) 223
찰밥 59, 349
참게 348
참깨파종 333
참꽃 21, 113
참나무 20, 130, 153
참례(參禮) 117, 120, 126
참새(Passer montanus) 14, 15

참외파종 155
참조기 137
창부거리 92, 196, 256
창부님 196
채상단(採桑壇) 264
처용(處容) 19
천사방성(天駟房星) 96
천사성(天駟星) 96
천신 121, 171, 188, 256
천신레(薦新禮) 226
천신신앙 256
천연두 47
천왕굿 270
천외사(川外祠) 249, 273
천일록(天一錄) 140
천일염(天日鹽) 305, 344, 345
철물이굿 254, 273
철쭉꽃 307
청가록(淸嘉錄) 72
청궁맞이거리(불사거리) 256
청명(淸明) 77, 79, 88, 140, 176, 216, 218, 233
236, 237, 238, 241, 324, 330, 341, 358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238
청명주담그기(淸明酒-) 358
청애병(靑艾餠) 286
청어 59, 319, 339
청좌굿 270
청참(聽讖) 18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 187, 297
청포묵[菉豆泡] 177
청호병(菁蒿餠) 189
초감제 57, 64, 67, 69
초감흥거리 261, 276
초경(初耕) 19, 20, 27
초인형(草人形) 299
초춘사(楚春祠) 249, 273
초콜릿 166
최윤의(崔允儀) 99
최제안(崔齊顔) 96
추석 222, 223, 226, 228, 233, 272, 332, 333, 350
춘경(春耕) 89, 155, 331
춘경제(春耕祭) 65, 178, 188
춘계문묘석전(春季文廟釋奠) 47, 113
춘관통고(春官通考) 121
춘난(春蘭) 20
춘분(春分) 12, 20, 26, 27, 36, 40, 82, 88, 89
147, 152, 176, 236, 322, 326
춘용절(春龍節) 85
춘은(春殷) 33
춘주(春酒) 358
춘창(春暢) 176, 182
춘태잡이(春太-) 163
춘한(春寒) 30, 33
춘향전(春香傳) 295, 309, 319
춘화(春和) 182
춘훤(春暄) 182, 183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117, 120
치생요람(治生要覽) 354
친경(親耕) 102, 265
친영례(親迎禮) 202
친잠례(親蠶禮) 264
친잠의(親蠶儀) 264
친제(親祭) 108
칠머리당 57, 61, 64, 65
칠사(七祀) 222, 276, 277
칠석 197
칠석맞이 254
칠성거리 256, 261, 276
칠추례(七推禮) 108
침장(沈醬) 356
침호두(沈虎頭) 110

ㅋ

케매기 353
케지기 354
콩 19, 27, 28, 38, 42, 43, 45, 48, 50
133, 134, 280, 285, 304, 328, 329
콩따먹기놀이 51
콩볶아먹는날 42
콩점[豆占] 50
쾌월(夬月) 183

쿠키데이(Cookie Day) 167
키스데이(Kiss Day) 167

ㅌ

타살거리 256, 276
타살굿 276
탈굿 270
탈놀음 295
탈춤 19
탐라시기사지(耽羅時紀事志) 249
탐라지(耽羅誌) 57, 337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353
탑돌이 97
탕평채(蕩平菜) 289
탕평책(蕩平策) 289
태기문화제(泰岐文化祭) 28, 173
태기제례 173
태려(泰厲) 276
태사(太社) 98, 99, 102, 112
태종실록(太宗實錄) 106, 110, 237
태직(太稷) 99, 102
터주상영거리 262
테우 66, 158
토란심기[土蓮-] 334
토염 305
토왕일(土旺日) 276
통고사 263
통과의례 399
통그물 157
투계(鬪鷄) 294, 295, 298
투란(鬪卵) 216
틀모시 292
틀못[機市] 292

ㅍ

파설초(破雪草) 22
파시 17, 347
파파종 156
팔관회(八關會) 256
팔일무(八佾舞) 106
팥 45, 133, 134, 205, 282, 285, 288, 329
패관잡기(稗官雜記) 314
팽이치기 19
편사(便射) 302, 303
평예(萍翳) 120
포토데이(Photo Day) 167
포틴데이(Fourteen Day) 166, 167, 168
폴레아데스 73
풀각시놀이[閣氏戱] 298
풀싸움 300, 301
풍사(風師) 120
풍신(風神) 26, 30, 36, 44, 51, 53, 54, 65
풍신제(風神祭) 20, 27, 40, 53, 54, 55, 58, 65
풍신할머니 53
풍어제(豊漁祭) 26, 270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120
피파종[稷播種] 335

ㅎ

하돈갱 282
하루다지고사(-告祀) 44
하리아드레날 43
하소정해(夏小正解) 12, 21, 54, 317
하지(夏至) 12, 21, 54, 317
학위 수여식 170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 307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344
한로(寒露) 150
한림별곡(翰林別曲) 354
한서(漢書) 82, 83
한식(寒食) 122, 176, 192, 215, 216, 218
219, 222, 223, 226, 228, 229
232, 233, 236, 238, 272, 330, 369
한식성묘(寒食省墓) 223, 226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176, 233

한식절사(寒食節祀) 223
한식제사(寒食祭祀) 223
한식차례(寒食茶禮) 223, 226
한정록(閑情錄) 140, 141, 334
할미꽃(Pulasatilla koreana Nakai) 223
해(蟹) 223, 226
해동농서(海東農書) 140, 143
해동죽지(海東竹枝) 72, 74, 226
해신당 172
해신제 172
햇밀천신(薦新) 254
행례절차(行禮節次) 108, 121
행상(行像) 97
행주대첩제(幸州大捷祭) 178, 371
행주산성 371
행포지(杏蒲志) 324
향대부(鄕大夫) 202
향랑각시 속거천리(香娘閣氏速去千里) 27, 45
향례합편(鄕禮合編) 203
향사당(鄕射堂) 302
향사례(鄕射禮) 202, 203, 204, 302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334
허그데이(Hug Day) 167
허봉(許篈) 365
혈하희(絜河戲) 172
협사(祫祀) 277
협종(夾鐘) 32, 33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189, 300
혜풍(惠風) 347
호귀마마(胡鬼媽媽) 47
호드기불기 301
호랑나비 205, 206
호리소소리 132
호박심기 335
혼작(混作) 326, 329
홀애비바람꽃 20
홍만선 217
홍무예제(洪武禮制) 84, 102, 120, 121
홍석모 30, 176, 237
화간(禾竿) 39
화간곡(禾竿穀) 45
화룡제(畵龍祭) 110
화류(花柳) 176, 189, 190, 211, 214
화면(花麵) 177, 187, 209, 213
화신(花信) 12, 176
화염(花鹽) 263, 344
화우(花雨) 176
화월(花月) 179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 137
화이트데이(White Day) 166, 167, 168, 178, 365
화적(禾積: 볏가릿대) 18
화전(火田) 134, 304
화전(花煎) 20, 176, 177, 187, 188, 191
209, 210, 211, 213, 214, 349
화전가(花煎歌) 210, 213
화전계(花煎契) 213
화전놀이(花煎-) 186, 211, 214, 215, 296
화전놀이노래 214
화조(華朝) 32, 33
화해굿 270
환곡(還穀) 137
환구제(圜丘祭) 121
환병(環餠) 177, 281, 290
환상(還上) 137
환웅(桓雄) 285
환자(還子) 137
활쏘기대회[射會] 187, 291, 302
황매목(黃梅木) 21
황사(黃砂) 13, 14
황저합탕(黃苧蛤湯) 290
황해도굿 92
횃불싸움 75
회남자(淮南子) 32, 179
횡성회다지소리 173
효제자(孝悌者) 202
후직(后稷) 98, 99, 106
후토(后土) 98, 99
훈몽자회(訓蒙字會) 371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140
흥글소리 133
흥륜사(興輪寺) 97
희월(喜月) 176
흰나비 205
흰매화 21

집필자

강등학(姜騰鶴) 강릉대학교
강성복(姜成福) 충청매장문화연구소
강재철(姜在哲) 단국대학교
강정식(姜晶植) 제주대학교
고광민(高光敏) 제주대학교박물관
고재환(高在奐) 전 제주교육대학교
권삼문(權三文) 경북구미시청
권태효(權泰孝) 국립민속박물관
김경남(金京南) 중앙대학교
김경집(金敬執) 동국대학교
김기형(金基珩) 고려대학교
김낙효(金洛孝) 백석대학교
김동섭(金東燮)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김명자(金明子) 안동대학교
김민환(金玟煥) 서울대학교
김상보(金尙寶) 대전보건대학
김수미(金秀美) 국립민속박물관
김승찬(金承璨) 부산대학교
김시덕(金時德) 국립민속박물관
김재호(金在浩) 안동대학교
김정석(金正錫) 고려대학교
김 준(金 準) 목포대학교
김지욱(金志昱) 경기도박물관
김진순(金鎭順) 코리아루트
김철웅(金澈雄) 고려대학교
김태수(金泰水) 삼척시립박물관
김헌선(金憲宣) 경기대학교
김효경(金孝慶) 한남대학교
나경수(羅景洙) 전남대학교
나승만(羅承晩) 목포대학교
류종목(柳鍾穆) 동아대학교
문금현(文錦賢) 숙명여자대학교
문무병(文武秉) 제주교육박물관
문순덕(文舜德) 제주대학교
박경하(朴京夏) 중앙대학교
박록담(朴碌潭) 한국전통주연구소
박선애(朴善愛) 국립민속박물관
박성석(朴性錫) 경상대학교
박은호(朴殷浩) 한양대학교
박인경(朴仁璟) 대구가톨릭대학교
박호석(朴虎錫) 농협대학
서연호(徐淵昊) 고려대학교
서영대(徐永大) 인하대학교
서해숙(徐海淑) 전남대학교
서혜경(徐惠卿) 전주대학교
선영란(宣英蘭) 목포대학교
신하령(申河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심승구(沈勝求) 한국체육대학교
안정윤(安廷允) 중앙대학교
양영자(梁永子) 제주대부속중학교
양종승(梁鍾承) 국립민속박물관
염미경(廉美炅) 제주대학교
오석민(吳碩珉) 충남역사문화원
오세길(吳世吉) 동아대학교
유승훈(柳承勳) 부산박물관
유재복(柳在福) 남원 아영초등학교
윤덕인(尹德仁) 관동대학교
이경엽(李京燁) 목포대학교
이관호(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이균옥(李均玉) 경북대학교
이남숙(李南淑) 이화여자대학교
이범직(李範稷) 건국대학교
이세희(李世熹) 전 옹진군지편찬위원회
이소라(李素羅) 민족음악연구소
이영옥(李永玉) 부산여자대학교
이영재(李英宰) 영양군청
이옥희(李玉姬) 전남대학교
이 욱(李 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정기(李貞基) 국립민속박물관
이찬욱(李燦旭) 중앙대학교
이창식(李昌植) 세명대학교
이창희(李昌熙) 고려대학교
이태호(李泰鎬) 이천시립박물관
이필영(李弼泳) 한남대학교
이현수(李鉉洙) 조선대학교
인권환(印權煥) 전 고려대학교
임희수(林姬洙) 장안대학
장정룡(張正龍) 강릉대학교

전경욱(田耕旭) 고려대학교
정숙인(鄭淑仁) 남서울대학교
정연학(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정현미(鄭賢美) 국립민속박물관
정후수(鄭後洙) 한성대학교
조경만(趙慶萬) 목포대학교
좌혜경(左惠景) 제주대학교
주강현(朱剛玄)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주영하(周永河)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인택(朱仁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지두환(池斗煥) 국민대학교
지춘상(池春相) 전 전남대학교
천진기(千鎭基) 국립민속박물관
천혜숙(千惠淑) 안동대학교
최순권(崔順權) 국립민속박물관
최영은(崔英銀) 건국대학교
최운식(崔雲植) 한국교원대학교
최인학(崔仁鶴) 전 인하대학교
최정화(崔廷華) 국립수산과학원
최형식(崔亨植) 호원대학교
표인주(表仁柱) 전남대학교
하효길(河孝吉) 전 국립민속박물관
한미옥(韓美玉) 전북대학교
한양명(韓陽明) 안동대학교
한형주(韓亨周) 고려대학교
현용준(玄容駿) 전 제주대학교
홍성훈(洪性薰) 가락고등학교
홍태한(洪泰漢) 중앙대학교
황경숙(黃京淑) 부산대학교
황경순(黃慶順) 문화재청

편찬팀

기 획 : 천진기
김종대, 장장식, 황보명, 최명림

편수원 : 김계연, 김수미, 김창호, 박선애, 이정기

한국세시풍속사전

봄편

발행일	2005년 12월 26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전화 02-3704-3114) www.nfm.go.kr
기획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한국세시풍속사전편찬팀
감수	임동권, 장주근
윤문 · 교열 · 교정	김형윤 편집회사
제작	임학래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0152-000082-01
Published	Dec 2005
Publishe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www.nfm.go.kr
Production	Design intro / www.gointro.com